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 호

평 양 근로자사 1986

근로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1 호 (525)

차 례

김일성

신 년 사

(1986년 1월 1일)

친애하는 동지들!

동포형제자매들!

우리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인 진군길우에 또하나의 빛나는 자욱을 남기고 희망찬 새해 1986년을 맞이합니다.

나는 새로운 승리와 영광으로 빛날 1986년을 맞이하면서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우리의 전체 인민들과 남녘의 형제들, 재일동포들과 해외의 모든 우리 겨레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드립니다.

1985년은 조국해방 40돐과 조선로동당창건 40돐을 민족적경사로 기념한 매우 뜻깊은 해였습니다.

조국해방 40돐과 당창건 40돐을 맞으며 전당과 온 나라가 높은 혁명적열정으로 들끓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빛나는 승리가 이룩되였습니다.

지난해에 앙양된 혁명적분위기속에서 우리 당의 위력과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이 한층 강화되였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더욱 공고화되고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높이 발휘되였습니다.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에 대한 신뢰가 전례없이 높아지고 혁명적인 투쟁기풍과 생활기풍이 철저히 확립되였습니다. 우리 혁명의 정치적력량이 더욱 강화된것, 이것이 지난해에 이룩된 가장 귀중한 성과입니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들은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생산을 장성시키고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놓았습니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의 창조적로동과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당이 내세운 방대한 과업들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였으며 자립경제의 위력을 보여주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서고 80여개의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와 직장들이 건설되

여 새로 조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인민경제의 부문내부구조가 더욱 완비되고 그 자립성이 한층 강화되였으며 생산능력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당의 부름에 언제나 충실한 룡성과 락원의 로동계급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체의 설계, 자체의 기술로 1만톤프레스와 대형산소분리기를 훌륭히 만들어냄으로써 우리 나라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강화하며 경제건설의 새로운 전망을 열어놓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영용한 남포갑문 건설자들은 부닥치는 난관을 용감하게 이겨내면서 여러가지 새로운 공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갑실과 무넘이언제를 비롯한 기본구조물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용감한 북부철길건설자들은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건설공사를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새로 건설하는 철길 전구간의 토반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용감한 청년건설자들이 세운 자랑찬 위훈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력사에 빛나게 기록될것입니다.

지난해에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교육부문에서는 18개의 대학이 새로 늘어나 민족기술간부양성사업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되였으며 과학연구부문에서는 나라의 경제와 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문학예술부문과 체육부문에서도 우리 인민들을 고무하고 기쁘게 해주는 훌륭한 성과들을 이룩하였습니다.

나는 높은 정치적열의와 혁신으로 들끓은 1985년을 기쁜 마음으로 돌이켜보면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우리의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투쟁목표는 당 제6차대회가 내세운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당을 강화하고 우리의 혁명대오를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합니다.

당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은 우리의 모든 승리의 기본요인입니다. 우리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조직사상적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은 당중앙위원회두리에 굳게 뭉쳐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하며 그 관철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혁명대오는 당과 인민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룰 때 불패의 위력을 가질수 있습니다. 모든 당조직들은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하여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잘함으로써 전체 인민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우리의 혁명대오를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근로대중의 창조력을 옳게 조직동원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경제건설에서는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밀고나가면서 특히 기간공업과 철도운수를 발전시키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합니다.

기간공업과 철도운수를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기간공업과 철도운수를 빨리 발전시켜야 나라의 경제적토대를 강화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과 건설을 다그칠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망목표를 실현하는데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채취공업, 금속공업, 전력공업 부문과 철도운수부문에 국가적투자를 늘이고 력량을 집중하여 이 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광물과 석탄, 철강재, 전력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며 철도수송의 긴장성을 풀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계속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될수록 근로자들의 생활상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있으나 우리는 그에 맞게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지 못하고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보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정권의 중요한 사명이며 우리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목적도 결국은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려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와 앞으로 몇해동안 경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농업생산과 수산물생산을 더 빨리 장성시켜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넉넉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현시기 우리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것입니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생산력을 발전시켜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할수 있으며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여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줄수 있습니다. 기술혁명을 하지 않고서는 당면한 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할수 없을뿐아니라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빨리 발전하는 세계경제발전추세를 따라갈수 없으며 나아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경제발전의 기본고리는 기술혁명입니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 여기에 나라의 경제발전과 민족적번영의 확고한 담보가 있습니다.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현시기 기술혁명의 중요한 임무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푸는것입니다.

우리는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원료, 연료, 동력 자원의 개발과 리용 분야의 기술을 혁신하며 기계공업과 전자공업, 자동화공업을 빨리 발전시키고 그에 기초하여 인민경제의 기술장비를 현대화하고 생산과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워야 하겠습니다.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

고 과학기술간부양성사업을 개선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고 광범한 대중이 기술혁신운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학기술분야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협조와 교류를 널리 진행하여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행정사업을 잘하여야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할수 있습니다.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국가적인 보장사업을 강화하여야 하며 과학연구성과를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합니다.

모든 당조직들은 기술혁명을 당의 중요한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가며 기술혁명수행에로 과학자, 기술자들과 광범한 근로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절박한 과업은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입니다.

지난해에 전민족적범위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졌습니다.

남조선청년학생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온갖 탄압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민족통일》, 《민중해방》, 《민주쟁취》의 구호밑에 민족의 자주권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하여 용감하게 투쟁하였습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남조선청년학생들과 각계층 인민들의 정의로운 애국투쟁에 동포애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

지난해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우리의 적극적이며도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지난해에 북과 남사이에 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이 여러차례 진행되였으며 북남국회회담을 마련하기 위한 예비접촉도 진행되였습니다. 또한 조국해방 40돐을 계기로 민족분렬의 40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북과 남사이에 적십자 예술단과 고향방문단의 호상방문이 실현되였습니다. 북과 남사이에 여러 분야의 회담이 진행되고 작은 범위에서나마 사람들이 평양과 서울을 오고간것은 겨레들에게 기쁨을 주었으며 이것을 계기로 전민족적범위에서 조국통일에 대한 열망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은 전체 조선민족의 념원에 맞게 력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실현되여야 합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올해에도 7.4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북과 남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대결상태를 해소하며 우리의 합리적인 평화통일방안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진행되고있는 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이 좋은 결실을 가져오게 할뿐아니라 국회회담을 빨리 성사시키며 나아가서 북과 남의 최고위급회담도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

여 노력할것입니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려면 대화쌍방이 대화에 림하는 자세를 바로 가져야 합니다. 대화는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는것만큼 북과 남이 다같이 나라를 통일하여 하나의 조선을 만들려는 공통된 립장과 선의를 가지고 대화에 림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민족의 분렬을 고정화하거나 인민들을 기만하고 사회여론을 오도하여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려 하여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북남대화는 오로지 통일을 위한 대화로 되여야 합니다. 올해에 북과 남은 다같이 진심으로 조국통일을 앞당기려는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의견상이를 좁히고 합의점을 찾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북남대화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려면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대화상대방을 반대하는 군사연습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소동을 벌리면서 마주앉아 대화를 한다는것자체가 어울리지 않으며 그것은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민족의 분렬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입니다. 긴장상태가 격화되고 전쟁위험이 떠도는 가운데서는 대화를 순조롭게 할수 없으며 대화를 하여도 성과를 거둘수 없습니다. 남조선측이 진실로 대화를 귀중히 여긴다면 대화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북과 남은 다같이 대화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조선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공화국과 미국, 남조선사이에 3자회담을 하여야 합니다. 미국은 조선정전협정체결의 실제적당사자이며 남조선에서 군사적통수권을 틀어쥐고 정세를 긴장시키는 장본인인것만큼 미국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실현하여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여야 우리 나라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할수 있습니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두개 조선》정책을 버려야 하며 리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의 3자회담제안에 응해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그 정당성으로 하여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는 3자회담제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내성있게 노력할것입니다.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은 올해에도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고 힘을 합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국제정세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올바른 대외정책과 적극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 세계 여러 나라 공산당 및 로동당들, 진보적인 정당들과의 친선단결의 뉴대가 더욱 공고화되고 전투적련대성이 강화되였습니다. 특히 조국해방 40돐과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35돐을 계기로 우리

의 형제적린방인 쏘련, 중국과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심화발전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세계 이르는곳마다에 친근한 전우들과 벗들을 가지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세계인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습니다.

나는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 형제적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나라 인민들에게 사의를 표하며 새해의 인사를 보냅니다.

현시기 국제정치분야에서 나서는 초미의 문제는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을 방지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입니다.

날로 격화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으로 말미암아 국제정세는 극도로 긴장해지고있으며 지구우에는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의 위험이 무겁게 드리우고있습니다. 핵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현시대가 제기하는 엄숙한 과제이며 인류의 한결같은 지향입니다.

지난해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있은 쏘미수뇌자들의 회담에서는 핵군축을 실현하고 핵전쟁을 방지할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토의하고 핵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것을 공동으로 확인하였으며 일련의 원칙적인 합의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쏘미수뇌자회담의 결과가 핵전쟁을 방지하고 세계평화를 수호하는데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열핵전쟁을 방지하고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세계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의 군비증강책동과 핵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핵무기를 축감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완전히 철페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오늘 북구라파와 발칸반도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지역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비핵지대, 평화지대 창설운동은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이 세계 여러 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고 그것을 넓혀나가기 위한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리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오늘 핵전쟁의 위험이 가장 짙은곳은 조선반도입니다. 세계적으로 남조선처럼 각종 핵무기가 조밀하게 배비되여있는곳은 없습니다. 남조선은 가장 위험한 핵전쟁발원지로 되고있으며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쉽사리 세계적인 열핵전쟁으로 확대될수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각종 핵무기와 미국군대를 철거시켜야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화근이 없어지고 공고한 평화가 유지될수 있으며 우리 인민들뿐아니라 우리의 주변나라 인민들과 세계인민들이 평화롭게 살아나갈수 있습니다.

전체 조선인민은 남조선에서 핵무기와 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핵무기와 자기 군대를 철수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은 핵

전쟁을 해서는 안된다고 한 쏘미수뇌자회담의 합의정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뚜렷한 증거로 될것입니다. 미국은 쏘미수뇌자회담의 합의정신에 맞게 남조선에서 핵무기와 미군을 철수하기 위한 조치를 지체없이 취하여야 합니다.

올해는 쁠럭불가담운동이 시작된 때로부터 25돐이 되는 해이며 올해에 짐바브웨에서는 제8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쁠럭불가담운동의 통일단결을 고수하며 이 운동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쁠럭불가담운동에서 기본은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며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자주적으로 나가는것입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책동을 짓부시고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자주, 독립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야 합니다. 자주, 독립의 길만이 민족의 존엄을 고수하고 나라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는 정당한 길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은 정치적자주권과 함께 경제적자립에 기초할 때 완전한것으로 될수 있습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발전도상나라들이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경제적자립을 이룩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자체의 힘과 내부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한편 집단적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남남협조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남남협조는 현시기 발전도상나라들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인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한 농업분야에서의 협조를 비롯하여 현실적으로 긴요하고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시작하여 한가지 문제씩 해결하면서 점차 확대해나가는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올해에도 자주, 친선, 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진보적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갈것이며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것입니다.

우리의 혁명위업은 정당하며 우리 인민이 나아갈 앞길은 휘황찬란합니다. 당의 령도밑에 정당한 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은 언제나 승리할것입니다.

모두다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건설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자

오늘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한 장엄한 진군길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광명한 미래를 앞당기려는 우리 인민의 힘찬 로력투쟁에 의하여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거창한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도처에 일떠서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은 높은 속도로 다그쳐지고있다.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해놓은 빛나는 성과들은 나라와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위한 튼튼한 물질적토대로,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데서 현시기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켜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나가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과학기술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륭성번영을 이룩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겨나가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우리 시대에 와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떠나서는 나라의 위력을 더욱 튼튼히 하고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물질적으로 충분히 보장하는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없다.

우리 당은 새 사회 건설에 들어선 첫 시기부터 정확한 과학기술정책을 제시하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훌륭히 해결함으로써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서 발전하는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있었으며 근로인민대중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줄수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지난날 뒤떨어진 경제와 기술을 가지고있었던탓으로 하여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아오던 처지에서 영원히 벗어나 오늘 최신과학기술로 장비된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였다. 오랜 세월 현대과학과 기술문명에서 멀리 떨어져있었던 우리 나라가 과학기술발전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가져온 결과이다.

해방후 령으로부터 출발한 우리의 과학기술은 오늘 매우 높은 경지에 올라섰다. 그러나 비약적으로 전진하는 현실은 과학기술을 보다 급속히 발전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기계기술의 발전에 기초하여 사회적진보와 인류문명의 개화기가 시작되던 때로부터 수세기가 흘러온 지금 과학기술은 매우 높은 단계에 올라서고있다. 현시기 과학과 기술은 그 연구분야와 심도에 있어서나 리용범위에 있어서 지난날 인류가 상상하던 한계를 훨씬 벗어나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고있다. 현대적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사회적생산력과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를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다. 특히 사회주의사회에서 그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최신과학기술로 장비하고

현대적으로 개조하며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실현하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은 과학기술발전의 구체적실정과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를 깊이 통찰한데 기초하여 주체적립장에서 나라의 과학기술을 최단기간안에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데 대한 적극적인 투쟁과업을 제기하였다.

과학기술을 최단기간안에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울것을 목표로 하고있는 우리 당의 과학기술정책은 경제건설의 진군속도를 끊임없이 높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쌓으며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력한 무기이다.

현시기 우리 나라에서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는것은 무엇보다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심화발전할수록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사회적생산을 늘이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는가 일으키지 못하는가, 빨리 높아나는 인민들의 물질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것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경제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 나서는 이 중요한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가자면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우리 나라에 없거나 부족한 원료, 자재를 만들어내거나 찾아내며 그것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방도를 세워 기계설비들의 만부하, 만가동을 보장하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와 함께 기계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고 불비한 생산공정을 더욱 완비하며 생산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의 리용수준을 훨씬 높일수 있게 한다.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는것은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의 전망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고 공산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여야 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하여 우리앞에 나서는 과업은 그 어느것이나 아름차며 그것은 《인해전술》로써는 해결할수 없는 방대한 투쟁과업이다.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는데 절실히 요구되는 로력문제도, 물질기술적수단들의 보장문제도 원만히 풀수 있으며 생산을 보다 높은 속도로 장성시켜나갈수 있다. 이와 함께 최신과학의 성과와 첨단기술을 널리 받아들여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현대적으로 개조함으로써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비상히 강화할수 있다.

오늘 우리 당이 과학기술발전에서 제기하고있는 목표는 매우 높고 아름찬것이다. 남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실현한 것과 같은 과학기술적진보를 우리는 가장 짧은 기간에 그것도 최상의 경지에서 이룩하려는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우리앞에 아무리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 극복하기 어려운 과학기술의 요새가 놓여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능히 그것을 점령할수 있다. 우리에게는 우리 인민을 언제나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는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과학기술발전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당의 주체적인 과학기술정책이 있다. 당이 키워낸 재능있는 125만의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의 대부대가

있으며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튼튼한 경제토대가 있다. 우리에게는 간고한 투쟁과 고심어린 노력으로 마련해놓은 과학기술발전의 귀중한 성과와 투쟁경험도 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 과학기술일군들이 당의 과학기술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때 우리는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우리는 당이 제시한 주체적인 과학기술정책을 높이 받들고 그 수행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새로운 단계에 올려세우고 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 *

현시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실천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푸는것이다.

오늘 우리는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의 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하고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는데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전략적과업인것만큼 그것을 실현하는데서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이 제기된다. 여기에서 원료와 연료, 동력 문제를 해결하며 기계설비들을 현대화하고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푸는것은 선차적인 요구로 나선다. 원료와 연료, 동력 문제를 자체로 원만히 풀고 기계설비들을 현대화하며 생산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민족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경제를 현대적기술로 장비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성과적으로 축성할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추진되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원료, 연료, 동력에 대한 수요는 날로 높아나고 생산에서 기술수단들의 역할이 높아지며 생산과 경영활동은 새로운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끊임없이 개선되게 된다. 그러므로 원료와 연료, 동력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기계설비들을 현대화하며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지 않고서는 생산의 급속한 발전에 대하여 기대할수 없으며 나아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성과적으로 쌓아나갈수 없다.

우리는 원료와 연료, 동력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를 푸는데 힘을 넣어 현대적인 탐사방법과 탐사수단을 연구개발하고 채광, 채탄, 선광 기술을 발전시키며 성능높은 채취설비들을 완성하여 채취공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이와 함께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 나라의 동력자원을 전면적으로 개발리용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아야 한다.

원료와 연료, 동력 자원을 개발하는것과 함께 그것을 극력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를 적극 풀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에네르기를 많이 쓰는 화학공업과 금속공업, 건재공업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적은 연료와 동력으로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에 없는 원료와 연료를 국내의것으로 대용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과 자체의 자원에 의거하여 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푸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나라에 풍부한 자원을 남김없이 개발하고 그것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원료와 연료, 동력에 대한 인민경제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으며 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우리는 기계공업발전에 힘을 넣어 기계설비들을 정밀화, 대형화, 고속도화, 자동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이미 있는 기계설비들을 현대화하고 새로운 기계설비들을 만드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야 한다. 전자공학과 자동화공학을 발전시켜 전자재료와 집적회로를 비롯한 전자요소, 전자계산기, 자동화 요소와 장치, 자동조종체계를 개발하며 자동조종리론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생산의 종합적기계화와 자동화를 적극 실현함으로써 로동생산능률과 제품의 질을 높이고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술공학을 발전시켜 생산공정과 생산방법을 개선하며 기업관리에 전자계산기와 산업텔레비죤을 비롯한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을 적극 받아들여 경영활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전망성있게 풀어나감으로써 생산을 과학적으로 진행하고 현대화된 기술수단들이 자기의 능력을 다 내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민족경제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경제를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하며 모든 생산활동을 과학화하여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켜나갈수 있다.

현시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를 푸는것이다.

나라의 과학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현대과학기술의 요새를 승리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우리는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을 비롯한 기초과학을 발전시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과학분야를 적극 개척하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밀고나가 세포공학과 유전자공학, 초고압물리학, 극저온물리학을 발전시키며 레이자와 플라즈마기술, 원자에네르기와 태양에네르기를 개발하여 인민경제에 받아들이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적극 풀어야 한다. 극소형전자계산기생산체계를 완성하며 여러가지 로보트들을 개발하는데 힘을 넣는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수 있다.

실로 우리 당이 제시한 이 전투적과업은 우리 나라 과학기술발전의 현실적요구와 그 발전전망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으로서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빨리 높이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해나가는데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투쟁과업으로 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이 과학기술분야에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수행하는 여기에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나가기 위한 근본담보가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무엇보다도 일군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관점부터 바로 가지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일군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관점을 바로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은 나라의 장래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며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문화생활과 로동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영예로운 혁명과업이다. 일군들이 당의 의도를 옳게 파악하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할 확고한 결심을 가질 때만이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따고들고 과학자, 기술

자들과 생산자대중을 적극 동원하여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일군들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이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며 근로자들을 하루빨리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영예로운 혁명과업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특히 일군들은 오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나라의 경제를 빨리 장성시킬수 없다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을 가져야 하며 과학기술의 발전에 낯을 돌리지 않거나 그것을 홀시하는 현상, 기술신비주의, 보수주의, 경험주의를 비롯한 기술발전을 저애하는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점도 바로서게 되고 과학자, 기술자들이 지혜와 재능을 남김없이 발양하게 되며 광범한 생산자대중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적극 떨쳐나서게 된다.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또한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잘 세우고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강한 규률을 확립해야 한다.

사회주의경제는 국가가 나라의 경제생활전반을 장악하고 유일적인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계획경제이다. 사회주의경제는 오직 계획적으로만 발전한다. 경제가 계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과학기술도 계획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 세우고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에 맞게 나라의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수 있다.

일군들은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정도와 경제실태를 정확히 분석한데 기초하여 그리고 경제발전전망과 현시기 과학기술의 발전추세를 고려하여 과학기술발전 전망계획과 당면계획을 잘 세우고 그것을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발전계획은 저내 벌려놓지 말고 인민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과학기술적문제부터 풀어나갈수 있게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고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켜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나갈수 있다.

과학기술발전계획은 정확히 수행되여야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다. 일군들속에서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수행하지 못한데 대하여 책임을 느낄줄 모르는 무책임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과학기술발전계획수행에 대한 법규범과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완성하고 검열통제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법적과제로 여기고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규률을 세워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방도의 하나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기술발전의 직접적담당자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에 의하여 새로운 과학분야가 개척되고 기술적진보가 이룩된다.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가 시키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에 많이 달려있다.

과학과 기술이 빨리 발전하고있는 오늘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그들의 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 자기 맡은 부문에 완전히 정통하도록 하며 현대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발전시킬수 있는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부문의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과학강연회, 과학기술발표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과학기술통보사업을 개선하며 과학자, 기술자들의 시야를 넓혀주기 위한 사업을 대담하게 벌려나가는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과학자, 기술자들이 인

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이룩된 과학기술 성과들과 세계적인 과학기술발전추세를 알수 있으며 그것을 제때에 받아들여 과학기술수준을 높일수 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연구조건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는것은 그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연구실과 실험실을 잘 꾸려주고 현대적인 실험설비들과 자재를 원만히 보장해주며 중간시험공장을 제때에 지어주는것을 비롯하여 과학연구사업과 생활에서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건을 잘 보장해주어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사회적관심과 기대, 당조직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자기 사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되며 과학연구사업에 모든 지혜와 재능을 다 바치게 된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이려면 그들을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우고 우대해주어야 하며 과학연구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평가사업을 잘해주는것이 중요하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세운 공로에 따라 그들에게 여러가지 명예칭호와 훈장을 수여하며 물질적으로도 잘 평가해줌으로써 모두가 과학연구사업에서 적극성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는것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일 때 큰 밑천을 들이지 않고도 짧은 기간에 나라의 전반적과학기술수준을 높일수 있다.

우리는 발전된 나라들과 과학기술교류를 활발히 벌려 과학기술분야에서 이룩된 최신성과들을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많은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과학기술의 여러 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진행하여야 한다.

모든 사업이 다 그러한것처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사업도 당적지도가 정확히 보장되여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

당조직들은 과학기술일군대렬을 잘 꾸리는데 힘을 넣어 과학연구기관 일군들을 실력이 있는 사람들로 꾸리고 고착시키며 그 대렬을 끊임없이 보충해주어야 한다. 동시에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이 높은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지고 맡겨진 연구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교양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여야 하며 그들을 믿고 과학연구과제를 대담하게 맡기며 그것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적극 밀어주어야 한다. 특히 당조직들은 생산현장의 기술자들과의 사업에 힘을 넣어 그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과학기술일군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하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사이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과학연구성과들과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를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그에 대한 장악통제를 옳게 하여 이 사업에서 당의 정책적요구가 철저히 관철되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사업은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위한 영예롭고도 책임적인 사업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최단기간안에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이룩하여야 할것이다.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관점

장 임 호

위대한 주체사상은 일군들속에서 혁명적군중관점을 세우기 위한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이다.

인민대중에 대한 견해와 관점은 어떤 사상을 가지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것만큼 가장 옳바른 군중관점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확립된다. 군중관점은 일군들이 인민대중을 귀중히 여기는가 여기지 않는가, 인민대중을 믿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사업하는가 안하는가,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복종시키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것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러므로 일군들은 군중관점확립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옳게 반영한 혁명사상, 다시말하여 인민대중에 대한 옳바른 견해와 태도를 가지게 하는 사상에 의해서만 혁명적군중관점을 소유할수 있다.

주체사상은 혁명적군중관점확립의 사상리론적기초로 되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이 주체사상의 기초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27권, 400페지)

위대한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로부터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근본원리를 밝힘으로써 혁명적군중관점을 확립할수 있는 기초를 정확히 해명해주고있다. 사람, 근로인민대중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본질적속성으로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외부세계에 예속되여 사는것이 아니라 객관세계를 자기의 자주적 요구와 리익에 맞게 개조변혁하면서 살아나간다. 그러므로 사람은 세계의 주인이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는 결정적력량이다. 주체사상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해명한것은 사람, 인민대중에 대한 정확한 견해와 관점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적이며 중심적인 문제의 옳은 해결로 되는것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철학적원리와 혁명의 원리는 세계관의 가장 기초적이며 중심적문제인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에 처음으로 옳바른 해답을 주고 사람이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며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지혜롭고 힘있는 존재로,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 된다는것을 해명하였다. 이것은 주체사상이야말로 사람, 인민대중에 대한 관점을 정확히 확립하게 하는데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오게 한 위대한 사상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김으로써 일군들로 하여금 사고와 실천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견해와 관점을 확립하게 한다.

군중에 대한 옳은 관점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데 기초하여 가지게 된다.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사람, 인민대중을 귀중히 여기는것은 혁명적군중관점의 중요한 내용이며 사고와 실천에서 사람을 위주로 하는 주체적관점, 사람을 사랑하는 혁명적관점을 확립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인민대중을 귀중히 여기는것은 사고활동과 실천투쟁에서 언제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전제로 한다. 일반적으로 사랑의 감정은 객관적현실세계의 이러저러한 대상에 대한 긍정적태도에서 생겨나는 심리정서적현상이다. 인민대중을 귀중히 여기는 뜨거운 사랑도

바로 사고와 실천 활동을 통하여 근로 인민대중에 대한 긍정적태도에서 가지게 되는 정치도덕적감정으로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을 귀중히 여기는가 아니면 멸시하고 증오하는가 하는것은 사람을 어떤 존재로 보는가 하는 세계관적립장에 의하여 좌우된다. 사람중심의 세계관인 주체사상은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봄으로써 사람의 가치와 존엄을 최상의 높이에 올려놓았다.

원래 존엄있고 값있게 살려는것은 사람의 본성적요구이며 인류의 세기적념원이다.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높여주는 사상만이 인민대중을 위한 참다운 사상으로 될수 있으며 모든 문제해결에서 사람을 위주로 하는 견해와 관점을 가지게 할수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착취자들에 의하여 여지없이 짓밟혀왔다. 더우기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고 소수 특권계급이 주인행세를 하며 인간 멸시와 증오사상이 사회를 지배하고 사람의 인격마저도 교환가치로 화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본질적특성,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세상만물가운데서 사람이 가장 귀중한 존재라는것을 밝힘으로써 사람, 인민대중에 대한 가장 옳은 견해와 관점을 가질수 있게 하였다. 그것은 주체사상이 바로 사고와 실천활동에서 사람을 위주로 할것을 요구하기때문이다.

일군들은 주체사상의 이 요구를 옳게 구현할 때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관점을 가질수 있으며 언제나 인민대중의 리익을 먼저 생각하고 활동하는 혁명적태도를 확립할수 있다. 만일 우리 일군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못하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군중을 무시하고 자기를 특수한 존재로 여기면서 당의 군중로선과 어긋나게 행동하게 된다. 인민대중을 귀중히 여길줄 모르는 일군은 인민을 깔보고 무시하게 되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민우에 군림하여 군중에게 호령하는 관료가 될수 있다. 우리 일군들은 말그대로 인민의 심부름군이지 인민을 다스리는 관료가 아니다. 우리 일군들이 인민의 충복이 되자면 사고와 실천에서 언제나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 그래야 일군들이 인민대중을 귀중히 여기고 인민을 사랑하는 옳은 견해와 관점을 가질수 있다.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일군은 모든 문제를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견지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며 인민의 리익과 저촉되는 자그마한 현상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일하는 일군은 인민대중을 귀중히 여기는데로부터 언제나 사람을 위주로 하여 사고하고 행동한다. 주체사상은 일군들에게 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보고 사람을 위주로 하여 사고하고 행동하게 함으로써 일군들속에 혁명적 군중관점을 튼튼히 세워주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된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또한 사람을 가장 힘있는 존재로 봄으로써 일군들에게 언제나 인민대중을 믿고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관점을 준다.

인민대중을 믿는것은 혁명적군중관점의 본질적내용의 하나이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인민대중을 믿는 관점은 주체사상이 밝힌 사회력사원리, 혁명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주체사상이 밝힌바와 같이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을 자체로 수행할수 있는 힘을 가지고있다. 력사의 창조자, 혁명의 동력은 다름아닌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은 자신의 창조적로동으로 생산을 발전시키고 물질적 및 문화적 부를 창조한다. 생산력가운데서 가장 결정적요소는 바로 근로하는 인민이며 정신문화의 창조자도 근로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의 역할을 떠나서 사회가 발전할수 없으며 인민대중이 창조한 경험과

자료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도, 문화와 예술의 발전도 기대할수 없다. 세상에서 모든 훌륭하고 귀중한것은 인민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로, 사회발전의 기본동력으로 되는것이다. 이로부터 인민대중을 믿고 그들에 의거하여 사업할데 대한 요구가 흘러나온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을 믿고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도록 하는 위대한 사상이다.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사업하고 생활할 때 일군들은 군중의 힘을 굳게 확신하게 되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주체사상을 사업과 생활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지 않고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하여나가지 않는다면 일군들은 인민대중을 믿지 않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지 않게 되며 따라서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없다. 주체사상이 밝힌대로 인민대중을 가장 힘있는 존재로 보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사업하고 활동하는 일군만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주체의 군중관점을 가지지 못한 일군들은 군중을 믿지 않게 되며 따라서 대중의 힘을 옳게 조직동원할수도 없다. 대중은 지혜롭고 힘있는 존재이므로 모든것을 능숙하게 풀어나가는 선생이다. 그러므로 어려운 과업이 나서고 곤난에 부닥치게 되면 일군들은 반드시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야 하며 그들의 힘을 발동하여 복잡한 사업을 풀어나가야 한다. 만일 일군들이 대중을 믿지 않고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지 않는다면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갈수 없는것은 물론 군중의 목소리를 들을수 없게 되며 그리하여 독단과 주관주의에 빠지게 된다. 독단과 주관주의는 주체사상과 어긋나는것으로서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마비시킬뿐아니라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생활은 인민대중을 믿지 않고 독단과 전횡을 부리기 좋아하는 일군은 예외없이 당도 혁명도 안중에 없고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군들이 인민대중을 믿고 그들에 의거하여 사업하려면 반드시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은 일군들로 하여금 인민대중을 굳게 믿고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도록 하는것으로 하여 일군들속에 혁명적군중관점을 세우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되는것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다음으로 모든것을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종시킬것을 요구하는데로부터 일군들에게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도록 하는 관점을 세울수 있게 한다.

모든것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것은 주체사상의 요구이며 혁명적군중관점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사람은 모든 물질문화적재부의 창조자일뿐아니라 그 주인이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람이며 따라서 세상에 있는 모든것은 사람에게 복무하는 한에서만 참다운 가치를 가진다. 그러므로 사람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하게 하는 견지에서 세계를 대하는것은 세계에 대한 가장 옳바른 관점과 립장으로 되는것이다. 여기로부터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견지에서 일군들이 현실을 대하게 하는 새로운 관점과 립장을 밝혀줌으로써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수 있게 한다. 모든것이 인민대중에게 리롭게 복종되도록 현실을 대하는것은 주체적 관점과 립장에 의해서만 해결된다. 일군들이 주체적 관점과 립장을 가져야 인민대중의 리익의 견지에서 활동의 목적과 방향을 세우게 되며 그들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수 있다. 다시말하여 일군들의

모든 사업과 활동의 전과정이 인민대중을 위한것으로 되게 할수 있다.

우리 당은 우리 일군들에게 혁명의 중요한 초소를 맡겨주었으며 인민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볼 무거운 임무를 주었다. 인민들의 복리증진은 우리 당과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이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당과 국가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바로 우리 일군들을 통하여 집행된다.

아무리 당과 국가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여도 우리 일군들이 인민성이 없고 혁명적군중관점이 서있지 못하면 인민들의 생활을 계통적으로 향상시킬데 대한 당의 요구를 관철할수 없다. 인민생활에 무관심한 일군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한다고 말할수 없으며 따라서 당의 기대에 보답할수도 없는것이다. 인민들의 생활을 위하여 늘 머리를 쓰고 아득바득 일하며 자기 개인의 생활보다도 인민대중의 생활을 더 걱정하는 일군만이 군중관점이 선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일군으로 될수 있다.

반대로 인민들의 생활보다 자기 생활에 더 관심을 가지는 일군은 특혜와 특전을 좋아하며 따라서 인민들의 리익을 침범하게 된다. 우리 일군들이 이렇게 되면 대중의 지지를 받을수 없으며 사람들은 그러한 일군들을 믿지도 않게 된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인민생활을 책임진 높은 자각을 가지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할 때 인민들의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옳게 구현해나갈수 있으며 주체의 혁명적군중관점을 소유한 일군으로서 당과 수령의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할수 있다. 이것은 주체사상이 일군들에게 혁명적군중관점을 세워주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처럼 주체사상은 사람의 본질적특성과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기초하여 사람을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밝혀줌으로써 일군들로 하여금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며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게 하는 참다운 혁명적군중관점을 가지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벌써 초기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인민대중과 동떨어져 말공부만 하는 그릇된 태도를 꿰뚫어보시고 이들과는 다른 길,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대중에게 의거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길을 걸으시면서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의 군중관점을 가지도록 공산주의자들을 교양하시였다. 조선혁명이 복잡하고 간고한 로정을 헤치며 곧바른 승리의 길을 걸어올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을 굳게 믿고 인민대중속에 계시며 그들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신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의 나날 언제나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 속에 계시였고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인민군전사들과 후방인민들 속에, 사회주의건설의 나날에는 로동자, 농민들 속에 계시면서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으며 언제나 인민과 떨어져 계신적은 없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상 인민들과 같이 계시면서 로동자, 농민, 각계각층의 인민들과 나라의 크고작은 일들을 의논하시며 그들의 의사와 요구를 종합하고 일반화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는것을 철칙으로 삼고계신다. 따라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시는 모든 로선과 정책은 나라의 현실과 인민의 리익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있으며 그들의 힘에 의하여 힘있게 관철되고있다.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믿음은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변함이 없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것이였으며 비길데없이 열렬하고 숭고한것이였다. 이것으로 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공산주의적풍모는 인민대중

에 대한 새로운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의 참다운 본보기로, 위대한 모범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군중관점의 새로운 모범을 보여주었을뿐아니라 언제나 우리 일군들에게 당의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소유하도록 이끄심으로써 일군들이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사업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구체적인 지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은 일군들속에 주체의 혁명적군중관점을 세워주고 그들이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오늘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혁명적군중관점을 우리 일군들이 더욱 철저히 확립하도록 현명하게 지도하고있다.

우리 당은 일군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심화시키고 모든 일군들에게 주체의 원리에 기초하여 군중을 대하는 옳은 관점을 세워주었으며 특히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이끌어주고있다.

오늘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아래에 내려가 군중에 의거하여 사업하는것이 완전히 생활화되고있다.

우리 당은 또한 한없이 넓은 포용력으로 혁명전사들과 각계각층의 모든 군중들을 굳게 믿고 묶어세워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고있으며 그들에게 행복한 삶의 보람과 크나큰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모든것을 인민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풀어나가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원칙이다. 우리 당은 하나의 공장을 건설하거나 하나의 도시를 일떠세울 때에도 언제나 인민대중의 리익을 중심에 놓음으로써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원만히 보장해주고있다. 그러기에 우리 인민들은 모든 운명을 당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이 가리키는 승리의 한길을 따라 굴함없이 싸워나가고있는것이다.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따르며 당과 인민이 그야말로 한덩어리가 되여 힘차게 싸워나가는것이 오늘 우리 나라의 혁명적풍모이다.

지금 당은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과 나라의 조성된 정세에 맞게 일군들속에서 혁명적군중관점을 더욱 튼튼히 세울것을 요구하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적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이 날로 강화되는 조건에서 올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하여야 할 무거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긴장한 정세속에서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모든 일군들이 혁명적군중관점을 가지고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더욱 높이 불러일으켜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마땅히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인민에게 헌신적으로 복무하며 근로자들을 교양하고 그들속에서 배우며 군중을 조직동원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단행본, 28페지)

일군들은 인민의 충복이며 혁명의 지휘성원이다. 그런것만큼 일군들은 마땅히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며 대중을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혁명적군중관점을 가져야 한다.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일군들속에서 혁명적군중관점을 더욱 철저히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주체사상이 밝힌 인민대중을 믿고 그들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는 관점과 립장은 우리 일군들이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견결히 옹호하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사고와

행동의 올바른 지도적지침이다. 그러므로 일군들은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 요구대로 사업하여야 혁명적군중관점을 튼튼히 세울수 있다. 일군들은 주체사상학습을 강화하여 주체의 원리를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에는 혁명적군중관점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원리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우리 일군들이 주체사상의 원리를 모르면 당의 군중로선에 기초하여 사람과의 사업을 폭넓고 깊이있게 할수 없으며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에서 근시안적이며 협애한 그릇된 사업태도를 버릴수 없다.

우리는 일군들속에서 주체사상학습을 실속있게 진행하게 함으로써 모든 일군들이 주체사상의 원리들과 지도적원칙들,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모든 사상리론들을 전면적으로 깊이 체득하고 사람과의 사업을 대상의 준비정도에 맞게 잘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아래에, 생산현장에 들어가는것은 그들속에 혁명적군중관점을 튼튼히 세우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주체사상이 밝힌 혁명적사업방법은 일군들이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갈것을 요구하며 혁명적군중관점은 광범한 대중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과정에 더욱 튼튼히 확립된다. 일군들이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야 군중의 목소리를 알수 있으며 모든 사업을 군중의 리익에 맞게 조직전개해나갈수 있다.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것도 인민대중이며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한 합리적이며 건설적인 의견을 제기하는것도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군중의 힘을 알수 없으며 그들의 지혜와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사업을 전진시킬수 있는 올바른 대책도 세울수 없는것이다. 인민들속에서 선발된 우리 일군들은 마땅히 그들과 한가마밥을 먹으면서 같이 일하고 생활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간다고 하여 저절로 옳은 군중관점을 가지게 되는것은 아니다.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는 경우에도 공장당이나 리당사무실에만 들렸다와서는 아무런 소용도 없다. 불꽃튀는 기대옆에서, 협동벌의 포전에서 로동자, 농민들과 같이 일하고 생활하여야 군중의 목소리와 현실을 깊이 알수 있으며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과 역할을 다해나갈수 있다. 바로 이렇게 일하는 일군을 가리켜 우리는 혁명적군중관점이 선 당과 혁명에 충실한 참된 일군이라고 말하는것이다.

일군들이 혁명적군중관점을 가지자면 높은 인간성을 소유하는것이 중요하다.

혁명적군중관점은 고상한 인간성에서 표현된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대중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질수 없다. 인민대중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는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데서 나타난다.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는 일군들의 풍부한 인간성,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존중하는 고상한 인간애의 발현이다. 그러므로 우리 일군들이 인민들을 끝없이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려는 고상한 혁명정신을 가져야 참다운 군중관점의 소유자로 될수 있다. 우리 일군들은 인민의 심부름군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며 그들이 아파하고 요구하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 아득바득 애써야 한다. 특히 인민들의 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돌려지는 당과 수령의 배려가 정확히 가닿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주체의 혁명적군중관점을 더욱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우며 우리 혁명의 정치적지반을 보다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할것이다.

인간개조는 사회발전에서 기본

강 운 빈

인간개조문제를 어떤 위치에 놓으며 어떻게 해결해나가는가 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발전을 다그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서 선차적의의를 가지는 중대한 문제이다. 자연과 사회의 개조자이며 사회적운동의 담당자인 근로인민대중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가진 힘있는 존재로 키워야만 사회를 발전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우리 당은 사회발전에서 근로인민대중이 노는 결정적역할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심오히 분석한데 기초하여 인간개조사업을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는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였다.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힘있는 자주적존재로 키우는데서 사회발전의 근본열쇠를 찾고 그것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나간 여기에 우리 당의 혁명적령도의 중요한 특성과 현명성이 있으며 우리 혁명이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온 비결이 있는것이다.

* *

사회발전은 자연개조사업, 사회개조사업, 인간개조사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자연개조사업과 사회개조사업, 인간개조사업은 사회발전의 기본령역이다.

사회가 발전한다는것은 자연개조사업이 발전하여 물질적부가 더 많이 생산되고 사회개조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여 사회적관계가 합리적으로 개변되며 인간개조사업이 적극 다그쳐져 사람들이 보다 높은 사상문화적재부를 가진 사회적존재로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발전을 다그치고 인류의 리상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자면 자연개조사업과 사회개조사업, 인간개조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지만 그가운데서
인간개조사업에 가장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그것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는 3대개조사업에서 기본은 인간개조사업입니다. 사회발전을 다그치자면 자연개조사업과 사회개조사업, 인간개조사업을 다같이 밀고나가야 하지만 그가운데서도 인간개조사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합니다.》(《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단행본, 4페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은 사람이며 사회의 발전수준은 사람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문화기술수준에 의하여 규정되게 된다. 인간개조사업은 바로 사회발전의 주인이며 기본동력인 사람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 사업이다. 인간개조사업에 선차적주의를 돌리지 않고서는 사람자신을 자주적이며 힘있는 존재로 키울수 없을뿐아니라 자연개조사업과 사회개조사업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없다.

인간개조사업은 자연과 사회, 사람을 개조하여 사회를 발전시키는데서 기본으로 된다.

인간개조사업은 무엇보다 사회생활의 가장 중요한 령역을 이루는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에서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인것으로 하여 사회발전에서 기본으로 된다.

사회가 발전하자면 사회의 주인이며 사회발전의 기본동력인 사람, 인민대중이 발전하여야 한다. 사람, 인민대중이 더욱더 자주적이고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발전하지 않고서는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질수 없다.

사람, 인민대중이 발전한다는것은 그들의 사상의식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이 높아져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벗어나 사상정신적으로 자주성을 실현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은 물질생활과 함께 사회생활의 2대분야를 이룬다. 사람들은 물질적재부를 창조하고 향유하는 물질생활을 할뿐아니라 사상정신적재부를 창조하고 향유하는 사상정신생활을 한다. 사상생활, 도덕생활, 문화정서생활과 같은 사상정신생활을 떠난 인간생활이란 있을수 없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물질생활보다 사상정신생활이 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물질적재부보다도 숭고한 사상과 건전한 도덕, 지적발전을 더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것이 사회적인간의 고결한 풍모이다.

만일 물질생활을 생활의 전부로 여기고 물질적향락만을 추구한다면 그러한 생활은 동물의 생활과 다를바 없다. 인간생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사상정신생활을 하는데 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힘있는 존재로 되는것이다. 사상정신생활이 사회생활의 가장 중요한 분야로 되는것만큼 사회의 발전을 이룩하자면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에서 자주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에서의 자주성은 그들을 높은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지식을 가진 능력있는 존재로 키우는 인간개조사업을 통하여 실현된다.

사람들이 사상문화적구속에서 벗어나 사상정신생활에서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사상정신적재부를 창조하는 투쟁에 자유롭게 참가할수 있게 되여야 한다. 이것은 혁명적인 사상의식과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가져야만 실현된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상의지적으로, 지적으로 준비된 한계내에서만 창조적인 활동을 벌려나갈수 있다. 사람들이 얼마나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사상정신적재부의 창조자로 되는가 하는것은 그들이 얼마나 높은 사상의식수준과 문화지식수준을 가졌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인간개조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 모든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자연과 사회에 대한 넓고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적소양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워야만 그들이 사상정신적재부를 창조하는 투쟁에 적극 참가할수 있게 되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상정신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된다.

사상정신생활에서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사상정신적재부를 창조할뿐아니라 그 참다운 향유자로 되여야 한다. 사람자신이 높은 사상의식수준과 과학기술수준을 소유할 때에만 사상정신적재부의 참다운 향유자로 될수 있다.

사람들은 언제나 준비되고 아는것만큼 느끼고 받아들이게 된다. 아무리 풍부하고 훌륭한 사상정신적재부가 마련되였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과 문화수준이 높지 못하면 그 의의와 가치를 파악할수 없으며 자기의 생활에 옳게 리용할수 없는것이다.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여 모두가 다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지게 하여야만 그들이 인류가 쌓아놓은 사상정신적재부를 자기의 건전하고 행복한 생활의 필수적수단으로 삼게 되며 그것을 전면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상정신생활을 누리게 된다.

이와 같이 인간개조는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을 개변하여 그들을 전면적으

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 사업인것으로 하여 사회발전에서 기본으로 된다.

인간개조사업은 또한 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다그쳐 높은 생산력발전을 이룩하게 함으로써 사회발전에서 기본으로 된다.

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다그쳐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이룩하는것은 사회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이 자연을 개조하여 물질적부를 끊임없이 생산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회발전의 필수적조건이며 근본요구이다. 사람들은 자연을 개조하고 생산력을 발전시켜 생활수단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먹고 입고 쓰고사는 물질생활령역에서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게 되며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사회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인 공산주의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받을수 있을만큼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된 사회이다.

사회를 발전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이룩하는 중요한 고리도 바로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개조하는데 있다.

인간개조는 생산의 가장 능동적이고 결정적인 요소인 사람자체의 힘을 높이 발양하게 함으로써 생산력발전을 다그칠수 있게 한다.

생산은 사람과 로동수단, 로동대상 등 여러 요소들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가장 능동적이고 결정적인 요소는 사람이다. 생산은 자연을 개조하는 사람의 투쟁으로서 사람의 목적의식적이며 능동적인 작용에 의하여 진행된다. 생산활동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 하는것은 그들이 얼마나 높은 사상의식수준과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였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

사람들이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소유하여야 자연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하기 위한 정확한 목표와 방향을 세울수 있으며 생산과정에 부닥치는 모든 애로와 난관을 성과적으로 극복해나갈수 있다.

생산에서 발휘되는 사람의 힘은 과학기술지식의 힘이다.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사람이라야 사물현상의 본질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파악한데 기초하여 생산의 과학적원리와 기술공정을 환히 꿰뚫고 그것을 목적의식적으로 개조발전시켜 높은 생산력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결국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사람들의 활동은 반드시 그들의 사상적준비정도와 자연현상에 대한 과학지식의 폭과 깊이에 상응하며 그에 의하여 제약되고 규정된다고 볼수 있다.

인간개조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 사람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높은 과학기술지식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자연개조사업을 목적의식적으로 벌려나가 높은 생산력발전수준을 이룩함으로써 사회발전을 적극 다그칠수 있다. 이것은 인간개조사업이 사회발전의 기본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인간개조사업은 또한 사회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여 사람들의 자주적인 생활을 위한 사회적조건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사회발전에서 기본으로 된다.

사회개조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 사회관계를 사람들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보다 합리적으로 개변하는것은 사회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의 하나로 된다.

사회관계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발전시켜 전인민적소유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하는것은 사회개조사업을 완성하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과업의 하나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단일한 전인민적소유를 확립하여야 낡은 착취사회의 유물인 도시와 농

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없어질수 있으며 계급이 없는 사회에서 다같이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려는 인민대중의 념원이 현실로 전환되게 된다.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기는 문제는 주객관적조건의 준비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적생산발전의 합법칙성에 맞게 해결되여야 한다.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기기 위하여서는 특히 농업생산의 직접적 담당자인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그들이 이것을 사상적으로 접수할수 있어야 한다. 사회주의하에서 농민들은 사상과 문화 분야에서 로동계급에 비하여 뒤떨어져있다. 농민들의 머리속에 아직 낡은 사상 잔재가 있고 그것이 농업생산과 공동경리발전에 영향을 미치는것만큼 농민들의 사상을 개조하지 않고서는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로 발전시킬수 없는것이다.

만일 농민들속에서 사상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리지 않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로 전환시킨다면 전인민적소유의 우월성을 발양시킬수 없으며 사회발전에 혼란을 조성할수 있다.

협동농민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철저히 뿌리빼고 그들이 개인의 리익보다도 사회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집단과 사회의 리익속에 자기의 몫도 있다는것을 똑똑히 깨닫고 집단과 사회를 위하여 몸바쳐투쟁할수 있을만큼 사상의식수준이 높아질 때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기고 단일한 공산주의적소유를 확립할수 있다.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기자면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을 높이는것과 함께 농업생산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고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여야 한다. 이 문제의 해결도 구경은 인간개조에 귀착된다. 농업생산토대를 마련하는데 복무하는 로동자들이 선진사상과 현대적과학기술지식으로 무장하여야 농촌에 필요한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을 더 좋게, 더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공급할수 있으며 농업생산의 담당자인 농민들이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여야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으며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농업생산을 과학화, 현대화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수 있게 된다.

인간개조사업은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없애는데서도 중요한 고리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 남아있는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없애는것은 사람들의 자주성을 더욱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사회관계를 합리적으로 개변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과업의 하나이다.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없애야만 사람을 구속하던 착취사회의 낡은 분업의 잔재가 완전히 없어지고 사람들은 희망에 따라 사회적로동에 마음껏 참가하게 되며 로동생활에서의 완전한 평등이 실현되게 된다.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없애려면 모든 사람들이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이 결합된 공산주의적로동의 담당자로, 전면적으로 자동화된 생산공정을 훌륭히 감당해내며 경제 및 국가 관리에도 자유롭게 참가할수 있는 능력있는 인재로 준비되여야 한다.

인간개조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현대적기술, 높은 문화적소양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키워야 그들이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하고있는 자동기계들을 능숙하게 다룰수 있으며 자기의 취미와 기호에 맞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로동에 마음껏 참가할수 있게 된다.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없애는데서 생산공정을 현대적인 기술로 장비하고 전면적인 자동화를 실현하는것이 중요하다.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없앨수 있을만큼 모든 생산공정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하고 전면적자동

화를 실현하는 사업은 매우 복잡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이룩해나가야 실현할수 있는 매우 방대하고 어려운 과업이다.

인간개조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 모든 사람들이 혁명적인 사상의식과 높은 과학기술지식으로 무장하여야 모두가 기술혁명의 담당자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기술개조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수 있으며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어렵고 복잡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훌륭히 풀어나갈수 있다.

이와 같이 인간개조는 확립된 사회주의제도에 기초하여 사회개조를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본담보로 된다. 이것으로 하여 인간개조는 사회발전에서 기본으로 되는것이다.

인간개조가 사회발전에서 기본으로 된다는 사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를 사회발전에 구현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혁명사상이다.

인간개조가 사회발전에서 기본이라는 것이 해명됨으로써 사회발전과정에 작용하는 여러 력역들의 호상관계의 합법칙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근본방도가 뚜렷이 밝혀지게 되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게 되였다. 또한 로동계급의 당이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에 선차적인 주의를 돌리고 자연과 사회의 개조자이며 사회적운동의 담당자인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반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필승불패의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인간개조가 사회발전에서 기본이라는 사상의 진리성과 위대한 생활력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우리 나라의 혁명실천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혁명과 건설의 매 단계마다 사람들을 교양개조하기 위한 옳은 로선과 방침을 내세우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왔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7권, 592폐지)

사회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서 우리 당은 언제나 인간개조사업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그것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였다.

우리 당은 모든 사업에서 사람들의 사상이 기본이며 사상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원리로부터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과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을 줄기차게 벌리는 한편 인간개조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힘있게 밀고나갔다.

우리 당은 또한 교육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가장 선진적인 11년제의무교육을 실현하여 자라나는 모든 새세대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훌륭한 공산주의적인재로 키우며 여러가지 형태의 성인교육체계를 내옴으로써 누구나 마음껏 배우고 발전할수 있게 하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인간개조사업이 힘있게 추진된 결과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 생활기풍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확고한 혁명적신념으로 삼고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오고 정세가 아무리 복잡하여도 사소한 동요나 주저도 없이 오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일해나가고있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만이 확고히 지배하게 되였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은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였다. 우리 인민은 그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대를 이어 당과 영원히 운명을 같이할 확고한 결의에 충만되여있

다. 전체 인민이 당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며 당과 인민이 하나로 뭉쳐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확신성있게 싸워나가는것이 우리의 자랑찬 현실이다. 당과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은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통일단결이며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가 반드시 승리할수 있는 필승불패의 통일단결이다.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구호밑에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고있다. 누구나 다 개인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과 혁명의 리익, 사회와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혁명적 열정과 패기에 넘쳐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것이 우리 인민들속에 확고히 자리잡은 혁명적투쟁기풍이다.

인간개조사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우리 인민의 문화기술수준에서도 커다란 전환이 일어났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는 가장 선진적인 교육제도가 확립되여 모든 새세대들이 로동할 나이까지 완전한 중등의무교육을 받고있으며 여러가지 고등교육체계를 통하여 이미 125만의 기술자, 전문가의 대부대가 마련되였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가장 큰 자랑이며 영예이다.

인간개조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에서도 거대한 전변이 이룩되였다. 우리 인민은 첩첩인 난관과 시련을 헤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끊임없는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두단계의 사회혁명을 빛나게 완수하였으며 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단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지난날 착취와 억압, 락후와 빈궁만이 지배하던 이 땅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고 모든 근로자들이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향유하고있다.

참으로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세기적인 전변과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는 인간개조사업이 사회발전에서 기본이라는 사상을 제시하고 그것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온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인간개조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자연개조, 사회개조를 다그쳐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점령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위업을 성취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쳐나가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영예로운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기본고리는 인간개조사업을 다그쳐 사람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는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속에서 정치사상교양과 과학기술교육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그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서고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을 소유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튼튼히 키워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우리 당이 제시한 3대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 당이 밝힌 사회발전에서 인간개조가 기본이라는 사상의 본질을 철저히 인식하고 인간개조를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사로청은 우리 당의 전투적후비대

리 영 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 청년운동은 조선공산주의운동력사와 함께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을 걸어왔다.

위대한 이 로정우에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자유와 해방을 맞이한 새 조선의 탄생과 더불어 1946년 1월 17일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이 창립된것은 당의 전투적후비대를 마련하고 혁명위업을 새롭게 전진시키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해방된 새 조선의 수백만 청년대중은 자기의 유일적이며 통일적인 청년조직을 가지고 당의 령도따라 나아감으로써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와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발전에서 위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이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40년간 청년동맹은 우리 나라의 수백만 청년들을 자기 대오에 굳게 묶어세운 조선로동당의 위력한 전투적후비대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받들어나가는 계승성있는 혁명조직으로 장성강화발전하여왔다.

우리의 참다운 청년동맹이 있음으로 하여 시련에 찬 조선혁명의 승리와 영광의 길이 굳건히 고수되고 우리 당이 지닌 백전백승의 위력이 튼튼히 담보될수 있었다.

* *

청년동맹을 당의 후비대로 키우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며 당과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새세대들을 잘 키우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846페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순차적으로 제기되는 여러 단계의 혁명과업을 수행해나가는 계속혁명과정이며 대를 이어 계승하고 완성해나가야 할 장구한 력사적과정이다. 필연적으로 세대교체를 동반하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의 계승자들을 끊임없이 길러내야 한다.

청년들은 혁명의 새세대이며 자라는 세대이며 전진하는 세대이다. 그들은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하며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투쟁하기 좋아한다. 이 세대적특성으로 하여 청년들은 사회의 주인공으로 자라나게 되며 혁명과 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놀게 된다. 그러나 청년들이 아무리 훌륭한 기질을 가지고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스스로 력사무대의 주인공으로 되지는 않는다. 청년들은 오직 사상적으로 각성되고 조직적으로 결속되여야 자기의 고유한 자질과 풍모를 높이 발휘할수 있으며 조직되고 단합된 부대로서 사회력사발전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이것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청년동맹을 통하여 실현되게 된다.

청년동맹은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계승자들을 키워내는 혁명조직이다. 청년동맹은 당의 인전대로서 광범한 청년대중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당정책관철에로 청년들을 조직동원한다. 그리고 청년동맹은 청년들의 정치적생명의 보호자로서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생명을 보살펴주고 키워주며 당과 수령을 위한 충성의 한길에서 그것을 빛내여나가도록 이끌어준다.

청년동맹은 당대렬을 보충하여주는 저수지이다.

수령의 위업은 당의 령도밑에 수행된

다. 당이 혁명을 계속하여 수령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당을 튼튼히 꾸리고 당대렬을 끊임없이 장성시켜나가야 한다. 당안에서도 세대교체가 일어나는것만큼 당대렬을 끊임없이 보충하여야 당이 자기의 전투력을 높여 혁명의 전위부대로서의 역할을 계속해나갈수 있다.

당대렬을 보충하여주는 후비대도 역시 청년동맹에서 자라난다. 청년동맹은 자기의 활동을 통하여 청년들로 하여금 당원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를 원만히 미리 준비해나가게 함으로써 당원의 후비를 수많이 길러낸다.

이와 같이 혁명의 참다운 계승자들을 키우며 당을 혁명의 전위부대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일익을 맡고있다는데 청년동맹이 차지하는 커다란 지위가 있으며 로동계급의 당이 청년조직을 자기의 후비대로 준비시키는 주되는 리유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우리 나라에서의 선행한 공산주의운동과 청년운동의 본질적약점과 심각한 교훈 그리고 혁명운동에서 청년조직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조선청년운동의 영광스러운 길을 개척하시였다.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하고 옳바른 투쟁로선과 강령이 없었던탓으로 하여 쓰라린 실패와 우여곡절만을 겪어오던 우리 나라 청년운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세대청년공산주의자들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 때로부터 비로소 참다운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첫 주체형의 혁명전위조직을 결성한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날소년동맹과 반제청년동맹,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비롯한 혁명적청소년조직들을 몸소 무으시고 그 활동을 조직지도하시는 과정에 주체적인 청년조직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원칙들을 밝혀주시였으며 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간고한 항일혁명투쟁과정에서 조선혁명의 튼튼한 기둥이 될 수많은 공산주의적청년핵심들이 자라났으며 청년운동의 빛나는 전통이 이룩되였다. 청년운동안에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한 주체의 사상체계와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이 확립되고 혁명적청년조직건설과 청년사업의 귀중한 경험, 혁명적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이 마련된것은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의 영광스러운 전통으로 되고있다. 이것은 청년운동발전에 영원한 생명력을 주는 고귀한 재부로 되였으며 이것을 초석으로 하여 해방후 우리 나라 청년운동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게 되였다.

해방후 나라에 조성된 혁명정세는 모든 애국력량을 민주주의기발아래 굳게 묶어세울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으며 여기에서 청년들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체함이 없이 유일적이며 대중적인 청년조직인 민주청년동맹을 창립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하심으로써 각계각층의 애국적청년들을 당의 두리에 굳게 결속시켜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마련하고 조선청년운동을 새롭게 발전시키는데서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으시였다.

해방된 조선의 청년들은 자기의 참다운 조직을 가지고 당의 령도밑에 민주건설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갔다. 우리의 청년들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전후 어려운 복구건설에서 청춘의 용맹과 슬기를 남김없이 떨치였으며 계속하여 사회주의혁명을 완성하는데서 무비의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하였다.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고 사회주의건설이 전면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조선청년들의 사회계급적처지와 풍모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민주청년동맹을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획기적조치를 취하심으로써 조선청년운동의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이렇듯 우리 나라 청년운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립후 민주건설시기와 1950년대와 1960년대를 빛내이며 그 어떤 우여곡절도 없이 자기의 조직건설의 독창적인 길을 걸어왔으며 온갖 원쑤들의 반혁명적책동으로부터 당과 수령을 옹위하고 조국의 륭성과 번영의 일로를 튼튼히 담보하여왔다.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청년운동사상의 위대한 승리로, 우리의 청년운동의 새 력사가 빛나게 개척되여온 영광의 로정으로 자랑떨치고있다.

조선청년운동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진군길에서 우리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를 마련하는 위력한 운동으로 가일층 심화발전되였으며 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우리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청년들의 전투적조직으로서 우리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이며 적극적인 방조자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25권, 346폐지)

당의 후비대를 마련한다는것은 당 다음가는 정치적조직으로서의 청년조직을 당의 위업을 대를 이어 받들어나가는 조직으로, 새세대로서의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 교대자로 튼튼히 꾸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조직들과 새세대들을 혁명의 령도자를 진심으로 높이 모시고 따르며 령도자의 사상과 위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까지 실현하기 위하여 억세게 투쟁하는 정치적부대로 꾸리는것이 바로 당의 후비대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1970년대에 우리 혁명앞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서고있었으며 해방후에 자라난 새세대들이 혁명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있었다. 우리 혁명의 새로운 환경은 당의 후비대를 튼튼히 꾸리는 문제를 절실히 요구하고있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혁명발전의 요구를 깊이 헤아리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선포한데 이어 사로청을 당의 후비대로, 방조자로 꾸리기 위한 령도의 새 력사를 펼치였다.

사로청을 전투적후비대로 꾸려온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것은 청년대오안에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확고히 지배하도록 한것이다.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은 다름아닌 령도자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령도자를 위하여 청춘의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견결히 싸워나가는 주체형의 새세대들이다. 이런 계승자들이 령도자와 떼수 없는 전일체를 이룰 때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의 전투적후비대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당은 혁명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력사적환경에 맞게 모든 청소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울데 대하여 밝히고 사로청조직들이 충실성교양을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틀어쥐고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왔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인식시키는 원리교양과 수령의 혁명사상과 혁명력사, 고매한 덕성을 체득시키는 교양사업을 옳게 벌려나갈 때 깊이 간직될수 있다.

우리 당이 사로청조직들로 하여금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청소년사업에 철저히 구현하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청소년시절을 따라배우는 사업을 발기하고 힘있게 조직진행해나가도록 한것은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위대성을 심장으로 체득하고 충실성을 신념과 의리로 간직해나가게 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당의 령도밑에 《김일성원수님혁명활동연구실》을 잘 꾸리고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배우는 학습회》와 청년학교를

비롯한 교양체계들이 정연하게 세워졌다. 전국의 청소년들속에서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을 끊임없이 벌려나가고있다. 해마다 수만명이상의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이 답사행군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원대한 혁명의 뜻을 체득하고 당을 따라 주체위업을 굿굿이 이어나가는 장엄한 행군으로 이어지면서 새세대들의 가슴속에 열렬한 충성심을 깊이 심어주고있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마련된 충실성의 전통은 혁명의 충직한 계승자들을 마련하는데서 커다란 생명력을 가지고있다.

우리 당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모범을 우리 시대 청년들이 따라배워야 할 가장 빛나는 구감으로 내세워줌으로써 사로청대오안에 항일혁명대오에 차넘쳤던 불굴의 혁명정신이 그대로 맥박치도록 하였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모범이 혁명영화, 혁명소설 등에 재현되고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직한 근위대, 결사대가 되자!》,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가 되자!》를 비롯한 구호들이 제시된것은 충실성의 전통을 계승해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의 후비대로서의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적풍모는 비상히 높아졌다. 우리의 청년대오안에는 령도자를 높이 모시고 따르며 령도자의 사상과 위업을 수행하는 길에서는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나가는 충성의 일편단심이 확고히 자리잡았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위대한 수령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며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일심단결하여 혁명의 한길로 가고갈 굳은 신념으로 불타고있다.

시대는 달라졌어도 청년공산주의자들처럼 불타는 강과 험한 진펄길도 과감히 헤쳐나가며 당과 수령을 높이 받들고 싸워나갈 강철의 대오로 꾸려진 여기에 오늘 우리 사로청의 자랑스러운 면모가 있다.

충성의 한길에서 우리의 사로청이 믿음직한 후비대로 자라나고있음으로 하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이 백배해지고 혁명의 미래가 양양한것이다.

사로청을 전투적후비대로 꾸려온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것은 또한 청년들을 주체의 혁명위업을 다그쳐나가는 사회주의건설의 실천투쟁속에서 단련육성하도록 한것이다.

혁명적실천활동은 사람들을 사상의지적으로 단련시키는 힘있는 방도이다. 투쟁속에서 사람들은 수령의 의도와 구상을 더 잘 깨닫게 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깊이 체득하게 된다.

청년들은 불타는 열정과 왕성한 육체적힘을 가지고있으며 창조와 건설로 들끓는 사회주의건설장은 우리 청년들을 보람찬 투쟁과 영웅적위훈에로 부르는 활무대로 되고있다. 혁신적안목과 창조적정신이 강하며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청년들의 기질을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에 앞장서도록 이끌어주는데 청년들을 당과 혁명에 충직한 혁명전위로 키우는 중요한 열쇠의 하나가 있다.

사회주의건설의 주력부대로 청년들을 내세우고 혁명실천속에서 그들이 단련육성되도록 하는것은 우리 당이 청년사업을 이끌어나가는데서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긴요한 대상이 나설 때마다 그것을 청년들에게 맡겨주고 진군대오의 앞장에서 한몫 단단히 하도록 이끌어주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절실한 문제, 가장 어렵고 힘든 초소를 대담하게 맡겨주는 우리 당의 크나큰 신임은 청년들로 하여금 언제나 자기들을 굳게 믿고 내세워주는 당의 손길을 몸가까이 느끼게 하였으며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니고있는 높은 사명감을 가슴깊이 간직하게 하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이며 혁명적사업전개원칙으로서의

속도전에 관한 새로운 방침을 제시하고 청년들로써 속도전청년돌격대를 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청년들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는 돌격부대로서만이 아니라 당의 정치적부대의 성원으로 튼튼히 자라날수 있는 적극적인 방도를 마련하여주었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청년들속에서 청년작업반과 청년분조 운동, 좋은일하기운동을 널리 벌리며 《자동화청년돌격대》, 《기술혁신청년돌격대》 등을 무어주어 집단적혁신운동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도록 이끌었다.

우리 당의 정력적인 령도밑에서 청년들은 패기와 랑만에 넘쳐 사회주의건설의 선봉대, 돌격대로서의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며 혁명의 주인공으로 억세게 자라나고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우리의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은 3대혁명소조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투쟁의 기수로 이름떨치며 이 땅우에 자연개조, 사회개조, 인간개조의 새 력사를 빛나게 창조하고있다.

20리 날바다를 가로막는 남포갑문 건설장에서 발휘되고있는 청년들의 영웅적위훈도, 온 나라의 철길을 대륜환선으로 만드는 북부철길공사장에서 기적을 창조하고있는 청년들의 로력적혁신도, 안주와 검덕, 무산지구 등 인민경제의 주요전선들에서 울려나오는 청년들의 승리의 개가도 가장 어렵고 힘든 초소마다에 청년들을 불러준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초소마다에 용약 떨쳐나 돌파구를 열어제끼면서 조국의 향로를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들로 튼튼히 다지며 조선청년의 영웅적기개와 불굴의 의지를 남김없이 발휘하는것이 우리 청년들의 기세이며 새로운 풍모이다.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청년전위의 영예를 빛내이는 영웅적조선청년들이 당이 부르는곳마다에 서있음으로 하여 나라가 창조와 혁신으로 들끓고 우리 당의 계승자, 후비대의 대오가 굳건히 마련되고있는것이다.

사로청을 전투적후비대로 꾸려온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또한 청년조직에 대한 당의 령도체계를 새롭게 세우고 청년사업에 대한 지도를 당사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전환시켜 사로청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한것이다.

청년조직에 대한 당의 령도의 철저한 실현은 그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청년조직은 오직 당의 령도밑에서만 동맹건설과 동맹활동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올바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광범한 청년들을 당의 충직한 아들딸, 당의 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워낼수 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사로청조직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 한편 당의 유일적령도를 빛나게 실현할수 있도록 정연한 지도체계를 세워주었다.

청년조직에 대한 당의 령도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정확한 정책적지도와 정치적지도를 줄뿐아니라 일상적으로 청년조직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지도체계를 바로세울 때 비로소 확고히 실현될수 있다.

우리 당은 청년동맹안에서 중앙위원회로부터 말단조직에 이르기까지 당의 의도와 방침이 쭉쭉 내려가게 하고 동맹건설과 동맹활동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당중앙의 유일적결론에 따라 처리하며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중앙집권적규률을 확립하도록 함으로써 사로청을 당의 지도를 원만히 받아나가는 정치조직으로 되게 하였다. 그리고 청년사업과 동맹활동을 당조직이 틀어쥐고 장악지도하는 사업체계를 튼튼히 세워주어 청년사업에 대한 지도를 당사업의 뗄수 없는 구성부분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당의 지도가 청년조직들에 더욱 실속있게 미치도록

하였다.

당이 새롭게 세워준 사로청 사상교양체계와 조직생활체계, 사로청간부 선발 및 양성체계들은 사로청을 당 다음가는 정치조직으로, 당의 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전투적조직으로 키우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들이다.

우리 당은 사로청조직과 청년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통이 크고 패기있게 일판을 벌려나가도록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해나가게 함으로써 대오안에 청년다운 기풍이 차넘치게 하였다.

당의 령도밑에 움직이는 지도체계가 수립되고 동맹조직들의 전투력이 높아지는 과정에 사로청안에는 당의 후비대로서의 조직사상적기초가 반석같이 다져졌다. 사로청대오는 오늘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사상의지적통일체로,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강한 조직규률이 확립된 전투대오로,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맞받아나가는 전투적인 대오로 튼튼히 꾸려졌다. 이 대오속에서 사로청원들은 조직성과 규률성, 혁명성이 강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청년핵심으로 억세게 자라나고있다.

사로청에 대한 당의 령도체계가 확립됨으로써 사로청이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다져진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전투적후비대를 마련한 자랑찬 과시로 된다.

참으로 사로청은 우리 당의 령도따라 불멸의 위훈을 아로새기며 공산주의의 찬란한 미래를 빛나게 개척해나가는 주체형의 청년조직으로 강화발전되여왔다.

오늘 우리 나라 청년운동은 세계청년운동의 존엄있는 당당한 성원으로 반제, 친선, 평화의 리념을 실현하기 위한 세계 진보적청년들의 투쟁에 적극 기여하고있다.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자랑차게 걸어온 우리 사로청과 조선청년들 앞에는 아직도 멀고도 험난한 길이 놓여있다.

사로청조직들과 모든 청년들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사명을 깊이 간직하고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의 후비대로 준비되기 위하여서는 사로청대오가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져야 한다. 사로청조직들과 청년들은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주체사상의 열렬한 신봉자, 견결한 옹호자, 적극적인 관철자가 되며 1920년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지녔던 그 신념, 그 의지로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방패가 되고 성새가 되여야 한다.

우리의 청년들은 사회주의건설의 힘찬 진군을 다그치는 위력한 담당자들이다. 모든 청년들은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며 맡겨진 초소마다에서 주체조선의 청년된 영예를 떨쳐나가야 한다.

사로청은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령도를 받는 혁명조직이며 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는 여기에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의 훌륭한 앞날이 약속되여있다.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드는것이 혁명하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며 주체위업을 완성하는 길이라는것이 지난 40년간 조선청년운동의 력사가 가르쳐준 진리이다.

우리의 사로청조직들과 청년들은 당의 의도와 구상을 실현하는데서는 사소한 흔들림도 있어서는 안되며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지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을 더욱 철저히 세워나가야 한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조선혁명의 계승자로 억세게 자라남으로써 주체위업의 명맥을 굿굿이 이어나가며 공산주의의 찬란한 미래를 적극 앞당겨나아갈것이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은 근로자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중요방도

김 상 호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이다.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여야 그들의 역할을 높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앞에 제기되는 이 성스러운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이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은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의식, 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는 교양사업이다. 혁명교양은 사람들속에서 혁명성을 배양함으로써 그들이 강의한 의지와 투지를 가지고 혁명위업에 몸바쳐싸워나가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며 계급교양은 근로자들의 계급적 각성을 높임으로써 그들이 계급적원쑤들과 비타협적으로 싸우며 자기의 계급적리익을 고수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은 공산주의적인간육성을 위한 우리 당 사상교양사업의 중요구성부분을 이룬다.

당사상교양사업은 사람들을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기 위하여 그들의 사상을 개조하는 사업이다. 인간개조는 곧 사상개조이다.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사상개조를 선행시켜야 하며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한다.

사람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개조에서 중요한것은 그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에서 기본이 계급의식인것만큼 공산주의사상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이다.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은 공산주의사상의 근본바탕을 이루며 공산주의사상의 모든 내용은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에 기초하고있다.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을 떠난 공산주의사상이란 있을수 없으며 따라서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혁명교양, 계급교양은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서 언제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사람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만드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세계관,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간부들과 당원들을 혁명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서는 혁명전통교양과 함께 계급교양, 혁명교양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계급교양, 혁명교양을 강화하여야 그들이 계급적원쑤들의 본성을 똑똑히 알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울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30권, 60페지)

혁명적세계관, 혁명관은 혁명에 대한 로동계급적 관점과 립장이며 혁명을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는 혁명정신이다. 혁명적세계관, 혁명관을 세우는것은 사람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

하여 몸바쳐투쟁하는 열렬한 공산주의 혁명가로 만드는 출발점으로 된다.

혁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공산주의 혁명가는 바로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려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근본 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혁명투사이다. 따라서 참된 공산주의혁명가가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중요하게는 로동계급의 계급적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가하는가에 의하여 규정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온갖 착취계급과 착취사회를 종국적으로 때려부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생소하고도 거창한 사업으로서 그것은 간고하고 오랜 기간에 걸치는 투쟁을 통해서만 승리할수 있는 력사적위업이다. 따라서 진정한 공산주의혁명가가 되기 위해서는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가할뿐아니라 그에 대한 드놀지 않는 신념과 강의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혁명관은 혁명에 대한 로동계급적 관점과 립장인것만큼 혁명관이 바로서게 되면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로동계급적 립장에서 분석판단하고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견결히 옹호할수 있게 되며 혁명에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참가하게 된다. 혁명관은 또한 혁명을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는 숭고한 혁명정신이므로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 때 사람들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혁명투쟁과정에 부닥치게 되는 모든 시련과 난관을 용감히 이겨내며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끗끗이 싸워나갈수 있게 된다. 결국 사람들이 혁명에 어떻게 대하며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가하는가 하는것은 혁명관이 어떻게 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혁명관이 튼튼히 선 사람만이 참다운 혁명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는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될수 있다.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의식, 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는 혁명교양, 계급교양은 그들속에서 혁명관을 튼튼히 세우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은 로동계급이 자기의 계급적처지와 사명을 깨닫고 모든것을 로동계급의 립장에서 사고하고 판단하며 로동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정신이다. 따라서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그들이 혁명을 로동계급적 관점과 립장에서 대하며 확고한 신념과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혁명을 위해 견결히 싸워나가는 고상한 혁명정신, 혁명관을 옳바로 세울수 있다. 원래 혁명관에는 혁명투쟁을 통하여 자기 운명을 개척하려는 로동계급의 근본요구와 리해관계가 반영되여있으며 자기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끝까지 개척하려는 그들의 드놀지 않는 신념과 강의한 의지가 담겨져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계급적립장과 근본리익을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내는 사상과 감정인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는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떠나서 사람들속에서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사람들을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사상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다그치게 하는데서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사상개조는 사람들의 사상의식령역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종국적으로 없애고 모든 근로자들을 선진적인 로동계급의 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투쟁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사상과 로동계급의 사상사이의 첨예한 사상투쟁이며 착취계급이 청산된 사회주의사회에서 벌어지는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을 이룬다.

사상의식령역에서 심각한 사상투쟁, 계급투쟁을 동반하게 되는 사상개조사업은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할 때

촉진될수 있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그들로 하여금 머리속에 남아있는 집요하고도 보수적인 낡은 사상 잔재를 더 잘, 더 빨리 뿌리빼고 공산주의자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를 갖추도록 할수 있다. 그래야 또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혁명적 사상조류를 옳게 가려내며 그 어떤 반동적인 사상영향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게 할수 있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이렇듯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다그치고 그들의 사상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교양, 계급교양이 사람들을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데서 노는 역할을 깊이 헤아리시고 그것을 당사상교양사업의 중요구성부분의 하나로 틀어쥐고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사업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키우기 위하여 그들속에서 계급적각성을 높이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언제나 큰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혁명발전의 새로운 력사적조건에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공산주의교양을 힘있게 벌리도록 이끄시였으며 여기에서 계급교양에 기본을 두도록 하시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산주의교양에서 계급교양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내놓으신 가장 현명한 조치로 된다.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서고있는 우리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사상과 리론을 심화발전시키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유일사상교양과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공산주의적인간육성을 위한 사상교양사업으로 규정해주시고 당조직들이 사상사업에서 이 두선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의 현실적요구와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인한 복잡하고 간고한 우리 혁명의 특성, 세대교체가 일어나고있는 력사적조건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적관점,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속에서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미워하고 반대하는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을 키우며 혁명적 전쟁관점을 철저히 확립할데 대한 문제등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심화시키기 위한 내용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옳바른 지도적지침을 가지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계급적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혁명교양, 계급교양 사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풍모와 생활기풍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계급적자각과 혁명의식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졌으며 그들속에서는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안일과 해이를 반대하고 혁명적으로 일하고 검박하게 생활하고있으며 모두다 혁명승리에 대한 확신에 넘쳐 당이 가리키는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일어난 전변은 정치사상적으로 굳게 통일단결된 우리의 혁명대오를 더욱 불패의것으

로 다지게 하였으며 그것은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그 완성을 위한 귀중한 밑천으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진군을 보다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정세는 의연히 복잡하고 첨예하다. 북남대화를 계기로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그 어느때보다도 《반공》, 반공화국 선전에 열을 올리고있으며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우리를 헐뜯고있다.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은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계급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킬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 여러가지 수단들을 옳게 리용하여 실속있게 벌리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교양을 원리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구체적사실을 가지고 생동하게 진행하여 그들이 착취제도와 착취계급을 미워하며 지구상에서 제국주의를 완전히 쓸어버릴 때까지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상사업의 내용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 수단들을 통하여 대중에게 전달되고 침투된다. 그러므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여러가지 수단들을 잘 리용하여 진행하는것은 그것을 끊임없이 심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그것을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진행하는것이다.

원리교양은 사물현상의 본질,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깊이 체득시키는 사상교양사업의 중요한 형식의 하나이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진행하여야 반제투쟁정신과 계급의식이 사람들의 확고한 신념으로, 세계관으로 되게 할수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예리하게 보고 판단하는 높은 계급적안목을 가지게 할수 있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반동성과 부패성,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원리적으로 깊이 인식시킴으로써 그들이 제국주의의 량면술책과 자본주의의 일부 화려한 표면현상에 환상을 가지지 않고 계급적, 혁명적 원칙을 튼튼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구체적사실을 가지고 생동하게 진행하는것은 그것을 실속있게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다.

당조직들에서는 력사적으로 조선인민을 반대하여 저질러오고있는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적죄행과 지난날 우리 인민에게 강요되였고 남반부인민들에게 오늘도 강요되고있는 지주, 자본가의 가혹한 착취와 억압, 우리 북반부에서 감행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과 반혁명분자들의 책동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급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그리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 남반부에 아직도 남아있는 지주와 자본가, 반동관료배들에 대한 증오심을 높이고 놈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계급적으로 교양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는 자본주의제도에 비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대비하여 교양하는것이다. 대비교양을 통하여 자본주의제

도에 비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 인식시켜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착취제도를 끝없이 증오하고 우리 혁명의 전취물인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과 사회주의제도, 사회주의건설물들이 있는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게 할수 있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자본주의제도의 부패성, 반동성은 우리 나라 북반부와 남반부의 판이한 현실에서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있다. 당선전일군들은 공화국 북반부와 남반부를 대비하여 교양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동시에 남조선의 썩어빠진 반인민적인 군사파쑈통치제도를 계급적으로 증오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은 여러가지 선전수단들을 리용하여 활발히 벌려야 한다.

혁명적문학예술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의식, 계급의식을 높이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한다. 우리 당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문학예술의 여러가지 형식에 옮기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 수많은 혁명소설을 창작하고 혁명영화, 혁명 가극과 연극을 만들어 세상에 내놓았다. 이것은 사람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하고 자기 조국과 자기 계급을 열렬히 사랑하는 참다운 공산주의 혁명가로 교양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고있다. 그러므로 일군들은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을 통한 실효모임, 이야기모임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교양사업을 적극 벌려야 한다.

우리 당 사상사업의 예리한 무기인 혁명적출판물은 온 나라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대상하여 그들속에서 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릴수 있게 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따라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의식, 계급의식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에 혁명적출판물을 효과있게 널리 리용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그것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이다.

사상사업을 혁명실천과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은 사상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사상사업의 목적은 그자체에 있는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로 하여금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려는데 있다. 사람들은 또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자신을 수양하고 단련하며 혁명가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를 갖추게 된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혁명실천과 결부하여 진행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에서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 발휘하도록 교양하는것이다.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고상한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이며 혁명가적품성이다.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당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수령이 내놓은 당정책에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가 반영되여있으며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곧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이다. 그러므로 혁명교양, 계급교양의 결과가 당정책관철에서 높은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발휘하는데서 나타나도록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계급적각성과 예리한 정치적안목을 가지고 모든

문제처리에서 혁명적원칙성을 철저히 지키도록 교양하는것은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혁명적원칙성은 혁명의 리익과 요구를 철저히 고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며 혁명의 리익과 요구에 어긋나는것과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것이다. 사람들이 혁명의식, 계급의식을 얼마나 높이 체현하였는가 하는것은 그들이 사업과정에서 혁명적원칙성을 견결히 고수하는가 못하는가에 의하여 규정되게 된다. 참된 공산주의혁명가로 되자면 확고한 원칙성을 가져야 하며 그래야 어떤 사나운 풍파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끗끗이 싸워나갈수 있다.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모든것을 우리 혁명에 유리한가, 자본주의에 유리한가를 가려보며 혁명의 리익을 저버리는 온갖 반혁명적사상경향과 행동을 철저히 반대하여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특히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투쟁과정에 그 어떤 난관과 시련이 닥쳐와도 당과 수령, 혁명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할줄 아는 견결하고 대바른 불굴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야 한다.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선전선동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사상사업의 성과여부는 당선전사업을 맡은 일군들이 그 내용을 어떻게 대중속에 침투시키는가 하는데 중요하게 달려있다. 우리 당의 전통적인 선전선동방법은 항일유격대식으로 사상사업을 벌리는것이다.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선전선동방법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는 여기에 혁명교양, 계급교양 사업에서 형식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그것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심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의 하나가 있다.

항일유격대식선전선동방법은 군중속에 들어가 대상의 특성과 준비정도에 맞게 간편하고 알기 쉬운 방법으로 군중을 교양하고 발동하는것이다. 당사상사업의 대상은 군중이며 사상사업의 일감도 군중속에 있다. 혁명교양, 계급교양 사업을 실속있게 벌리기 위해서는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 당선전일군들은 항일유격대원들처럼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생산현장에 내려가 그들의 혁명의식, 계급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상교양을 정열적으로 벌려야 한다.

당사상사업은 사람과의 창조적사업이며 그들의 사상을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사상사업은 그 어떤 하나의 격식과 틀에 맞추어 천편일률식으로 할수 없으며 구체적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것은 항일유격대식선전선동방법의 또하나의 중요한 요구이다. 당선전일군들은 군중속에 들어가서는 그들의 특성과 준비정도에 맞는 옳바른 방법론을 세워가지고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야 한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은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근기있게 벌려나가야 할 사업이다. 지난날 혁명에 충실하였던 사람도 교양을 받지 않고 오래동안 안락한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점차 안일해지며 혁명의식, 계급의식이 마비될수 있다. 특히 오늘 새세대들이 우리 혁명의 주인으로 등장하고있는 조건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근기있게 벌리지 않는다면 그들을 당과 수령, 조국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키울수 없고 혁명의 대를 끗끗이 이어나갈수 없다.

우리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당조직들에서는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잠시도 소홀히 하지 말고 꾸준히 벌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움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인간성은 공산주의혁명가의 중요한 품성

김 도 균

고상한 인간성을 소유하는것은 일군들이 자기의 숭고한 임무와 역할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충복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을 직접 조직지도하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일군들이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자면 높은 혁명성과 함께 풍부한 인간성을 지녀야 한다.

인간성은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고유한 정신도덕적풍모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공산주의자는 사상정신적으로 존엄있고 고상하고 아름다울뿐아니라 높은 문화수준과 풍부한 인간성을 가지고있다.》(《영화예술론》, 48페지)

일반적으로 인간성이란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극진히 사랑하며 성심성의로 도와주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사상감정이며 도덕품성이다.

사람은 집단과 사회안에서 서로 일정한 관계를 맺고 사는 존재이다. 사람은 고립적으로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벌릴수 없으며 자주적인 요구를 실현할수 없고 창조적인 능력을 발전시켜나갈수도 없다. 사람은 일정한 인간관계를 맺어야 살아나갈수 있고 활동할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것은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도와주는 인간성을 지니는것이다. 인간성이 없는 차디찬 사람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수 없으며 참다운 인간관계를 맺을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사람들사이의 관계는 고결한 인간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들사이에서 리행되는 도덕적의무로서의 인간성은 그것이 진정한 인간관계에 기초함으로써만 가장 고상한것으로 될수 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부르죠아지들과 그 앞잡이들도 《인간성》에 대하여 떠들고있다.

그러나 부르죠아지들이 떠드는 《인간성》은 본질상 개인리기주의적인 인간관계에 기초한것으로서 반동적이며 추악한것이다. 철저한 개인주의에 물젖은 부르죠아지들에게서는 그 어떠한 참다운 인정과 의리에 대하여 기대할수 없다. 놈들이 마치 인간성이나 가지고있는것처럼 《박애》와 《인간성》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는것은 순전히 제놈들의 극도의 비인간성과 인간증오사상을 가리우며 인민들을 기만하여 착취계급에 대한 환상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오직 고상한 인간성은 공산주의자들만이 지니게 되는 품성으로 된다.

인간성이 공산주의혁명가의 중요한 품성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니고있는 력사적사명, 혁명적본성과 관련되기때문이다.

우리가 말하는 인간성은 공산주의적 인간성이다.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배려로 일관된 공산주의적인간성의 본질적특성은 우선 그것이 사람의 자주성을 끝없이 존중하고 견결히 옹호하는데 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참다운 의미에서 인간이라고 말할수 없다. 인간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사람의 생명인 자주성을 옹호한다는것을 말하며 따라서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특징지어지는 공산주의적인간성은 결국 사람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견결히 옹호하는데 귀착된다.

사람의 자주성을 끝없이 존중하고 옹호하는 가장 진실한 인간사랑이라는 본질적특성으로 하여 인간성은 결코 누구에게나 다 일반적인 품성으로 체현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높이에서 내세우며 인민의 자주성을 견결히 옹호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근본사명으로 삼고있는 공산주의자들만이 지니게 되는 고상한 품성으로 되는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개인의 리익과 향락보다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하여 서로 긴밀한 동지적관계를 맺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충실하며 거기에서 참된 삶과 행복을 찾는다.

공산주의적인간성의 본질적특성은 또한 그것이 당성, 계급성과 철저히 결합된 가장 혁명적이며 원칙적인 인간애라는데 있다.

인간성은 인간일반에 대한 무원칙한 사랑, 당성과 계급성을 떠난 그 어떤 추상적이고 초계급적인 인간사랑의 감정이 아니다. 공산주의적인간성은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를 담고있는 사상감정이며 품성인것으로 하여 그것은 철저하게 로동계급의 당성과 계급성을 띤다.

공산주의적인간성의 이러한 본질적특성으로 하여 그것은 오직 높은 당성의 체현자인 참다운 혁명가들만이 지니는 고상한 품성으로 된다.

공산주의혁명가는 계급적립장이 철저하고 높은 혁명성을 지니고있다.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의 한길에서 인민을 끝없이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들에게 헌신적으로 복무하면서도 혁명의 원쑤들과 계급적원쑤들에 대하여서는 무자비하고 비타협적인것은 바로 그들이 지니고있는 높은 당성, 계급성과 관련되여있다.

이와 같이 참다운 인간성은 공산주의자의 숭고한 사명, 혁명적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온것으로 하여 그것은 공산주의혁명가들에게만 체현되는 고결한 정신도덕적품성으로 된다.

인간성이 공산주의혁명가의 중요한 품성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에 기초하고 있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의식의 한 형태로서의 도덕 의식과 품성은 일정한 사상, 세계관에 기초하고있다.

인간성은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배려로 일관된 고상한 정신도덕적감정이며 품성인것으로 하여 그것은 사람에 대한 가장 옳바른 철학적 견해와 관점, 립장과 태도를 사상적기초로 하고있다.

지난날 노예들을 《말하는 도구》로, 농노-농민들을 《영원한 노복》으로 대하였던 노예주들이나 봉건령주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사람까지도 《상품》으로 취급하는 가장 반동적이며 비인간적인 관점에 기초하고있는 부르죠아지들에게 있어서 인간성이 체현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우리가 말하는 공산주의적인간성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람이라고 보는 인간존중, 인간사랑의 숭고한 정신으로 일관된 주체철학을 사상적기초로 하고있으며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적인간성은 주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하고있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에게 체현되는 고상한 품성으로 되는것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세계관으로 삼고 그것을

철저히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참다운 혁명가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는 이러한 사상정신적특질을 가진것으로 하여 인간성을 체현할수 있는 세계관적기초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인간성은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보며 모든것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것을 요구하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사상적기초로 하고있는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정신도덕적품성인것으로 하여 그것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고유한 품성으로 된다.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오랜 투쟁력사는 공산주의자들만이 고상한 인간성의 체현자이며 풍부한 인간성의 모범은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창조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의 최고체현자로서 인민들을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그를 구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적환경을 마련한다. 수령은 또한 인민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고 그들에게 한없이 자애로운 은정을 베푸는 가장 고상하고 풍부한 공산주의적인간성의 귀감을 창조하며 그의 최고체현자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사람중심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공산주의적인간성의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형상한 혁명영화 《조선의 별》은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수령님과 청년공산주의자들사이에 맺어지고 준엄한 시련속에서 더욱 공고히 다져진 한없이 숭고하고 고결한 인간관계를 력사적화폭으로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참다운 삶과 투쟁의 길을 찾아 헤매던 김혁이가 길림에 찾아왔을 때 그를 구면친구처럼 포옹해주시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을뿐아니라 그가 감옥에서 얻은 위팔로 하여 고생하는것까지 헤아리시고 무송에 계시는 강반석어머님에게 보내시여 병부터 고치도록 하는 뜨거운 동지적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험난한 이깨리 밥길을 걸으시여 그와 설온주와의 사이에 얽힌 복잡한 관계를 풀어주시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전사들과 인민들의 심장속에 심어주신 참다운 인간성의 숭고성과 고결성을 깊이있게 보여주는것이다.

간고하고 준엄했던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공산주의적인간성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하고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여오는 전과정에 우리 인민들에게 끝없는 사랑과 은정을 베푸시면서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였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있는 행복한 생활, 그것은 우리 인민에게 더욱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모든 정력과 심혈을 기울여오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공산주의적인간성과 높은 덕성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공산주의적인간성은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고결한 인간사랑, 공산주의적인간성의 정화이다.

간고하고 장구한 혁명투쟁과정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여주신 공산주의적인간성은 오늘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더욱 높이 발휘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일하며 생활하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지니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

적으로 복무하며 혁명동지와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피와 살도 나누어주며 혁명동지를 위함이라면 지어 귀중한 생명까지도 바치는것을 고상한 의무로 여기고있다. 이것은 인간을 귀중히 여기고 아끼며 사랑하는 우리 인민들속에서 높이 발휘되고있는 고상한 사상감정이다.

뜨거운 동지적사랑과 고결한 인간성을 지닌 수천수백만의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들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사회는 언제나 혁명적 정열과 랑만으로 들끓고 생기에 넘쳐있으며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결합된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것으로 튼튼히 다져지고있는것이다.

오늘 우리 당은 모든 간부들과 일군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당성과 함께 풍부한 인간성을 소유하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군들은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것만큼 당에 대한 충실성과 함께 인간성도 있어야 합니다. 당일군들에게 인간성이 없으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갈수도 없고 당정책도 바로 집행할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6권, 29페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은 우리 일군들의 본분이며 모든 사업의 첫공정이다. 일군들은 당성이 강하면서도 풍부한 인간성을 가져야 사람과의 사업을 잘할수 있고 군중속에 깊이 침투할수 있다.

풍부한 인간성은 공산주의혁명가들이 대중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지녀야 할 고상한 품성인것만큼 일군들이 인정미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도 가슴아파할줄 모르는 그러한 품성을 가지게 되면 군중이 곁을 주지 않고 따르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일군들은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풍부한 인간성을 소유하고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의 인간성은 무엇보다도 인민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적극 풀어주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인민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처럼 여기고 적극적으로 풀어주는것은 인민들속에서 나왔으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일군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품성으로 된다.

모든 일군들이 인민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것을 적극 풀어줄 때 인민대중은 당을 더욱 믿고 따르게 되며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높일수 있는것이다.

우리 일군들은 인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제때에 알아보고 풀어주며 특히 사람들의 정치적생명과 관련한 문제들은 신중히 다루며 그들이 정치적생명을 계속 빛내여나가도록 따뜻이 이끌어주어야 한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정치적생명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 사람들은 당과 수령이 안겨준 사회정치적생명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하고 그것을 빛내여나가는것을 최대의 영예로, 가장 숭고한 의무로 여기며 육체적생명을 잃을지언정 정치적생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다.

일군들, 특히 당일군들은 바로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책임진 기사들이다.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책임진 일군들의 관점과 사업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사람들의 정치적생명과 관련한 문제가 바로 해결될수도 있고 그릇되게 처리될수도 있다. 정치적생명을 다루는 당일군들이 공산주의적인간성, 어머니다운 품성을 가지고 사람들의 정치적생명과 관련되는 문제를 옳게 처리할 때 그들은 당을 어머니당으로 여기고 진심으로 따르고 받들어나가게 되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며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약화시키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일군들은 사람들의 정치적생명문제를 다룰 때에는 여러모로 심중히 생각하고 그 보호자의 관점에서 제기된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또한 결함을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저지른 과오처럼 가슴아파하고 인내성있게 교양하여 정치적생명을 계속 빛내여나가도록 따뜻이 이끌어주어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하는것이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공산주의적인간성을 지닌 혁명가의 품성인것이다.

우리 일군들의 인간성은 다음으로 인민생활에 대하여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심히 보살펴주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것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임무이다.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하는 목적자체가 근로인민대중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자는데 있다. 여기로부터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언제나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최대의 관심과 배려를 돌리고있다.

우리 당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가 인민들에게 정확히 제때에 가닿게 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우리 일군들의 혁명적본분이다.

우리 일군들은 인민을 위해 성심성의로 일하는 높은 자각과 책임성을 가지고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로부터 그들의 모든 생활에 이르기까지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며 그 해결을 위하여 적극 힘써야 한다. 일군들은 자신이 춥고 배고플 때뿐아니라 덥고 배부를 때에도 인민들은 추워하고 배를 곯을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민들의 생활에 늘 관심을 돌리며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그들의 생활을 잘 보살펴주어야 한다.

일군들이 풍부한 인간성을 지니고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볼 때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일하는 영예와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높은 당성과 함께 고상한 인간성을 소유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그것을 자기의 유일한 세계관으로 만드는것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와 관점, 립장과 태도를 밝혀줌으로써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열렬히 사랑하는 고상하고 풍부한 인간성을 체현할수 있는 세계관적기초를 준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주체사상학습을 강화하여 그것을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세계관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간성을 귀감으로 삼고 그를 전면적으로 따라배워 자신의 고유한 품성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문화정서적소양을 높이는것은 일군들이 풍부한 인간성을 지니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문화정서는 공산주의혁명가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신도덕적풍모의 전면적인 형성과 그것을 발현시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사람은 정서가 있어야 높은 당성과 함께 고상한 인간성을 소유할수 있다. 우리는 일군들속에서 정서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풍만한 혁명적정서와 문화적소양을 가지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공산주의적인간성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온 사회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적기풍을 더욱 활짝 꽃피우며 높은 혁명적의리와 정치적자각에 기초한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것이다.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우리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

강 기 석

오늘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보람찬 삶을 누리고있다.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인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은 생활을 통하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 체험하고 굳게 확신한데로부터 우러나온다. 우리 옹진군인민들도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심장으로 체득하고 여기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있기에 자기 제도를 끝없이 사랑하고있으며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굳건히 지키면서 혁명적열정과 랑만에 넘쳐 억세게 전진하고있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계속 힘차게 투쟁하여야 한다.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우리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높여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고 후손만대의 번영을 앞당겨나가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　　*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신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심장깊이 간직하고있는 혁명적인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은 생활을 통하여 사회주의제도만이 근로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고 가장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줄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였으며 이 제도에서 살며 혁명하는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행복으로 여기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7권, 603페지)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혁명과 건설은 이미 쟁취한 전취물을 고수하고 빛내이며 새로운 승리와 성과들을 이룩해나가는 과정이다. 혁명적전취물과 투쟁업적에 기초하지 않은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전진이란 있을수 없다.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간고한 투쟁과정에 이룩된 가장 고귀한 혁명적전취물은 사회주의제도이다.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다음에는 그것을 공고발전시키는 과정이 곧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으로 된다.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켜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려면 광범한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여기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힘차게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철저히 인식하고 이 제도를 끝없이 사랑하는 고결한 사상감정이다. 이러한 사상감정은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것을 더없는 영예로, 행복으로 여기며 어떤 환경에서도 사회주의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굳건히 지키는데서 나타난다.

그 어떤 추상적인 개념인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이 긍지와 자부심은 결코 단순한 감정으로만 존재하는것이 아니다.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은 사회주의, 공산

주의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고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열정과 강의한 의지를 높이 발휘하게 하는 중요한 힘의 원천의 하나이다.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한 사람은 언제나 열렬한 애국애족의 정신과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 모든것을 다 바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혁명의 전취물을 지키고 창조와 건설을 다그치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게 된다.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는것이 혁명과 건설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은 오늘 우리 인민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의 하나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근로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우리 인민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빛나게 구현된 사회주의제도를 가진 영예와 행복이 얼마나 크고 값높은것인가를 심장으로 느끼고있으며 이 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한결같은 결의에 불타고있다.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떠나서는 오늘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는 물론 우리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전진에 대하여서도 생각할수 없다. 이것은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이 혁명과 건설을 위한 장기적이고도 간고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발휘한 모든 고결한 사상정신적풍모와 잇닿아있으며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더욱 빛내이도록 힘있게 추동하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오늘 우리 인민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를 이루고있는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인격과 권리를 최대한으로 존중시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고있다는 깊은 인식에 기초하고있다.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인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은 결코 저절로 생겨나거나 단번에 공고한 사상감정으로,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로 되는것이 아니다. 사람은 사회적존재인것만큼 자기의 인격을 존중받고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수 있게 되여야 삶의 보람을 느끼며 이런 보람을 안겨주는 사회가 바로 사회주의제도이라는것을 깊이 인식하여야 거기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보다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록 자기 제도를 더욱 열렬히 사랑하게 된다.

적대적계급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착취와 압박의 대상으로서 온갖 인격적인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 비참한 생활을 하지만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근로대중이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으며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누리고있다.

사람의 인격도 돈에 의하여 평가되고 돈없는 사람은 물건처럼 취급하는 자본주의사회와는 정반대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그들모두가 정권의 주인, 사회의 주인으로서 존엄있고 보람있는 삶을 누리도록 확고히 담보해주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물질문화생활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하여주며 전체 인민이 생활에서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고 다같이 고르롭게 잘살도록 보살펴주고있다.

이 모든것은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야말로 근로인민대중의 인격과 권리를 최대한으로 존중시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여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라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여기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게 하며 이 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도록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우

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체험하고 깊이 인식하게 된 결과 여기에서 사는 우리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은 심장속에 뿌리내려졌으며 날로 공고한 사상감정으로 되고있다.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우리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은 또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와 후손만대의 번영을 앞당길수 있다는 굳은 확신으로부터 우러나오고있다.

근로인민대중은 오늘의 행복뿐아니라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한다. 오늘은 행복하여도 보다 휘황한 미래가 담보되지 못한다면 근로인민대중은 결코 삶의 참다운 보람을 느낄수 없는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근로인민대중에게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와 후손만대의 행복을 담보해줌으로써 그들 모두가 여기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굳게 간직하게 하고있다.

근로인민대중의 세기적념원은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을 없애고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인류의 리상사회인 공산주의를 건설하는것이다. 공산주의는 곧 인류의 광명한 미래이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사회가 발전완성되는 과정을 통하여 건설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그 공산주의적성격의 발현인 동지적협조와 단결이 날로 강화되고있으며 새로운 공산주의적시책들이 계속 실시되고있다. 또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되고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이 빨리 발전함에 따라 공산주의에로의 우리 사회의 전진은 더욱 다그쳐지고 래일의 리상이 오늘의 현실로 찬란히 꽃피나고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인민들에게 사회주의제도만이 래일의 휘황한 생활전망을 열어주고 공산주의미래를 앞당겨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라는 굳은 확신을 안겨주며 이 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억세게 전진하게 하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이 날로 높아지고 더욱 공고한 사상감정으로 되는것은 바로 우리 인민이 이것을 굳게 확신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우리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은 오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하는 최대의 영예와 행복과 직접 잇닿아있음으로 하여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발현되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고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결과 이 땅우에 튼튼히 뿌리내려졌으며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날로 륭성번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와 여기에서 누리는 우리 인민의 행복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지난날 인간으로서의 초보적인 권리도 못가지고 정치밖에서 력사의 대상으로만 간주되여오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심으로써 사회정치적자주성을 빛나게 실현하고 력사의 주인이 되여 민족적 번영과 륭성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할수 있게 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기의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이고있으며 미래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고 보람찬 삶을 누리고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조국의 품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품, 우리 당의 품이라고 부르고있으며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살며 혁명하는것을 가장 큰 영예와 행복으로 여기고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우리 인민의

궁지와 자부심은 한없이 고결하고 강렬한것이며 날로 숭고한 높이에 이르고있는것이다.

우리 옹진군 인민들은 력사적인 생활체험을 통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여기에서 사는 궁지와 자부심을 더욱 절절히 느끼고있다.

옹진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8도선이남지역은 8.15후 미제침략자들의 강점밑에 있다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해방되여 공화국의 품에 안기였다. 그러므로 해방전 일제의 식민지통치시기에는 말할것 없고 8.15후에도 이곳 인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악독한 파쑈경찰통치아래에서 피눈물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반동적테로와 폭력적탄압에만 매달리면서 38연선인 이곳 인민들을 총검으로 전쟁도발을 위한 군사기지건설에로 내몰았으며 소위 《농지개혁》을 비롯한 여러가지 기만책동을 벌리면서 추가적인 수탈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그리하여 이곳에는 쓰러져가는 오막살이들만 남게 되였으며 사람들은 헐벗고 굶주린 몸으로 척박한 때기밭을 뚜지거나 원시적방법으로 바다가에서 수산물을 채집하는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일제시대의 식민지노예생활보다 더 비참한 처지에 빠진 당시 이곳 인민들의 생활은 말그대로 고통의 련속이였으며 따라서 사람들은 살아있는것조차 귀찮게 여기지 않을수 없었다.

옹진군인민들의 생활에서 천지개벽은 공화국의 품에 안긴 때로부터 일어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해방지구인 이곳 인민들에게도 공화국공민의 영예를 안겨주시고 생활을 안정향상시키기 위하여 갖가지 혜택을 거듭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옹진군을 여러차례에 걸쳐 몸소 찾으시고 지대적특성에 맞게 농업생산을 빨리 발전시키며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여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데 대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원대한 구상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찬란한 현실로 꽃피나 오늘 옹진군은 그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하였으며 사람마다 활기에 넘쳐 보람찬 생활을 누리고있다.

지난날 현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져있던 로호리, 탑석리, 장송리를 비롯한 모든 농촌마을마다에 아담한 문화주택이 즐비하게 늘어서고 벌거숭이산들은 과일동산으로 변모되였으며 주체농법이 철저히 관철되고있는 전야마다에서는 해마다 대풍이 이룩되고있다. 농업뿐아니라 지방공업, 수산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도 빨리 발전하여 인민생활에 큰 보탬을 주고있으며 나라의 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생산이 높은 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비상히 높아졌다. 수천년 세월 헐벗고 굶주리면서 무지와 몽매 속에서 허덕이던 군안의 인민들은 사회주의근로자가 되여 생활에서의 온갖 근심걱정을 모르면서 창조적인 로동과 유족하고 문명한 삶을 즐기고있다. 전후 짧은 기간에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빈궁의 흔적을 영원히 쓸어버리고 날로 꽃피나는 새생활을 누리게 된 옹진군인민들은 이 행복을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에 끝까지 충성다할 굳은 결의로 가슴 불태우면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 자기의 힘과 재능과 정열을 다 바치고있다.

이처럼 지난날 수난에 찬 생활로부터 오늘의 보람있는 생활에 이르기까지 직접 체험하는 과정에 옹진군인민들은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과 여기에서 사는 궁지와 자부심을 그 누구보다도 절절히 느끼고있으며 이 제도를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있다. 인민대중이 심장으로 체득한 이러한 사상감정을 께뜨릴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기간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온 우리 인민앞에는 광활한 전망이

결처져있다.

오늘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발전하고있는 우리 혁명과 조성된 정세는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힘있게 투쟁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서 사는 높은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그 부강발전을 위하여 헌신분투하도록 인민들을 교양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앞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빛나게 실현하며 당면하게는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겨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과업을 수행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조성된 복잡한 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사회주의건설을 계속 힘있게 추진시켜야 하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

지금 미제와 그 주구들은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화국북반부에 마련된 사회주의제도의 위력이 남조선인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막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놈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비방중상하는 악선전을 대대적으로 벌리면서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책동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조국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굳건히 가질 때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보람찬 사업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적극 투쟁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는데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는것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도록 하려면 무엇보다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로 높이 발양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거대한 우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심화시키는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인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은 사회주의제도의 혁명적본질과 그 우월성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심화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굳건히 간직되며 실천에서 높이 발양된다.

전체 인민들에게 존엄있고 보람찬 삶을 안겨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세월이 흐를수록 그 우월성을 더욱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은 부담이 대단히 크지만 인민생활분야에 방대한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고있으며 새로운 인민적인 시책들을 계속 실시하고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전반적인 무료교육제와 무상치료제를 비롯한 수많은 공산주의적시책을 실시하여온 우리 나라에서 최근 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의 혜택을 베푼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뚜렷이 보여주는 새로운 실례의 하나로 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제도의 혁명적본질을 똑똑히 알도록 하기 위한 원리교양을 강화하는 한편 그들속에서 생활과 밀접히 결부하여 날로 높이 발양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거대한 우월성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 특히 자라나는 새세대들속에서 부모들의 착

쥐받고 압박받던 지난날의 처지를 잊지 말며 전체 인민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철저히 인식하도록 교양사업을 심화시켜 그들모두가 여기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남조선의 썩고 병든 사회제도와의 대비속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당조직들은 《부익부, 빈익빈》의 극치를 이루고있는 남조선사회에서 인민들이 겪는 불행과 고통에 대한 생동한 자료들을 옳게 리용하면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선전사업을 심화시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높은 혁명적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사회주의조국의 위력을 강화하는것이다.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인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은 사회주의조국의 위력이 강화됨에 따라 더욱 높아진다. 사회주의조국의 위력이 강화되면 인민들은 보다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되며 그 과정에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도 높아지는것이다.

사회주의조국의 위력을 강화하려면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불패의것으로 다져야 하며 경제문화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사회주의제도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은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에 있으며 계급적원쑤들은 바로 이 통일단결을 그 무엇보다도 두려워한다.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이 실현된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사회제도로 되며 극단적인 개인리기주의에 기초하여 사람들이 서로 반목질시하는 자본주의제도에 비할바없는 우월성을 발휘하게 되는것이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언제나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하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심장깊이 체득하고 그 두리에 굳게 뭉쳐 서로 돕고 이끌면서 혁명의 한길을 따라 계속 억세게 전진하도록 적극 이끌어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사회주의조국의 위력은 빨리 강화되게 되며 그에 따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이 향상되고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도 더욱 높아지게 되는것이다.

자기 공장과 일터, 자기 마을을 사랑하고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해나가는 것은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이 높은 사람들의 고상한 풍모이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향토를 사랑하고 알뜰하게 꾸리며 나라살림살이에 더 많은 보탬을 주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심화시킴으로써 그들모두를 열렬한 애국자, 참된 공산주의자로 키워야 하며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이 실천에서 높이 발휘되도록 적극 이끌어주어야 한다.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지닌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며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보다 휘황한 미래에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갈것이다.

항일의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 승리의 만년초석

김 정 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인 혁명전통을 창시하시고 해방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하여 더욱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

우리 혁명이 개척되고 발전해온 전로정은 주체의 혁명전통이 창시되고 빛나게 구현되여온 영광의 로정이였으며 그 길우에서 세기적변혁과 기적을 이룩하고 혁명의 명맥을 굿굿이 이어온 보람찬 년대였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닌 숭고한 의무이며 바로 여기에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 *

로동계급의 혁명전통은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혁명위업이 개척되는 력사적시기에 이루어진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과학적인 혁명로선과 투쟁방침을 제시하며 그에 기초하여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한다. 수령에 의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참답게 개척되고 혁명의 지도사상과 과학적인 투쟁로선이 혁명실천에 적용되는 과정에 온갖 선행유산들과 구별되는 불멸의 업적과 귀중한 투쟁경험들이 쌓아지게 된다. 로동계급의 수령이 창시한 사상리론적재부와 혁명업적들은 그 혁명성과 과학성, 불패의 생활력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의 억년 드놀지 않는 만년초석으로 되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근본원천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웅적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창시하시였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선행한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심각한 교훈을 전면적으로 총화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전혀 새로운 길, 자주의 길을 개척해나가시였다. 그리하여 암흑속에서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여 헤매이던 조선혁명은 참다운 자주적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주체위업의 력사적시원이 열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간고하고 장구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는 행정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귀중한 투쟁경험과 빛나는 업적을 쌓으시였으며 가장 위력한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확립하시였다. 그리하여 조선혁명은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승리적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인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전통이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주체의 사상체계와 공산주의적혁명정신, 고귀한 혁명업적과 풍부한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주체의 혁명전통은 그 위대성과 생활력으로 하여 우리 혁명발전의 억년 드놀지 않는 만년초석으로 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이며 끝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입니다.》

혁명전통이 혁명의 만년초석이라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 불패의 활력을 주는 영원한 기초이라는것을 의미한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대를 이어 완성하여야 할 력사적위업인것만큼 그것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자면 혁명투쟁의 전행정에서 항구적으로 의거하여야 할 튼튼한 초석이 있어야 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종국적으로 완성되여나가는 전력사적행정의 밑바닥에 놓이는 사상정신적원천으로, 근본초석으로 되는것이 바로 로동계급의 수령이 창시한 혁명전통이다.

항일의 혁명전통이 우리 혁명승리의 만년초석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 그것이 혁명투쟁의 전행정에서 일관하게 지침으로 삼아야 할 혁명의 지도사상,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다는데 있다.

혁명의 지도사상은 수령에 의하여 창시되며 혁명투쟁의 발전은 이 지도사상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수령이 제시한 지도사상에 기초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 실현에로 대중을 조직동원함으로써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간다. 만일 수령이 창시한 지도사상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리탈할 때에는 혁명투쟁은 목적과 방향을 잃고 좌우경적오유를 범하며 우여곡절의 위험을 면할수 없게 된다.

오직 혁명승리의 길을 개척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고수하고 관철할 때에만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 나갈수 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주되는 내용으로 하고있는 전통이다. 그것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이루어진 혁명전통이며 주체사상을 구현하는 과정에 이룩된 혁명전통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자주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투쟁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로 관통시키고 그것이 자주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가도록 영원한 활력과 생명력을 넣어주는 사상적원천이다. 주체사상을 주되는 내용으로 하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갈 때에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의 명맥을 끝까지 철저히 이어나갈수 있으며 주체위업을 그 어떤 우여곡절이나 조그마한 편향도 없이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고 종국적승리를 최대한으로 앞당길수 있다.

실로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항일혁명투쟁시기와 오늘은 물론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주체의 명맥으로 튼튼히 이어주는 혁명의 피줄기이며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는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되는것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만년초석으로 되는 중요한 근거가 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우리 혁명승리의 만년초석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고무하는 사상정신적원천으로 되고있다는데 있다.

낡은 사회를 뒤집어엎고 새 사회를 건설하며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난 근로대중을 온갖 구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간고하며 헤아릴수 없는 난관을 동반하게 된다. 안팎의 계급적원쑤들을 때려부시고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거창한 혁명투쟁은 결코 아무런 난관도 없이 진행될수 없다. 그러나 난관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필승의 신념과 백전불굴의 투쟁정

신을 가지고 싸워나갈 때만이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으며 그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항일의 혁명전통은 사람들에게 필승의 신념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안겨주며 투쟁에로 끝없이 고무해준다. 항일혁명투쟁은 국가적후방도 없고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한두해도 아닌 20성상을 강도 일제와 싸운 혁명전쟁이였다. 이 투쟁행정에서 이룩된것으로 하여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혁명성과 전투성으로 일관되여있으며 가장 숭고한 높이에 이른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을 구현하고있다.

주체위업을 개척하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숭고한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은 그 어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주체사상을 끝까지 구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원천이며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혁명정신의 구감이다. 숭고한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은 사람들에게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강의한 혁명적의지와 필승의 신념,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혁명적락관주의,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를 안겨준다. 우리 인민은 이러한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을 따라배울 때 불굴의 혁명적의지와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굿굿이 싸워나갈수 있다.

참으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를 이루는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은 주체형의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되기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따라배워야 할 고귀한 구감이며 주체위업을 수행하는 길에서 반드시 높이 발양되여야 할 혁명정신의 무궁무진한 원천이다.

항일의 혁명전통이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일관하게 구현하여야 할 귀중한 원형과 본보기를 제시해준다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여러 단계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완성되여간다. 혁명의 모든 단계와 모든 분야의 투쟁과업들을 수행해나가는데서 원형과 본보기가 있어야 그것에 토대하여 아무런 편향도 없이 확신성있게 전진해나갈수 있다. 혁명승리의 길이 개척되던 시기에 수령이 이룩한 혁명업적을 원형과 본보기로 하여 그것을 고수하고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끝없이 전진하고 계승완성되여나간다.

항일의 혁명전통은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일관하게 구현하고 꽃피워나가야 할 귀중한 원형과 본보기들로 가득차있다.

항일혁명투쟁은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의 과업들을 다같이 내세운 혁명투쟁이였으며 무장투쟁과 정치투쟁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혁명투쟁이였다. 항일혁명투쟁은 단순한 무장투쟁, 군사활동에 국한된것이 아니라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여 대중의 정치, 경제 투쟁이 결합되고 당창건을 위한 투쟁, 인민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투쟁, 통일전선운동이 밀접히 결부된 혁명투쟁이였다. 이러한 투쟁속에서 이루어진것으로 하여 항일의 혁명전통에는 귀중한 업적들이 담겨져있고 당, 주권, 대중단체, 혁명무력 건설경험과 그리고 혁명적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의 원형과 본보기들이 전면적으로 풍부하게 담겨져있다. 항일혁명전통에 담겨져있는 모든 귀중한 재부들은 주체위업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반드시 계승발전시켜야 할 참다운 원형으로, 본보기로 된다.

이처럼 항일의 혁명전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을 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빛나는 원형과 본보기를 제시해주는것으로 하여 조선혁명발전의 전행정에서 승리의 근본요인으로,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억년드놀지않

는 만년초석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주체의 혁명전통은 해방후 여러 단계의 혁명투쟁에서 빛나게 구현되고 끊임없이 발전풍부화되여왔다. 항일의 혁명전통은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력사적단계들에서 우리 혁명을 힘있게 떠밀어주는 사상정신적원천으로, 우리 혁명의 모든 과정과 단계들을 주체의 혈통으로 꿋꿋이 이어주는 생명선으로 되였으며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끊임없이 계승발전되여왔다.

항일의 혁명전통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빛나게 계승되고있으며 심오한 사상리론적재부들로 발전풍부화되고있다. 항일의 혁명전통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우리 혁명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더욱 철저히 구현되여 빛나는 열매를 맺고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떠밀어주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하여서는 항일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변함없이 그 혁명정신으로 싸워나가야 합니다.》

항일혁명투쟁의 나날에 이룩된 모든 혁명적재부들을 끝없이 귀중히 여기고 더욱 빛내여나가는 우리 당은 혁명전통을 계승하는 사업을 혁명의 명맥을 이어나가는 가장 중대한 사업으로,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전기간에 걸쳐 틀어쥐고나가야 할 항구적인 사업으로 내세우고있다.

우리 당은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오직 하나의 전통, 주체의 혁명전통만을 계승발전시키나감으로써 항일의 혁명전통이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지게 하고있다. 우리 당은 당안에 주체의 혁명전통외에 그 어떤 다른 전통이란 있을수 없다는 확고한 립장을 견지하고 혁명전통의 내용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활동과 인연이 없는것이 티끌만치도 섞여들지 못하게 하고있다.

우리 당은 또한 혁명전통교양을 유일사상교양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그것이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사람들을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있다.

혁명전통교양은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선차적인 과업이다.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사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 당은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혁명투쟁의 준엄한 불길속에서 항일혁명대오안에 확립되였던 주체의 사상체계를 전당과 온 사회에 확고히 세울수 있게 하였으며 모두가 혁명선렬들이 발휘한 숭고한 혁명정신을 따라배워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게 하였다. 특히 혁명의 세대가 바뀌고 혁명과 건설이 심화될수록 혁명전통교양을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이 혁명의 계승자답게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해나가게 하고있다.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며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은 온 나라에 위력한 혁명전통교양기지를 꾸린데 이어 최근에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새로 개건확장하여 훌륭하고 웅장하게 건설한데서도 과시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의 그 어디에 가나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과 혁명사적관들이 정중히 꾸려졌으며 온 나라가 말 그대로 혁명전통교양의 학교로 되고있다.

우리 당은 또한 항일의 혁명전통의 모든 재부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혁명전통을 더욱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고있다.

혁명전통의 계승발전은 혁명전통에 담겨져있는 모든 혁명적재부들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사람들의 구체적인 사업과 생활에 구현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우리 당은 혁명전통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당사업의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는 사업과 그것을 실천활동에 구현하는 사업을 하나의 통일적과정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거대한 변혁과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도록 이끌었다.

특히 모든 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할데 대한 당의 사상과 의도는 항일의 혁명전통을 구현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당의 혁명적구호에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된 모든 업적과 경험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길이 빛내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과 확고한 결심이 담겨져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전당과 온 사회에는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확고히 보장되고있으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항일유격대원들이 발휘하였던 숭고한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으로 살며 일해나가고있다.

온 사회에 백두의 혁명정신이 차넘치고 사람들의 심장마다에 주체의 혁명전통이 철석같은 신념으로 깊이 간직되게 된것은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정력적인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또한 여기에 항일의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우리 당이 쌓아올린 빛나는 공적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영원한 재부로 더욱 굳게 다져지고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오늘 우리는 매우 복잡한 환경속에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벌리고있다. 사회주의제도를 헐뜯고 비방중상하는 원쑤들의 발악적인 책동에 우리는 높은 계급적각성과 혁명성을 가지고 맞서야 한다. 우리의 정치사상적우월성과 위력으로 적들의 책동을 짓부시자면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당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하며 특히 혁명전통교양을 폭넓고 깊이있게 벌리는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지난날 항일혁명대오안에 확립되였던 주체의 사상체계를 전당과 온 사회에 확고히 세우며 모두가 항일유격대원들이 높이 발휘하였던 혁명적생활기풍대로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항일의 혁명전통과 함께 해방후 혁명전통을 발전풍부화시켜나가는 과정에 이룩된 풍부한 업적과 경험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현시기 우리 당이 내놓은 중요한 요구이다. 이것은 수령과 그 위업에 대한 우리 당의 끝없는 충실성과 당의 위대성을 체득시키는 위력한 방도이다. 우리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 행정에서 우리 당중앙이 이룩한 거대한 업적과 경험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뢰감을 더욱 높이고 당의 위업실현에서 끊임없는 전진이 이룩되게 하여야 한다.

항일의 혁명전통을 우리 혁명승리의 억년 드놀지 않는 만년초석으로 내세우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해나가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전통을 빛나게 구현해나감으로써 주체위업의 완성을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정치사업은 당일군의 본분

한 기 열

우리 당은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령도하는 당이다. 정치적령도기관인 우리 당에 있어서 정치사업은 기본임무로 된다. 정치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을 떠나서 정치조직으로서의 당의 사명과 역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정치활동가로서의 당일군의 본분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당일군의 본분에 관한 문제는 당사업을 무엇에 기본을 두고 진행하며 어떤 원칙과 방법으로 벌려나가는가 하는 문제이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군중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는것이 정치이다. 당사업은 반드시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에 기본을 두고 진행되여야 하며 당일군들은 모든 문제를 사람들의 사상을 틀어쥐고 사상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은 사람들이 하는것만큼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여부는 결국 사람과의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사람과의 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정치사업이며 사람들의 사상과의 사업입니다.》

(《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68～69페지)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이며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은 당일군의 본분으로 된다.

당사업, 정치사업은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발동하는 사업이며 전당과 온 사회에 생기와 활력을 넣어주는 사업이다. 당사업, 정치사업이 참신하고 패기있게 진행되여야 당과 혁명대오를 튼튼히 다지고 당의 전투력을 더욱 높일수 있으며 광범한 대중을 사회주의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다.

당일군들이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적요구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사람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사람과의 조직정치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조직이다. 정치적령도기관인 당에 있어서 사람의 사상을 발동하고 움직이기 위한 정치사업을 떠나서는 당사업이 이루어질수 없으며 당의 활동이 진행될수 없다. 당사업의 기본을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에 두고 당사업과 당활동을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으로 일관시키는것은 당의 본성적요구로 된다. 만일 당이 당사업의 기본을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에 두지 않고 당사업을 기술실무화하거나 행정경제사업에 매달리게 되면 혁명의 참모부, 정치적령도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수 없게 된다. 당은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당사업의 행정화, 기술실무화를 막고 정치적조직으로서의 당의 성격을 고수할수 있으며 그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옳게 수행할수 있다.

당의 이러한 본성적요구는 당일군들에 의하여 실현된다. 당일군은 당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며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전업으로 하고있는 일군이다.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떠나서 당일군의 본분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당일군의 존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당일군은 당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것이며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것이다.

원래 당일군은 직업적인 정치가이며 대중의 교양자이다. 당사업, 사람과의 조직정치사업을 잘하여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어떤 역경속에서도 동요와 변심을 모르는 주체형의 참

다운 혁명가로 키워나가야 할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가 당일군들에게 맡겨져 있다.

당일군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과 임무를 옳게 수행하려면 사람들을 교양하고 이끌어주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사람은 꾸준하게 교양을 주고 옳게 이끌어주고 좋은 영향을 주어야 빨리 발전하게 된다. 사람들의 자각성을 억제하는 행정적방법으로는 그들의 사상을 개조할수 없고 강압적방법으로는 사람들을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울수 없다. 인간개조사업, 사상개조사업은 오직 꾸준히 해설하고 설복하며 인내성있게 교양하고 이끌어주는 정치사업방법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때문에 당일군은 정치조직으로서의 당의 본성적요구와 직업적인 정치가, 대중의 교양자로서의 본래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모든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데 복종시키고 당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통하여 풀어나가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당일군들이 정치활동가, 대중의 교양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혁명적본분을 다할수 있다.

당일군들이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우리 당의 사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자각적이고 창조적인 로동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건설될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직접적담당자이다.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그 주인인 사람부터 움직이고 옳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사람을 떠나서는 그 어떤 사업도 진행할수 없으며 사람의 사상을 발동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성과도 기대할수 없다.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의 사상을 발동할 때에만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당의 사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당적령도의 기본요구는 대중의 정치적각성을 끊임없이 높이며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발성을 당정책관철에로 적극 조직동원하는데 있다. 당의 사명과 당적령도의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대중의 사상을 발동하고 열의를 불러일으켜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것은 당일군의 본신임무로 되며 근본활동방식으로 된다.

당은 당일군들을 통하여 모든 당조직들을 움직이며 당사업과 당활동을 벌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실현한다. 당이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며 대중과의 련계를 얼마나 실속있게 보장하는가 하는것은 당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얼마나 심도있고 능숙하게 해나가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만일 당일군들이 자기의 본분에 맞게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일하지 않고 당권을 가지고 내리먹이려고 한다면 관료주의를 부리고 행정대행을 하게 된다. 당일군들이 관료주의를 부리면서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사업하지 않으면 당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키고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키게 되며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또한 당일군들이 행정대행을 하게 되면 당정책의 집행정형을 바로 장악할수도 없고 그 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나갈수도 없게 된다. 그리고 당일군들이 행정대행을 하게 되면 행정경제일군들의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그들이 자기 사업에서 적극성과 창발성을 발휘할수 없게 되며 주인다운 립장에서 사업을 능동적으로 벌려나갈수 없게 된다. 결국 당일군들이 행정대행을 하게 되면 당사업도 잘 안되고 경제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당일군들은 자기의 직분대로 모

든 사업을 정책적으로 분석판단하고 정치적방법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언제 어디서나 당사업, 정치사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당일군들이 대중을 불러일으키고 이끌어주는 정치위원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옳게 수행할수 있으며 참다운 정치활동가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다. 이것은 정치사업이 당일군의 본분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전행정에서 언제나 사상적요인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고 사람의 사상을 발동하고 열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울데 대한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왔다.

우리 당은 혁명앞에 무겁고 방대한 과업이 나설 때마다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고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불러일으킴으로써 걸음마다 겹쌓이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왔다. 우리 나라에서 위대한 천리마운동이 일어나고 속도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혁명적대고조가 이룩된 것은 바로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도록 한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영광의 70년대를 거쳐 비약의 80년대로 이어진 우리 혁명과 건설의 력사적로정에서 이룩된 기적적인 사변들과 특기할 성과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패기있고 진공적으로 벌어진 사상사업, 정치사업의 결과에 이룩된 고귀한 결실이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의 요구에 맞게 사상사업, 정치사업을 심화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었으며 수많은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당의 적극적인 조치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사상사업분야에 남아있던 형식주의가 극복되고 정치사업의 내용과 방법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였다.

오늘 우리 당사상사업, 정치사업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 유일사상교양을 기본으로 하여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되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실천과 결부되여 패기있게 벌어지고 있다.

참으로 우리 당에 있어서 당사상사업이 오늘과 같이 참신하고 패기있게 벌어진 때는 일찌기 없었다. 이것은 우리 당건설과 당사상사업에서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업적의 하나로 빛나고있다.

모든 일군들이 당이 밝혀준대로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방법으로 일할 때 어떤 사업에서나 높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우리는 지난 기간의 당사업실천을 통하여 절실히 체험하였다.

함주군당위원회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군안의 천반사업을 틀어쥐고나가면서 함흥벌농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추켜세울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 관철에 힘을 집중하였다.

군당위원회가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심중한 당적주목을 돌린것은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모든 일군들이 사상사업, 정치사업을 하도록 한것이다.

군당위원회는 군안의 모든 간부들과 초급일군들에게 사업상 위치와 능력에 맞게 정치사업과제를 주고 그들이 대중속에서 정치선전,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지도통제하였다. 그리하여 당적으로는 군당책임비서로부터 세포비서에 이르기까지, 행정적으로는 군급책임일군으로부터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작업반장, 분조장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군들이 뚜렷한 정치사업과제를 가지고 대중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게 되였으며 모든 사업을 조직하고 포치하며 전개하기에 앞서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이 완전히 제도화, 습성화되게 되였다.

군당위원회는 또한 군안의 모든 정치사업 력량과 수단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를 철저히 관철하는데 동원되게 하였으며 모든 정치사

업이 때 시기 제시되는 당정책관철 그리고 영농공정과 시기별에 따르는 당면과업의 성과적보장에로 지향되고 복종되게 하였다.

군당위원회는 군안의 모든 선전선동력량과 수단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 관철과 당에서 중요한 관심을 돌리고있는 부문들과 단위들을 추켜세우는데 정치사업의 화력을 집중하도록 하였다. 그러하여 모든 사람들이 높은 정치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게 되였으며 군의 전반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오늘 우리 당중앙은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당사업을 강화하고 사상사업,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일군들은 정치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틀어쥐고 언제 어디서나 정치사업을 능란하고 활발하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깊이 해설침투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대중에게 깊이 침투시키고 그 정당성을 확신시키며 그 수행방도를 똑똑히 파악시키는것은 대중을 발동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인민대중에게 파악되여야 위대한 힘을 나타낼수 있으며 당의 구호도 대중자신의것으로 접수될 때 그 위력이 남김없이 발휘될수 있다.

당 조직들과 일군들은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문제는 무엇이며 오늘 우리 당이 요구하고 해결하려고 하는것은 어떤것인가를 제때에 알려주어 그들모두가 언제나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하여야 하며 불타는 충성심과 높은 정치적자각을 가지고 수령의 사상과 당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수령이 바라고 당중앙이 의도하는 문제를 제때에 풀고 당과 수령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것이 곧 우리 당사업이며 당일군들의 지상의 과업이다.

우리의 모든 당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의도하는 문제를 푸는데 정치사업의 과녁을 정하고 거기에 선전선동의 화력을 집중하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혁명과업수행에서 높이 발양되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정치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는것은 당사업, 정치사업의 중요한 요구이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목적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교양하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자각성을 불러일으켜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다. 정치사업을 떠나서 경제사업의 성과를 생각할수 없으며 경제사업의 성과없이 당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정치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정치사업을 통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수행을 보장하는 여기에 정치사업이 가지는 커다란 위력의 하나가 있다.

당일군들은 한번의 정치사업을 하여도 혁명과업수행을 위하여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하여야 하며 모든 정치사업이 경제과업수행을 떠밀어주고 보장하는것으로 되게 하여 그것이 생산과 건설의 실제적인 성과로 나타나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와 《70일전투》기간에 참신하고 격동적인 정치선전과 경제선동으

로 일터마다에서 새기록, 새 기적을 련이어 창조하던 그러한 혁명적투쟁기풍이 온 나라에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요진통을 찌르게 하는것은 정치사업의 본질적요구이며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내세우고있는 기본원칙이다.

정치사업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요진통을 찔러야 그것이 대중의 정치적자각과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수단으로 될수 있다.

원래 당사업, 정치사업은 사상을 다루는 창조적인 사업이기때문에 형식주의를 하여서는 대중의 심금을 울릴수 없다. 당사업의 대상인 인간은 사상과 감정에서, 의지와 행동에서 언제나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존재이다. 때문에 이러한 사람의 사상을 발동하고 감정을 자극하며 의지를 굳세게 하고 행동에 적극성을 부여하려면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이 생동하고 구체적으로 실속있게 진행되여야 한다.

당일군들은 군중이 알아듣건말건 대중이 관심하건 안하건 관계없이 걸치례나 하고 회수나 채우며 일반적인 강조와 호소로써 정치사업을 대치할것이 아니라 대상의 수준과 혁명임무의 특성, 주어진 조건과 조성된 정황, 군중의 동향과 심리에 맞는 생동한 내용과 다양한 형식을 가지고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정치사업을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당일군들은 새로운 당정책이 제시되면 자기 단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준비정도와 제기된 과업의 특성에 맞게 알기쉽게 해설해주어 당의 의도와 구상이 그들의 뼈와 살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관철을 위한 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어 그들로 하여금 확고한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당정책관철에 적극 떨쳐나설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이 이신작칙하는것은 대중을 고무하고 그들의 열의와 창발성을 높이 불러일으키기 위한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된다.

당일군들은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정치적교양자이며 투쟁의 기수이다. 당일군들은 앉아서 빈말이나 하고 남들을 보고 하라고 요구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혁명의 선봉투사이다.

우리 당일군들은 혁명하는 당, 투쟁하며 전진하는 당의 지도일군답게 애로와 난관앞에서 주저하고 동요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돌파구를 열어제끼고 전진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은 혁명앞에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 어려운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오늘 자기가 서야 할 위치는 대오의 앞장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어야 하며 대중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그들의 심금을 울리는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걸린 문제들을 쭉쭉 풀어나가야 한다.

군중속에 푹 묻히여 그들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대중과 고락을 같이 나누는 당일군이라야 군중이 믿고 따르게 되며 이러한 당일군이 하는 한마디의 말도 비할바없이 큰 감화력을 가지고 대중을 공감시키고 분발하게 한다. 당일군들은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갈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언제나 생산과 건설이 진행되는 현실에 침투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대중속에 들어가 참신하고 패기있는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일군들은 대중의 교양자, 조직동원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투쟁의 기수, 진격의 나팔수로서의 값높은 칭호를 빛내여나가야 한다.

모든 당 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패기있고 진공적으로 벌림으로써 올해전투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여야 할것이다.

예비는 대중을 발동시키는데 있다

김 히 택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최근년간 평천구역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대중을 발동시켜 기술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긴장한 연료문제를 풂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나갔다. 평천구역에서는 지난해 11월말 현재로 인민소비품생산을 그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4.9배로 늘이고 국가예산납부금을 132%로 초과납부하였으며 수출품생산액을 1980년에 비하여 무려 6.2배로 장성시켰다.

평천구역에서 이룩된 이러한 성과는 일군들이 당이 가리키는대로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발동하는데 생산장성의 커다란 예비가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 *

혁명과 건설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생산자대중, 인민대중의 창조적힘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성과여부는 결국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어떻게 동원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55페지)

혁명과 건설의 담당자는 인민대중이다.

사회의 창조력은 곧 인민대중의 창조력이며 그것은 사회적운동의 원동력이다. 인민대중은 자기의 요구와 지향을 자신의 창조적힘으로 실현해나간다. 생산에서도 여러가지 요인들이 작용하지만 여기에서 결정적작용을 하는것은 인민대중의 힘이다. 기계를 움직이는것도 생산자대중이며 원료, 자재를 다루는것도 그들자신이다. 그러므로 기계설비나 원료, 자재, 로동력의 예비는 생산자대중에 의하여 나오게 되며 생산에서 걸린 고리를 푸는 열쇠도 그들에게 쥐여져있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중이 자연발생적으로 자기의 힘을 다 발휘할수 있다거나 생산에서 예비가 저절로 생긴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중의 창조력은 지도와 대중이 결합될 때 커다란 힘으로 발현될수 있다.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발동시켜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이다. 평천구역당위원회는 우리 당의 이 위대한 사업방법을 구현하여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발동시킴으로써 언제나 생산과 건설에서 혁신을 가져왔으며 경제건설에서 막대한 예비를 탐구해낼수 있었다.

구역당위원회가 대중발동에서 얻은 중요한 경험은 지도일군들이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는것이 그들을 발동시키기 위한 첫공정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이다.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야 대중의 요구와 사상상태를 전면적으로 파악할수 있고 대중을 발동시킬수 있는 방도를 찾아낼수 있다. 그래야 로력과 자재, 기계설비, 원료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수 있으며 대중과 함께 모든 예비를 찾아낼수 있다. 그러나 한때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새로운 당적과업이 제시되면 그것을 되받아넘기는 식으로 아래 당조직에 내려먹이는데 그치거나 자신이 직접 아래에 내려가 그 집행에 대한 당적지도를 할대신 아래 당조직과 행정경제일군들을 통하여 그 수행정형을 보고받는데 그치는 현상이 근절되지 못하고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돌끓는 현실에, 군중속에 들어가는것을 사업과 생활의 철칙으로 삼도록 하였다. 특히 구역당위원회는 모든 일군들이 대중속에 들어가 제기된 자료를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

하고 분석판단하며 대중의 요구를 귀담아듣고 걸린 문제를 푸는 방법을 그들과 함께 토론하여 예비를 찾아내도록 하였다. 우리는 당정책관철에서 구역적으로 걸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생산의 주인은 근로대중이다. 대중과 토의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책임일군들자신이 가장 중요한 걸린 고리에 내려가 대중을 발동시키고 다른 지도일군들도 이와 관련된 부문들에 집중적으로 나가 대중을 불러일으켜 걸린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였다.

어느 한 로동자발명가가 연료절약을 위한 창의고안을 하였을 때 구역안의 모든 당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그 새로운 발명을 전구역적으로 생산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속도전을 벌려 집중공세, 섬멸전의 방법으로 극히 짧은 기간에 해제낄수 있도록 당적지도와 통제를 강화한것은 이에 대한 하나의 실례로 된다. 이때 우리는 당일군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연료절약을 위한 기술혁신을 하라고 강조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업을 조직하고 포치하며 기술강습, 방식상학 등을 한두번 조직하는데 그쳐서는 안되며 대중자신이 새로운 발명의 우월성을 체득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자각적으로 발동되여야만 모든 기술적문제가 풀린다는것을 깨닫고 대중속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과 연료를 절약하기 위한 안도 토론하며 자재와 설비예비도 대중과 함께 찾는데 힘을 집중하였다. 이 과정에 부족했던 내화벽돌예비도 많이 나왔고 기술자, 기능공 예비도 나왔으며 생각지 못했던 합리적인 새로운 기술혁신안들도 나오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구역에서는 로동자발명가가 연구한 성과를 2~3개월동안에 구역안의 모든 기관, 기업소들에 도입하여 년간 2만 7,000여톤의 석탄을 절약할수 있는 막대한 예비를 찾아낼수 있었다.

대중을 발동시키는데서 얻은 중요한 경험은 또한 대중의 생산의욕과 창조력을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실속있게 한것이였다. 정치사업은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고 당정책관철에로 대중을 발동시키는 중요한 고리이며 위력한 수단이다.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은 결코 저절로 발양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조직정치사업을 적극 벌려 사람들의 사상을 움직일 때에만 높이 발양되는것이다. 대중은 자기 활동의 목적과 리해관계, 행동방향에 대한 깊은 파악이 없이는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 목적의식적으로 나설수 없다. 사람들은 아는것만큼 보고 느끼고 받아들이며 그에 기초하여 행동하게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대중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당정책을 깊이 인식시켜야 하며 그러자면 정치사업을 앞세워야 한다.

구역당위원회는 지도일군들이 그가 당사업을 하건 기술경제사업을 하건 근로단체사업을 하건 누구나 다 정치사업을 자기들의 본분으로 삼도록 하였으며 모든 일군들이 선전원이 되고 선동원이 되여 대중을 발동시키는 힘있는 정치사업을 의무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특히 우리는 당일군들이 행정경제실무적사업에 매달리는 경향을 극복하고 경제사업에서 당면하게 걸린 문제도 당적방법, 정치사업방법으로 풀도록 하였으며 당일군들이 정치사업을 얼마나 깊이있게 벌렸는가 하는데 기본을 두고 그들의 사업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정치사업을 통한 대중발동은 결국 그들의 사상발동이며 정치사업의 기본목적은 사람들을 의식화, 조직화하고 그들의 사상을 발동하여 혁명과업수행에로 조직동원하는것이다.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요구와 리해관계의 반영이며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지향하는가에 따라 사람들의 모든 사상상태가 결정된다. 우리 인민이 언제나 간직하고있는 높은 지향은 당과 수령의 신임과 배려를 가장 귀중히 여기며 여기에 충심으로 보답하려는데 있다.

대중속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혁신은 바로 그들이 당과 수령의 믿음과 배려를 귀중히 간직하고 이에 대하여 혁명적의리로 보답하려는 요구와 지향이 강할 때 이룩되는것이다. 이로부터 구역당위원회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의 크나큰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당정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당의 경제정책 관철을 위한 사업이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사업으로서가 아니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키우는 과정으로 되게 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막대한 예비를 찾아내고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하도록 하였다. 우리는 혁명영화실효모임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치사업을 통하여 김혁, 차광수 등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수령님께서 주신 혁명임무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끝까지 관철하였는가 하는것을 본받도록 하였으며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자는 당의 구호를 관철하여 도처에서 내부예비를 동원하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심화시켰다.

대중속에서 막대한 예비를 찾아내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에서 중요한것은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경제선동은 당경제정책의 요구와 그 관철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성과, 생동한 모범과 격동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여러가지 선동형식과 다양한 선전선동수단들을 종합적으로 동원하여 벌리는 진공적인 선동이며 대중이 일하는 모든 곳에서 그들을 직접 대상하여 벌리는 전투적인 선동이다. 경제선동은 바로 이러한 특징으로 하여 대중의 기세를 돋구고 생산의욕과 창조적열의를 불러일으켜 생산과 건설에서 많은 예비를 낳게 한다. 당위원회는 일군들속에서 경제선동의 우월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그것을 일시적인 깜빠니야로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우리는 경제선동을 천편일률적인 도식에 얽매여 대중에게 아무런 흥미도 주지 못하게 하는것과 같은 형식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그것을 격식과 틀이 없이 실속있게 하는데 힘을 넣었다. 특히 구역당책임일군들자신이 아침 일찌기 공장, 기업소 정문에 나가 출근하는 로력혁신자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거나 예술영화 《월미도》의 한 장면을 돌리고 방송마이크로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당과 수령께 충성다하자는것을 호소한것을 비롯하여 지도일군들이 직접 앞장서 경제선동을 벌린것은 대중동원에서 큰 실효를 나타냈다.

대중을 발동시키는데서 얻은 경험은 또한 독립채산제를 높은 수준에서 정확히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생산의욕과 창발성을 높이게 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여야 생산자들의 생산의욕을 더욱 높이고 기업소의 경영활동을 합리화할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28권, 125페지)

독립채산제는 사람들의 생산의욕을 더욱 높이고 기업소경영활동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하고있는 경제지도관리방법이다. 구역당위원회는 지도일군들과 생산자대중이 독립채산제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도록 정치사업을 강화하였으며 누구나 다 그 본질과 기본요구, 독립채산제규정들을 환히 알도록 학습을 여러차례 깊이있게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대중자신이 어떻게 하면 경제적공간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수익성을 높이겠는가 하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하였다.

우리는 평양화장품공장, 평양양말공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들에서 독립채산제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한 시범을 창조하면서 누구나 기술혁신에 열정을 쏟아붓고 로력적열성을 발휘할수 있도록

독립채산제 규정과 세칙을 더 세분화하고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그것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우리는 3월30일주택건설사업소, 평양피복공장을 비롯하여 여러 단위에 나가 모든 조건이 다 보장되여야만 독립채산제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관점을 바로잡았으며 그 규정과 세칙을 대중의 요구에 맞게 옳게 작성하고 어떤 조건에서도 그것을 원만히 실시할수 있게 합리적으로 만들도록 하였으며 대중자신이 독립채산제규정을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독립채산제실시에서 참된 주인으로 되게 하였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구역안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물의 원가계산과 수익성타산, 로동조직 등 기업소경영활동이 부단히 개선되고 독립채산제가 높은 수준에서 실시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독립채산제기업소들에서는 지난해 11월말현재로 그 전해보다 원가는 3.4% 낮아졌으며 수익성은 120%로 높이였다.

경험은 당의 의도대로 로동에 대한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밀접히 결합시키는것이 대중의 생산의욕과 창발성을 높여 최대한으로 절약하면서도 더 많이 생산하고 막대한 예비를 낳게 하는데서 매우 중요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발동시킨것은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의 예비를 찾아내게 한 또하나의 중요한 경험으로 된다.

현시기 생산장성의 큰 예비는 기술혁신에 있으며 그것은 기술자들을 발동할 때라야만 성과적으로 이루어진다.

구역당위원회는 모든 당일군들이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 현시기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힘을 돌려야 한다는 립장과 관점을 정확히 가지도록 하였으며 일군들속에서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소홀히 하면서 기술혁신을 적극 밀어주지 않는 현상들을 강약하여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적극 벌리였다. 당위원회는 구역안의 기술자들을 빠짐없이 장악하여 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였으며 기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재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수 있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우리는 《4.15기술혁신돌격대》 구역지휘부를 통하여 구역적으로 제기되는 기술혁신안을 매일 종합하는 체계를 세우고 좋은 기술혁신안이 한건도 무시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최대의 관심을 돌렸으며 기술자들과의 사업정형을 일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제때에 총화평가해주는 사업을 짜고들었다.

우리는 기술자들이 기술을 발전시키려다가 생기게 된 일시적인 실패에 대해서는 그것을 정확히 료해분석하고 그들에게 신심과 믿음을 안겨주면서 그들을 새로운 기술혁신에로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평양화력발전소의 어느 한 기술자가 폐열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주저앉아있을 때 구역당위원회에서는 그에게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안겨줌으로써 끝내 실험연구사업을 성공하게 하였으며 매해 5만톤의 석탄을 절약하면서도 1만4,000세대나 더 많은 주택 난방을 보장하는 기술혁신을 할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우리는 맡겨진 기술과제를 얼마나 높은 충성의 열도를 가지고 수행하는가를 기본으로 기술자들을 평가하였으며 기술자들의 사업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그 단위의 당사업도 함께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기술자들속에 맺혀있는 문제들을 풀어주어 당에 끝까지 충성다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업들을 거듭 진행하는 과정에 최근년간 기술자들속에서 수많은 가치있는 새로운 발명들과 창의고안들이 나오게 되였다. 최근 2~3년동안에 구역적으로 1만 3천여건의 기술혁신안이 생산에 도입되여 막대한 자재와 원료가 절약되고 로동생산능률을 급속히 높일수 있는 커다란 예비가 생기게 되였으며 수천만원의 리익을 국가에 줄수 있었다.

대중발동에서 얻은 중요한 경험은 또

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한것이다. 대중운동은 대중발동의 기본형태이다. 구역당위원회는 당일군들이 대중을 발동하여 예비를 찾아내는 길은 바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힘있게 벌리는데 있다는 똑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대중운동을 당적인 사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도록 하였다.

구역당위원회 일군들이 3월30일주택건설사업소와 평양피복공장에 나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당적지도를 한 경험은 대중운동지도에서 형식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그것이 실속있게 조직진행되도록 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이 공장 초급당위원회들에서 대중운동을 실속있게 벌리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론을 광범히 토의하고 대중의 준비정도와 공장의 조건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투쟁목표와 과업, 대중운동발전단계를 합리적으로 세우는데 힘을 넣도록 하였다.

구역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이곳 초급당위원회들은 모든 부문에서 전망결의목표와 단계별 결의목표를 실속있게 세우고 결의목표들을 새로운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부단히 갱신하면서 수행하게 하였으며 결의목표수행정형에 대한 총화와 평가 사업이 언제나 대중의 열의를 높여주는 방향에서 실속있게 진행되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하였다.

구역당위원회는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평양피복공장 제1가공직장과 3월30일주택건설사업소에서의 대중운동경험을 비롯하여 구역안의 모든 기관, 기업소들에서 진행되는 대중운동경험을 제때에 종합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구역당위원회는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실속있게 벌려나갔다. 구역당위원회는 생산자대중속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싹들을 제때에 찾아내여 조장시키며 사람들의 긍정적행동에 대하여 정확히 평가하도록 하는데 힘을 넣었다.

우리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당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밀고나가면서 이 운동을 발전시키는데서 당의 외곽단체인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도록 하였다.

오늘 우리 구역에서는 수많은 기관, 기업소, 직장, 작업반들이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였고 수많은 숨은 노력가들과 숨은 공로자들이 나오게 되였으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대중을 끊임없는 혁신에로 추동하는 위력한 수단으로서 더욱더 활발히 진행되게 되였다.

경험은 예비가 다른데 있는것이 아니라 바로 생산과 건설의 담당자인 대중을 발동시키는데 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높이는데 힘을 넣음으로써 1980년대에 주체위업수행에서 위대한 전진을 이룩하려는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갈것이다.

생산정상화와 일군들의 책임성

손 몽 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현실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를 더욱 개선하며 인민경제 모든부문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획기적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근본요구이며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건설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다. 생산을 정상화하여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인민경제를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고 경공업혁명을 다그쳐 인민생활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도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생산정상화는 사회주의계획경제의 본질적우월성을 구현하고있다. 경쟁과 무정부성이 지배하는 자본주의경제에서는 생산의 심한 파동성이 특징적현상으로 되여있지만 사회주의계획경제에서는 생산이 정상화되여 경제가 빨리 발전하는것이 합법칙적인것으로 되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의 끊임없는 장성은 매개 생산단위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경제계획을 시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룩될수 있다.

사회적생산이 국가의 유일적계획에 의하여 계획화되고 조직화되는 사회주의경제에서는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온갖 가능성들이 존재한다. 모든 생산공정들이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재생산의 고리들과 공장, 기업소, 부문들사이의 련계가 계획적으로 밀접하게 맺어지는것만큼 생산이 시기적으로나 지표별로 균형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히 갖추어지있다. 그렇다고 하여 생산정상화문제가 저절로 해결될수 있는것은 아니다.

모든 생산단위들이 인민경제계획과제를 꼭같은 수준에서 수행할수는 없는것이다. 기업소들과 기업소내부단위들에서의 계획과제의 수행정도에는 차이가 있을수 있다. 어떤 직장, 공장들에서는 계획을 초과수행하는데 다른 직장, 공장들에서는 계획과제를 겨우 수행하거나 지어는 미달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각이한 조건에서 진행되는 사회적생산을 정상화하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직 로동계급의 당의 옳바른 령도밑에 짜인 경제조직사업을 통하여서만 생산정상화문제는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생산정상화의 담당자는 생산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근로자들과 경제지도일군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산의 정상화와 로동생산능률의 장성은 로동자들에게만 달려있는것이 아니라 더욱 크게는 생산조건을 보장하며 로동자들을 지도하는 지휘관들의 능력과 조직사업에 달려있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3권, 453～454페지)

경제지도일군들은 경제사업을 직접 조직하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모든 경제사업의 성과여부는, 결정적으로 경제지휘성원들이 경제조직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도 다름아닌 경제지도일군들에 의하여 설계되고 조직전개된다. 경제지도일군들이 책임적으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 때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는것이다.

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일군들의 책임성을 높이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는것은 이 사업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의 정상화는 인민경제계획을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로 그리고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사회주의기업소들에서 생산과제를 반드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생산보장과 수송조직이 제대로 되여야 한다. 생산조건을 옳게 보장하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쓰는 원료와 연료만 놓고보아도 계획수행에 필요한 모든것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한다는것은 간단하지 않다. 매개 공장, 기업소별로 원료와 연료의 보장조건이 또한 같을수 없는것이다. 어떤 기업소들에는 보다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는데 비하여 다른 기업소들에는 보다 불리한 조건이 조성될수 있다. 그리고 공장, 기업소들에서 쓰이는 원자재의 가지수도 수없이 많다. 이렇게 많은 원자재들을 계획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원만히 보장하자면 고도의 조직성, 치밀하고도 째인 조직사업이 필요한것이다. 생산보장조건을 원만히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이밖에도 설비, 로력 보장과 같은 복잡한 문제들도 합리적으로 풀어야 한다.

맡겨진 국가계획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생산보장조건을 마련하는것과 함께 생산 및 기술공정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사업이 필요하며 로력조직, 재정조직을 비롯한 기업소경영활동도 조직화하여야 한다.

생산정상화란 다름아닌 기업소의 생산 및 경영활동의 종합적결과의 반영인것이다. 따라서 경제지도일군들이 높은 책임성을 지녀야만 생산정상화와 같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훌륭히 해결할수 있다.

일군들의 책임성을 높이는 문제는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데 대한 경제발전의 현실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게 제기된다.

생산을 정상화할데 대한 요구는 사회주의건설의 전과정에서 항구적으로 제기될뿐아니라 혁명과 건설이 진척되는데 따라 더욱더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추진되면 될수록 생산과정이 더욱더 복잡해지고 기업소사이, 부문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가 밀접해진다. 이것은 국가계획과제를 시기별, 지표별로 더욱더 정확히 집행할것을 요구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빛나게 관철해오는 과정에 이미 튼튼한 경제토대가 마련되였으며 그에 의거하여 지금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력사적인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이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균형적으로, 조화롭게 발전시켜 경제의 끊임없는 장성을 이룩하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 나라가 경제발전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들의 대열에 하루빨리 들어설수 있으며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할수 있다.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자면 매개 생산단위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맡겨진 계획과제를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로 그리고 지표별로 정확히 수행하여야 한다. 오늘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은 끊임없이 빠른 경제장성속도를 이룩하는데서 기본으로 되고있다. 지난해 계획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김책제철련합기업소나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제철소, 제강소들에서의 경험은 경제지도일군들이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경제조직사업을 잘하면 생산을 능히 정상화하여 맡겨진 계획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흑색금속공업부문 기업소들에서는 경제지도일군들이 들끓는 현장에 내려가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며 변화되는 정황에 맞게 생산 조직과 지휘를 구체적으로 짜고들고 책임적으로 밀고나감으로써 생산을 정상화하고 생산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다. 바로 일군들의 책임성을 높여 생산을 정상화하는 여기에 기계설비들에 만부하를 걸어 이

미 마련된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예비가 있는것이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하여 일군들이 책임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문제는 자재보장사업과 협동생산조직, 수송조직을 잘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산을 정상화하려면 첫째로, 자재보장사업을 잘하여야 하며 둘째로, 협동생산조직을 잘하여야 하며 셋째로, 수송조직을 잘하여야 합니다. 자재보장, 협동생산, 수송조직은 생산정상화의 기본요인이며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풀어야 할 기본고리입니다.》

자재보장, 협동생산, 수송조직은 현시기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풀어야 할 기본고리이다.

원료, 자재는 생산의 필수적요소이며 생산과정은 다름아닌 원료, 자재의 끊임없는 소비과정이다. 만일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제때에 보장하지 못하면 생산균형과정이 중단되고 생산에서 파동성을 가져오게 되며 기업소경영활동에 커다란 지장을 주게 된다. 자재공급사업을 잘하여야 공장, 기업소들을 만부하로 돌리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다.

경제일군들이 자재보장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은 자재를 생산에 앞세워 보장하는것이다. 우리 당은 자재를 반드시 생산에 한달이상 앞세워 보장할데 대한 요구를 제기하고있다. 모든 경제일군들은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이 당적요구를 실현하여야 한다.

자재를 생산에 앞세워 보장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경제지도일군들이 생산조직과 함께 자재보장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 구체적이고도 기동적인 행정경제적대책을 세우는것이다. 원자재에 대한 수요는 생산정형에 따라 수시로 변동된다. 끊임없이 달라지는 자재수요를 제때에 보장하자면 일군들이 생산정형과 자재실태를 환히 꿰들고 당의 경제정책과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자재보장 방향과 선후차를 옳게 규정하며 가장 긴요한 자재부터 먼저 보장해주는 원칙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

자재를 생산에 확고히 앞세워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중앙과 지방들에 조직된 자재공급기관들과 련합기업소자재상사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전문적인 자재공급기관들은 련합기업소들사이에 자재수공급계약을 바로 맺도록 련계를 지어주며 계약규률을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자극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자재공급기관들은 또한 계획과 계약에 예견된대로 자재의 수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변동되는 정황에 맞게 자재보장사업을 기동적으로 조직해나가야 한다.

협동생산조직을 잘하는것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기본고리의 하나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지차와 같이 맞물려돌아가는 우리 사회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생산하는 공장, 기업소들이 협동생산규률을 철저히 지켜야 그것을 받아쓰는 부문과 생산단위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는데도 결정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수 있게 된다.

일군들이 협동생산조직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계약된 협동생산품을 반드시 매달 상반기에 생산보장하도록 하는것이다.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킬때 협동생산품을 주문한 공장, 기업소들에서 그것을 제때에 받아쓸수 있으며 따라서 생산을 정상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협동생산품을 먼저 생산보장하는데서 중요한것은 협동생산규률을 엄격히 세우는것이다. 일군들은 협동생산계획에 맞물려진 제품들을 먼저 생산하는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우고 협동생산계획수행에 대한 총화와 평가를 똑똑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협동생산규률은 엄

격히 세우자면 일군들속에서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리익보다도 언제나 인민경제의 전반적리익, 전사회적리익을 먼저 생각하며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고상한 기풍을 확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시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기본고리의 하나는 수송조직을 잘하는것이다. 생산은 곧 수송이며 수송은 곧 생산이다. 오늘 수송문제를 원만히 풀지 않고서는 인민경제부문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없다.

수송조직을 잘하는것은 이미 마련해놓은 수송능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이다. 수송조직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제품을 생산하는족족 실어나를수 있도록 되게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교통운수부문에서는 수송계획을 수요와 능력을 세밀하게 타산한데 기초하여 과학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맞물려 역수송, 반복수송을 비롯한 모든 불합리한 수송을 없애며 엄격한 규률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이 부문 일군들은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집중수송, 집합수송을 옳게 조직하며 련대수송조직을 짜고들어 철도수송, 자동차수송, 배수송사이의 련계를 정확히 맞물리고 수송수단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듯 자재보장, 협동생산, 수송조직은 생산정상화의 항구적인 요인으로 될뿐아니라 현시기 생산을 계획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풀어야 할 기본고리로 되고있다.

자재보장사업, 협동생산조직, 수송조직을 다같이 잘한다는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 문제는 일군들이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이악하게 사업을 조직전개해나갈 때 비로소 원만히 풀릴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생산정상화사업을 자신이 책임지고 힘있게 조직전개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맡겨진 혁명과업을 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하는것은 우리 일군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사업기풍이다. 제기된 혁명과업을 자신이 끝까지 책임적으로 수행하려는 자각이 없으면 제힘을 믿지 않고 남만 쳐다보게 된다. 자기에게 맡겨진 과업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는 혁명적각오를 가지고 사업할 때에라야만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현시기 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일군들의 책임성은 걸린 문제들을 련합기업소와 기업소 자체의 힘으로 푸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국가계획과제수행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매개 생산단위가 져야 한다. 이 요구는 오늘 기업경영활동에서 독립채산제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할 사정과 관련하여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생산정상화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기업소에 부과되여있는것이다.

사회주의기업소들이 가지고있는 경영상 상대적독자성은 독자적인 경영활동과 함께 그 결과에 대한 기업소의 책임성을 전제로 한다. 기업소들은 국가계획의 범위안에서 독자적인 기업활동을 벌리는 동시에 국가앞에 경영활동의 결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는 경영활동상의 독자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업소들에 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로력들을 고착시켜주며 그에 대한 관리권과 리용권을 부여하고있다. 그러므로 기업소들은 국가계획과제를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철저히 자기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생산정상화를 위한 투쟁에서 기업소들은 결코 그 책임을 우에 밀수도 다른 련관된 기업소들에 전가시킬수도 없는것이다. 국가계획수행과 관련하여 지도단위나 련관기업소와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책임도 전적으로 해당 생산단위에 있는것이다. 오직 기업소지도일군들이 사업을 짜고들

어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악하게 풀어나가야 생산을 정상적으로 조직할수 있다. 문제는 경제지도일군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생산정상화사업에 대하는가 하는데 있다. 오늘 련합기업소들이 널리 조직되고 거기에 일정한 권한이 주어진 조건에서 생산정상화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기업소지도일군들의 사업태도와 사업기풍에 달려있다. 기업소일군들은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새로 조직된 련합기업소와 기업소 관리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감으로써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신을 이룩하여야 한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자면 경제지도일군들이 생산지휘를 빈틈없이 해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생산실태와 설비상태, 기업관리정형을 손금보듯이 환히 꿰들고 생산정상화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생산의 정상화가 기업소의 생산 및 경영 활동의 종합적결과인것만큼 경제조직사업의 어느 한 측면도 소홀히 하여서는 생산지휘를 잘할수 없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자재보장사업, 협동생산조직, 수송사업을 비롯한 기업관리의 전반공정을 빈틈없이 맞물리며 모든 생산공정이 중단됨이 없이 움직여나갈수 있게 하여야 한다. 특히 분공을 잘 조직하고 총화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며 재포치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감으로써 기업소의 모든 단위, 경영활동의 모든 고리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돌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또한 변화되는 정황에 맞게 생산지휘를 기동적으로 따라세워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야 한다. 생산을 정상화하자면 수많은 문제들이 제기되며 걸린 고리들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기동적으로 푸는가 하는것은 생산을 계획적으로 진행해나가는데서 관건적고리로 된다. 생산지휘를 기동적으로 하기 위하여서는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도들을 세우며 이악하게 달라붙어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기업소일군들이 생산정상화사업을 적극 추진시켜나갈수 있도록 그들을 잘 도와주어야 한다.

당조직들은 경제일군들속에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책임적으로 경제사업을 해나가도록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그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잘 도와주어야 한다. 그래야 경제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낡은 버릇을 철저히 극복하고 당적, 국가적 립장에 튼튼히 서서 생산지휘를 책임적으로 해나갈수 있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책임성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맡겨진 생산과제를 시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듦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경영활동의 과학화와 경제적타산

주 용 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여야 할 무거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생산과 건설을 다그쳐 전반적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경영활동을 과학화, 합리화하는것이다.

경영활동의 과학화는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 언제나 중요한 문제로 나서지만 경제규모가 커지고 부문사이의 련계가 밀접해질수록 더욱더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더우기 기층생산단위들의 규모가 커지고 련합기업소와 같은 큰 범위에서 생산기술적련계가 맺어지며 경제관리가 진행되는 조건에서 경영활동을 더욱 과학화, 합리화하여야만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경영활동을 과학화한다는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운다는것을 의미한다. 과학적인 경영활동은 생산에 미치는 여러가지 요인들과 객관적조건, 실제적인 경제적자료들에 대한 옳은 분석과 판단에 기초한 사람들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을 통하여 실현되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의 활동은 세밀한 경제적타산에 기초하여 진행될 때만이 경제를 과학적으로 움직이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갖 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생산원가와 건설원가를 끊임없이 낮추며 엄격한 경제적타산에 기초하여 경제를 관리운영하여야 할것입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1권, 318페지)

경제적타산은 경제관리운영의 합리적인 방도를 찾기 위하여 그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요인들과 객관적조건들을 따지는 사업이다.

경제적타산을 잘하는것은 무엇보다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경제를 과학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를 정확히 구현하는것은 경영활동을 과학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로 된다.

원래 경제법칙은 경제 현상들과 과정들에 관통되고있는 본질적이며 필연적인 련관을 말한다. 경제법칙은 자연법칙과는 달리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작용한다. 계획작성, 생산조직, 제품판매, 로력관리, 설비관리, 자재관리, 재정관리와 같은 경영단위들에서의 모든 사업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경제적요구와 리해관계에 맞게 그리고 주어진 경제적조건과 대상에 맞게 조직진행될 때만이 경영활동에서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가 구현되였다고 말할수 있다.

경영활동은 언제나 객관적조건과 대상과의 련관속에서 이루어지는것만큼 그것이 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진행되게 하려면 객관적조건과 대상, 경제적요인들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따진데 기초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사람들이 객관적조건과 대상, 경제적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지 않고 주먹치기식으로 경영활동을 진행하게 되면 많은 사회적로동을 랑비할수 있으며 경제관리를 과학화할수 없게 된다.

련합기업소와 같은 대규모기업체를 단위로 하여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있는 현실적조건에서 여러가지 경제현상들과 객관적조건들을 잘 타산하는것과 함께 로력과 기술, 원료, 자금과 같은 계획화의 주요한 요소들을 면밀히 따져

가면서 경영활동을 벌려야 객관적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과학적으로 할수 있다. 이것은 경제적타산을 잘하는것이 경영활동에서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를 정확히 구현하여 경제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경제적타산을 잘하는것은 또한 최대의 경제적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과학적경제관리의 목적을 실현할수 있는 중요한 방도이다.

경제를 과학적으로 관리운영하는것은 결국 생산수단과 로동력의 보다 적은 지출로 더 많이, 더 좋게, 더 빨리 생산하고 건설함으로써 최대의 경제적성과를 이룩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경제적성과는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에 의하여 이룩되며 그것은 전적으로 사회와 그들자신을 위하여 리용되게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영활동을 개선하여 최대의 경제적성과를 내도록 하는것은 필수적인 요구로 나서게 된다.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제적타산을 잘하여야 한다. 계획을 세우고 자재를 소비하며 로동정량을 제정하고 생산과정을 지휘통제하는 과정은 다 정확한 경제적타산에 기초하고있다.

경제적타산을 잘하면 생산단위와 생산요소사이의 세부적인 련계와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균형관계를 보장하며 이미 마련하여놓은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수 있다. 또한 주어진 설비와 자재, 로력, 자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며 효과적인 기술적대책안을 선택하는것과 같은 수많은 기술경제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뿐만아니라 이미 이룩된 경제적성과를 옳게 계산평가하고 해당한 대책을 제때에 정확히 세울수 있으며 보다 큰 경제적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사업도 예견성있게 진행해나갈수 있다.

경제적타산을 잘하는것은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독립채산제는 물질적관심성의 원칙에 기초하고 가치법칙의 형태적리용을 전제로 하는 사회주의국영기업소의 계획적관리운영방법이다.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에서 독립채산제는 공장, 기업소들이 정확한 경제적타산에 기초하여 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는 중요한 경제적공간이며 그것을 바로 실시하는것은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고 절약제도를 강화하여 기업관리를 더욱 개선해나갈수 있게 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된다. 오늘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단위들의 대렬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그 방법도 더욱 심화되였다. 그리하여 개별적 공장, 기업소 단위는 물론 련합기업소와 같은 큰 규모에서도 독립채산제가 실시되고있다. 생산지휘, 자재보장사업과 같은 경영활동이 련합기업소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 조건에서 계획화의 모든 요소들을 따지고 그에 기초하여 경제적효과성을 타산하면서 경제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 단위는 물론 련관된 부문에서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할수 없게 된다.

련합기업소들에서는 언제나 경제현상과 경영활동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객관적조건들을 전면적으로, 통일적인 련관속에서 해부학적으로 분석하고 생산물의 원가와 수익성과 같은 지표들에 대한 경제적타산을 앞세워야 경영활동을 원활히 벌려 자체수입으로 지출을 보상하고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줄수 있다.

이처럼 경제적타산을 잘하는것은 경제관리에서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경제적타산문제에 시종일관 깊은 관심을 돌리고 여

기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었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왔다. 그리하여 오늘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 정연한 경제적타산 체계와 방법이 서게 되였으며 그것은 나라의 경제발전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발전하는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생산의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전면적으로 타산하여 경영활동을 더욱 과학화, 합리화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생산의 모든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따지고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는 방향에서 모든것을 타산하며 될수록 적은 지출로 보다 큰 경제적 효과를 나타낼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여 해당한 기술경제적대책을 세워야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이것은 평양강철공장의 실례가 잘 말하여주고있다. 이 공장에서는 면밀한 경제적타산을 앞세워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생산방법을 받아들임으로써 경영활동을 더욱 개선해나갔다. 이 공장 일군들은 지난 시기 생산하던 보통질의 탄소강대신에 저합금고속도강을 생산하면 경제적으로 매우 효과적이라는것을 타산하고 해당한 기술경제적대책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별로 큰 밑천을 들이지 않고도 공장의 수익성을 높일수 있었으며 많은 강재를 절약할수 있게 하였다. 우리 일군들이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경제적타산을 면밀히 한데 기초하여 경영활동을 짜고든다면 이러한 예비는 얼마든지 있다.

사회주의경제에서는 로력과 기술, 원료, 자금을 비롯한 계획화의 모든 요소들과 로동생산능률, 설비리용률, 원료, 자재 소비기준, 원가, 수익성 등 생산의 질적지표 같은 타산의 대상이 수없이 많고 다양하며 타산방법도 고도의 구체성과 세밀성, 전면성을 띤다. 또한 타산단위도 수만, 수십만을 헤아린다. 이러한 조건에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경제적타산에서 나서는 일련의 원칙적인 요구를 지켜야 한다.

경제적타산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요구는 우선 모든 경제적요인들과 객관적조건들을 국가적립장에서 타산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공장들은 다 국가에 속한 기업체입니다. 그렇다면 공장지배인은 어떠한 경제타산을 할 때에도 공장과 국가를 분리시켜서 할것이 아니라 항상 국가와 련관시켜서 생각하여야 하며 국가적립장에서 하여야 할것입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0권, 48페지)

국가적립장에서 타산하는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하고있으며 모든 부문,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같은 목적과 리해관계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련결된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과학적관리의 필수적요구이다. 이 원칙은 개별적 부문이나 기업소의 리익을 전국가적, 인민경제적 리익에 복종시키며 개별적 부문이나 기업소 앞에 제기된 경제적과업을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그와 련관된 부문이나 기업소들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괄하여 전인민경제적립장에서 따지고 규정할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경제적타산을 할 때 언제나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자기 부문이나 자기 기업소의 조건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효과성뿐아니라 련관된 부문이나 기업소의 경제적효과성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는 비록 불합리하더라도 인민경제 전반적 범위에서 볼 때 경제적효과성이 보장되면 그러한 방안은 합리적인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경제적타산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요구는 다음으로 당면한 리익과 전망적리익을 옳게 결합시키는것이다.

당면한 리익과 전망적리익을 옳게 결합시키는것은 인민경제발전의 현단계와 앞으로의 발전단계에 주는 리익을 종합

적으로 타산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나라의 경제력을 강화하며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원만히 보장하는것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오늘과 앞으로의 소비를 위하여 모든것을 건설하고 생산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당면한 리익과 전망적리익을 다같이 보장하는것이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물질문화적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하게 된다. 만일 전망적리익만을 생각한다면 근로자들의 당면한 물질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킬수 없고 당면한 리익만을 고려한다면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해나갈수 없으며 나아가서는 앞으로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도 더욱 향상시킬수 없다. 당면한 리익과 전망적리익을 옳게 결합시켜 경제적효과성을 타산하는것은 인민경제의 전망적인 발전을 옳게 보장하고 당면한 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당면한 리익과 전망적리익을 옳게 결합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당면한 리익과 전망적리익을 다같이 고려하면서도 당면한 리익을 전망적리익에 복종시키는 방향에서 타산하는것이다. 따라서 지하자원을 개발하고 공장, 기업소를 건설하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조직을 개선하는것과 같은 모든 문제처리에서 반드시 오늘뿐아니라 래일의 경제발전에서 이룩되게 될 결과와 지출까지 세밀히 따져가며 처리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나가야 한다.

이러한 원칙적요구에 맞게 모든 경제적문제들이 구체적이고 세밀하며 전면적이고 종합적으로 타산되여야 그것이 사회의 공동리익과 근로자들의 리익에 다같이 부합될수 있다.

경제적타산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일군들속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옳바른 립장과 관점을 가지는것이다.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적타산에서도 일군들이 어떤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대하는가 하는데 이 사업의 성과여부가 크게 달려있다.

엄격한 경제적타산에 기초하여 모든 경제적문제들을 처리하는것은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의 근본요구이다. 경제적타산을 홀시하고 경제적문제들을 되는대로 처리한다면 주관적의도와는 관계없이 나라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지장을 줄수 있다. 만일 기본건설계획을 세울 때 축적과 소비와의 호상관계와 현존생산능력유지를 위한 기본투자, 현존기업소의 기술적개건 및 확장을 위한 기본투자, 신설을 위한 기본투자사이의 호상관계,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원료, 자재의 보장조건, 생산물에 대한 전망적수요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타산하지 않고 주관적 의도나 욕망에 의하여 처리한다면 인민경제발전에 커나란 후과를 미칠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에 엄중한 난관을 가져오며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주게 된다. 이것은 경영활동에서 타산을 잘하는것이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나라의 전반적경제발전을 더욱 다그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우리 일군들은 경제적타산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지고 이 사업을 홀시하면서 주먹치기식으로 일하는 그릇된 경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경제적문제처리에서 반드시 타산을 앞세우는 기풍을 세워 경영활동의 과학화, 합리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나가야 한다.

모든 경제사업을 경제적타산에 기초하여 설계하고 처리하는 엄격한 제도와 질서, 규률을 세우는것은 경제적타산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경제적타산을 개선강화하는 문제는 일반적인 호소나 강조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으며 어느 한 부문이나 단계에서 만 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경제사업의 모든 단계와 공정들, 경제관리기구의 매 부서들의 일상사업에서 구현되고 제도화되여야 한다. 크고 중요한 문제뿐아니라 작고 덜 중요한 문제까지도 빠짐없이 경제적타산에 따라 처리하는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그 어떤 경제적 과업과 목표, 방향, 방도이든지 그것을 설계하고 심의하며 비준하는 모든 환절들과 단계들에서 그의 기술경제적가능성과 합리성을 철저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규정하고 집행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경제발전과 경제관리운영에 대한 경제적분석을 정상화하며 기본투자의 경제적효과성에 대한 타산을 강화하는것이다. 이와 함께 새 기술도입에 대한 경제적효과성타산과 대외무역에서 경제적타산을 잘하여야 한다.

경제적타산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타산을 위한 조건을 잘 갖추는것이다.

일군들의 사상적각오가 높다고 하더라도 경제적타산을 위한 조건들이 원만히 갖추어져있지 않으면 이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다. 경제가 발전하고 일군들의 경제관리운영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이 높아지는데 따라 경제적타산의 내용과 방법, 기준이 개선완성되는것은 필연적이다.

경제적타산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여러가지 기술경제적자료들을 빈틈없이 갖추고 경제적효과성타산에 관한 제반 규정들을 끊임없이 갱신보충하며 통보체계를 일층 완비하여야 한다. 기본투자의 경제적효과성타산에 관한 방법론적규정, 새 기술도입의 경제적효과성타산에 관한 방법론적규정을 끊임없이 갱신완성하며 그에 기초하여 부문별 규정들을 갱신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경제적타산이 유일적이며 과학적인 방법론에 따라 조직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군들의 기술실무적자질을 높이는것은 경제적타산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경제적타산은 높은 정책적안목과 경제지식, 기술경제적자질을 요구하는 사업이다. 경제지도일군들이 우리 당의 경제정책과 사회주의경제리론을 깊이 체득하며 우리 나라의 현실과 과학기술발전추세 같은것을 폭넓고 깊이있게 알아야 경제적타산을 정확히 제때에 할수 있다.

일군들이 기술실무적자질을 높이려면 그들속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고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그들을 재교육하며 현대과학기술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알려주는것이 필요하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제적타산의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자기앞에 맡겨진 경제과업수행에서 언제나 타산을 앞세워 보다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을 받아들임으로써 경영활동을 과학화, 합리화하고 인민경제의 끊임없는 높은 장성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할것이다.

불멸의 자욱, 고결한 풍모에 대한 빛나는 형상

—다부작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1～5부)에 대하여—

석 윤 기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반영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은 그 높은 사상예술적감화력으로 하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사상정신적량식으로, 혁명의 교과서로 된다.

오늘 다부작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1～5부)가 광범한 근로자들속에서 그처럼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것은 이 작품이 우리 시대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훌륭히 반영하였기때문이다.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1～5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장 충직한 혁명전사이신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우리 민족사에 남기신 불멸의 자욱에 대하여 예술적으로 생동하게 그리고있으며 그이께서 지니신 고결한 풍모에 대하여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이 장편소설이 나오게 됨으로써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할데 대한 우리 문학의 시대적과제가 더욱 훌륭하게 해결되게 되였으며 우리 근로자들은 김정숙동지를 따라배우기 위한 귀중한 교과서를 가지게 되였다.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1～5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첫 시기로부터 1939년 5월 무산지구전투 시기까지를 포괄하고있다. 장편소설은 이러한 시기에 김정숙동지께서 어떠한 생활과정을 통하여 주체의 혁명관을 세우시였으며 어떻게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모시고 충성의 한길을 걸어오시였는가를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생동하고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불멸의 자욱, 고결한 풍모에 대한 송가인 장편소설은 제1부로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드팀없는 충성의 일편단심으로 수놓아진 김정숙동지의 혁명적생애를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여러 측면에서 깊이있는 예술적화폭으로 형상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자기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였으며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견결한 공산주의자들이였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30권, 27페지)

김정숙동지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신념화된 충실성이다. 이것은 장편소설에 일관된 사상적알맹이이며 그것을 훌륭히 형상한 바로 여기에 작품이 가지고있는 커다란 감화력의 원천이 있다.

수령에 대한 신념화된 충실성은 진짜배기혁명가의 기본징표이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투쟁의 길에 한몸바쳐 나선 참다운 혁명가는 혁명의 령도자를 무한히 존경하고 흠모하며 수령이 가리키는 혁명의 한길을 억세게 걸어나간다. 그러나 수령에 대한 충성심에 자그마한 티라도 있는 사람은 한때는 혁명의 길을 걷다가도 준엄한 시련에 부닥치면 견디기 힘들어하며 심한 경우에는 조국과 인민을 반역하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떨어질수도 있다. 이것은 수난에 찬 조선혁명의 오랜 력사가 확증하는 고귀한 진리이며 생활의 교훈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무한한 충성심을 간직하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령도자로 높이 우러러모시였으며 수령님을 따라 싸우는

바로 거기에 나라의 독립과 민족해방의 참다운 길이 있다는것을 온몸으로 확신하시였다.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 제1부 《유격구의 기수》에 그려져있는 부암동과 상촌유격근거지에서의 생활, 대봉시에서의 지하공작에 대한 화폭들은 이것을 실감있게 보여주고있다.

소녀시절에 겪으신 참담한 생활, 망국의 설움을 씻어보겠다고 무장을 들고 일어섰던 아버지의 희생, 일본침략자들의 《토벌》에 의한 어머니의 희생과 체포되였던 올케의 장렬한 최후 등 거듭되는 피눈물나는 체험은 김정숙동지로 하여금 일찍부터 혁명의 길에 나서시게 하였다. 더우기 사람들속에서 널리 전해지는 민족의 태양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들 그리고 오빠 김기순동지의 꾸준한 교양은 김정숙동지를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흠모, 충성심으로 활활 불타게 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신념화된 충성심을 지닌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성장하시는데 중요한 작용을 한것은 사회계급적, 가정적 환경의 영향뿐아니라 혁명조직의 교양과 부단한 자체수양 그리고 혁명실천과정에 몸소 겪으신 체험이였다.

이처럼 혁명원리와 생활체험을 통하여 공고화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신념화된 충실성은 김정숙동지께서 그 어떤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불굴의 혁명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실수 있게 한 사상정신적기초였으며 그 원천이였다.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 제2부 《사령부로 가는 길》에 감명깊게 그려져있는바와 같이 삼도만근거지에서 자나깨나 흠모하여마지않던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처음으로 만나뵈옵고 직접적인 가르치심을 받으시는 김정숙동지의 감격과 행복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없이 큰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반《민생단》투쟁의 반동적본질을 규탄하시면서 요영구회의에서 채택된 근거지해산방침의 의의를 해설해주실 때 그리고 그동안 반《민생단》투쟁의 좌경적오유를 간파하고 시련을 겪고있는 혁명동지들을 적극 도와주며 아동단사업을 추켜세운데 대하여 높이 평가해주실 때 김정숙동지께서는 장군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전사로 한생을 빛나게 살리라고 거듭 속다짐하시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무한한 긍지, 그것은 장군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은 곧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것을 굳게 믿으시고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위업수행에 몸과 마음 다 바쳐 싸우는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여기시는 철석같은 신념에 기초한것이였다. 그리기에 김정숙동지께서는 우주의 영원한 광원인 태양을 떠나서 빛나는 별을 생각할수 없듯이 장군님의 찬란한 새받을 떠나서 혁명전사의 참된 삶을 생각할수 없다는 신념을 안고 장군님의 명령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나가시는것이다.

도천리일대와 신파지구에서 벌리시는 김정숙동지의 적후활동을 전면적으로 묘사한 장편소설의 제3부 《광복의 새날》과 제4부 《그리운 조국산천》은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받은 혁명전사는 어떤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 그것을 관철하여야 하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도천리를 중심으로 한 하강구일대와 신파지구에 조국광복회 조직을 확대하고 혁명적군중지반을 튼튼히 꾸리는것은 국내에 백두산근거지와 같은 하나의 혁명기지를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받으신 과업이 그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계시였기에 적들의 삼엄한 경계와 위험이 뒤따르는 엄혹한 환경에서도 충성의 해발이 되여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혁명의 편에 묶어세워 일제를 반대하는 싸움에 떨쳐나서도록 이끌어주시는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 극히 짧은 기간에 신파폐목촌을 혁명화하고 조국광복회 신파 지회와 분회들을 조직하여 그것을 국내의 넓은 지역에로 확대해나가시는 한편 신파지구에 당소조까지 무으시는 과정의 묘사는 참으로 감동없이는 읽을수 없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장군님의 명령을 받은 전사가 살아있고 그의 심장이 뛰고있는 한 장군님의 명령은 드팀없이 관철하여야 한다는 한마음 안고 활동을 벌리셨기에 보신주의자들과 악경분자들, 과격한 국내 공산주의자들과 동요하는 민족주의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대결과 마찰을 극복하면서 그들 한사람한사람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조국광복의 길에 세워주시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명령, 지시에 대한 김정숙동지의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은 적들에게 체포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혁명적지조를 굳건히 지키시어 혁명조직을 구원하시고 광범한 대중을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신데서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동지들, 안심하십시오. 나는 죽을것입니다. 그러나 조직은 살것입니다. 나의 재산의 전부인 2원을 보냅니다. 조직의 자금으로 써주십시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 적들에게 체포되시였을 때 감방에서 혁명조직에 보내신 이 편지는 사람들의 심장을 얼마나 격동시키는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탈옥할수 있는 조건에서 그처럼 절절한 동지들의 탈옥권고를 마다하시고 혁명조직을 목숨으로 지켜나가신 숭고한 형상은 김정숙동지이시야말로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신 견결한 혁명투사이라는것을 가슴뜨겁게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1~5부)는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보위하고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목숨으로 지켜나가시는 김정숙동지의 고결한 풍모를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줌으로써 수령에 대한 혁명전사들의 충실성은 어떻게 발현되여야 하는가를 생동하게 가르쳐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혁명로선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그와 배치되는 온갖 잡사상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것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기본특질의 하나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로선을 옹호고수하시였으며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우리 혁명군의 국경연안에로의 진출은 어느 누구의 주관적의사도 아니고 조국과 력사의 요구입니다. …우리 주력부대의 저 행군이야말로 우리 나라 력사에 류례없는,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가장 성스러운 애국적인 행군입니다!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장군님만이 그런 결심을 하실수 있고 장군님의 결심은 백번 정당하고 빈틈없는 정확한것입니다! 사령부의 현 로선은 눈물겹도록 옳은것입니다!》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 제5부 《진달래》에서 진실하게 묘사되여있는 청봉밀영사건 당시 김정숙동지께서 웨치신 이 절절한 말씀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로선을 어떻게 옹호고수하여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일제가 대륙침공에 열을 올리면서 제놈들의 후방을 위협하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소멸》하기 위하여 수십만대군을 동원하고있는 엄혹한 정황은 놈들의 《토벌》공세를 격파하고 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불러일으킬것을 절실하게 요구하였다. 이로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패자회의에서 놈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하는 동시에 시련을 겪는 조국인민들에게 신심을 안겨주고 지하혁명조직을 복구정비하기 위하여 적극적이며 혁명적인 로선, 새로운 조국진군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몸소 진두에 서시여 우리 혁명력사에 《고난의 행군》으로 알려진 력사적인 진군길에 오르시였다.

그러나 일제의 대공세에 겁을 먹은 혁명의 배신자 엄상호는 청봉밀영에서 부화타락한 생활을 일삼으면서 혁명의 《퇴조기》를 운운하며 사령부의 조국진군방침을 시비중상하고있었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혁명로선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자와 정면대결하시여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목숨으로 옹호하시였던것이다.

순간을 살아도 오직 위대한 장군님만을 위하여 살고 장군님을 위하여서는 한생도 서슴없이 바치실 각오가 되여있는 김정숙동지의 높은 정신세계는 특히 장편소설의 제2부에 그려져있는 무송현성진공전투에 대한 감동적인 형상에서 두드러지게 표현되고있다.

처음부터 치렬하게 벌어진 무송현성진공전투는 날밝을무렵까지 계속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녀대원들에게 잘루목으로 가서 식사준비를 할것을 명령하시였다. 반일부대들의 퇴각으로 전투가 더욱 어렵게 되자 장군님께서는 적들을 성밖으로 끌어내여 족칠것을 계획하시고 부대를 철수시키시였다. 그런데 이때 이미 성문을 빠져나온 일부 적들이 사령부에 집중될 위험이 조성되였다. 적정을 민감하게 판단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의 위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적들을 잘루목 저편으로 유인하여 사령부의 안전을 보위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 사령부의 안전을 목숨으로 보위하시는 이런 숭고한 희생정신을 보여주는 감명깊은 화폭들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당과 수령을 보위하는데서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된다는것이 어떻게 한다는것을 의미하는가를 산 모범으로 가르쳐주고있다.

장편소설은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김정숙동지의 충실성을 여러 측면에서 보여줌으로써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충실성교양에서 참다운 교과서로 되고있다.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불요불굴의 혁명정신과 함께 풍부하고 고상한 인간적풍모를 한몸에 체현하신 참된 혁명가이시였다.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1~5부)는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신 숭고한 정신세계와 고결한 풍모를 빛나게 형상하고있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는 투철한 공산주의적신념을 지니고있을뿐아니라 인간에 대한 가장 뜨거운 사랑의 정신을 지니고있는 열렬한 혁명가, 정치성과 인간성이 완전히 겸비된 참된 공산주의자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가는 정치성이 있어야 할뿐아니라 인간성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혁명적인 영화를 만든다고 하여 주인공들의 정치성만 강조하여서는 안됩니다.》
(《김일성저작집》 제23권, 152페지)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에게는 정치성과 인간성이 하나로 통일되여있다.

공산주의혁명가는 당과 수령, 인민대중을 위하여 투쟁하는 전위투사들이다. 그러므로 혁명의 전진을 가로막아나서는 모든 낡고 뒤떨어진것, 자주성을 짓밟는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을 끝없이 미워하고 그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할뿐아니라 공산주의미래와 잇닿아있는 모든 새롭고 진보적인것, 혁명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열렬히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다 바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는 정치성과 인간성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완전히 겸비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의 구감이시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받들어나가는 그 길에서 해방된 조국의 휘황한 앞날을 내다보시면서 굴함없이 싸우시였으며 혁명동지들과 인민대중을 위한 헌신적복무의 고결한 품성을 높이 발양하시였다.

정치성과 인간성을 완벽하게 체현하고

께서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서의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성격적풍모는 장편소설의 매 부에 빛나게 그려지고있다.

김정숙동지는 능숙한 지하공작원, 세련된 조직자, 선전자이시였으며 모진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굴할줄 모르는 강의한 공산주의혁명가이시였다.

장편소설 제4부에서 무모한 폭동의 실패로 하여 로동자들과 민족주의자들, 지어 국내 공산주의자들에게서까지 배척을 당하는 좌경분자 한성옥을 원칙적으로 교양하시고 실천투쟁을 통하여 혁명에 대한 그의 그릇된 관점과 립장을 바로잡아주시여 끝내 그를 당소조책임자로까지 내세워주시는 김정숙동지의 형상은 얼마나 숭고한가. 운명의 곡절로 하여 인생의 험한 가시덤불길을 헤매며 흘릴수 있는 더운 눈물은 죄다 만다버려 가슴속에서 더는 온기를 찾아볼수 없을것 같던 한 녀성을 인간의 존엄을 알고 혁명이라는 밝은 길을 찾아 힘차게 걸어나가도록 크나큰 은정과 정성을 다 쏟아부으시는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습은 감동없이는 읽을수 없다. 이러한 화폭들은 정치성과 인간성을 숭고한 높이에서 겸비하신 김정숙동지의 고결한 풍모에 대한 빛나는 예술적일반화이다.

이렇듯 고결한 인간적풍모를 지니셨기에 김정숙동지는 투쟁에 나서신 첫시기에 벌써 《근거지의 누나》로 이름높았으며 한때 오해하던 지하공작지의 인민들도 검손하고 다정한 그이의 인품에 감화되여 혁명의 길에 나서게 되는것이다.

장편소설에 그려진 김정숙동지의 고결한 인간적풍모는 특히 혁명동지들에 대한 끝없는 믿음과 헌신적복무정신에서 더욱 진하게 표현되고있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 하신 모든 일은 동지들을 위한것이였지 자신을 위한것은 하나도 없었다.

장편소설의 제2부에 그려진바와 같이 좌경적인 반《민생단》투쟁은 혁명동지들을 서로 믿지 못하게 하였으며 지어 《민생단》으로 몰리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동정하는 눈치만 보여도 련루자의 감투를 쓰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이였다. 이 살벌한 환경속에서도 김정숙동지께서는 일상생활을 통하여 잘 알고있는 그들이 결코 《민생단》으로 될수 없다고 믿으시기에 왜놈《토벌대》가 밀려드는 위험한 순간에도 펄펄 끓는 죽가마를 이고 산꼭대기까지 뛰여올라가 《민생단》혐의자들에게 더운 죽을 나누어주시는것이다.

동지에 대한 끝없는 믿음과 사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있는 김정숙동지의 고결한 풍모는 장편소설의 제5부에서 칭붕민영의 정치책임자였넌 리금준을 갱생의 길로 이끄시는 과정을 통하여 더욱 잘 나타나고있다.

사령부의 보신을 빈뜰는 엄광호의 배신적인 행동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할 대신 후퇴을 가니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한 리금준은 응당 엄한 처벌을 받았어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혁명을 하겠다는 그의 결심을 굳게 믿으시고 관대히 용서받을수 있게 하시였을뿐아니라 사령부를 따라 동요없이 걸어나가도록 정성을 다하여 도와주신다.

이처럼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 인민들과 혁명동지들에게 바치신 사랑과 정성은 친혈육의 마음보다 더욱 자애롭고 따사로운것이였으며 불보다도 더 뜨거운것이였다.

이 사랑, 이 정성에 의하여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받들어 나가는 충성의 대하가 될수 있었으며 조국광복의 성스러운 한길을 억세게 걸어나갈수 있었던것이다.

이렇듯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 (1~5부)는 김정숙동지의 혁명적생애를 충성의 력사로, 정치성과 인간성을 한몸에 완전히 체현한 공산주의적인간에 대한 자랑스러운 송가로 생동한 화폭을 펼쳐보이고있다.

다부작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 (1~5부)가 충성으로 빛나는 김정숙동지

의 불멸의 자욱과 고결한 인간적풍모를 참신한 예술형상으로 그처럼 훌륭히 그려낼수 있은것은 혁명전통물작품창작에 관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을 철저히 구현하였기때문이다.

장편소설은 우선 실재한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김정숙동지를 형상의 중심에 모시고 인간관계를 맺으며 모든 사건들을 력사적사실에 맞게 전개하여나감으로써 그이의 불멸의 력사를 깊이있고 진실하게 그려내였다.

김정숙동지의 혁명적생애는 그자체가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깊이 감동시키며 거대한 인식교양적의의를 가지고있다.

장편소설의 창작가들은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을 받들고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충성의 해발로 깊이 간직되여있는 김정숙동지께서 경애하는 수령님을 민족해방의 구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어린시절부터 곡절많은 혁명의 한길을 변함없는 충성으로 빛내여오신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인간관계를 맺고 사건을 엮어나감으로써 시대에 대한 폭넓은 일반화와 진실한 형상을 창조할수 있었으며 커다란 감동을 주는 혁명전통교양의 훌륭한 교과서를 창작할수 있었다.

력사적사실에 철저히 기초한다는것은 결코 력사적사실자체를 라렬하거나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복사한다는것은 아니다.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1～5부)는 10년 가까운 력사적시기를 배경으로 하면서 이 시기에 있었던 중요한 력사적사건들을 많이 취급하고있지만 단순히 사건 그자체를 복사하는 식으로 한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성격의 핵인 충실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발현되는가 하는 작품의 매 부가 설정한 주제사상적요구에 맞게 생활을 전형화하여 묘사하였다.

그리하여 장편소설은 오랜 력사적시기를 포괄하면서도 그것을 평균적으로 묶고루 라렬한것이 아니라 충실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발현되는 사건과 사실들에 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집중함으로써 작품의 기본사상주제적과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있다.

이와 함께 김정숙동지의 혁명활동내용을 보여주는데서도 그것을 전기식으로 서술한것이 아니라 그이의 열렬한 혁명정신과 다정다감하신 성품이 혼연일체가 되여 충성의 열정으로 승화되는 과정을 깊이 펼쳐보이도록 구성을 면밀히 짜고 감정조직을 치밀하게 함으로써 장편소설로 하여금 참다운 인간학으로 되게 하였다.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1～5부)는 또한 력사적인물의 전형창조에서 격식화를 없앨데 대한 우리 당의 주체적 문예방침을 훌륭히 구현하였다.

창작가들은 충실성의 구감이신 김정숙동지의 형상을 성격발전과 생활론리에 맞게 진실하게 그리였다. 장편소설은 능숙한 지하공작과 군중전취, 비범한 조직적수완과 원쑤들과의 비타협적인 투쟁, 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겸손하고 너그러운 성품 등 많은 인상깊은 세부들을 충성심의 발현으로 훌륭히 형상하였다.

실로 다부작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1～5부)는 우리 당 문예방침이 낳은 또하나의 훌륭한 성과작이며 주체적문학예술의 대화원에 꽃펴난 귀중한 결실이다.

오늘 조성된 정세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불타는 강을 건느는 정신, 진펄길을 걷는 정신으로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차게 다그쳐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다부작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1～5부)는 시대의 이러한 요구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는데 힘있게 이바지할것이며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쳐나가는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을 크게 고무추동할것이다.

대화와 협상은 민족의 기대와 통일의 리념에 맞게 진행되여야 한다

공 제 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립장이다.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북과 남사이에는 적십자회담과 경제회담을 비롯한 여러갈래에 걸쳐 대화와 협상이 벌어지고있다.

온 민족은 모처럼 마련된 북과 남의 여러갈래의 대화와 협상이 좋게 발전하여 조국통일의 앞길에 밝은 전망이 열려지기를 한결같이 바라고있다.

끊어진 민족적뉴대를 회복하고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는것은 나라의 분렬로 말미암아 온갖 재난과 불행을 겪고있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온 민족의 이러한 념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민족의 기대와 통일의 리념에 맞게 진행되여야 한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합리적인 방도를 모색하기 위한 거족적인 사업이다.

북과 남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리해와 신뢰를 도모하며 대결과 분렬을 막고 합작과 단결을 이룩하면서 통일도상에 가로놓인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문제해결의 직접적인 당사자이며 담당자이다. 그런것만큼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에는 응당 민족의 의사와 요구가 정확히 반영되여야 한다. 나라와 민족의 중대사를 론하는 대화와 협상이 민족의 이러한 요구를 떠나 몇몇 사람들의 의사만 가지고서는 문제해결의 옳은 방도를 찾을수 없다. 북과 남의 대화와 협상이 민족의 기대와 통일의 리념에 맞게 진행되여야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민족의 리익에 부합되게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있으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해나가는 통일지향적인 대화와 협상으로 될수 있다.

물론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에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될수 있다. 북과 남에는 분렬로 말미암아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이 지배하고있으며 상반되는 정치제도가 존재하고있다. 이러한 차이로 하여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은 처음부터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수 있다. 거기에다 민족리간과 분렬을 추구하고 동족끼리 대결하도록 부추기는 외세의 책동으로 하여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에는 적지 않은 난관이 있는것도 사실이다. 이러한것으로 하여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에서는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될수 있고 엇갈리는 주의주장들이 있을수 있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진전시키고 거기에서 좋은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이 모든 차이를 뒤로 미루고 대화쌍방이 다같이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민족적립장과 통일의 리념에 확고히 서야 한다. 그래야만 대화와 협상앞에 가로놓인 모든 난관을 공동의 노력으로 타개하고 대화와 협상을 명실공히 민족을 위하고 통일을 위한것으로 전환시킬수 있으며 문제토의에서 쉽게 합의를 볼수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민족의 기대와 통일의 리념에 맞게 추진시키기 위하여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북과 남이 접촉하고 대화를 하여야만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리해와 신임을 두터이 할수 있으며 대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합리적인 방도를 찾아낼수 있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습니다.》

(《일본 정치리론잡지 〈세까이〉편집국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단행본, 4페지)

대화와 협상을 추진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여러갈래의 대화에서 민족의 기대와 통일의 리념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들을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우리는 우선 북남경제회담을 민족의 기대와 통일의 리념에 맞게 진행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

북남경제회담은 북과 남의 경제를 밀접히 결합시켜 민족공동의 륭성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이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의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중대한 사업이다.

온 민족은 북과 남사이의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경제적뉴대를 회복하며 북과 남의 경제를 통이 크면서도 능률적으로 결합하여 발전시켜나갈것을 바라고있다.

우리는 민족의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북남경제회담에서 권능높은 협상 및 리행보장기구로서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남경제협조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킬데 대한 방안을 내놓고 그가 리행하여야 할 16개 항목의 경제 협력과 교류를 위한 안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실현을 위한 합의서초안을 최종적으로 결속하는 토의가 일정하게 성숙된 조건에서 그것을 실무자들에게 넘겨 완성하도록 하자는 합리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이것은 북남경제협조공동위원회를 빨리 발족시켜 북과 남의 경제를 련결시키고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광범히 실현하여 나라와 민족의 륭성과 번영을 이룩하려는 숭고한 노력의 뚜렷한 표현으로 된다.

우리는 또한 적십자회담을 민족의 기대와 통일의 리념에 맞게 진행하기 위하여 모든 성의를 다하고있다.

우리측은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진행된 제8차 북남적십자회담에서 5가지 문제를 통털어 함께 토의할것과 5가지 의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데서 가장 선차적인 문제로서 북과 남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이 서로 자유롭게 래왕하도록 하자는것을 제기하였다. 이 제안은 13년동안 끌어온 적십자회담을 빨리 결속하고 북과 남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고통을 시급히 덜어주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다.

자유래왕을 실현할데 대한 우리의 제안이야말로 5가지 의제를 성과적으로 토의하기 위한 선결적이고도 중핵적인 방안이며 북과 남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생사와 주소를 확인하고 편지를 교환하며 상봉을 실현하고 재결합을 이룩할수 있는 최선의 방도로 된다.

우리측은 또한 조국해방 40돐을 맞는 뜻깊은 해에 오래동안 중단되였던 적십자회담을 재개하고 그 진전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십자예술단을 호상교환할데 대한 방안을 내놓고 실현하도록 하였으며 북과 남에서 흩어져사는 리산가족들의 방문단이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그리운 가족, 친척들과 뜻깊은 상봉을 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다.

북남국회회담을 하루빨리 실현하는것은 긴장을 완화하고 여러갈래의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민족의 기대와 통일의 리념에 맞게 진행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이러한 요구로부터 우리는 북남국회본회담을 마련하기 위한 예비접촉들에서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며 평화통일의 유리한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하여 립법적권한을 행사하는 권위있는 북남국회회담에서 불가침문제를 토의해결할것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남조선측이 《통일헌법》작성문제를 협의할것을 고집하고있는 조건에서 쌍방의 의견을 다같이 고려하여 북남국회회담의 의정을 《북과 남사이에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통일을 촉진시킬데 대하여》로 할데 대한 공명정대하고도 아량있는 제안을 내놓았다. 또한 우리는 북남국회회담 대표단구성문제, 제1차북남국회회담장소문제를 비롯하여 북남국회본회담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서 나서는 일련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우리는 국회회담예비접촉을 비롯한 여러갈래로 진행되고있는 대화와 협상에서 민족의 기대와 통일의 리념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들을 내놓고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뿐만아니라 우리는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에서 합의를 본 사항을 리행하는데서도 민족의 기대와 통일의 리념에 맞게 행동하였다.

우리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북과 남사이에 처음으로 진행된 적십자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사업에서 성의있는 노력을 다함으로써 북남관계개선과 대화의 진전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우리는 평양에 들어온 남측 적십자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성원들을 동포애의 정으로 뜨겁게 맞이하고 환대해주었으며 남측 고향방문단 성원들이 찾고있는 가족 친척들을 온갖 성의를 다하여 찾아주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나라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통일의 유리한 국면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갈래의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에서 민족의 기대와 통일의 리념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들을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만일 우리의 이러한 방안들과 노력이 실제적으로 구현되였더라면 북과 남의 관계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을것이며 조국의 평화통일의 앞길에는 밝은 전망이 열리였을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진행되고있는 북과 남사이의 여러갈래의 대화와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응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남조선괴뢰도당에게 그 책임이 있다.

남조선측은 우리 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압력에 못이겨 대화마당에 나왔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달갑지 않게 여기였으며 여러갈래의 대화와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도록 여러모로 책동하였다.

남조선괴뢰들은 권능높은 협상 및 리행기구로서 북남경제협조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북과 남사이의 경제합작과 상품교류를 통이 크게 하며 북과 남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래왕을 실현하여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데 대한 우리의 공명정대한 제안을 미루어놓고 그 무슨 《석탄 30만톤 시범교류》니, 《고향방문단시범교환》이니 하면서 북남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에서 문제토의에 복잡성을 가져오고 대화앞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북남국회본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에서도 민족의 기대와 통일의 리념에 배치되게 행동하였다.

우리가 제기한 북남국회회담은 북과 남의 각계층 인민들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의 광범한 의사를 모을수 있고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며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효과적인 대책을 취할수 있는 권위있는 정치회담으로 된다. 북남국회회담이 실현되면 북남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에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최고위급 회담도 마련할수 있게 될것이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이처럼 절실하고도 중대한 평화제안을 당치않은 구실을 붙여가며 그것이 조속히 실현되지 못하게 각방으로 방해하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그 무슨 《국회회기》니, 《내부사정》이니 하면서 제3차 예비접촉을 무한정 끌어왔으며 북남국회회담의정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들은 우리가 아량과 관대성을 보여주었음에

도 불구하고 저들이 제기한 《통일헌법》 작성문제만 협의해야 한다고 생떼를 쓰고있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자들이 말로는 국회회담을 하자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러저러한 구실을 붙여가며 그것을 질질 끌고 나중에는 흐지부지하게 만들자는것으로밖에 달리는 볼수 없는 행동이다.

남조선괴뢰들은 또한 대화의 막뒤에서 반공대결을 악랄하게 고취하면서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협상 앞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고있다.

남조선반동들은 쌍방 적십자단체들사이의 합의에 따라 진행된 적십자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사업을 민족의 기대와 통일의 리념에 배치되게 반공대결을 고취하는 리용물로 만들었다.

그들은 서울에 나간 우리의 예술단과 고향방문단 성원들을 아주 차겁게 대하였을뿐아니라 그들의 활동을 억제해보려고 비렬하게 책동하였다. 남조선측은 우리의 고향방문단성원들이 만날수 있는 가족, 친척들을 매우 적게 찾아주었으며 우리의 고향방문단성원들을 만나러 스스로 찾아온 가족, 친척들까지 만나지 못하게 쫓아버리는 무례한 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그리고 놈들은 40년만에 처음으로 만난 남측의 가족, 친척들이 우리측의 가족, 친척들과 마음놓고 이야기도 할수 없게 그들을 위협공갈하였다. 남조선괴뢰들의 이러한 행동은 민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립장이 아니며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자세가 아니다.

반공에 환장이 된 남조선괴뢰들은 지난해 평양에 왔던 남조선의 예술단과 고향방문단, 기자단과 수원들을 발동하여 우리를 악랄하게 비방하고 헐뜯는 전례없는 반공광대극을 벌리면서 반목과 대결을 고취하였다.

모든 사실은 남조선괴뢰들이 대화와 협상을 민족의 기대와 통일의 리념에 맞게 진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는것이 아니라 민족적 반목과 대결을 고취하고 민족영구분렬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잘 말하여준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협상과정은 누가 진정으로 대화와 협상을 진전시켜 좋은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으며 누가 대화와 협상을 질질 끌고 방해하고있는가 하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측은 지금과 같이 북남대화의 진전을 가로막고 그것을 저들의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리용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북남대화는 시간과 정력을 랑비하면서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는 말공부나 하는 마당으로 되여서는 절대로 안된다.

북과 남사이의 여러갈래의 대화를 민족의 기대와 통일의 리념에 맞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화쌍방이 대화에 림하는 립장과 자세를 바로 가져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측이 우리와 같이 나라를 통일하여 하나의 조선을 만들려는 립장을 가지고 대화에 림한다면 북남대화의 앞길에는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될것입니다.》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그란마〉 부사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단행본, 8~9페지)

지금 북과 남이 대화에 림하는 립장과 자세에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우리는 나라를 통일하여 하나의 조선을 만들려는 립장이라면 남조선측은 미국의 《두개 조선》정책에 추종하는 립장이다. 남조선괴뢰들이 대화의 막뒤에서 《교차승인》이요, 《교차접촉》이요 하는 문제를 가지고 분렬주의자들과 맞장구를 치며 《유엔동시가입》과 《유엔단독가입》을 운운하는것은 바로 그들이 미제의 《두개 조선》정책에 추종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북과 남이 다같이 나라를 통일하여 하나의 조선을 만들려는 공통된 립장과 리념을 가지고 대화에 림한다면 토의되는 문제들에서 손쉽게 합의를 이룩할수 있으며 실제적인 통일방안을 찾아낼수 있을것이다. 그렇지 않고 남조선측이 지금과 같은 자세로 대화에 림하면서 계속

《두개 조선》정책에 매여달리며 이러저러한 구실을 붙여가며 본질적인 문제토의를 회피하고 말공부만 한다면 회담은 진행되여도 진전은 없을것이며 문제토의는 하여도 합의점에 이르지 못할것이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는 분렬을 고정화하기 위한 대화로 되여서는 안되며 오직 통일을 위한 대화로 되여야 한다. 조국의 통일을 위한 북남대화는 철저히 7.4남북공동성명에 밝혀져있는대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되여야 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나라를 통일하려는 립장에 서야 하며 민족의 기대와 통일의 리념에 맞지 않는 행위를 더는 하지 말아야 한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려면 대화에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긴장상태가 격화되고 전쟁위험이 떠도는 가운데서는 마음놓고 대화를 할수 없으며 대화를 하여도 좋은 성과를 거둘수 없다. 대화와 전쟁소동은 량립될수 없으며 대결이 있는곳에서 대화가 잘될수 없다.

남조선괴뢰들은 전쟁연습소동을 벌리면서 나라의 정세를 격화시키고 대화를 파탄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민족에게는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대화가 소중하지 대결과 분렬, 전쟁을 위한 군사연습이 필요치 않다.

남조선에서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미제의 군사적책동은 북남대화에 엄중한 장애로 되고있다.

미제는 우리가 이미 제기한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안에서의 안전보장과 무장철수에 관한 제안과 군사연습을 제한할데 대한 제안을 지체없이 받아들여야 하며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며 북남대화의 진전을 흐리게 하는 모든 군사적도발책동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만약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분자들이 우리 민족의 이러한 념원을 짓밟고 전쟁연습을 벌려 북남대화를 끝끝내 파탄에로 몰아넣는다면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증오와 저주를 면치 못할것이다.

또한 남조선위정자들은 대화상대방을 비방중상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북과 남이 서로 흉금을 털어놓고 대화를 할수 있으며 전체 조선인민이 다같이 통일문제해결에 자유롭게 참가할수 있다.

여러갈래의 북남대화가 좋은 결실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측이 대화의 추진에 적극적인 성의를 보여주어야 한다.

북남국회회담을 하루빨리 마련하고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는것은 북과 남의 관계를 개선하고 여러갈래로 진행되는 대화와 협상을 진전시키는데서 관건적의의를 가진다고 말할수 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북남국회회담에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하며 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을 결속하는데서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남조선측이 옳은 자세와 립장에 서서 대화에 림하고 성근한 태도를 취한다면 북과 남사이의 여러갈래의 대화는 좋은 결실을 맺을것이며최고위급 회담을 실현하고 북남관계에서는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유리한 국면이 열려지게 될것이다.

우리는 시종일관 북남대화를 민족의 기대와 통일의 리념에 맞게 추진해나가려는 확고한 립장을 견지하고 여러갈래의 북남대화가 성과적으로 진전되여 훌륭한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성의있는 노력을 다할것이다.

새 세계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인류앞에 나서고있는 초미의 문제

황 헌

지배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환경에서 자주적으로 살려는것은 인류의 세기적인 념원이다. 지구상에 평화가 보장되여야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이 창조적로동으로 행복과 번영을 담보하는 자주적인 새 사회, 새 세계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그러나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모험적인 《힘》의 정책과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국제정세는 매우 긴장하여지고있으며 지구우에는 새 전쟁의 위험이 날로 짙어가고있다.

새 세계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것은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 세계 모든 진보적인민들앞에 나서는 초미의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정책과 핵무기증강책동으로 말미암아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의 위험이 날을 따라 커가고있으며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이 파괴되고있습니다.》

침략과 전쟁은 제국주의의 항시적인 동반자이며 생존수단이다. 이것은 제국주의의 생존법칙자체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다.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단계에 들어선 이후 오늘에 이르는 력사발전과정이 그것을 명백히 실증하여주고있다.

제2차세계대전후 사회주의력량과 쁠럭불가담운동, 민족해방운동과 민주주의운동 등 세계의 진보적력량이 날로 강화됨에 따라 세계적판도에서 지배권을 잃고 궁지에 빠지게 된 제국주의자들은 더욱더 침략과 전쟁을 추구하는데로 나가고있다. 특히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을 반대하는 극히 모험적인 침략과 전쟁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이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파괴하고 새 세계전쟁의 위험을 끊임없이 증대시키는 기본요인으로 되고있다.

침략과 전쟁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를 제패해보려는 야망밑에 저들의 대외정책의 총적방향을 새 세계전쟁을 감행하기 위한 침략적세계전략으로 구체화하였다.

미제의 세계전략은 본질에 있어서 세계의 모든 재부와 권력을 거머쥐고 전세계인민들을 제 마음대로 착취하고 억압해보려는 미국독점자본의 끝없는 탐욕을 반영한것이며 미국반동통치배들이 오래동안 꿈꾸어온 해외침략구상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 반혁명적인 세계전략을 실현해보려고 이르는곳마다에서 침략과 간섭, 도발과 전쟁을 감행하고있으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까지 일으키려고 책동하고있다.

미제의 침략전쟁책동은 오늘에 와서 더욱 모험적인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레간은 력대 미국대통령가운데서 가장 반동적인 호전광이다. 레간행정부는 《힘》으로 세계를 제패해보려고 로골적으로 책동하면서 이른바 《동시다발보복전략》을 들고나와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선제핵공격을 감행하려고 획책하고있다.

그것은 미제가 구라파지역과 중근동지역, 극동지역을 저들이 침략전쟁을 도발할 《3대전역지대》로 설정하고 이 지역으로부터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선제공격을 벌려야 한다고 서슴없이 떠

벌이고있는 사실이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다.

이 세계전략에 따라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군비를 력사상 류례없는 규모로 확장하고있다.

최근 미국국회상원은 1986회계년도의 군사예산을 3,020억딸라로 승인하였는데 이것은 1985회계년도의 군사비지출총액 2,847억딸라에 비하여 6%이상의 증가로 되며 세계군비총액의 근 절반을 차지한다. 미제의 무분별한 군비증강계획이 계속 추진된다면 1988회계년도에 가서는 미국의 군사비가 무려 4,115억딸라에 이르게 될것이라고 한다.

미제는 전례없이 늘어난 군사예산의 많은 몫을 새로운 살인무기의 연구, 개발에 돌리고있다. 놈들은 1986회계년도 군사예산에서 전략무기개발분야에 대한 지출을 1984회계년도에 비하여 14.6%나 늘어난 299억딸라로 올리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전시도 아닌 때에 군사비에 그처럼 막대한 돈을 퍼붓고 전략무기생산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은 그들이 새 세계전쟁준비에 분별없이 날뛰고있다는것을 실증하여주고있다.

미제는 군비증강과 함께 세계 여러지역에 저들의 침략적군사기지를 늘이려고 발악하고있다. 미제의 군사기지화책동은 주로 사회주의나라들과 진보적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저들의 세계전략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 미제는 사회주의나라들, 진보적나라들을 전면적으로 포위봉쇄하는 방향에서 세계도처에 침략적군사기지를 대대적으로 신설확장하고있으며 여기에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들과 침략군대를 계속 투입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미제의 해외군사기지수는 1,500여개에 달하며 50여만명의 미제침략군이 배치되여있다. 미제는 이것도 성차지 않아 새로운 군사기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더욱 광분하고있다.

새 전쟁준비를 위한 미제의 해외군사기지확장책동에 의하여 국제정세는 극도로 긴장되고있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다.

《힘》의 립장에 선 세계전략을 집요하게 추구하고있는 미제는 세계도처에서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미제의 침략적인 세계전략에서 아세아는 주요공격대상으로 되고있다. 미제는 아세아태평양지역에서 진보적력량을 반대하고 신식민주의적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기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항시적으로 전개하고 일본과의 군사적결탁을 강화하고있다. 미제의 아세아전략의 창끝은 바로 조선에 돌려지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이 《미국전략의 제1선》이고 조선반도가 《1980년대 힘의 대결의 시험장》이라고 떠벌이면서 남조선을 계속 식민지군사기지로 틀어쥐고 공화국북반부와 아세아나라들을 공격하기 위한 단기전과 장기전, 상용무기전쟁과 핵전쟁 등을 감행해보려고 날뛰고있다.

지금 남조선에는 1,000여개의 각종 핵무기가 배치되여있으며 남조선의 군사분계선일대에는 핵지뢰가 매설되여있다. 남조선에는 최신무기와 군사장비로 무장한 4만여명의 미제침략군과 근 100만에 달하는 남조선괴뢰군이 항시적으로 동원태세를 갖추고있으며 《시험전쟁》연습을 련일 벌리고있다. 지난해만 하여도 미제와 괴뢰도당은 《팀 스피리트 85》합동군사연습을 진행한데 이어 《별공 85》, 《박쥐 85》훈련 등 각종 전쟁연습을 미친듯이 벌리면서 여기에 무려 수십만의 괴뢰군과 경찰, 예비군, 민방위대 병력과 주민들까지 동원하였다.

미제의 침략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의 정세는 극도로 긴장하며 이 지역에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 의하여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는 항시적위험이 존재하고있다.

미제는 또한 중근동지역에서 무력간섭을 감행하고있다. 미제는 세계주요석유산지이며 군사적요충지인 이 지역을 틀어쥐려고 이스라엘유태복고주의자들을 《돌격대》로 내세워 팔레

스태나인민과 레바논, 수리아를 비롯한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과 전쟁 책동을 강화하고있다. 그들은 이 지역에서 침략전쟁과 파괴음모책동을 지휘할 《중앙사령부》를 새로 창설하고 중근동의 많은 나라들과 그 수역을 저들의 작전통제지역으로 선포하고있다. 그리하여 중근동정세는 폭발적인 성격을 띠고 발전하고있다.

미제의 침략책동으로 아프리카에서도 새 세계전쟁의 위험이 증대되고있다. 미제는 아프리카대륙의 자주적발전을 가로막고 이 지역을 저들의 세계전략수행의 발판으로 만들기 위하여 정치, 경제적 침투를 강화하면서 아프리카의 통일을 파괴하려고 책동하고있다. 특히 놈들은 아프리카의 남부에서 프레토리아인종주의자들을 내세워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한 남아프리카인민과 나미비아인민들의 투쟁을 무력으로 탄압하고있으며 앙골라, 모잠비끄, 짐바브웨를 비롯한 그 주변의 진보적나라들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끊임없이 사촉하고있다. 미제의 이러한 침략책동은 남아프리카정세를 극도로 긴장하게 만들고있다.

미제의 침략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구라파정세 역시 매우 긴장성을 띠고있다. 미제는 와르샤와조약기구에 망라되여있는 사회주의나라들의 위력이 장성강화되는것이 저들에 대한 《잠재적위협》으로 된다고 하면서 구라파에서 나토의 침략무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발광하고있다. 미제는 《동맹국》들에 군비를 높이도록 계속 압력을 가하고있으며 《별세계전쟁》계획에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또한 이 지역 인민들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핵무기를 계속 배치하고있다. 이리하여 구라파땅에도 새 전쟁의 위험이 증대되고있다.

미제는 중미주지역에서도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과 나라들을 반대하여 군사적위협과 전복파괴책동을 감행하고있다. 쌀바도르를 비롯한 여 지역 나라 인민들의 반독재해방투쟁을 진압하기 위한 작전이 공공연히 감행되고있으며 특히 니까라과인민을 반대하는 경제적봉쇄책동과 선전포고없는 전쟁을 로골적으로 계속 벌리고있다.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감행하고있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 책동으로 하여 민족적독립국가들의 자주권이 유린당하고 인민들의 운명이 롱락당하는 비극적인 사태가 련이어 일어나고있으며 세계 여러 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이 파괴되고 긴장상태가 날로 격화되고있다.

현시기 새 세계전쟁의 위험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모험적인 핵전쟁준비를 발광적으로 다그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더욱 증대되고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의 열핵전쟁도발책동은 인류를 핵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을수 있는 매우 위험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무분별한 핵전쟁준비책동으로 말미암아 지구상에 축적된 핵무기는 이미 인류의 생존과 인류문명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방대한 규모에 이르고있다.

특히 인류력사에서 처음으로 인민들의 머리우에 핵폭탄을 던진 미제는 이용서할수 없는 범죄행위를 그때와는 대비도 할수 없으리만큼 확대된 규모에서 되풀이하려고 발악하고있다. 놈들은 방대한 《핵전략무기종합개발계획》을 세워놓고 각종 새로운 핵탄두들과 운반수단들을 생산하는데 전력을 다하고있다. 미국에서는 새형의 대륙간탄도탄과 전략폭격기, 핵잠수함의 개발과 제작이 다그쳐지고 핵무기와 핵장비 생산이 부쩍 늘어나고있다. 최근에 미제국주의자들이 2개의 《미니트맨3》대륙간탄도미싸일의 발사시험을 진행한데 이어 최신형 《엠엑스》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시험을 감행한것은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미제는 지어 우주에까지 핵전쟁을 확대할 목적밑에 무모한 《별세계전쟁》계획을 적극 추진시키고있다. 미제가 미친듯이 벌리고있는 《별세계전쟁》계획은 본질에 있어서 우주공간을 핵전쟁기지

로 전변시킴으로써 《해우세》를 차지하며 미국만이 핵보복타격을 받음이 없이 지구를 포함한 우주공간의 임의의 지점들과 대상들에 《선제타격》을 가할수 있는 지위를 차지하려는것이다.

미국의 《별세계전쟁》계획이 추진되면 평화적목적에 리용되여야 할 우주가 군사화되고 핵무기고가 더욱 늘어나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다.

미제의 핵전쟁준비책동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세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가는 용납할수 없는 범죄적책동이다.

오늘 세계는 밀접한 련관속에서 발전하고있는것만큼 지구상의 어느 대륙, 어느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든지간에 그 불길은 삽시에 세계적범위로 확대될수 있으며 인류에게 커다란 재난을 들씌울수 있다.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며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시대의 이 엄숙한 요구에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지구상에 드리운 핵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완강히 투쟁하여야 한다.

현시기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실현하는것은 새 세계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데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 쁠럭불가담운동과 민족해방운동, 민주주의운동을 포함한 반제자주력량은 제국주의침략세력에 비할바없이 우세하다. 제국주의자들은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하고있다.

제국주의침략세력은 련합하여 평화와 진보를 위한 인민들의 위업에 악랄하게 도전해나서고있으며 반제자주력량을 분렬리간시키며 각개격파하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은 더욱 긴절한 문제로 된다. 반제자주력량은 비록 정견과 신앙을 달리하고 각이한 사회제도에서 살고있지만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를 위한 리념과 목적의 공통성으로 하여 서로 손잡고 단결하여 나갈수 있다.

모든 반제자주력량, 평화애호력량은 굳게 단결하여 반제반미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사면팔방으로부터 미제국주의에 집단적인 공격을 들이대여 그들의 손발을 얽어매고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새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자들의 군비경쟁을 저지시켜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의 군비경쟁은 국제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열핵전쟁의 위험을 증대시키는 기본요인이다.

세계 모든 진보적인민들은 미제의 군비확장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낱낱이 폭로하여야 하며 그들이 군비축소에 응해나서지 않을수 없도록 압력을 가하여야 한다.

오늘 아세아와 구라파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지역에서 세차게 전개되고있는 반전반핵평화운동은 제국주의자들의 군비증강과 새 전쟁 도발책동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단합된 힘으로 제국주의자들의 군비증강책동을 저지파탄시켜야 하며 우주를 군사화하려는 책동을 미리 막아야 한다.

핵전쟁의 위험을 종국적으로 없애려면 핵무기를 완전히 철페하여야 한다. 지구우에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핵전쟁의 위험은 없어질수 없으며 인류는 항시적인 핵위협에서 벗어날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핵무기를 동결시키고 대폭 축감하며 나아가서는 핵무기를 완전히 페기하여야 한다.

최근 쏘련은 주동적으로 핵미싸일들의 배비를 일방적으로 중지하고 이러한 무기들의 모든 시험을 중지할데 대한 대담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핵무기를 50% 축소하고 우주의 군사화를 중지시킬데 대한 제안 등을 내놓았다.

이러한 조치와 제안들의 실현은 군비를 축소하고 파국적인 핵전쟁위험을 제

거탐에 대한 인류의 념원과 지향에 부합되는것이다.

새 전쟁의 위험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다른 나라에 있는 침략적군사기지와 무력을 철수시키고 침략적군사블럭을 해체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다른 나라에 있는 제국주의자들의 군사기지와 무기들은 그 나라들의 자주권을 유린하며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무력충돌을 야기시키는 근원으로 된다. 제국주의자들의 군사블럭 역시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침략하기 위한 정치군사적 공간이며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된다.

세계 모든 평화애호력량은 침략적인 군사기지와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침략적인 군사블럭을 해체시키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투쟁하여야 한다.

국제긴장상태를 가시고 새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비핵지대, 평화지대 창설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비핵지대란 한마디로 말하여 핵무기의 시험, 생산, 소유와 그 사용, 핵무기운반수단의 통과와 공항, 항구의 리용이 금지되고 핵기지, 핵시설들이 없는 지역을 말한다. 그러므로 비핵지대를 창설한다는것은 결국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제국주의자들의 핵전쟁요소를 제거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세계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에서 비핵지대, 평화지대 창설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 때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은 이르는곳마다에서 배격을 받게 될것이며 맥을 추지 못하게 될것이다.

오늘 인류는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말할수 있다.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인류와 그가 창조한 모든 재부를 살륙과 파괴로부터 구원하는가 못하는가, 인간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과 활동을 유지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새 세계전쟁의 위험성은 비록 크지만 전쟁이 숙명적으로 불가피한것은 아니다. 대세는 세계평화애호력량에 유리하게 발전하고있다. 세계평화애호력량은 제국주의침략세력에 비할바없이 우세하다. 제국주의자들이 집요하게 추구하는 세계제패야망은 한갖 망상에 지나지 않으며 결코 실현될수 없는것이다. 지난날 극악한 파쑈분자인 히틀러와 도죠는 세계제패야망을 품고 분별없이 침략전쟁을 일삼다가 결국 망하고말았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위력한 성새이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 블럭불가담운동, 민주주의운동을 비롯한 세계 모든 평화애호력량이 굳게 단결하며 힘을 합쳐 투쟁한다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저지파탄시킬수 있으며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할수 있을것이다.

미제의 반동적인 보호무역주의책동

문 룡 빈

오늘 제국주의나라들에서 대두하고 있는 반동적인 보호무역주의적경향은 세계경제에 커다란 혼란과 무질서를 조성하고있다. 특히 악랄하고 략탈적인 미제의 보호무역주의책동은 자본주의세계경제전반에 커다란 후과를 빚어내고 있으며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있다.

날을 따라 강화되고있는 미제의 보호무역주의책동은 미제야말로 세계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하고있는 장본인이며 그 어떤 날강도적인 행위도 서슴없이 감행하는 략탈자라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놓고있다.

미제의 반동적인 보호무역주의책동의 침략적본질을 폭로규탄하고 그를 저지파탄시키는것은 세계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세계내부에서 정치, 경제적위기는 날을 따라 더욱 심화되고있으며 시장과 세력권을 빼앗기 위한 싸움에서 제국주의렬강간의 모순은 더욱 날카로와지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4권, 164페지)

독점적인 상품판매시장과 세력권을 확보하고 유지확대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본성이며 생존방식이다. 상품시장과 세력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눈이 되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이 서로 치렬하게 쟁탈전을 벌리는것은 필연적이며 경제위기가 심화될수록 그러한 싸움은 더욱 첨예화되기마련이다.

보호무역주의는 바로 상품시장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제국주의자들간의 개싸움의 산물이며 그 발현형태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보호무역주의란 국내산업과 시장을 보호할 목적밑에 보호관세로 수입은 제한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무역정책을 말하는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하고있는 보호무역주의는 자국시장에 들어오는 다른 나라의 상품에 대해서는 온갖 배타적인 제한조치를 취하면서도 다른 나라에 대하여서는 시장을 개방할것을 강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있다. 따라서 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하고있는 보호무역주의책동은 자기 나라의 독점자본에 상품시장과 고률리윤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벌리는 반동적인 대외무역 정책과 조치인것이다.

보호무역주의는 미국이 력사상 처음으로 고안해낸것이며 그것을 대외무역정책으로 선포하고 력사적으로 감행해온 나라도 바로 미국이다.

뒤늦게 현대적공업을 창설하는 길에 들어섰던 미국은 이미 19세기초에 《보호무역론》을 제창하면서 자기 나라 시장에 대한 영국상품의 침투를 억제하였으며 그후에도 아메리카대륙전체를 저들의 상품시장과 세력권으로 만들기 위하여 《몬로주의》라는 허울좋은 간판을 들고 이 대륙에 대한 구라파나라 상품의 침투를 막아나섰던것이다. 제국주의단계에 들어선 다음에도 미제는 의연히 보호무역주의정책을 감행하였으며 제2차세계대전후에도 저들의 보호무역주의책동을 좀처럼 완화하지 않았다.

최근년간 미제가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책동은 이처럼 력사적으로 감행해온 보호무역주의책동의 필연적산물이며 그 현대판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오늘날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느 제

국주의나라보다도 보호무역주의책동을 집요하게 벌리고있다.

미제가 가장 반동적이고 략탈적인 보호무역주의책동을 서슴없이 벌리고있는것은 치렬하게 전개되고있는 제국주의렬강간의 상품시장과 세력권 쟁탈전에서 저들의 처지가 불리해지고있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상품시장과 세력권이 협소해질수록 제국주의렬강간의 대립과 모순은 더욱 격화되고 그들사이에 시장쟁탈전이 치렬하게 벌어지는 법이다.

제2차세계대전후 사회주의시장과 제3세계시장이 날로 확대강화됨에 따라 협소해지는 상품시장을 둘러싸고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사이에 시장쟁탈전이 치렬하게 벌어졌다. 더우기 전패국이였던 일본과 서부독일이 또다시 경제대국으로 자라나 미국의 경쟁자로 등장하였으며 상품시장에서 미국상품들을 몰아내기 시작하였다.

설상가상으로 미제는 거듭되는 경제공황과 경제파동으로 하여 자본주의세계경제에서 차지하고있던 독점적지위를 점차 상실하고있으며 미제의 수출상품이 차지하는 몫도 줄어들고있다.

상품시장쟁탈전에서 미제가 수세에 빠지고있는것은 세계자본주의시장에서 미국상품의 국제적경쟁력이 심히 약화되고있는것과도 관련되여있다.

상품의 값과 질적수준은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본지표이다. 질이 높고 값이 눅은 상품은 판로를 개척하고 확대할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상품은 시장에서 밀려나기마련이다.

지금 적지 않은 미국상품들이 질이 낮고 값이 비싸서 미국내외시장들에서 판로를 잃어버리고있으며 일부 외국상품들이 미국시장에 대대적으로 침투하고있는 형편에 있다.

그것은 미국시장에서 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의 강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대되여 지금 14.6%에 달하고있으며 일본의 강재와 자동차, 전자제품 등이 차지하는 몫은 무려 10~60% 정도까지 이르고있는 사실에 의하여 뚜렷이 실증되고있다.

국제시장에서의 미국상품의 형편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주요수출품이였던 강철, 자동차, 전자제품, 발전소설비, 공작기계 등이 질이 낮고 값이 비싸서 팔리지 않고있다.

미국상품들이 이처럼 국내외시장에서 판로를 잃고 밀려나고있는것은 호전적인 레간행정부의 반동적인 경제정책이 빚어내고있는 필연적인 후과인것이다. 미국지배층은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막대한 군사비를 탕진하면서 민수공업부문에 적게 투자하여 그 생산설비와 기술수준을 뒤떨어지게 하고 상품의 질을 낮아지게 하고있다. 그리고 예산적자를 메꾸기 위하여 딸라시세와 은행리자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있는 레간의 반동적인 경제정책은 미국상품의 값을 올라가게 하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국제경쟁력을 잃은 저들의 상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부득불 보호무역주의책동을 감행하지 않을수 없게 된것이다.

오늘 미제는 날을 따라 더욱 어려워지고있는 저들의 경제적처지에서 벗어나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리용하여 보호무역주의책동을 벌리고있다.

미국반동통치배들은 우선 일방적이고도 침략적인 저들의 기존 《무역법》을 발동하거나 새로운 《무역법》을 조작하여 보호무역주의책동을 합리화하고 정책화하고있다.

력대 미국대통령가운데서 가장 호전적이고 파렴치한 레간은 미국과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한 나라들에 대하여 《제재》와 《보복조치》를 취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고있는 《무역법》 제301조를 적극 발동하고있다. 레간은 이 《법》조항에 기초하여 다른 나라 상품들에 대한 수입금지, 수입량 할당제, 관세률의 증가 등 각종 보호무역주의적조치를 공공연하게 감행하고있다.

반동적인 미국국회에서도 새로운 보

호무역주의적《법안》을 망탕 조작해내고 있다.

1985년 4월 미국국회 상원재정위원회와 하원세입위원회에서는 일본에 미국에 대한 수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미국상품의 수입을 증대할것을 강요하는 결의를 채택하였으며 지난해 9월에는 상원재정위원회에서 미국상품수입을 억제하고있는 나라들에 《보복조치》를 취할데 대한 오만무례한 악법을 통과시켰다. 지어 지난해 10월에는 미국국회하원에서 악명높은 《젠킨스법안》이라고 불리우고있는 《섬유류 무역집행법안》이 채택되였다.

이 《젠킨스법안》은 의복류와 직물제품수입을 대폭적으로 축감할것을 규제한것으로서 다른 나라 특히 타이를 비롯한 아세아나라들의 섬유제품수입을 약 50%이상 줄일것을 예견하고있다. 미상무성은 이 법안이 하원에서 채택되기 바쁘게 타이를 비롯한 아세아나라들의 섬유제품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취하여야 한다고 공공연히 떠들고있다.

지금 미국회가 보호무역주의책동에 얼마나 미쳐날뛰고있는가 하는것은 《젠킨스법안》과 같은 각종 법안 300여건을 심의하고 채택하려고 서두르고있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모든 사실은 미국반동들이야말로 저들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국제법과 국제관례마저 서슴없이 유린하며 다른 나라에 희생을 강요하는 침략자, 략탈자들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또한 온갖 방법과 수단, 조치들을 다하여 보호무역주의책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다.

리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날강도적이고 패륜패덕적인 행위라도 서슴없이 감행하는것이 독점자본의 고유한 속성이며 체질화된 습성이다. 현대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의 보호무역주의책동에서 그러한 속성과 습성이 전형적으로 발로되고있다.

미제의 보호무역주의책동의 중요한 방법과 수단의 하나는 수입관세의 증가와 수입부가세의 첨가 등 관세장벽을 높이 쌓는것이며 그 장벽에 의거하여 미국시장에 대한 다른 나라 상품의 침투를 막는것이다.

1980년대초 발전도상나라 상품들에 부과한 평균실질관세률만 하여도 1차가공원료에 9.6%, 반제품에 21.7%, 완제품에 31.6%라는 높은 관세률을 적용하였으며 지어 일부 완제품에는 자본주의나라의것보다 훨씬 높은 40~80%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미제는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하여 략탈적인 보호무역주의책동을 벌리고있을뿐아니라 일본과 같은 손아래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대국주의적인 보호무역주의책동을 벌리고있다. 1983년에 레간이 미국의 오토바이제조업자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일본제오토바이에 대한 수입관세를 90%이상 올릴것을 명령하고 그밖의 일본상품들에 대하여 20%의 수입부가세를 부과한 사실은 그 전형적실례의 하나이다. 미제에 아부굴종하고있는 반동적인 나까소네정부는 미제의 이러한 일방적인 조치들을 그대로 접수하고있다.

미제는 국제관례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처럼 제멋대로 각종 관세장벽을 쌓은데 기초하여 다른 나라 상품의 침투를 가로막아나서고있다.

다양한 비관세조치도 미제의 보호무역주의책동의 중요한 방법과 수단으로 되고있다.

관세와 수입부가세와 같은 관세조치로 저들의 보호무역주의책동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게 된 미제는 관세이외의 규제조치인 각종 비관세장벽을 많이 쌓는데로 나가고있다.

미국반동통치배들은 발전도상나라 상품들에 대하여 이미 2,000여건의 비관세조치를 취하고도 성차지 않아 수입금지, 수입할당제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으며 지어 미국에 대한 상품수출을 스스로 축감하라는 이른바 《자주규제》를 다른 나라들에 강요해나서고있다.

미제가 라틴아메리카의 어느 한 나라의 신발수입을 금지하여 그 나라에 8억

딸라의 손실을 당하게 만들었으며 서구라파나라 강판에 대하여 수입할당제를 실시하고 일본에 대미자동차수출량의 《자주규제》를 거듭 강요한 사실은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처럼 각종 관세와 비관세조치를 취하여 자국내시장에 다른 나라 상품의 침투를 억제하고있는 한편 자기 상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미쳐날뛰고있다.

오만무례해지고 파렴치해질대로 파렴치해진 미제는 수출신용보험제와 수출장려금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들에 불평등한 무역조약과 협정체결을 요구하고 시장개방을 강박하는 방법으로 수출을 확대해보려고 책동하고있다.

전두환괴뢰도당과 일본에 대한 미제의 전횡적인 시장개방요구는 그 전형적인 실례로 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억압과 략탈을 제 마음대로 감행하고있으면서도 《젠킨스법안》에 의거하여 남조선섬유제품의 수입량을 35% 줄이려 하고있으며 괴뢰도당이 시장개방을 하지 않으면 대미수출품의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위협공갈하고있다. 미제는 지어 남조선에서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저들의 이른바 지적소유권까지 보호하라고 남조선괴뢰도당에 강요하고있다. 미제가 강요하는 지적소유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만도 남조선괴뢰도당은 년간 11억딸라이상의 손실을 보게 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국배족무리이고 미제의 손때묻은 주구인 전두환괴뢰도당은 상전의 강압적인 요구를 서슴없이 받아들이려 하고있다.

제반 사실은 미제야말로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전횡적인 식민지통치를 감행하고있는 침략자이며 남조선인민들을 제 마음대로 억압략탈하고있는 날강도적인 략탈자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미제는 일본반동들에게도 미국상품에 대하여 시장을 더욱 개방하지 않으면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위협공갈하고있다.

미제가 감행하고있는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책동의 방법과 수단들은 악랄하기 그지없고 오만성과 략탈성으로 일관되여있다.

이처럼 악랄하고 반동적인 미제의 보호무역주의책동은 미국경제자체뿐아니라 세계경제에도 엄중한 후과를 빚어내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보호무역주의책동은 위기에 처한 미국경제를 더욱 곤경에 몰아넣고있다.

미제는 보호무역주의책동을 감행하여 국내시장에 대한 외국상품의 침투를 다소나마 억제할수 있었다. 그것은 무역상대국으로 하여금 미국상품의 수입을 줄이지 않을수 없게 하는 역효과를 나타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미국은 상품수출량이 줄어들고 대외무역에서 균형을 잃어버리고있으며 만성적인 무역적자국으로 되고있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1982년에 427억딸라였는데 1984년에는 무려 1,233억딸라로 급격히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그것이 1,600억딸라에 이를것이라고 한다.

국내외시장의 축소와 무역적자로 하여 미국에서는 공장들의 조업단축과 파산소동이 련이어 벌어지고있으며 대량적인 실업이 만성화되고있다.

미국반동지배층이 감행하고있는 보호무역주의책동은 위기에 빠져있는 미국경제에 출로를 열어준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위기를 더욱 격화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되고있다.

미제의 보호무역주의책동은 발전도상나라와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은 자립적민족경제와 새 사회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주로 원료와 연료, 농축산물 그리고 직물, 의복류와 같은 반제품과 완제품 등을 수출하여 얻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의 이러한 수출상품들이 바로 미제의 보호무역주의책동의 주요한 대상의 하나로 되고있다. 그리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의 수출은 줄어들게

되고 이 나라들로 하여금 새 사회 건설에서 자금난을 겪게 하고있다.

이로부터 발전도상나라들 특히 미국과 무역거래를 하고있는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는 커다란 악영향을 받고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미제가 감행하고있는 보호무역주의책동이 빚어내고있는 후과이며 미제가 인위적으로 조작하고있는 범죄행위이다.

미제의 반동적인 보호무역주의책동은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있으며 이 나라들과 미국사이에 심각한 무역마찰과 《무역전쟁》을 발생시키고 날로 격화시키고있다.

미국과 일본, 미국과 구라파《공동시장》나라들 사이에 벌어지고있는 《무역전쟁》은 그 실례로 된다.

수입원료와 상품수출에 의존하고있는 일본경제에 있어서 수출문제는 생사존망과 관련된 사활적문제이다. 더우기 대미무역은 일본의 대외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그런데 미국은 일본상품들에 높은 수입부가세를 붙이거나 대미수출량을 스스로 줄이도록 일본지배층에게 강요함으로써 일본경제에 타격을 주고있다. 한편 일본지배층은 미제의 이러한 위협공갈에 순응하면서 대미상품수출을 《자주규제》하고 전기통신설비와 전자제품 등 미국상품에 대하여 시장개방조치를 취하면서도 대미수출공세는 좀처럼 늦추려고 하지 않고있는것이다.

이로부터 미일간의 무역마찰과 《무역전쟁》은 날이 갈수록 더욱 격화되고있다.

미제와 구라파《공동시장》나라들사이에도 《무역전쟁》이 벌어지고있다.

미제는 구라파《공동시장》나라들의 상품에 대하여 수입할당제를 실시하거나 종전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이 나라들의 경제를 더욱 궁지에 빠지게 하고있다. 이에 불만을 느낀 구라파《공동시장》나라들은 그 보복조치로서 미국의 땅콩과 곡류에 대한 관세를 높이고있다. 수출입상품을 둘러싸고 벌어지고있는 이러한 각축전은 날로 격화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보호무역주의책동은 이렇듯 세계적범위에서 경제적과동과 불안을 조성하는 요인의 하나로 되고있다.

하기에 발전도상나라들은 물론 미제의 손아래동맹자들도 미국지배층이 감행하고있는 보호무역주의책동에 대하여 항의규탄하고있다.

보호무역주의책동은 국제시장에서 수세에 빠져있는자만이 감행할수 있는 발악적책동이다. 멸망에 직면한 반동통치배들이 그 어떤 최후발악적책동을 다한다 하여도 파멸을 면치 못한다는것은 력사가 실증하고있는 진리이다.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한 미제국주의자들이 광기어린 보호무역주의책동을 아무리 집요하게 감행한다 하여도 파멸에 처한 저들의 운명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

세계경제에 혼란과 무질서를 인위적으로 조성하고있는 미제의 범죄적인 보호무역주의책동은 세계인민들의 규탄과 반대에 부딪쳐 파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근로자 1986년 제1호 (루계 525호)

편집위원회

발행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 1986년 1월 1일　발 행 • 1986년 1월 3일

ㄱ—55209 주소 •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70전

(정기간행물번호 제132.06호)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2 호

평 양 근로자사 1986

제 2 호 (526)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주체위업을 빛내여나가자—

우리 당은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위대한 당

림 춘 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백두밀림에서 주체의 혁명위업이 개척된 때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온 조선혁명은 혁명전통이 마련되고 계승되여온 로정으로 빛나고있다.

대를 이어 계승완성되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는 행정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우리 당이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당사업의 중요한 과업으로 틀어쥐고 현명하게 령도하여온 고귀한 결실이다. 당의 령도밑에 혁명전통이 빛나게 계승됨으로 하여 혁명의 세대는 바뀌고있지만 《ㅌ. ㄷ》에서부터 시작된 조선혁명위업은 대를 이어 꿋꿋이 이어지고있으며 공산주의의 미래에로의 줄기찬 발전을 이룩해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혁명전통을 계승한 우리 당의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앞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으며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는 확고히 담보되여있다.

* *

혁명전통을 계승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위업수행의 전기간에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대한 문제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정에서 혁명전통이 이룩되고 그것이 계승발전되는것은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의 길을 걷게 된다. 수령의 령도밑에 진행되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그 수행의 전과정에서 력사적계계성과 일관성을 띨것을 요구하며 바로 그것은 혁명을 하나의 통일적과정으로 련결시켜주는 혁명전통에 의하여 보장되여나간다. 혁명전통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로 련결시키고 혁명위업의 명맥을 이어주는 피줄기로, 그 종국적승리를 담보하는 근본초석으로 된다. 이로부터 로동계급의 수령이 혁명위업수행에 이바지한 위대한 업적의 하나는 혁명의 모든 단계와 모든 분야에서 승리와 성과의 근본요인으로, 력사적뿌리로 되는 혁명전통을 마련하는데 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혁명전통을 창시하여 조선혁명의 만년초석을 마련하시고 주체위업을 하나의 혈맥으로 굳건히 이어나가게 하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지난날 우리 인민은 일찌부터 외래침략자들과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며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려왔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수령의 령도가 없었던탓으로 하여 옳은 로선과 원칙을 가지고 투쟁하지 못하였으며 로동계급의 계급적리익과 혁명적요구를 철저히 반영한 혁명전통을 창조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을 때 우리 인민이 선행시대로부터 물려받은것이란 오직 강도일제에게 빼앗긴 나라와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뿐이였다.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파쑈통치밑에서 민족수난이 절정에 달하고 투쟁에서 쓰라린 실패와 피의 교훈만을 남기며 진통속에 헤매고있던 이 력사적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나서심으로써 조선혁명은 자주의 길을 따라 승리

적으로 발전하는 혁명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때로부터 조선혁명의 력사적뿌리가 내리고 빛나는 혁명전통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그것은 전면적으로 확립되였다.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해나가야 하는 항일혁명투쟁과정에 창조된 주체의 사상체계와 공산주의적혁명정신, 혁명업적과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의 기본내용을 이루고있다.

류례없이 간고하고 영웅적인 투쟁속에서 이룩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그대로 구현하고있으며 영원한 생명력을 지닌 심오하고도 풍부한 내용들을 전면적으로 담고있는 주체의 혁명전통이다.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받아안음으로써 우리 인민은 해방후 그처럼 복잡한 안팎의 정세속에서도 당, 국가 및 무력 건설 사업을 가장 짧은 기간에 끝낼수 있었으며 수많은 혁명의 년대들을 빛내이며 조선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올수 있었다.

우리 당중앙은 혁명승리의 근본원천을 혁명전통에서 찾고 독창적인 사상리론활동과 정력적인 령도로 그것을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가는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였다.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우리 당의 위대성은 무엇보다먼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시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조선혁명의 지도사상으로 계속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는데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현실에 맞게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혁명활동을 벌려나가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단행본, 19페지)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계승성을 옳게 보장하려면 혁명위업의 개척자인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건설되고 강화발전되여야 한다.

원래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무기이다. 만일 당안에 이색적인 사상조류가 있고 사대와 교조에 사로잡혀 지도사상의 유일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당은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수행할수 없고 당과 혁명을 말아먹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나라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교훈을 심각히 분석총화하신데 기초하여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승리에로 령도하시였다. 장구하고 간고한 항일혁명투쟁과정에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검증되였으며 조선공산주의운동안에 주체의 사상체계가 수립되게 되였다. 이리하여 조선로동당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태여나게 되였으며 창건첫날부터 필승불패의 위력을 지닌 정치적령도자로서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칠수 있었다.

우리 당은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온 지난날의 투쟁력사에서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확신하고 그것을 당의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나감으로써 당과 혁명의 계승성을 가장 철저히 보장하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빛내여온 혁명의 년대들을 이어 우리 당은 1970년대에 이르러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당건설의 근본문제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혁명의 총적임무로 선포하고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이끌었다.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밀고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는 주체사상을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확립하고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ㅌ. ㄷ》가 높이 들었던 주체의 기치를 끝까지 고수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다그쳐나가는 력사의 새 시기를 열어놓았다.

우리 당은 자기 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제시한데 기초하여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령도를 철저히 실현하는것을 비롯하여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개선하는 등 당건설과 그 발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해결해나갔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을 령도하신 때로부터 시작된 주체사상화를 오늘에 마련된 제반 주객관적조건과 튼튼한 터전에 토대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제시한 우리 당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전당, 전국, 전민을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장엄한 진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통하여 우리 당의 전투력은 더욱 높아지고 그 위력이 비할바없이 강화되였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주체사상만이 꽉 들어차있으며 주체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기 위한 투쟁으로 일관되여있다.

우리 당은 지금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정치와 경제, 문화와 군사, 대외관계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여 공산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변혁적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다.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중요한 원칙은 혁명과 건설을 우리 식대로 해나가도록 하는것이다. 여기에는 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를 끝까지 고수하려는 우리 당의 철석같은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력사적진군과 더불어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었다. 이 구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항일대전에서 일제의 100만 관동군을 종국적패망에로 몰아넣은 주체의 신념과 의지를 그대로 이어받고있음으로 하여 그 영향력이 비길데없이 큰것이다.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제정신을 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우리 식대로 혁명과 건설을 해나가도록 하는 우리 당의 령도에 의하여 조선혁명은 아무리 복잡한 정황속에서도 편향을 범하지 않고 오직 주체적립장에서 독창적인 길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으로 특징지어지고있다.

일찌기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혁명위업이 개척된 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 와서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구호밑에 공산주의에로의 위대한 진군을 다그쳐나가고있는 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참으로 의의깊은 사변으로 된다. 자기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하던 시기에 들었던 혁명의 기치를 끝까지 높이 들고 나가는 여기에 혁명전통을 계승한 우리 당의 투철한 혁명성이 있고 위대성이 있다.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우리 당의 위대성은 또한 백두밀림에서 형성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우리 혁명대오를 불패의 충성의 대오로 튼튼히 꾸려나가는데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은 전당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오직 당과 수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충성의 대오로 강화발전되였다.》
(우와 같은 문헌, 22페지)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투쟁에 있어서 단결은 승리이며 단결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통일단결을 이룩하여야 혁명위업을 개척한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고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나가는 전일적인 전투부대로 될수 있다.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당의 통일단결은 로동계급의 당의 생명으로, 그 존재와 발전의 기초로 되며 혁명과 건설의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요인으로 된다. 따라서 당은 혁명이 멀리 전진하고 혁명의 대가 바뀌는 시기에도 로동계급의 위업의 개척기에 이룩된 단결의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당의 위력과 전투력을 불패의것으로 다져나가야 한다.

단결의 위력은 그 중심인 령도자의 위대성과 그에 대한 전사들의 끝없는 신뢰에 기초하고있다.

조선혁명의 첫시기에 이룩된 단결이 그처럼 공고하였던것은 령도자가 위대하고 새세대혁명전사들이 그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심장으로 체득하였기때문이다. 그리하여 조선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단결의 중심으로, 혁명의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따르며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혁명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였다.

우리 당은 백두밀림에서 형성된 단결의 전통을 계승하는데서 먼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혁명전통교양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우리 당은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방방곡곡에 《김일성동지혁명사적관》,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들을 내오게 하였으며 혁명 전적지들과 사적지들을 만년대계로 꾸리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그 위대성을 내외에 널리 선전하는 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백두산일대를 비롯한 전국의 혁명전적지들과 사적지들을 찾는 답사자들의 대렬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령도풍모, 고매한 덕성을 체득하고 수령님을 높이 받들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수령님의 위대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이 얼마나 목적지향성있게 진행되고있는가를 뚜렷이 보여주는 실례의 하나이다.

혁명전통교양의 중심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는데 모를 박고 진행하는것과 함께 새세대청년공산주의자들이 보여준 단결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우도록 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의 길에서 불변의 신념과 혁명적의리를 지니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받들어나가며 가장 순결하고 공고한 단결을 이룩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이 남긴 빛나는 업적은 우리 혁명의 귀중한 재부이다.

우리 당은 청년공산주의자들이 부르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영원한 충성의 노래, 단결의 노래로 힘있게 울리도록 정력적으로 이끌면서 《모두다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옹호보위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모범을 활짝 꽃피워주었다. 여러가지 선전선동수단들을 동원하여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나간 불굴의 혁명전사들의 모범을 내세우고 전체 인민이 따라배우도록 하는 사업이 전례없는 규모에서 벌어지고있는것은 단결의 전통을 계승해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을 그대로 상징하고있다. 그리하여 자기를 키워주고 혁명의 길에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향도성으로,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혁명의 길우에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운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의 신념과 의리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투쟁과 생활에 빛나게 이어지고있다.

혁명전통교양을 실속있게 벌려나가는

당의 령도밑에서 령도자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신뢰, 혁명적 신념과 의리에 기초하여 당과 수령을 위해 한생을 살고 혁명하려는 충성의 일편단심이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로 굳어졌다. 천리를 가고 만리를 가도 오직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운명을 같이 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정신도덕적풍모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하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단결의 중심과 전통의 계승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대를 이어 계속되는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를 가장 훌륭히 해결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처럼 백두밀림에서 형성된 통일단결의 전통이 오늘의 현실에 맞게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발전됨으로써 혁명위업이 순결하게 이어지고있으며 이것으로 하여 혁명전통을 계승해나가는 우리 당의 위대성이 그처럼 특출한것이다.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우리 당의 위대성은 또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높이 발휘된 혁명적인 투쟁기풍을 전당과 온 사회에 튼튼히 확립해나가는데 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수립되였던 혁명적인 사업태도와 사업방법, 생활기풍은 혁명을 위하여 오늘도 매우 귀중하다. 혁명은 멀리 전진하고 시대는 달라졌어도 멀고 험난한 혁명의 길을 계속 걸어야 하는 우리들은 항일유격대원들의 투쟁기풍대로 일하고 배우며 살아야 그들처럼 조선혁명위업에 끝까지 충실할수 있다.

우리 당은 항일혁명선렬들의 투쟁기풍을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함으로써 혁명전통의 계승성을 훌륭히 보장하는 커다란 업적을 이룩하였다.

백두밀림에 차넘쳤던 투쟁기풍을 오늘 온 사회에 구현해나가는데서 모든 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하는것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에서는 지금 모든 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할데 대하여 강조하고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하는것은 항일혁명선렬들이 투쟁과 생활에서 높이 발휘하였던 혁명적기풍을 따라배워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지난날 혁명적인 투쟁기풍으로 살며 싸워옴으로써 혁명에 다진 맹세를 철석같이 지켜 마침내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의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할수 있었다.

시대는 달라졌어도 혁명의 과녁은 변하지 않았다. 항일유격대원들이 류례없이 간고하고 준엄한 혁명의 시기를 자랑스럽게 빛내여온것처럼 오늘도 모든 사업을 그들처럼 해나갈 때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주체의 혁명위업을 변함없이 계승해나갈수 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장엄한 진군을 개시한후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여 온 나라에 혁명적투쟁기풍을 세우는 획기적계기를 열어놓았다. 이 구호는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고방식과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게 하고 항일의 혁명전통이 빛나게 계승되게 한 불멸의 기치였다.

모든 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해나가는 투쟁속에서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당사업방법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당사업기풍이 개선되였다. 우리의 주체형의 당일군들은 항일유격대지휘관들처럼 배낭을 메고 늘 아래에,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당앞에 지닌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있다. 대중과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그 어떤 복잡한 사업도 책임적으로 해내며

맞받아나가는 공격정신으로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는것이 우리 당 일군들의 전투적기풍이다.

오늘 우리 당은 선전선동사업도,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도 철두철미 지난날 백두밀림에서 하던 그런 방법으로 현실에 접근하여 생동하고 패기있게 진행하고있으며 이로부터 인민대중의 깊은 신뢰와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생사를 판가리하는 가렬한 전투장에서나 눈보라를 헤쳐야 하는 간고한 행군길에서나 하루밤 묵어가는 숙영지에서나 그 언제 그 어디를 막론하고 사령부를 지켜 용감히 싸우고 혁명을 위하여 꾸준히 학습하며 알뜰히 생활한 항일유격대원들의 기풍이 당의 령도밑에서 사회생활에 훌륭히 계승되고있다.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의 사상과 의도를 절대적진리로 받아들이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고있다. 우리 인민이 있는 모든곳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이 나래치고 나라의 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가 높이 발휘되여 커다란 결실을 가져오고있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이렇듯 항일혁명투쟁시기의 혁명적인 투쟁기풍이 발양되는 과정에 당안에는 주체의 혁명전통이 더욱 확고히 지배하게 되였다.

참으로 우리 혁명에 있어서 오늘과 같이 항일의 그날에 이룩된 모든 력사적재부들이 대를 이어 계승되고 활짝 꽃펴난 때는 일찌기 없었다. 세월이 갈수록 혁명전통을 혁명승리의 만년초석으로 내세우고 튼튼히 다지며 계승해나가는 위대한 당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혁명의 전도는 끝없이 양양하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무기인것만큼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굳건히 고수하여야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우리 당은 바로 수령이 이룩한 모든 혁명적재부들을 빛나게 계승해온 결과 주체형의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지켜낼수 있었다.

우리 당은 혁명전통을 계승해나가는 투쟁과정에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활동하는 당, 하나와 같이 통일단결된 당, 대중과 혈연적련계를 맺은 당으로 강화발전되였으며 그리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다.

우리 당이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이룩한 업적과 경험들은 우리 혁명을 영원히 주체의 한길로 이끌어나갈수 있는 무궁무진한 원천을 마련한 커다란 공적이다.

심화발전되는 혁명의 요구에 맞게 올바른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제때에 투쟁구호들을 제시하며 힘있는 대중운동들을 발기하고 령도해오면서 이룩한 우리 당의 풍부한 업적들은 혁명승리의 튼튼한 밑천으로 된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구현한 경험,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체계를 확고히 수립한 경험, 인민대중을 묶어세워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마련한 경험 등 우리 당이 쌓은 수많은 경험들은 우리 혁명을 오직 주체의 길로만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부로 되고있다.

우리는 당과 함께 운명을 같이해오면서 혁명전통을 계승한 우리 당을 따라 나아갈 때 혁명의 밝은 전도를 가질수 있고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진리를 심장깊이 체득하였다.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고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치며 열어놓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찬란히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당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

지 창 익

로동계급의 당활동에서 과학적인 지도적지침을 가지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그 실현을 위한 방향과 방도를 옳게 밝혀주는 과학적인 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활동할 때에만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를 옳게 실현해나갈수 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당 활동의 진로를 밝혀주는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며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 작성의 기초이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그것으로 일관되고있다. 주체사상을 떠나서 우리 당의 활동의 특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모든 승리와 성과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해온 빛나는 결실이다.

지난 기간 우리 당은 언제나 위대한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투쟁함으로써 자기 발전의 독창적인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올수 있었으며 오늘과 같은 주체형의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로숙한 당으로 강화발전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업적을 이룩할수 있었다.

조선혁명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혁명이며 그 향도력인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투쟁하는 불패의 혁명적당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당건설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움으로써 우리 당은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19페지)

주체사상은 우리 당 활동의 세계관적, 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이다.

주체사상이 우리 당 활동의 과학적인 지도적지침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정확한 혁명적세계관, 혁명리론, 방법을 밝혀주는 사상이기때문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로 되는것은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것이다. 사람들이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리는것이나 로동계급의 선진분자들이 당이라는 정치적조직을 뭇고 활동하는것은 다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것이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길을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세계관이야말로 로동계급의 당활동의 가장 정확한 지도적지침으로 되는것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에 대한 과학적인 견해와 관점, 립장을 가지게 함으로써 자연과 사회, 인간을 인식하고 개조하기 위한 가장 올바른 세계관적기초, 인민대중의 운명개

칙의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적지침을 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당은 언제나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근본요구에 맞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면서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 길을 가장 정확히 열어나가고있는것이다.

주체사상은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과 성격, 추동력에 대한 새로운 해명을 주는 주체의 사회력사원리에 기초하여 혁명의 근본원리를 밝혀줌으로써 우리 시대의 혁명리론을 전개하기 위한 옳바른 지도적지침을 안겨준다. 주체사상은 자주적으로 살려는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리해관계에 맞는 미래사회의 면모와 본질적징표, 거기에 이르는 로정과 단계,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에 이르기까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고 있다.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억제하는 온갖 구속에서 사람들을 벗어나게 하는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방향과 방도,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인류의 리상사회로 드팀없이 나갈수 있게 하는 리론적, 전략전술적 지침을 안겨준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혁명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원칙, 주체의 령도방법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며 대중지도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침을 준다.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은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하며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본원칙이다.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을 틀어쥐고나갈 때 로동계급의 당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수 있으며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실정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향도됨으로써 자주성을 확고히 지키고 자기 주견과 신념에 따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정확하게 해결해나갈수 있었으며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우리 나라 혁명의 조건에서도 제정신을 잃지 않고 전인미답의 길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었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대중을 보다 광범히 동원시켜야만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있다. 주체의 령도방법은 모든 문제해결의 기본을 인민대중에게서 찾고 그들의 힘과 지혜를 발동시켜 혁명투쟁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게 한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주체의 지도적원칙과 방법은 당의 령도체계와 령도원칙,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한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철저히 세우도록 함으로써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가장 정확하게 풀어나가게 하는 위력한 지도적지침을 준다.

참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모든 문제고찰에서 가장 정확한 견해와 관점, 립장을 가지게 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과학적인 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세우게 하며 대중령도에서 옳은 원칙과 방법을 견지하게 함으로써 우리 당활동의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 당은 그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당건설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시종일관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침으로 삼아왔으며 그것으로 하여 언제나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찬 자랑찬 로정을 걸어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시되였으며 혁명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는 여기에 백전백승하는 우리 당의 위력의 원천이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30권, 528～529페지)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조선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피의 교훈을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한데 기초하여 사대주의, 교조주의에 오염된 낡은 세대에 의하여서는 당창건위업, 조국광복위업을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절감하고 조선혁명을 조선사람자신이 책임지고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밀고나가야 승리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게 되였다. 이것은 사실상 주체사상창시의 출발점이였으며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우리 당의 뿌리를 마련한 사상적원천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신념에 기초하여 새세대공산주의자들로써 새형의 자주적인 핵위조직을 꾸리는것을 당창건준비에서 가장 중심적인 과업으로 내세우시였다.

《ㅌ. ㄷ》가 결성되여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혁명적당창건을 위한 투쟁의 출발점이 마련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당 창건과 강화발전, 당활동의 모든 로정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해온 과정이였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 요구대로 당을 건설하며 모든 활동을 벌림으로써 로동계급의 당력사발전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할수 있었으며 그 지도사상에 있어서나 조직성과 대렬의 공고성, 대중과의 혈연적련계에 있어서 특출한 면모를 지닌 새형의 혁명적당으로 될수 있었다.

해방후 어중이떠중이들이 저마다 《혁명》을 했다고 자처하면서 날뛰던 그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조선공산당을 창건하고 그것을 근로인민대중의 대중적정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은것도 종파주의자, 사대주의자들의 거듭되는 음모책동을 짓부시며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을 굳건히 고수하고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올수 있은것도 우리 당이 바로 주체사상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갔기때문이다.

우리 당이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현실에 맞게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혁명투쟁을 벌리는데서 중요한것은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것이였다.

주체를 세우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성격과 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근본문제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온갖 구속을 반대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의 참모부인것만큼 자기 활동에서 마땅히 주체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

특히 사대주의, 교조주의가 심하게 나타나 공산주의운동에 큰 해독을 끼쳐온 우리 나라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은 우리 당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요구로 제기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나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 시기에도 언제나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이끄심으로써 우리 당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며 조선혁명을 부단한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만 나아갈수 있게 하시였다.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당활동을 벌리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주체적립장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바로세우고 집행해나가는것이다.

우리 당은 확고한 주체적립장을 견지하여 언제나 우리 혁명의 요구와 리익, 나라의 실정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규정하였다. 우리 당은 인민의 리익과 나라의 현실에 맞는것이라면 그 어떤 기존공식이나 명제에도 구애되지 않고 대담하게 그것을 집행해나갔으며 다른 나라의 경험이 아무리 훌륭한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실정과 우리 인민의 요구에 맞지 않을 때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일관한 립장을 견지하여왔다. 그

리고 다른 나라의 경험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당활동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과 대외활동 등 모든 면에서 철저히 관철되였다. 지난 기간 우리 당이 제시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과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방침,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 우리 나라의 공업 및 농업 지도체계,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방침,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방침 등 모든것은 다 우리 당이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제시한 혁명적이며 독창적인 로선과 방침들이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울뿐아니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그것을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에 의거하여 풀어나갔다.

주체사상이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자연을 개조하고 물질적부를 창조하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이며 사회를 변혁하고 새생활을 창조하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이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주인으로, 힘있는 존재로 키우고 그들의 창발성과 지혜를 높이 발양시키는것은 당의 모든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원칙적인 문제로 나선다.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혁명적군중로선은 바로 우리 당이 대중령도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한 령도원칙으로서 그것은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하기 위한것이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그 어떤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혁명적군중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모든 문제를 혁명과 건설의 추동력인 인민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풀어나감으로써 간고하고 시련에 찬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왔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우리 당 활동에서 중요한것은 당과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한것이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시하고 그것을 일반화한것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당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개선하고 혁명적인 군중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은 사업방법분야에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할수 있게 되였으며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주체의 사업방법이 전당에 확고히 서게 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모든 당활동을 벌리는데서 중요한 력사적전환점으로 된것은 우리 당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공산주의건설강령으로 제시한것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본질에 있어서 당을 창건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혁명과 건설에 구현해나가는 무기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이 수령에 의하여 창건된 당으로서 혁명적성격을 고수해나가기 위해서는 수령의 혁명사상을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철두철미 구현해나가야 하며 그러자면 전당과 온 사회를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그것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것을 혁명위업의 완성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보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당사업의 총적임무로 제시하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한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한다는것을 말한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

침으로 삼고 그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것을 최대의 사명으로 하고있는 우리 당은 지난 1970년대에 벌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체계로 정식화하고 주체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았다.

우리 당에 의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이 제시됨으로써 자연과 사회, 인간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업이 새로운 단계에서 심화되였고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주체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은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게 되였다.

우리 당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방도로 규정하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사람과 사회, 자연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거창한 창조와 혁신을 이룩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인간개조사업과 자연개조사업을 전면적으로 다그쳐 근로인민대중을 낡은 사회의 구속과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하기 위한 혁명위업이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람들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주되는 요인들은 낡은 사상과 힘든 로동, 문화적락후성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기 이전시기에는 근로인민대중을 계급적 지배와 예속에서 해방하는 과업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면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에는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구속에서 사람들을 종국적으로 벗어나게 하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기본혁명과업으로 제기되는것이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기간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낡은 사상과 문화, 자연의 구속에서 사람들을 해방하며 사람과 사회, 자연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업이 심화되였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방침을 제시하면서 그 선결조건으로서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였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한다는것은 모든 당원들을 주체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한 혁명의 정수분자로 만들며 당건설, 당활동을 철저히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진행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전당의 주체사상화는 주체사상을 당의 지도적지침으로 끝까지 틀어쥐고나가며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에 맞게 당을 건설하고 완성해나가기 위한 총적방향을 명시한 탁월한 방침이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당을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게 됨으로써 당건설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이 심화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투쟁은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되게 되였다.

참으로 오늘 우리 나라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우리 당의 강령으로 제기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강화되고있으며 전당을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빛나는 결실이 맺어지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우리 당 건설과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으로서 그 생활력을 높이 발휘하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 있다.

지난날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고 무지와 몽매 속에서 고통받던 우리 인민이 오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와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가지고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는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는 우리 당,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주체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우리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

최 인 덕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은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그 완성을 위한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며 확고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단결은 혁명이고 혁명은 단결이다. 단결과 혁명은 하나로 잇닿아있다. 혁명은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혁명조직에 결속되는데로부터 시작되고 그들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승리적으로 전진하며 완성된다. 단결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무궁무진한 힘을 발휘하게 하는 근본요인이다. 인민대중은 위력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가지고있지만 개별적성원들의 단순한 결합으로써는 커다란 위력을 발휘할수 없는것이다. 인민대중이 혁명위업을 실현하는 길에서 높은 혁명성과 창조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자면 혁명조직에 굳게 결속되여야 한다. 따라서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단결은 생명과 같이 귀중하다.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혁명조직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단결된 혁명대오는 불패이지만 그렇지 못한 대오는 무기력하다. 이것은 혁명운동의 오랜 력사가 보여주는 엄연한 진리이며 심중한 교훈이다. 혁명위업수행에서 단결을 이룩하는것은 혁명의 정치적령도자와 담당자사이에 굳은 결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조직동원하는 정치적령도자이며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직접적담당자이다. 혁명대오가 하나로 굳게 결속된다고 할 때 그것은 혁명의 정치적령도자와 담당자사이에 일심단결을 이룩하는것을 의미한다.

당과 인민대중과의 일심단결은 당이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당으로 되기 위한 근본조건이며 당과 인민이 한마음한뜻이되여 혁명위업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당과 대중이 언제나 마음을 같이하고 기맥이 통하여야 당은 정치적령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은 혁명의 담당자로서의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그러므로 당과 대중과의 일심단결이 이루어져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는것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혼연일체, 일심단결을 이루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을 무한히 신뢰하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있으며 우리 당은 인민대중과 혈연적으로 련결되고 혼연일체를 이루고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숨을 쉬여도 같은 숨을 쉬고 말을 하여도 같은 말을 하며 걸음을 걸어도 같은 걸음을 걷는 그야말로 일심동체를 이루고있다. 당과 인민사이에는 사소한 간격도 없으며 친근하고 밀접한 관계만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당과 인민들사이의 관계는 친부모와 자식간, 친우들사이의 관계보다 더 친근하다고 말할수 있다. 우리 당과 인민이 일심동체, 일심단결을 확고히 이룩한것은 그 어떤 뢰성벽력에도 드놀지 않으며 역경도 순경으로 만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대한 힘으로 되며 우리 혁명을 오직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만 전진시키는 무궁무진한 위력의 원천으로 된다.

우리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은 무엇보

다도 혁명적 신념과 의리에 기초하여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것으로 하여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한다.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치는것은 신념과 의리에 기초하여 정치사상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결합되는것을 전제로 한다. 혁명적신념은 혁명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나가는 확고한 신조이며 혁명적의리는 혁명가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도덕적의무이다. 일심단결은 신념과 의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가식과 변심을 모르는 참다운 결합으로 될수 있으며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다.

혁명적신념에 기초한 일심단결은 혁명과 건설에서 당과 수령이 노는 결정적역할, 당과 수령의 위대성, 령도의 현명성을 깊이 인식한데 토대하여 이룩되는것으로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난관과 시련에 부닥쳐도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언제 어디서나 당과 수령의 사상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게 한다. 이와 동시에 혁명적의리에 기초한 일심단결은 인민들이 당과 수령의 은덕에 보답하려는 불같은 뜨거운 마음을 안고 혁명의 길을 충성으로 빛내여나가며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혁명적량심을 저버리지 않고 당과 수령의 부름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도록 한다. 그러므로 당과 인민이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부터 출발하여 정치사상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결합되여야 참다운 일심단결로 되는것이다.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으로, 의리로 간직하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억세게 싸워나가는 혁명적인민이다. 인민들은 자기 령도자의 위대성과 현명성을 심장으로 체득하고 그것에 진실로 매혹될 때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굴함없이 싸워나가게 되는것이다. 혁명의 길에서 모든것을 잃을지언정 당과 수령, 혁명 앞에 다진 맹세를 어길수 없다는것이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지니고있는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이다.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신념과 의리로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따른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는 주체형의 혁명가가 지녀야 할 풍모의 전형이다. 투쟁과 생활을 통하여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위대성과 현명성, 공산주의적덕성을 깊이 체득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우리 혁명이 언제 승리할지 모를 그 암담한 시기에도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단결되였으며 혁명의 길에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치였다. 그들은 혁명의 령도자를 높이 모시고 수령의 령도따라 나아갈 때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하며 혁명가의 영예와 보람을 끝까지 지킬수 있다는 진리를 심장으로 체득하였기에 신념과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튼튼히 고수하고 그 빛나는 전통을 창조할수 있었다. 이 전통을 계승하는 과정에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한 항일의 무장대오가 자라났고 수천수만의 혁명가들이 령도자를 받드는 하나의 대오속에 결속되게 되였다. 오늘 수백만에 달하는 로동당원들과 당의 강유력한 후비대들인 청년전위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이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받드는 하나의 흐름속에 마음과 마음을 합치고있다. 우리 인민이 높이 추켜들고있는 《모두다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자!》라는 충성의 구호에는 혁명위업이 개척되던 시기의 그 립장과 자세로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혁명의 령도자를 높이 받들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의지와 신념, 숭고한 의리가 담겨져있다. 오랜 세대나 젊은 세대, 혁명의 지휘성원이나 평범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 모두가 이러한 신념과 의리를 지니고 당중앙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투쟁을 진두에서 이끌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에서

우리 혁명의 밝은 미래를 확고히 내다보고있다. 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길에서 못해낼것이 없다는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더욱 굳세여지고있다.

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전당이 뭉치고 당과 인민이 뭉치고있는것으로 하여 주체위업은 끊임없이 전진하며 그 종국적 승리는 확고히 담보되고있는것이다.

우리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은 또한 굳은 믿음과 신뢰에 기초하여 이룩됨으로써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한다.

일심단결은 굳은 믿음에 기초하고있다. 믿음은 단결을 낳으며 참된 믿음만이 혁명대오를 하나의 전일체로 만든다. 서로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일심단결이 이루어질수 없다. 굳은 믿음과 열렬한 신뢰는 당과 인민이 일심동체, 일심단결을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당과 수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과 수령을 끝없이 신뢰하고 흠모하여야 당과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칠수 있는것이다.

당에 대한 인민들의 믿음, 그것은 혁명의 수령, 탁월한 령도자에 대한 끝없는 신뢰이고 흠모이며 인민대중에 대한 당의 믿음은 당이 모든 문제해결의 기본열쇠를 인민대중에게서 찾는데 있다. 당과 인민이 서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데 일심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근본요인의 하나가 있다. 령도자의 믿음이 있기에 혁명전사들과 인민들이 그 두리에 굳게 뭉칠수 있으며 인민들의 지지와 신뢰가 있기에 령도자는 혁명대오를 하나의 전일체로 굳게 결속시킨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당은 마음의 기둥이며 인민대중은 우리 당이 의거하고있는 지반이다.

우리 인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당과 수령을 열렬히 흠모하며 그 품을 떠나서는 순간도 살수 없는것으로 여기고있다. 이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당을 친근하게 《어머니당》이라고 부르고있으며 자나깨나 당과 수령만을 생각하고있다.

당을 어머니품으로 여기는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는 바로 천만사람들이 느끼는 절절한 그리움과 흠모의 정이 그대로 간직되여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마음은 언제나 당과만 잇닿아있다. 기쁨도 슬픔도 당과 함께 나누며 투쟁해나가는것이 우리 인민의 고상한 혁명적풍모이다.

언제나 당을 생각하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마음은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도 구애되지 않고있다. 영광의 날에나 시련의 날에나 당을 열렬히 흠모하며 우러르는 우리 인민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 혁명의 길에서 어려운 난관과 시련에 부닥치면 먼저 당을 생각하여 힘을 얻고 곤난을 뚫고나가는것이 우리 인민의 고유한 기질로 되고있다. 이처럼 우리 당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언제나 마음의 기둥으로 되고있는것이다.

우리 당 활동의 기저에는 인민에 대한 굳은 믿음이 놓여있다. 우리 당의 모든 사업과 활동은 인민을 굳게 믿고 그들에게 철저히 의거하는데로부터 출발한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대중을 떠난 당사업과 당활동이란 있을수 없다.

인민에 대한 당의 믿음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과 의논하며 철저히 그들에게 의거하여 풀어나가는데서 표현되고있다. 혁명투쟁에서 발휘하는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에는 끝이 없는것만큼 당이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에게서 힘과 지혜를 얻으며 대중에게 의거하여 모든것을 풀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층의 인민들과 나라의 크고작은 일들을 의논하시며 그들의 의사와 요구를 종합하고 일반화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는것을 철칙으로 삼고계신다. 따라서 당의 로선과 정책은 우리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그들의 힘에 의하여 어김없이 관철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대중지도원칙을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우리 당은 언제나 모든 문제해결의 기본열쇠를 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는데서 찾고 혁명앞에 어려운 과업이 나설 때마다 전당, 전민, 전군을 조직동원하여 투쟁과 위훈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최근년간 미제와 전쟁광신자 전두환 매국역도의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서는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이때마다 우리 당은 인민의 힘을 믿고 그들을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도록 이끎으로써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였다. 우리 당은 또한 한없이 넓은 포용력으로 혁명전사들과 각이한 계층의 모든 사람들을 한품에 안고 공산주의의 광명한 미래에로 확신성있게 이끌고있으며 언제나 그들에게 끝없는 삶의 보람과 크나큰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신임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어떻게 하면 그 믿음에 보답하겠는가 하는 하나의 일념으로 가슴불태우고있다. 우리 인민의 이러한 심정은 순탄한 환경에서는 물론 난관이 가로막을 때에도 변함이 없으며 원쑤들의 악랄한 사상공세앞에서도 확고부동한것이다. 혁명앞에 그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당의 믿음에 보답해나가는 혁명적인민이 있으므로 우리 혁명은 언제나 튼튼히 보위되고있으며 보다 큰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이다.

우리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은 다음으로 당과 인민이 운명을 끝까지 같이하게 하는것으로 하여 주체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한다.

운명을 같이한다는것은 생사를 같이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삶과 죽음을 같이하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공산주의위업을 실현하는 간고한 투쟁속에서 당과 인민이 운명을 같이하여야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할수 있다. 당과 인민의 운명은 언제나 하나로 잇닿아있는것만큼 그것은 일심단결속에서 개척된다.

우리 당과 인민이 운명을 같이하는것은 그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혁명을 완성할 때까지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하나로 굳게 뭉쳐 싸워나가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당과 인민이 운명을 끝까지 같이하려는 혁명적각오에 기초하여 당과 인민이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결합되여야 혁명위업을 힘있게 추진하는 무궁무진한 힘을 가진 일심단결로 되는 것이다.

운명을 같이하는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은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당과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혁명의 준엄한 시련을 함께 이겨나가게 한다. 그것은 지난날에도 물론 그러하였지만 공산주의미래를 위하여 당과 인민이 힘을 합쳐 억세게 싸워나가게 한다. 인민이 당과 함께 혁명의 한길에서 영원한 동반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당과 운명을 끝까지 같이하여야 하며 당은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야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다. 이로부터 정치적령도자인 당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며 인민은 당에 자기의 운명을 의탁하여야 할 요구가 흘러나오게 된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고있으며 우리 인민들은 자신들의 모든 운명을 당에 전적으로 의탁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의 오랜 력사는 당이 인민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며 준엄한 시련을 함께 뚫고 승리해온 빛나는 력사이다. 오늘 우리 혁명위업 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우리 당에 의해서 설계되고 작전되며 우리 당의 정력적이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의 장래운명과 휘황한 전망이 담보되여있다. 이것을 깊이 자각하고있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신뿐아니라 후대들의 운명도 당에 전적으로 맡기고있는것이다. 당의 령도에서 혁명의 휘황한 전망과 조국의 륭성번영

을 위한 밝은 전도를 내다보고있는 우리 인민들은 당과 함께 혁명의 험난한 진펄길도, 사나운 눈보라도 억세게 뚫고나갈 굳은 각오로 충만되여있다. 당의 부름이라면 천만길 물속에도 뛰여들겠다는 우리 인민의 비상한 각오는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며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일심단결을 끝까지 고수하게 한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영원히 우리 당중앙과 운명을 같이할 굳은 결의에 넘쳐 당의 부름에 끝없이 충실하고있다. 수십년 세월을 하루와 같이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묵묵히 일해나가는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들이 도처에서 수많이 나오고있는것은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우리 인민의 정신세계의 숭고한 높이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순간을 살고 두번 다시 태여난다 해도 당중앙의 영원한 해발이 되여 당과 운명을 끝까지 같이하려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굳은 각오는 우리 혁명앞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인다 하여도 주체위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시키며 그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게 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참으로 우리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은 혁명적 신념과 의리, 서로 믿고 신뢰하며 운명을 끝까지 같이하려는 굳은 각오에 기초하여 결합된것이다. 이것으로 하여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은 주체위업의 승리적전진과 그 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조선혁명이 개척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온 전과정은 수령, 당, 인민이 혼연일체가 되여 억세게 싸워온 자랑스러운 로정으로 빛나고있다.

당과 수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과 수령을 받들고 따르는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은 강도 일제를 쳐물리치고 조국광복을 이룩하게 한 결정적요인으로, 새 조국 건설에서와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커다란 성과와 승리를 보장한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되였으며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언제나 놀라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한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에 의하여 오늘 우리 혁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단계에서 힘차게 전진하고있으며 이 과정에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은 가장 높은 수준에서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따르며 당과 인민이 한덩어리가 되여 혁명과 건설의 곧바른 승리의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전진한 례는 일찌기 없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323페지)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당과 대중과의 일심단결을 이룩한것은 주체위업의 승리를 위한 가장 귀중한 밑천이며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다.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우리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은 전당과 온 사회에 당중앙의 의도와 지시에 따라 한몸과 같이 움직이는 강한 규률과 질서를 튼튼히 세워놓았다. 일심단결은 전당과 온 사회가 당중앙의 유일적인 지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데서 나타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실현됨으로써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가 아래에 쭉쭉 내려가고 아래의 요구가 제때에 당중앙에 집중되고있으며 모든 문제를 당의 유일적인 결론에 따라 처리하는 강한 규률과 질서가 튼튼히 서게 되였다. 그리하여 전당과 전체 인민이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한몸과 같이 움직이는 전일적인 혁명대오로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어김없이 철저히 관철하는데서도 그 위력이 남김없이 발휘되고

있다.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은 당의 뜻을 받드는것을 가장 신성한 혁명적본분으로 여기고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언제나 당의 로선과 정책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고있으며 이 과정에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고 있다.

이 모든것은 주체위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가 바로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실현한데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된 우리 혁명은 멀리 전진하였으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지난날 당과 일심동체가 되여 혁명의 준엄한 길을 과감히 헤쳐온것처럼 앞으로도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굽임없이 전진하는것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우리 인민의 힘을 널리 시위하며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당과 수령을 높이 받들고 따르는 끝없는 충실성은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기초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우리는 혁명가의 충실성에는 끝이 없다는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지난날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선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온것처럼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승리의 한길을 따라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구술도 닦아야 빛이 나는것과 같이 혁명가들은 자신의 사상수양을 굽임없이 쌓아야 변심을 모르는 절대적인 충실성을 가지고 당과 수령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나갈수 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굽임없는 사상수양을 통하여 혁명적 수령관을 더욱 튼튼히 세우며 모두가 일심단결하여 당과 수령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

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것은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된 힘으로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단결의 기치는 우리 당의 계속혁명의 기치이며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다. 단결이 혁명승리라는것은 그 어느때 가서도 변할수 없는 혁명운동발전의 법칙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과 수령이 이룩한 통일단결의 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킴으로써 우리 혁명대오의 단결에 조금도 금이 가지 않게 하며 일심단결된 힘으로 주체위업의 승리를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일심단결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숭고한 의무이다. 당은 로선과 정책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며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성심은 당정책을 관철하는 실천투쟁속에서 나타난다. 당과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얼마나 굳게 뭉쳤는가 하는것은 중요하게 당정책이 어떻게 관철되여나가는가 하는데서 표현된다.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우리 당이 로선과 정책을 내놓는 조건에서 우리 인민이 그 관철을 위하여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야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이 실천투쟁속에서 더욱 공고화되게 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당정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당과 일심동체가 된 우리 인민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단결의 기치따라 당과 대중과의 일심단결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주체의 당사업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위대한 령도

렴 기 순

오늘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투쟁속에서 불패의 위력과 령도력을 지닌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으며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해나가고있다.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당사업방법을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와 정력적인 투쟁의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주체의 당사업방법이 확립된 결과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는 더욱 두터워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는 비할바없이 강화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불패의 위력에서 조국과 민족의 휘황한 래일을 내다보고있으며 모든것을 당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의 령도따라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을 다그쳐나가고있다.

* *

당사업방법을 바로세우는것은 당건설과 당활동,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옳게 령도하기 위하여서는 인민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는 혁명적인 지도방법, 사업방법을 가져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이 옳은 사업방법을 확립하여야 광범한 인민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릴수 있고 당의 령도적역할과 전투적기능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특히 로동계급의 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혁명투쟁에서 단련되지 못하고 혁명적세계관이 서지 못한 일부 일군들속에서 당의 권위를 악용하여 틀을 차리고 세도를 쓰며 군중로선을 어길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당은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바로잡아나가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완성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당사업방법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우리 당사업실천에 빛나게 구현하여 혁명적당사업방법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진로를 개척하시던 시기에 벌써 혁명투쟁에서 사업방법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항일혁명투쟁의 전행정에서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인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 등 여러 혁명단계를 거치는 어렵고 복잡한 혁명투쟁과정에서 혁명적인 사업방법을 더욱 발전시키시였다.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통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구현되고 발전되였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 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였으며 당사업방법과 작풍에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룩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당사업방법은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철저히 지키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주체의 당사업방법은 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그에 맞게 처리해나가며 언제나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고 모든 문제를 그들의 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대중을 더욱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키워나가는 참다운 공산주의적사업방법이다. 주체의 당사업방법은 인민대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킴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떠밀어나가는 가장 위력한 사업방법이다.

주체의 당사업방법에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며 조직전개하는 방법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담화하고 깨우쳐주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일군들이 지녀야 할 일본새로부터 풍모에 이르기까지 당사업방법의 모든 내용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당사업방법을 당사업과 당활동에 빛나게 구현하는것은 당건설위업을 완성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보장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 당은 주체의 당사업방법을 구현해나가는것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빛나게 실현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최근 우리 당 사업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전당에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섰으며 당사업이 낡은 틀에서 벗어나 패기있고 생기발랄하게 진행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30권, 532페지)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당사업방법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켰다.

우리 당은 주체의 당사업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령도에서 철두철미 주체사상의 원리와 혁명적군중로선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보장하는데 기본을 두고있다. 당사업방법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당의 유일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원칙에서 전개하고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며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풀어나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의 근본특징이며 그 불패의 생활력을 규정하는 주되는 원천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은 주체의 당사업방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일적인 당사업체계를 확고히 마련하였다.

당의 모든 활동은 일정한 사업체계를 통하여 진행된다. 당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워야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당일군들이 혁명적 사업방법과 질서에 따라 일해나갈수 있다. 당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이 바로 섰다고 하더라도 사업체계가 옳게 서있지 않으면 당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없다. 당사업체계가 바로설 때 당사업, 당활동을 원만히 전개할수 있고 당사업방법을 옳게 구현할수 있다.

우리 당은 전당과 온 사회에 수령의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는 사업체계, 사람들을 수령과 그 위업에 충실하도록 교양하고 조직동원하는 사업체계를 세우는것을 중요한 요구로 제기하고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를

확립하였다.

우리 당은 간부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 군중과의 사업을 위한 정연한 체계를 세움으로써 당조직과 당일군들로 하여금 혁명적사업방법을 빛나게 구현할수 있게 하였으며 사람들을 교양하고 움직여 그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게 하였다. 우리 당이 제시한 웃당조직이 아래당조직들의 사업을 장악하고 도와주는 하부지도체계와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 부서들의 배합작전과 협동작전을 강화할데 대한 조치들은 혁명적인 당사업방법을 구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전일적이며 정연한 당사업체계가 확립됨으로써 전당과 온 사회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혁명적인 사업기풍을 세우고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당사업의 요구에 맞게 주체의 당사업방법을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갈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가지게 하였다.

주체의 당사업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전당에 확립한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데서 우리 당이 견지한 기본방침은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전당에 확립하는것이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29페지)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창조하신 참다운 공산주의적 사업방법이다. 이 사업방법을 계승발전시키는 여기에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온갖 그릇된 사업 방법과 작풍을 뿌리뽑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맞는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하는 참다운 길이 있다.

우리 당은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확립하는데서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대중속에 들어가 실정을 깊이 료해하고 문제해결의 올바른 방도를 세우며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것을 중요한 요구로 제기하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인민대중의 리익과 지향에 기초하여 세워지고 인민대중에 의해 집행된다. 인민대중의 창조적 지혜와 힘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로 군중을 적극 발동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적령도의 근본요구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이러한 요구를 정확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군들이 군중이 있고 혁명투쟁이 벌어지는 현실에 깊이 침투해야 한다. 당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야 군중의 진짜목소리를 들을수 있으며 따라서 그에 맞는 옳은 대책을 세우고 정확히 해결해나갈수 있다. 또한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방법을 구현할 때 당일군들은 대중의 지혜와 생동한 경험에서 배우고 실천투쟁속에서 자신을 단련하게 됨으로써 사업수준을 더욱 높이게 된다.

우리 당은 당일군들이 늘 군중속에 들어가 실정을 깊이 료해하고 문제해결의 방도를 세우며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워 군중이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우리 당은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가자!》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고 모든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처럼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대중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는것을 생활화하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틀이나 차리고 복잡한 문서와 회의로 사업을 대치하던 낡은 사업방법을 극복하고 모든 일군들이 현실속에 침투하여 일정한 기간 아래에 내려가 조직정치사업을 하고 올라와서 재무장, 재작전하고 다시 내려가는것을 제도

화하게 함으로써 각급 당위원회들이 언제나 아래당조직들의 활동과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실정에 맞는 실속있는 지도를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생산과 건설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공장과 농촌의 현장으로 달려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정치사업을 벌리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교양하고 이끌어나가는것은 우리 일군들의 혁명적인 일본새로 되고있다.

우리 당은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확립하는데서 또한 당사업에서 격식과 틀을 없애고 모든 사업을 통이 크게, 대담하게 밀고나가는것을 중요한 요구의 하나로 제기하였다.

당사업에서 격식과 틀을 없애고 그것을 구체적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벌리며 통이 크게 진공적으로 밀고나가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일본새에 전적으로 맞는 전투적인 사업방법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세계를 혁명적으로 변혁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전위투사들이다. 따라서 격식과 틀을 없애고 대담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가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일본새로 된다.

이 사업방법은 또한 우리앞에 나선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업방법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되는데 따라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더욱 높아지고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투쟁이 전례없이 거창한 규모에서 비상히 빠른 속도로 벌어지는 현실은 당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갈것을 요구한다.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거창한 혁명투쟁의 요구에 맞게 사업하자면 모든 일을 수공업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대담하고 통이 크게 진공적으로 밀고나가는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으로 대중을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당사업을 고정격식화된 낡은 틀에 얽매여서 소소하게 벌려오던 형식주의적이며 수공업적인 낡은 사업방법을 대담하게 버리고 당사업을 대상의 특성과 구체적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벌리며 투쟁목표를 크게 내걸고 모든 력량과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제기된 과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당안에 로쇠와 침체를 모르고 왕성한 투지와 패기와 정열에 넘쳐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며 모든 일을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해제끼는 로동계급적인 사업기풍이 서나가도록 이끌었다. 그리하여 모든 당일군들이 왕성한 사업의욕과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혁명적전개력, 대담성과 완강성,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을 지니도록 하였다.

주체의 당사업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당사업방법론을 확립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고 그것을 관철하도록 이끈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아래단위들에 되받아넘기는 식으로 하지 말고 그 관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세워가지고 포치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이 제시한 당사업방법론은 령도방법, 사업방법의 원리와 요구들을 사업대상의 실제적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구현하여 모든 사업에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도록 구체화되고 과학화된 묘술이다. 당사업방법론을 세운다고 할 때 그것은 사업을 설계하고 포치하는데로부터 그것을 수행하고 총화하는데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업공정을 대상의 특성과 주어진 조건에 맞게 세부적으로 파고들어 구체적이며 과학적인 대책안을 세운다는것을 말한다. 따라서 당사업방법론에는 사업전개의 방향과 목표, 그 수행단계와 순차, 구체적인 사업방식과 수법, 사업과정에서

부닥칠수 있는 정황과 그 처리방도 등 하나의 사업을 벌려나가는 전과정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구체적인 대책들과 묘술이 빠짐없이 반영된다.

우리 당은 당사업방법론을 가지고 일하는것을 당정책관철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공정으로 내세우고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제시되면 해당 단위의 실정에 맞게 묘술과 대책안을 세워 일해나가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당정책이 제시되면 외줄로 포치만 하던 사업방법을 버리고 쌍선으로 방법론까지 세워주도록 하였으며 중앙적인 방법론과 지방적인 방법론이 다르게, 당내부사업방법론과 행정경제문제를 다루는 방법론이 다르게 세우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또한 당사업방법론을 세우기 위하여 모든 당일군들이 진지한 사색과 탐구력을 가지고 대책안과 묘술을 찾아내도록 사업능력과 조직적수완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이끌었다. 그리하여 모든 일군들이 당정책적요구에 철저히 근거하여 옳바른 사업방향과 목표, 그 수행방도를 똑똑히 알고 당사업을 주동적으로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였으며 사업과정에서 있을수 있는 편향들과 정황들을 미리 알고 제때에 능숙하게 처리해나가면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하였다.

우리 당이 당사업방법론을 세워가지고 일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현명하게 령도한것은 주체의 당사업방법을 구현하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였다. 당사업방법론에 관한 사상이 제시됨으로써 당사업방법은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구체적방법론까지 담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으로 더욱 심화발전되게 되였다. 또한 당사업에서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며 일군들의 사업 수준과 능력, 역할이 비상히 높아지게 되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이 빈틈없이 철저히 관철될수 있게 되였다.

참으로 주체의 당사업방법을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인 문제들과 구체적인 내용들을 밝히고 그것을 성과적으로 관철하도록 이끌어준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는 우리 당의 위력과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이게 한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주체의 당사업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전당과 온 사회에는 당의 령도가 더욱 확고히 보장되고 당사업, 당활동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주체의 당사업방법이 확립된 결과 당사업은 철저히 산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되였다. 지난 기간 오래동안 내려오면서 당사업발전을 저애하던 낡은 재래식사업방법이 철저히 극복되고 당안에는 혁명적사업방법이 확립되였다.

주체의 당사업방법의 요구대로 당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대중과 한뎡어리가 되여 사업하고 생활하는 과정을 통하여 상하가 합심하고 더욱 기맥이 통하게 되였으며 일군들의 지도수준이 높아지게 되였다.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 형식주의 등 온갖 낡은 사업방법이 없어지고 소탈하고 겸손한 인민적사업작풍이 높이 발양되게 되였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업과 생활을 세심히 보살피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정신이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주체의 당사업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과정을 통하여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이 더욱 높아지게 되였으며 당의 통일과 단결이 새로운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 귀중한 업적이며 우리 당이 주체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는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렇듯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주체의 당사업방법이 확립됨으로써 당의 면모가 새로와지고 당사업기풍이 근본적으로 일신되였다. 전당에 혁명적기백이 약동하고 당의 모든 사업이

참신하고 생기발랄하게 진행되고있는것이 오늘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면모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주체의 당사업방법을 심화발전시켜온 우리 당의 빛나는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당사업과 당활동의 모든 부문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령도사를 깊이 연구체득하여 수령님께서 창조하시고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덜지도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따라배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사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지하혁명투쟁과 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신 때로부터 시작하여 해방후 당과 국가, 군대의 수위에 서시여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사업을 조직령도하신 반세기가 넘는 오랜 력사적 기간에 독창적으로 창조하시고 몸소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신 혁명적사업방법의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져있다.

조선혁명이 승리적으로 전진하여 오늘에 이르는 전로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령도방법이 철저히 구현되여 빛나는 결실을 가져온 자랑찬 로정이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우리 당의 령도방법의 위력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과시된 영광스러운 행로이다.

우리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령도사와 그를 심화발전시킨 우리 당의 빛나는 령도의 력사를 깊이있게 연구하고 그대로 따라배움으로써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령도예술을 지닌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에 대한 혁명적관점을 가지는것은 당사업방법을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혁명적군중관점은 군중에게 철저히 복무하며 군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혁명적관점이다. 오늘 우리 당은 일군들속에서 혁명적군중관점을 더욱 철저히 세움으로써 광범한 대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세울것을 요구하고있다.

인민대중에 대한 관점과 태도는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우리는 일군들속에 아직 남아있는 군중에 대한 그릇된 관점과 태도를 없애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적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앞에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끝까지 완성해야 할 무겁고도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어렵고도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당의 전투력을 더욱 높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당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갈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신을 가져와야 할것이다.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의무

양 형 섭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로동계급의 참다운 혁명적당을 가지고 혁명하는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가장 높은 긍지와 영예이며 크나큰 자랑이다.

조선로동당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건설되고 활동하는 주체형의 당이며 주체위업을 승리에로 이끄는 조선혁명의 위대한 향도적력량이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적역할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혁명은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뚫고 오직 승리의 한길로만 줄달음쳐올수 있었다.

진정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위대한 향도자이다. 우리 당을 떠나서는 조선혁명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그 장래운명은 당을 어떻게 강화발전시키는가 하는데 전적으로 달려있다.

당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그 향도의 기치밑에 새 세계, 새생활을 창조해나가는 혁명가들의 가장 높은 영예이며 숭고한 의무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우리 인민을 오직 승리와 영광에로 이끌어주는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킴으로써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야 한다. 바로 여기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당과 수령의 혁명전사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기 위한 참된 길이 있다.

* *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은 당건설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문제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스승으로 높이 모시고 받들어나가는 혁명적당으로, **김일성**동지의 사상의지대로 전당이 숨쉬고 움직이는 전투적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 당 건설에서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문제이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34페지)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우리 당을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대를 이어 철저히 실현해나가는 당으로 건설하는 성스러운 위업이다.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은 무엇보다도 당의 혁명적본성을 변함없이 고수하기 위하여 나서는 당건설의 근본문제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을 고수하는 문제는 당의 존망과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창건목적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데 있으며 당의 존재도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것이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당은 그 본성에 있어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참모부이다. 당은 자기의 본성을 고수해나가야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으로서 참다운 면모를 갖출수 있으며 자기 존재를 유지해나갈수 있다. 만일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본성을 잃게 되면 변질되게 되며 마침내는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무기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없게 된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주체형의 당이다. 이것은 우리 당의 혁명적본성이며 근본특징이다.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것은 당의 이 본성을 고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으로서 당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된다.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은 또한 수령의 당건설위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나서는 당건설의 근본문제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에 의하여 창건되고 령도되는 수령의 당이다. 그렇다고 하여 로동계급의 당이 창건되자마자 수령의 당으로서 완전한 면모를 다 갖추게 되는것은 아니다. 로동계급의 당이 수령의 당으로서의 참다운 면모를 완전히 갖추도록 하자면 수령을 영원히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시며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전당과 온 사회에 철저히 실현하는 당으로 건설해나가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의 강화발전과정은 전당이 오직 수령의 사상과 의지대로 숨쉬고 움직이는 완전무결한 수령의 당으로 건설하는 과정이며 이것은 당이 창건된 다음 수령의 당건설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당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이다.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은 당발전의 이러한 합법칙적요구로부터 나서는 성스러운 당건설위업이다.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이 대를 이어 계승완성되는 력사적위업인것과 같이 그 향도자인 수령에 의하여 창건된 당을 명실공히 수령의 당으로 건설하는 당건설위업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기 위한 력사적투쟁을 통하여 실현되게 된다.

오늘 우리 당은 주체의 위업을 빛나게 이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수령의 당건설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높은 단계에서 진행해나가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 발전의 합법칙적로정과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것을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 당건설의 근본문제로 제시하시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계신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한다는것은 모든 당원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며 당건설, 당활동을 철저히 수령의 사상과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진행해나간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당을 그 구성에 있어서나 활동방식에 있어서 완전무결한 주체형의 당으로 만드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당의 건설력사는 당을 주체사상화하여온 과정이며 전당의 주체사상화는 당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우리 당의 력사적투쟁의 계속이며 높은 단계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전당 주체사상화강령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뚜렷한 방향과 방도가 밝혀지게 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그것을 당과 혁명 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당안에 주체사상만이 꽉 들어차게 하고 그에 기초하여 당의 통일과 단결을 공산주의운동력사상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통일단결로 되게 하였다. 또한 우리 당은 당안에 새로운 혁명적사업체계와 당생활체계를 세우고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당의 면모를 더욱 새롭게 일신하고 당사업기풍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하였다.

실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이며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당은 전당이 하나와 같이 주체사상으로 숨쉬고 움직이는 사상의지적통일체로, 어떤 풍파속에서도 당과 수령을 받들고 따르는 순결한 충성의 대오로 강화발전되였다. 수령의 당건설위업과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가 튼튼히 다져지고 령도와 단결의 중심이 확고히 이어지게 되였다. 이것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 건설에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당건설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더없는 영예이며 가장 숭고한 의무이다.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변함없이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시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본분이며 의리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은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수령에게 충성다하는것을 자기의 마땅한 혁명적본분으로 여깁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받드는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혁명적본분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한데로부터 수령님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게 되였다. 그들은 실지체험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나아갈 때 어떤 난관도 뚫고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혁명적신념으로 굳게 간직하게 되였다. 하기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우리 혁명의 시원이 열린 그때로부터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조선혁명의 위대한 령도자로, 향도성으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받들었으며 바로 그렇게 하는것을 혁명가의 본분으로 여기고 수령님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순간을 살아도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안고 살며 싸웠다. 위대한 수령님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수령님께 충성다하는것은 영원히 불변하는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확고부동한 혁명적신념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는것은 또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의리이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누구나 다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밑에서 자라난 혁명전사들이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의하여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영광스럽고 보람찬 혁명의 길에 나서게 되였으며 혁명투사로 자라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살며 혁명하는것은 이 세상에 더없는 영예이며 행복이다.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주체형의 참된 혁명가로 키워주신 경애하는 수령님을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받들어나가는것은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마땅한 도리로 된다.

이렇듯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령도자로 높이 모시고 받드는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혁명적 본분이며 의리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영원히 우리 당을 주체형의 당,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

으로, 스승으로 높이 모시고 받들어나가는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보다 더 숭고한 의무는 없는것이다.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당의 령도밑에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하여야 할 시대적사명을 다하기 위한 요구이다.

수령에 의하여 개척된 혁명위업은 그것을 계승해나가는 령도자에 의하여 완성되게 된다. 여기에서 당은 수령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력사적투쟁의 전기간에 언제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은 공산주의운동을 개척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데 있어서 수령의 가장 위력한 정치적무기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수령의 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가는데서도 그것을 이어나가는 령도자의 가장 힘있는 정치적무기는 당이다. 당과 같은 힘있는 무기가 없이는 수령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고수하고 계승완성하는 문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80년대에 살며 투쟁하는 우리 공산주의자들앞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계승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주체의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여야 할 무거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오늘의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이다. 영원히 우리 당을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야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는 힘있는 무기, 우리 혁명의 위대한 향도적력량인 당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주체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다. 참으로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혁명전사들의 지상의 과업이며 오늘의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자기의 시대적사명을 다하기 위한 숭고한 의무로 된다.

《ㅌ.ㄷ》에서 뿌리내려 반세기가 넘는 영광의 투쟁로정을 걸어온 우리 당은 오늘 자기의 건설력사에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있다. 수령의 당 건설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기 위한 력사적투쟁이 높은 단계에서 심화되고있는 오늘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숭고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자기의 숭고한 의무를 다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는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구현한 주체의 혁명위업과 당건설위업 수행을 위한 지도적지침이 집대성되여 있으며 특히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방향과 목표, 그 실현을 위한 전략과 투쟁방침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의 로정은 철두철미 우리 당을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건설하고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여 활동하는 위대한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일관되여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는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기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의 불멸의 기치이며 승리의 근본원천이다.

주체의 당건설에 관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견결히 옹호관철하는것은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우리 당 건설의 총적목표와 전략적방침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리론을 신념화하고 그것을 옹호관철하여야 당대렬을 주

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전투부대로 튼튼히 꾸려나가는 사업도, 당건설과 당활동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진행하는 사업도 다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면모를 완성해나갈수 있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은 우리 당이 제시한 전당의 주체사상화에 관한 사상리론을 비롯한 주체의 당건설리론을 전면적으로 연구체득하고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숭고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당이 존재하는 전과정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사업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당의 본성을 고수하고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우리 당이 창건되고 강화발전되여온 전과정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끊임없이 심화되여온 과정이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울데 대한 요구를 제기하고 이 사업을 한층 심화시켰다. 오늘 우리 당은 전당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오직 당과 수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충성의 대오로 강화발전되였다. 이것은 당건설을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오랜 기간의 투쟁에서 이룩된 가장 고귀한 전취물이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 문제를 사업과 생활의 중심에 놓고 모든것을 거기로부터 시작하고 그것으로 결속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자신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하는데서나 당의 통일단결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는데서나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강화하는데서나 할것없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 끊임없이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 형식주의를 철저히 없애야 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형식주의적으로 하게 되면 당을 공고발전시키고 혁명을 전진시키는데서 커다란 손실을 끼치게 된다. 우리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 형식주의를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이 사업을 착실하고 실속있게 해나가야 한다.

당의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더욱 강화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반석같은 당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였다. 우리 당이 이룩한 통일단결의 위대성은 그것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에 기초한 통일단결이며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한 통일단결이라는데 있다. 우리 당의 이 위대한 통일단결을 강화하는것은 당이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수령의 당으로서의 참다운 면모를 갖추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수령을 중심으로 하고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여 조직적,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뭉친 우리 당의 위대한 통일단결을 현세대뿐아니라 후대들도 변함없이 고수하고 더욱 강화해나가야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당으로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다.

간부들과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해놓으신 우리 당의 통일단결이 당

의 강화발전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가장 귀중한것이라는것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기고 당의 통일단결을 조금이라도 해치려는 불순한 경향이나 요소에 대해서도 제때에 짓부셔버려야 한다. 간부들과 당원들은 또한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당과 혁명 앞에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고있는 력사적조건에 맞게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당 대렬을 주체사상만이 꽉 들어찬 충성의 대오로,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한 강철의 대오로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숭고한 의무를 다하는데서 조선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또한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튼튼히 준비하는 것이다.

당은 당원들이 모인 정치적조직이다. 영원히 우리 당을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려면 당을 이루고있는 모든 당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시켜야 한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는 주체사상을 세계관으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공산주의자, 주체위업수행에 몸바쳐싸우는 견결한 혁명투사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당과 수령께 충실하여야 한다는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반세기가 넘는 시련에 찬 투쟁의 길을 걸으면서 심장깊이 새득한 변함없는 신조이며 당과 수령의 손길아래에서 자라난 우리 당원들의 철석같은 신념이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은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깊이 간직함으로써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참된 혁명전사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는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실성을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는 령도자를 받들어나가는데서도 변함없이 계승되여야 한다.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실성만이 수령에 대한 참다운 충실성이다.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실성을 깊이 간직하여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될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정세가 조성되고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추호도 흔들리지 말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이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변함없이 견결히 옹호보위하고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나가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할 때 우리 당은 영원히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정수부대로 강화발전될수 있으며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서의 면모를 완전무결하게 갖추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충성으로 받들고 영원히 우리 당을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싸워나가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경제건설에서 당이 이룩한 업적을 빛내여나가는것은 우리 일군들의 책임적인 사업

채 희 정

오늘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장엄한 력사적진군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고있다.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자연개조와 사회개조, 인간개조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고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한 력사적진군길에서 우리 당은 언제나 근로인민대중을 굳게 결속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조국과 인민, 력사와 인류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다.

우리 당이 이룩한 업적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강화하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불패의것으로 다져놓은것이다.

주체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오늘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것은 우리 일군들의 숭고한 의무로 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 *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자랑찬 승리에로 이끌어 주체혁명위업을 위한 투쟁의 년대기우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위대한 당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주권을 쥔 로동계급의 당의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단행본, 22~23페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는 경제건설을 잘하는것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경제건설을 잘하여야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다.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향도적력량인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당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왔다. 특히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경제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의 일대 앙양기를 열어놓았다.

경제건설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업적은 무엇보다도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경제건설사상과 리론, 전략전술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이끌어나갈수 있는 지도적지침을 마련한것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사람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것과 함께 경제와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보람찬 투쟁이다. 그것은 주체사상화과정의 새로운 높은 단계로서 그 심도와 폭에 있어서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거창한 투쟁이며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나가는 위대한 혁명사업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은 경제건설분야에 매우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있다. 물질생활령역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성이 완전히 보장되는 풍요한 사회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가야 성과적으로 실현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투쟁은 정확한 사상과 리론, 전략전술에 기초할 때에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옳바른 경제건설 사상과 리론, 전략전술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어렵고 복잡한 경제건설투쟁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없으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는 력사적위업을 원만히 수행해나갈수 없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선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에서 사회주의경제를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경제건설 사상과 리론, 전략전술을 밝힘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앞당겨나가기 위한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

우리 당은 경제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의 합법칙성과 그것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요구들을 깊이 통찰한데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의도를 실현하는데 모를 박고 모든 경제사업을 진행할데 대한 사상,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의 본질과 원칙에 관한 리론,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으로서의 속도전에 관한 방침을 비롯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경제건설사상과 리론, 전략전술들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주체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리론은 새로운 사상과 명제들로 더욱 발전풍부화되게 되였으며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정확한 길을 따라 성과적으로 추진되게 되였다. 우리 당은 또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에서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지방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할데 대한 사상,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할데 대한 사상,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고 경제적공간들을 옳게 리용할데 대한 리론,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에 관한 리론 등 주체적인 경제관리 사상과 리론들을 밝힘으로써 사회주의사회의 본성과 과도적성격에 맞게 인민경제를 더욱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생산과 건설을 빠른 속도로 다그쳐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놓았다.

우리 당에 의하여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는 옳바른 경제건설 사상과 리론, 전략전술이 밝혀짐으로써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보다 높은 단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었으며 앞날에 대한 희망과 승리에 대한 확신에 넘쳐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전진할수 있었다.

경제건설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업적은 또한 인민대중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비상히 강화한것이다.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경제건설 사상과 리론은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만 철저히 관철될수 있으며 빛나는 결실을 가져오게 된다. 옳바른 경제건설 사상과 리론을 제시한 다음 광범한 인민대중을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적극 조직동원하여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실천투쟁에서 당의 구상과 의도를 빛나게 구현할수 있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혁신과 비약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온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행로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로 찬란히 빛나고있다.

우리 당은 크나큰 담력과 혁명적전개력을 지니고 언제나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 근로자들을 위훈과 혁신에로 불러일으켰으며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련이어 제기되여도 주선을 틀어쥐고 섬멸전을 들이대여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놓음으로써 전반적경제를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었다.

우리 당은 조성된 정세와 현실발전의 요구를 제때에 반영하여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기세로 《80년대속도》를 창조하자!》 등 대중의 심장을 틀어잡는 전투적구호들을 제시하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대중운동을 발기하여 광범한 생산자대중을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투쟁에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참으로 위대한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였다.

사회주의건설의 첫시기부터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창조된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는 경제의 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진 조건에서도 확고히 유지되여왔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는 그 어떤 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경제가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 천리마의 나라로 그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면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을뿐아니라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이미 있던 공장, 기업소들이 새로운 기술에 토대하여 개건확장되고 현대적설비를 갖춘 중공업 및 경공업 공장들이 수많이 일떠섰다. 특히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금속공업과 화학공업, 전재공업을 비롯한 중공업부문들에서 산업텔레비존화와 원격조종에 의한 생산공정의 자동화가 적극 추진되고 은률광산의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과 검덕광업종합기업소 제3선광장, 남포갑문건설과 같은 거창한 자연개조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나라의 경제토대는 한층 강화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된 이러한 자랑찬 성과들로 하여 오늘 우리 나라는 위력한 경제토대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온 누리에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릴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튼튼한 경제적밑천에 의거하여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는 성스러운 투쟁을 보다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실로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 공산주의물질적요새를 점령하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해나가는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였다.

경제건설에서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빛내이는것은 우리 일군들의 책임적인 사업이다.

우리 당이 경제사업에서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은 그 위대성과 불패의 생활력으로 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승리를 이룩하고 주체혁명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귀중한 재부로 된다. 경제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서의 성과는 구경은 경제건설에서 당이 이룩한 업적을 어떻게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가 하는데 따라 크게 좌우된다. 우리 경제일군들에게 있어서 당이 이룩한 업적을 빛내여나가는것보다 더 중요하고 책임적인 사업은 없다.

경제건설에서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빛내여나가야 무엇보다도 당의 권위를 높여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제기된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다. 당의 령도가 없이는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이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없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2페지)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이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며 전당과 전체 인민을 그 관철에로 현명하게 이끌어나간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당의 령도를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 당에 의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한 옳바른 방향과 방도가 밝혀지고 광범한 생산자대중의 투쟁이 조직화되며 사회주의경제제도의 특성에 맞게 경제를 옳바로 관리운영해나갈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이 마련되게 된다.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치기 위한 근본담보로 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높은 권위를 지닌 당만이 철저히 실현할수 있다. 당의 권위가 옳게 보장되여야 근로인민대중이 당을 진심으로 받들고 당의 경제건설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당의 유일적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도록 할수 있다.

당의 권위를 보장하는 문제는 자연개조, 사회개조, 인간개조를 위한 투쟁에서 당이 이룩한 업적을 빛내여나갈 때 원만히 해결되게 된다. 사회개조, 인간개조 사업과 함께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자연개조사업에서 당이 이룩한 업적을 빛내여나가야 근로자들은 당의 위대성을 기슴깊이 간직하고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게 된다. 현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며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에 커다란 공헌을 한 당일수록 인민대중의 두터운 존경과 신뢰를 받으며 더욱 높은 권위를 지니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은 독창적인 사상리론활동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옴으로써 우리 인민들속에서 높은 령도적권위를 지니고있다. 사회개조, 인간개조 령역에서뿐아니라 자연개조사업에서도 커다란 업적을 이룩한것은 우리 당의 위대성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되며 바로 이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영광스러운 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길에서는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안고 억세게 전진하고있는것이다. 경제건설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빛내여나가는 여기에 당의 권위를 확고히 보장하며 당의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게 하는 튼튼한 담보가 있다.

경제사업에서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빛내여나가야 또한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경제건설분야에서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나갈수 있다.

경제사업에서 당이 이룩한 업적을 빛내여나가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비약과 혁신을 창조해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요인으로 된다.

경제가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객관적법칙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이 제도의 본성과 우월성으로 하여 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는 온갖 조건과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에 맞게 생산과 건설에서 계속 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당이 제시하는 경제건설 로선과 정책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

고 당의 령도밑에 이룩된 경제적성과들을 더욱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당의 경제건설 로선과 정책은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와 그 실현을 위한 뚜렷한 방향과 방도를 정확히 구현하고있으며 당이 이룩해놓은 경제적성과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물질적전제들을 마련하여주고있다.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당이 제시하는 경제건설 로선과 정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힘있게 관철해나가며 당의 령도밑에 마련된 경제적밑천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된다.

경제적앙양을 일으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이 근본문제는 경제건설에서 당이 이룩한 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경제사업에서 이룩한 당의 업적에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경제건설 사상과 리론, 전략전술들이 집대성되여있으며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쌓아나가는 과정에 마련된 귀중한 경험들과 경제적성과들이 반영되여있다. 경제사업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은 그것이 담고있는 사상리론과 전략전술적방침의 과학성과 혁명성, 위대성으로 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고 주체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투쟁의 고귀한 재부로 된다.

경제사업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빛내여나갈 때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어떠한 편향과 우여곡절도 없이 승리적으로 밀고나갈수 있으며 튼튼히 마련된 경제적밑천에 의거하여 생산과 건설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그리하여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인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공산주의에로의 전진과정을 적극 다그쳐나갈수 있다.

참으로 경제사업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승리를 이룩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책임적인 사업으로 된다.

오늘 일군들앞에는 경제사업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빛내이는 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할 영예로운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모든 일군들은 경제사업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업적을 빛내이는것이 혁명전사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로 된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이 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경제사업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하여서는 당에 대한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는것이 선차적인 요구로 제기된다.

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닌 사람만이 당이 이룩한 업적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빛내이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할수 있다. 당에 대한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는것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마땅한 의무이며 경제건설에서 당이 이룩한 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모든 경제일군들은 오직 한마음 우리 당을 높이 받들고 당이 이끄는 혁명의 길에서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뜨거운 충성심을 가슴깊이 지녀야 한다.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우리 당이 경제건설에서 이룩한 업적을 변함없이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 충실한 일군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당의 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경제사업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당의 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은 당이 제시하는 사상과 리론을 옹호고수하고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높이 발양하기 위한 투쟁이다. 당의 사상과

리론을 신념화, 신조화하고 그 혁명성과 과학성, 진리성을 깊이 인식한 일군만이 비상한 각오와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당의 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경제일군들은 우리 당이 밝힌 경제건설사상과 리론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 연구학습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그것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모든 활동을 벌려나감으로써 경제사업에서 당이 이룩한 업적이 끊임없이 빛을 뿌리게 하여야 한다.

경제사업에서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빛내여나가는데서 현시기 일군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밀고나가면서 특히 기간공업과 철도운수의 발전에 큰 힘을 넣는것이다.

경제사업에서 당이 이룩한 업적이 얼마나 빛을 내는가 하는것은 경제발전속도와 나라의 경제적위력,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경제건설의 진군속도를 높이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풀어야 할 근본문제의 하나는 기간공업과 철도운수를 빨리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토대의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이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우리 당의 정책적요구대로 채취공업, 금속공업, 전력공업 부문과 철도운수부문에 힘을 집중함으로써 인민경제의 선행공정을 힘있게 열어나가야 하며 전반적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여야 한다. 경공업혁명을 힘있게 벌려 인민소비품의 량과 가지수를 늘이고 그 질을 높이며 과학기술발전을 다그쳐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실천에서 제기되는 긴절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야 한다. 특히 경제일군들이 련합기업소를 기본단위로 하는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경제관리체계의 요구에 맞게 모든 생산 및 경영 활동을 잘 짜고들어 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경제의 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지고 생산 부문들과 단위들사이의 련계가 복잡해진 조건에서도 기업소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여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을 일으킬수 있다.

경제사업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빛내이는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위대한 비약과 혁신을 창조하며 주체혁명위업을 적극 다그쳐나가기 위한 영광스러운 사업이다.

모든 일군들은 경제사업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끊임없이 빛내여나감으로써 당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당의 구상과 의도대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켜 나라의 위력을 튼튼히 다지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더욱 높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힘있게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한 혁명적리론

최 익 규

지난 1970년대에 대전성기를 이룩한 우리의 문학예술은 오늘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있다.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혁명적앙양이 일어나고있으며 주체적문학예술의 면모를 완전히 갖춘 우리 문학예술은 혁명적문학예술의 본보기로 찬연히 빛나고있다.

문학예술분야에서 이룩된 위대한 성과는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 사상과 리론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며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에 대한 힘있는 시위로 된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주체적문예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자주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해왔으며 거기에서 나선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왔다. 이 과정에 우리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 건설과 창조에 관한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사상리론을 제시하고 그 구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함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고 이 땅우에 주체적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펼쳐놓는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다.

주체의 문학예술을 건설하는 과정에 우리 당이 밝힌 독창적인 문예 사상과 리론은 자주성의 시대, 혁명하는 우리 시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앞에 제기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심오하고도 전면적인 해답을 주는 혁명적사상리론이다.

혁명리론의 가치와 의의는 실천이 제기하는 문제에 얼마나 깊이있고 폭넓은 해답을 주는가에 따라 규정된다.

주체적문예 사상과 리론은 문학예술 건설과 창조에서 나서는 어느 개별적인 부문이나 문제에 해답을 준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발전방향과 그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 원칙과 방도들을 명시하고 문학을 비롯하여 영화, 연극, 가극, 음악, 무용, 교예 등 문학예술의 모든 형태들의 창작원칙과 형상방도들을 심오하게 밝히며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과 공연 활동에서 지켜야 할 규범과 준칙들, 문학예술에 대한 지도원칙들을 전면적으로 천명한 백과전서적인 불멸의 총서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 사상과 리론이 로동계급의 혁명적문예 리론발전에 거대한 기여를 한 탁월한 공적이 있는것이다.

주체적문예 사상과 리론의 본질적특징은 그것이 철두철미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의 심원한 철학적원리와 사회력사원리,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에 기초하고있으며 주체사상을 문학예술실천에 구현해나가는 과정에 창조되고 심화발전되였으며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뚜렷이 검증된 사상리론이라는데 있다. 실로 주체적문예 사상과 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위대한 강령이며

불멸의 기치이다.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 사상과 리론은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우리 시대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어떤 방향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건설하는가 하는것을 옳바르게 밝히는것은 그것을 성과적으로 발전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 근본문제로서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중대한 과업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 관한 사상을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새롭게 밝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시대는 위대한 주체시대이다. 주체시대는 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새시대이다.

…

이 새로운 력사적시대를 반영하는 문학예술은 응당 주체의 문학예술로 되여야 한다. 주체의 문학예술은 새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공산주의적문학예술이다.》(《영화예술론》, 1폐지)

우리 당은 주체의 문학예술건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총적방향으로 규정하고 그 근본방도로서 문학예술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사상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 사상은 우리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 공산주의문학예술의 본성과 그 발전의 합법칙적과정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한것이다.

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주체시대의 문학예술은 응당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주체의 문학예술로 되여야 한다.

주체의 문학예술은 인민대중을 가장 힘있고 아름다우며 고상한 존재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산주의인간학이며 주체의 원칙,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이 철저히 구현되고 사회주의적내용과 민족적형식, 사상성과 예술성이 완벽하게 결합된 가장 높은 단계의 참다운 공산주의적문학예술이다. 따라서 우리 시대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새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주체의 문학예술을 건설하여야 한다. 여기에 바로 주체의 문학예술건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총적방향으로 되는 근거가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건설하는 과정이란 본질에 있어서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을 주체의 요구에 맞게, 우리 시대 사람들의 지향에 맞게 개조하며 새롭게 창조해나가는 과정이다.

로동계급이 주체의 문학예술을 건설하면서 착취계급의 비위와 정서에 맞게 만들어진 낡은 문학예술가운데서 가져올것이란 하나도 없다. 또한 오랜 력사적과정에 이룩된 문학예술유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을수는 없는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문학예술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문학예술혁명의 대상과 본질적내용, 원칙과 방도를 옳바로 밝히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당은 문학예술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내용과 형식,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의 모든 령역에서 낡은것을 뒤집어엎고 새로운 주체의 문학예술을 건설하기 위한 사상문화분야에서의 심각한 계급투쟁이라는것을 밝혔다.

우리 당이 제시한 문학예술혁명에 관한 사상의 본질과 독창성은 그것이 문학예술의 모든 령역을 포괄하여 가장 철저하고도 전면적인 혁명을 일으킬것을 요구하는 사상이라는데 있다.

우리 당은 문학예술혁명의 본질을 밝힌데 기초하여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

서 주체의 원칙,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영화예술에 화력을 집중하여 돌파구를 열고 그 성과를 문학예술전반에 일반화하는것을 문학예술혁명에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근본원칙으로 규정하고 혁명적문예전통의 계승, 속도전의 전개, 작가, 예술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문학예술의 대중화를 문학예술혁명의 기본방도로 제시하였다.

문학예술혁명의 근본원칙이 밝혀짐으로써 문학예술 건설과 창조에서 나서는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옳바로 풀어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문학예술을 우리 인민의 민족적 정서와 기호, 생활감정에 맞게,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이와 함께 문학예술 건설과 창조에서 수령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구현하고 로동계급적선을 똑바로 세울수 있게 되였으며 온갖 반동적인 문예사상조류의 침습을 미리 막고 문학예술을 인민의 사랑을 받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로 되게 할수 있었다. 또한 이 근본원칙이 밝혀짐으로써 문학예술혁명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기본대상을 옳게 설정하고 하나의 전형을 창조하여 그 성과를 문학예술전반에 일반화하면서 문학예술혁명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문학예술혁명의 기본방도에서 중요한 것은 유산과 전통의 계선을 똑바로 긋고 수령에 의하여 창작되고 지도된 고전적명작들을 옮기는 방법으로 혁명적문예전통을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사상이다.

이 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이 자기 혈통의 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하고 수령에 의하여 이룩된 혁명적 문학예술의 억센 력사적뿌리와 귀중한 혁명적재부들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하게 하며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본보기로 하여 문학예술전반을 주체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옳바른 지침이다.

우리 당은 혁명적문예전통계승에 관한 사상을 구현하여 그 어떤 이색적인 사상요소도 우리 문학예술안에 끼여들지 못하게 하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와 가극, 소설, 연극 등 여러가지 문학예술형태들에 옮기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이 과정에 우리 식의 혁명적영화들과 《피바다》식 혁명가극, 《성황당》식 혁명연극을 비롯한 기념비적작품들이 수많이 창조되였다. 이것은 문학예술혁명을 수행하는 기간에 우리 당이 이룩한 위대한 성과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발전에 이바지한 빛나는 업적이다.

우리 당은 문학예술창작의 기본원칙이며 전투형식인 속도전에 관한 사상을 제시하고 그것을 문학예술혁명의 기본방도로 틀어쥐고나가도록 함으로써 영화혁명, 가극혁명, 연극혁명과 같은 거창한 사업을 매우 짧은 기간에 빛나게 수행하여 창작사업에서 커다란 비약과 전진을 이룩하였다.

창작과 창조 과정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으로 되게 하며 온 나라를 예술화할데 대한 방침은 작가, 예술인들을 혁명화하며 문학예술을 대중화할데 대한 사상을 더욱 심화발전시킨것으로서 작가, 예술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가장 철저히 실현할수 있게 하며 공산주의문학예술건설위업을 앞당겨실현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이다.

우리 당이 주체의 문학예술건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총적 방향으로 규정하고 그 근본방도로서 문학예술혁명에 관한 사상을 새롭게 제시한것은 혁명적문예리론발전에서와 창작실천에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이 사상이 밝혀지게 됨으로써 우리 시대 로동계급은 뚜렷한 목표와 확고한 전망, 옳바른 전략전술을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위업을 사소한 편향도 없이 성과적으로 수행해나

갈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 사상과 리론은 또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문학예술의 본성을 새롭게 밝히고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는 혁명적문학예술창작리론을 더욱 발전완성시킴으로써 혁명적문예작품창작의 옳바른 방도를 제시하고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문학예술의 고유한 본성을 옳게 인식하고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여야 한다. 문학예술의 본성과 창작원리를 과학적으로 밝히는것은 새형의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조하는 출발점으로, 그 성과를 담보하는 결정적조건으로 된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문학은 인간학이다. 산 인간을 그리며 인간에게 복무한다는데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본성이 있다.

우리 당은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본성을 밝힌데 기초하여 공산주의인간학에 관한 리론을 심오하게 천명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가 요구하는 인간학은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새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을 창조하여 온 사회를 주체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이다.》(우와 같은 문헌, 5페지)

이 고전적명제에는 공산주의인간학의 본질과 근본사명이 밝혀져있다.

공산주의인간학이 인간문제를 다루면서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풀어야 하며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그리면서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전형을 내세워야 한다는 우리 당의 독창적인 사상은 공산주의인간학이 다루어야 할 근본문제와 내세워야 할 전형문제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고있다.

우리 당은 시대와 문학예술의 호상관계,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와 인류문학예술발전의 력사적경험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문학의 본성과 공산주의인간학의 본질과 특성, 그 기본요구와 실현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힘으로써 로동계급의 본성에 맞는 혁명적문학예술창조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공산주의인간학에 대한 전일적인 사상과 리론을 확립하였다.

공산주의인간학에 관한 사상리론의 창시와 완성,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한 우리 당의 빛나는 업적으로 된다.

공산주의인간학으로서의 주체의 문학예술을 건설하고 창조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로동계급의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문제이다.

우리 당은 일찌기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본성적요구와 근본사명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로동계급의 수령형상창조를 초미의 문제로 제기하고 수령형상창조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 원칙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혔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령도되는 문학예술이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구현하고 수령의 혁명위업 수행에 복무하는 문학예술이다. 따라서 수령의 혁명력사와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근본사명으로 되며 바로 여기에 선행한 문학예술과 다른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본질적특성이 있는것이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위대한 풍모를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형상하는 문학예술작품창작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이 성스러운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왔다. 이 과정에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빛나게 형상한 기념비적작품들을 수많이 창조하게 함으로써 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였다. 실로 로동계급의 수령형상창조에 관한 사상의 창시와 수령형상창조에서 이룩한 우리 당의 고귀한 업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발전에 이바지한 빛나는 공헌으로 된다.

주체의 창작리론은 공산주의인간학의 본성을 밝힌데 기초하여 작품의 종자를 비롯하여 성격창조, 생활묘사, 구성, 갈등, 양상 등 혁명적작품창작에서 나서는 기본 원리와 원칙, 형상 방법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완성된 사상리론이다.

주체의 창작리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작품의 종자에 관한 사상이다.

작품을 하나의 산 유기체로 본다면 거기에 차넘치는 생명의 핵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나선다.

작품을 유기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서는 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관통시키는 기본요인을 똑바로 아는것이 필요하다.

우리 당은 문학예술작품창작의 본성과 작품의 생명력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작품의 내용을 규정하고 형상을 기초지으며 그 생명을 담보하는 핵, 그것이 바로 작품에 심어진 종자라는것을 발견하였다.

종자는 작품의 생명을 담보하는 사상적핵으로서 그 가치를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이며 작가를 창작에로 추동하는 힘이며 작품창작에서 속도전을 벌릴수 있게 하는 전제로 된다.

작품의 종자에 관한 리론이 창시됨으로써 작품에 차넘치는 생명의 핵은 무엇이며 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통일시키고 관통시켜나가는 기본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인간학의 기본문제가 비로소 해명되게 되였으며 작품의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을 보장하고 속도전을 벌릴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더우기 작품의 종자에 관한 리론이 창시됨으로써 창작가들이 가장 의의있는 인간문제, 자주적인 인간문제를 똑바로 잡아쥐고 공산주의인간학의 근본사명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게 되였다.

종자에 관한 리론이 가지는 커다란 의의는 그것이 혁명적문학예술창작의 과학적방법론을 밝힘으로써 작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높은 사상예술성을 가진 작품을 창작하도록 하는 열쇠를 마련하였다는데 있다.

주체적창작리론에는 또한 영화, 가극, 연극, 미술, 음악, 무용, 교예 등 문학예술의 모든 형태들과 종류들의 작품창작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이 다 밝혀져있으며 혁명적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견지하여야 할 자세와 립장 문제에 이르기까지 명확한 해답이 주어져있다.

주체의 창작리론에 의하여 혁명적문예작품의 창작원리와 방법론이 밝혀짐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 건설과 창조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 마련되였으며 그것을 지침으로 하여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참다운 공산주의 문학예술작품, 기념비적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될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 문학예술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된다.

우리 당의 혁명적문예 사상과 리론은 또한 문학예술에 대한 가장 올바른 지도원칙, 지도방법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문학예술에 대한 지도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것은 결코 단순한 실무적문제인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다.

력사적경험은 문학예술에 대한 지도원칙과 방법을 옳바로 세우지 못하고 지도를 똑바로 하지 못할 때에는 문학예술분야에서 형형색색의 이색적인 문예사상조류가 머리를 쳐들게 되고 그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의 길잡이가 되여 사회주의의 사상적보루를 무너뜨리며 구경에는 사회주의제도자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따라서 문학예술에 대한 지도를 옳게 하는것은 문학예술사업의 성과를 보장하는 근본조건으로 될뿐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본질과 사명, 그것이 당사상사업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심오한 파악에 기초하여 문학예술에 대한 당적령도를 철저히 실현할데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령도는 본질에 있어서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문학예술에 대한 정책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이다. 당의 사상과 의도, 로선과 정책은 혁명적문학예술의 성격과 창작방향을 규정하며 창작의 성과를 확고히 담보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문학예술에 대한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고 문학예술사업을 정책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문학예술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중요한것은 3위1체를 보장하는것이다. 우리 당은 일찌기 당, 문화예술부, 문예총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할데 대한 3위1체의 방침을 내놓았다. 3위1체에 관한 방침은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강화하고 문화예술부의 행정조직자적기능과 문예총의 교양자적기능을 높이며 집체적력량을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함으로써 문학예술인대렬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고 창작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게 하는 정확한 방침이다.

문학예술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창작가, 예술인들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이다. 문학예술에 대한 당적지도란 한마디로 말하여 정치사업, 창작가, 예술인들과의 사업이다.

우리 당은 창작가, 예술인들과의 사업에서 언제나 그들을 대담하게 믿고 그들의 창작적개성과 창조적열성을 귀중히 여기며 그들이 왕성한 투지와 정열에 넘쳐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한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더 잘 창작해내도록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을 당적지도의 기본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이 사업을 힘있게 벌려왔다.

문학예술에 대한 당적지도를 옳바로 보장하려면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사업 체계와 방법을 똑바로 세우고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할 때에만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 관한 사상, 혁명적문학예술창작에 관한 리론, 문학예술에 대한 지도원칙으로 구성된 혁명적인 문학예술사상과 리론을 집대성함으로써 주체의 문학예술사상리론을 완성하였다.

실로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 사상과 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총적인 방향과 근본원칙, 혁명적문학예술창작의 원칙과 방도, 문학예술에 대한 지도원칙을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면적으로 심오하게 밝힌 위대한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으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강령적지침이며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이다.

우리 시대의 옳바른 문학예술 건설과 창조의 강령적지침인 주체적문예 사상과 리론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문학예술은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올수 있었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학예술로 찬란히 개화발전할수 있었다.

우리는 앞으로도 당의 주체적문예 사상과 리론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하여 혁명적문예작품창작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주체예술의 화원을 더욱 활짝 꽃피워나갈것이다.

전당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자

우리 당은 오늘 모든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군중속에 깊이 들어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의 이 요구는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 일군들의 지도방법에서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비약과 기적을 창조해나가려는 의도와 확고한 결심을 반영하고있다. 또한 거기에는 모든 일군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사업방법과 령도예술을 깊이 체득함으로써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며 혁명전사로서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나가도록 하려는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다.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는 여기에 당사업을 현실적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해나가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창조적힘을 적극 불러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 *

아래에 내려가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로부터 제기되는 공산주의자들의 사업방법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가르치고있는 바와 같이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결정적요인이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그들자신이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에 가장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며 그로부터 혁명과 건설에 적극 참가하여 자기 손으로 사회의 모든 재부를 만들어내고 사회와 력사를 발전시킨다.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해나가는 인민대중의 지혜와 힘에는 한계가 없다.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사회의 변혁과 진보, 물질적부의 창조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혁명과 건설에서 차지하는 인민대중의 이러한 지위와 역할로부터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은 대중지도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대중이 생활하고 투쟁하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는것을 자기 활동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있다.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는것은 지도와 대중을 옳게 결합시키는 중요한 사업방법으로 된다.

인민대중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수 있는 지혜와 무궁무진한 힘을 가지고있지만 그것은 오직 옳바른 지도를 받을 때에만 높이 발양된다. 인민대중은 정확한 지도에 의하여 비로소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깊이 자각하게 되며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된다.

지도와 대중의 결합문제는 특히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그자체가 고도의 의식적 및 조직적 투쟁이며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는것만큼 옳은 지도가 없이는 승리적으로 진행될수 없다.

인민대중에 대한 지도는 곧 당과 수령의 령도이며 그것은 지도일군들을 통하여 구현된다. 일군들이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들고 그것을 광범한 대중속에서 옳게 구현해나갈 때 당의 로선과 정책이 빛나는 열매를 맺게 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힘있게 추진된다.

일군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당의 의도와 정책을 알려주고 그들을 적극 조직동원하여야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으며 지도와 대중의 결합을 옳게 실현할수 있다.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세기적인 기적과 위훈을 창조할수 있은것은 우리 일군들이 당의 웅대한 설계도를 심장으로 받들고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당의 의도와 정책을 대중자신의것으로 만들고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온것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군중속에 들어가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며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의 기본요구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도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사람과의 사업을 하며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15권, 555페지)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하시면서 몸소 쌓으신 대중지도의 풍부한 경험의 집대성이며 우리 일군들이 따라배우고 철저히 구현하여야 할 공산주의적사업방법의 빛나는 전형이다. 군중속에 들어가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수령님식사업방법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며 그것은 인민대중의 힘을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우리 당의 본성적요구이다.

주체형의 혁명적당인 우리 당은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맺고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해나가는것을 자기 활동의 일관한 원칙으로 삼고있다. 우리 당은 광범한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며 대중의 힘을 동원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다. 군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모든 문제해결에서 대중의 창조적힘에 튼튼히 의거하고있는데 바로 우리 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으며 모든 승리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류례없이 간고하였던 항일혁명투쟁시기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는 혁명적구호를 내놓으시고 언제나 인민들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으시였으며 인민들의 힘에 의거하여 시련을 뚫고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대중령도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나날에 그러하였던것처럼 해방후 새 조국 건설의 거창한 투쟁시기와 전쟁의 준엄한 나날 그리고 모든것이 파괴되였던 전후의 간고한 시기를 거쳐 사회주의건설이 비상히 높은 발전단계에 이른 오늘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인민대중속에 계시면서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군중속에 들어가 대중의 창조적힘을 발동하는 전통적인 사업방법은 오늘 우리 당에 의하여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이 전면적으로 실현되고있는 새로운 환경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되고있다.

우리 당은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워주고 그들이 대중속에서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리며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도록 이끌어주고있다. 그리하여 일군들속에서는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사업기풍이 튼튼히 섰으며 당사업과 행정경제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이 패기있고 활기있게 진행되고있다. 특히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가 전례없이 강화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창조적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대중지도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힘을 적극 동원할데 대한 요구는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고 무거운 혁명과업이 제기될수록 더욱 중요하게 나선다.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은 매우 높은 단계에 올라섰으며 우리앞에는 전진의 발걸음을 더욱 다그쳐야 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당을 강화하고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며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옴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당이 제시한 웅대한 설계도를 실현하는데서 드높은 신심과 포부를 안고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 조직전개함으로써 사회주의조국의 정치, 경제적 위력을 튼튼히 다지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려는 당의 요구와 의도를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한다.

현실적으로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 우리 당이 당사업, 경제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고있는 오늘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의 요구대로 군중속에, 생산자대중이 생활하며 투쟁하는 현실에 더욱 깊이 들어가 대중의 창조적힘을 적극 불러일으켜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은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가자!〉라는 구호밑에 아래에 내려가 지도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일군들은 전당이 군중속으로 들어갈데 대한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아래에 내려가 생산자대중을 영웅적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 혁명적사업방법을 소유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일군들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을 훌륭히 구현하여 대중의 창조적힘을 힘있게 불러일으킴으로써 채취, 금속, 전력공업과 철도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혁신적성과들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나라의 기계공업발전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1만톤프레스를 생산보장한 룡성기계련합기업소 그리고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적앙양이 일어나고있는것은 지도일군들이 당의 의도를 받들고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창조적 지혜와 힘을 불러일으키는 혁명적사업방법의 위력을 그대로 보여준다.

일군들은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힘을 발동하는 혁명적사업방법의 위력을 깊이 체득하고 언제나 생산자대중과 한덩어리가 되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창조해나가야 한다.

일군들이 대중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면서 그들의 투쟁을 힘있게 떠밀어주기 위해서는 아래에 내려가는것을 정상화, 제도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모든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는 사업체계가 서있으며 군중속에 들어가는것이 우리 당 사업방법의 중요한 요구로 되고있다. 일군들이 정상적으로 아래에 내려가야 밑에서 진행되고있는 사업과 실태를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알수 있으며 제때에 실속있게 도와줄수 있다.

일군들이 아래에 정상적으로 늘 내려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모임들을 될수록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문서놀음을 없애는것이 필요하다. 회의는 꼭 해야 할것은 하되 준비를 잘하여 짧은 시간에 실효성있게 해야 한다. 회의나 잡다한 문서놀음이 많으면 일군들이 발목이 매워서 아래에 정상적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맴도는 사무실적사업작풍에 빠질수 있다. 결코 회의나 문서놀음이 많아야 일이 잘되는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대중과 유리되게 되며 사업의 전진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는 경우 로동자, 농민들이 일하는 현장까지 깊이 들어가야 한다.

아래에 내려가기는 해도 늘 만나는 몇몇 일군이나 만나거나 유람식으로

그저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뚝뚝한 소득이 없이 돌아와서는 아래에 내려가나마나 한것이다. 로동자들속에 들어가려면 그들이 땀을 흘리며 일하는 작업장, 다시말하여 공장의 기대옆이나 탄광, 광산의 막장과 용광로옆까지 가야 하며 농민들속에 들어가려면 포전에 가야 한다. 생산현장에서 그들과 같이 일도 하고 한가마밥을 먹으면서 허물없이 어울려야 군중의 마음속까지 알게 되고 새로운 싹도 찾게 된다.

일군들은 아래에 내려가면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아래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아래에 내려가는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바로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자는데 있다.

적과의 투쟁에서나 자연과의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자면 반드시 구체적 정황과 조건을 잘 알아야 한다. 우리의 사회주의건설현실은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과정에는 새롭고 복잡한 문제들이 련이어 제기된다. 따라서 아래의 실정, 구체적 실태를 손금보듯 환히 알고있어야 걸린 고리들을 찾아내여 제때에 풀어줄수 있다.

일군들은 실태를 료해하는데서 삼면거울에 얼굴을 비추어보듯이 정면으로도 보고 측면으로도 보고 뒤면으로도 보는 식으로 여러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업을 깊이 료해할수 없으며 일처리에서 일면성을 면할수 없고 주관주의,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범할수 있다.

일군들은 또한 아래에 내려가 실태를 료해한데 기초하여 사업을 도와주고 걸린 고리를 책임적으로 진지하게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아래에 내려가 군중속에 들어가는것은 결함들을 들추어내여 시비나 하자는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옳게 찾아내여 모든 사업이 잘 풀려나가도록 도와주고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켜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키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군들은 아래에 내려가 대중속에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대중과 함께 걸린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아래의 실태를 료해만 하고 책임적으로 도와주지 않거나 생산자대중으로부터 여러가지 의견을 받는데만 그치고 그것을 풀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아래에 내려가는 아무런 의의도 없다. 아래에 내려가 사업을 도와주지 않고 절실한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는 주지 않으면서 받지 않아도 될 통계자료나 요구하고 사람들을 들볶이게나 한다면 대중은 그러한 일군들이 찾아오는것을 달가와하지 않을것이다.

일군들은 아래에 내려가면 사무실이 아니라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당정책이 어떻게 집행되고있는가, 걸린 문제는 무엇인가, 학습은 어떻게 하고 그 실효는 어떠한가, 대중이 무엇을 생각하며 그들의 요구는 무엇인가 하는것을 알아보고 옳은 대책과 방법론을 세워 실속있게 풀어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아래에 내려가 걸린 문제를 풀어준다고 하여 모든것을 자기가 도맡아하려고 해서도 안된다. 아래에서 제기되는 모든 사업의 주인은 아래단위의 당조직과 당원대중이다. 그러므로 걸린 고리를 발견하면 해당 단위의 당조직과 일군들, 당원들이 주인이 되여 풀어나가도록 그들과 합심하여 해결대책을 강구해주고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외줄로 과업만 줄것이 아니라 쌍줄로 방법론까지 대주어 그들이 자기 힘으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보장해주고 밀어주는것이다.

특히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 주의를 돌리고 정치사업을 짜고들며 필요한 보장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도와줄 때는 일이 잘되나가도 돌아온 다음에는 도루메기가 되는 굼때는 식 지도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전

망적으로 내다보면서 착실하게 도와주고 풀어주어야 한다.

일군들은 이와 함께 아래에 내려가 군중에게서 허심하게 배우고 또 그들을 교양하는데 응당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대중은 훌륭한 선생이다. 인민대중은 가장 지혜롭고 총명하며 풍부한 실천적 경험을 가지고있다. 아래의 실태를 누구보다 잘 알며 걸리고있는 문제와 그 해결방도에 대해서 잘 알고있는것도 생산자대중이다.

일군들은 절대로 자기만이 모든것을 다 안다는 식으로 교만하게 생각하거나 행동해서는 안된다. 대중의 목소리에 심중히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그들이 제기하는 의견과 발기들을 외면하고 묵살하면 과오를 범할수도 있다.

아래에 내려가 대중에게서 배울뿐아니라 그들을 진심으로 교양하고 따뜻이 이끌어주어야 한다.

아래에 내려가면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 당정책적 요구들을 대중들에게 알기 쉽게 차근차근 해설해주는 등 자신이 선전원, 선동원이 되여 선전도 하고 선동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대중이 당과 수령의 의도, 당정책을 잘 알고 자각적으로 동원되여 제기되는 모든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일군들은 아래의 초급일군들을 만나는 경우에는 그들이 사업을 작전하고 설계하며 사람들을 조직동원하고 총화하는 방법 등을 잘 가르쳐주어야 한다.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걸린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전준비를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어떤 사업에서나 성과의 중요한 담보는 사전준비를 잘하는데 있다. 아래에 내려가 군중속에 들어가는것은 아래단위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그에 기초하여 사업을 도와주는데 있는것만큼 치밀한 준비와 조직사업이 안받침될 때에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

일군들은 해당 부문 또는 해당 단위에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지시를 깊이 연구하여야 하며 자기가 내려가는 단위의 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전준비가 없이는 아래에 내려가 사업을 깊이있게 진행할수 없으며 걸린 문제를 실속있게 풀어나갈수 없다.

이와 함께 일군들은 아래에 내려가 진행한 사업 경험과 교훈을 높은 수준에서 늘 총화하며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깊이 연구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책임적으로 도와주고 걸린 고리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또한 그들자신이 높은 정치실무적 자질을 소유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혁명의 지휘성원인것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지식과 높은 자질을 가져야 한다. 정치실무적자질이 높지 못하고서는 다른 사람을 옳게 교양할수도, 실속있게 지도할수도 없으며 대중속에서 응당한 발언권과 권위도 지닐수 없다.

일군들은 높은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가져야 한다.

높은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가질 때만이 모든 문제를 당정책적선에서 보고 옳고그른것을 가려볼수 있으며 사람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통해서도 그들의 요구와 지향을 알수 있으며 당의 의도에 맞게 사업을 작전하고 설계해나갈수 있다.

특히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당정책에 정통하여야 하며 폭넓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과학과 기술이 비상히 빨리 발전하고 생산력발전에서 과학기술이 노는 역할이 더욱더 커지고있는 오늘 당일군이나 행정경제일군들이 과학기술지식을 모르고서는 현대적생산을 옳게 지휘할수 없으며 사람들과의 사업을 시대적요구에 맞게 깊이있게 진행할수 없다.

일군들은 높은 정치리론수준과 과학기술수준을 겸비함으로써만 아래에 내려가 당정책적선에서는 물론 과학기술적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정확히 분석판단할수 있으며 생산을 발전시키고 경제관리를 개선하는 문제를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와 현대적기술발전의 요구에 맞게 합리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실력이 없이는 당의 신임과 기대에 보답할수 없으며 조국과 혁명, 인민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을 다할수 없다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자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모두가 독학가, 정열가가 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과 당문헌을 깊이 연구체득하며 다방면적인 자질과 지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군중속에서 진정으로 존경을 받고 믿음을 받으며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책임적으로 자신있게 풀어나가는 실력있는 일군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한덩어리가 되며 사업을 실속있게 하기 위해서는 인민적품성과 혁명적인 일본새를 소유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인민적품성을 지니는것은 광범한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고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일군들은 대중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어개를 낮추고 겸손하고 소탈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인민대중속에서 나왔고 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충복인것만큼 마땅히 작풍에서 겸손하고 소박하여야 한다. 인민적품성을 지니고 겸손하고 소탈하게 행동할 때에만 일군들은 대중과 한덩어리가 되고 군중의 신망을 받을수 있으며 그들과의 진정한 단합을 이룩할수 있다. 대중의 신망과 존경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일군들이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행동하는데서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것이다. 일군들이 군중속에서 겸손하고 소탈하게 행동하여야 그들의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를 들을수 있으며 사업을 추켜세울수 있는 옳은 대책을 세우고 힘있게 추진시켜나갈수 있다.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일해나가는 우리 일군들은 또한 군중을 진정한 혁명동지로, 벗으로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군중들이 진심으로 당을 믿고 따르며 당에 모든것을 의탁하고 당이 맡겨준 혁명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게 된다.

이신작칙은 일군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혁명적 사업기풍이며 일본새이다.

일군들은 혁명의 운전대를 틀어잡고 있는 지휘성원이며 투쟁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고나가는 전위투사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어떻게 관철되는가 하는것은 일군들이 투쟁의 기수가 되여 대중을 어떻게 이끄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일군들이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갈 때 사업에서는 높은 성과가 이룩된다.

우리 일군들은 언제나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나가야 하며 실천적모범으로 사람들을 고무하고 추동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채취공업, 금속공업, 전력공업, 철도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며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일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기하고 그 관철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모든 일군들은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갈데 대한 당의 요구를 받들고 현실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창조적힘을 적극 동원함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영웅적위훈을 창조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여야 한다.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혁명승리를 위한 근본담보

백 범 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하고있는 오늘 우리 당은 군중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군중로선을 관철하는것은 당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며 혁명의 승리를 위한 근본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중로선을 관철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의 기본담보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17권, 366페지)

로동계급의 당이 광범한 대중을 전취하여 혁명의 길로 이끌어나가자면 군중을 묶어세우고 조직동원하기 위한 올바른 로선을 제시하여야 한다. 당이 군중과의 사업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정확한 로선을 내놓고 관철하여야만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을수 있으며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다.

군중을 조직하고 동원하기 위한 정확한 로선을 제시하는 문제는 우리 혁명수행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되였다.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에서 혁명의 대중적지반은 비할바없이 확대되였으며 그의 동력구성은 매우 다양해지게 되였다. 혁명운동의 규모와 심도도 전례없이 커지고 심화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정확한 활동원칙을 확립하지 않고서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확고히 전취하여 강력한 혁명력량을 꾸릴수 없었으며 대중을 발동하여 혁명위업수행에 조직동원할수 없었다.

당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혀야 할 우리 혁명의 절박한 과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독창적인 군중로선을 창시하심으로써 빛나게 해결되였다.

조선혁명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을 반영하여 제시된 우리 당의 군중로선은 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며 대중의 힘을 믿고 그들을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는것이다. 우리 당의 군중로선에는 로동계급의 당이 대중과의 관계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관점과 립장이 가장 청확히 밝혀져있으며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혁명적원칙과 과학적방법이 집대성되여있다.

군중로선은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우리 당 활동의 근본원칙이다.

당의 활동은 당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조선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혁명적전위부대인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전체 인민을 잘살게 하기 위한 사업이다. 따라서 그것은 한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실현할수 없으며 광범한 군중이 혁명에 참가하여야만 승리할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승패는 얼마나 많은 군중을 쟁취하며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어떻게 발휘시키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결국 군중을 많이 쟁취하는가 못하는가, 대중의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것은 혁명과 건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와 성과를 결정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때문에 당이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묶어

세우며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군중로선을 관철하여야 모든 사람들을 공산주의사회까지 메고가야 할 공산주의운동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고 혁명위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을 령도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공산주의위업을 완수할 때까지 일관하게 군중로선을 관철하는것은 혁명투쟁의 승리와 건설사업의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담보로 된다.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당 군중로선의 빛나는 승리이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첫시기부터 군중로선을 자기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진로를 개척하시던 시기에 벌써 우리 혁명을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진행할데 대한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군중로선의 본질과 요구를 집대성하시여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듯이 유격대는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는 유명한 명제를 내놓으시고 항일유격대원들이 인민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애국력량을 항일의 기치밑에 굳게 결속하여 강도 일제를 물리치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해방직후 광범한 대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워 혁명과 건설에 적극 조직동원하는것은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나서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을 굳게 결속하기 위한 대중전취사업을 새 민주조선 건설의 선결문제로 내세우고 여기에 모든 힘을 집중하도록 하시였다. 실로 해방후 그처럼 짧은 기간에 건당, 건국, 건군 위업이 성과적으로 실현되고 제반민주개혁이 순조롭게 수행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군중로선이 혁명과 건설에 구현되여 이룩된 고귀한 결실이였다.

전체 인민의 총동원으로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한 우리 당과 혁명 앞에는 어려운 난관들이 조성되였으며 안팎의 정세는 복잡하고 긴장하였다. 무엇에 의거하여 어떤 방법으로 조성된 난국을 뚫고나갈것인가 하는것은 혁명투쟁의 승리와 건설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나서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과 주권이 있고 인민과 령토가 있는 이상 어떤 어려운 난관과 시련도 능히 극복하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전체 인민을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어렵고 복잡한 때일수록 인민대중을 굳게 믿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의 승리를 이룩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지혜와 창조적적극성을 발동하여 부닥친 난국을 타개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 위대한 천리마운동의 발단을 열어놓으시였다. 수령을 받들고 당을 옹호하여 한결같이 떨쳐나선 전체 인민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혁명의 시련은 극복되고 역경은 순경으로, 화는 복으로 전변되였다. 참으로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 위대한 천리마운동은 당과 수령의 세련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였으며 군중로선의 빛나는 승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새로운 환경에 맞게 당의 군중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을 굽임없이 개선강화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변화된 현실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군중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이 심화되고 군중과의 사업이 개선됨으로써 당과 혁명대오의 위력은 비상히 강화되였으며 이 위력한 힘에 의하여 혁명과 건설은 승리적으로

전진하게 되였다.

군중로선을 관철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묶어세우기 위한 투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진군을 통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하게 되였다.

우리 당은 군중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도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당의 최고강령에 따라 더욱 심화되여야 한다는것을 밝히고 각계각층 군중을 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것을 군중과의 사업의 총적과업으로 제시하였다. 당중앙은 이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기 위하여 여기에 커다란 당적힘을 돌리도록 하였으며 군중과의 사업을 계층별로 짜고들어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기본군중과의 사업에 선차적힘을 넣어 당의 계급진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난날의 계급적처지와 정치생활경위와는 관계없이 당을 따라오는 복잡한 계층의 모든 사람들을 혁명의 길로 이끌어나가도록 하였다. 복잡한 군중을 대담하게 믿어주고 아량있게 포섭하여주는 우리 당의 넓은 포옹력은 군중을 전취하고 묶어세울수 있게 한 결정적요인이였다. 당을 떠나서는 살수도 행복할수도 없다는 인민의 신념과 인민을 떠나서는 혁명을 할수 없다는 당의 확고한 의지가 하나로 결합되여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어떠한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사상의지적통일체로 될수 있었다.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수백만 근로대중의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우리 당은 혁명앞에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애로와 난관이 조성될 때마다 광범한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놀라운 진군속도가 련이어 창조되고 도처에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서고있으며 대중적투쟁과 집단적혁신의 불길속에서 3대혁명이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는것은 대중의 힘을 믿고 대중을 발동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군중로선의 생활력과 정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우리 황해남도에서 당의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었다.

황해남도에서 군중과의 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여기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요구와 이 사업을 편향없이 잘해나가기 위한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당중앙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적들의 리간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도에서 제기되였던 복잡한 문제들이 빛나게 해결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당의 핵심으로 자라났다. 우리 당의 믿음과 사랑에 의하여 은률과 락연 광산의 기술자들, 청단군의 이름없는 농장원을 비롯한 복잡한 계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당원의 영예를 지니고 충성의 한길을 드팀없이 걸어나가고있다.

참으로 우리 당은 천리를 가고 만리를 가도 언제나 인민들과 같이 가야 한다는 확고한 립장을 가지고 군중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왔기때문에 언제나 승리할수 있었던것이다.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혁명과 반혁명사이의 계급투쟁이 첨예하게 벌어지고있는 현실은 당의 군중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원래 군중로선을 관철하며 군중을 동원하여 혁명을 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본성적요구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옹호하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혁명발전의 모든 단계에

서 군중로선을 관철하여야 하며 특히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전면에 나서고 여기에 광범한 군중이 참가하고있는 시기에 그것을 더 잘 관철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혁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 사회의 몇몇 사람이나 제한된 그 어느 계층의 사람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다 열렬한 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사업은 당의 군중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나라가 해방된지도 40년이 지나고 조국해방전쟁이 끝난지도 30여년이 되였다. 그동안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관계와 계급관계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사람들의 사상정신적면모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복잡한 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동요없이 우리 당을 따라왔으며 당이 내놓은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였다.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그들은 단련되고 검열되였으며 그들의 자녀들도 우리 사회주의제도하에서 혁명적교양을 받아 당에 충실한 새세대로 자라났다. 모든 사람들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실지생활을 통하여 확신하게 되였으며 체험을 통하여 당의 위대성과 당정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체득하게 되였다. 광범한 대중이 당에 자신과 후대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으며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고있다. 변화된 이러한 현실의 요구에 맞게 군중로선을 그 어느때보다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당과 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근본문제로 되고있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는데 따라 군중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도 마땅히 새로운 차원에서 심화되여야 하는것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갈라진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여야 할 민족지상의 과업이 나서고있다.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숙원이며 우리 당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순탄하지 않으며 매우 어렵고 복잡한 투쟁을 동반하게 된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민족분렬정책과 범죄적인 새 전쟁 도발책동을 물리치고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혁명과 반혁명사이의 날카로운 계급투쟁이며 이 투쟁에서의 승패는 결국 누가 더 많은 군중을 쟁취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더우기 오늘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이 북과 남사이에 대화와 래왕이 진행되고있는것을 기화로 반공화국소동을 미친듯이 벌리면서 우리의 혁명력량을 와해시키며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군중전취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이와 같이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혁명의 원리로 보나 현정세의 요구로 보나 현시기 우리 당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된다.

오늘 우리 앞에는 군중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움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현시기 당의 군중로선을 관철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이다.

우리 나라에는 장기간의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미제에 의한 나라의 분렬, 특히 조국해방전쟁시기 적들의 리간책동으로 말미암아 주민의 사회정치적구성에서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가 복잡한

군중을 다 내놓고 기본군중만 가지고서는 혁명을 할수 없다.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에서 중요한것은 그들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대담하게 포섭하는것이다.

복잡한 군중은 거의나 기본계급출신으로서 우리 혁명에 절대적인 리해관계를 가지고 당을 따라오는 사람들이다. 복잡한 군중은 혁명의 대상이 아니라 기본동력이며 일시적인 동반자가 아니라 공산주의사회까지 같이 가야 할 혁명동지이다. 당 조직들과 일군들은 복잡한 군중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그들을 대담하게 믿고 포섭하여야 한다.

사람을 믿지 않고서는 그들속에 깊이 들어가 교양할수 없으며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없다. 대담하게 믿고 일을 맡긴 다음에는 부단히 접열하고 료해하면서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세심히 보살펴주고 이끌어줄때 사람들은 우리 당을 더욱 신뢰하게 될것이며 우리도 그들을 확고히 믿을수 있게 될것이다.

당 조직들과 일군들은 군중이 당에서 자기를 진심으로 믿어준다는것을 확고히 인식하도록 말로써가 아니라 실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천적으로 당적신임을 표시해주고 공로와 사업성과도 공정하게 평가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당의 은정깊은 손길을 가슴뜨겁게 느끼고 신심과 열정에 넘쳐 당을 따라 끝까지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그들의 자녀들의 정치적생명과 전도와 관련한 문제를 책임적으로 잘 풀어주는것이다.

사람들은 가정과 친척, 주위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그것이 본인의 사상발전에서 결정적인것으로 될수는 없다. 문제는 그들이 어떤 교양을 받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의 자라나는 새세대들과 청년들은 복잡한 군중의 자녀들이라 하여도 모두가 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혁명적 교육과 교양을 받으며 자라났다. 그들은 덕을 본것도 없는 부모의 나쁜 영향보다 우리 당의 혁명적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하여서는 부모들의 성분을 가지고 문제시하지 말아야 하며 그들의 정치적생명과 전도와 관련한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기 위하여 중요한것은 성분을 본위로 하지 말고 현행을 기본으로 하여 사람을 평가하는 원칙을 엄격히 지키는것이다.

사람의 성분이란 사상상 구성성분을 말한다. 사람의 성분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혁명이 전진함에 따라 계급관계는 달라지고 생활환경과 조건도 변화되며 이에 따라 사람들의 성분도 끊임없이 변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지난날의 계급적처지나 경력만 보고 평가할것이 아니라 본인의 현재의 계급적각오정도와 사상상태, 현행을 기본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사람들의 현행이란 다름아닌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사람을 평가하는 기본척도로 되며 혁명가의 모든 사상정신적특질을 규정하는 근본바탕으로 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떠난 혁명가란 있을수 없다. 혁명가의 기본징표는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데 있다. 때문에 복잡한 군중이라고 하여도 본인이 혁명과업수행에서 모범적이고 당과 수령께 충실하면 그런 사람은 혁명가로 보아야 한다.

당 조직들과 일군들은 사람들을 평가하는데서 성분을 본위로 하지 말고 현행을 위주로 하여야 하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절대적표징으로 하는 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당일군들이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

업방법과 작풍을 가지고 군중과의 사업을 하는것은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당일군들이 로숙한 방법과 원만한 작풍을 가져야 군중로선을 옳게 관철할수 있으며 모든 군중을 다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울수 있다.

당일군들은 혁명적군중관점을 가지고 언제나 겸손하게 행동하며 군중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당일군들이 군중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외면하면 군중이 당조직을 믿지 않게 되고 당조직의 믿음에 대하여 반신반의할수 있다. 당일군들은 언제나 군중을 참된 혁명동지로 여기고 아량있게 대하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제때에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것은 결코 그 어떤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이다.

당일군들은 사람문제에 대하여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말아야 하며 백번 재여보고 한번 자르는 그러한 심정으로 심사숙고하여 결심을 내려야 한다. 사람들의 운명에 대하여 책임지고있는 우리 당일군들이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에 관계되고 그들의 후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경솔하게 다루어서는 안된다. 당일군들은 절대로 편협하고 옹졸하지 말아야 하며 자기 보신에 빠지지 말고 혁명의 근본리익을 먼저 생각하여야 하며 사람들의 심리적고충과 심중을 깊이 헤아릴줄 알아야 한다.

당일군들은 문제에 대한 실무적태도와 즉흥적인 처리방법을 결정적으로 없애고 군중과의 사업을 신중하고 로숙하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당의 은혜로움을 알고 당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게 하여야 한다.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당조직들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다. 당조직이 주인이 되여 군중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다.

당조직들은 확고한 당적주견과 정책적대를 가지고 군중과의 사업을 주동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조직들은 군중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서 좌우경적편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엄격히 장악통제하여야 하며 나타난 편향을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의 면모를 똑똑히 보여주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일군들의 수준을 높이고 그들이 모든 문제를 당의 의도와 요구에 맞게 옳바로 처리해나가도록 하는것이다.

당일군들은 당사업의 주인이며 군중과의 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다. 군중로선이 어떻게 관철되는가 하는것은 당일군들의 수준과 능력에 크게 달려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아는것만큼 받아들이고 아는것만큼 일하게 된다. 당일군들이 정치실무수준이 낮으면 제기된 문제를 당정책적선에서 가려보지 못하고 군중과의 사업도 당의 의도와 요구에 맞게 제대로 해나갈수 없게 된다. 당일군들이 각이한 계층의 군중을 쟁취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자면 높은 정치적식견과 계급적안목을 가져야 하며 능숙한 수완과 풍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모든 당일군들은 자신의 수준과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여 당의 군중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능숙하게 조직전개하여야 하며 군중과의 사업을 주동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지난날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혁명승리의 근본담보로 된다. 우리는 군중로선을 관철하는것을 항구적인 사업으로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발동하는것은 당사상사업의 기본

조 원 일

당사상사업은 당조직사업과 함께 당내부사업의 하나이며 로동계급의 당 건설과 활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당사상사업을 강화하여야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울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사상사업을 자기의 기본임무로 틀어쥐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강화해나가야 한다.

우리 당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되고있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상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한 강령적과업과 구체적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었다. 여기에는 당사상사업을 철저히 그 본성적요구대로 벌려나감으로써 당과 혁명대오를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의도가 담겨져있다.

당조직들과 당선전일군들은 우리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당사상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이룩함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 ⁂

당사상사업의 기본을 옳바로 밝히고 그것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는것은 당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사상사업의 기본을 정확히 규정하고 그것을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당사상사업을 철저히 그 본성적요구대로 벌려나갈수 있으며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수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사상사업은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발동하는 사업이며 전당과 온 사회에 생기와 활력을 넣어주는 사업입니다.》

당사상사업의 기본은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발동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수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혁명과업수행에로 불러일으키는것이 당사상사업의 기본임무라는것을 의미한다.

당사상사업에서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발동하는것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당사상사업자체의 본질적요구이다.

당사상사업의 대상은 사람이며 사람은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에 의하여 그들의 가치와 품격이 결정되며 모든 행동이 규제되고 조절통제된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고 그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조직동원하자면 무엇보다먼저 그들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고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동시켜야 한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사회경제적처지와 물질생활조건에 의하여 제약된다. 그러나 그것이 변한다고 하여 사람의

사상이 저절로 개변되는것은 아니다. 낡은 사상 잔재는 매우 보수적인것만큼 사회생활의 물질적조건이 변하여도 오래동안 남아있게 된다. 사람들의 사상의식령역에서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은 사상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위력한 추동력이다. 그러나 그것이 저절로 발양되는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수행하는 혁명과업의 목적과 의의를 똑똑히 알고 그것을 자기의 생활적요구로 받아들일 때 무비의 헌신성과 창발성을 발휘하게 된다. 당사상사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당의 로선과 정책의 본질과 정당성, 그 수행방도를 알려주어 그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게 하는 사업이다.

당사상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발동하는 사업인것만큼 로동계급의 당은 사상사업에서 언제나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발동하는것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당사상사업에서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발동하는것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하는것은 또한 당사상사업의 기본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당사상사업은 당의 최고강령을 실현하는 위력한 수단이며 그 기본사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건설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려면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다같이 점령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당사상사업이 이바지하기 위하여서는 일관하게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발동하는것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발동하는데 기본을 두고 당사상사업을 벌려나가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 목표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사람은 사회의 주인이며 사회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려면 먼저 사람들을 공산주의사상과 선진과학기술지식, 높은 문화수준을 가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워야 한다.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이다. 따라서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자면 그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하며 사상개조사업을 앞세워나가야 한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 사업도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발동하는데 기본을 두고 당사상사업을 벌려나갈 때 원만히 수행될수 있다.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은 단순한 경제실무적조치만으로는 해결할수 없다. 그것은 대중이 이 사업에 자각적으로, 헌신적으로 동원되게 하는 정치적방법이 안받침되여야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인민대중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직접적담당자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노는 인민대중의 역할은 다름아닌 그들의 사상의식의 역할이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의 사상을 발동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나가야 그들의 높은 자각성과 적극성을 불러일으킬수 있으며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다.

당사상사업에서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발동하는것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하는것은 또한 로동계급의 당이 정권을 잡은 다음 당사상사업에서 그 본질적요구와 어긋나는 경향이 나타

날수 있는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인민대중에 의하여 목적의식적으로 건설되는 사회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전척될수록 사상의식의 역할이 높아지는것만큼 로동계급의 당은 사상사업에 더욱 힘을 돌려야 한다.

그런데 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일부 일군들속에서 당사상사업의 본질적요구와 어긋나게 그것을 행정실무화하는 경향이 나타날수 있다.

당사상사업은 그 령역이 매우 넓다. 사회생활의 어떤 분야도 사상문제와 관련되지 않는것이란 없으며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사상사업을 하여야 한다. 사상사업은 자연을 개조하고 변혁하는 사업보다 더 어렵고 복잡하다.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개조하거나 사람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조직동원하는것은 한두번의 교양사업이나 정치사업으로 간단하게 해결되는것이 아니다. 그런데 로동계급의 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지하투쟁시기와는 달리 사상사업을 행정실무적방법으로 하여도 일정하게 사람들을 움직일수 있으며 그 후과도 당장 크게 나타나지 않을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서지 못하고 정치실무적자질이 어린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당사상사업에서 기본을 놓치고 부차적인 문제에 매달리게 되며 사람들의 사상문제를 행정실무적방법으로 해결하려는것과 같은 그릇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당사상사업의 행정실무화는 정치적조직으로서의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적본성과 어긋나며 사람들의 사상을 다루는 당사상사업의 본질적요구와도 맞지 않는다. 만약 당일군들이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발동하는 사상사업을 하지 않고 행정실무사업에 매달리게 되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할수 없을뿐아니라 행정경제일군들의 책임성과 창발성도 마비시키게 되며 결국 혁명과 건설에 커다란 후과를 미치게 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행정실무화의 경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당사상사업을 철저히 그 본성적요구대로 벌려나가도록 하는것을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매우 심중한 문제로 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당사상사업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일제기 혁명적당건설과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부터 시종일관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발동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우리 당 활동과 혁명투쟁의 전로정은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고 발동하여 당과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세기적인 기적과 비약을 창조하여온 자랑찬 력사로 빛나고있다.

우리 당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심화발전할수록 당사상사업을 강화하여왔으며 특히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전면에 나선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이며 우리 당의 전투적강령이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당사상사업의 기본임무로 새롭게 규정하고 여기로부터 출발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의 기본내용과 원칙적요구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추동하기 위한 당경제정책선전과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주었다. 이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전면에 나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상사업을 그 본성적요구대로 일관하게 벌려나갈수 있게 한 지침으로 되였다.

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는 금물이다. 지난날 반당종파분자들의 책동으로 말

며않아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는 형식주의가 오래동안 남아있으면서 당사업과 혁명운동에 커다란 해독을 끼쳤다. 우리 당은 사상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형식주의와 낡은 재래식방법을 극복하는것을 당사상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관전적문제의 하나로 제기하고 전당에 항일유격대식선전선동방법을 철저히 확립하도록 하였다.

오늘 우리 당 사상사업은 형식주의와 낡은 틀에서 벗어나 약동하는 현실속에서 생기발랄하고 참신하게 벌어지고있으며 그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개조하며 그들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최근년간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일어난 혁명적전환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사람들의 사상이 기본이며 사람들의 사상에 의하여 모든것이 결정된다는 사상론을 제시하고 각급 당조직들과 선전일군들이 당사상사업에서 주선을 놓치지 말고 선전선동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빛나는 결실이다.

오늘 모든 당조직들과 선전부문 일군들앞에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심화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우리 당이 의도하고 바라는대로 당사상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 제기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선전일군들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당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당사상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단행본, 2페지)

현실발전에 맞게 당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선전일군들속에서 당사상사업의 본질적요구대로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발동하기 위한 정치사업방법으로 일하는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는것이다.

당사상사업은 원래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고 발동하기 위한 산 사람과의 사업이며 당선전일군들의 기본사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가지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정치사상교양사업, 선전선동사업을 전개하는것이다. 그러므로 당선전일군들은 행정실무적인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자기 직분에 맞게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개조하고 그들의 사상을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 모를 박고 일해나가야 한다.

당사상사업을 들끓는 현실에 더욱 접근시키며 혁명실천에서 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는것은 오늘 우리 당이 당사상사업부문앞에 제기하고있는 중요한 요구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선전일군들은 대중의 준비정도에 맞게 사상사업을 짜고들며 형식보다 내용에 더 깊이 파고들어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선전일군들은 무엇보다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당선전사업에서 기본은 사상교양사업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그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당선전부문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데 선차적힘을 넣어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힘있게 벌려 그들이 주체사상의 원리를 똑똑히 인식하며 언제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선전

일군들은 또한 혁명전통교양을 폭넓게 진행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이 이룩한 빛나는 혁명업적을 대를 이어 충직하게 받들며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각급 당 조직들과 선전일군들은 주체사상교양,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계급교양,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 공산주의도덕교양과 준법교양,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하며 모든 사상교양사업을 어느 하나에 치우치는 현상이 없이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는데 심중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의 원리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선전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혁명의 원리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이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혁명운동의 합법칙성, 계급투쟁의 진리를 옳게 인식하고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자기의 계급적립장을 확고히 고수하며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선전일군들은 또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선전선동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이 중요하다.

대중의 사상을 발동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것은 우리 당 사상사업부문앞에 나선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다. 현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경제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 관철에로 적극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릴것을 요구하고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곧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며 당경제정책은 대중에게 파악되여야 현실에 구현될수 있다. 당선전일군들은 당의 경제정책이 제시되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제때에 해설침투시켜 그들을 당의 경제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하며 그것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도록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선전일군들은 끊임없이 변화되는 환경과 조건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현시기 당이 의도하고 바라는 문제를 푸는데 중심을 두고 모든 선전선동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사람들의 사상을 계발하고 발동하기 위한 경제선동을 패기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당면하여 우리는 채취, 금속, 전력공업부문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철도운수에서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정치선전, 경제선동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당선전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는것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당사상사업의 대상은 군중이며 사상사업의 모든 성과는 군중속에서 나타난다. 선전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야 그들의 사상정신상태를 료해장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옳은 처방을 내리고 대중의 사상을 개조하고 발동하기 위한 작전을 바로할수 있으며 군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적극 불러일으킬수 있다. 선전일군들은 잡다한 문서에 매달려 사무실에서만 맴돌고있을것이 아니라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의 요구대로 아래에 내려가는것을 제도화, 습성화하고 군중속에 들어가 선전원, 선동원이 되여 정치선전, 경제선동을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과 선전일군들은 당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당중앙의 의도를 깊이 체득하고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발동하기 위한 사상사업에 기본을 두고 선전선동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당의 전투력을 높이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야 할것이다.

주체형의 혁명가의 고상한 풍모와 공산주의도덕교양

김 완 선

오늘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공산주의도덕교양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이 요구에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정치사상적으로뿐아니라 도덕의리적으로 훌륭히 준비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며 온 사회에 혁명적이며 건전한 생활기풍이 확고히 지배하게 하려는 당의 높은 뜻이 담겨져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고 그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다. 우리 혁명의 진군운동을 다그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을 정치사상적풍모와 도덕적풍모를 다같이 갖춘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우리는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공산주의도덕교양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정치도덕적으로 굳게 뭉쳐 서로 돕고 이끌면서 우리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 *

도덕은 사람의 품격과 문명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이다.

사람의 품격은 그가 가지고있는 사상의식과 함께 도덕품성에 의하여서도 규정된다. 사람은 혁명적인 사상과 함께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과학기술지식을 가져야 할뿐아니라 고상하고 아름다운 도덕적품성을 지녀야 한다. 그래야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창조적활동을 힘있게 벌릴수 있으며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고상한 품성을 지닌 혁명가로 될수 있다. 도덕적수양이 부족한 사람은 참다운 인간적품격을 갖추었다고 말할수 없으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할수 없을뿐아니라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를 받게 된다. 건전한 사상과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닌 사람이라야 진실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에 자기의 모든 정력과 재능을 남김없이 바쳐싸우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될수 있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는 견결한 혁명사상과 함께 고상한 공산주의적도덕품성을 지닌 열렬한 혁명가이며 가장 고결한 인간적품성을 지닌 사람이다. 누구보다도 도덕과 의리를 귀중히 여기고 사회공동생활 규범과 준칙을 량심적으로 지키는 사람이 바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공산주의사회는 가장 고상한 도덕을 가진 사회이며 공산주의적인간은 도덕적풍모에서도 완성된 사람입니다.》

(《당사상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단행본, 20페지)

주체형의 혁명가들이 지니고있는 공산주의도덕은 로동계급적 리익과 요구를 반영한 가장 혁명적인 도덕이며 사

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 규범이며 준칙이다.

도덕은 원래 인간생활의 필수적요구에 의하여 생겨났다. 사람은 혼자서 고립적으로 사는것이 아니라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사는 사회적존재이다. 사람은 혼자서 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살아나가기때문에 제멋대로 행동하여서는 안된다. 사람이 집단의 한 성원으로서 사람답게 살자면 다른 사람들앞에서 반드시 일정한 행동규범과 준칙의 요구를 량심적으로 지켜야 한다. 도덕은 바로 사회공동생활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나왔으며 그것은 사회와 함께 끊임없이 발전하여왔다.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니고있는 공산주의도덕은 인류의 리상사회인 공산주의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고있으며 그것은 로동계급의 수령이 이끄는 혁명대오안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싸워나가는 과정에 형성되고 끊임없이 공고발전하는 가장 고상하고 진보적인 도덕이다.

력사에 있은 모든 도덕과 구별되는 공산주의도덕의 기본특징은 그것이 집단주의와 인간에 대한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데 있다.

도덕의 진보성과 혁명성은 그것이 어느 사회, 어느 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가 하는것과 함께 어떠한 리념과 원칙에 기초하고있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 공산주의도덕은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과 사람, 인민대중에 대한 사랑으로 일관된 가장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도덕이다.

집단주의와 인간에 대한 사랑은 공산주의혁명가들의 본질적특성의 하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를 이루고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집단주의의 숭고한 리념과 원칙,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 기초하고있는 공산주의도덕을 지닌것으로 하여 개인의 안일과 향락보다도 조직과 집단의 리익을 앞에 내세우고 혁명동지들과 사회성원들에 대한 의리를 가장 귀중히 여기며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참다운 혁명가로 되는것이다.

사람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자면 정치사상교양과 함께 공산주의도덕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공산주의도덕교양은 주체형의 혁명가의 풍모형성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람들의 고상한 풍모는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제약되고 발전하며 완성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공산주의적풍모를 지닌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는 사업은 어느 한가지 교양만으로는 원만히 해결될수 없다. 사람들을 숭고하고 아름다운 정신도덕적풍모를 참답게 갖춘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시키자면 정치사상교양과 함께 공산주의도덕교양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그래야 그들을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고상한 도덕적풍모도 갖춘 주체형의 혁명가로 훌륭히 키울수 있다.

주체형의 혁명가는 정치사상적으로뿐아니라 도덕적면에서도 나무랄데 없는 완성된 인간이다. 사람들을 주체형의 인간으로 키우는데서는 정치사상적풍모와 함께 공산주의적도덕풍모를 원만히 갖추도록 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공산주의자들이 갖추어야 할 풍모가운데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그들의 정치사상적풍모이다. 정치사상적풍모를 원만히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사상적풍모만 갖추면 전면적으로 발전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만약 사람들이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되였다 하더라도 도덕생활이 건전하지 못하여 대중의 비난과 조소를 받으며 산다면 그러한 사람은 공산주의자로서의 풍

모를 다 갖추었다고 말할수 없다. 사람은 가장 진실한 인간관계를 맺고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를 비롯한 고상한 인간적품성을 높이 지닐 때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서의 풍모를 원만히 갖추게 된다.

공산주의도덕교양은 바로 사람들속에 이러한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간적풍모를 갖추어주기 위한 교양사업인것으로 하여 주체형의 혁명가육성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것이다.

공산주의도덕교양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데도 커다란 영향을 미침으로써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풍모형성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혁명가들의 정치사상적풍모는 고상한 도덕적풍모와 결합될 때 비로소 가장 풍교하고 참다운것으로 된다.

사람들을 공산주의도덕으로 무장시킨다는것은 그들속에서 온갖 낡은 도덕관념과 인습을 철저히 뿌리빼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혁명적인 도덕을 확립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물론 사람들의 도덕적풍모는 그들이 가지고있는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제되고 조절통제된다. 그러므로 사상의식의 역할을 떠나서 사람들의 도덕적 풍모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그러나 사람의 사상정신적풍모는 정치사상교양 하나만으로는 원만히 형성될수 없는것이다.

사회의 도덕과 사람의 도덕적풍모는 그들의 사상의식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상하고 진보적인 도덕은 사람들에게 높은 정신세계와 건전한 사상을 가지게 하지만 부패타락한 반동적인 도덕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좀먹고 사상적으로 변질되게 하는 해독적인 작용을 한다. 낡은 도덕관념과 인습은 봉건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사상의식이 싹트고 자라날수 있는 온상으로 되며 부르죠아사상을 비롯한 온갖 반동적인 사상을 끌어들이는 매개물로 되게 된다. 도덕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사람은 혁명사상을 가질수 없으며 혁명가로서 살며 투쟁할수도 없게 된다. 도덕생활이 바르지 못하면 정치사상생활도 바로할수 없으며 불건전한 도덕품성이 자라나면 정치사상적으로 부패변질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혁명가로 될수 없는것은 물론이고 인간으로서는 한푼의 가치도 가지지 못하게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일면적으로 강조하면서 도덕교양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도덕교양을 정치사상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다같이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우리 당은 사람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는데서 도덕교양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심오히 밝히고 당의 유일사상교양과 공산주의도덕교양을 밀접히 결부하여 힘있게 벌리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왔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정치사상교양과 함께 공산주의도덕교양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온 사회에는 공산주의적도덕기풍이 확고히 지배하고 있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들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주고 보람찬 삶과 행복을 안겨주었으며 공산주의미래에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고 있는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성다하는것을 혁명적신념으로뿐아니라 가장 고상한 혁명적의리로 깊이 간직하고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티없이 맑고 깨끗한 혁명적량심을 지니고 누가 보건말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충직하게 살며 일하는 숨은 영웅들과 숨은 노력가들, 숨은 공로자들이 수많이 배출되고있다. 또한 혁명동지들과 집단을 위하여서는 자기의 뼈와 살도, 지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 공산주의적미풍이 높이 발양되고있으며 온 사회에는 서로 돕고 이끌면서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는 아름답고 고상한 도덕생활기풍이

차넘치고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지닌 정신도덕적풍모가 얼마나 높은 경지에 이르고있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 혁명은 오늘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전진하고있다. 발전하는 현실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서고 고상한 공산주의적도덕풍모를 소유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들 속에서 공산주의도덕교양을 심화시켜 더욱 실속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공산주의적의리를 소중히 지키고 동지애를 높이 발휘하며 공중도덕과 사회질서를 성실히 지키며 언제나 례절바르게 행동하도록 교양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20페지)

공산주의도덕교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의리로 깊이 간직하도록 하는것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의리로 소중히 간직하는것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가장 숭고한 도덕적풍모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의리로 간직한다는것은 당과 수령이 베풀어준 크나큰 사랑과 은덕을 가슴깊이 새기고 당과 수령을 끝없이 신뢰하고 흠모하며 당과 수령에게 일편단심 충성다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원래 다른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사는것만큼 그들은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살아나간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러한 도움을 고맙게 생각하고 보답하는것을 응당한 도리로 여기는것이다.

사람들이 지녀야 할 의리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가운데서도 가장 고상한 의리는 혁명동지들사이에 맺어지는 공산주의적의리이며 그것은 수령과 전사들사이에서 가장 높은 형태로 발현된다. 공산주의자들은 당과 수령에 의하여 혁명의 보람찬 길에서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게 되며 당과 수령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혁명가로서의 참다운 삶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것이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주고 보람찬 삶과 행복을 안겨준 당과 수령께 충성다하는것보다 더 숭고한 혁명적의리는 없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도덕교양을 유일사상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깊이있게 진행함으로써 그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깊이 간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적동지애를 높이 발휘하도록 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고상한 품성을 지닌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도덕교양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혁명적동지애는 공산주의혁명가들이 동지들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도덕적풍모이다.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것은 혁명동지이다. 뜻을 같이하는 혁명동지들을 떠나서는 혁명투쟁을 벌려나갈수 없으며 혁명의 종국적승리도 이룩할수 없다. 때문에 공산주의혁명가들은 동지를 귀중히 여기고 그들과 생사를 같이하는것이다.

혁명적동지애는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사이에 맺어지는 가장 고상한 정신도덕적관계이다. 그러므로 혁명적동지애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높이 발양되는 혁명동지들사이의 사랑이며 혁명적동지애를 높이 발휘하는것은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 전과정에서 언제나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도덕교양을 강화하여 혁명적동지애를 높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온 사회에 건전하고 고상한 동지적관계가 확고히 지배하게 할수 있다.

사람들이 혁명적동지애를 높이 지니게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동지를 굳게 믿고 귀중히 여기며 동지와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면서 성심성의로 도와주는것이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동지애를 높이 발휘하도록 교양함으로써 그들이 동지를 믿고 사랑하며 동지의 결함이나 잘못을 진심으로 깨우쳐주고 언제나 동지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칠수 있게 하여야 한다.

공산주의도덕교양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공중도덕과 사회질서를 잘 지키도록 하는것이다.

사람은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사회적재부를 공동으로 리용하면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나간다. 특히 사회주의사회에 있는 모든 공공시설들은 사회공동의 재부인 동시에 매 개인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귀중한 밑천이다. 공동장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접촉하며 교제하게 된다. 그런것만큼 공공시설들을 알뜰히 거두며 공중도덕과 사회질서를 잘 지키는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고상한 의무이며 사회생활의 중요한 요구이다. 사회질서와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야 대중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간적품격을 지닐수 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질서와 공중도덕을 잘 지키도록 교양사업을 꾸준히 벌려 그들이 대중모임장소에서 제정된 제도와 질서를 지키고 교양있게 행동하며 여러가지 문화후생시설들과 편의봉사시설들을 알뜰히 관리하고 효과있게 리용하며 교통질서와 공중위생도덕을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적례절을 잘 지키도록 사람들을 교양하는것은 그들이 교양있고 아름다운 풍모를 지니도록 하는데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인민적례절은 인민대중의 생활처지와 사상감정에 맞는 례절이며 그것은 사람들의 도덕적풍모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

례절은 사람들을 고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하며 친근하고 화목한 인간관계를 맺게 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민적례절을 잘 지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말과 행동에서 인사성과 문화성을 보장하는것이다. 인사는 상대편사람에 대한 존경과 친근감이 나타나게 해야하며 인사를 받는 사람이 그러한 느낌을 받을수 있게 하여야 한다. 깨끗하고 단정하며 고상하게 행동하는데서 표현되는 문화성은 례절에서 떼여낼수 없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며 사람들의 문명정도를 보여준다.

례절을 잘 지키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경하며 말과 행동을 겸손하고 교양있게 하여야 한다.

사람들의 도덕적풍모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은 근로자들자신의 사업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고상한 도덕적풍모를 지니기 위한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며 낡고 뒤떨어진 도덕인습과 생활관습을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만 온 사회에 공산주의적도덕기풍을 확고히 세워나갈수 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공산주의적도덕풍모를 지니도록 하는 사업은 공산주의적인간개조사업의 중요한 고리의 하나이며 주체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성스럽고도 보람찬 사업이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도덕교양을 줄기차게 벌려 그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키움으로써 우리 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발양된 속도전의 불패의 생활력

김 덕 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우리 당이 제시한 속도전의 방침이 빛나게 구현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혁명적앙양이 일어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은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속도전은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는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이며 인민대중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기적을 이룩해나가는 혁명적인 사업전개원칙이다. 제기된 혁명과업을 놓잡지 않고 불이 번쩍나게 해제끼며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건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다그쳐나가는 전투형식, 사업전개원칙이 바로 속도전이다.

우리 당이 제시한 속도전은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높은 속도, 새로운 혁명적인 진군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빨리 다그쳐나가게 하는 힘있는 추진력으로 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자연을 정복하고 개조하여 물질생활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매우 거창한 투쟁이다. 이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키는것이 중요하다.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는 그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모든 사업을 전투적으로 벌려나갈 때 더 높이 발양되게 된다. 속도전은 바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보람찬 투쟁속에서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더욱 높이 발양시키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속도전은 말그대로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전투형식이며 공산주의사회를 하루빨리 건설하려는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위력한 사업전개원칙이다. 속도전에는 남보다 먼저 공산주의의 높은 령마루에 올라서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가 반영되여있다.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면 모든 근로자들이 당의 구상과 자기들의 지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게 되며 자기앞에 맡겨진 경제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게 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빨리 다그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키는것과 함께 물질기술적력량을 옳게 동원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생산의 기본조건으로 되는 물질기술적력량을 어떻게 동원리용하는가에 따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실질적인 생산성과로 전환시키는가 못시키는가, 경제건설을 높은 속도로 다그치는가 다그치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들이 크게 좌우되게 된다.

속도전은 경제건설에 필요한 온갖 물질기술적력량을 총동원하여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는 전투형식이다. 속도전을 벌리면 나라의 물질적자원과 기술수단들이 총동원되고 효과적으로 리용됨으로써 경제건설을 위한 전투과정이 완만

하게 진행되거나 중단되는것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물질기술적력량을 총동원하여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는 과정에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이 최대한으로 은을 내게 되며 생산과 건설에서 굽힘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게 된다.

우리 당은 능숙한 조직전개력으로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왔다.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하여 관철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 당은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키는것을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기본열쇠로 규정하고 사상전을 적극 벌리며 당경제정책선전과 경제선동을 들이대는 한편 대담한 전투목표와 혁명적인 구호들을 제시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대건설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과학과 기술이 빨리 발전하는 오늘 기술을 혁신하지 않고서는 속도전의 요구대로 경제건설에서 높은 속도와 질을 보장할수 없다. 우리 당은 과학기술의 혁할이 날로 높아지는 현실에 맞게 기술혁명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밝히고 전면적 자동화의 밝은 앞길을 펼쳐놓았다.

우리 당은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고 기술을 개조하는것과 함께 조직지도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도록 하는데도 큰 힘을 넣어왔다. 여기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주선을 틀어쥐고 섬멸전을 벌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굽힘없는 앙양을 일으킨것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나설 때마다 중심고리를 정확히 찾아내고 거기에 화력을 집중하여 돌파구를 열어나감으로써 실천적모범으로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들도록 일군들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왔다.

참으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는 속도전의 방침이 빛나게 구현되게 한 결정적요인이였으며 그 생활력이 높이 발휘되게 한 불패의 힘의 원천이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속도전의 불패의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인민경제가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는데서 나타나고 있다.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이룩하는것은 속도전의 추되는 목적이다.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발양시키고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는것도 구경에는 경제건설에서 굽힘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속도전을 힘있게 벌린 결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 생산이 매우 빨리 늘어났으며 재생산의 고리들사이, 생산요소들사이의 균형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전반적인 균형이 보다 적극적으로 유지되게 되였다. 대중이 발동되여 사회주의공업화가 힘있게 추진되던 1961년—1970년사이에 해마다 평균 12.8%의 속도로 장성한 우리의 공업은 1970년—1979년사이에는 매해 평균 15.9%의 높은 속도로 발전하였다. 경제의 규모가 천례없이 커지고 인민경제 부문들과 단위들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가 매우 복잡해진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새로운 천군속도, 《80년대속도》를 창조하면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장엄한 진군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다. 인민경제가 해마다 빠른 속도로 장성한 결과 우리는 6개년계획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 1년 4개월이나 앞당겨 수행하고 방대한 규모의 건설과 생산을 예견한 제2차7개년계획도 승리적으로 완수하였으며 오늘은 보다 높은 목표를 향하여 천진하고있다.

사회주의경제의 2대부문의 하나인 농촌경리부문에서도 속도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농업생산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위대한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모든 농사일을 제철에 질적으로 빨리 해제끼고 농작물을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다룸으로써 1974년 한해동안에만 하여도 알곡생산을 30%이상 장성시켰으며 1984년에는 우리나라 력사에서 류례없는 1,000만톤의 알곡을 생산해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원료, 연료, 동력 위기와 식량위기로 하여 심한 경제적파동과 사회적혼란을 겪은 최근시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된 이러한 높은 속도는 당이 제시한 속도전방침의 정당성에 대한 힘있는 확증으로 되며 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에 대한 일대 시위로 된다.

속도전의 불패의 생활력은 또한 우리나라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화되고 그 기술장비수준이 훨씬 높아진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은 우선 원료, 연료, 동력 문제의 해결에서 표현된다.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인민경제의 선행공정인 채취공업부문에서 혁신이 일어나 안주지구와 무산지구, 혜산지구를 비롯한 여러곳의 많은 탄광, 광산들이 개건확장되고 새로운 탄광, 광산들이 대대적으로 개발됨으로써 우리 나라 자원에 의거하는 원료, 연료, 동력 기지가 튼튼히 꾸려졌다. 그리하여 원료와 연료, 동력에 대한 늘어나는 인민경제적수요를 자체의 자원으로 충족시킬수 있게 되였으며 그 어떤 불리한 환경속에서도 경제건설을 주동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는 위력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자체의 원료, 연료, 동력 기지가 꾸려졌을뿐아니라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완비하기 위한 투쟁이 적극 추진되였다.

속도전의 장엄한 진군속에서 이미 있던 제철, 제련 기지들이 더욱 정비보강되고 대규모의 열간, 랭간 압연 및 2차 금속가공제품 생산기지들이 신설, 확장되여 금속공업의 자립성이 강화되였으며 현대적인 기계공장들, 특히 대형기계, 대상설비, 전자기구 및 자동화요소 생산기지들이 확대됨으로써 가공공업의 부문구조가 더 잘 갖추어지게 되였다. 모비론공업과 아닐론공업, 폴리에틸렌공업을 비롯한 새로운 공업부문들이 창설되고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편직물공장과 신발공장들이 많이 건설되여 화학공업과 경공업 부문에서도 부문구조가 보다 완비되였다.

기술개조사업에서 속도전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인민경제의 전반적인 기술장비수준이 훨씬 높아졌다.

속도전의 요구대로 생산과 건설을 최대한으로 빨리 밀고나가기 위한 투쟁과정에 보수주의와 소극성,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가 부서져나가고 현대적인 기계와 기술 수단들이 새롭게 발명도입되였으며 이미 있던 기술장비들이 보다 선진적인것으로 개조되였다. 우리 나라 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며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적극 벌려나가고있는 최근시기에 더욱 높아지고있다. 조국해방 40돐과 당창건 40돐을 성대히 기념한 지난해에만 하여도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들은 속도전의 방침을 계속 관철하여 1만톤프레스, 대형산소분리기와 같은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기계설비들을 만들어냈으며 《1985년 6월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벌려 불과 5개월 남짓한 기간에 결의목표보다 대형 및 특수공작기계를 비롯한 1,000여대의 여러가지 공작기계들을 더 새끼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렇듯 속도전의 방침을 관철해나가는 보람찬 투쟁과정에 자체의 원료, 연료, 동력 기지가 튼튼히 꾸려지고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완비하며 기술장비를 개선하는데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남으로써 우리 인민은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의 륭성번영을 확고히 담보하는 위력한 경제체계, 인민경제의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자립적인 경제체계를 튼튼히 가지게 되였다.

우리 나라 인민경제가 보통의 속도로가 아니라 매우 높은 속도로 끊임없이 발

전해올수 있은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바로 속도전을 벌려 짧은 기간에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기술장비를 더욱 개조하여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다진데 있다. 이것은 속도전의 방침을 구현하여 우리 인민이 이룩한 더없이 귀중한 성과이다.

속도전의 불패의 생활력은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워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고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킨데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기념비적창조물들은 력사와 시대를 빛내이고 민족의 슬기와 지혜를 떨치며 인민들의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높여주는 커다란 재부로 된다. 속도전의 진군속에서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고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만년대계의 기념비적건축물들이 대대적으로 일떠섰다.

모든 사업을 대담하게 설계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가는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이미 1970년대에 온룰광산의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과 무산—청진사이의 대규모정광수송관을 비롯한 수많은 건설물들을 일떠세우고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보통이면 10년은 걸린다고 하던 거대한 능력의 검덕광업종합기업소 제3선광장을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건설하였으며 오늘은 련이어 남포갑문과 태천발전소, 북부철길, 간석지 건설과 같은 방대한 공사들을 벌려 자랑찬 성과를 계속 이룩해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업적과 혁명사상을 대를 이어 빛내이고 옹호고수하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일치한 요구이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이 념원과 요구를 반영하여 혁명의 수도 평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주체사상과 혁명전통 교양에 크게 이바지할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인 주체사상탑과 개선문을 일떠세우고 삼지연을 비롯한 여러 지역들에 대로천혁명박물관과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을 훌륭히 꾸며놓았다.

속도전의 혁명적기상이 세차게 나래침으로써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조건을 보장해주는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수많이 일떠섰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혁명의 수도 평양에 반년 남짓한 기간에 락원거리를 일떠세운데 뒤이어 보다 현대적인 문수거리, 창광거리를 건설하였으며 평양산원과 창광원,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수많은 건축물들을 일떠세웠다.

참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은 속도전의 방침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인민대중을 현명하게 이끌어온 우리 당의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하기에 오늘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길에서는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속도전을 벌려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 앞에 나서는 숭고한 의무이다.

우리 일군들은 당이 밝혀준대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며 최신과학의 성과에 기초하여 기술을 보다 새롭게 혁신하고 생산 조직과 지휘를 더욱 개선해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정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맡겨진 경제과업을 최단기간안에 질량적으로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이 제시한 속도전의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진군속도를 더욱 높임으로써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다.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는 사회주의 기업소조직의 새로운 형태

김 철 식

오늘 우리 나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련합기업소형태의 대규모기업체들이 수많이 조직되여 경영활동을 진행하고있다.

우리 나라에 조직된 련합기업소는 우리 당이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사업을 개선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령도하는 과정에 창조한 또하나의 귀중한 결실이다.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는 그 조직형식과 관리운영방법에서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요한 단위로서 커다란 우월성과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설하신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의 본질적특성과 우월성을 깊이 파악하고 그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켜나가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　　　*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기업소조직형태를 끊임없이 개선완성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발전의 필수적요구이다.

사회주의경제제도의 확립은 경제관리분야에 남아있는 착취사회의 낡은 관계를 청산하는 하나의 혁명으로 되며 새로운 공산주의적기업관리체계를 세우는데서 커다란 전환점으로 된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당이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문화생활을 충분히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체계를 개선하며 기업소 조직형태와 운영방법을 더욱 완성하여 물질적부의 생산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기업소 조직형태와 운영방법을 개선완성하는것은 기업소의 경영활동과 전반적인 사회주의경제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경제건설단계에서 이 문제를 옳바로 해결하여야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재생산의 모든 고리들을 옳바로 련결하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경제발전의 일정한 단계에 련합기업소를 조직하여 운영하는것이 기업소 조직형태와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이러한 련합기업소들은 자기 나라의 경제발전의 구체적 실태와 조건에 맞게 조직되고 운영될 때만이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낼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구상하시고 창설하신 우리 나라의 련합기업소는 우리 식의 새로운 사회주의기업소조직형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우리 식의 련합기업소형태를 발기하시고 채취, 금속, 화학, 건설 부문에 련합기업소를 조직하시였으며 경제가 끊임없이 발전하는데 따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련합기업소를 널리 조직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련합기업소를 광범히

조직하고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경제를 관리운영해나가는 과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미 오래전에 밝혀주신 독창적인 련합기업소건설리론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주체적인 사회주의경제관리 체계와 방법을 더욱 완성해나가는 과정으로 된다.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는 무엇보다도 자체로 생산을 책임지며 창발성을 발휘하여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계획단위, 생산단위, 집행단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련합기업소는 기업소자체로 생산을 책임지고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해나갈수 있도록 조직하여야 합니다.》

자체로 생산을 조직진행할수 있도록 기업소조직형태를 개선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공장, 기업소들이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자체로 원료, 자재, 설비를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를 풀면서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진행하여야 사회적로동을 옳게 조직하고 생산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물론 생산에 필요한 모든 원료, 자재들을 다 자체로 해결할수 없지만 기본적인 원료, 자재, 설비를 독자적으로 해결한다면 생산기술적련계를 강화하여 생산장성속도를 더욱 높일수 있다.

자체로 생산을 조직진행하는 문제는 생산기술적련계가 밀접한 여러 공장, 기업소들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공장, 기업소들을 련합하여 대규모의 기업체를 창설하는것은 경영활동에서 기업소의 독자성과 창발성을 더욱 높이고 생산적련계를 더 잘 실현하여 생산과 건설을 적극 다그칠수 있게 하는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련합기업소를 자재보장사업과 협동생산조직, 수송조직을 잘하고 생산적련계를 강화하며 아래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지도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하는 원칙에서 지역단위로, 부문별로 련관된 공장, 기업소들을 망라하여 조직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설하신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는 계획을 자체로 세우는 계획단위, 생산을 직접 진행하는 생산단위, 경영활동을 자립적으로 진행하는 집행단위이다.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는 국가계획기관의 지도밑에 계획을 자체로 세우고 망라된 산하 공장, 기업소들에 그것을 분할하여주며 필요에 따라 국가계획에 기초하여 조절할뿐아니라 다른 공장, 기업소들과 경제거래를 진행한다.

자체의 자재상사를 가지고있는 련합기업소는 계획에 따라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자재를 직접 확보하며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무역회사들과의 계약을 통하여 필요한 원료, 자재, 부속품들을 해결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련합기업소는 련합체안에서 설비도 조절배치하며 국가계획의 범위에서 로력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조절하거나 일을 잘한 집단과 개인을 우대하고 잘하지 못한 집단과 개인에게는 물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함으로써 생산을 자극한다.

이와 함께 련합기업소수입으로 지출을 보상하고 련합기업소적으로 기금을 적립하며 그것으로 경영활동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아래 공장, 기업소들을 물질적으로 자극하는데 쓰며 은행에 돈자리를 가지고 재정활동을 하면서 산하 공장, 기업소들이 재정계획과 그에 따르는 자금을 융통성있게 조절한다.

이와 같이 련합기업소는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국가의 통일적지도밑에 계획을 자체로 세우는데 기초하여 생산을 책임지고 조직진행하며 련합기업소들사이에 계약을 맺고 생산활동을 창발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국가계획을 질량적으로 넘쳐수행할 의무를 지닌 계획단위, 생산단위, 집행단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설하

신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는 또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할수 있는 기업소조직형태이다.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구현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는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기본핵으로 하는 혁명적인 경제관리형태이다. 경제관리에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을 이루며 대안의 사업체계의 혁명성과 과학성을 규제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에서 당위원회는 최고지도기관이며 그 집체적지도밑에 련합기업소의 모든 경영활동이 진행된다.

집체적지도라는것은 광범한 군중의 창발성에 의거하여 그 지도기관 전체 성원들의 적극적인 참가밑에 모든 문제를 심의처리하며 모든 사람들의 능력과 재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킨다는것을 의미하며 어느 한 개인의 의견이나 주장에 의하여 사업이 독단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기업소의 범위가 방대해지고 경영활동이 더욱더 복잡해질수록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여야만 관리운영사업을 더욱더 개선해나갈수 있다.

우리 나라 공업관리체계에서는 련합기업소를 단위로 행정적지도와 당적지도를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더욱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련합기업소적인 공업생산과 기업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그에 따라 아래 공장, 기업소 당조직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움직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행한다.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의 당사업은 철저히 맡겨진 경제과업수행과 밀착된 산당사업으로 됨으로써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수 있게 되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하부지도를 보다 실속있게 함으로써 산하 공장, 기업소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 기능도 더 원만히 실현할수 있게 한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대안체계의 요구에 맞게 집체적기능을 강화할뿐아니라 경제지도관리에서 군중로선과 과학성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갈수 있게 한다.

련합기업소는 경제규모가 커진 조건에 맞게 중앙집권적지도와 민주주의를 옳게 결합시키며 경제지도를 아래에 접근시켜 지도와 대중을 밀접히 결합시켜나간다.

또한 경제지도와 관리를 아래에 접근시켜 생산실천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현실적인 지도를 하며 현대적생산의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기술지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경제관리에서 과학성을 철저히 보장할수 있게 한다.

이처럼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는 기업관리에서 집체적지도를 강화하고 군중로선과 과학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원만히 실현해나가는 기업소조직형태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설하신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는 또한 련합기업소와 그 아래의 모든 기업소들이 다 독립채산제원칙에서 경영활동의 결과를 평가하고 물질적자극을 실시하는 독립채산제경영단위이다.

독립채산제는 가치법칙을 형태적으로 리용하는 사회주의국영기업소의 계획적관리운영방법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영기업소들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야 하며 경제건설이 심화발전함에 따라 그것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독립채산제를 강화할데 대한 이러한 요구는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독립채산제에 철저히 구현되여왔다.

련합기업소독립채산제는 지금까지의 기업소독립채산제를 사회주의건설이 심

화된 현실에 맞게 발전시킨 새로운 형태이다.

련합기업소독립채산제는 련합기업소적으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산하기업소들이 독립채산제원칙에서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진행한다는데 그 중요한 특성이 있다.

련합기업소는 말그대로 독립채산제원칙에서 관리운영하는 개별적인 기업소들을 련합한 새로운 기업소조직형태로서 산하에 망라된 개별적기업소들의 경영활동상 상대적독자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련합기업소독립채산제에서는 그에 망라된 산하기업소들도 독립채산제원칙에서 경영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산하기업소들이 경영상 독자성을 가지고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것은 매개 개별적기업소들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 련합기업소의 전반적경영활동을 더 잘하기 위한것이다. 련합기업소가 하나의 경영단위로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기업소라고 말할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산하의 개별적기업소들이 또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관리운영되지 않는다면 련합기업소를 개별적인 기업소들의 련합이라고 말할수 없는것이다.

련합기업소와 산하 공장, 기업소들에서의 독립채산제실시, 이것은 독립채산제의 새로운 심화발전된 형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련합기업소창설에 관한 사상리론은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원칙을 가장 정확히 구현하여 경제지도를 아래에 접근시키고 지도일군들의 관료주의와 주관주의를 극복하며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경제과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하는 곧바른 길을 밝혀주고있다.

그것은 또한 대안의 사업체계와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의 요구에 맞게 계획화사업을 개선하고 자재공급사업과 수송조직을 바로함으로써 생산의 정상화를 확고히 담보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가져올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련합기업소창설에 관한 사상리론은 사회주의경제관리를 더욱 개선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나라의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는 우선 사회적 생산조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생산과정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열의와 창조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성과여부는 결국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어떻게 동원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55폐지)

생산의 주인은 근로인민대중이며 생산의 끊임없는 발전과 나라의 경제적위력은 근로대중의 창조력과 재능을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에 결정적으로 달려있다. 나라의 경제관리 체계와 방법을 완성해나가는데서 생산자대중의 창발성, 생산단위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은 위대한 주체사상과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적요구이다.

생산의 주인, 관리운영의 주인으로 된 생산자대중의 창발성은 일정한 사회적생산단위와 그에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보장되게 된다. 생산수단이 사회적 소유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생

산이 계획적으로 조직진행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지도가 강화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기업소의 경영상 독자성, 창발성을 무시하여도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사회주의계획경제는 독립채산제를 할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계획경제로 되여야지 내리먹이는 식으로 되여서는 안되는것이다. 생산이 국가적소유에 맞게 중앙집권적절차에서 조직진행되여야 한다는 측면만을 절대화하면서 기업소와 생산자대중의 창발성을 발양하는 측면을 무시하거나 차요시하게 되면 생산발전에 대한 국가적요구도 제대로 실현해나갈수 없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경영단위의 창발성이 높이 발양되고 그들의 생산 및 경영 활동이 잘되여야 생산발전에 대한 국가적요구도 원만히 보장될수 있다. 그런데 기업소집단의 책임성과 창발성은 국가와 기업소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가 하는데 따라 크게 좌우된다.

련합기업소가 사회적생산단위로 되는데 따라 국가는 오직 련합기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과제를 주고 련합기업소에 망라되는 개별적기업소들의 생산과 경영 활동은 련합기업소에 의하여 조직되게 된다. 이렇게 국가는 련합기업소를 대상하고 련합기업소가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산하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활동을 능동적으로 조직하게 되면 전반적생산체계의 독자적인 단위로서의 련합기업소의 경영활동이 활기를 띠게 되며 산하기업소들의 경영활동도 창발적으로 조직되게 된다. 련합기업소는 독자적인 생산 및 경영 단위로서 일정한 정도의 권한과 자기에게 부여된 생산재산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주면서 자기 집단과 생산자들의 리해관계도 더 잘 실현해나간다.

련합기업소를 조직하고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자체로 풀어나갈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것은 기업활동의 자유화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

생산자대중의 창발성,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성격에 맞는 생산단위의 독자성은 어디까지나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서의 창발성이며 전반적생산의 한 부분을 담당한 경영단위로서의 독자성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련합기업소를 조직하고 그들이 창발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면 근로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이 남김없이 발양되는 동시에 전인민적소유에 기초한 사회주의경제제도가 공고발전하게 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련합기업소를 조직하고 그에 부여하는 권한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생산단위로서의 련합기업소의 상대적독자성, 전국가적소유의 주인으로서의 생산집단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것은 련합기업소를 조직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정책이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국가가 직접적으로 대상하는 사회적생산단위로서의 련합기업소의 독자성과 창발성을 추동하는 우리 식의 독창적인 공업기업소건설정책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는 다음으로 생산단위들사이의 경제기술적련계를 원만히 실현하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한다.

우리 인민은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을 수많이 건설하여놓았으며 이 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려 은을 내게 하는것은 오늘 우리 나라 인민경제발전의 중요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련합기업소를 조직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정책에는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이러한 현실적요구를 원만히 실현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려는 원대한 구상이 담겨져있다.

나라의 경제토대가 비상히 강화된 오늘 생산조직을 잘하고 계획화사업과 자재공급사업, 수송조직을 개선한다면 경제건설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련합기업소를 계획단위로 하고 그가

국가앞에서 생산을 책임지게 하며 매개 련합기업소들이 직접 중앙자재총련합상사나 지구자재련합상사를 통하여 서로 계약을 맺고 원료, 자재를 해결하면서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하게 하는데 련합기업소조직의 주되는 특징이 있다.

련합기업소는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근본조건들을 풀어나감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칠수 있게 한다.

이미 마련해놓은 생산능력을 다 리용하여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시키는데서 선차적의의를 가지는것은 매개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는것이며 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원료, 연료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는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 관건적고리는 원료, 연료 문제의 해결에 있다. 생산의 정상화를 위한 원료, 연료 문제해결에서 새로운 원료생산기지를 꾸리고 그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생산 및 경영 단위를 크게 조직하여 지금 생산되고있는 원료, 자재를 전반적생산발전의 요구에 맞게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이 중요하다.

련합기업소의 조직은 원료, 자재 문제해결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준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련합기업소들이 생산기술적련계에 따르는 원료, 자재 해결의 충분한 조건을 고려하여 조직되였기때문이다. 제철소와 제강소, 화학비료공장과 비날론공장을 모체로 하는 련합기업소들에는 그에 필요한 쇠돌과 석회석, 무연탄을 생산하는 광산, 탄광들과 또 이 단위들의 생산정상화에 필요한 기술적수단들을 많이 해결할수 있는 여러 공장, 기업소들이 망라되여있다.

그리하여 경영활동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 설비 가운데서 련합기업소안의 공장, 기업소들 호상간에 해결할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지게 된다. 뿐만아니라 부문별 소속에 따르는 공장, 기업소 단위로 중요자재들이 세분되여 망탕 리용되던 현상이 극복되고 모든 중요자재들이 련합기업소단위의 기본제품생산에 효과적으로 쓰여지게 된다. 특히 련합기업소에 많은 권한이 부여되고 거기에 맡겨지는 생산기술적과제들이 많아짐에 따라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로 원천을 탐구동원하거나 련합기업소호상간에 계약을 맺고 해결할수 있는 원료, 자재의 몫이 늘어나게 된다. 이것은 련합기업소를 조직하는것이 사회적생산단위들의 창발성과 독자성을 높이 발양시켜 원료, 자재 문제를 련합기업소범위에서 풀고 또 련합기업소호상간의 계약관계를 통하여 풀어나가게 함으로써 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는 사회주의적협동생산발전의 현실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구현하며 생산과 건설을 다그칠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생산의 전문화가 빨리 추진되여 협동생산이 끊임없이 확대강화된다. 전문화의 발전은 기술적진보와 확대재생산의 발전을 다그치며 그에 따라 한편으로는 개별적인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규모가 더욱더 커지고 다른편으로는 그들사이의 기술경제적련계가 보다 밀접해지게 된다.

생산의 전문화는 협동생산을 전제로 하며 협동생산의 발전에 따라 전반적생산의 발전이 크게 좌우되게 된다. 사회주의적생산의 발전은 협동생산의 발전이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적극적인 균형과 조화로운 맞물림속에서만 전반적생산의 순조로운 발전이 이루어질수 있다.

그런데 세분되여있는 공장, 기업소들사이의 생산기술적련계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조건에서 국가적, 부문적, 지역적 범위의 협동생산을 과학적으로 조직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적생산에서는 가치법칙의 작용에 의하여 기업체들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가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지

만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에 기초한 사회주의적생산에서는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의 리용에 기초하여 목적의식적으로 설정되고 실현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협동생산을 과학적으로 조직하고 그것을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절실하게 나서는 문제는 협동품을 생산보장하는 생산 및 경영 단위를 옳게 조직하는것이다. 사회주의적협동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이 실현되는 사회적생산의 관리환절과 지도단위를 줄이는것이 필요하다. 지도단위가 세분되여있고 관리환절이 많을수록 전사회적인 협동생산에는 더 큰 지장을 주게 된다.

련합기업소의 조직은 사회주의적협동생산발전의 요구에 맞게 국가가 대상하는 사회적생산단위를 줄이고 중간다리를 없애는 획기적인 계기로 된다. 그것은 련합기업소조직의 본질적특성과 관련되여있다.

우리 나라에 조직된 련합기업소들은 그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가 다 경영상 독자성을 가진 여러 공장, 기업소들을 망라한 하나의 생산 및 경영 단위로 특징지어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설하신 련합기업소는 사회적생산조직의 기층단위를 강화하며 생산에 대한 지도에서 중간다리를 적게 하면서도 생산기술적련계를 강화하여 경제건설을 다그칠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련합기업소의 조직은 세분된 공장, 기업소들을 하나의 통일적인 생산 및 경영 단위로 통합함으로써 협동생산에서 발로될수 있는 개별적인 공장, 기업소들의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를 없애고 련합기업소범위에서의 협동생산과정을 가장 공고하고 정상적인 생산적관계로 전환시키게 하며 국가는 전반적생산에서 련합기업소와 련합기업소들사이의 협동생산을 과학적으로 맞물리고 힘있게 추동할수 있게 한다.

이처럼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는 사회주의적협동생산의 조직과 그 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구현한 가장 우월한 기업소조직형태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련합기업소를 조직할데 대한 정책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원칙의 근본요구에 맞게 나라의 경제관리 체계와 방법을 더욱 완성해나가기 위한 과학적인 정책이며 생산의 정상화와 협동생산의 발전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혁명적인 정책이다.

우리들은 새로운 사회적 생산 및 경영 단위로서의 련합기업소형태를 마련하시고 사회주의경제관리 체계와 방법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의 련합기업소건설정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주체의 경제관리체계를 더욱 발전완성시키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금속공업은 현시기 사회주의경제 건설의 주공전선

최 만 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 나서는 중심적인 문제들을 밝혀주시면서 금속공업에 힘을 집중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금속공업에 힘을 집중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는 철강재와 유색금속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 현시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고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금속공업을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틀어쥐고나가는 여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강화하고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금속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김일성저작집》 제12권, 487페지)

금속공업은 인민경제 여러 분야에서 가장 폭넓게 쓰이는 철강재와 유색금속을 생산해내는 기간적인 공업부문이다. 철강재와 유색금속을 많이 생산하여야 공업의 핵심인 기계제작공업을 발전시키고 확대재생산을 위한 기본건설을 다그칠수 있으며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킬수 있다. 사회주의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철강재와 유색금속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해서는 금속공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

금속공업에 힘을 집중하는것은 현시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사회주의경제는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계획적으로 발전하는 고도로 조직화된 경제이다. 사회주의경제의 이러한 특성에 맞게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자면 인민경제 부문들사이의 균형과 생산적련계를 잘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정확한 균형과 밀접한 생산적련계를 보장하지 않고서는 생산의 정상화에 대하여서도 인민경제의 계획적인 발전에 대하여서도 생각할수 없다.

모든것이 끊임없이 빨리 발전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다른 부문, 다른 단위에 비하여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부문과 단위들이 나타날수 있으며 부문들사이의 균형과 생산소비적련계에서 일정하게 변화가 생길수 있다.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합리적인 균형과 밀접한 생산소비적련계를 계속 보장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경제건설에서 변화되는 과정을 정확히 포착하고 제때에 주동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이 높은 단계에서 진행되고있는 오늘 우리 나라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는 더 많은 기계와 설비, 원료, 자재를 요구하고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균형과 생산소비적련계를 맺어줄것을 절박한 문제로 제기하고있다. 경제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인민경제 부문들사이의 능력상 균형과 서로 주고받는 생산수단의 현물량적인 관계를 옳게 맞물리지 못하면 전인민경제적으로 막대한 사회적로동의 랑비를 가져오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없게 된다.

현시기 전반적인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계속 정상화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이 중요한 문제는 금속공업에 힘을 집중하여야 보다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금속공업에 힘을 넣어 철강재와 유색금속을 많이 생산해내면 금속공업과 기계제작공업사이의 균형과 생산적련계가 정확히 유지되고 철도운수와 채취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요구하는 여러가지 기계설비의 생산이 훨씬 늘어나게 된다. 그리하여 경제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변화되는 전반적인 인민경제 부문들사이의 생산능력상 균형을 제때에 바로잡고 그것을 계속 확고히 유지할수 있게 된다. 금속자재생산이 늘어나 인민경제 부문들사이의 생산능력상 균형이 잘 유지될수록 서로 련관된 부문들사이에 경영활동에 필요한 생산수단들을 현물량적으로 더 잘 보장해줄수 있다. 이것은 금속공업에 힘을 넣어 금속자재생산을 늘이는것이 인민경제 부문들사이의 생산능력상 균형과 생산소비적련계를 정확히 보장하여 사회적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금속공업에 힘을 집중하는것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빨리 높여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오늘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은 전례없이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이 선진기술로 튼튼히 장비되였으며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에 의거하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경제의 기술장비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미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지만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계속 높은 속도로 다그치려면 최신과학의 성과에 기초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보다 발전된 기계기술의 토대우에 끊임없이 올려세워야 한다. 당이 제시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로선을 관철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축성하는 문제도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여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를 앞당기는 문제도 결국은 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더욱 높이는데는 현대적인 기계설비와 전자 및 자동화 기구, 요소를 비롯한 발전된 기술수단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의 생산에 필요한 금속자재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금속공업을 발전시키는데 있다. 금속공업에 힘을 집중하여 그 생산능력을 높이고 원료와 연료, 자재를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합금강과 특수강, 경금속, 희유금속, 순금속을 비롯한 질좋고 다양한 금속자재와 규격소재들을 많이 생산할수 있으며 그것으로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대대적으로 만들어낼수 있다. 그리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뒤떨어진 기술을 선진기술로 개조하고 생산의 종합적기계화, 자동화, 원격조종화를 널리 실현하며 생산과 경영 활동을 새로운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우는데 필요한 기술수단들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이처럼 금속공업에 힘을 집중하는것은 철강재와 유색금속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우리앞에 나서는 방대한 경제건설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로 된다.

우리 당은 금속자재의 생산이 인민경제발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일찌기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다.》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금속공업을 주체공업의 기둥으로 내세웠으며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철강재와 유색금속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자체로

생산보장하는 현대적인 자립적금속공업을 창설하고 발전시키는 정책을 시종일관 견지하여왔다.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지난날 주로 얼마 안되는 선철과 조금속이나 겨우 생산하던 우리 나라 금속공업이 오늘은 강철과 압연강재, 2차금속가공제품과 유색금속압연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생산공정을 그쯘히 갖추고 자체의 자원에 의거하여 끊임없이 발전하는 위력한 금속공업으로 강화발전되였다. 해방전 인구 한사람당 철을 불과 얼마밖에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전후복구건설시기에는 강재 1만톤 증산을 그처럼 어려운 문제로 여기던 우리 나라가 오늘은 강철과 유색금속 생산에서 지난 시기에 비할바없는 높은 수준에 올라섰으며 1980년대의 웅대한 강철고지, 유색금속고지와 같은 방대한 목표들을 내세우고 그 점령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나가게 되였다.

매우 짧은 기간에 금속공업발전에서 이룩된 이 위대한 전변과 빛나는 성과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금속공업발전을 위한 가장 정확한 정책을 제시하고 그 실현에로 우리 인민을 곧바로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 당은 끊임없이 늘어나는 금속자재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미 있던 금속공장들을 개건확장하고 새로운 제철, 제강, 제련, 압연 기지들을 꾸리는데 큰 힘을 넣어왔다. 우리 당은 특히 사회주의경제건설이 높은 단계에 올라선 1980년대에는 강철전사들이 《80년대속도》창조투쟁의 첫 봉화를 추켜들고 맨앞장에서 나가도록 이끌어주었으며 최근에는 또다시 금속공업부문에서 새로운 생산적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호소하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의 강철고지와 유색금속고지는 물론 다른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의 성과여부도 구경에는 금속공업에 힘을 집중할데 대한 당의 정책을 어떻게 관철해나가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우리는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철강재와 유색금속 생산을 보다 획기적으로 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특히 금속공업을 추켜세우는데 력량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철강재와 유색금속 생산에서 새로운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기본과업은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금속공업을 주체화하는것은 자립적인 금속공업을 건설하여 금속제품생산을 높이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자립적인 금속공업이란 자체의 원료, 연료자원에 의거하여 흑색 및 유색 금속생산이 다같이 발전하며 광물원료의 가공으로부터 완제품생산에 이르는 모든 생산공정을 다 갖춘 위력한 금속공업을 말한다. 이러한 금속공업이라야 그 어떤 불리한 환경에서도 언제나 금속자재를 안전하게, 주동적으로 생산해낼수 있으며 여러가지 철강재와 유색금속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인민경제의 다방면적인 발전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금속공업의 주체화에서 기본은 우리 나라 연료에 의한 주체적인 철생산방법을 더욱 발전시키는것이다. 철강재생산을 계속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문제도 금속공업의 당면한 발전과 장래전망문제도 우리 식의 철생산방법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달려있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이 기본문제를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 풍부한 합금원소에 의거하여 합금강생산을 발전시키는것은 제강공업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강철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는 합금철생산을 발전시켜 그 품종과

규격을 다양화하고 질을 높이는 한편 강종체계를 우리 나라에 많은 합금원소를 기본으로 하는 체계로 전환하며 특히 저합금구조용 강생산의 발전에 힘을 넣어 귀중한 합금원소를 절약하면서도 합금강생산을 빨리 늘이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건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과학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는데 따라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요구되는 철강재와 유색금속자재의 종류는 헤아릴수 없이 많아졌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일부 생산공정들을 보충완비하여 제철, 제강, 압연 공정들사이의 균형을 더 잘 보장하고 2차금속가공제품생산기지를 강화하며 유색금속압연기지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 그리하여 금속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여러가지 흑색 및 유색 금속자재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자체의 힘으로 보다 훌륭히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철강재와 유색금속 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우선 원료와 연료, 자재를 충분히 보장해주는것이다.

원료와 연료, 자재는 인민경제 어느 부문에나 다같이 잘 보장하여야 하지만 금속공업부문의 경우에는 특별히 중요하다. 금속공업은 그 생산기술적특성과 규모의 방대성으로 하여 다른 부문보다 원료와 연료, 자재의 소비량이 매우 많으며 이 부문에서 생산하는 금속자재는 인민경제 어느 부문에서나 다 리용하게 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금속공업부문에 품위높은 정광과 석탄, 석회석, 내화물, 전기와 같은 여러가지 원료, 연료, 자재, 동력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는 원칙에서 계획화사업으로부터 보장사업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업을 빈틈없이 맞물리며 생산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기동성있게 풀어주어야 한다. 특히 공업의 생명선을 지켜선 안주, 무산, 검덕 지구의 탄광, 광산을 비롯한 모든 탄광, 광산들에서 박토와 굴진을 앞세우고 다량채굴, 다량처리하여 석탄과 정광을 금속공장들에 더 많이 보장해주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야 한다. 수송부문에서는 집중수송과 련대수송, 삼화수송을 강화하여 원료와 연료, 자재를 생산해내는족족 제때에 날라줌으로써 금속공장들에서 생산을 계속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금속공장들에서는 절약투쟁을 적극 벌려 원료와 연료, 자재의 예비를 더 많이 조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금속공업부문에 원료와 연료, 자재를 넉넉히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이 부문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금속생산과 관련한 사업이라면 네일내일 가리지 말고 적극 도와주며 온 나라가 강철생산의 중요한 원료인 파철을 많이 모아 금속공장들에 보내주도록 하여야 한다.

철강재와 유색금속 생산을 늘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금속공업부문에서 설비관리를 잘하는것이다.

금속생산은 높은 열과 복잡한 물리화학적반응과정속에서 진행된다. 때문에 야금로를 비롯한 거의 모든 설비들이 다른 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빨리 마모되고 수명이 짧아지게 된다. 금속생산과 설비의 이러한 특성은 그에 맞게 설비관리를 더 잘할것을 요구한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용광로와 제강로를 비롯한 야금설비들에 대한 설비관리체계를 바로세워 일상적인 정비점검을 강화하고 계획적인 보수를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모든 설비들에는 그 기술공학적요구에 따라 관리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규정들이 제정되여있다. 이 규정들을 잘 지켜야 설비의 성능을 정상상태로 유지할수 있으며 제품의 질도 높일수 있다. 금속공업부문의 경제지도일군들은 설비관리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며 당면한 생산에만 치중하면서 설비를 혹사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강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모든 금속생산자들은 주인다운 립장에서 자기 맡

운 설비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엄격히 지켜 야금설비들이 언제나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능력을 다 내게 하여야 한다.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금속생산을 늘이며 그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금속자재를 생산해내는데는 석탄, 중유, 전력을 비롯한 방대한 규모의 열자원과 동력자원이 소비되며 여러가지 금속 및 비금속 물질들이 첨가된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쓰는 철강재와 유색금속자재의 재질, 규격이 다종다양해지고 그 질적요구도 매우 높아졌다. 그러므로 금속공업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리는것은 제품의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고 경제건설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재질의 규격강재와 유색금속자재를 많이 생산해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 오늘 금속생산을 더 높이고 그 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한 가장 큰 예비는 바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 있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기술혁신운동에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을 적극 참가시키며 생산공정에 새 기술을 널리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벌려 기술경제적지표들을 갱신하고 페열을 모조리 회수하여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야금로들의 내용적당 생산성을 더욱 높이고 철강재와 유색금속의 톤당 에네르기소비기준을 극력 낮춤으로써 같은 량의 원료와 연료, 동력, 자재로 더 많은 금속을 생산해내야 한다. 강재와 유색금속자재의 질을 조금만 더 높이고 규격을 다양화하기만 하면 기계설비를 경량화하면서도 든든하게 만들수 있으며 막대한 량의 금속자재를 절약하여 국가에 큰 리익을 줄수 있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기술공정을 더욱 개조하고 압연열을 리용하여 고강도강을 생산하는것과 같은 선진적인 생산방법들을 널리 받아들여 다종다양한 압연강재와 2차금속제품, 유색금속자재를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하게 벌려나가야 한다.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금속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면 주인인 이 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당과 국가 앞에서 철강재와 유색금속 생산을 책임진 주인은 다름아닌 이 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다. 금속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현시기 금속공업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내세우고 여기에 전당적, 전국가적 힘을 집중해주는 당의 의도를 깊이 깨닫고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의 영웅적강철전사들이 발휘했던 그 열정과 투지로 또다시 앞장에 서서 철강재와 유색금속 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금속공업부문의 경제지도일군들은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에게 나라의 금속생산을 담당한 주인이라는 자각을 더 깊이 심어주며 예비를 남김없이 탐구동원하고 있는것으로 더 많이 생산하도록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듦으로써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실질적인 생산성과로 확고히 전환시켜야 한다. 특히 생산과 경영 단위들이 커진 현실적조건에 맞게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더욱 개선하여 철강재와 유색금속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고 련합기업소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금속공업부문의 모든 생산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진펄길을 걷는 정신으로 제기되는 난관을 맞받아뚫고나가며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앞에 맡겨진 철강재와 유색금속 생산계획을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로, 현물지표별로 무조건 수행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금속공업에 힘을 집중할데 대한 당의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철강재와 유색금속 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쉼없이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개를 다시한번 힘차게 떨쳐야 할것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립장

전 금 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숙망이며 우리 당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혁명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우리 인민의 요구와 세계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144페지)

민족의 숙원인 나라의 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이 문제는 누구도 우리를 대신하여 해결할수 없으며 오직 우리 북남인민들이 주인이 되여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의 기초우에서 평화적으로 풀어야 한다.

우리 당은 이러한 원칙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세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려는 확고부동한 결의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위한 가장 정확한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고 시종일관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대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갈라진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주동적으로 대화의 길을 모색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어느 한 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력사적인 구호물자인도인수사업을 계기로 북과 남사이에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리고 오늘 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 그리고 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과 같은 여러 갈래의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것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 당의 일관한 립장의 뚜렷한 표시로 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것은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의 특성과 관련된다.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는 일시적으로 갈라진 국토와 민족이 다시 합치는 우리 민족의 내부문제, 내정문제이다.

우리 민족은 오랜 력사를 두고 한강토에서 하나의 언어, 하나의 혈통을 이어온 단일한 민족이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분렬은 제2차세계대전후 비법적인 미제의 남조선강점에 의하여 산생된것이다. 만일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분렬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민족은 둘로 갈라지지 않았을것이며 애당초 조국통일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을것이다.

우리는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전패국도 아니며 우리 인민은 누구도 외세의 간섭을 요구한 일이 없다. 우리 나라는 응당 조국광복과 함께 하나의 자주독립국가로 되였어야 할것이였다. 우리 인민은 누구도 북과 남으로 갈라져 살기를 바라지 않으며 서로 싸우기를 원치 않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반공대결이 고창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예속화정책에 기인하고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간섭을 종식시키는 문제에 귀결되며 그것은 곧 북남인민들의 지향과 념원대로 본의아니게 일시적으로 갈라졌던 국토와 민족을 다시 하나로 합치는 민족내부문제로 된다.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북남인민의 공동의 념원을 실현하는 민족내부문제를 외세를 개입시켜 해결할수 없으며 더우기 동족끼리 싸우는 방법으로 해결할수도 없다.

민족내부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그 민족의 념원과 리익에 맞게 민족테두리안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갈라진 조국을 통일해야 하는것은 또한 그것이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7.4남북공동성명에 밝혀져있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북과 남이 공동으로 확인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민족공동의 유일한 통일강령이다.

자주적립장은 조국통일문제해결의 초석을 이루는 근본립장이다. 모든 민족내부문제해결에서 결정적요인이 그 나라 인민의 주체적력량인것만큼 조국통일문제해결에서도 결정적요인은 오직 조선인민자신이다. 조선인민은 조국통일문제해결의 주인이며 결정적력량이다.

그 어떤 외세도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절박하게 내세우고 그것을 풀기 위하여 애쓰지 않으며 또 풀수도 없는것이다. 분렬의 장본인인 미제는 분렬의 영구화를 추구할뿐이다.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고통을 직접 맛보고 조국통일문제에 사활적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 주인인 북과 남이 한자리에 마주앉으면 공동의 념원인 통일문제를 자체로 풀기 위한 욕망도 생기고 지름길도 마련할수 있다.

더우기 굶어진 민족의 뉴대를 다시 잇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조선사람들사이에 전쟁을 해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우리 인민은 누구도 전쟁을 바라지 않으며 전쟁에서 리득볼 조선인민은 북과 남 그 어디에도 없다. 북과 남사이에 사상과 리념, 제도상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민족내란의 근원으로 될수 없다.

우리 당은 전쟁의 재더미를 헤치고 땀흘려 창조한 모든 귀중한 재부를 대를 이어 보존하며 후대들에게 더 살기 좋은 락원을 마련해주기 위해 건설을 다그치고있다. 우리 조선인민은 이제 다시는 미제침략자들에게 롱락되여 전쟁의 희생물이 되여서는 안되며 우리의 신성한 조국땅이 핵전쟁마당으로 되는것을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 무엇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재난만을 가져다주고 력사자체를 후퇴시키는 전쟁을 무분별하게 감행하겠는가. 우리는 반드시 나라의 통일문제를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 유일한 방도는 관계당사자들이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는것이다. 조선의 통일문제에 관련이 있는 당사자들이 마주앉아 진지하게 대화를 하면 합리적인 해결방도를 찾을수 있고 조국통일의 3대원칙의 요구대로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전민족의 생사존망과 관련되는 문제로서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투쟁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온 민족이 하나의 목적에 기초하여 굳게 단결하지 않고서는 조국통일을 한사코 반대하는 내외분렬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성과적으로 투쟁할수 없으며 각계각층의 모든 인민들이 조국통일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없다. 우리 민족은 그가 북과 남의 어느 지역에 있건, 해외에 있건 상관없이 사상과 리념, 제도와 신앙을 초월하여 일치단결할 때에만 외세의 어떠한 간섭도 단호히 배격하고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다. 지금 사회제도가 서로 다른 나라와 민족들도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힘을 합치는데 하물며 한피줄을 이어받은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단결하지 못할 리유란 있을수 없다. 우리 조선인민은 단일민족으로서 남달리 민족성이 강할뿐아니라

극소수의 매국배족의 무리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다 나라와 민족이 하루빨리 통일될것을 한결같이 갈망하고있다. 그렇다고 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의 거족적동원은 스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로 마주앉아 의사를 소통해야 모든 동포들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뒤로 미루고 민족적리념에 기초하여 공통점을 찾을수 있고 전민족적단합을 이룩할수 있다.

대화와 협상은 바로 갈라진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 전민족의 거족적동원을 실현할수 있게 해준다.

이처럼 대화와 협상은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의 요구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는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야 하는것은 현 국제정세발전의 요구이기도 하다.

다른 나라 령토에 있는 모든 외국군사기지와 침략군대를 철거시키고 세계 이르는곳마다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여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려 하고있는것은 현 국제정세발전의 기본추이이다.

최근 제네바에서 있은 쏘미수뇌자들의 상봉에서는 쌍방사이에 핵전쟁이건 재래식전쟁이건 그 어떤 전쟁도 하지 않을뿐아니라 우주에서 군비경쟁을 방지하고 지구에서 군비경쟁을 중지하며 핵무기를 제한축감하고 전략적인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회담을 다그칠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이것은 반핵평화운동이 도처에서 벌어지고있는 현시대의 흐름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쏘미수뇌자상봉에서 합의된 문제들은 하루빨리 실천에 옮겨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조선반도에서 시급히 구현되여야 한다. 오늘 조선반도의 남쪽은 1,000여개의 각종 핵무기가 배치되여있는 가장 위험한 핵전쟁의 발원지로 되고있으며 이것은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그들은 우리 조선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이며 세계평화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의 위험을 막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이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있다. 지금 우리 나라 정당, 사회단체들은 반핵평화를 지향하는 현시대의 흐름에 맞게 남조선에서 핵무기를 철거시키기 위한 거족적인 운동을 벌릴것을 호소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핵전쟁을 비롯한 온갖 전쟁의 위험, 그 근원을 제거하고 평화를 보장하자면 미제를 남조선에서 철거시키며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해야 한다. 이 문제는 실제적당사자들의 합의밑에 실현될수 있으며 그 합의는 대화무대를 통하여 이루어질수 있다. 실제적당사자들이 마주앉아 대화를 하면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합의점을 모색해나갈수 있다. 이것은 대화와 협상이 세계인민들과의 련대속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하는 합리적인 방도라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이와 같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갈라진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 당의 립장은 민족내부문제인 우리 나라 통일문제 그자체의 특성과 북과 남이 공동으로 확인한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그리고 현 국제정세발전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립장인것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의 길을 개척하고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겨나가기 위하여 꾸준하고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할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습니다.》

(《일본 정치리론잡지 〈세까이〉 편집국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단행본, 4폐지)

국토와 민족이 분렬된 이후 오늘에 이르는 기간 우리는 북과 남사이에 대

화와 협상을 마련하고 갈라진 조국통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북과 남사이의 대화의 길을 넓히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내놓은 제안만 해도 무려 200여차례나 된다. 이 제안들에는 남조선에서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남북련방제의 실시, 군비축소와 경제, 문화 교류 등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는데서 가능한 모든 방도들이 다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1년 8월 6일에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북과 남의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개별적인사들이 서로 만나 협상할데 대하여 제시하신 폭넓은 협상방침은 굳게 닫혔던 북과 남사이의 대화의 문을 여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폭넓은 협상방침에 따라 북과 남사이에는 고위급정치회담이 마련되고 이 과정에 우리 당의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한 력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게 되였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실현되고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일보전진이였으며 이것을 계기로 전민족적범위에서 조국통일기운이 급격히 높아지게 되였다.

그러나 이에 겁을 먹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민족분렬책동과 매국배족적책동을 로골화함으로써 북과 남의 대화는 순조롭게 진행될수 없었다.

우리 당은 대화가 중단된 이후에도 거듭 평화적제안들을 내놓고 회담분위기를 주동적으로 조성하면서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대책을 다 취하였다.

대화를 마련하기 위한 우리의 꾸준하고 성의있는 노력과 실제적조치들은 내외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불러일으켰으며 남조선위정자들도 우리의 거듭되는 대화제의에 응해나오지 않을수 없었다.

1979년에 폭넓은 협상형식으로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내오기 위한 북과 남의 련락대표들의 접촉이 마련된 사실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이때에도 미제에게 추종하여 당치않은 구실을 정면에 내세우면서 대화를 일방적으로 파탄시키고말았다.

1979년 10월 남조선에서 박정희역적이 사살되고 복잡한 정세가 조성되였을 때에도 우리는 남조선과 해외에 있는 책임적인 정치인들과 각계인사들에게 편지를 보내여 합작, 단결, 통일로 민족의 출로를 열어나갈것을 호소하고 다각적인 접촉을 가질것을 제의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우리의 이 발기에 의하여 마침내 북과 남사이의 다각적인 접촉의 일환으로 1980년 2월 쌍방총리접촉을 위한 실무대표들의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였다. 그러나 이 실무대표접촉도 역시 남조선군사파쑈악당의 피비린내나는 광주대학살만행으로 더 진전을 보지 못하고 결렬되고말았다.

광주의 피바다우에 군림한 남조선군사파쑈악당은 미제의 《두개 조선》 정책에 더욱더 추종하여 우리 나라에 새 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왔다.

우리 당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에 의해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있는 정세의 요구를 통찰하고 1984년 1월 이 문제해결에 책임이 있는 우리와 미국과의 회담에 남조선당국도 참가하는 3자회담을 열데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우리와 미국사이의 지금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는 한편 북과 남사이에서도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말고 군비와 군대를 대폭축소할데 대한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는 우리의 3자회담제안은 긴장한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공명정대한 제안이다.

우리의 이 3자회담제안이 세상에 발

표되자마자 내외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그것이 오늘도 세계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는것은 우리가 제기한 방안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3자회담제의에 공식적인 대답을 회피하면서 긍정적호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힘》의 대결로 맞서나서고있다.

3자회담을 통하여 조선의 평화를 수호하고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겨나가려는 우리 당의 립장은 오늘도 확고하며 우리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을것이다.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당의 중단없는 투쟁속에서 1984년 9월 남조선수재민들에게 보내는 우리의 구호물자가 전달된것은 북과 남의 대화와 협상을 마련하는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다. 실지로 구호물자인도인수사업은 북남인민들의 뜨거운 동포애의 정이 이어지는 과정이였고 불신과 대결이 아니라 화해와 단합을 바라며 분렬이 아니라 통일을 그리는 겨레의 뜻이 모아지고 마음이 합쳐지는 단합과정이였다.

력사적인 우리의 구호물자전달사업을 계기로 북과 남사이에는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리고 12년만에 적십자회담이 재개되였으며 분렬 40년만에 처음으로 경제회담이 개최되고 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이 마련되여 다각적인 회담을 계속해나가고있다.

우리의 성의있는 진지한 노력에 의하여 좋은 출발을 하고있는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은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할수 있는 긍정적인 사태발전으로 된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민족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남대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지금 진행되고있는 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이 좋은 결실을 가져오게 할뿐아니라 국회회담을 빨리 성사시키며 나아가서 북과 남의 최고위급회담도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입니다.》(《신년사》, 1986년, 단행본, 9페지)

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은 합의서를 채택하는 단계에 와서 남측의 불성실한 립장으로 말미암아 아직 최종적인 결실을 보지 못하고있으나 우리는 이 회담들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하여 성의를 다할것이다.

북남국회회담은 북과 남의 각계층 인민들과 정당, 사회단체들의 광범한 의사를 모을수 있고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며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효과적인 대책을 취할수 있는 권위있는 정치회담으로서 현시기 국난타개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데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화방식으로 된다. 북남국회회담이 실현되면 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에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될것이며 나아가서 최고위급회담도 마련되게 될것이다.

지금 북남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은 남측의 부당한 립장때문에 부진상태에 있으나 우리는 국회회담을 하루빨리 성사시키기 위하여 아량과 인내심을 다할것이다. 조선의 평화와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방침과 노력은 갈라진 조국을 반드시 우리 대에 통일할데 대한 우리 당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으로서 민족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문제해결의 리정표로,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을 자주, 민족대단결, 평화통일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고무적기치로 된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광범한 지지와 련대 속에서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애국애족적발기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실현될수 없으며 북과 남이 다같이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한 립장에서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림할때 진전될수 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말로만 대화와 평화에 대하여 떠들면서 실지로는 미제의 《두개 조선》 정책에 추종하여 《교차승인》과 《교차접촉》, 《유엔동시가입》, 《유엔단독가입》을 꿈꾸고있으며 대화를 저들의 《정권》안정과 1988년올림픽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리용하려 하고있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는 분렬을 고정화하기 위한 대화로 되여서는 안되며 오직 통일을 위한 대화로 되여야 한다.

통일을 위한 대화는 철저히 7.4남북공동성명에 밝혀져있는대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되여야 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진심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가 거듭 제기하는 평화통일에 대한 발기들을 존중하여야 하며 성의와 아량을 가지고 문제토의에서 차이점을 좁히고 공통점을 찾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해야 할것이다.

북과 남사이에 대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려면 대화에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긴장상태가 격화되고 전쟁의 검은 구름이 떠도는데서는 마음놓고 대화를 할수 없으며 대화를 하여도 좋은 성과를 거둘수 없다. 이것은 지난 시기의 대화의 경험이 잘 보여주고있다.

지금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전쟁열을 올리면서 그것을 《남침》위협을 막기 위한것이라고 떠드는데 그것은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 허구이며 날조이다.

우리에게는 《남침》할 의사도 없고 《남침》할 능력도 없다.

《남침》은 과거에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을것이다. 우리는 《남침》하려 하지 않을뿐아니라 남조선을 《적화》하려 하지 않는다는것을 이미 여러차례 천명하였다. 우리 당은 당 제6차대회에서 평화통일의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서 북과 남의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련방공화국을 창립할데 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내놓았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입버릇처럼 《남침》위협에 대하여 운운하는것은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합리화하고 조선반도의 긴장상태의 진짜근원을 가리우며 파쑈화와 전쟁준비를 다그쳐 《정권위기》를 수습하고 장기집권을 위한 지반을 구축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북과 남은 더 이상 서로 대결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의 민족으로서, 친혈육으로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통일을 위한 민족공동의 리정표를 향하여 나가야 한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대화와 평화에 대한 구호가 가짜가 아니라면 더는 어느 한때도 있어본적이 없고 또 있을수 없는 《남침》을 운운하지 말아야 할것이며 《팀 스피리트 86》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전쟁연습소동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려면 또한 대화상대방을 비방중상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가 보장되여야 한다. 그래야 북과 남이 서로 흉금을 털어놓고 대화를 할수 있으며 전체 조선인민이 다같이 통일문제해결에 참가할수 있다.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은 시대착오적인 《두개 조선》책동을 버리고 우리의 제의대로 3자회담과 국회본회담에 응해나서야 하며 여러 갈래의 회담들을 성과적으로 진전시킴으로써 최고위급회담이 마련될수 있도록 옳바른 대화자세로 돌아서야 한다.

우리 인민과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은 남측의 태도를 지켜보고있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북남국회회담과 3자회담을 실현하고 모든 회담들의 문제토의에서 실질적인 전진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이며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것이다.

자주, 친선, 평화는 우리 당 대외정책의 기본리념

정 동 욱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을 대외정책과 대외활동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빛나게 구현해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리념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은 국제관계분야에서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빛나는 승리와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나라의 국제적 권위와 위신은 날을 따라 더욱 높아지고있다.

우리 당이 대외관계분야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확증으로 된다.

자주, 친선, 평화는 우리 당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 친선, 평화, 이것은 자주적이고 친선적이며 평화적인 새세계를 건설하려는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공통된 념원과 지향을 반영한것이며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대외활동원칙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3권, 270페지)

로동계급의 당이 대외관계분야에서 어떤 리념을 내세우는가 하는것은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혁명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다같이 잘 수행해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로동계급의 당은 대외관계에서 옳바른 리념을 내세우고 철저히 구현하여야 대외정책과 대외활동에서 편향없이 승리의 한길을 걸어나갈수 있으며 자기 나라 혁명발전에 보다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고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으며 세계혁명의 전반적발전에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옳바른 대외정책리념을 내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은 조선혁명의 근본리익을 철저히 수호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파탄시키고 세계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기본으로 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대외정책적리념이다.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은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우리 혁명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철거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할 어렵고도 복잡한 과업을 수행하고있다.

이 중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는 한편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분쇄하고 세계 혁명적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여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조선반도에 조성되고있는 정세는 우

러 인민이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혁명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 대렬을 더 많이 늘여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혁명위업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들을 많이 쟁취할수록 조선혁명의 국제적환경은 더욱 유리해지게 된다.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은 거기에 담겨져있는 숭고한 지향과 요구로 하여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의 단결과 협조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나라의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위업에 보다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할수 있게 한다.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은 우리 시대와 세계인민들의 념원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이다.

우리 시대는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의사와 요구에 맞게 력사를 전진시켜나가는 자주성의 시대이다.

자주성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이 날로 높아가고있는 우리 시대에 와서 세계대다수의 나라들과 민족들은 크고작은데 관계없이 자주성과 평등의 원칙에서 국가관계를 맺고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며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단결하여 침략과 예속이 없는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여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은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이러한 공통된 념원과 지향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시대의 가장 옳바른 대외정책적리념으로 되며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대외활동원칙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의 대외정책과 대외활동분야에 빛나게 구현되고있으며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정세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확한 대외정책을 내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383～384페지)

우리 당은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려 대외관계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대외관계와 대외활동에서 자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나감으로써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비할바없이 높이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고있다.

한 나라의 국제적권위와 민족적존엄을 응당한 높이에서 보장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그 나라가 대외관계와 대외활동에서 자주권을 어떻게 견지하고 행사하는가 하는데 따라 좌우된다. 당과 국가의 자주권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은 나라의 존엄을 지키고 대외활동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들과 대외관계를 맺고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언제나 자주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자주권이 모든 나라와 민족의 신성한 권리이며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평등하고 자주적이여야 한다는 원칙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큰 나라이건 작은 나라이건 할것없이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나라들과는 친선협조관계를 적극 발전시켰다. 한편 우리의 자주권을 모독하거나 침해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것을 단호히 반대배격하였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할것을 다른 나라들에 요구할뿐아니라 다른 나라의 자주권에 대해서도 존중해주고 그들과의 관계를 참다운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여왔다.

우리 당은 대외정책을 수립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그것을 관철하는 대외활동의 전과정이 철두철미 자주성의 원

칙으로 일관되게 하였다.

대외관계분야에서 자주성의 원칙을 견지하고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자주성에 기초하여 세계적범위에서 혁명력량의 단합을 이룩하려는 우리 당의 일관한 립장과 노력은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열렬한 호응과 지지를 받고있다.

우리 당이 대외정책과 대외활동에서 자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는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고있다.

오늘 광범한 세계인민들은 우리 나라를 《주체의 조국》으로 높이 칭송하고있으며 우리 공화국을 존엄있게 대하고 우리 나라와의 관계를 좋게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날을 따라 더욱더 많은 외국의 벗들이 우리 나라를 찾아오고있으며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 인민이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고귀한 경험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있다.

참으로 우리 공화국은 대외정책과 대외활동에서 자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존엄있는 자주독립국가로서의 당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세계의 정치와 국제관계발전에 더욱더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였다.

우리 당은 다음으로 친선의 리념을 빛나게 구현하여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해나가고있다.

세계인민들과의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고 그들과의 련대성을 튼튼히 하는것은 우리 혁명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할뿐아니라 전반적세계혁명운동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우선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단결과 협조를 강화발전시키는것은 대외활동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확고하게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원칙이다.

대외관계분야에서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여야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에 대한 사회주의나라과 인민들의 지지성원을 강화하고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굳건히 할수 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과 단결,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왔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와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비할바없이 강화발전되고있다.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1982년 9월에 있은 중국방문과 1984년에 있은 쏘련 및 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친선방문 그리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1983년 6월의 중국방문은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의 뉴대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이것은 사회주의력량의 통일단결과 위력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전환점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정력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선 우리 나라와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날과 더불어 더욱 공고화되고 강화발전되여나갈것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자주력량이며 인류력사를 전진시키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은 세계혁명발전에서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옳게 평가하고 언제나 이 나라들의 혁명투쟁을 지지하는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있으며 쁠럭불

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원칙적인 방도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쁠럭불가담나라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오늘 쁠럭불가담운동은 이 운동을 분렬, 리간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면서 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있으며 인류력사를 전진시켜나가는 추동력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고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지난날의 처지와 오늘의 지향의 공통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의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으며 그들의 새 사회건설도 성의껏 도와주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와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 사이에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친선협조관계가 날로 강화되고있다.

우리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나라들과도 경제문화적교류를 하고있으며 그 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있다.

대외활동에서 친선의 리념이 구현됨으로써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이 날로 강화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는 련대성의 목소리가 세계적판도에서 힘차게 울려나오고있다.

지난해만 하여도 반미공동투쟁월간이 국제적규모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앙골라의 수도 루안다에서 진행된 쁠럭불가담국가외무상회의와 쏘련의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제12차세계청년학생축전 등 수많은 국제 회의들과 행사들에서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지난해 유엔총회연단에서는 수십개나라 대표들이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남조선에서 감행하고있는 침략과 전쟁 책동을 준렬히 단죄하고 미제가 남조선에서 물러갈것을 요구하였다.

지금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커다란 관심을 표시하면서 조선문제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제기한 조국통일방안대로 해결되여야 한다고 일치하게 주장하고있다.

모든 사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우리 당의 정확한 대외정책에 의하여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으며 이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에 대한 커다란 고무로 된다.

우리 당은 또한 평화의 리념밑에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제국주의의 멸망을 촉진시키며 침략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공동위업에 적극 기여하고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세계제패의 야망을 꿈꾸면서 군비경쟁을 미친듯이 다그치고있으며 새로운 세계전쟁을 일으키려고 발광적으로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진보적인류앞에는 세계전쟁 특히 열핵전쟁의 발발을 막아야 할 긴절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하고있는 새 전쟁 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떠나서 인민들의 자유와 인류의 안전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우리 당은 반제, 평화의 리념밑에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력량과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의 군비증강정책과 새 전쟁 준비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히 벌려나가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우리 당은 또한 다른 나라에 있는 침략적군사기지를 철폐하고 외국군대와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를 철수시키며 군사쁠럭들을 해체하고 세계 여러 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며 완전한 군비철페를 실현할데 대한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방도들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특히 세계적판도에서 널리 벌어지고있는 반전반핵평화옹호운동에 강력한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고있으며 미제가 구라파에 중거리핵미싸일의 배치를 다그치는것과 관련하여 취한 쏘련과 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의 대응조치를 적극 지지하고있다.

얼마전에 우리는 우리 나라의 《정당, 사회단체련합성명》을 발표하여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참화가 빚어질수 있는 긴박한 정세를 세계에 알리면서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나라 정당, 단체들과 국제기구들, 평화애호력량이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막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련대성을 보내줄것을 강력히 호소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쏘미수뇌자 상봉이 세계의 평화를 위한 보다 전진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과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고 조선에서 핵전쟁을 방지하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할데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최근에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날로 커가고있는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화국북반부의 전령역에서 군사연습을 중지할데 대한 주동적인 조치를 취하고 미국정부와 남조선당국도 이에 호응해나설것을 제의하였다. 이 제안은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념원에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이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내세운 원칙과 방도는 명백하다.

우리의 원칙적립장은 평화는 구걸하여서는 얻을수 없으며 오직 투쟁을 통하여 쟁취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세계평화애호력량의 잠재력은 크다. 세계 모든 나라의 반제, 반전, 반핵평화애호력량들이 남김없이 발동되고 서로 련대성을 강화하면서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때 제국주의자들의 전쟁도발계획은 파탄의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이처럼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은 대외활동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고있으며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진보적인류의 공동위업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밑에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과 굳게 단결하며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로선이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진보적나라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자주적인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주, 친선, 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미제는 최대의 인권유린자

허 섭

오늘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는 파렴치하게도 인권문제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는 《인권옹호자》로 자처해나서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인권》타령은 저들의 범죄적인 인권유린행위를 가리우고 반공소동과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내정간섭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우리 시대의 최대의 인권유린자인 미제가 그 어떤 궤변을 줴쳐도 저들의 인권유린죄상을 결코 가리울수 없으며 그 책임을 모면할수도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기 지구상에서 사회적불평등이 가장 심하고 인민들에 대한 억압과 인권유린이 가장 혹독한 나라는 바로 서방제국주의나라들이며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괴뢰국가들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91페지)

일반적으로 인권이란 존엄있는 사회적존재인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할 제반 권리를 말한다. 그 누구도 유린해서는 안될 이러한 인권에는 사람들이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여러가지 권리들이 포함되여있다. 그가운데서도 중요한것은 인간의 존엄을 보장받을 권리, 생존권, 정치적권리 등이다. 이러한 권리들은 세계에서 가장 존엄있고 귀중한 존재인 사람들이 응당 가져야 하고 또 보장받아야 할 신성한 권리이다.

인권은 국가의 정치와 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담보된다. 따라서 인권은 어느 사회에서나 다 보장되는것은 아니다. 사회제도의 계급적성격과 본성에 따라 인권이 보장되기도 하고 유린되기도 한다.

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사회에는 인권을 유린할 사회계급적 근원과 조건이 없으며 인권이 전면적으로 보장되고 담보되고있다. 이와는 반대로 소수 착취계급이 다수 근로대중을 억압착취하는 계급사회 특히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인권을 유린하는것이 고질적인 사회적속성으로, 일반적현상으로 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 《인권》이 있다면 소수 특권계층이 근로인민대중을 억압착취하여 부화방탕한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을따름이다.

더우기 계급적지배와 민족적압박을 결합시키고 인민대중의 자주권을 짓밟는 최후의 반동적사회제도인 제국주의는 세계적인 항의와 규탄의 대상으로 되는 인권문제를 발생시키는 화근으로 되고있다. 현대제국주의우두머리인 미제는 그 어느 제국주의자들보다도 인권을 가장 혹독하게 유린하는 범죄행위를 꺼리낌없이 감행하고있다. 침략적본성과 야수성이 강화됨에 따라 미제의 인권유린행위는 날이 갈수록 우심해지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력사상 류례없는 최대의 인권유린자이다.

미제를 우리 시대의 최대의 인권유린자라고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인권을 무참히 그리고 전면적으로 유린하는데서 현대제국주의의 전형으로 되고 있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원래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인 사람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존중을 받으며 인격적존엄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고있다. 이러한 권리는 인간이 응당 가져야 하고 보장받아야 할 초보

적인 권리이며 인권적요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간과 인종에 대한 차별과 멸시, 억압과 착취와 같은 인권유린행위는 그 어떤 리유와 구실에 의하여서도 결코 정당화될수 없는것이다. 인간의 존엄을 유린하는것은 유엔헌장과 유엔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1948년)뿐아니라 인종차별, 집단살해, 인종격리를 금지한 《온갖 형태의 인종차별을 청산할데 대한 국제협약》(1965년)의 요구와도 배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은 악독한 인종주의적정책에 기초하여 인종말살, 인종차별, 인신매매와 같은 혹독한 인권유린행위를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다.

미국반동들의 전통적인 인종말살정책에 의하여 미국원주민인 인디안인들이 1,000만명으로부터 100만명이하로 줄어들어 멸종상태에 처해있고 2,700만명의 흑인들이 직업과 보수, 교육과 정치 등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차별과 멸시를 받고있으며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있다. 지어 로스안젤스를 비롯한 일부 주들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민이 한사람당 3,000딸라로 매매되고있고 어린이매매가 하나의 기업으로 성행하고있다. 이것은 현대판노예상업으로서 인간의 존엄에 대한 용납 못할 모독행위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처럼 근로인민대중의 존엄을 유린할뿐아니라 그들의 생존권과 정치적권리까지도 짓밟고있다.

인간의 생존권은 일자리와 로동 등 사람의 생존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초보적이고도 사활적인 권리이다. 참정권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같은 정치적권리는 자기의 운명을 국가적범위에서 보장받고 개척해나가려는 인간의 응당한 요구이며 인권의 주요구성요소의 하나이다.

이로부터 인간의 생존권과 정치적권리를 유린하는자는 인간의 생사자체와 자주성을 롱락하고 짓밟는 최대의 범죄자라고 말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은 근로인민대중에게 저임금, 실업, 기아, 질병, 주택부족 등 온갖 사회악을 강요하면서 생존권을 유린하고있다. 그들은 참정권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폭압기구를 동원하여 인민들을 마구 체포구금하고있다. 레간행정부의 반동적인 대내외정책을 반대하는 반정부투사, 인권옹호자 등 진보적인사들이 《정치범》의 감투를 쓰고 수많이 체포구금당하고있고 지어 이른바 《잠재적위험분자》들을 구금하기 위한 집단수용소창설안인 《렉스—84》안까지 론의하고있는 사실은 그 대표적실례의 하나이다.

모든 사실은 미제야말로 인간의 존엄으로부터 생존권과 정치적권리에 이르기까지의 기본적인 인권을 전면적으로 유린하고있는 최대의 인권유린자라는것을 뚜렷이 말해주고있다.

미국은 지구상에서 인권이 가장 혹독하게 유린당하고있는 인권의 불모지대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인권》에 대하여 자주 떠벌이고있지만 사실상 인권문제를 론의할 자격도 없고 인권을 보장할데 대한 국제공동체의 요구를 아랑곳하지 않는 범죄자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을 최대의 인권유린자라고 하는것은 그들이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벌어지고있는 인권유린행위의 장본인으로 되고있는것과도 관련되여있다.

인권이란 한 나라의 범위에서뿐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보장되고 옹호되여야 할 인류공동의 신성한 권리이다. 그 어느때보다도 국제적련계가 긴밀해지고 국제적래왕이 빈번해진 오늘에 와서 인권에 대한 국제적 보장과 담보는 더욱 요구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인권을 유린하는 대내정책의 연장으로서 대외적으로도 인권을 서슴없이 짓밟는 범죄행위를 감행하고있다.

미국반동지배층은 인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할데 대한 국제공동체의 지향과 요구에 로골적으로 도전해나서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선 국제적인 인권협약의 채택을 반대하거나 그 리행을 거부하고있다. 유엔무대에서 18년동안 벌린 토의끝에 채택된 2개의 협약을 비롯하여 매개 국가들이 인권을 보장할데 대한 40여개의 인권협약이 채택되였다. 그가운데서 미제가 조인한것은 불과 6개 협약뿐이며 그것마저 미국국회는 3개 협약만 비준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이 비준한 국제협약도 성실히 리행하지 않고있을뿐아니라 지금까지도 인종말살과 인종차별, 인종격리의 금지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롯한 기본인권에 관한 국제협약들을 반대하고있다.

미국반동통치배들은 이처럼 국제공동체에 도전해나서고있을뿐아니라 세계이르는곳마다에서 직접 인권유린행위를 감행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인권옹호》라는 허울좋은 간판을 들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무력침공을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다. 그들은 미국인류학생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그레네이더에 대한 무력침략을 감행하여 그 나라의 합법적정부를 전복하고 수상을 암살하였으며 《인권옹호》의 구실밑에 혁명적인 니까라과정권을 전복해보려고 선전포고없는 전쟁을 집요하게 벌리고있다. 또한 그들은 반미자주화를 지향하는 일부 중근동과 아프리카나라들이 인권을 유린한다는 거짓요언을 조작류포시키면서 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군사적위협공갈행위까지 집요하게 벌리고있다. 지어 미제국주의자들은 핵무기와 화학무기, 세균무기 등 대량살륙무기의 생산을 다그치고 《별세계전쟁》계획을 적극 추진시키면서 인류에게 핵참화를 들씌울 새 세계전쟁, 핵전쟁을 도발해보려고 미쳐날뛰고있다.

이것은 미제야말로 인류의 생존권자체까지도 아랑곳하지 않고 롱락하며 엄중하게 위협하고있는 력사상 류례없는 최대의 범죄자라는것을 뚜렷이 말해주는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또한 인종주의적인 인권유린범죄자들을 로골적으로 지지하고 부추기고있다. 그들은 인종차별, 집단살해, 인종격리를 금지하고 인종주의자들에게 일체 원조나 지지를 주지 말것을 국가들의 의무로 규제하고있는 국제협약과 유엔의 여러 결의들을 무시하면서 남아프리카와 이스라엘 인종주의자들을 적극 지원하고있다. 그리하여 남아프리카와 이스라엘 인종주의자들은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인종격리와 집단살해, 인종차별 정책을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으며 지어 인종주의적인 령토팽창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주변나라들에 대한 군사적인 침략행위를 서슴없이 벌리고있다. 이 하나의 사실만 하여도 미제가 바로 인종주의자들의 범죄행위를 부추기고있는 장본인이며 최대의 인권유린자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친미파쑈괴뢰정권들이 인권유린범죄를 제마음대로 감행하게 하고있는 장본인으로도 되고있다. 미제는 칠레, 쌀바도르, 온두라스 등 친미파쑈괴뢰정권들을 적극 지원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체포구금하고 학살하게 하고있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은 전두환괴뢰도당을 총칼로 부지해주는 한편 괴뢰도당을 사촉하여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를 지향하는 애국적인 남조선인민들을 마구 체포구금하고 고문학살하게 하고있으며 남조선전역을 인권의 불모지대로 화하게 하고있다. 지어 미제는 전두환괴뢰도당을 내몰아 수천명의 광주시민을 학살하게 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인간백정행위까지 감행케 하였다.

모든 사실은 미제야말로 우리 시대의 최대의 인권유린자이며 인류의 흉악한 원쑤라는것을 뚜렷이 말해주고있다.

우리 시대의 최대의 인권유린자로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규탄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미제는 파렴치하게도 사회주의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에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가 존재하는것처럼 거

짓요인을 류포시키면서 이 나라들을 비방중상하는데 피눈이 되여 날뛰고 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사회제도자체의 인도주의적본성으로 하여 인권을 실제적으로 보장하고있을뿐아니라 인권에 관한 국제적협약들도 성실하게 리행하고있다. 한편 사회주의나라들은 나라의 안녕과 사회질서, 인민대중의 리익을 침해하거나 배반하는 인간쓰레기들에 대해서는 응당한 제재를 가하고있다. 이러한 조치는 인민대중의 인권을 보장하고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며 인권에 관한 국제적협약과 규범들의 요구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인권옹호》라는 허울좋은 간판을 들고 사회주의나라들을 헐뜯는 반공소동에 미쳐날뛰고 있다.

미제의 이러한 반공소동은 사회주의제도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고 국제무대에서 날로 증대되고있는 사회주의나라들의 권위와 영향력을 훼손시켜보려는 어리석은 술책에 불과한것이다.

미제는 그 어떤 교활한 반공소동을 벌린다 하여도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을 결코 훼손시킬수 없다.

신성한 인권을 유린하는자들이 파멸을 면치 못한다는것은 인류력사가 실증하고있는 진리이다. 파멸에 직면하여 최후발악하면서 더욱 인권유린행위에 매여달리고있는 미제가 인류의 규탄과 징벌을 면치 못한다는것은 명백하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굳게 단결하여 인권을 서슴없이 유린하고있는 미제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며 미제의 인권유린행위를 규탄하고 그것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 친미파쑈도당들이 꺼리낌없이 감행하고있는 인권유린행위를 반대하며 인권을 보장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담보하는 자주화된 새 세계의 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것이다.

근로자 1986년 제2호 (루계 526호)

편집위원회

낸곳• 근로자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1986년 2월 1일 발행• 1986년 2월 3일

ㄱ—6501 주소•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7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3호

평 양 근로자사 1986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第3号 (527)

차 례

모든 당일군들은 어머니당의 당일군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자

지금 온 나라는 우리의 영웅적 로동계급과 인민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정과 투쟁기세로 세차게 들끓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심장으로 받아안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전선마다에서는 새로운 혁신과 비약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다.

채취공업, 금속공업, 전력공업, 철도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이룩되고있는 빛나는 승리와 위훈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전진하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우리 당의 불패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오늘 우리 당이 필승불패의 위력을 지닌 혁명적당으로 강화되고 조국땅우에 세기적변혁이 창조되고있는 그 위대한 현실은 어머니당인 우리 당의 당일군들의 투쟁과 활동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우리 사회의 발전과 당의 영광스러운 투쟁력사의 갈피마다에는 언제나 당의 드팀없는 주추돌이 되고 당정책의 견결한 옹호자, 그 관철의 능숙한 조직자가 되여 당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어머니당의 당일군들의 헌신적인 투쟁업적이 아로새겨져있다.

당조직들이 온 나라에 혈맥처럼 뻗어있고 당일군들이 혁명군대의 지휘관과 같이 대중의 앞장에서 그들을 돕고 이끌어나가고있는것으로 하여 당의 의도가 빛나게 구현되고 우리의 혁명위업은 비상히 빨리 전진하고있는것이다.

모든 당일군들은 어머니당의 당일군으로서의 숭고한 풍모를 지니고 실천투쟁에서 그것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며 혁명과 건설을 비약의 한길로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 *

우리 당은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주고 따뜻이 보살펴주는 위대한 어머니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전체 조선인민이 우리 당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와 충성심을 담아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당〉이라고 높이 칭송하고있으며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우리 당에 의탁하고 당을 따라 공산주의에로 나아갈 확고한 결의에 불타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30권, 563～564폐지)

당원들과 인민들은 우리 당을 두고 어머니당이라고 부른다. 어머니당이라는 이 칭호에는 자기 당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는 우리 인민의 고결한 사상감정이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어머니당, 이것은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주며 그들에게 끝없는 영예와 행복을 안겨주는 우리 당에 대한 높은 칭송이다.

사람들에게 어머니라는 말보다 더 다정하고 친근하며 자애에 넘치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말은 없다.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사려는 한없이 깊고 따사롭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소중하고 은혜로운 모든것을 어머니와 결부시켜 부르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는것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친어머니의 이러한 정으로 인민들의 운명을 돌보고 이끌어주어야 하며 그것은 당자체의 본성적요구로 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위업을 완성하여야 할 사명을 지닌 혁명의 참모부이며 인민대중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향도적력량이다. 따라서 당은 혁명투쟁의 전략전술을 밝히고 대중을 조직화, 의식화하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뿐아니라 인민들의 정치생활과 경제문화생활에 대하여, 지어는 앞날의 운명문제에 이르기까지 책임지고 따뜻이 보살펴주어야 한다. 이렇게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과의 관계에서 자식들의 운명문제에 대하여 그처럼 뜨겁게 대하는 어머니와도 같이 한없이 친근하고 자애로와야 대중과의 혈연적인 뉴대를 공고히 할수 있으며 불패의 위력을 지닌 혁명적당으로 될수 있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운명을 가장 빛나게 개척해나가며 그들에게 삶의 참다운 보람과 영예를 숭고한 높이에서 보장해주는 어머니당으로서의 고귀한 칭호를 끝없이 빛내여나가고있다.

우리 당 활동의 전과정은 인민대중의 리익과 행복을 첫자리에 내세우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여온 숭고한 력사이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존엄있고 보람찬 삶을 누리도록 따뜻이 이끌어주고 보살펴주고있다.

우리 당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영생하는 값높은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그것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도록 그들의 정치사상생활을 세심히 돌보아주고있으며 어머니의 손길로 따뜻이 이끌어주고있다. 우리 당은 모든 당일군들이 언제나 어머니다운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의 사업과 생활을 보살펴주는 정치적생명의 기사가 될것을 간곡히 요구하고있으며 그들이 어머니당의 당일군답게 사람과의 사업을 원숙하고 깊이있게 하며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에 자그마한 흠집도 생기지 않게 세심히 돌보아주도록 이끌어주고있다.

어머니당인 우리 당의 세심한 보살핌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항일혁명선렬들과 영웅전사들의 이름과 그들이 남긴 위훈이 오랜 세월이 흘러간 오늘에도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으며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하는 시대에 살며 싸우는 끝없는 영예와 존엄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의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이다.

인민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우리 당은 또한 모든 사람들이 더없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온갖 혜택과 배려를 돌려주고있다.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여주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있는 우리 당은 인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휘황한 구상과 설계도를 펼치고 빛나게 실현해나가고있다. 우리 당은 하나의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여도 반드시 거기에 인민들의 근본리익과 념원이 가장 철저히 반영되도록 하고있으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고 그들에게 더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오는 일이라면 아무리 방대하고 어려운 사업이라도 대담하게 작전하고 통이 크게 풀어나가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일어나고있는 위대한 변혁,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있는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은 어머니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마련된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당의 품은 참으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가장 큰 영예와 참된 삶의 보람을 안겨주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주는 어머니품이며 혁명의 품이다. 하기에 우리 인민들은 우리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당에 끝없이 충성다하는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더없는 행복으로 여기고있다.

마음속 생각도 깊은 사연도
그 품에 안기여 모두 말하네
당이여 당이여 어머니당이여
나의 운명 그 품에 맡기고 사네

한걸음 옮겨도 손잡아주고
한생을 걸어도 보살펴주네
당이여 당이여 어머니당이여
나의 미래 그 품에 맡기고 사네

…

실로 우리 인민들이 즐겨부르는 이 노래의 가사는 어머니당인 우리 당에 대한 전체 인민의 고결한 사상감정과 숭고한 정신세계를 진실하게 펼쳐보이고있다.

인민대중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우리 당의 위대한 풍모는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주체적 관점과 립장에서 출발하고있다.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세상의 모든것이 오직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신념이며 의지이다.

근로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이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결정적요인이다. 인민대중은 자기 손으로 사회의 모든 재부를 만들어내며 자기의 투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력사를 발전시킨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그들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것보다 더 보람찬 일은 없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에 대한 주체적 관점과 립장으로부터 인민의 리익과 념원을 모든 활동의 첫자리에 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것을 확고한 원칙으로 삼고있다.

진정 우리 당은 인민대중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그들의 존엄과 영예, 행복을 최상의 높이에서 담보하고 끝없이 꽃피워나가는 위대한 어머니당이며 인민의 자애로운 품이다.

❀ ❀

어머니당의 고상한 풍모를 그대로 받아안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은 당일군들이 지니고있는 영예로운 사명이며 혁명적본분이다.

어머니당의 당일군으로 된다는것은 인민들을 끝없이 존중하고 사랑하며 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인민적품성을 지닌 혁명가로 된다는것을 말한다. 우리 당은 어머니당이다. 때문에 모든 당일군들은 어머니다운 품성을 지니고 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은 주체혁명위업에 몸바쳐나선 직업적인 혁명가이다. 따라서 모든 당일군들은 무엇보다먼저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하여야 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투쟁의 기수, 유능한 정치활동가가 되여야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참다운 인민의 충복이 되여야 한다.

당일군들이 어머니당의 당일군으로서의 높은 영예와 자각을 가지고 자기의 본분을 다하여야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뉴대를 공고히 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동원할수 있다.

오늘 우리 당은 모든 당일군들이 어머니당의 당일군으로서의 본분을 다함으로써 조성된 정세와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혁명대오를 반석같이 다지며 사회주의건설위업을 더욱 힘있게 전진시켜 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의 모든 당일군들은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는 립장과 자세에서 그리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해나가는 그 열정과 기풍에서 쇠소리나는 투사로 되여야 하며 인민대중과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어머니와도 같이 가장 친근하고 다정하며 사려깊은 고상한 풍모를 지녀야 한다.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책임적으로

이끌어주는것은 어머니당의 당일군들의 중요한 사명이다. 당일군들은 사람들의 정치사상생활을 돌보아주는 정치일군이며 인간의 정치적생명의 기사이다. 따라서 당일군들의 고상한 품성은 무엇보다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적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끝까지 빛내여나가도록 보살펴주는데서 표현된다.

사회적존재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육체적생명보다 더 귀중한것은 정치적생명이다. 사람은 목숨은 붙어있어도 정치적생명이 없으면 죽은 몸이나 다름이 없다. 따라서 당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적생명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어머니의 심정으로 보살펴주고 이끌어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니고 삶의 참다운 보람과 행복을 누릴수 있다.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책임적으로 보살펴주고 이끌어주는데서 중요한것은 그들을 진심으로 믿고 아량있게 대하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일군들은 결코 편협하고 옹졸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업에서는 언제나 당적, 계급적 립장을 튼튼히 지키면서도 아량이 있어야 하며 극단하게 문제를 보거나 사람을 평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넓은 포용력과 아량은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 당일군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품성이다. 사람들을 혁명동지로 굳게 믿고 그들을 넓은 포용력으로 아량있게 대하여야 대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울수 있다. 당일군들이 사람들을 차별시하면서 진심으로 믿지 않고 편협하게 대하면 그들은 당에 속을 주지 않게 되며 당과 대중의 혈연적련계에 금이 가게 하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

사람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그들의 심장속에 간직되여있는 당과 수령에 대한 뜨거운 충실성이며 당과 혁명을 위하여 성실하게 걸어온 투쟁경력과 현행 그리고 실력이다. 종이우에 그려진 죽은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산 사람을 기본으로,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기본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원칙이다.

당일군들은 사람들을 대하는데서 결코 겉만 보지 말고 안속을 볼줄 알아야 하며 매사를 심사숙고하고 로숙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사람들의 정치적생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절대로 경솔하게 대하지 말고 여러 측면에서 해부학적으로 분석해본 다음 처리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 누구를 물론하고 당과 수령께 충실하고 사업에서 공로가 있으며 현재 일을 잘하면 그것을 귀중히 여기고 공정하게 평가해주어야 하며 마음속으로부터 당을 믿고 따르도록 따뜻이 이끌어주어야 한다. 또한 아무리 뒤떨어진 사람이라 하여도 따돌리는 일이 없이 인내성있게 교양하여 삶의 보람을 안고 충성의 한길을 걸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혁명적군중로선의 기본요구이다.

사람은 사회적집단속에서, 사회적관계속에서 생활하는 자주적존재인것만큼 무엇보다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히 여기며 그것이 손상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하루에 밥을 한두끼 굶는것은 참고 견디여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손상당하고 차별당하는것을 참지 못하는것이 사람이다. 자애로운 어머니는 아무리 여러 자식을 두어도 어느 한 자식도 차별하지 않고 한결같이 뜨겁게 사랑하며 따뜻이 보살펴준다. 어머니당인 우리 당의 일군들은 사람들에 대한 뜨거운 심정을 지니고 그들을 진정으로 혁명동지로, 벗으로 대하며 모든 사람들이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소중히 간직하고 끝없이 꽃피워나가

도록 진심으로 도와주고 이끌어주어야 한다.

어머니당인 우리 당의 세심한 보살핌과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이 안겨준 가장 값높은 정치적생명을 간직하고 존엄있는 보람찬 삶을 누리고있으며 이것은 우리 사회의 자랑스러운 면모를 이루고있다. 고귀한 정치적생명의 은인이며 보호자인 당을 끝없이 우러르며 당의 위업을 지켜나가는 성벽이 되고 방패가 되여 한결같이 힘있게 전진하는 이것이 또한 우리 인민의 긍지높은 풍모이다.

모든 당일군들은 인간의 정치적생명의 기사로서의 본분을 다함으로써 어머니당인 우리 당에 의하여 굳건히 쌓아진 이 위훈탑을 더욱 튼튼히 다지며 혁명위업의 전진을 적극 다그쳐나가야 한다.

어머니당의 일군들인 우리 당일군들은 또한 겸손하고 검박하여야 한다. 이것은 당일군들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겸손성과 검박성은 대중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어깨를 낮추고 소탈하게 행동하며 생활을 검소하게 해나가는 인민적품성이다.

당일군들은 사업과 생활에서 언제나 겸손하고 검박하여야 하며 사람들앞에서 틀을 차리거나 건방지게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겸손하고 검박하여야 대중이 찾아와 속을 털어놓을수 있으며 대중의 신망과 존경을 받을수 있다. 대중은 틀을 차리고 까다롭게 행동하는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자기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말과 행동에서 자기들과 잘 어울리는 겸손하고 소탈한 사람을 따른다. 당일군들은 대중을 대상으로 사업하는것만큼 누구보다도 사람들을 끄는 인간적향취가 있어야 한다. 겸손성과 검박성이 바로 대중이 당일군을 믿고 따르게 하는 인간적향취, 인정미를 낳게 하는 바탕이라고 말할수 있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것처럼 사람들도 교양이 있고 수양이 높을수록 자세를 낮추고 허심하게 행동하는 법이다.

당일군들은 인민대중의 충복이라는 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언제나 그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내세우며 대중앞에서 끝없이 겸손하고 소탈한 인민적품성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인민들속에서 나왔으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일군들이 만일 자신을 특수한 존재로 여기면서 군중우에 올라서기를 좋아하고 세도를 쓰면 대중의 신망을 잃게 되며 나아가서는 당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대중우에 군림하여 대중을 다스리는것은 착취사회의 반동관료배들에게만 고유한 행동방식으로서 어머니당인 우리 당의 일군들의 품성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당일군들은 절대로 사람들을 거칠게 대하고 건방지게 행동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사업과 생활에서 무한히 겸손하고 소탈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은 사업에서 사심이 없어야 하며 성과는 동지들과 군중에게 돌리고 결함과 부족점은 자신에게서 찾는 고상한 품성을 지녀야 한다.

경제생활에서 청렴하며 특혜와 특전을 바라지 않는것은 겸손성과 검박성의 중요한 표현이며 어머니당의 일군들이 지녀야 할 품성이다.

경제생활에서 청렴하지 못하며 남다른 특혜와 특전을 바라는것은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당일군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혁명가는 찬물에 밥을 말아먹고 된장을 찍어먹어도 혁명사업만 할수 있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고상한 품성을 지녀야 한다. 당일군들이 경제생활에서 청렴하지 못하면 사업에서 원칙을 지킬수 없고 나중에는 위험한 구렁텅이에 굴러떨어질수 있다.

우리 당일군들은 사람들을 대하는데서 한없이 겸손하고 생활에서 검박한 인민적품성을 가짐으로써 대중의 거울

[illegible] 그들의 참다운 교양자 [illegible] 되여야 한다.

당일군들은 이와 함께 군중속에 들어가 생활을 같이하며 인민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실속있게 풀어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은 사업대상이 군중인것만큼 군중속에 들어가는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군중속에 들어가야 아래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사업을 전개해나갈수 있으며 인민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갈수 있다.

당일군들은 군중이 생활하고 일하는 현실에 들어가 그들과 일도 같이하고 밥도 한가마밥을 먹으면서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사업과 생활을 극진히 보살펴주어야 한다. 당일군들은 특히 인민생활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그것을 책임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인민들로 하여금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사는 긍지와 행복을 더욱 가슴뜨겁게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은 아래에 내려가서는 인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생활부터 알아보며 걸린 문제가 있으면 대중과 함께 진지하게 토의하여 그것을 적극 해결해나가는 기풍과 고상한 품성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우리 당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신이 춥고 배고플 때뿐아니라 자신이 덥고 배부를 때에도 대원들은 춥고 배고풀수 있다는것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고 하신 간곡한 가르치심을 심장깊이 새기고 어머니의 심정으로 인민들의 생활에서 요구되는것은 무엇인가를 세심히 알아보고 그들이 사소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따뜻이 돌보아주어야 한다. 인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인민생활문제에 무관심한 일군은 인민의 참다운 충복으로 될수 없으며 어머니당인 우리 당의 인민적풍모를 지닐수 없다. 모든 당일군들은 인민들에게 보다 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해나가기 위하여 항상 머리를 쓰고 아글타글 노력하여야 한다.

이처럼 모든 당일군들이 어머니당의 숭고한 풍모를 지니는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이른 오늘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우리의 혁명대오를 더욱 굳건히 다지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어머니당인 우리 당의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고매한 공산주의적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적극 따라배우며 그것을 당사업실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고매한 인민적품성은 우리 당일군들이 따라배워야 할 빛나는 구감이다. 당일군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숭고한 인민적품성을 그대로 받아안고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당사업을 개선하고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는데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은 이와 함께 정치실무적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그래야 높은 정치적식견과 안목을 가지고 대중과의 사업을 당의 의도대로 로숙하고 깊이있게 해나갈수 있다.

당일군들이 자기의 본분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것은 당조직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

당조직들은 당일군들이 어머니당의 고상한 풍모를 지니고 군중의 참다운 교양자가 되여 대중과의 사업을 당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원숙하게 해나가도록 늘 그들을 교양하는 한편 조직적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당일군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의 철저한 옹호자, 관철자, 대중의 교양자, 조직자, 정치적생명의 기사로서의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해나가야 한다.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킨 우리 당의 업적

김 화 종

영광스러운 우리 당은 창조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시대와 혁명 앞에 세기에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였다. 우리 당이 이룩한 사상리론적업적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을 더욱 심화발전시킴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완성한것이다.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을 가지는것은 사람이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세계관이란 사람이 세계에 대하여 가지는 견해와 관점, 립장을 통털어 말한다. 사람은 세계에서 살고있으며 세계와의 관계속에서만 자기의 운명을 개척할수 있다. 그런것만큼 사람은 누구나다 일정한 세계관을 가지게 되며 그에 의거하여 살며 활동하게 된다. 사람들이 비과학적이며 환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에서 실패와 우여곡절을 면할수 없게 되며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을 가질 때에는 언제나 승리와 성과가 확고히 담보되게 된다.

세계관은 인간의 인식과 실천의 발전과 더불어 끊임없이 발전하며 시대의 발전은 세계관의 발전을 동반한다. 지난날 세계관의 발전력사는 상반되는 두 철학적조류인 유물론과 관념론, 변증법과 형이상학 사이의 투쟁의 력사였다. 유물론적이며 변증법적인 세계관은 세계의 객관적합법칙성에 일치하는 지향을 가진 진보적계급의 세계관이였다면 관념론과 형이상학은 세계의 발전법칙에 역행하는 반동적착취계급의 세계관이였다.

로동계급의 과학적세계관으로 출현한 맑스주의는 철학상의 이 두 당파간의 투쟁에서 유물론과 변증법의 승리를 확정하였다. 맑스주의가 나온 때로부터 시대와 혁명은 멀리 전진하였다. 로동계급의 진출과 함께 개시된 혁명의 끊임없는 확대발전은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가져왔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인민대중이 력사상 처음으로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인류력사의 새시대, 자주시대이다. 새시대는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여 그것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하는 새로운 세계관의 출현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시대가 제기하는 이 력사적과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빛나게 해결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적문헌 《주체사상에 대하여》, 《주체철학의 리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를 비롯한 여러 문헌들에서 주체사상을 우리 시대의 요구에 전면적해답을 주는 완성된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심화발전시키시였다.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킨 우리 당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주체의 세계관의 초석을 이루는 철학적원리의 독창성과 위대성을 심오히 론증한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

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새시대의 세계관을 밝힌 주체사상은 그 초석을 이루는 철학적원리에서 새롭고 독창적인것입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74폐지)

일반적으로 세계관이라고 하면 다 일정한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다. 철학적원리는 세계관의 출발적전제로 되고 그 본질적내용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며 세계관전체에 관통되고있는 근본원리를 말한다. 철학적원리를 세계관의 초석이라고 하는 리유가 여기에 있다.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인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원리는 로동계급의 새로운 혁명적세계관, 사람위주의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의 초석을 이룬다. 이 원리는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정확히 밝힌 원리이며 사람과의 관계에서 세계의 본질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집약적으로 밝혀주고있는 새롭고 독창적인 원리이다. 주체의 세계관은 이 철학적원리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이 원리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체계화되고있음으로 하여 인류의 세계관 발전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온 새롭고 독창적인 세계관으로 되였다.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의 독창성과 위대성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의 근본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그에 과학적해답을 준 원리라는데 있다.

철학을 포함하여 모든 과학의 원리나 명제가 얼마나 독창적이며 위대한가 하는것은 그것이 얼마나 새롭고 심오하며 사회적실천에서 의의있는 문제에 해답을 주는가에 의하여 규정되게 된다.

우리 당은 맑스주의에 의하여 물질과 의식의 관계문제가 과학적으로 해명된 조건에서 종래와는 달리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하였다. 우리 당에 의하여 새롭게 제기되고 해명된 철학의 이 근본문제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을 세울수 있게 하는 참다운 철학의 근본문제이다.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가 철학의 참다운 근본문제로 되는것은 그것이 세계관의 사명을 가장 정확히 구현하고있다는데 있다.

세계관의 사명은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무기로 복무하는것이다.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사람의 활동은 외부세계와의 호상작용속에서 이루어지며 사람의 운명개척과정은 곧 사람이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해나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세계관이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는데 복무하는 힘있는 무기로 되려면 마땅히 세계와 사람의 호상관계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그것에 옳바른 해답을 주어야 한다.

선행한 세계관들이 근본문제로 삼았던 물질과 의식의 관계문제도 본질상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문제의 표현이라고 볼수 있다. 먼 옛날부터 사람들속에서 육체와 령혼에 관한 론의가 진행된것은 아직 인간의 의식발전수준이 매우 낮은 단계에 있었으므로 세계에 대한 정확한 리해를 가질수 없었고 자신들의 육체적구조도 몰랐던탓으로 정신, 의식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할수 없는 조건에서 제기된 세계관적인 문제였다. 물질과 의식의 관계문제는 바로 사람이 세계에 대하여 관계를 가지면서 먼저 그자체를 알아야 할 필수적요구로부터 제기된 문제라고 말할수 있다. 이것은 결국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문제가 사람의 운명문제를 가장 옳바르게 해결할수 있게 하는 세계관의 참다운 근본문제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는 전체로서의 세계에 대한 통일적인 견해와 관점을 주어야 할 철학의 본성에도 부합되는 철학의 근본문제이다.

철학이 전체로서의 세계에 대한 통일적인 견해와 관점을 주려면 세계의 가

장 기본적이며 일반적인 관계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사람을 위주로 세계를 고찰할 때 세계는 사람과 그를 둘러싸고있는 주위세계로 나누어지며 사람과 주위세계와의 관계는 가장 기본적이며 일반적인 관계로 된다.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를 고찰하면 그것은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가 아니면 세계에 의하여 지배당하는가, 사람이 세계를 개조발전시키는데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문제, 다시말하여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에 귀결된다.

우리 당이 새롭게 제기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는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전체로서의 세계의 면모와 본질을 정확히 파악할수 있게 할뿐아니라 세계의 운동발전의 합법칙성까지도 심오히 밝힐수 있게 한다.

이 모든것은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을 세울수 있게 하는 참다운 철학의 근본문제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바로 새롭게 제기된 철학의 이 근본문제에 옳바른 해답을 준 원리라는데 그 독창성과 위대성, 철학사적지위가 있는것이다.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의 독창성과 위대성은 다음으로 사람에 대한 새로운 해명에 기초하고있는데 있다.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는 사람을 둘러싸고있는 물질세계에 대한 정확한 리해와 함께 사람자신에 대한 옳바른 리해에 기초하여서만 과학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사람에 대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철학의 연구대상으로서 수많이 론의되여왔으나 완성된 철학적해명이 주어지지 못한 문제였다.

사람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을 길들이고 사회를 개조변혁해오면서도 그 모든 개조의 주체인 자기자신에 대하여 정확한 리해를 가지지 못하였다.

지난 시기에는 사람에 대하여 유물론적으로 보는 경우에도 그것은 대체로 사회적관계를 떠난 순수 인간에 대한 추상적인 견해에 머물러있었다. 인간의 본질에 관한 문제는 맑스주의에 의하여 처음으로 사회적관계속에서 제기되고 해명되였다.

우리 당은 인간을 사회적관계속에서 보면서 동시에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새롭게 밝혔다.

우리 당은 사람의 본질적특성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라는것을 밝힘으로써 인간에 대한 완벽한 철학적해명을 주었다. 이것으로 하여 자연과 사회를 지배하고 개조하는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옳바른 철학적해명이 주어질수 있게 되였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되였다. 이것은 그 어떤 철학사상도 이룩할수 없었던 우리 당의 위대한 공적이다.

우리 당에 의하여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가 바로 새로운 철학의 근본문제에 옳바른 해답을 준 원리이며 사람에 대한 완벽한 해명에 기초하고있는 원리라는것이 밝혀짐으로써 인류의 철학적세계관의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의 근본문제가 제기되고 그에 옳은 해답을 주는 철학적원리가 밝혀짐으로써 세계관의 전반 체계와 내용이 그 본성과 사명에 맞게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을 위한 방도를 밝히는데로 확고히 지향되게 되였으며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의 과학적기초가 마련되게 되였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의 발견은 실로 세계의 존재와 그 운동발전의

[illegible]에 대한 완성된 리해를 주며 [illegible]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는 [illegible] 문제에 [illegible] 이바지하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 확립을 위한 인류의 철학적사유발전에서 근본적전환의 [illegible]를 열어놓은 획기적사변으로 된다.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킨 우리 당의 업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사람위주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주체의 세계관의 주요내용을 새롭게 밝힌 것이다.

우리 당이 밝힌 주체의 세계관의 주요내용의 하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견해이다.

지난 시기 철학들에서 세계에 대한 견해는 세계의 시원에 관한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해답을 주는것이였다. 때문에 그것들은 다 물질 또는 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해석하였다. 인류의 세계관발전의 장구한 과정을 통하여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지있으며 자체의 원인에 의하여 운동발전한다는 유물변증법적인 과학적견해가 밝혀졌다.

우리 당은 세계의 물질성과 그 운동법칙이 밝혀진 조건에서 자연과 사회를 지배하는 주인은 누구이며 그것을 개조하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해답을 주는 견해, 세계는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된다는 새로운 견해를 밝혔다.

우리 당이 밝힌 사람위주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견해는 가장 발전되고 힘있는 존재인 사람을 세계의 주인의 지위에 내세우고 그와의 관계에서 세계에 대한 리해를 심화시킨 견해이다.

현실세계에서 사람은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있으며 물질운동의 가장 높은 단계인 사람의 자주적 창조적 의식적 활동에 의하여 세계의 개조발전이 이루어지고있다.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주인의 지위와 그 개조발전에서 노는 결정적역할은 물질세계발전의 합법칙적인 결과이며 현실세계의 가장 본질적인 객관적운동발전과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가장 과학적인 견해이다.

우리 당이 밝힌 주체의 세계관의 주요내용의 다른 하나는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다.

세계관이 본래의 사명에 맞게 사람의 운명개척에 복무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려면 주위세계의 본질과 합법칙성을 밝힌 세계에 대한 견해와 함께 사람이 주동적으로 세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밝혀주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시기에는 사람이 세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문제를 독자적인 세계관적문제로 제기하지 못하였다. 선행한 세계관들에서 세계에 대한 관점과 립장은 세계에 대한 견해에 의하여 규정되는 귀결로서 세계관의 독자적인 본질적내용으로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그것은 사람이 세계를 주동적으로 대하는 관점과 립장으로 되지 못하였다. 사람이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것은 객관세계가 존재하며 운동하고있기때문인것이 아니라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람의 본성적요구로부터 출발하는것이다. 객관세계가 있다는것과 그 본질과 운동발전의 합법칙성을 아는것은 사람이 주동적인 활동을 벌리기 위한 필수적조건으로 될뿐이다. 지난 시기의 세계관들에서 사람이 주동적으로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 문제가 독자적인 세계관적문제로 제기되지 못한것은 사람을 단순히 물질세계의 한 부분으로 보는데 머물러 있었던것과 관련된다.

우리 당은 사람의 본질적특성과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해명에 기초하여 사람을 단순히 세계의 한 부분으로가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내세움으로써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와 그 변화발전에 대하는 새로운 관점과 립장을 확립하였다.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고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 세계에 대한 주체적 관점과 립장은 세계를 개조

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사람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식활동, 실천활동을 보장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 당에 의하여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에 대한 견해와 함께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 새롭게 밝혀짐으로써 철학적세계관의 새로운 분야가 독창적으로 개척되고 그 내용과 구성부분이 전면적으로 완성되였으며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우리 시대의 철학적과제가 빛나게 해결되였다.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사회력사관을 새롭게 혁신한것은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킨 우리 당의 중요한 업적의 하나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사회력사에 작용하는 물질세계발전의 일반적합법칙성을 시인하면서 사회력사에 고유한 합법칙성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로동계급의 사회력사관을 완성하는데서 이룩한 주체사상의 중요한 공적이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76페지)

사회력사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확립하는것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사람은 사회적존재이며 일정한 사회적환경속에서만 살아나갈수 있는것만큼 세계관을 옳게 세우기 위하여서는 주위세계의 중요한 한 부분인 사회에 대한 정확한 견해와 관점, 립장을 가져야 한다.

사회현상에 대한 과학적견해를 확립하기까지 인류는 오랜 력사적과정을 경과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맑스주의가 나오기전까지는 유물론이나 변증법을 제창한 철학자들도 사회력사에 대해서는 관념론적립장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맑스주의는 사회도 자연과 같이 물질세계에 속하며 물질세계발전의 일반적합법칙성에 따라 변화발전한다는것을 밝힘으로써 사회력사에 대한 관념론적견해를 타파하였다. 이리하여 사회력사에 대한 과학적리해가 처음으로 이룩되게 되였다.

우리 당은 사회력사에 작용하는 물질세계발전의 일반적합법칙성을 시인하면서 사람,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사회력사에 고유한 합법칙성을 새롭게 밝혔다.

사회적운동도 물질적운동이며 따라서 거기에는 물질세계의 일반적법칙이 작용한다. 그러나 사회적운동은 자연의 운동과는 달리 주체의 운동이다. 자연의 운동에는 주체가 없다. 자연의 운동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들의 호상작용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사회적운동은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발생발전한다. 따라서 사회적운동은 주체의 작용과 역할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우리 당은 사회력사에 대한 이러한 주체적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라는 원리를 심화시켜 력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며 사회력사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창조적 운동이며 혁명투쟁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결정적역할을 한다는 사회력사원리를 독창적으로 해명하였다. 사회력사에 대한 주체적인 견해와 관점, 립장을 담고있는 이 주체의 사회력사원리는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과 성격, 추동력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해명을 준것으로서 주체의 사회력사관의 기본내용을 이룬다.

우리 당에 의하여 사회력사에 작용하는 고유한 합법칙성이 새롭게 밝혀짐으로써 로동계급의 사회력사관이 발전완성되였으며 근로인민대중은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의 보다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킨 우리 당의 사상리론적업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원칙을 밝힘으로써 주체사상을 완성된 체계와 내용을 가진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심화발전시킨것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을 심화발전시켜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을 과학적으로 정식화하고 그 내용을 정연한 체계로 집대성하였다.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은 인민대중에 대한 옳바른 지도를 보장하는것을 통하여 그들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의식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방도를 밝혀준다.

혁명적세계관이 인민대중의 운명문제에 옳은 해답을 주고 그 개척을 위한 투쟁에 참답게 이바지하려면 한편으로는 현실세계의 존재와 운동발전의 합법칙성을 해명하고 그에 대한 옳은 관점과 립장을 밝혀주어야 하며 다른편으로는 그것을 개조하는 사람의 활동이 의거하여야 할 지침을 주어야 한다. 혁명적세계관이 현실세계의 존재와 운동발전의 합법칙성을 해명하는데 머무른다면 객관세계에 대한 리해는 줄수 있으나 그것을 개조하기 위한 활동원칙은 주지 못하며 따라서 근로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 이바지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지 못한다.

우리 당에 의하여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 사회력사원리와 함께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원칙이 밝혀짐으로써 주체사상은 현실세계의 존재와 운동발전의 일반적합법칙성을 밝히는데 머무르는 단순한 리론체계가 아니라 세계를 개조변혁하기 위한 혁명투쟁에서 의거하여야 할 관점, 립장과 함께 방법론까지 담고있는 완성된 체계와 내용을 가진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더욱 심화발전되였다.

우리 당에 의하여 사람중심의 세계관, 주체의 세계관이 심화발전되고 전면적으로 체계화됨으로써 인류의 세계관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다. 맑스주의창시자들에 의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이 확립되였다면 우리 당에 의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완성되였다. 그리하여 주체사상은 인류사상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위대한 지도사상이라는것이 힘있게 론증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로동계급과 인류 앞에 쌓아올린 가장 빛나는 공적이다.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의 과학적진리성과 그 불패의 생활력은 우리 혁명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혁명실천에 의하여 뚜렷이 확증되고있다.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에 구현되여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전진함으로써 조선혁명은 사대와 교조로 인한 요람기의 진통에서 벗어나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간고한 투쟁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헤쳐올수 있었다.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그처럼 어려운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사소한 편향도 없이 오직 승리의 한길로 곧바로 전진해올수 있은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이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었기때문이다.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인민들의 공통된 념원을 반영하고있는 것으로 하여 자주의 새세계를 창조하는 우리 시대 혁명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 인민대중은 세계의 참다운 주인으로 등장하였으며 그들의 투쟁에 의하여 세계는 더욱더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세계로 전변되고있다.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가 비상히 높아지고 세계의 개조자로서의 그들의 역할이 비할바없이 강화되여 세계의 개조발전에서 거대한 변혁을 가져오고있는 현실은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하여준다.

오늘 우리 당에 의하여 끊임없이 심화발전되고있는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혁명적세계관으로서 자주와 독립,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여 나아가는 인류의 전진운동을 옳바로 이끌어주는 혁명의 위대한 기치로 세기에 더욱 찬연히 빛나고있다.

우리는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사상리론적업적을 고수하고 주체사상을 혁명실천에 더욱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우리 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에 대하는것은 사고와 실천의 일반적방법론

박 충 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모든 활동에서 옳바른 방법론을 견지하는것은 그 성과적수행을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사람은 옳바른 방법론을 가져야 자기 활동의 방향과 목표를 바로세우고 자연과 사회를 정확히 인식하고 개조해나갈수 있으며 자신의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사람들의 활동은 각이한 내용과 방법을 가지고 다양하게 진행된다. 그러나 사고와 실천의 모든 활동에서는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가장 일반적인 방법론이 있는것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밝힘으로써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인간의 모든 활동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위력한 무기를 마련하여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것은 사고와 실천에서 견지하여야 할 가장 일반적인 방법론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3권, 359폐지)

주체사상이 밝힌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은 사람과 세계와의 호상관계를 새롭게 해명한데 기초하고있다.

사람은 목적의식적이며 능동적인 활동을 통하여 세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해나가는 가장 발전되고 힘있는 존재이다.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사람들의 활동은 객관세계를 떠나서 그들의 주관에 의해서 진행할수도 없고 사람의 능동성을 떠나서 객관세계에 의해서만 수행될수 있는것도 아니다. 그것은 어데까지나 사람과 세계와의 호상관계에 의해서만 규정될수 있다.

주체사상은 사람과 세계와의 호상관계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이에 과학적인 해답을 줌으로써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밝혀주었다.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은 객관적물질세계와 그 운동발전의 합법칙성을 전제로 하고있다. 이것을 떠나서 인간의 그 어떤 인식활동이나 실천활동도 생각할수 없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언제나 객관적물질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다. 그러나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사람들의 활동은 단순히 물질세계와 그 운동에 피동적으로 적응하는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작용과정이다. 사람은 오직 능동적인 인식활동과 실천활동을 통해서만 세계를 인식할수 있고 개조할수 있다. 인간의 이러한 활동을 단순히 물질세계의 운동발전의 객관적합법칙성에만 귀착시킬수는 없다. 문제는 객관적물질세계와 그 운동발전의 합법칙성과 함께 인간활동의 고유한 방식, 세계에 대한 사람의 작용방식을 찾아내는데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적고리는 물질일반과 구별되는 인간의 본질적특성을 밝히는것이다.

주체사상은 인간의 본질적특성을 밝힘으로써 사람과 세계와의 호상관계를 새롭게 천명하였으며 세계에 대하는 사람들의 관점과 립장을 밝힐수 있는 확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에도 사람, 근로인민대중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금광을 개발할것이 아니라 거기에 근로자들의 훌륭한 문화휴식터를 꾸린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우리 당의 이러한 원칙적립장은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근본 목적과 사명에 맞게 정확히 수행할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것을 대하는 관점과 립장은 또한 제기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는데서도 확고한 지침으로 된다.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사람들의 모든 활동은 사람들자신이 창조한 일정한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수행되며 그것을 옳게 선택하고 적용하는것은 목적과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우리 당은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과업을 제시하는데서뿐아니라 그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는데서도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다.

해방후 새 조국 건설의 어려운 첫시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요구되는 강철을 생산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그렇지만 성진제강소의 원철로가 사람들, 로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한다는것을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서슴없이 그것을 폭파해버리도록 하시였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있는 공해현상은 생산과 건설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는데서 사람들의 리익을 안중에 두지 않는데서 오는 필연적결과이다.

모든 생산과 건설에서 로동안전과 공해방지를 첫자리에 내세우고 사람들에게 해로운 수단과 방법들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것은 언제나 사람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사고하고 실천하는 우리 당의 일관한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적립장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언제나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근본 목적과 사명에 어긋남이 없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있는것이다.

주체사상이 밝힌 세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의 다른 하나의 주되는 내용은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한다는것은 세계의 개조자인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한다는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13페지)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은 사람의 본질적특성인 창조성과 세계의 변화발전에서 노는 사람의 결정적역할에 의하여 규정된다. 사람은 세계에서 창조성을 가진 유일한 존재이며 이것으로 하여 세계의 개조자로 된다. 그렇기때문에 사람이 모든것을 개조할수 있다는 관점과 립장에서 세계를 대하는것은 가장 옳바른 관점과 립장으로 된다.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한다는것은 바로 사람이 자기의 창조적활동으로써 모든것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할수 있다는 립장에서 대한다는것을 의미한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일뿐아니라 인민대중자신이 하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것은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힘있는 방법론적무기로 된다.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의 방법론적의의는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사람들의 모든 활동의 가장 근본적인 수행방식을 밝혀준다는데 있다.

확고한 목적지향성을 가지는것과 함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의 수행방식을

옳게 세우는것은 사람들의 모든 활동의 성과를 담보하는 기본요인의 하나이다. 아무리 확고한 목적지향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방식을 바로 규정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실현될수 없다. 인간활동의 목적지향성은 옳은 방도와 결합될 때 비로소 실현될수 있는것이다.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은 사람들의 모든 인식활동과 실천활동의 가장 근본적인 수행방식을 밝혀줌으로써 그 성과적수행을 확고히 담보한다.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것이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인간의 모든 활동의 근본적인 수행방식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사람의 활동과 세계의 변화발전의 호상관계를 정확히 반영하고있기때문이다.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사람들의 모든 활동은 객관세계의 합법칙적인 변화발전을 전제로 하고있다. 세계의 모든 사물현상들은 자기 발전의 객관적합법칙성을 가지고있으며 그에 따라 끊임없이 운동변화한다. 사람은 객관적인 합법칙성을 무시할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활동으로써 객관적인 합법칙성을 통제, 리용함으로써만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할수 있다.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것은 바로 사람이 자기자신의 활동으로써 자연과 사회의 객관적합법칙성을 지배하고 통제, 리용하는 관점과 립장을 가진다는것을 의미한다. 객관적합법칙성을 지배, 통제, 리용하는 여기에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인간의 모든 활동의 근본적인 수행방식이 있으며 바로 이것을 확고히 보장하는데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의 커다란 방법론적의의가 있는것이다.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은 무엇보다먼저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 사람들의 모든 활동을 정확히 설계하고 계획할수 있게 한다.

우리 당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설계하고 과업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언제나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시기 긴장된 강재의 수요를 해결하는 문제가 절박하게 제기되였을 때 강선의 로동계급을 몸소 찾으시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켜 강철생산에 힘있게 떨쳐나서게 하심으로써 6만톤의 공칭능력을 가진 분괴압연기에서 12만톤의 강재를 뽑아내도록 하시였다. 우리 당은 또한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인한 이상기후현상이 농업생산에 위협을 조성하고있는 때에도 객관적조건이 아니라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보고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현명하게 이끌고있으며 경지면적이 제한되여있는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땅타발을 할것이 아니라 토지를 개량하며 간석지를 개간하여 농토를 넓혀나가도록 하고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모든것을 설계하고 작전하는데서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의 빛나는 귀감으로 된다.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은 또한 계획한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힘을 마련하는 방도를 밝혀준다.

인식능력과 실천능력을 마련하는것은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사람들의 모든 활동의 성과를 담보하는 기본요인의 하나이다. 사람이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것은 그들에게 세계의 그 어떤 존재도 가질수 없는 가장 위력한 힘, 인식능력과 실천능력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사람은 물질세계의 객관적합법칙성을 지배하고 통제하며 리용하여 자기의 인식활동과 실천활동을 담보하는 능력을

확대발전시켜나가고있으며 이것으로 하여 세계에서 인식하지 못할것이 없고 개조, 지배하지 못할것이 없는 무궁무진한 인식능력과 실천능력을 가지게 되는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객관적합법칙성을 지배, 통제, 리용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힘, 인식능력과 실천능력을 무제한하게 확대발전시킬수 있게 한다.

우리 당은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사람들, 인민대중의 기술문화수준과 혁명적능력을 높이는것을 확고히 앞세움으로써 간고하고 복잡한 우리 혁명을 언제나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힘있게 이끌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혁명발전의 높은 요구와 조성된 정세에 맞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야 할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 당은 심화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일군들이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작전하고 진공적으로 전개해나갈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고있다. 우리 당의 이러한 사상과 의도는 모든것을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고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대하는 주체의 관점과 립장의 뚜렷한 구현이다.

모든 일군들은 주체사상이 밝힌 사람의 리익과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를 대하는 주체적 관점과 립장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은 우리 일군들이 사람, 인민대중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열렬한 혁명정신을 소유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인민대중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적복무정신, 혁명적열정이 없이는 모든것을 사람의 리익을 옹호하고 고수하는 관점에서 성과적으로 처리해나갈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한몸바치는 높은 혁명적열정을 지니고 인민들에게 더욱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하는 고상한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은 일군들에게 모든 사업을 주동적으로, 창조적으로 전개해나갈것을 요구한다. 세계의 개조발전에서 기본은 객관적인 법칙이 아니라 그것을 통제, 리용하는 사람의 주동적인 활동이며 법칙을 통제하고 리용하는 사람의 활동은 사람자신에 의하여 주동적으로 설계되고 작전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모든 활동에서 능동성, 적극성을 발휘하며 객관적법칙을 지배, 통제, 리용하기 위한 묘술과 방도를 찾아내기 위하여 머리를 쓰고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이며 태도이다.

만일 일군들이 사람, 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목적지향성, 혁명적 열정과 의지를 가지지 못하고 모든 사업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가지 못하여 피동과 소극성에 빠지거나 창의창발성을 발휘하지 않고 고정격식화된 낡은 틀에 매달려 일하게 되면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할수 없다.

모든 일군들은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에 대하는 사고와 실천의 일반적인 방법론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우리 혁명의 높은 요구를 빛나게 관철하여야 할 것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 군중전취를 위한 투쟁

리 창 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하여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잘함으로써 전체 인민을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며 우리의 혁명대오를 백방으로 강화할데 대하여 간곡하게 교시하시였다.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항일혁명투쟁시기 대중전취사업의 빛나는 업적과 경험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대중전취사업의 고귀한 경험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나가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은 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광범한 대중이 그에 참가하여야만 승리할수 있다. 그러므로 대중을 전취하여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우고 그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는것은 혁명투쟁에서 공산주의자들과 혁명가들이 지켜야 할 근본원칙으로 된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168～169페지)

혁명은 대중을 각성시켜 혁명의 편에 묶어세우는 사업으로부터 시작된다. 광범한 대중이 각성되여 주인답게 참가할 때 혁명은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그러므로 광범한 대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튼튼히 묶어세우는것은 혁명승리를 담보하는 결정적조건으로 된다. 인민대중을 혁명의 편에 전취하여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혁명투쟁을 수행하는것이 공산주의자들과 혁명가들이 지켜야 할 근본원칙으로 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중전취사업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더욱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항일혁명투쟁은 우리 인민자체의 힘에 의하여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을 이룩해야 할 성스러운 혁명위업이였다. 우리 인민자체의 힘에 의하여 항일혁명투쟁의 승리를 이룩하자면 강력한 주체적혁명력량이 마련되여야 하며 조직되고 단결된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야 하였다. 따라서 항일혁명투쟁의 승리는 광범한 대중을 어떻게 의식화하고 조직화하여 혁명의 편에 묶어세우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진로를 개척하시던 시기에 벌써 우리 혁명을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진행할데 대한 사상을 내놓으시였으며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듯이 유격대는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는 유명한 명제를 내놓으시고 항일유격대원들이 인민들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고전적명제에는 혁명군대와 인민대중을 하나로 묶어세워 자기 인민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려는 주체사상의 요구가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우리 혁명의 기본임무와 사회계급적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시고 혁명의 동력을 로동자, 농민뿐아니라 청년학

생, 지식인, 소자산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계층과 계급을 혁명의 편에 최대한으로 묶어세우는 원칙에서 규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적을 최대한으로 적게 만들기 위하여 나라를 사랑하고 조국광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의 계급적 처지와 환경, 정견과 신앙, 재산과 지식정도, 성별과 년령을 불문하고 믿고 포섭하여 혁명의 편에 묶어세우는것을 혁명의 전략적로선으로 제시하시고 이에 따라 대중전취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하시였다.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간고한 불길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적군중로선이 빛나게 관철되는 행정에 혁명적군중공작방법과 대중전취사업의 귀중한 경험이 이룩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 대중전취사업에서 얻은 경험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본인의 현재의 동향을 기본으로 하여 사람들을 평가하고 묶어세운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본인의 현재의 동향을 기본으로 하여 매 사람을 평가하며 사람들을 믿고 검열하며 투쟁을 통하여 개조하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군중사업원칙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25권, 345페지)

사람에 대해서는 과거의 경력이 아니라 현행을 기본으로 하여, 가정주위환경이 아니라 본인을 기본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사람의 성분이나 사상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이 변하듯이 변한다. 지난 시기 인민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뉘우치고 개조되면 좋은 사람으로 될수 있는것이며 성분이 복잡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회가 발전하고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게 될수 있는것이다.

항일혁명투쟁의 간고성과 당시 우리나라 주민구성의 복잡성은 군중과의 사업에서 본인의 현재의 동향을 기본으로 하여 믿고 포섭하며 교양개조하는 사업원칙의 확립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과거생활이 복잡한 사람과의 사업에서 본인을 위주로 하고 현행을 기본으로 할데 대한 군중사업원칙을 밝히시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대지휘관들과 지하공작원들에게 반일적인 요소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묶어세워 우리의 혁명력량을 확대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절대로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말아야 하며 현행을 기본으로 실지투쟁속에서 검열하고 단련시켜야 한다고 간곡하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7년 봄 《조선에서 광범한 군중의 반일운동을 어떻게 조직할것인가》라는 글을 쓰시여 정치공작원들과 국내 혁명가들에게 쟁취할수 있는 모든 반일군중을 묶어세우기 위한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1937년 10월에는 전체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에 지시문을 내려보내시여 군중과의 사업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총화하고 군중전취사업을 더욱 적극화하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간고한 나날 복잡한 환경과 경력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한품에 안아 혁명의 길에 내세우시였으며 크나큰 신임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르며 국내와 해외의 방방곡곡에서 반일의 뜻을 품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들중에는 성분이나 과거경력이 복잡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화요파나 엠엘파와 같은 종파계렬에 관계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과거 독립군운동이나 의병운동에 참가했다가 총을 버린 사람들도 있었으며 민족자본가나 종교인, 유력한 자산가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도 있었

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애국충정과 반일적인 사상을 믿으시고 혁명의 길에 내세워주시였으며 자산가의 아들과 기독교신자의 딸도 꾸준히 교양하여 청년공산주의자로 키워주시였다. 뿐만아니라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떳떳치 못한 과거경력을 가지고 갈길을 몰라 헤매던 사람들의 새로운 결의와 각오를 믿으시고 무장대오에까지 받아들이시였으며 직업적인 혁명가로 키워주시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대통령감》이라고 불리운 한 대원에 대한 이야기는 그 실례의 하나로 된다. 그는 한때에 공산주의운동을 하려고 서울에 가서 화요파에 도 속해보고 엠엘파에도 관계했으며 동만에 와서는 《민생일보사》의 기자생활도 해보았고 농촌학교 교원생활도 한바 있었다. 그는 자기의 이러한 과거생활을 두고 환멸을 느끼였으나 갈길을 몰라 헤매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찾아온 그를 따뜻이 대하여주시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 《결국 제가 그전에 했다는 운동은 다 몹쓸것이였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장군님슬하에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들어 죄를 씻고 인민과 혁명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바치려고 합니다.》라고 진심으로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결의를 믿으시고 그를 조선인민혁명군에 받아주시였으며 새로 편성되는 사단의 비서처에서 사업하도록 두터운 신임을 베풀어주시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신임에 보답하기 위하여 전투와 유격대군무생활에서 언제나 모범이였다. 그는 선전문을 비롯하여 비서처에서 쓰는 글외에도 부대의 일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쓰다나니 항상 종이가 부족하여 담배종이까지 아껴가며 글을 썼고 담배는 곽 대통에 담아서 피웠다. 그리하여 대원들은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미에서 《대통령감》이라고 불렀다.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조직들과 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모범을 본받아 성분과 과거경력이 복잡한 사람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본인의 현재의 사상과 동향을 위주로 하여 믿고 포섭하였으며 교양개조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웠다. 국내와 만주의 여러 지역에 파견된 정치공작원들은 한사람의 군중이라도 더 많이 쟁취하여 혁명의 편에 이끌기 위하여 적들이 살판치는 삼엄한 적구의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굴함없이 싸워나갔다. 그들은 사람들의 성분이나 경력이 아니라 사상상태와 계급적 각오정도를 위주로 보고 반일감정이 있고 투쟁할 각오가 되여있는 사람이라면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혁명의 편에 묶어세움으로써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다져나갔다.

항일혁명투쟁시기 군중전취사업에서 얻은 경험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사람들을 우선 믿고 실천을 통하여 검열하고 교양개조한것이다.

혁명실천은 진리의 기준이며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검열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실천속에서 사람들은 검열되고 끊임없이 단련되며 혁명가로 자라난다. 류례없이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은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단련하는 용광로였으며 사상상태와 준비정도를 검열하고 공산주의혁명가로 자라나게 하는 혁명의 대학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준엄한 실천투쟁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열렬한 혁명가로 키워내시였다. 그들중에는 아직 사상적으로 나약하거나 준비정도가 어리며 과거경력이 복잡하여 의심을 받거나 지어 조직과 동지들로부터 고립되여있던 사람들도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대 지휘관들과 대원들에게 혁명적군중관점을 가지고 사람과의 사업에서 절대로 편협하지 말며 우선 믿고 포섭하며 실천투쟁을 통하여 검열하고 단련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혁명대렬안에 잠입한 종파사대주의자들에 의하여 반《민생단》투쟁이 극좌적으로 벌어져 동지호상간에 불신임이 조성되고 혁명대오가 사분오렬될 위기에 처하였을 때에도 왜놈들과 잘 싸우고 언제나 전투에서 승리하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누구도 《민생단》이라고 의심하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대원들을 고무하시였으며 혁명투쟁의 실천을 통하여 열렬한 혁명가로 키우시였다.

1935년 6월, 로흑산전투의 승리를 축하하는 경축회의가 열리고있을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통신련락이 왔다. 거기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가까이 모시고 다니는 한 대원이 《민생단》이므로 그 대원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장군님의 신변이 위험하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소에 혁명에 충실하고 적과 용감히 싸우던 그 대원이 《민생단》이라는것이 믿어지지 않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그가 《민생단》이 아니라는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대원에게 총을 가지고 삼차구부락에 가서 적의 주구를 잡아올데 대한 임무를 주시였다. 그러자 대원은 삼차구는 적구인데 무기를 가지고 갔다가 잘못하면 총을 잃지 않겠는가 하면서 맨손으로 가서 적 주구를 잡아오겠다고 하는것이였다. 혁명전사들을 극진히 아끼시는 수령님께서는 그 대원에게 총을 메워보냈으나 그는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가던 도중에 총을 묻어두고 빈손으로 적구에 들어가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돌아왔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생단》혐의를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선 믿고 실천을 통하여 검열하였으며 투쟁속에서 혁명가로 키우시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대중전취사업경험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여러가지 형태의 대중조직을 뭇고 그에 각계각층의 군중을 묶어세운것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 모든 반일군중들을 혁명조직의 성원으로 만드는것은 전민족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단합시키기 위한 기본담보였으며 대중전취사업의 위력한 방도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대중조직을 통하여 광범한 대중을 전취하는 사업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항일혁명투쟁의 첫시기부터 이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중이 있는 모든곳에서 혁명조직을 내오며 여기에 광범한 반일군중을 묶어세우는 원칙에서 계층별, 직업별 대중단체들과 포괄적이며 전일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을 내오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국내외의 넓은 지역에 로동자협회, 농민협회(농민동맹), 반일청년동맹, 반일부녀회, 아동단과 같은 광범한 대중을 계층별, 직업별로 묶어세울수 있는 대중단체들이 수많이 조직되고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로서 조국광복회가 결성됨으로써 모든 반일군중을 혁명조직에 굳게 결속시켜나갈수 있었다.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들을 여러가지 대중조직에 묶어세우는 사업은 저절로 되거나 손쉽게 이루어지는것이 아니였다. 그것은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우는 사업이 대상이 서로 다르고 적들의 삼엄한 감시속에서 진행되여야 한다는 사정과 관련되여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같은 요구를 반영하여 군중과의 사업을 계층별로 짜고들어 끊임없이 심화시키며 대상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할데 대한 실천적인 방도를 제시하시고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기본군중인 로동자, 농민들 속에서 그들의 특성에 맞는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시여 혁명의 주력군으로 튼튼히 꾸리시였다. 이것은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혁명조직에 묶어세우는 사업에서 선결조건으로 된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기본군중에 의거하여 대중조직을 계급적으로 튼튼히 꾸릴수 있었으며 또

한 각계각층 군중에게 혁명적영향을 주어 그들을 전취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계급적인 처지와 사회정치생활의 경위가 다른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그들의 특성에 맞게 교양개조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대중조직에 묶어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각계각층 군중의 처지와 동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청년학생, 지식인, 민족자본가, 민족주의자, 종교인들과의 사업을 폭넓고 아량있게 벌리시였다. 반일적인 종교인들을 조국광복의 기치밑에 조직에 묶어세운것은 그 하나의 실례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종교인들과의 사업에서 교도의 하층군중 특히 시대의 추세에 민감한 청년종교인들과의 사업에 기본을 두면서 이에 상층들과의 사업을 능숙히 결합하여 진행하도록 하시였으며 각종 류파의 교인들속에서 자체내부의 투쟁을 강화하여 친일배족행위를 배격하고 애국적립장을 견지하며 조국광복회 조직에 결속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시 천도교인들속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함남도 도정인 박인진에게 친히 편지도 보내시고 그를 백두산밀영에 부르시여 만나주기까지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직접 만나뵙는 영광을 지닌 그는 반일의 뜻을 품고 주저없이 조국광복회 회원이 되였으며 천도교 도정의 직위를 리용하여 천도교인들을 조국광복회 조직에 끌어들이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서울에까지 가서 천도교 상층우두머리에게 반일애국사상을 선전하였으며 매국적인 반동상층과 인연을 끊고 자기 관할밑에 있던 많은 교인들을 조국광복회에 망라시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주, 자본가들에 대해서도 반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들을 갈라보시고 반일적인 지주들과 민족적량심이 있는 자본가들에 대해서는 교양개조하여 무장투쟁의 지지자, 동정자로 만들도록 하시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의 대중전취의 력사적경험은 우리에게 총부리를 돌려대는 계급적원쑤가 아니라면 그 어느 계급, 계층이라 하더라도 혁명의 편에 묶어세울수 있으며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교양개조하여 열렬한 혁명가로 키울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준엄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대중전취경험은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과정에 마련된것으로서 우리 당과 인민에게 더없이 귀중한 재부로 된다.

오늘 우리 당은 대중과 혈연적으로 련결되여있으며 우리 인민은 당에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가고있다. 이것은 우리 당이 항일의 불길속에서 마련된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한 대중전취경험을 빛나게 계승하고 발전풍부화시켜온 결과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항일혁명투쟁시기 대중전취경험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군중과의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우리의 혁명대오를 더욱 불패의것으로 튼튼히 다져야 할것이다.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것은 당건설의 근본원칙

서 윤 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조직사상적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한 강령적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당과 혁명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우리앞에 무겁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는 오늘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매우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고있다.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것은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건적문제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것은 로동계급의 당 건설의 근본원칙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건적문제입니다.》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사회적집단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통일적으로 조직지휘하는 당과 같은 혁명의 정치적참모부가 있어야 하며 그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통하여 확고히 담보된다.

당의 령도체계를 세운다는것은 전당에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고 강철같은 규률을 확립하며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당조직관념을 높이고 당생활을 강화하여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중앙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것은 당이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있게 하는 당건설의 근본원칙이다.

당을 건설하고 그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높이는 목적은 중요하게 당이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려는데 있다. 그런것만큼 당건설의 근본원칙은 마땅히 당이 자기의 령도적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제반 요구들을 옳게 실현할수 있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혁명의 정치적참모부이다.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당의 령도적기능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작성제시하고 결정지시를 채택하달하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는데서 표현된다. 당은 혁명발전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반영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결정과 지시를 채택하며 그것을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전당을 움직이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를 실현해나간다. 당이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자면 당안에 당의 결정과 지시를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은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통하여 확립되게 된다.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요구는 전당에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는것이다. 당의 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워야 당의 결정과 지시가 하부말단까지 거침없이 내려가고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될수 있으며 수령의 혁명위업을 받들어나가는 령도자의 유일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유일적령도와 통일적지휘는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당의

중요한 령도적기능의 하나이다. 당의 이러한 령도적기능은 혁명적조직규률에 의하여 담보되고 실현된다.

당안에 혁명적 규률과 질서를 세울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는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것이다.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 것은 당사업과 당활동,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당중앙의 유일적 결론과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집행해나가게 함으로써 전당이 오직 하나의 사상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혁명적 규률과 질서를 세울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것은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고 전당이 당중앙의 지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을 세워 당이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한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것은 당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된다.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것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당건설의 근본원칙이다.

로동계급의 당건설과정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 과정이며 따라서 당건설의 근본원칙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발전시키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한다.

당은 당원대중이 뭉친 정치조직이다. 당이 조직사상적으로 공고발전되려면 당을 이루고있는 모든 당원들이 정치사상적으로 견전하고 당의 조직원칙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여야 한다. 당원들의 정치사상수준은 당대렬의 질적공고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징표로 된다.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것은 당원들의 정치사상수준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 당조직관념을 높이고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당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시키고 조직적으로 단련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것은 바로 당원들속에서 조직관념을 높이고 당생활을 강화하여 그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의 정수분자로 키우고 조직적으로 단련함으로써 당대렬을 질적으로 개선강화하고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발전시킬수 있게 한다.

당의 조직사상적공고성은 또한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에서 표현된다.

당이 사상의지적으로 단결되고 조직적으로 결속되며 행동의 일치성과 통일성을 보장하자면 그 단결의 중심과 사상적기초가 있어야 할뿐아니라 전당을 하나와 같이 움직이게 하는 혁명적규률이 있어야 한다. 규률은 조직된 부대로서의 당의 존재를 유지하며 그 공고발전을 담보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당안에 혁명적 규률과 질서가 서있지 못한 당은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실현할수 없으며 자기의 존재자체도 제대로 유지할수 없다. 당안에 혁명적 규률과 질서가 서있는 당만이 사상적단합과 행동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으며 조직사상적으로 굳임없이 공고화될수 있는것이다.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것은 강철같은 규률을 확립하여 당안에서 온갖 이색적인 사상요소를 철저히 극복하고 오직 수령의 사상과 당의 의도만이 전당을 지배하게 함으로써 당의 사상적순결성을 철저히 보장할수 있게 한다. 그것은 또한 당사업과 당활동이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조직전개되게 하여 당안에서 비조직적이며 무규률적인 현상을 없애고 전당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게 함으로써 당대렬의 조직적순결성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룩할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굳임없이 공고발전시킬수 있게 하는것으로 하여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것은 당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된다.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것은 당이 존재하고 활동하는 전기간 일관하게 견지하고 관철하여야 할 당건설의 근본원칙이다.

당건설의 근본원칙은 당이 존재하는 전기간 일관하게 견지하고 항구적으로 관철하여야 할 원칙으로 되여야 하며 대를 이어 계속되는 당건설위업수행의

합법칙적요구를 정확히 구현한것으로 되여야 한다.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혁명적당건설의 어느 한 시기, 어느 한 단계가 아니라 당이 존재하고 활동하는 전과정에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항구적인 사업으로 된다.

수령의 위업, 당의 위업은 여러 단계의 혁명과업수행을 통하여 실현되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 이룩되는 장기적인 력사적위업이다. 이로부터 혁명위업계승문제와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가는 당의 령도체계를 세워야 할 요구가 제기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을 개척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데서와 마찬가지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가는데서 혁명을 진두에서 이끌어나가는 혁명의 령도자는 결정적역할을 한다. 혁명의 령도자에 의하여 수령의 혁명위업이 계승되며 당의 혁명적성격이 고수되고 그 면모가 완성되여나간다. 혁명위업의 계승은 곧 령도의 계승이라고 말할수 있다. 때문에 혁명의 령도자가 혁명위업, 당건설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가기 위하여서는 전당과 온 사회에 자기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할수 있는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하며 특히 그것은 혁명이 전진하고 당건설위업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함에 따라 끊임없이 심화되고 강화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조직사상적기초를 축성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고 당의 사상리론을 전면적으로 구현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우리 당발전에서 일어난 이러한 전환은 당의 사상리론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더욱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시켜나갈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것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온 혁명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자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책임적인 사업이다. 당은 자기 령도자의 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워나가야 당사업과 당활동, 혁명과 건설전반에 대한 당의 통일적령도를 철저히 보장할수 있다.

우리 당에 있어서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전당과 온 사회에 구현하고 당사업과 당활동이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조직진행되는 규률과 질서를 세우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것이다. 우리 당의 령도체계는 바로 대를 이어 계승되는 혁명위업, 당건설위업 수행에서 최고령도자로서의 당의 지위와 역할을 확고히 보장하고 수령의 절대적권위와 결정적역할을 철저히 이어나갈수 있게 함으로써 당중앙의 의도대로 혁명을 전진시키고 당건설위업을 빛나게 완성할수 있게 한다. 이것은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당이 존재하고 활동하는 전기간 일관하게 견지하고 관철하여야 할 당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으며 혁명이 전진하고 당건설위업이 높은 단계에 올라설수록 더욱 심화발전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로정을 걸어온 우리 혁명은 1970년대에 이르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기치밑에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이것은 혁명의 정치적참모부인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고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혁명 발전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것을 우리 당 건설의 근본원칙으로 제시하시였다.

우리 당에 의하여 당의 령도체계를 세울데 대한 독창적인 당건설사상이 제시됨으로써 당건설의 근본원칙이 새롭게 밝혀지고 당이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있는 넓은 길이 열려지

계 되였으며 주체형의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그 면모를 완성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또한 그것은 대를 이어 계승되고 완성되는 혁명위업, 당건설위업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구현하여 당의 운명, 혁명의 전도와 관련한 근본문제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준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로 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본질적내용과 기본요구들을 전면적으로 밝히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이 비할바없이 높아지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가 확고히 보장되게 되였다. 전당에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수립되였으며 당중앙의 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중앙집권적규률이 확립되게 되였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중앙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과 높은 정치적자각을 가지고 오직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며 당과 혁명의 요구라면 불타는 강도 서슴없이 건느고 험한 진펄이라도 주저없이 헤쳐나가려는 굳센 의지를 가지고 견결히 싸워나가고있다.

당원들의 조직관념이 높아지고 당생활이 강화되여 당대렬이 질적으로 강화되였으며 혁명의 골간력량이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당안에는 당의 령도를 조직사상적으로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령도지반이 마련되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지도체제가 튼튼히 서게 되였다.

당의 강화발전과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위대한 업적으로 하여 우리 당중앙은 높은 령도적권위를 지니게 되였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실지체험을 통하여 당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깊이 체득하고 당에 대한 충성심을 드팀없는 신념으로 가슴깊이 간직하게 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들에게 있어서는 당중앙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해나가는것이 확고한 신념에 기초한 고도의 자각적인 투쟁기풍으로, 사활적인 사업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의 높은 령도적권위와 백전백승의 위력은 바로 전당에 당의 령도체계가 확고히 선데 있으며 이것은 당건설과 당사업에서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이룩한 가장 고귀한 업적의 하나로 빛나고있다.

오늘 우리 혁명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있으며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무겁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발전하는 현실과 제기된 혁명임무는 당의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것을 요구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가 확고히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책임적인 사업이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당사업과 당활동,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당중앙의 령도적권위를 철저히 옹호보위하며 당중앙을 받들고 끝까지 혁명하겠다는 견결한 혁명정신을 가지는것은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선차적요구이다.

당의 령도체계는 당중앙의 높은 령도적권위와 당에 대한 당원들과 근로자들

의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하여 세워지고 공고발전하게 된다. 당의 령도적권위를 백방으로 옹호보위하고 당중앙을 받들고 끝까지 혁명하겠다는 견결한 혁명정신을 가져야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는것은 당중앙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하고 당의 령도적권위를 옹호보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혁명의 령도자에 대한 충실성, 그의 령도적권위를 옹호보위하려는 각오와 신념은 령도자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할 때에만 형성되고 공고화될수 있다.

우리 당중앙은 창조적사상리론활동과 탁월한 령도력, 빛나는 업적으로 하여 높은 권위와 위신을 지니고있으며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다.

우리 당에 의하여 수많은 독창적인 로선과、정책들이 제시되고 탁월한 사상과 리론들이 밝혀지게 되였다. 우리 당은 적극적인 실천활동과 현명한 령도로 당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왔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 이룩되고있는 자랑찬 성과들과 빛나는 승리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가 가져다준 고귀한 결실이며 우리 조국과 인민이 지니고있는 높은 존엄과 영예는 곧 우리 당의 높은 권위이며 영예이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우리 당의 위대성과 거대한 업적, 령도의 현명성을 생동한 사실을 가지고 깊이 깨우쳐주어 그들모두가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도록 하여야 하며 가장 권위있고 존엄있는 당의 한성원이 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조직들은 당중앙의 령도적권위를 보장하는것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조직하고 포치하며 당에서 구상하고 조직하는 문제를 옳게 해결하여 은을 내게 하고 생활력이 나타나게 하는것이 곧 당중앙의 권위를 옹호보위하는 가장 책임적인 사업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여기에 언제나 최대의 주목을 돌려야 한다.

당의 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전당에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는것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과 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교시에 기초하고있으며 전당의 조직적의사를 반영하고있다. 거기에는 수령이 바라고 의도하는대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고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투쟁과업과 그 해결방도들이 밝혀져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하기 위한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과 숭고한 뜻이 깃들어있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의 결정과 지시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교시를 실현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지침으로,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사소한 리유와 조건타발도 없이 모든 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조직사업을 통하여 실현되게 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불러일으키고 온갖 조건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당이 준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갈수 있다.

당의 결정과 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집체적토의와 옳은 집행대책의 수립, 구체적인 분공조직, 그 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총화와 재포치 사업, 이러한것이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반드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조직사업의 중요한 내용이며 공정이다.

당조직들은 당의 결정과 지시가 내려가면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옳은 집행대책을 세우고 분공을 구체적으로 조직하며 그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재포치함으로써 그것이 끝까지 철저히 관철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안에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을 세우는것은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규률은 당조직들과 당원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규범이며 전당이 하나의 지휘봉에 따라 일치하게 움직이게 하는 질서이다. 당안에 이러한 규률을 확립하는것은 당을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움직이는 전일적인 산 조직으로 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당안에 열가지를 하고싶어도 한가지만 하라고 하면 반드시 그대로만 하는 제도와 질서가 서있고 모든 당 사업과 활동이 당중앙에서 결론하고 지시한대로 조직진행되는 엄격한 규률이 서있는 당만이 자기의 령도자를 중심으로 철통같이 뭉칠수 있으며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당사업과 당활동, 당정책관철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원칙적문제들을 당중앙에 보고하고 유일적인 결론과 지시에 따라 처리하는 제도와 질서를 세우는것은 당의 혁명적조직규률의 가장 중요한 원칙적요구이다.

당중앙의 결론과 지시에는 제기된 문제에 대한 당의 요구가 담겨져있으며 수행하여야 할 정책적과업과 그 실현방도가 명확히 제시되여있다.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당의 결론과 지시에 따라 처리하는 규률과 질서를 세워야 정확한 사업방향을 가지고 아무러한 편향도 없이 사업을 전개해나갈수 있으며 수령의 구상과 당의 의도를 철저히 구현해나갈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당사업과 당활동, 당정책관철에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문제들을 반드시 당중앙의 결론과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집행하는 엄격한 규률과 질서를 세움으로써 당의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당의 령도체계를 세워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 당조직들은 온 나라의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나 다 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바로 도당과 군당, 련합기업소당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당조직들을 통하여 실현된다. 당조직들은 해당 단위의 전반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있으며 당의 구상과 의도에 따라 그것을 조직집행해나가고있다. 그러므로 당의 령도를 보장하고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데서 지역적 및 생산적 단위에 조직되여 활동하고있는 각급 당위원회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된다. 모든 당조직들이 다 활발히 움직여야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울수 있다.

각급 당위원회들은 집체적협의를 강화하고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해당 단위의 전반사업이 당의 의도대로 정확히 조직진행되도록 책임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특히 련합기업소당위원회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높고 능력과 실무가 겸비된 일군들로 튼튼히 꾸리고 그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실속있게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투쟁의 전로정은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고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온 로정이며 당의 령도밑에 우리 혁명의 앞길을 빛나게 개척하여온 자랑찬 력사이다. 주체의 혁명위업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길을 걸어왔으며 앞으로도 그것은 우리 당의 령도에 의해서만 종국적으로 완성될수 있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계속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심화발전과 군당위원회의 사업

곽 영 건

오늘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다그쳐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 장엄한 투쟁을 현지에서 직접 조직지도하는것은 우리의 당조직들 특히 군당위원회들이다.

군당위원회의 사업을 개선하는것은 우리 당의 정책적의도에 맞게 농촌건설을 적극 추진시켜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정원군당위원회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높이 받들고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치며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일정한 성과와 경험을 이룩하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군당위원회의 역할을 높여 농촌사업을 더욱 개선함으로써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력사적과업을 앞당겨실현해나가야 할것이다.

* *

사회주의농촌건설은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영예롭고도 보람찬 사업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농촌에 남아있는 낡은 사회의 유물들을 없애버리고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요구에 맞게 농촌을 발전시켜나가는 거창한 투쟁이다.

이 방대한 사업을 수행하려면 그 직접적담당자인 농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여 사회주의농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농업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이 높아지고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될수록 농촌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는 더욱 공고발전되게 되며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요구에 맞게 농촌을 발전시킬데 대한 과업은 그만큼 앞당겨실현되게 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위한 투쟁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발전되고있다.

수리화, 전기화를 이미 오래전에 완성하고 기계화, 화학화를 적극 추진시켜온 우리의 농촌경리는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향하여 힘있게 전진하고있다. 농업의 기술장비수준은 전례없이 높아졌으며 기계와 화학의 힘으로 농사짓는 새로운 시대에 확고히 들어섰다.

우리 농촌의 변모는 농촌 사상혁명과 문화혁명 수행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여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이 빨리 높아진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오늘 우리 농민들은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담당자,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고 당의 의도에 맞게 농업생산을 늘이며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꾸려나가는 보람찬 투쟁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위한 투쟁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벌어지고있으며 협동적소유를 전민소유로 넘기여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것이 일정하게 성숙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위한 투쟁이 전례없는 폭과 깊이에서 심화발전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군당위원회들의 역할

을 높여 농촌의 전반사업을 개선하고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당위원회의 농촌사업지도를 계속 개선강화하는것은 우리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김일성저작집》 제18권, 236페지)

군당위원회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무엇보다도 농촌사업에 대한 키잡이를 잘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발전되고있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사회주의농촌건설은 지역적으로 분산되여있는 농촌들에서 도시에 비한 사상, 기술, 문화의 락후성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사회주의농촌건설이 심화발전되고있는 오늘에 와서도 지역적분산성은 농촌사업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특징으로 되고있으며 농촌의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을 없앨데 대한 과업은 완전히 수행되지 못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주의농촌건설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나가려면 군당위원회가 농촌사업에 대한 키잡이를 잘하여야 한다. 군당위원회가 군의 참모부로서 농촌사업에 대한 키잡이를 잘할 때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위한 투쟁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는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전반적농촌사업에서 선후차를 옳게 가리고 작전과 지휘를 개선하여 농민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와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농촌건설이 심화발전되고있는 오늘 군당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할 주되는 리유의 하나가 여기에 있는것이다.

군당위원회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또한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농촌건설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의 성과여부는 그 주인인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어떻게 반동시키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사상혁명을 심화시켜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제때에 성과적으로 풀수 있으며 도시와 농촌의 차이도 더욱 빨리 없애나갈수 있다.

군당위원회는 농촌에서 사상혁명의 직접적조직자이며 집행자이다. 군당위원회는 농촌당조직들과 농촌간부들, 농촌당원들과 농민군중과 사업하며 농촌에서의 사상교양사업을 책임지고 조직전개해나간다. 그러므로 군당위원회의 사업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농민들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없으며 따라서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더욱 다그쳐나갈수도 없게 된다.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농촌건설이 심화되고있는 오늘 군당위원회의 역할을 높여야 하는 또하나의 리유가 있는것이다.

사회주의농촌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군당위원회의 역할을 높여 농촌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은 우리 당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제시되였다.

여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농촌당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획기적인 조치이다. 우리 당은 농민을 위한 당사업, 농업생산을 책임지는 당사업이 곧 농촌당사업이라는것을 밝히고 인민경제의 2대부문인 농업을 발전시키며 농민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모를 박고 농촌당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농촌당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정책은 군당위원회들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농촌진지를 더욱 강화하며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고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며 농민들의 생활조건을 잘 보장하고 농촌의 특성에 맞는 지도방법과 작풍을 확립해

나가기 위한 강령적지침이다.

우리 당은 또한 군당위원회들이 농촌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며 3대혁명소조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였다.

우리 당이 제시한 이 모든 로선과 정책들은 농촌당조직들 특히 군당위원회들로 하여금 뚜렷한 목표와 방도를 가지고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심화시켜 농촌테제를 완전히 실현하고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가도록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평원군당위원회는 지난 기간 사회주의농촌건설에로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계속 심화시켜왔다.

평원군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사적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 조국 건설의 첫시기인 1946년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80여차례에 걸쳐 평원군을 몸소 찾으시고 당사업과 농촌경리부문 사업을 비롯한 군의 전반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여주시였다. 원화리와 삼봉리를 비롯한 수많은 단위들이 영광의 사적지로 되고있는 우리 군에서 당의 의도에 맞게 군사업을 개선하며 농촌건설을 잘해나가는것은 가장 영예롭고 보람찬 사업으로 된다.

군당위원회는 무엇보다먼저 당일군들이 당과 수령의 의도를 실현하는 투쟁에서 자기의 위치를 옳게 인식하고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책임지는 립장에 튼튼히 서서 근로자들속에서 움트는 자그마한 새싹이라도 귀중히 여기고 적극 키워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심화시켰다. 군당책임일군들이 직접 틀어쥐고 진행한 이러한 사업들은 당일군들속에서 언제나 당과 수령의 높은 신임에 의하여 당사업을 한다는 자각을 더욱 높여주었으며 광범한 대중으로 하여금 당에 모든것을 의탁하고 일을 찾아하면서 당정책을 관철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도록 추동하였다.

군당위원회는 이와 함께 화진리와 운룡리에서 농촌당원들이 선봉적역할을 하도록 하는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면서 당세포들의 전투적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으며 모든 초급일군들이 생산로동에서 이신작칙하면서 당의 농업정책을 관철해나가도록 조직지도사업과 당적통제를 심화시켰다. 또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비롯한 행정경제기관들이 농촌건설을 전망성있게 설계하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대담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가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하였으며 영화실효투쟁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농민들의 열의와 창발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이처럼 군당위원회가 농촌당조직들과 농촌당원들,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농민대중을 발동하는데 모를 박으면서 농촌의 전반사업을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지도한 결과 우리 군에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한랭전선의 영향이 혹심하게 미치는 조건에서도 우리 군의 알곡생산량은 1970년대초에 비하여 1980년에는 근 2.5배로 늘어났으며 오늘은 15만톤의 높은 알곡고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자체의 힘으로 간석지를 개간하고 새땅을 찾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 최근 10년사이만 하여도 경지면적을 3,000정보이상 늘이고 현대적인 대풍협동농장을 건설해놓았을뿐아니라 평원저수지를 새로 일떠세우고 모내는 기계, 모뜨는 기계를 비롯한 능률적인 기술수단들을 널리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군의 농업생산토대는 비할바없이 강화되였다. 부락 하나를 건설하고 과수원을 새로 조성하여도 오늘뿐아니라 먼 앞날에도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도록 전망성있게 건설한 결과 오늘 우리 군안의 농촌

마을들은 그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하였으며 농민들은 문화주택이 즐비하게 늘어서고 텔레비존과 수도화가 실현된 사회주의문화농촌에서 보람찬 삶을 누리고있다.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는 몰라보게 달라지고 특히 새세대청년들이 사회주의농촌의 주인으로 튼튼히 자라났다.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위한 거창한 투쟁과정에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영광의 사적이 깃들어있는 원화협동농장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이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았다.

이 모든 성과들은 전적으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시고 농촌사업을 언제나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오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당조직들 특히 군당위원회들은 사회주의농촌건설이 심화발전되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자기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빛나게 수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나서는 선차적인 문제의 하나는 군당위원회들이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농장원들로 하여금 주인다운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당적지도를 잘하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촌경리부문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농촌경리부문지도일군들과 협동농장원들이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다그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사를 잘 지어야 하며 농사를 잘 짓자면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주인다운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농사는 넓은 지역에 분산되여 생명체인 농작물을 다루는 복잡한 일이다. 농사의 적기는 한해에 한번밖에 없다. 농사일은 또한 모든 공정이 련관되여있으며 생산결과는 년말에 가서야 총체적으로 나타난다. 농업생산의 이러한 특성은 그 담당자들이 주인다운 립장에 튼튼히 서서 모든 일을 책임적으로 해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한다.

지난 기간 평원군당위원회는 농업생산의 결과를 가지고 정치적평가를 잘하며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함으로써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농장원들 속에서 주인다운 기풍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일정한 전진을 이룩하였다. 군당책임일군들은 농촌에서 주인다운 자각이 부족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원인을 찾고 처방을 내리기 위하여 20여명의 아래일군들을 데리고 신송리와 운봉리에 나가 40일동안 농장원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실태를 료해하였으며 그것을 군안의 모든 리들의 형편과 대비하여 분석하고 집체적토의를 거쳐 옳바른 대책을 세워나갔다. 우리의 경험은 당의 농업정책 관철에서의 성과를 놓고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평가한데 기초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높고 능력이 있는 일군들로 협동농장 분조장이상 초급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이 농사일의 앞장에 서도록 하며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분배를 잘하는 여기에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농장원들 속에서 주인다운 기풍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기본고리가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군당위원회들은 언제나 농민들속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고 당의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회주의농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특성에 맞게 정치도덕적자극을 앞세우면서 물질적자극을 잘하도록 당적지도를 심화시켜야 하며 모든 일군들 특히 군당책임일군들이 조건이 불리하고 어려운 일, 새롭고 복잡한 과업이 제기될 때마다 이신작칙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군당위원회의 사업에서 중요한것은 군안의 행정경제기관들 특히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하도록 당적지도를 심화시키는것이다.

농업생산을 비롯하여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경제사업을 직접 조직하고 집행하는것은 군당위원회가 아니라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비롯한 행정경제기관들이다.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군당위원회의 중요한 임무는 행정대행과 행정식사업방법을 철저히 배격하고 경제사업을 정치적으로 지도하며 당적으로 안받침하여주는데 있다. 그러므로 군당위원회들은 언제나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발동하는 한편 행정경제기관들 특히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제구실을 하도록 키잡이를 잘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한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부문의 모든 일군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맡겨진 임무를 어김없이 수행해나가는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우도록 당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농촌경리에 대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기업적지도는 경제사업에서 엄격한 규률과 질서를 세울것을 요구하며 이 요구를 철저히 실현하여야 경영위원회의 역할도 높아지게 된다. 군당위원회는 군안의 농업생산과 농촌건설에 대하여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전면에 나서서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힘있게 내밀도록 당적으로 잘 안받침해주어야 하며 농업부문 일군들속에서 자기 단위의 사업을 강하게 틀어쥐지 않거나 당의 농업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웃단위에서 분공한 과업을 제때에 수행하지 않는 사소한 요소도 나타나지 않도록 당적통제를 심화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군안의 행정경제기관들로 하여금 당정책에 튼튼히 의거하여 농촌에서의 경제문화사업을 옳게 수행하게끔 방향을 제때에 제시해주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사회주의농촌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도록 당적으로 적극 떠밀어주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당의 의도에 맞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비롯한 행정경제기관들의 역할을 높이고 군당위원회의 정치적지도, 정책적지도를 옳게 보장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군앞에 나선 농촌건설의 방대한 과업을 제때에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군당위원회앞에 맡겨진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군당책임일군들을 비롯한 당일군들의 수준을 높이는것이다.

오늘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발전되고있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은 수준이 높은 당일군들만이 당적으로 실속있게 지도할수 있다. 수준이 높지 못한 당일군은 농민들과 의사소통을 깊이있게 할수 없고 걸린 고리들과 그것을 풀기 위한 대책을 옳게 찾아낼수 없으며 따라서 자기앞에 맡겨진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없게 된다.

농촌사업을 하는 일군들의 가장 훌륭한 선생은 다름아닌 농민대중이다. 군당책임일군들은 당정책학습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농민대중의 힘과 지혜를 굳게 믿고 그들속에 깊이 들어가 허심하게 배우고 격식과 틀이 없이 일해나가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또한 아래일군들에게 대담하게 사업을 맡기고 현실에 직접 데리고나가 농민들의 풍습에 맞게 생활하면서 그들을 배워주는 사업도 짜고들어야 한다. 이처럼 수준을 높이는 사업을 잘하여 모든 당일군들이 정치사업을 하나 설계해도 내용이 깊게 하고 조직사업을 해도 현실에 맞게 빈틈없이 진행할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될 때 사회주의농촌건설은 그만큼 더 빨리 진척되게 된다.

군당위원회들은 사회주의농촌건설이 심화되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의도를 빛나게 실현하고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를 이룩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당원들의 조직관념을 높이기 위한 당위원회의 지도

조 성 일

오늘 우리의 당원들이 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조직적으로 굳게 결속되여 혁명의 한길에서 충성을 다하고있는것은 혁명적조직관념에 그 원천을 두고있다.

당조직관념은 당조직을 사랑하고 존엄있게 대하며 당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조직에 철저히 의거하며 당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조직의 결정과 위임분공을 무조건 집행하는 당원의 견결한 립장과 태도이다. 이 고상한 품성을 가짐으로써 당원들은 당과 수령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혁명적신념과 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길에 혁명가의 참된 삶이 있고 혁명의 승리가 있다는 투철한 사상감정을 지니게 된다. 그리고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강한 규률성을 지니고 당의 령도를 받들어나가는 혁명의 전위투사로 자라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당원들이 당조직관념을 바로 가지는것은 결국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받들어모시고 혁명가의 영원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는데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로 된다.

우리 당은 당조직관념을 높이는것을 당건설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로 내세우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이 사업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왔다.

만경대구역당위원회는 지난 기간 우리 당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당조직관념을 높이기 위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 사업에 큰 힘을 넣어왔으며 이 과정에 일련의 성과와 경험을 체득하였다.

우리가 당조직관념을 높이기 위하여 커다란 힘을 넣은것은 무엇보다먼저 당원들속에서 우리 당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든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에 모든것을 의탁하고 당밖에 모른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서는 당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원들이 당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게 하는것은 당조직관념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선차적요구이다. 당조직관념은 당조직을 대하는 립장과 태도인것만큼 그것은 오직 당에 대한 옳은 인식에 기초하여 형성되고 공고화되게 된다.

당원들이 당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도록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그들이 우리 당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에 대하여 똑똑히 알게 하는것이다. 그래야 당원들로 하여금 우리 당만을 믿고 모든것을 당조직에 의탁하여 투쟁하려는 혁명적신념을 굳건히 간직해나가게 할수 있다.

지난 시기 우리 구역안의 일부 당일군들속에서는 당조직관념을 높일데 대하여 일반적 호소나 강조만 하면서 당원들이 우리 당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당원들속에서는 조직관념이 부족하고 당생활을 성근하게 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있었다. 여기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은 우리는 당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는데 보다 큰 관심을 돌렸다.

우리 당의 위대성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 창조적사상리론활동의 위대성이다. 구역당위원회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발표하신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비롯한 고전적문헌들을 귀중한 교과서로 삼고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주체사상의 원리들을 학습시키는 과정에 당원들속에 우리 당의 사상리론의 위대성과 그 불패의 생활력을 깊이 체득시켜나갔다. 학습회와 담화, 생활총화 등 당생활지도의 모든 계기들에서 우리 당에 의하여 발전풍부화된 주체사상의 원리들을 인식시키면서 동시에 우리 당의 창조적사상리론활동의 독창성과 불멸의 업적을 설득력있게 해설하여주었다. 그리고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 등 우리 당이 제시한 혁명적구호들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그것이 실지로 구현되도록 적극 이끌어주었다. 이리하여 혁명의 기치를 끝까지 고수하며 위대한 전변을 이룩해나가는 우리 당의 비범성과 현명성이 당원들의 심장속에 간직되게 되였다.

우리 구역은 혁명의 성지 만경대가 자리잡고있으며 공장, 기업소와 협동농장들에 대한 근 200차례에 걸치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지지도 로정이 깃들어있는 유서깊은 곳이다. 구역안의 어느곳에나 우리 당의 세심하고도 정력적인 지도가 미치지 않은데란 없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 구역에서도 날에 날마다 새로운 전변을 이룩해나가고있다. 인민생활에 복무하는 현대적인 공장들이 수많이 일떠서고 농업의 기계화, 화학화가 실현되여 해마다 만풍년을 가져오고있다. 당의 배려에 의하여 우리 구역은 교육, 보건, 체육에서도 모범구역의 영예를 지니고있다. 그리하여 당의 은덕속에서 누구나 다 세상에 부럼없는 자주적인 삶을 누리고있다. 이것은 인민들의 운명과 생활을 책임지고 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산 현실이다.

구역당위원회는 이러한 현실을 놓고 당원들이 진실로 우리 당에 대한 신뢰의 정을 더욱 깊이 간직하도록 교양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우리 당의 구상에 의하여 혁명의 요람 만경대에 만년대계의 대유희장이 건설될 때였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유희장건설지원사업에 떨쳐나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으며 여기에서 당일군들이 앞장서나갔다. 건설장에서 모든 당원들은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펼치고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일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우리 당의 숭고한 령도풍모에 대하여 느끼면서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와 세련된 령도력을 지닌 당의 위대성과 현명성을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당이 베풀어준 사랑과 배려가 그대로 인민들에게 미치도록 하는것은 백마디의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그들속에서 당에 대한 신뢰의 정을 뜨겁게 간직하게 한다.

우리는 이것을 《8월3일인민소비품》 생산활동을 지도하는 과정에 깊이 느낄수 있었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은 인민들에게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려는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사업이다. 우리는 구역안의 행정경제일군들이 당면한 기본생산에만 급급하면서 방도를 찾지 못하고있을 때 그들과 함께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토론하고 이에 조직정치사업을 따라세웠다. 대중속에 들어간 우리는 필요한 생산설비들과 자재들을 탐구해냈으며 로동자, 기술자들과 함께 새로운 기술혁신안들과 로력예비도 찾아내고 생산에서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갔다. 그리하여 최근 몇해사이에 우리는 칠제일용품과 수지일용품, 섬유잡

화류를 비롯한 인민소비품 수천여종을 생산하여 구역내 인민들의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고있다.

이와 함께 우리는 경공업혁명과 봉사혁명의 불길을 높이며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문화후생시설들을 건설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우리 당의 크나큰 혜택과 배려가 인민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는데서 일정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생활체험을 통하여 당원들은 인민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켜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를 몸가까이 느끼면서 언제나 당을 받들고 당이 이끄는 길로 나갈 때만이 오늘뿐아니라 래일의 참다운 삶도 확고히 담보된다는것을 신념으로 간직하게 되였다.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았다.

구역당위원회는 우리 인민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는 당을 받들어나가자면 모든 당원들이 자기가 속한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당생활을 잘하여야 한다는것을 차근차근 일깨워주었다. 그리고 당조직관념을 높이는 과정은 바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간직해나가는 과정이며 이 행정이 당의 위력과 전투력을 강화하는 성스러운 사업이라는것을 설득력있게 가르쳐주었다. 당에 대한 혁명적신념을 간직하고 당조직관념을 높이는 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당원들은 당조직을 사랑하고 존엄있게 대하게 되였고 당조직에 의거하여 일해나가는 고상한 풍모를 확고히 지니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우리는 당조직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도록 하는것을 통하여서도 당원들속에서 조직관념을 높여나갔다. 당비서가 당조직이 아니며 당조직을 대표할수도 없다는것을 철저히 인식시킴으로써 당원들이 당조직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당생활을 해나갈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구역당위원회는 당원들에게 우리 당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당조직에 대한 관점을 바로 가지도록 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높은 조직관념을 가지고 생활할수 있게 하였다. 경험은 당위원회들이 따고들어 당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게 할 때 당원들속에서 당조직을 대하는 립장과 태도, 당조직관념을 바로 가지게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당원들의 조직관념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가 중요하게 관심을 돌린것은 또한 당조직들이 당원들로 하여금 당생활을 자각적으로 해나가도록 지도방조한것이다.

당조직관념을 바로 가지도록 하는 문제는 당원들속에 당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지게 하는것만으로는 원만히 해결할수 없다. 당조직관념은 당원들이 당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는 과정에서 더욱 공고화되여나간다.

당원들속에서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게 하는것은 당조직관념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원래 당원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혁명을 위하여 자진하여 당에 들어온것만큼 마땅히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세우는것은 당원의 본성적요구이다. 당원들이 높은 정치적각성을 가지고 당생활에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는다면 조직생활에서 벗어날수 있으며 머리에 녹이 쓸고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당조직도 몰라보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부터 열까지 당생활지도로 일관하여야 할 당일군들의 사업에서 언제나 중요한것은 당원들이 당생활규범의 요구를 자각적으로 지키며 생활해나가도록 지도방조하는것이다.

구역당위원회는 평양제1뻐스거리자동차수송대 당원들의 당생활지도를 심화시키는 과정에 당조직관념을 높여나가려면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얻게 되였다. 우리는 몇해전에 이 기업소의 한 당원이 당생활에서 과오를 범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그 원인을 알아보는 과정에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이 서지 않은데서는 조직관념이 점차 희박해지고 나중에는 무규률적인 현상들이 조성되게 된다는것을 다시한번 느끼게 되였다. 그때 이곳 당조직에서는 당원들이 개별임무를 많이 수행하고 운행길에서 여러날을 보내는 운전수들의 사업상 특성을 운운하면서 당생활의 자각성을 키워주기 위한 지도에 무관심하고있었다. 일부 당일군들은 운전수들과 같이 현지에 내려가서도 당면과업수행에서 걸린 문제나 푸는데 골몰하였지 그들의 당생활이 중단없이 진행되지 않고있는데 대하여서는 별로 관심을 돌리지 않고있었다.

우리는 이 하나의 사실에서 교훈을 찾고 이곳 당일군들이 우리 당이 세워준 새로운 당생활체계대로 당원들의 당조직사상생활을 옳게 이끌어나가도록 적극 도와주었다. 우리는 우선 생산을 추켜세운다고 하면서 행정대행이나 하고 또 돌러리식으로 행정의 뒤꼬리나 따라다닐것이 아니라 당일군들이 당원들의 당생활지도에 모를 박을수 있게 사업체계를 바로세워주었다. 그리고 당생활총화운영방법, 당학습망운영방법, 강연회운영방법 등 당생활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실정에 맞게 진행하도록 구역당위원회일군들이 실지 지도사업과정을 통하여 배워주었다. 이런 과정에 평양제1먼거리자동차수송대의 당일군들은 지혜를 짜내여 지방의 실정에 맞게 수송대의 중간화물역과 마감화물역을 꾸리고 거기에서 학습도 하고 생활총화도 하며 문화사업도 할수 있게 조건들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직접 수송사업에 참가하는 초급일군들을 학습강사와 강연강사로 선발하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 아무리 먼 수송길에서도 정상적으로 당생활을 조직진행하게 하였다. 또한 개별적으로 떠나는 운전수들에게는 학습자료도 쥐여주고 지방조직과 련계하여 당생활을 정상화할수 있게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해주었으며 돌아온 다음에는 그에 대한 총화를 반드시 진행하였다.

우리는 당원들이 당생활에 의식적으로 참가하도록 지도하는데만 그치지 않았다. 우리가 당생활지도체험을 통하여 얻은 교훈은 당원들을 당생활에 중단없이 참가시키는것만으로는 그것이 실지로 당조직관념을 높여나가는 방도로 될수 없다는것이다. 당생활총화 하나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당조직에 속을 주지 않고 외교하며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난 꺼리끼는 문제들을 솔직히 내놓고 총화하지 않는다면 그런 당원은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게 되며 때에 따라서는 당조직의 리익을 침해하는것도 서슴지않게 된다. 우리는 당조직들이 당생활총화를 사상투쟁의 분위기속에서 진행하는 한편 당원들이 남모르게 저지른 과오도 툭 털어놓고 자기 생활을 검토총화할수 있도록 당생활총화에 대한 지도를 심화시켜나갔다. 만경대공작기계공장과 만경대협동농장 초급당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당조직들이 당생활총화 전날에 당원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생활을 검토하게 하고 당생활총화를 허심하게 하지 않은 당원들에 대하여서는 우리 당이 세워준 당생활총화제도의 우월성을 해설해주면서 다시 당세포에 찾아가 총화하도록 도와주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당생활총화를 비롯한 당생활의 모든 내용들이 실속있게 수행되게 지도함으로써 당원들의 당조직관념을 높이는 사업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당조직관념은 혁명과업수행을 위한 당적분공수행과정에 더욱 높아진다. 당적분공수행을 떠난 당생활이란 있을수 없으며 분공수행에 대한 지도를 잘해나가는 당조직이야말로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나갈수 있다. 어느 한 중요건설대상에 송전선건설사업소 당원들을 동원시키고 지도한 경험은 이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그들이 그때 받은 분공이란 해발 1,000메터이상 되는 산마루우

에 령하4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속에서 허리까지 치는 눈을 헤치며 송전선을 놓여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였다.

이곳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현지에 내려가 당원협의회를 열고 매 개인의 기술과 체질에 맞게 세부화된 분공을 조직하고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당조직의 방조밑에 당원들은 공사기일을 앞당길수 있는 새로운 방도들을 찾아내면서 매일매일 자기의 분공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당조직에 보고하는 기풍을 세워나갔다. 이러는 과정에 당조직과 당원들의 결심이 합쳐지고 창조적 적극성과 지혜가 남김없이 발휘되여 1년이 걸려야 한다던 송전선건설을 3개월만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그때 송전선건설사업소 1건설대의 한 로당원은 심한 눈보라속에서 하루전투를 마치고 숙소에 내려와 자기의 혁명과업수행정형을 스스로 총화하는 과정에 철탑을 조립하다가 볼트 하나를 미처 채우지 못하고 내려왔다는것을 깨닫고 그밤으로 20리나 되는 험한 령길을 다시 톺아올라가 마저 일을 끝내고야 돌아오는 모범적소행을 보여주었다. 조직이 준 그날의 분공을 다소나마 어길번하였던 자신을 심각히 검토하면서 그는 당조직의 숨결을 뜨겁게 느끼였고 당이 준 혁명임무에 대한 자각을 더욱 굳게 가지였다.

우리는 당과 함께 30여년간 묵묵히 송전선을 지켜온 이 로당원의 숭고한 조직관념을 전구역에 일반화하는 사업을 통하여 많은 당원들을 교양하였다. 당원들은 그의 성실한 당생활태도에 자기 생활을 비추어보면서 당적분공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드팀없이 수행하는 사람만이 당에 충실할수 있다는 생활의 진리를 다시금 깊이 확신하게 되였다.

경험은 당위원회가 당원들속에서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세워나가도록 옳게 지도방조하는 여기에 그들의 조직관념을 높여나가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는 것을 힘있게 확증해주었다.

우리가 당원들의 조직관념을 높이기 위하여 언제나 주목을 돌린것은 또한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당원들의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도록 한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모든 당원들이 당조직을 어머니의 품으로 여기고 언제나 당조직을 사랑하고 존엄있게 대하며 당조직의 지도와 통제 밑에서 사업하고 생활해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일군은 당조직을 움직이고 당원들의 정치적생명을 보호해주는 우리 당의 정치일군이다. 당일군은 당원들의 당생활을 직접 책임지고 지도하는것만큼 그들이 인간의 정치적생명의 기사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당원들이 조직관념을 바로세우는데 좋은 영향을 줄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줄수도 있다.

지난 시기 일부 당일군들속에서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지 않고 결함이나 들추어내여 따지기만 하며 추궁으로 사업을 대치하는 현상이 없지 않았다. 심지어 당원들의 생활에서 조금만 문제가 제기되여도 그들을 멀리하면서 정치적생명을 소홀히 다루려는 경향이 있었다. 일부 당일군들의 이러한 당세도와 관료주의는 당원들의 조직관념을 높이는데 저해를 주지 않을수 없었다.

구역당위원회는 이러한 결함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당일군들속에서 당원들의 사업과 생활 특히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주는 혁명적사업 방법과 기풍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깊이있게 진행하였다. 여기에서 어머니당의 일군으로서의 풍모를 갖출데 대한 당의 사상을 깊이 체득시키는것과 함께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의 주인공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짜고든것은 커다란 은을 나타내였다. 당일군들은 영화의 주인공 차석빈과 나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점

토하였으며 연구발표회와 경험토론회, 실효투쟁을 통하여 혁명가적풍모를 갖추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당일군은 대중속에서 나왔고 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할 사명을 지니고있는것만큼 마땅히 어머니다운 품성을 지녀야 한다. 우리는 당앞에 지닌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대중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그들의 오늘의 생활은 물론 자식들의 장래발전에 대해서까지도 마음을 쓰며 보살펴주었다. 이러는 과정에 우리는 당원들이 품고있던 남모르는 소원도 알아내여 풀어주었으며 그들이 마음속의 그늘을 모르고 밝은 얼굴로 살아갈수 있도록 사소한 걱정도 가시여주었다.

몇해전 우리 구역에서는 어느 한 공장의 책임일군이 새 설비를 가지고 시제품을 내놓을데 대한 과업을 받고 제때에 수행하지 못하여 그 일을 뒤로 미루게 한 사실이 있었다. 결함은 대단히 심중하였으며 후과도 컸다. 그에게 응당한 책벌을 적용할수도 있었다. 이때에도 우리는 당일군은 정치적생명의 기사라고 한 당의 높은 신임을 가슴에 새기고 제기된 문제를 신중히 다루며 로숙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애썼다.

몸에 상처가 생기면 아물어도 흠집이 남는것처럼 정치적생명에 손상이 가면 그것이 가시여져도 흔적은 남기마련이다. 제기된 문제를 열백번 알아보고 결론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길수 있는것이다.

우리는 나타난 현상에 즉흥적으로 대하지 않고 따져보는 과정에 생산공정이 부득이하게 지연되게 된 사정을 그가 제때에 당조직에 보고하지 않은데 그 중요한 결함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우리는 이것을 놓고 책임일군이라고 하여 당조직에 의거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당조직의 방조 없이도 혁명임무를 수행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일군들의 자세가 아니며 당조직을 떠나서는 책임일군으로서는 물론 당원의 고귀한 칭호를 빛내일수 없다는것을 진심으로 뉘우칠수 있도록 진지하게 깨우쳐주었다. 동지가 범한 과오를 자기의 결함처럼 가슴아파하면서 믿고 도와주는 당일군의 뜨거운 마음에 고무된 그는 그후부터 당조직앞에서는 어깨를 낮추고 모든 사업을 당조직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고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머니다운 풍모를 지니고 당원들의 정치적생명을 책임지고 나가는 당일군이 있는곳에서는 당원들이 당과 고락을 같이하겠다는 신념을 잃지 않으며 당조직과 당원들이 하나의 뉴대로 굳게 이어진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가 구역안의 모든 일군들이 먼저 높은 당조직관념을 가지고 당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지도한것은 당원들의 조직관념을 높이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언제나 어떤 일에서나 지도일군들이 모범이 되고 이신작칙하는것은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위력한 방법이다. 우리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구역안의 지도일군들이 대오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며 사업을 힘있게 전개할수 있는 분공도 주고 또 한달에 한번씩 그들의 당생활에서 나타난 공부정자료들을 통보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가지게 하였다. 구역안의 모든 일군들이 하나로 굳게 뭉쳐 당의 로선과 정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당원들은 크게 고무되여 당조직에 대한 인식을 더욱 바로 가지고 혁명적조직관념을 철저히 확립해나가게 되였다.

당원들의 고상한 조직관념을 높여 당의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워야 할 임무가 우리 당일군들에게 지워져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당조직관념을 높이기 위한 당생활지도를 계속 짜고듦으로써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전체 당원들을 철통같이 묶어세워 당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할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경제선동은 사회주의건설을 적극 추동하는 힘있는 대중정치사업

리 태 연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는 믿음직한 대강철생산기지로서 나라의 전반적경제발전에서 커다란 역할을 놀고있다.

우리 기업소는 오늘 채취공업과 기계공업, 철도운수와 기본건설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요구하는 여러가지 품종과 규격의 철강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에도 수출하고있다.

지난날 자그마한 야금공장에 지나지 않았던 우리 기업소가 오늘 종합적이며 현대적인 대강철생산기지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된것은 대중적혁신과 영웅적위훈에로 강선의 로동계급을 이끌어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척에 바라보이는 고향 만경대에도 들리지 않고 해방을 맞이한 우리 강선의 로동계급부터 찾으시여 공장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깊이 심어주시고 새 조국 건설에로 적극 불러일으켰으며 우리 혁명앞에 준엄한 난국이 조성되였던 전후에는 천리마운동의 첫 봉화를 지펴주시여 전국의 앞장에 내세워주시였다.

혁명의 준엄한 시기에나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새롭게 나설 때에나 언제나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크나큰 믿음과 신임을 안겨주시고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에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현지지도는 우리 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영웅적위훈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킨 위대한 추동력으로 되였다.

언제나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힘을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강선의 로동계급은 대담한 담력과 신심을 가지고 기술도, 자재도, 로력도 부족한 조건에서 일제가 파괴한 전기로를 자체의 힘으로 70일만에 복구하여 첫 쇠물을 뽑았으며 전후에는 6만톤의 능력을 가진 압연기에서 12만톤의 강재를 밀어냈다.

이 장엄한 투쟁과정에 생산자대중의 힘을 발동하고 그들에 의거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해나가는 것은 강선의 전통적인 사업기풍으로 확고히 뿌리내리고 다져지게 되였으며 우리 기업소는 《자력갱생의 표본공장》, 《천리마의 고향》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강선땅에 깊이 심어주신 혁명적기풍은 오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새로운 력사적진군길에서 더욱 높이 발양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기업소에 대한 10여차례의 실무지도를 통하여 언제나 강선의 로동계급이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그 열정, 그 기백으로 천리마에 속도전의 나래를 달고 달리는데서도 천리마고향의 영예를 빛내이도록 적극 이끌어주시였으며 기업소앞에 새로운 과업이 나서고 방대한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새로운 혁신에로 적극 불러일으키시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기어이 보답하려는 강선로동계급의 충성심이 당정책관철을 위한 실천투쟁에서 훌륭히 발현되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 사상사업을 진행하여왔다.

당위원회는 당경제정책관철을 떠밀어주는 사상사업을 적극 벌리기 위하여 당경제정책선전과 함께 경제선동을 힘있게 틀어쥐고나감으로써 강선땅에 언제나 혁명적 열정과 기백이 차넘치고 빛나는 로력적위훈들이 끊임없이 창조되도록 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5년전에 력사적문헌 《당사상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를 발표하시여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상사업을 개선하며 특히 경제선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는 강령적지침을 마련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대중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하여서는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경제선동은 당경제정책관철에로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입니다.》(《당사상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단행본, 25페지)

경제선동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언제나 불타는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을 가지고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도록 고무추동함으로써 경제건설을 빨리 다그치게 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된다.

당위원회는 1981년 3월8일문헌에서 제시된 사상과 방침에 따라 경제선동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당경제정책관철을 위한 대중정치사업에서 일련의 경험과 교훈을 쌓게 되였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경제선동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모든 일군들을 여기에 적극 참가시켜야 선동사업의 위력을 높일수 있고 생산자대중을 기적과 혁신, 새로운 위훈에로 불러일으킬수 있다는 경험을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각급 당조직들 특히 생산단위당조직들의 기본임무의 하나는 맡겨진 생산과제,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해나가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떠난 순수한 당사업이란 있을수 없다. 당사업은 경제과업을 보장하는데로 지향되여야 하며 당활동은 경제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으로 일관되여야 한다.

당사업을 경제사업과 밀착시키고 광범한 대중을 실천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자면 당조직들이 선동사업 특히 경제선동을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경제선동을 일부 선전부일군들에 국한된 사업으로 보는 그릇된 관점을 극복하고 당위원회의 모든 부서, 모든 일군들을 이 사업에 적극 인입하여 모두가 선전원, 선동원이 되도록 하는것이였다.

경제선동은 광범한 대중의 사상을 발동하고 그들을 경제건설투쟁에로 추동하는 정치사업이다. 그것은 몇몇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잘할수 없으며 모든 일군들이 선전원, 선동원이 되여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힘있게 밀고나가야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경제선동에 당위원회의 모든 일군들을 참가시키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한 사업은 훌륭한 결과를 가져왔다.

당위원회는 선전부일군들은 물론 조직부를 비롯한 모든 부서 일군들에게 경제선동과제를 빠짐없이 주어 그 어느 일군도 이 사업에서 례외로 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정책을 남먼저 침투시키고 선동 방향과 내용도 제때에 알려주어 일군들로 하여금 당의 정책적의도와 기업소앞에 나선 경제과업을 똑똑히 알고 그 관철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동사업을 적극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일군들의 선동활동정형을 매월 총화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심화시켰으며 그들이 사업총화를 할 때에는 경제선동과제수행정형을 함께 총화하도록

하는 제도를 엄격히 세웠다.

경제선동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가는 과정에 일군들속에서 경제선동사업의 중요성을 옳게 인식하고 그것을 본신임무의 하나로 받아들이게 되였으며 경제선동을 회수나 채우고 행사식으로 조직진행하는 형식주의적사업태도가 점차 극복되게 되였다.

당위원회는 모든 일군들이 자신이 직접 선동원이 될뿐아니라 직장, 작업반의 초급일군들까지도 이 사업에 망라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힘있게 진행하도록 적극 방조하였다.

그리하여 련합기업소안의 어느 직장, 어느 작업반에 가도 당일군들과 초급일군들의 격동적인 선동연설과 예술선동의 우렁찬 나팔소리, 사람들을 위훈에로 부르는 힘찬 직관물들을 보거나 들을수 있게 되였다.

기업소당위원회는 경제선동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가는데 있어서 모든 일군들이 선동원이 되도록 하는것과 함께 그들의 선동활동이 생산적앙양으로써 결속되도록 하는데도 깊은 주목을 돌렸다.

경제선동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경제과업을 더 잘 수행하는데 있는것만큼 경제선동사업이 그자체로 끝날수는 없는것이다. 경제선동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은 결국은 그것이 기업소생산활동에서 은을 나타내게 하는데 귀착된다. 그렇기때문에 당위원회는 일군들의 선동활동정형도 생산에서 얼마만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데 따라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당위원회가 모든 일군들을 선동사업에 동원하여 생산에서 높은 성과를 이룩해나가도록 조직지도사업을 줄기차게 벌린 결과 오늘도 우리 기업소는 당과 수령이 맡겨준 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는 빛나는 전통을 훌륭히 고수해나가고있는것이다.

2,000톤의 강철을 더 생산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1982년 10월 기업소앞에는 월말을 3일 앞두고 2,000톤의 강재를 더 생산할데 대한 새로운 과제가 제기되였다. 모든 설비와 기대들에 만부하를 걸고있던 조건에서 그것을 3일동안에 수행한다는것은 결코 쉽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니였다. 이 과제를 수행하자면 자재와 로력이 더 있어야 하였고 설비의 생산능력도 더 높여야 하였다. 일부 일군들은 이 긴장한 과제를 놓고 신심을 가지지 못하였으며 우려하고 동요하면서 선뜻 나서지 못하였다.

이때 당위원회는 2,000톤의 강재를 더 생산하는것이 당의 요구인것만큼 무조건 수행하여야 하며 또 생산자대중의 지혜와 힘을 발동하면 능히 할수 있다는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대중의 기세를 북돋아주는 선동을 대담하게 벌리기 위한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들었다.

우리는 일군들을 직장과 작업반, 교대 그리고 중요기대에까지 담당파견하여 로동자들을 2,000톤의 강재증산에로 적극 불러일으키기 위한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게 하는 한편 그것이 구호나 호소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생산적앙양을 가져오게 하기 위하여 생산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생산자들과 함께 예비도 탐구하고 제기되는 난관도 앞장에 서서 풀어나가도록 이끌어주었다.

생산현장에 나간 일군들은 생산자들속에서 맡겨진 과제의 중요성을 해설도 하고 그 수행에로 힘있게 호소도 하면서 그들과 한덩어리가 되여 머리를 쓰고 과제수행을 위한 예비를 탐구하였으며 합리적인 작업방법도 찾고 설비의 능력을 높일수 있는 기술적대책도 세워나갔다. 그리하여 긴장한 월전투계획을 보장하면서도 그처럼 어렵다고 생각하였던 2,000톤의 강재를 증산하는 과제도 훨씬 초과수행할수 있었다.

경험은 당조직들이 경제선동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짜고들며 모든 일군들이 대중의 기수가 되고 나

팔수가 되도록 이끌 때 광범한 군중을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에로 불러일으킬수 있으며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능히 수행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다음으로 중심고리를 틀어쥐고 거기에 선동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기업소안의 모든 사업이 성과적으로 풀려나가고 생산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할수 있다는 교훈을 찾게 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당경제정책관철에서 힘을 넣어야 할 중요한 부문들과 걸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선동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5페지)

자연을 개조하고 변혁해나가는 경제건설과정에는 여러가지 복잡한 과업들이 제기되며 이러한 과업들가운데는 다른 고리들의 발전을 제약하고 추동하는 보다 더 중요한 고리가 있게 된다. 이러한 고리가 중심고리이며 바로 그것을 틀어쥐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여 추켜세워야 전반적고리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자연과의 투쟁에서나 적과의 투쟁에서나 언제나 중심고리를 틀어쥐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여 돌파구를 열어나가는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전략전술적원칙이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중심고리에 힘을 집중할데 대한 당적요구를 지침으로 삼고 생산의 주도적부문을 추켜세우는데 경제선동의 화력을 집중적으로 들이대여 생산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갈수 있었다.

우리는 새로운 원료에 의한 강철생산기지를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과정에 진행한 경제선동사업을 통하여 당경제정책관철에서 나서는 중요한 부문에 선동의 화력을 집중할데 대한 당적요구의 정당성을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기업소당위원회는 새로운 원료에 의한 강철생산기지를 일떠세우는것을 전반적생산을 높이기 위한 기본고리로 규정하고 그것을 짧은 기간에 완공할 대담한 목표를 내세웠다.

현지에서 진행된 기업소당위원회 확대집행위원회에서 세운 목표는 대단히 높은것이였으며 비상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지 않고서는 수행할수 없는 과제였다. 설계와 조립 공정을 제외하고 가공품과 제관물만을 만든다고 하여도 결의한 시일이 다 걸릴것이 예견되였다.

처음으로 하는 일이고 제기된 과업이 무겁고 방대하다보니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뒤걸음치는 보수적인 태도가 보이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당위원회는 새로운 원료에 의한 강철생산기지를 꾸리는 과정에서 한걸음도 물러설수 없다는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생산자대중을 그 수행에로 동원하기 위한 선동공세를 집중적으로 벌리기로 하였다. 이때 우리가 힘을 넣은것은 전후 당의 호소를 받들고 모든것이 파괴되고 벽돌 한장 성한것이 없던 어려운 조건에서도 파괴된 전기로를 40일만에 복구하여 첫 쇠물을 뽑던 그때의 그 정신, 그 담력으로 일하도록 하는것이였다.

우리는 선동 수단과 력량을 현장에 집중시켜 전후복구건설시기에 부르던 혁명적인 노래들도 내보내고 그때의 투쟁모습을 펼쳐보이는 예술선동도 활발히 벌리였으며 전후시기부터 일하던 오랜 일군들과 로동자들을 동원하여 천리마대고조시기의 투쟁과정을 소개도 하고 전투원들을 새로운 위훈에로 부르는 선동연설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그리고 혁신적성과들을 방송과 속보를 통하여 널리 소개하면서 생산자들을 집단적혁신에로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힘있는 경제선동으로 하여 온 작업장이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와 같은 전투적분위기로 들끓게 되였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그때의 그 열정과 기백으로 맡겨진 전투과제를 앞당겨수행해나가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게 되였다.

당위원회는 걸린 문제를 푸는데 선동

력량을 집중하는것과 함께 일군들이 가장 어려운 모퉁이에 어깨를 들이밀어 부닥치는 난관을 주동적으로 뚫고나가도록 경제선동을 적극 벌렸다.

일군들이 가공품이 걸렸을 때에는 공무동력직장 로동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경제선동을 벌려 애로와 난관을 성과적으로 극복할수 있게 하였으며 제관물조립에서 기술적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에는 설계자들과 기술자들의 집단적지혜를 발동하여 걸린 문제를 풀어나갔다. 일군들이 떨쳐나서고 전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제때에 풀려나가게 됨으로써 대중의 생산적열의가 높이 발양되게 되고 건설속도는 비상히 빨라지게 되였다.

우리는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당이 바라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경제선동의 화력을 집중함으로써 보통이면 1년이 걸려야 꾸릴수 있다고 하던 방대한 규모의 강철생산기지를 2달동안에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마련할수 있었으며 우리 로동계급의 위대한 창조물인 6,000립방 산소분리기 제1호도 강선땅에 보란듯이 일떠세울수 있었다.

경험은 선동 수단과 력량을 집중하고 선동공세를 들이대여 생산자대중의 열의와 창조력을 높이고 당경제정책관철에로 적극 추동할 때 그 어떤 걸린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그 어떤 어려운 목표도 훌륭히 점령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끊임없이 변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경제선동을 참신하게, 줄기차게 벌려나가야 그것이 당경제정책관철을 위한 위력한 수단으로서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는것은 우리가 체험한 또하나의 중요한 경험이다.

대중정치사업으로서의 경제선동은 각이한 조건과 환경에서 진행되며 서로 다른 준비정도와 다양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조적인 사업이다. 그리고 경제선동의 거점인 생산현장의 실정이나 선동대상인 근로자들의 요구와 심리도 끊임없이 변동된다.

수시로 달라지는 환경과 조건에서 광범한 생산자대중을 대상으로 하여 벌어지는 경제선동은 그 어떤 한가지 처방이나 틀에 맞추어 진행될수 없다. 변화된 조전과 대상을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식으로 전개되는 경제선동은 대중정치사업방법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없는것이다. 끊임없이 변화되는 현실에 맞게 경제선동의 형식과 방법, 내용이 달라질 때 비로소 경제선동은 생산자대중의 기세를 돋구고 그들을 당면한 경제과업수행에로 적극 불러일으키는 산사상사업형식으로 될수 있다.

그러나 변화되는 환경과 조건에 맞추어 경제선동사업 방법과 형식을 참신하게 바꾼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날 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경제선동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며 그것이 생산자대중을 생산계획수행에로 불러일으키는 강한 호소성과 전투성을 띤것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는 하였지만 실지 정치사업과정에는 고질화된 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그렇기때문에 경제선동사업에 돌려지는 력량에 비하여 그 효과성은 높지 못하였으며 모든 직장, 작업반들에서 벌어지는 경제선동이 충분한 은을 나타내지 못하고있었다.

경제선동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하자면 당조직들이 이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 끊임없이 변하는 실정에 맞게 선동적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론을 세워야 하였다.

여기에서 기업소당위원회는 현시기 우리 당이 특별히 주목을 돌리고있는 기술혁신과 관련한 경제선동에서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찾기로 하였다. 기술혁신을 위한 경제선동사업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기업소에서 이렇다할 경험을 얻은것이 없었다.

이러한 실정에서 당위원회는 기술혁신을 위한 경제선동에 대한 방법론도 연구하고 그 시범을 창조하여 온 기업소에서 기술혁신의 된바람을 불러일으

키기로 하였다.

우리는 기업소의 오랜 기술자부부의 기술혁신사업정형을 료해하는 과정에 여기에서 경험을 얻기로 결심하였다.

기업소의 한 기술자부부는 철강재생산에서 걸리고있는 연료문제를 우리 나라 자원으로 해결할 기발한 기술적창안을 가지고있었으나 제기되는 여러가지 애로로 하여 주저하면서 연구사업에 대담하게 달라붙지 못하고있었다.

우리는 그들의 착상이 귀중한것이고 그 결과가 클것이 예견되기때문에 그 소행을 높이 평가하고 널리 소개선전하면서 신심을 가지고 연구사업에 달라붙도록 경제선동을 통하여 적극 추동하였으며 이 사업에 유능한 기술자, 기능공들을 망라시켜 보장사업도 제때에 따라세우도록 하였다. 그들의 연구결과를 일상적으로 알아보고 성과에 대하여서는 직관물과 구두선동을 통하여 널리 소개하였으며 연구사업에서 실패가 거듭되고 일부 사람들의 시비를 놓고 주저할 때에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절대로 동요하지 말고 한번 해서 안되면 열번, 백번을 해서라도 기어이 완성해야 한다고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자기들을 믿어주고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끊임없는 혁신에로 추동하는데 힘을 얻은 기술자부부는 모든 지혜와 재능을 발휘하여 더욱 대담하게 연구사업을 벌림으로써 수십차례에 걸치는 실패와 난관을 이겨내고 드디여 우리 나라 자원으로 연료를 얻어내는데 성공하였던것이다.

과학기술적발명은 어디까지나 생산을 다그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는 기술자부부가 이룩한 성과를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짜고들었으며 여기에서도 그들이 책임을 다하도록 적극 추동하였다. 기술자부부의 연구성과를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하여서는 새롭게 풀어야 할 기술적문제들도 제기되였고 수많은 설비들을 자체의 기술로 만들어야 하였다. 이때 당조직은 걸린 고리를 알아보고 풀어주면서 그들의 복잡한 심리상태를 제때에 파악하고 그에 맞는 여러가지 정치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직관선동을 들이대여 결국 모든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갈수 있게 하였다.

우리는 기술자부부와의 사업과정에 얻은 경험에 기초하여 기업소안의 모든 기술자, 기능공들과의 사업을 짜고듦으로써 기술혁신의 봉화가 타오르게 하였다.

경험은 기술혁신과 같은 복잡한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각이한 형식과 방법들을 밀접히 결합하여 선전선동사업을 줄기차게 벌려야 당이 제시한 절박한 정책적요구를 정확히 관철할수 있으며 변천된 현실에 맞게 사상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갈수 있다는것이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선동의 형식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선동사업을 정상적으로 줄기차게 벌려나감으로써 기업소안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견결한 옹호자, 당정책의 철저한 집행자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나갈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우리가 지니고있는 임무는 무겁고 보람찬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과 신임에 충성으로 보답하는것을 혁명적의리로 삼고 자기의 투쟁력사를 자랑스럽게 개척하여온 강선로동계급의 전통적기풍을 대를 이어 고수함으로써 《천리마의 고향》의 영예를 계속 빛내여나갈것이다.

자력갱생과 일군들의 창조적탐구력

박 일 형

오늘 우리 일군들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여야 할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이 전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모든 일군들이 불타는 창조적탐구력을 가지고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것이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만년보건회사가 빈터우에서 3～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계에 널리 알려진 보건회사로 자라나는 과정에서 이룩한 경험은 당이 가르친대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창조적탐구력을 높이 발휘한다면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 ＊

위대한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면 자력갱생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는것을 가르치고있다. 자력갱생은 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원칙이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일군들의 불타는 창조적탐구력과 결합될 때 그 은을 나타낼수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창조적립장을 지키는것은 모든것을 혁명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그리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입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29페지)

사람들이 자력갱생하려는 립장을 가지는것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스스로 해결되지 않는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는 그들의 창조적활동을 통하여 실현되며 모든 문제를 자력갱생하여 풀어나가는 자주적립장은 창조적립장에 의하여 담보된다.

자력갱생의 원칙이 자주적립장의 중요내용이라면 창조적탐구력을 높이는것은 창조적립장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창조적탐구력이란 사물현상의 본질에 파고들면서 그것을 깊이 연구하고 새로운것을 창조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며 찾아내는 능력을 말한다.

사람들이 자연과 사회를 자기에게 더욱더 쓸모있는것으로 전변시켜나가는것은 창조적능력이 있기때문이며 여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창조적탐구력이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이 밀접히 결합되여있는것만큼 창조적탐구력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있어야 나올수 있으며 반면에 자력갱생의 원칙은 창조적탐구력을 높일 때 관철될수 있는것이다.

지난 시기 우리는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창조적탐구력을 높이는데서 일정한 경험을 이룩하였다.

일군들의 창조적탐구력을 높이는데서 우리가 얻은 경험은 무엇보다도 지도일군들이 당의 신임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당에서 맡겨준 임무를 자력갱생하여 끝까지 수행하려는 옳은 립장을 가지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이다.

옳은 립장을 세우는것은 모든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선결조건이며 창조적탐구력도 당의 의도를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구현해나가려는 립장이 올바로

설 때만이 높이 발휘될수 있는것이다.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과 수령의 크나큰 정치적신임에 충성으로 보답하는것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에서 구현되여야 하며 행정경제일군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당이 맡겨준 임무를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해결해나감으로써 당의 의도를 빛나게 실현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우리 당은 지금 일군들이 자기 부문의 혁명임무를 높은 창발성을 발휘하여 수행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한다는것은 일군들이 자기 부문의 실정에 맞게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자신이 책임지고 탐구하고 그에 따라 당의 정책을 집행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결코 일군들이 당정책의 단순한 전달자의 역할을 노는것과는 인연이 없다.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당이 절실히 요구하는 문제라면 당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려는 당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자력갱생의 립장이 강해야만 창발성도 나올수 있고 그렇게 하는것이 바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의 생활력을 높이 발휘시킬수 있게 한다는것을 똑똑히 알게 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에서는 중앙집권적규률을 강화하면서 공장, 기업소들이 상대적독자성을 가지고 창발적으로 활동하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매개 단위들에서 일군들이 높은 창조적탐구력을 가지고 일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의 본성적요구에 맞으며 그 생활력을 높이 발휘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지난 시기 우리 회사일군들이 자력갱생의 립장에 서서 창조적탐구력을 높이 발휘한 경험을 놓고보아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지금 우리 나라에 마련되여있는 의약품과 의료기구 생산토대의 잠재력은 매우 크며 우리에게는 의약품과 의료기구 생산을 더욱 늘일수 있는 구체적방도들이 전면적으로 제시되여있다. 문제는 일군들이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더 잘 보호증진시킬데 대한 당의 요구를 끝까지 구현하기 위하여 자력갱생하려는 혁명적립장이 어느 정도 강한가 그리고 이러한 립장에서 얼마나 높은 창의창발성을 발휘하는가 하는데 있다.

그러나 한때 일부 일군들속에는 말로는 당의 보건정책을 집행한다고 하지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부족한데로부터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창조적열의를 내지 못하는 현상이 있었다.

보건부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말로만 당정책을 관철하겠다고 하지만 실천에서는 자기앞에 나서는 혁명임무를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수행하려는 립장이 부족한 일부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강화함으로써 누구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창발적으로 일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똑바로 세우도록 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제약 및 의료기구공업부문 일군들은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의 간고한 조건에서도 무기와 탄약, 식량을 비롯하여 필요한 모든것을 다 자체로 해결해나간 항일혁명선렬들의 투쟁을 거울로 삼고 자력갱생의 혁명적립장을 철저히 지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이러한 투쟁이 심화되는 과정에 일군들속에서 새로운 당정책이 제시되면 그것을 우에서 풀어줄것만 앉아서 기다리거나 아래에 되받아넘기는데 그치는 일본새가 없어지게 되였으며 높은 창조적탐구력을 가지고 일하는 혁명적기풍이 튼튼히 서게 되였다. 우리 부문에서 지난 시기 당의 의도에 맞는 여러가지 창발성이 나올수 있은것은 일군들이 당의 신임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면 무엇보다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는 옳은 립

장을 가지도록 투쟁이 심화된 결과이다.

일군들의 창조적탐구력을 높이는데서 우리가 얻은 경험은 또한 필요한 사업조건을 자기 힘으로 마련하고 일감을 자체로 찾아내기 위하여 사색과 연구, 학습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이다.

자기 사업에 대한 깊은 사색과 연구, 학습을 심화시켜 묘술을 찾아내는것은 많은 일을 창발적으로 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무슨 일이나 깊이 사색하고 연구하지 않고서는 당의 의도와 요구를 정확히 알수 없으며 당정책집행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론을 찾아낼수 없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모든 투쟁방향과 내용뿐아니라 그 방도까지 다 밝혀져있다. 그러나 그것이 매개 단위에서 더 큰 은을 내게 하자면 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대하여 깊이 사색하고 구체적실정에 맞는 방법론과 묘술을 찾아내야 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사람은 아는것만큼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인다. 창발성은 빈터우에서 나올수 없다. 불타는 탐구력을 가지고 자기 사업내용을 환히 꿰뚫어야 창발성도 나올수 있다. 우리는 회사일군들이 자기 부문에 정통하도록 하기 위하여 머리를 쓰고 연구하며 누구나 다 청연가, 독학가가 되여 학습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당의 의도는 우리 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깊은 사색과 연구의 출발점으로 되였다. 창조적으로 탐구한다는것은 결코 자기 생각나는대로, 하고싶은대로 하라는것이 아니라 당의 의도를 주어진 조건과 실정에 맞게 더 잘 구현해나가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깊이 탐구하고 모색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보건부문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말씀을 깊이 학습하고 그 참뜻을 새겨가면서 당의 의도에 맞게 있는 밑천을 가지고 높은 생산성과를 거두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를 끝까지 찾아내는데 모를 박고 사업하였다.

이 과정에 우리가 얻은 경험은 유리한 모든 조건이 저절로 갖추어질것을 기다릴것이 아니라 불리한 조건을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고 유리한 조건을 확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사색하고 연구를 심화시키는것이였다. 혁명투쟁은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다음에 일어나는것이 아니며 유리한 조건에서만 진행되는것도 아니다.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지기를 앉아서 기다리는것은 혁명가의 일본새가 아니다. 불리한 조건을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며 필요한 조건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는것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길이다.

사실상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 차례진 조건이란 매우 불리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당의 의도대로 창조적탐구력을 가지고 우리 나라의 로력형편과 자연조건, 이미 마련된 제약 및 의료기구 공업기지와 현대적인 병원설비상태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에 막대한 예비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우리는 조선적십자종합병원을 비롯하여 평양시안의 20여개의 보건기관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 결과 훌륭하게 꾸려진 제약설비의 생산능력이 병원의 수요에 비하여 남는다는것을 알게 되였고 한두가지의 귀중한 약재를 보장해주거나 몇가지 설비들을 보강해주며 생산면적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만 하면 이미 주어진 조건에서도 효능있는 특효약을 대대적으로 생산할수 있다는것도 알게 되였다. 우리가 여기에서 착안한 중요한 문제는 새로 공장을 꾸리자면 기간이 오래 걸릴것이지만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가정부인로력들과 보건기관에 이미 있는 로력, 경험을 쌓은 제약생산기술자들, 현대적인 제약설비, 치료예방기관건물, 우리 나라의 풍부한 약초기지 등을 최대한으로 리용한다면 국가에 손을 내밀지 않고도 각종 특효약들을 대량생산하여 국내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외국에도 많

이 수출할수 있다는것이였다. 이로부터 우리는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가정부인 로력으로 의약품포장작업반을 꾸리기 위하여 가내작업반들을 조직하기도 하였고 치료예방기관들에 있는 로력과 천물 예비도 찾아내였다.

특히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가내작업반을 도처에 꾸릴데 대한 당의 의도가 정당하며 그것이 우리 부문에서도 매우 큰 생활력을 나타낸다는것을 절실히 체험하게 되였다.

원료, 자재 조건을 풀기 위하여 머리를 싸매고 사색하며 예비를 탐구하니 우리 나라의 풍부한 약초원천을 더 많이 찾아낼수 있고 일부 부족한 원료와 자재는 자체로 번 돈으로 외국에서 사오면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우리는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인민들속에 보약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여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의 요구대로 그들이 병에 걸리기전에 보약을 더 많이 쓰도록 하는 한편 대담하게 대외시장을 널리 개척하는 방도를 판이 크게 구상하고 탐구해나갔다. 다른 나라의 수백종의 약학기술도서들과 자료들을 연구했고 세계적인 판도에서 벌어지는 의약품판매추세를 조사탐구하였으며 10여개 나라에 수백종의 약품견본도 보내주고 다른 나라의 수많은 신문과 출판물들에 우리 나라 의약품에 대한 선전사업도 널리 벌리였다.

특히 우리는 포장에서 혁신을 이룩하기 위하여 많은 사색과 연구, 학습과 토론을 심화시킨 결과 당의 의도대로 이 문제를 훌륭히 해결할 방도를 찾아낼수 있었다.

이렇게 사업조건을 자기의 힘으로 마련하고 일감을 자체로 찾아내기 위한 사색과 연구, 탐구를 거듭하는 과정에 우리는 큰 밑천이 없이 수년동안에 튼튼한 원료기지와 유능한 과학자, 약학자들의 대렬, 튼튼한 의약품생산기지, 외국에 대리점과 합영병원, 합영제약공장을 가진 큰 회사를 꾸릴수 있었다. 그리하여 숱한 보약과 의약품들을 국내에서도 팔고 외국에 나가서도 팔며 대리점을 통해서도 팔고 의료활동을 하면서도 팔아 국가에 큰 보탬을 줄수 있었다.

일군들의 창조적탐구력을 높이는데서 얻은 경험은 또한 회사일군집단속에 전반적인 창조적기풍을 세우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이다.

예로부터 혼자서는 용떼는 재간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개별적인 지모일군들의 창발성 하나만으로는 방대한 기업관리에서 혁신을 이룩할수 없다. 아래일군들과 군중들의 사업의욕과 생산의욕을 높여 그들모두가 창조적탐구력을 가지고 일하도록 해야 생산에서 혁신을 이룩할수 있다. 지난 시기 조선만년보건회사가 막대한 예비를 찾아내여 나라에 보탬을 줄수 있은것은 회사일군집단이 창발성을 발휘하였기때문이다.

우리는 집단내에서 모든 일군들이 자기앞에 제기된 임무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창발적으로 풀어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이 생산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와 창조적탐구력을 가지도록 하는데서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앞세워 로동에 대한 정치도덕적자극을 강화하는것이다. 이것은 주체사상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근본요구이다.

우리는 회사성원들자신이 인민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다는 높은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기앞에 맡겨진 임무를 기어이 실현하려는 혁명적열의와 온갖 창의창발성을 다 내도록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우리는 행정경제일군이라고 하여 정치사업은 하지 않고 실무적인 사업에만 매달리는 현상을 없애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누구나 다 창의창발성을 내도록 하였다. 당일군들과 함께 행정경제일군들이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 《언제나 한마음》과 《그날의 맹세》를 가지고 군중속에 들어가 내부

예비를 탐구하기 위한 영화실효모임을 조직한것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치사업, 경제선동사업을 힘있게 벌린것은 생산자대중이 당정책관철에서 온갖 창의창발성을 다 내도록 하는데서 매우 효과적이였다.

근로자들의 창조적의욕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정치도덕적자극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물질적자극을 옳게 적용하여야 한다. 우리는 평양외과단과대학안에 있는 제약작업반을 독립채산제실시시범단위로 꾸리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도록 하는것과 함께 합리적인 상금제도와 우대제를 실시함으로써 생산자대중의 창발성을 높이는데 큰 영향을 줄수 있었다.

생산에서 창조적열의를 얼마나 높이는가 하는것은 행정경제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의하여 많이 좌우된다. 행정경제지도일군들이 공장, 기업소들에서 만부하를 걸수 있도록 방도를 탐구하고 경제에 대한 조직지휘사업을 창발적으로 잘한다면 생산을 몇배로 더 늘일수 있다는것은 우리가 얻은 중요한 경험의 하나이다.

우리의 행정경제일군들은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의 요구대로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창발적의견들을 귀담아듣고 아래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발기는 아무리 사소한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적극 지지해주고 옳게 평가해주며 일반화하는데 힘을 넣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일군들이 회사의 관리운영 규정과 세칙을 하나 만들어도 대중의 창발성을 얽어매놓을것이 아니라 누구나 창발성을 발휘할수 있도록 그것을 실정에 맞게 과학적으로 만들게 하였다.

회사일군들과 생산자대중의 창조적탐구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의사들과 약제사들,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기의 창조적지혜와 재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하는데 힘을 넣는것이다.

우리는 평양의학대학, 조선의학과학원, 조선적십자종합병원, 평양시 제2병원, 평양제약공장 등 여러 단위에 나가 의사들과 약제사들,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효능높은 새로운 보약들과 의료기구들을 연구해내도록 새로운 지표도 주고 현상모집과 과학토론회, 기술협의회도 여러번 조직하였으며 그들이 새로운 발명을 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애로들을 회사집단이 달라붙어 풀어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보약발명가들과 인재들도 전국도처에서 찾아내여 그들을 밀어주고 적극 내세워주었으며 연구조건, 사업조건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줌으로써 그들이 창발성을 마음껏 발휘할수 있도록 하였다.

경험은 여러 지역에 숨어있는 명약창안자들과 의사들, 약제사들의 연구성과를 평가해주고 그들에게 연구조건을 보장해주며 그들이 만든 약을 대량생산하여 국내뿐아니라 외국에도 대대적으로 팔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만 해도 모두가 성수가 나서 더욱더 큰 창발성을 내며 몇배의 사업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행정책임일군들이 당일군들과 함께 연구사들과 의사, 약제사들, 과학자, 기술자들의 정치적생명을 책임진다는 립장에 서며 그들이 새로운 보약들을 연구하다가 일시적으로 실패하는 경우에도 신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연구과제에 전심전력할수 있도록 적극 밀어주는것이 매우 중요하였다.

일군들의 창조적탐구력을 높이는데서 우리가 얻은 경험은 또한 새로운것들을 탐구하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난관을 당조직에 의거하여 끝까지 뚫고나가는 혁명적기풍이 있어야 한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동무들이 일하느라면 난관에 부닥칠 때도 많을것이고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에 부딪칠 때도 있을것이며 동요하는 때도 있을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당을 믿고 확고한 혁명적신조를 가져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20권, 497페지)

창조적탐구의 길은 결코 탄탄한 대로

가 아니다. 일을 창발적으로 해나가는 길에서는 새로운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법이다. 새로 착안한 일을 끝까지 실천하는 과정에는 낡은것과 새것의 치렬한 투쟁이 동반되며 예견치 않는 실패나 우여곡절도 생길수 있다. 지도일군들이 이러한 난관과 애로, 부족점이 생겼다 하여 뒤걸음질치면 아무리 착상을 잘해도 소용이 없다. 모든 난관을 이겨내면서 일단 시작한 일을 끝장이 날 때까지 완강하게 내미는것은 우리 일군들이 발휘해야 할 사업기풍이다. 우리의 경험은 새로운 문제를 탐구한 다음 그것을 끝까지 실현하는 과정에는 난관이 조성될수 있다는 각오밑에 그것을 완강한 기백을 가지고 뚫고나가며 난관이 조성될수록 당조직에 의거하여 그것을 극복하는데 혁명적으로 달라붙어야 한다는것이다.

우리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어떤 일군들은 자신이 맡은 일이나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벌려놓겠는가, 그러다가 실수해서 국가에 손실을 주면 어떻게 하자고 그러는가, 책임이 두렵지 않는가고 은근히 시비하는 현상이 있었다. 이러한 때 당조직에서는 앉아서 말공부질이나 하는데 대하여 타격을 주면서 우리들이 주저하거나 동요하지 말고 결심한대로 꿋꿋이 일해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제기된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강의한 기백을 가지고 벌려나갈수 있었으며 당의 의도에 맞게 일단 포치한 문제는 그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일관성있게 내밀었다. 우리는 지난날의 사업을 통하여 일군들이 일시적인 애로가 조성됐거나 한두번 실패하는것으로 맥을 놓고 주저앉아서는 안되며 곤난할수록 당조직과 대중의 창조적힘에 의거하여 완강한 혁명적기백을 가지고 일해나간다면 그 어떤 난관도 극복할수 있다는것을 절실히 체험하게 되였다.

우리 회사가 거둔 모든 성과들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 밑에서만 이룩될수 있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 나라 의약품 및 의료기구 생산기지를 높은 수준에서 꾸리기 위한 강령적지침을 주시였으며 의약품과 의료기구 생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만년보건회사를 구려주고 의약품과 의료기구 생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였으며 우리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온갖 창의창발성을 높여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참으로 2~3명의 성원들로 보약치료업과 의약품판매활동을 벌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3~4년이라는 짧은 기간 세계에 널리 알려진 회사를 꾸리는 과정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와 끊임없는 보살핌이 있고 당이 가르치는대로 지도일군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높은 창조적탐구력을 발휘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깊이 체득할수 있었다.

우리는 앞으로도 제약 및 의료기구 공업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하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의약품과 의료기구 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당과 수령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할것이다.

농촌문제해결에서 혁명적전환의 길을 열어놓은 력사적인 토지개혁

손 전 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오늘 우리 인민은 력사적인 토지개혁실시 4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에 실시된 토지개혁은 농민들을 세기적으로 내려오던 봉건적 착취와 예속에서 영원히 해방하기 위한 심각한 계급투쟁이였으며 농업생산력을 봉건적질곡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대 혁명적변혁이였다. 토지개혁이 성과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우리 나라 농촌에서 침체와 락후, 빈궁의 오랜 력사적근원이 없어지고 농업의 발전과 나라의 전반적사회경제발전을 위한 밝은 전망이 펼쳐지게 되였다.

토지개혁의 승리는 특히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농촌문제해결의 기본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혁명발전의 보다 높은 단계에서 나서는 농민문제, 농업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은 력사적인 사변으로 되였다.

* *

농촌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농촌문제를 잘 해결하여야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릴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성할수 있다.

농촌문제는 농민이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농업생산이 민족경제에서 기본을 이루고있는 나라들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이 나라들에서 농민문제, 농업문제의 성과적해결여부는 혁명의 승패와 사회적진보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된다.

이처럼 중요한 농촌문제는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고 농민의 사회경제적처지와 농업생산력의 발전수준이 달라지는데 따라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서로 다른 과업과 내용을 가지고 각이하게 제기되게 된다.

농촌문제해결에서 첫 출발점으로, 최초의 혁명과업으로 되는것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수행되는 토지개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토지개혁은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농민문제,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나서는 혁명과업입니다.》 (《김일성저작집》 제24권, 177페지)

토지개혁은 봉건적 토지소유관계와 착취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토지소유, 토지리용 관계를 확립하는 사회경제적 변혁이다.

토지의 소유관계와 리용관계는 농민의 사회경제적처지와 농업의 생산력발전에 작용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농민은 토지를 기본생산수단으로 하고있는 근로자이며 농업은 토지를 기본생산토대로 하는 사회적분업이다. 생산자인 농민이나 사회적분업인 농업은 다같이 토지와 직접 련관되여있다. 토지가 있음으로 하여 사회적생산자인 농민이 있고 사회적분업인 농업이 존재한다. 농민문제와 농업문제의 기저에는 바로 토지가 놓여있으며 토지의 소유관계, 리용관계에 따라 농민의 사회경제적처지와 농업의 생산력발전이 크게 좌우되게 된다. 농민의 사회경제적처지와 농업의 생산력발전에 가장 반동적이며 부정적인 작용을 하는 토지 소유관계, 리용관계는 다름아닌 토지가 소수 계급에게 집중되여있고 그것이 착취와 억압의

수단으로 리용되는 봉건적인 토지소유관계, 소작제도이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는 이러한 봉건적인 토지소유관계, 소작제도를 철폐하기 위하여 토지개혁을 실시하게 되며 이 토지개혁은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기초적이며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매우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된다. 토지개혁은 농촌문제자체를 해결하는데서뿐만아니라 로동계급의 믿음직한 동맹자인 농민을 전취하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서도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토지개혁이 성과적으로 실시되였다.

해방후 첫시기 우리 나라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는것은 혁명발전과 사회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로 나섰다. 당시 우리 나라 농촌에는 봉건적 토지소유관계와 소작제도가 그대로 남아있었으며 일제와 결탁되여있던 지주들이 여전히 많은 땅을 가지고 인구의 거의 80%를 차지하는 농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있었다. 총농호가운데서 4%밖에 안되는 지주가 총경지면적의 58.2%를 차지하고있었으며 농가호수의 56.7%에 달하는 빈농민들은 경지면적의 겨우 5.4%를 가지고있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토지개혁을 하여야 농민들을 봉건적 착취와 예속에서 해방하여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일수 있었으며 농촌에 뿌리박은 지주계급을 청산하고 반동세력의 경제적지반을 없앨수 있었다. 토지개혁을 하여야만 또한 농업생산력을 봉건적경제관계의 구속에서 해방하여 빨리 발전시킬수 있었으며 공업을 비롯한 전반적인민경제의 발전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었다. 토지개혁은 로농동맹을 강화하고 나라의 전반적인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을 민주화하기 위한 사회정치적지반을 튼튼히 다지는데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유격근거지에서 실시한 토지개혁의 고귀한 경험과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서 천명한 토지혁명사상을 해방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농촌의 토지소유관계, 계급관계에 맞게 구현하여 1946년 3월 5일 력사적인 토지개혁법령을 발포하고 그 실현을 위한 정확한 정책과 구체적방도들을 제시하였으며 전당과 전체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여 불과 한달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토지개혁을 승리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100만 325정보에 달하는 일제의 소유토지 및 친일파, 민족반역자, 지주들의 소유토지가 몰수되여 72만 4,522호에 달하는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98만 1,390정보가 분여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된 첫 민주개혁인 토지개혁은 일련의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있다.

우리 나라 토지개혁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적대분자들의 큰 반항이 없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된것이다.

토지개혁은 오랜 세기를 두고 농촌을 지배하여온 봉건적착취관계와 지주계급을 청산하는 심각한 사회경제적변혁인것만큼 날카로운 계급투쟁을 동반하게 된다. 이 치렬한 계급투쟁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수 있은것은 우리 당이 올바른 계급정책과 전략전술을 제시하여 반혁명세력에 대한 혁명세력의 결정적인 우세를 보장한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우리 당은 먼저 계급적원쑤들의 반항을 진압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할수 있도록 인민정권을 튼튼히 하며 혁명무력과 보안기관, 사법검찰기관과 같은 독재기관을 꾸리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 인민정권의 독재기능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토지개혁에 대하여 가장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 고농과 빈농에 튼튼히 의거하고 중농과 동맹하며 부농을 고립시키는 계급정책을 실시하였다.

우리 당은 지주를 청산하면서도 반항하지 않는자들에 대해서는 다른곳에 이주시켜 살아갈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며 도시에 있는 지주들의 상공업은 다치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계급정책과 전략전술로 반혁명세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우리 당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혁명력량을 동원하여 토지개혁을 적극 지지해나서게 하였다. 그리하여 토지개혁은 적대계급의 큰 반항이 없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게 되였다.

우리 나라 토지개혁의 중요한 특징은 또한 그것이 매우 철저하게 수행되였다는데 있다.

토지개혁을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토지의 몰수대상과 몰수방법, 분배대상과 분배방법을 옳게 규정하는것이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하여야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토지개혁을 철저히 수행할수 있다.

우리 당은 5정보이상을 가지고 놀고먹던 지주의 땅과 자기가 경작하지 않고 소작주던 모든 땅은 면적에 관계없이 다 몰수대상으로 규정하고 무상으로 몰수하도록 하였으며 땅을 밭갈이하는 농민들이 가지는 원칙에서 고용농과 토지없는 농민, 토지적은 농민들에게 그들의 가족수와 로력자수에 따라 무상으로 나누어주도록 하였다. 이것은 토지문제의 본질과 당시 우리 나라 농민들의 세기적인 념원, 구체적인 생활형편에 맞는 적극적이고 혁명적인 정책이였으며 착취계급이 다시는 자기의 력량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경제적지반을 철저히 박탈할수 있게 한 정당한 조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처럼 토지개혁이 적대계급의 큰 반항이 없이 비교적 순조롭게, 우리의 실정에 맞게 철저히 실시됨으로써 우리는 단 한번의 토지개혁으로 토지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나라 토지개혁의 특징이 있으며 토지문제해결에서 이룩된 불멸의 업적의 하나가 있다.

토지개혁은 우리 나라 혁명발전과 새 사회 건설에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혁명적인 변혁이였다. 토지개혁의 승리는 특히 농촌문제해결에서 혁명적 전환의 길을 열어놓은 력사적인 사변으로 되였다.

토지개혁은 무엇보다도 농민들을 토지의 주인으로, 농촌건설의 직접적인 담당자로 되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토지개혁이 실시된 결과 농촌에서는 봉건적생산관계가 청산되였으며 근로농민들은 토지의 주인으로 되였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0권, 186페지)

농민들을 토지의 주인으로 만들고 농촌건설의 담당자로 준비시키는것은 농촌문제해결에서 나서는 관건적인 고리로 된다.

농촌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농민대중의 세기적인 지향과 념원을 실현하여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농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고 있는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농민들이 토지의 주인으로 되여야 하며 그들자신이 농촌건설의 담당자가 되여야 한다. 토지개혁으로부터 시작하여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 때까지 혁명발전의 여러 단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담보는 농민들을 토지의 주인으로 만들고 나아가서 그들을 농촌건설의 직접적인 담당자로 되게 하는데 있다.

토지개혁은 농촌문제해결에서 나서는 이 기본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았다.

우리 당은 토지개혁에 앞서 모든 농촌들에 농민조합을 조직하고 농민들을 거기에 묶어세우며 조직을 통하여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단련시키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농민들을 지주를 반대하는 3.7제투쟁과 같은 실지투쟁을 통하여

계급적으로 더욱 각성시키고 단련시켰다. 우리 당은 농민들자신이 토지개혁에서 주동적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농, 빈농들로 농촌위원회를 조직하고 농촌위원회가 토지개혁을 실시하는데서 직접적인 집행자가 되도록 하였다.

토지개혁법령의 발포에 뒤이어 온 나라의 농촌에 조직된 1만 1,500여개의 농촌위원회들은 토지개혁을 직접 담당수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 토지몰수대상과 청산대상을 규정하며 몰수한 땅을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사업을 비롯한 토지개혁법령을 집행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사업을 맡아 처리하였다. 이렇게 한 결과 농민들은 자신들의 주동적인 투쟁으로 자기들의 리익에 맞게 토지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였다. 토지개혁을 위한 준비와 그것을 실시한 모든 투쟁과정은 결국 농민들로 하여금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깊이 체득하게 하였으며 앞으로 농촌문제해결에 적극 떨쳐나서는 농촌건설의 직접적인 담당자로 자라날수 있게 하였다.

토지개혁은 또한 농업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생산력은 생산관계와의 작용속에서 발전한다. 농촌에서 낡은 생산관계를 청산하여야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적극 추동할수 있으며 농민문제도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다. 농촌문제를 옳게 해결하려면 반드시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구속하는 낡은 생산관계를 혁명적으로 변혁하고 농업생산력이 발전하는데 따라 생산관계를 더욱 개선하며 혁명발전의 선행단계에서 다음단계의 생산력발전을 위한 전제를 잘 마련하여야 한다.

토지개혁은 바로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가로막는 질곡인 봉건적생산관계를 청산함으로써 농촌경리의 당면한 발전과 전망적인 발전을 위한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 우리 당은 봉건적토지소유관계와 소작제도를 완전히 철폐하여 농촌경리의 생산력을 봉건적생산관계의 질곡에서 완전히 해방하였으며 토지가 개인에게 다시 집중되여 낡은 생산관계가 되살아나지 못하도록 분여된 토지의 매매와 소작, 저당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혁명적인 조치는 농촌에서 낡은 생산관계를 완전히 청산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위한 농민들의 창조적투쟁을 크게 고무추동하였다.

농업생산력을 계속 발전시키자면 봉건적인 생산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것과 함께 개인농민경리를 협동화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토지를 분여함에 있어서 앞으로 농민들이 로력자수가 줄어들어 자체로 부칠수 없게 되는 토지와 로동계급으로 되여 내놓게 되는 토지는 국가에 도로 바치도록 하였으며 몰수한 관개수리시설을 국가소유로 전환시켰다. 이것은 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사적소유의 근성을 일정하게 약화시키고 다음단계의 과업인 농업협동화를 실현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였다. 우리 당은 이와 함께 부농경리의 발전을 제한하고 협동적신용기관인 농민은행, 류통분야의 협동경리인 소비조합, 국영농목장과 농기계임경소, 우마임경소를 조직하여 토지개혁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공동경리의 싹을 키우고 그 우월성을 보여주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이처럼 토지개혁과 그 성과를 공고히 하는 과정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이 빨리 발전하게 되였으며 앞으로 농업협동화를 실현하여 농촌경리의 계획적인 발전을 보장할수 있는 전제들이 훌륭히 마련되게 되였다.

토지개혁은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방조, 농촌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실현하는데서도 중요한 계기를 열어놓았다.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방조와 농촌에 대한 사회적지원은 농촌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농촌문제는 력사적으로 형성된 뿌리깊은 문제이며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농민은 오직 혁명의 령도계급

인 로동계급의 힘있는 방조와 사회적지원을 잘 받아야 농촌문제해결의 매 단계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우리 당은 토지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는 과정을 통하여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방조와 농촌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실현하는 빛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토지개혁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실시된 첫 민주개혁이였으며 착취계급인 지주를 청산하는 첫 계급투쟁이였다. 이 거창한 사업을 농민들자신의 힘만으로 수행한다는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을 동원하여 농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였다. 특히 흥남비료공장과 평양사동탄광을 비롯하여 전국의 많은 공장, 광산, 탄광, 철도에서 수많은 우수한 로동자들을 선발하여 토지개혁지원대로 농촌에 파견하였다. 농촌에 파견된 로동계급들은 농민들속에 들어가 토지개혁의 의의와 그 수행방도를 널리 알려주면서 농촌위원회들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었으며 보안기관과 농촌에 조직된 자위대와 힘을 합쳐 토지개혁에 반항해나서는 지주와 반동분자들의 음모책동을 폭로분쇄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로동계급의 지원은 지주와의 투쟁에 떨쳐나선 농민들에게 큰 고무적힘을 주었으며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동맹을 더욱 튼튼히 하였다.

우리 당은 로동계급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고 그들을 토지개혁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 조직동원하였다. 그 결과 각 정당, 사회단체에 망라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이 토지개혁을 지지하여나섰으며 그 수행을 적극 도와주었다. 이와 함께 토지개혁을 실시한 다음에는 농민들에게 부림소와 농기구, 씨앗 같은것을 마련해주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였으며 수많은 로동자, 사무원, 학생들로 씨뿌리기협조대, 모내기협조대를 뭇고 농촌에 나가서 농민들의 일손을 적극 도와주도록 하였다.

이렇듯 토지개혁을 통하여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방조와 농촌에 대한 사회적지원이 실현되였으며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부터 농촌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원칙들이 빛나게 구현되기 시작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실시된 력사적인 토지개혁은 농촌문제해결의 당면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전망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넓은 길을 열어놓은 혁명적인 사변으로 되였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나선 농촌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였을뿐아니라 혁명발전의 보다 높은 단계에서 제기되는 농촌문제해결의 새로운 과업들을 수행할수 있는 확고한 기초와 전제를 미리 마련해놓은 여기에 토지개혁이 가지는 가장 큰 의의의 하나가 있다.

토지개혁이 실시된 때로부터 우리 혁명은 멀리 전진하였으며 오늘은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우리 인민이 토지개혁을 수행한데 뒤이어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실현하고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커다란 승리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발전의 매 시기 농촌문제해결의 옳바른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시고 우리 당이 그 관철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곧바로 이끌어온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영예롭고도 무거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우리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농민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실현하여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투쟁에서 더욱 큰 성과를 이룩하여야 할것이다.

기술혁명은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기본고리

유 시 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강령적교시에서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경제발전의 기본고리는 기술혁명입니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 여기에 나라의 경제발전과 민족적번영의 확고한 담보가 있습니다.》 (《신년사》, 1986년, 단행본, 6페지)

기술혁명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교양개조하는것과 함께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생산력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사회경제발전에서 노는 커다란 역할로 하여 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상혁명, 문화혁명과 함께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줄수 있으며 나라의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민족의 륭성과 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더우기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이 매우 빨리 발전하고있는 기술혁명의 시대이다.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기술혁명을 적극 추진시켜야 인민경제의 여러 분야를 최신 과학기술로 튼튼히 장비할수 있으며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기술혁명을 적극 벌려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기술혁명은 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요인으로,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푸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기술혁명을 경제발전을 위한 기본고리로 틀어쥐고 여기에 힘을 넣어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오늘 기술혁명이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고리로 되는것은 무엇보다 그것이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생산능력을 빨리 높이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현시기 우리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밀고나가면서 기간공업과 철도운수를 발전시키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며 인민소비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고 농업생산과 수산물생산을 더 빨리 장성시켜 인민들의 생활을 넉넉하고 윤택하게 하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오늘 우리앞에 나서는 이러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이미 마련해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면서 생산능력을 빨리 늘여야 한다.

방대한 규모의 경제토대가 마련되여있는 우리 나라에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제기된 당면한 경제과업을 수행하며 나아가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선차적인 문제로 된다. 오늘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진군속도를 높이고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며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는 투쟁에서의 성과여부가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현시기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관건적고리는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이며 기술혁명은 그것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기술혁명을 적극 벌려야 현존생산설비들의 기술적장비수준을 높이고 생산공정을 더욱 개선하고 현대화하여 기계설비들의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고 생산요소들을 합리적으로 쓸수 있다. 그리하여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계설비마다에 만부하, 만가동을 보장하고 생산을 체계적으로 늘여나갈수 있게 된다. 기술혁명은 또한 자연부원의 개발과 리용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원료, 연료, 동력에 대한 급격히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한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일수록 자원이 제한되여있고 그 개발이 불리해지는 조건에서도 원료, 연료, 동력의 생산량을 빨리 늘일수 있으며 생산과정에서 그것을 극력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다.

결국 기술혁명을 다그치는가 다그치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로 된다.

기술혁명은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할뿐아니라 생산능력을 빨리 늘이며 투자의 경제적효과성을 높이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생산장성은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면서 새로운 생산능력을 조성하는것을 통하여 이룩된다. 기술혁명은 최신과학기술이 도달한 성과에 기초하여 새로운 공업부문들을 창설하고 현대적인 대형 및 정밀 기계설비들을 창안제작할수 있게 함으로써 생산적토대를 축성하는 사업을 힘있게 다그치게 하며 사회적로동생산능률을 끊임없이 높여 생산능력을 늘이기 위한 축적원천을 더 많이 조성할수 있게 한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공장, 기업소들의 기술적개건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게 되면 생산면적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건물과 구축물, 부대설비 건설에 대한 투자를 극력 절약할수 있다. 그리하여 단위생산능력당 투자액, 건설기간, 투자의 보상기간 등을 줄이고 적은 투자로써 보다 많은 생산능력을 조성할수 있게 한다.

이처럼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의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동원리용하며 새로운 생산능력을 효과적으로 마련할수 있게 함으로써 생산력을 빨리 발전시켜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할수 있게 한다.

기술혁명이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고리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경영활동의 과학화, 합리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담보로 되는것과 관련된다.

경영활동의 과학화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전반적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는 사업이다. 객관적인 경제법칙과 과학기술의 리용에 기초하여 목적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경제는 경영활동을 과학화할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생산 부문들과 단위들, 생산공정들 사이의 련계가 매우 복잡해졌으며 과학과 기술이 빨리 발전하고있는 현실은 경영활동의 과학화를 그 어느때보다도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치기 위한 절실한 과업으로 제기하고있다. 오늘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지 않고서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생산에 대한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지도도 생산에 대한 보장사업도 원만히 실현할수 없고 독립채산제도 바로 실시할수 없으며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도 이룩할수 없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영활동을 새로운 높은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는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기업관리에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을 적극 받아들이는것이다.

기업관리에 전자계산기, 산업텔레비죤을 비롯한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을 널리 받아들이게 되면 방대한 규모로 늘어나는 계산업무를 비롯한 경영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할수 있으며 경제현상과 과정의 실태를 제때에 구체적으로 분석장악한데 기초하여 과학적인 대책을 세울수 있다. 기업관리에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을 적극 리용하게 되면 또한 로력, 기술, 원료, 자금 등 경제발전에 미치는 요인들의 작용을 전망적으로, 종합적으로 타산하여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전망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울수 있으며 계획계산업무를 제때에 정확히 처리하여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기업관리에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을 널리 받아들이는것은 특히 최량화방안에 기초하여 경제적타산을 옳게 함으로써 생산장성의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할수 있게 한다.

오늘 경제적타산을 바로하는데서 최량의 경제조직방안을 선택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최량화방안에 기초하여 경영활동이 조직진행될 때에만 최소한의 지출로 가장 큰 경제적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현대적생산의 특성으로부터 제기되는 수많은 경영조직방안가운데서 최량화방안을 선택하기 위한 힘있는 수단의 하나는 경제수학적방법이며 그것은 오직 발전된 기술수단들을 리용할 때에만 옳게 적용할수 있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전자계산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을 적극 받아들여야 방대한 계산업무량을 원만히 처리할수 있으며 현대과학이 달성한 중요한 성과의 하나인 경제수학적방법을 실제적으로 적용할수 있다. 그리하여 생산장성의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탐구동원하여 경제발전의 속도를 더욱 다그칠수 있다.

기술혁명이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고리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생산의 주인은 근로인민대중이며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힘도 다름아닌 근로인민대중에게 있다. 근로인민대중은 무궁무진한 창조력의 소유자이며 경제발전은 결국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을 얼마나 높이 발양시키는가에 의하여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의 제고와 과학기술의 발전은 서로 밀접한 련관관계를 가지고있다.

근로인민대중은 오랜 세월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자연을 정복하는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쌓고 커다란 과학기술적진보를 이룩하여왔다. 인류사회가 달성한 과학과 기술의 성과는 모두가 인민대중이 벌려온 력사적투쟁의 결실이다.

다른 한편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은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 투쟁을 통하여 더욱 높아지며 최대한으로 발양되게 된다. 기술혁명은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그들이 현대과학과 기술을 소유하는데 보다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기술수단들을 현대화하고 생산기술공정을 개선하는 과정을 통하여 근로자들은 또한 자기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자연을 정복하고 개조하는 힘을 빨리 키우게 된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과학기술의 발전과 밀접히 결합시켜야만 그들의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이 최대한으로 발양될수 있으며 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할수 있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 때 우리는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여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줄수 있으며 당면한 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칠뿐아니라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빨리 발전하

는 세계경제발전추세를 따라갈수 있다.

실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를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기술혁명수행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으로부터 우리 당은 오늘 기술혁명을 당의 중요한 전략적로선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에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우리는 기술혁명을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고리로, 중요한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당의 의도를 깊이 파악하고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6페지)

현시기 기술혁명수행에서 나서는 중요한 임무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푸는것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기 위하여 우리 당이 내세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과업이다. 우리는 당이 제시한 기술혁명의 중심방향에 따라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원료, 연료, 동력의 개발리용기술을 혁신하며 기계공업과 전자공업, 자동화공업의 빠른 발전에 기초하여 기술장비의 현대화를 실현하며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투쟁을 적극 다그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과학연구사업에 기초하여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생산에 도입되며 끊임없이 발전하게 된다. 과학연구사업은 정력적인 탐구와 사색을 요구하는 창조적사업인것만큼 일조일석에 그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기술혁명은 과학과 기술이 대중자신의것으로 되고 그들이 적극 떨쳐나서야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있다.

그러므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과학기술간부양성사업을 개선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고 광범한 대중이 기술혁신운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술혁명을 다그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과학기술분야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협조와 교류를 널리 진행하여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는것이다.

과학기술은 인류의 공동의 재부이며 그것은 나라들사이의 협조와 교류를 통하여 보급되고 끊임없이 발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들과의 과학기술 협조와 교류를 더 적극적으로, 더 광범히 진행하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섭취하며 그것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과학기술행정사업을 잘하는것이다.

과학기술행정사업은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국가의 행정조직적기능을 실현하는 사업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경제발전이 당과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것만큼 과학기술행정사업을 떠나서는 기술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없다.

과학기술행정사업을 개선하는데서는 과학기술발전계획화사업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나서는 기본문제의 하나는 과학기술발전전망계획을 바로세

우는것이다. 과학기술발전사업은 원래 전망적인 성격을 띠는 사업이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정도와 경제실태를 정확히 분석한데 기초하여 경제발전전망과 과학기술발전의 세계적추세를 정확히 예측하여 과학기술발전전망계획을 세워야 기술혁명을 옳은 방향에 따라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과학기술발전계획화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전망계획에 예견된 목표와 단계별 과업,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방도에 따라 해마다 과학기술발전계획을 그 보장조건과 정확히 맞물려세워야 한다. 현행과학기술발전계획을 전망계획과의 밀접한 련관이 없이 세워 나라의 과학기술을 목적지향성있게 발전시키는데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조건이 보장되지 않아 그것을 제대로 수행할수 없게 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행정사업을 개선하는데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주며 과학연구성과를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한 조직사업을 잘하는것이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는 중간시험공장을 비롯하여 시험, 연구 시설과 수단들, 일정한 로력, 자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므로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국가적인 보장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필요한 조건들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연구성과를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그것이 실천에서 큰 은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의 지도를 강화하는것은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기술혁명수행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당의 정책적요구를 정확히 실현해나갈수 있으며 기술혁명수행에서 과학자, 기술자들과 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일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은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잘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며 기술발전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밀어주어야 한다. 특히 기술혁명수행에서 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방조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보수주의와 소극성, 기술신비주의를 극복하며 기술혁명에 낯을 덜 돌리거나 그것을 차요시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과학자, 기술자들을 대담하게 믿고 과업을 주며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더욱 발양해나가도록 옳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것은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성숙된 요구이며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다.

모든 일군들은 기술혁명을 오늘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기본고리로 규정한 당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섬으로써 나라의 경제발전과 과학기술발전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철도운수를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경제발전의 절박한 요구

김 영 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심과업을 밝히시면서 기간공업과 철도운수를 발전시키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을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간공업과 철도운수를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절박한 요구입니다.》(《신년사》, 1986년, 단행본, 4폐지)

철도운수를 발전시키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며 현시기 인민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철도는 나라의 동맥이다. 사람의 몸에 있는 동맥이 인체안의 모든 세포들에 영양물질을 공급하여 그 활동을 보장해주듯이 철도는 수송을 통하여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 활력을 넣어주고 그것을 하나의 유기체로 련결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철도운수가 자기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 원료, 연료, 자재, 설비들을 제때에 실어날라야 생산과 소비가 잘 실현되며 확대재생산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된다.

인민경제 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 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를 실현해주는 철도운수는 인민경제의 선행관으로서 경제가 발전하고 분업이 심화될수록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철도가 인민경제의 선행관이라는것은 그것이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앞장에서 나가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철도가 차지하는 이러한 위치로부터 철도운수를 다른 경제부문보다 앞세워 발전시켜야 한다. 철도운수를 앞세워 발전시킨다는것은 방대하게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수송능력을 생산장성보다 시간적으로 앞세워 마련한다는것을 말한다.

생산과 건설을 정상화하고 끊임없이 확대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은 철도수송을 비롯한 전반적수송을 앞세우는 조건에서만 전면적으로 마련될수 있다.

이로부터 수송을 생산에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생산과 수송사이의 균형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되며 엄격히 지켜야 할 원칙의 하나로 된다.

수송을 확고히 앞세우는 원칙에서 철도운수발전에 힘을 넣어 필요한 수송능력을 예견성있게 미리 마련하여야 생산을 정상화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아무리 현대적인 공장을 많이 일떠세워 생산능력을 크게 마련해놓아도 철도운수를 앞세워 발전시키지 못하고 수송의 긴장성을 조성하게 되면 생산을 정상화할수 없으며 이미 마련해놓은 경제적밑천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없게 된다. 결국 수송의 긴장성은 생산의 긴장성과 파동성을 가져오며 경제발전에서 높은 속도를 보장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도 철도운수를 앞세워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어 생산과 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 석탄은 150%, 강철은 185%, 세멘트는 178%로 그 생산이 장성하였는데 같은 기간에 철도화물수송량은 1.8배로 늘어났다. 이것은 철도운수를 앞세워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정책적요구가 원만히 실현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철도수송을 앞세우는 원칙에서 철도운수발전에 힘을 넣어야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철도운수를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현시기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경제건설과업과 관련하여 더욱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릴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는 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이며 몇해안으로 우리들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영예롭고도 무거운 전투적과업이다. 우리는 올해에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는데서 커다란 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올해에 채취공업, 금속공업, 전력공업 등 기간공업을 발전시키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 광물과 석탄, 철강재, 전력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는 한편 경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고 농업생산과 수산물생산을 빨리 장성시켜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넉넉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앞에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이 나서고있는 오늘 철도운수를 빨리 발전시켜야만 나라의 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며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신년사를 받들고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철도운수를 더욱 강화발전시킴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철도운수를 빨리 발전시키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는것이다.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것은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철도운수를 건설하기 위한 기본요구이며 철도운수를 확고히 앞세워 발전시키고 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철도운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는데서 현시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할 문제는 차량생산기지를 현대적으로 꾸리고 기관차와 화차, 객차 생산을 강화하는것이다.

기관차와 객화차는 철도의 기본운수수단이며 그 대수와 구성, 현대화정도는 철도수송능력과 현대화수준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현대적인 차량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우리 나라 철도를 위력한 사회주의철도운수로 강화발전시키고 빨리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철도공장들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하고 그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함으로써 최신형 전기기관차와 중량화차, 조차, 랭동차, 객차들을 더 잘,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차량생산기지를 꾸리는것과 함께 새 철길 건설과 철길의 개건확장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한다.

우리는 지난해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북부철길건설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새로 건설하는 철길전구간의 로반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에 토대하여 북부철길건설을 더욱 전투적으로 밀고나감으로써 이 공사를 하루빨리 끝내여 나라의 철도망을 완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일부 구간들에 복선과 우회선, 련결선을 놓는 사업을 섬멸전의 방법으로 적극 밀고나가야 한다.

철도전기화를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철도운수의 주체화를 실현하고 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과업이다.

철도운수일군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철도전기화공사를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아직도 전기화되지 못한 지선들을 다 전기화하여 전기기관차에 의한 일원화수송체계를 완성하여야 한다.

철도의 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구간자동화와 역구내자동화, 조차장자동화를 적극 실현하며 사령지휘체계를 무선화, 텔레비존화하고 짐을 싣고부리는 일을 기계화, 자동화함으로써 철도운수의 현대화를 적극 실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철도를 보다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우고 그 위력을 충분히 나타내도록 하며 철도가 나라의 동맥, 인민경제의 선행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철도운수를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또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철도운영을 개선강화하는 것이다.

나라의 경제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지고 수송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수송사업이 방대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철도운영을 더욱 개선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철도운영을 합리적으로 잘 조직하여야 이미 마련된 운수 수단과 설비들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수송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으며 수송사업전반에서 끊임없는 혁신이 일어나게 할수 있다. 철도운영을 개선하는데서 기본은 수송 조직과 지휘를 잘하는것이다. 수송 조직과 지휘는 수송잠재력과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수송의 경제적효과성을 높이며 방대하게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경제조직사업이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의 요구에 맞게 수송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륜전기계의 맞물림조직과 렬차운행조직, 짐을 싣고부리는 일에 이르기까지의 수송사업전반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특히 기관차와 화차 운영조직을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잘하며 전자계산기를 리용하여 륜전기재들의 류동을 제때에 정확히 장악하여 그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등 수송조직과 지휘를 더욱 현대화하여야 한다.

집중수송, 집합수송, 련대수송의 3대 수송방침은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과 정당성이 확증된 우리 당의 중요한 수송방침이다.

철도운수일군들은 집중수송 대상과 구간, 물동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한데 기초하여 집중수송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집중수송과 련대수송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수송사업에서 새로운 앙양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올해에 수송능력을 더 높임으로써 무역사업과 농업, 수산업, 경공업 부문을 발전시키는데 절실히 필요한 여러가지 물자와 중요대상건설용 물동을 제때에 더 많이 실어날라야 한다.

현시기 철도운영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화차를 비롯한 운수 수단과 설비, 철도구조물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을 더욱 강화하는것이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로동계급이 마련해놓은 운수수단을 비롯한 물질기술적토대는 대단히 위력하며 그 잠재력은 비할바없이 크다. 이미 마련되여있는 운수 수단과 설비들을 가지고도 그것을 잘 보수정비하여 리용률을 높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짐을 실어나를수 있다. 현시기 수송능력을 높여 수송의 긴장성을 푸는 중요한 예비는 바로 여기에 있다.

철도운영부문 일군들은 혁명적으로 달라붙어 차량수리기지와 차량부속품생산기지를 현대적으로 더 잘 꾸리고 차량수리와 부속품생산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또한 수리체계를 칠저히 세우고 여러가지 합리적인 수리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운영수리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차량들을 제때에 질적으로 더 많이 수리하여 수리대기차를 결정적으로 줄이고 그 리용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철도운영에서 중요한것은 철길작업을

잘하여 철길강도를 더욱 높이는것이다.

철길부문에서는 철길다짐작업과 구조물보수작업을 제때에 집적으로 하는 한편 경량레루를 중량레루로 바꾸고 좋은 침목을 더 많이 깔며 연구내신을 늘이는 등 철도전기화의 은을 나타내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한다.

군대와 같은 강한 규률과 혁명적질서를 세우는것은 철도운수를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철도운수부문에서 혁명적 규률과 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조직화되고 기계화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있는 철도운수를 질서정연하게 움직여나갈수 있으며 사고없이 수송성과를 확대해나갈수 있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통일적인 사령지휘체계를 철저히 세워 모든 수송공정이 오직 사령원들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강한 규률을 세우며 규률규정과 렬차운행규정을 비롯한 철도규정의 요구대로 일하는 엄격한 질서를 세움으로써 모든 사업을 철저히 정규화, 규범화하여야 한다.

철도수송전사들의 대중적혁신운동인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철도에서 렬차의 무사고정시운행을 보장하고 증송성과를 확대해나가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철도운수부문의 모든 단위들에서는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을 대중화, 조직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듦으로써 이 운동이 더욱 커다란 실효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한다.

철도운수를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또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기술혁명은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전략적로선이며 경제발전의 기본고리이다.

철도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철도운수를 보다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우고 더 많은 짐을 더 빨리 실어나를수 있으며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다.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철도운수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과학연구기관들은 철도운수의 주체화, 현대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푸는데 모를 박고 과학연구사업을 진공적으로 내밀어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간부양성사업을 개선하고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행정사업을 개선하여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보장사업을 강화하며 과학연구성과를 제때에 수송사업에 받아들여야 한다.

철도운수를 빨리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이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담보는 이 부문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는것이다.

철도운수부문의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모두가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안고 당의 운수정책 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면서 수송사업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간부들이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사업을 전투적으로 짜고들며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에 의거하여 사업하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근로자들을 새로운 로력적위훈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 당조직들은 전인민적으로 철도를 지원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림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철도운수를 자기 일처럼 여기고 적극 도와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철도운수사업을 획기적으로 강화발전시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더 큰 승리를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군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지방경제의 종합적발전을 위한 기본담보

김 균 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올해와 앞으로 몇해동안 경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농업생산과 수산물생산을 더 빨리 장성시켜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넉넉하고 윤택하게 만들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일데 대한 보람찬 투쟁과업을 수행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지방경제의 종합적발전을 다그치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방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의 방침이며 사회주의건설의 합법칙적요구입니다. 지방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켜야 지방인민들의 여러가지 물질문화적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고 나라의 전반적지역을 고르롭게 발전시킬수 있으며 도시와 농촌의 차이도 빨리 줄일수 있습니다.》

지방경제의 종합적발전은 지방의 여러 경제부문들을 다같이 급속히 발전시켜 지역들사이의 생산력발전수준과 주민들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를 없애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지방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킨다는것은 지방주민들의 생활상 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로 충족시킬수 있도록 지방공업, 농촌경리, 지방상업, 지방건설, 지방수산업과 같은 여러 경제부문들을 발전시켜나간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지방경제를 다면적으로 발전시킨다는것을 의미한다.

지방경제의 다면적인 발전은 지방의 특성과 자연경제적조건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빨리 높임으로써 소비품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한다.

지방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기본은 지방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이다. 지방공업은 지방경제의 종합적발전을 위한 결정적고리로 된다. 중앙공업과 함께 지방공업은 농업을 공업화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방경제의 락후성과 일면성을 극복하고 그의 다면적발전을 보장하는데서 주되는 작용을 한다. 지역적특성에 맞게 농업을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소농기구의 생산, 농산물과 부산물의 가공, 농촌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공업상품의 대부분이 지방공업을 통하여 보장되게 된다. 지방공업의 발전은 상품공급원천을 늘임으로써 지방상업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작용하며 예산수입보장을 통하여 지방예산제를 더욱 강화해나갈수 있게 한다.

지방경제의 종합적발전은 경제부문구조에서의 뒤떨어진 고리들을 추켜세우는 과정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이룩되게 된다. 원래 지방경제는 지방의 여러 경제부문사이, 그 매개 부문 내부단위들사이의 옳바른 균형과 정확한 련계가 보장되는 조건에서만 발전할수 있다. 경제부문구조에서 뒤떨어진 고리들을 추켜세워 모든 부문들사이의 옳바른 균형을 보장해야만 통일적인 련관속에서 발전하는 지방경제의 종합적발전을 다그칠수 있다.

지방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문제는 지방의 자연경제적유리성을 어떻게 리용하는가 하는데 따라 크게 좌우된

다. 지방경제의 다면적발전은 자연경제적유리성을 최대한으로 리용할것을 전제로 하고있다. 지방마다 주어진 자연경제적조건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어떤 불리한 조건도 극복하면서 지방경제의 발전을 다그치고 주민들의 소득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다.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바다를 낀곳에서는 바다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도록 경제부문구조를 갖추는것이 지방경제의 종합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고리로 된다.

지방경제의 종합적발전에서 나서는 이 모든 원칙적요구들은 군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일 때만이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군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지방경제의 종합적발전을 위한 기본담보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군이 지방경제발전의 종합적단위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사회주의건설의 지역적거점으로서의 우리 나라 군은 지방경제발전의 종합적단위이며 농촌에 대한 공급기지로 된다.

지방경제를 구성하고있는 지방공업도 군을 단위로 하여 발전하며 농촌경리의 발전도 군이 직접 조직하고 지도한다. 도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공업제품은 군을 거쳐서 농촌에 공급되며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군을 거쳐서 도시에 나가게 된다. 군소재지와 농촌 건설이 군단위로 진행되며 상품류통사업도 군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한다.

지방주민들의 생활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비품의 생산과 농업의 다각적인 발전, 상업망의 포치와 운영, 지방예산을 통한 군살림살이의 조직과 같은 모든 경제사업과 경제활동이 군을 단위로 하여 계획되고 조직운영되는 조건에서 군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것은 지방경제의 종합적인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일 군이 지방경제발전의 종합적단위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지방의 예비를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지 못하여 지방경제를 발전시킬수 없으며 군살림살이도 제대로 꾸려나갈수 없게 된다. 지방공업, 농촌경리, 지방상업을 비롯한 지방경제의 다면적인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상 수요는 군의 역할을 높여야만 원만히 실현될수 있다.

군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지방경제의 종합적발전을 위한 기본담보로 되는것은 또한 군이 지방경제에 대한 통일적 지도단위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지방경제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보장하는것은 그것을 구성하고있는 부문들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를 강화하며 지방의 여러 경제부문들의 균형적발전을 이룩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나라에서 군은 당과 국가의 말단지도단위로서 지방경제발전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실현한다. 군은 지방공업을 비롯한 농업, 지방건설, 지방상업 등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지방의 여러 경제부문사이, 부문내부단위들사이의 정확한 련계가 보장되도록 그에 대한 통제를 실현한다.

지방경제가 발전하고 그 규모가 늘어날수록 부문들사이의 련계는 더욱 강화되며 그에 대한 통일적지도의 기능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따라서 지방경제의 발전을 다그치며 그 생활력을 얼마나 발양시키는가 하는것은 군이 자기의 지도기능을 얼마나 높이는가 하는데 따라 크게 좌우되게 된다. 군이 자기 지방의 자연경제적특성에 맞게 경제부문들을 합리적으로 꾸리고 그것들사이의 련계를 강화발전시켜 소비품생산을 늘일수록 주민들의 생활은 그만큼 편리하고 유족하게 된다.

물론 지방경제에 대한 통일적지도는 도의 행정 및 경제 지도기관들에서도 한다. 그러나 지방경제의 발전에서 군이 종합적단위로 되는 조건에서 그에 대한 군의 통일적지도는 지방경제발전에서 비할바없이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사회주의건설에서 지역적거점

[illegible] 역
[illegible] 위한

[illegible] 적으로 발
[illegible] 관
[illegible] 결과
[illegible] 구려지게
[illegible] 발전수준
[illegible] 차이가 생
[illegible] 되였다. 특히
[illegible] 지방경
[illegible] 산간오지로부
[illegible] 모든 지역이 고르롭
[illegible] 나라의 군들은
[illegible] 소비품생산기지로 전

[illegible] 군마다에 있는 식료공
[illegible], 가구공장을 비롯한
[illegible] 지방건설기업소, 지
[illegible] 에서는 지방의 원료와 자재
[illegible] 동원리용하여 주민들의 생활
[illegible] 요를 기본적으로 자체로 충족시키
[illegible].

이처럼 군의 역할을 높여 지방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정책은 지방에 잠재하고있는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동원리용하여 소비품생산을 늘임으로써 인민생활을 빨리 높일수 있는 길을 명확히 밝혀주고있으며 생산과 소비를 접근시키고 주민들의 생활상 수요를 보다 민감하게 충족시키며 지역들사이의 차이를 없애고 나라의 모든 지역을 고르롭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구체적인 방도를 명시해주고있다. 그것은 또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지방의 창발성과 자립성을 높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더욱 다그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경험은 군의 역할을 높여 지방경제를 빨리 발전시키는것이 인민생활을 높이고 지방의 고르로운 발전을 보장하며 나라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끊임없이 늘어나는 주민들의 다종다양한 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도록 소비품생산을 늘여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보람찬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나라의 전반적경제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는것과 함께 군의 역할을 높여 지방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군을 잘 꾸리고 그 역할을 높임으로써 지방의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훨씬 높일데 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할것이다.》

군의 역할을 높여 지방경제의 종합적발전을 더욱 다그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군의 행정 및 경제 지도기관들의 사업을 강화하는것이다.

군 행정 및 경제 지도기관들은 군안의 경제생활을 직접 책임지고 조직하며 지도한다. 군의 행정 및 경제 지도기관들이 군경제의 발전을 위한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경제 조직사업과 지도를 짜고들어야 지방경제를 더욱 빨리 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군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고 문명하게 꾸려나갈수 있다.

지방경제의 종합적발전에서 새로운 성과가 이룩되도록 군의 행정 및 경제 지도기관들의 사업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일군들이 언제나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주인답게 일하는것이다.

지방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지방의 온갖 생산자원을 동원리용하여 주민들의 생활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여기에서 주인은 군안의 일군들과 주민들이다.

군의 행정 및 경제 지도기관 일군들은 군안의 경제발전과 근로자들의 생활을

책임진 인민의 충복이며 군살림살이의 직접적인 담당자들이다. 일군들이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자기 본분을 다하자면 언제나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지방에 잠재하고있는 예비를 동원리용하여 소비품생산을 끊임없이 늘여나가야 한다. 소비품생산을 늘이는 중요한 예비는 다른데 있는것이 아니라 원료원천지이며 생산지인 군안에 있으며 생산현장에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오늘에 와서 생산장성의 예비는 지난 시기와 같이 쉽게 얻을수 있는것이 아니라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하여야만 찾을수 있다. 이것은 우리 일군들로 하여금 언제나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주인다운 립장에서 실속있게 일해나갈 때만이 지방의 온갖 예비를 적극 동원리용하여 소비품생산을 늘일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실천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일군들이 주인다운 립장에서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군안의 자연경제적조건을 잘 리용하고 지방원료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내부예비를 적극 찾아내여 소비품생산을 늘여나간 창성과 삭주를 비롯한 앞선 군들에서는 례외없이 인민생활이 보다 유족해지고있으며 주민들의 생활상 요구가 원만히 충족되고있다.

군의 행정 및 경제 지도기관들의 사업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다른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그의 지도기능을 높이는것이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지도사업을 따라세워야 온갖 예비와 가능성들을 소비품생산에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할수 있으며 생산의 끊임없는 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지방경제는 그 규모나 물질기술적토대에 있어서 비할바없이 장성하였으며 소비품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지금 우리 근로자들은 여러가지 소비품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생산보장해줄것을 요구하고있다. 근로자들의 요구에 맞게 소비품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자면 지방경제를 직접 지도하는 군 행정 및 경제 지도기관들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군의 행정 및 경제 지도기관 일군들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생산현장, 기업소들에 직접 내려가 생산자대중과 힘을 합쳐 걸린 고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제때에 풀며 생산을 늘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탐구하여야 한다.

군의 역할을 높여 지방경제의 종합적발전을 더욱 다그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지방의 개별적 경제부문, 기업소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군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는 지방경제의 매개 고리로 되는 군안의 개별적 부문, 기업소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군의 역할을 높인다는것은 결국 군급지도기관들의 역할만이 아니라 지방경제를 이루는 매개 요소들의 총체로서의 역할을 높이는것을 의미한다. 지방경제의 개별적 부문, 기업소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군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지방경제발전을 위한 군급지도기관들의 역할자체도 지도를 받는 개별적 부문, 기업소들의 책임성이 발양되지 않는다면 은을 나타낼수 없다. 지방경제를 이루는 개별적인 부문, 기업소들은 군을 단위로 조직운영되면서도 생산과 경영활동에서는 독자성을 가지므로 그것들이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것은 지방경제의 종합적이며 전반적인 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방경제를 이루는 개별적인 부문, 기업소들의 책임성과 역할은 자기에게 맡겨진 경제과업을 더 잘 수행하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군안의 개별적경제부문들에서 부과된 경제과업을 잘 수행하게 되면 그와 련관된 기업소들사이의 경제적련계를 강화하여 원자재를 비롯한 협동생산품들을 제때에 원만히 생산보장함으로써 자기 단위의 생산은 물론 지방경제의 전반적인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지방경제를 이루는 개별적 부문, 기업소들에서는 생산을 늘이기 위한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며 새로운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제품의 질을 끊임없이 높이고 기업관리를 과학화, 합리화하는 등 생산과 경영활동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따라세움으로써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나가야 한다.

군당위원회의 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지방경제의 종합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군당위원회는 군사업의 참모부로서 군안의 모든 사업을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지도한다. 군의 역할을 높여 지방경제의 종합적발전을 이룩하는 문제도 구경은 군당위원회의 사업을 강화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군당위원회가 군내 모든 사업에 대한 키잡이역할을 잘 수행하여야 군사업이 잘되여나갈수 있으며 따라서 지방경제의 종합적발전도 성과적으로 이룩될수 있다.

군당위원회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당의 경제정책을 튼튼히 틀어쥐고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옳바로 실현하는것이다. 더우기 군이 지방경제발전의 종합적단위로 되며 군내 주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조직하는 조건에서 지방경제발전에 대한 군당위원회의 지도를 강화하는것은 필수적인 요구로 나선다.

군당위원회는 군안의 행정경제기관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에 의거하여 자기사업을 옳게 수행할수 있도록 방향을 정확히 주고 그 집행정형을 장악통제하며 편향들을 바로잡아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지방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정책적요구가 철저히 실현되여 그 생활력이 더욱 높이 발양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군당위원회는 군안의 행정경제지도일군들이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여 지방경제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며 어떠한 불리한 조건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대담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 지방살림살이를 알뜰하고 유족하게 꾸려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어야 한다.

지방경제를 발전시켜 주민들의 생활상 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켜나가는것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려는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차고 영예로운 사업이다.

우리는 군의 역할을 더욱 높여 지방경제의 종합적발전을 다그칠데 대한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야 할것이다.」

주체적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강령적지침

려 원 만

올해 3월 31일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전국문화예술인열성자대회 참가자들에게 주체적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신 때로부터 5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이 력사적문헌에는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로선에 따라 찬란히 개화발전하여 1970년대에 대전성기를 이룩한 주체적문학예술의 자랑찬 성과가 밝혀져있다. 문헌에는 또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 수행에 이바지하는것을 숭고한 사명으로 하고있는 우리 문학예술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창작방향과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에서 창작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 그 실현방도가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문헌은 이미 이룩된 성과에 기초하여 주체적문학예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불멸의 기치이며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올바른 길을 밝혀준 강령적지침이다. 문헌에 제시된 사상과 리론의 독창성과 진리성은 실천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되였으며 그 거대한 생활력은 날로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문헌이 밝혀준 길을 따라 계속 억세게 전진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인 투쟁에서 자기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해나갈것이다.

* *

사회주의문학예술은 혁명의 전진과 함께 굽임없이 발전한다. 혁명과 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면 그에 따라 문학예술앞에는 새로운 과제가 제기되며 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문학예술도 더욱 발전하게 된다. 사회주의문학예술앞에 나서는 새로운 과제는 당에 의하여 뚜렷이 밝혀진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주체적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문헌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계기로 하여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문학예술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강령적지침이다.

문헌에서는 당 제6차대회결정을 높이 받들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것을 현시기 우리 문학예술의 중요한 사명으로 밝히고 대전성기를 빛내인 주체적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명을 주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이 문헌이 주체적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여기에 현시기 문학예술분야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창작방향이 뚜렷이 명시되여있는것과 관련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작가, 예술인들은 주체의 혁명위업 수행에 이바지할수 있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며 우리의 문학예술을 보다 높은 수준에 올려세워야 하겠습니다.》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문학예술을 개화발전시키는데서 원칙적문

제로 나서는것은 문학예술의 창작방향을 옳게 제시하는것이다. 창작방향과 주제분야는 혁명발전의 일정한 시기, 일정한 단계에서 문학예술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것으로서 그의 옳바른 설정은 작품의 사상예술적가치와 교양적의의를 규정하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된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창작방향을 옳바로 규정하고 주제분야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문학예술을 목적지향성있게 발전시킬수 있으며 문학예술로 하여금 혁명위업수행에 이바지하게 할수 있는것이다.

문헌에서는 현시기 우리 문학예술의 중요한 창작방향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친필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여러가지 형식의 문학예술작품으로 옮기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과 공산주의적풍모를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형상한 문학예술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는것이라고 밝히였다. 문헌에서는 또한 약동하는 현실생활을 반영한 문학예술작품들과 사람들을 계급적으로,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예술작품들 그리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투쟁모습을 반영한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는것이 오늘 우리 문학예술의 중요한 창작방향으로 된다고 밝혔다.

우리 문학예술의 이러한 창작방향, 주제령역은 혁명의 총적임무와 당사상사업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옳바른 창작방향으로 된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창작방향은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기본임무와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방향에 따라 규정되게 된다.

오늘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이며 우리 당 사상사업은 철두철미 여기에 이바지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실현에 적극 이바지하는 우리 당 사상사업부문앞에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며 혁명과 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로 그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당사상사업의 위력한 수단인 우리의 문학예술이 자기앞에 나선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려면 마땅히 당사상사업의 기본임무인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주제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

문헌에서 제시된 창작방향은 우리 문학예술이 주체의 혈통을 대를 이어 지켜나가며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폭넓고 깊이있는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주는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확고히 담보해주고있다. 그것은 또한 3대혁명전위들과 숨은 영웅들을 비롯하여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우리 시대의 공산주의적인간전형들을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형상해내며 주체혁명위업실현에로 우리 인민을 힘있게 고무해주는 작품들을 더 많이 창조하도록 적극 추동하고있다. 그러므로 문헌에서 제시된 창작방향에 따라 창조된 작품들은 현시기 우리 당 사상사업의 요구에 맞게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며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욱 다그치는데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게 된다.

이것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문헌에서 제시하신 창작방향이 이미 이룩된 우리 문학예술의 성과들을 계속 빛내이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 실현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도록 주체적문학예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옳바른 창작방향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문헌이 주체적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주되는 근거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력사적문헌이 주체적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것은 또한 여기

에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창작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과 그 실현방도가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는것과 관련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영화와 가극, 연극을 비롯한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을 빨리 발전시키려면 창작방향이 명확히 제시되여야 할뿐아니라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창작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그 실현방도가 옳바로 밝혀져야 한다.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의 구체적인 과업과 그 실현방도가 전면적으로 밝혀져야 당사상사업의 요구에 맞게 제시된 창작방향에 따라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에서 혁신을 일으킬수 있으며 나아가서 문학예술로 하여금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게 할수 있다.

문헌에서는 문학예술의 어느 한 부문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킬데 대하여 천명하면서 영화와 가극, 연극과 음악, 무용, 미술과 교예 그리고 문학부문앞에 나서고있는 창작적과업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문헌에서 밝혀진 창작적과업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사명으로 하고있는 우리의 문학예술로 하여금 1970년대에 이룩된 빛나는 성과에 토대하여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문헌은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의 구체적인 실태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매개 분야에서 힘을 넣어 풀어야 할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줌으로써 문학예술전반에서 일대 창작적앙양을 일으키도록 추동하고있다.

문헌에서 제시된 과업은 또한 문학예술분야에서 화력을 집중하여야 할 돌파구와 앞세워 풀어야 할 기초적분야에 대한 옳바른 해명에 의거한것으로서 문학예술창작에서 전반적인 앙양을 이룩하기 위한 방법론을 명시해주고있다.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는데서 영화예술은 화력을 집중해야 할 돌파구이다. 우리 당은 영화예술에 화력을 집중하여 돌파구를 열고 그 성과를 문학예술전반에 일반화해나가는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다.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사상적무기인 영화예술은 종합예술로서 문학예술전반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심고리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영화예술에 화력을 집중하여 돌파구를 열고 그 성과를 일반화해나가야 문학예술전반에서 창작적앙양을 일으켜나갈수 있다.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문학을 앞세워 발전시켜야 한다.

문학은 모든 예술의 기초이다. 문학을 앞세우는 조건에서만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미학적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다.

문헌은 이처럼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창작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밝혀줌으로써 1970년대에 이룩된 문학예술의 빛나는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며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도록 확고히 담보해주고있다.

문헌에는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킬데 대한 과업과 함께 그 수행방도가 뚜렷이 밝혀져있다.

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작가, 예술인들과 문학예술부문의 모든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당의 문예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또한 문학예술사업에서 전문가본위로 나가는 경향을 없애고 군중예술을 발전시켜 온 나라의 예술화를 실현하여야 하며 문학예술작품보급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그리고

작가, 예술인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작가, 예술인 후비를 키우는 사업을 잘해야 한다.

문학예술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혁명적문학예술을 건설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작가, 예술인 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주체의 문학예술을 굽임없이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문학예술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기본은 작가, 예술인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해나가도록 하는데 있다. 당조직들은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충실성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문학예술창작사업에서 당의 의도와 요구를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문학예술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특히 중요한것은 작가, 예술인들이 문학예술 분야에서 당이 이룩하여놓은 업적을 철저히 고수하고 계속 빛내여나가도록 하는것이다.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언제나 당이 이룩해놓은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는 사업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은 작가, 예술인들이 당의 문예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당이 이룩하여놓은 사업 체계와 방법, 창작성과들을 굽임없이 고수발전시켜나가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문학예술을 영원히 주체의 한길로 전진시켜나가야 한다.

이 모든것은 문헌에서 제시된 과업과 방도들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 실현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하는 강령적지침으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주체적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문헌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명을 준것으로 하여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문헌이 발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문헌에서 제시된 사상리론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우리의 문학예술은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게 되였다.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을 충성으로 받들고 당의 의도와 문예방침대로 사고하고 창작하는 혁명적기풍이 더욱 철저히 확립되고 당이 제시한 창작방향에 맞게 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영화를 비롯한 문학예술창작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났다.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고전적명작을 옮긴 혁명연극 《혈분만국회》가 무대에 오름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적문예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게 되고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을 구현한 《성황당》식 혁명연극의 위력을 힘있게 시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를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혁명영화 《조선의 별》의 속편들인 3~6부와 제7부 《남만에서》, 제8부 《저물어가는 1932년》, 제9부 《로흑산의 전설》이 창조되였으며 혁명소설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인 《준엄한 전구》, 《근거지의 봄》, 《대지는 푸르다》, 《은하수》, 《닻은 올랐다》, 《압록강》, 《잊지 못할 겨울》, 《봄우뢰》 등이 역시 련속 창작되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0돐을 민족최대의 경사로 경축하면서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할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 주체사상탑과 개선문을 일떠세웠으며 새로운 형식의 음악무용서사시 《영광의 노

례>가 창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대서사시적화폭으로 감동깊게 펼쳐보이는 음악무용서사시 《영광의 노래>는 우리 당이 문학예술분야에 쌓아올린 성과와 업적을 완성된 무대예술형식에 담아 종합적으로 집대성하고 빛나게 총화한 주체시대의 대기념비적걸작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위대한 풍모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감명깊고 격조높이 형상하고있는 이 모든 작품들은 혁명의 진리를 깊이있게 밝힌 높은 사상예술적가치와 거대한 감화력으로 하여 사람들을 끝없이 공감시키면서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 수행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로동계급의 수령형상창조에 관한 독창적인 문예리론을 창시한 우리 당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풍모와 불멸의 업적을 형상화하는데서 빛나는 성과가 이룩됨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은 수령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는 로동계급의 문학예술로서의 자랑찬 면모를 힘있게 떨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주체위업계승문제가 빛나게 해결된 위대한 성과와 우리 인민의 념원을 반영하여 우리 당을 노래하는 작품창작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그리하여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 《우리의 신념은 하나》,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밤하늘에 내리는 눈송이야》를 비롯한 수많은 훌륭한 가요들과 미술작품들 그리고 《어머니》를 비롯한 서정시들과 소설작품들이 창작되여 근로자들을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실성으로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작품창작에서도 새로운 성과가 이룩되였다.

3대혁명의 전위를 형상한 예술영화 《청춘의 심장》, 숨은 영웅들의 전형을 창조한 예술영화 《숨은 설레인다》와 《평범한 사람》, 주체형의 당일군의 전형을 창조한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와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을 비롯하여 음악, 무용, 미술 등에서 오늘의 보람찬 우리 인민의 생활과 주체형의 인간들의 모습을 그린 수많은 훌륭한 작품들이 창조됨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높이 나아가는 우리 인민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혁명적작품들도 많이 창작되였다.

예술영화만 보더라도 《혁명가》와 《월미도》, 《중대정치지도원》이 창조되였으며 준엄한 전쟁시기와 전후의 어려운 시기 락원의 10명 당원들의 영웅적인 투쟁을 형상한 《언제나 한마음》과 《그날의 맹세》, 《고결한 삶》이 창조되여 우리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고무하고있다.

문학예술의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예분야에서도 훌륭한 작품들이 수많이 창조되여 우리 인민들의 체육문화정서교양에 힘있게 이바지하고있을뿐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주체교예의 위력을 떨치고있다.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이 이룩한 이 모든 성과는 문헌에서 밝혀진 독창적문예 사상과 리론의 빛나는 구현이며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자랑찬 결실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문학예술이 주체의 한길을 따라 계속 힘있게 발전하고있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실현하는 력사적인 진군운동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는 뚜렷한 확증으로 된다.

작가, 예술인들은 주체적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강령적지침인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문헌에서 밝혀진 주체적문예 사상과 리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당의 의도와 요구를 빛나게 구현하고 우리 문학예술의 대화원을 풍만하게 꽃피워나가야 할것이다.

긴장상태를 완화하는것은 북남대화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선결조건

윤 윤 홍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북남대화에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한 립장을 다시금 천명하시고 대화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여 대화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할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이 원칙적립장에는 북남대화를 통하여 나라의 평화와 자주적평화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갈것을 바라는 조선민족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념원이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전두환괴뢰도당은 북남대화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우리 당의 합리적인 방안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를 반대하는 《핵시험전쟁》인 《팀 스피리트 86》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면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으며 북남대화를 중단시키게 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긴장상태가 격화되고 전쟁위험이 떠도는 가운데서는 대화를 순조롭게 할수 없으며 대화를 하여도 성과를 거둘수 없습니다.》(《신년사》, 1986년, 단행본, 10페지)

오늘 우리 민족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절박한 지상의 과업은 조국을 통일하는 것이다. 미제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분렬된 나라와 인민을 하나로 통일하는것은 민족의 한결같은 숙원이며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기대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은 전체 조선민족의 념원에 맞게 력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실현되여야 한다. 따라서 북남대화도 7.4남북공동성명정신에 따라 진행되여야 한다.

북남대화는 북과 남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대결상태를 해소하며 우리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하여 북과 남이 공동으로 노력할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북남대화가 성과적으로 실현되려면 북과 남이 대화에 대한 옳바른 립장과 성의를 가져야 하며 북과 남사이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완화시켜야 한다.

긴장상태를 완화하는것은 북남대화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선결조건의 하나이다.

긴장상태의 완화는 북남대화의 본질로부터 제기되는 중요한 요구이다.

일반적으로 대화는 공동의 리해관계를 가진 쌍방이 서로 리해를 도모하며 제기된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회담형식의 하나이다. 그 어떤 대화나 협상도 대화쌍방이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유리한 환경에서만 가능하고 순조롭게 진행할수 있으며 문제토의에서 성과를 이룩할수 있는것이다. 따라서 대화와 대화쌍방간의 긴장상태는 량립될수 없는것이다.

더우기 북과 남사이의 대화는 북과 남이 서로 오해와 불신을 풀고 리해와 신뢰를 두터이 하기 위한것이며 첨예한 정치군사적대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의 평화와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부터 진행하는 대화이다. 그것은 또한 나라들사이에 진행하는 대화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갈라진 령토와 인민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한 대화인것이다.

40여년간의 분렬상태에 의하여 조선

된 북과 남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서로 리해와 신뢰를 두터이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북남간의 긴장한 군사적대결상태를 가셔야 하며 대화를 진행하여야 한다. 북남대화는 철두철미 조선의 평화와 자주적평화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대화로 되여야 한다.

대화상대방을 반대하는 군사연습과 전쟁도발책동이 벌어지고있는 환경에서 대화를 한다는것은 대화의 목적과 사명에 어울리지 않는것이다. 전쟁의 위험이 증대되고있는 가운데서는 대화와 협상을 순조롭게 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북남대화의 전과정이 그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1970년대에만 하여도 북남적십자예비회담과 본회담, 북남조절위원회 기타 실무대표들의 접촉을 적지 않게 진행하였다.

지난 1970년대에 북과 남사이에 있었던 모든 대화가 어느 하나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중도에서 결렬된것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정책과 군사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면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격화시키고 대화앞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해왔기때문이였다.

지난해에도 북과 남사이에 대화가 진행되였으나 남측이 대화의 막뒤에서 미제와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각종 전쟁연습소동과 반공대결책동을 벌려놓음으로써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을뿐아니라 모처럼 마련된 북남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도 수개월간이나 중단상태에 빠지게 하였던것이다.

그리하여 북남대화가 오래동안 진행되여왔지만 거기에서 이룩된 성과는 극히 적었다. 그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자들이 북남대화를 귀중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두개 조선》 조작과 저들의 장기집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롱락물로 리용하였으며 북과 남사이에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대화앞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한데 그 원인이 있는것이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반공대결소동을 악랄하게 벌림으로써 북남대화의 앞길에 커다란 난관을 조성하고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올해에도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완화하여 북남대화를 성과적으로 진척시킬 일념에서 미국과 남조선측에 북남대화를 진행하는데 난관을 조성하는 일을 하지 말것을 루차 권고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우리는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하여 북남대화앞에 난관을 조성하는 군사연습을 중지하며 대화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모든 군사연습을 중지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더우기 우리 공화국정부는 대화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로서 1986년 2월 1일부터 공화국북반부의 전령역에서 큰 규모의 군사연습을 하지 않으며 북남대화가 진행되는 기간 모든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결정하고 외교부성명을 통하여 그것을 내외에 널리 공포하는 동시에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이 평화적발기에 호응해나설것을 제기하였다.

우리의 이 제의는 대화의 진전을 가로막고있는 북남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건전한 분위기속에서 북남대화를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려는 진지한 념원의 표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거듭되는 제의를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결소동과 전쟁도발책동을 벌리고있다. 전두환괴뢰역도는 새해벽두부터 우리를 반대하는 대결소동을 벌리였다. 년초에 있은 남조선괴뢰 륙, 해, 공군의 《시무식》들에서는 《초전필승》을 위한 《작전태세》완비요 뭐요 하는 호전적인 폭언들이 울려나왔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지난 2월 10일부터 《핵시험전쟁》인 《팀 스피리트 86》 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해나섰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감행하고있는 이러한 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

아 북남대화는 또다시 중단되고말았다.

남조선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연습소동이 벌어지는 조건에서는 북남대화를 제대로 할수 없다. 대화상대방을 반대하는 군사연습을 벌리면서 마주앉아 대화를 하는것은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될뿐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북남대화에 참가하고있는 우리측 대표단들은 지난 1월 20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벌리기로 한 《팀 스피리트 86》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고 여러 갈래의 북남대화를 합동군사연습이 끝나고 회담분위기가 좋게 마련되는 때에 가서 계속할것이라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올해초에 북남대화를 중단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남조선당국에 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그 어떤 구실로써도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북남대화를 중단시킨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북남대화는 오직 그에 유리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여야만 순조롭게 진척될수 있고 성과를 이룩할수 있는것이다.

모든 사실은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조성하는것은 북남대화의 목적에 배치될뿐아니라 모처럼 마련된 대화를 중단시키게 하는 요인이라는것을 뚜렷이 말해주고있다.

긴장상태를 완화하는것은 대화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여 북남대화를 순조롭게 이끌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전두환괴뢰도당은 《팀 스피리트 86》합동군사연습을 벌리면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가고있을뿐아니라 북남대화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고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이러한 책동은 조선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 통일을 념원하는 온 겨레와 인류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전이다. 그것은 북남대화와 조선의 통일이 아니라 대결과 분렬을 추구하고 온 민족에게 핵전쟁의 참화까지 들씌우려는 천추에 용납못할 범죄행위이다.

북남대화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려면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상대방인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각종 전쟁책동을 중지하는것이다.

오늘 남조선에는 거의 100만명에 달하는 괴뢰군과 400여만명의 《향토예비군》, 430여만명의 《민방위대》가 있으며 4만여명의 미제침략군이 항시적으로 동원태세를 갖추고있다. 남조선지역에서 매해 진행되고있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하는 미국태평양사령부산하 무력이 또한 이 병력을 뒤받침해주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계획에 따라 남조선에는 1,000여개의 각종 핵무기를 비롯하여 현대적인 살륙무기들이 수많이 배비되여있다.

미제는 우리 공화국과 사회주의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하여 이처럼 남조선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배비해놓고 실전을 가상한 대규모의 《핵시험전쟁》소동을 끊임없이 벌리고있다. 이것은 조선반도에서의 새 전쟁의 화근으로, 긴장격화의 근본요인으로 되고있으며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로골적인 위협으로 되고있다.

북남사이에 긴장상태를 완화하려면 정세를 격화시키는 이러한 요인부터 제거해야 한다.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선제공격을 가상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면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오해, 대결을 없애고 긴장상태를 완화시키며 북남대화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할수 있게 될것이다.

북남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우리 공화국과 미국, 남조선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실현하여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 것이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정세를 긴장시키

고있는 장본인은 미국이며 우리 나라의 정세가 전쟁접경에로 치닫게 된것도 전적으로 미국에 그 책임이 있다.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의 교전일방이며 조선정전협정체결의 직접적당사자이다. 미국은 또한 남조선에서 괴뢰군의 통수권을 틀어쥐고 모든 군사행동을 지휘하고있는 실제적실권자이다. 그러므로 미국이 남조선에 배비한 저들의 침략무력을 남조선에서 철수하지 않고서는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이행시킬수 없으며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한 환경을 마련해나갈수 없다.

남조선당국도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있는데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따라서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놓기 위하여서는 우리 공화국과 미국, 남조선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하루빨리 실현하는것이 중요하다.

3자회담이 실현되여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서 물러가며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이 채택되게 되면 우리 나라에 조성된 긴장상태가 완화되고 나라의 평화통일을 촉진시킬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마련될것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진정으로 대화를 바라며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관심이 있다면 정세를 격화시키는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을 벌리지 말아야 하며 우리의 공명정대한 3자회담제안에 지체없이 응해나서야 한다.

대화는 대화쌍방의 성의와 공동의 노력에 의해서만 순조롭게 진행될수 있고 또 성과를 거둘수 있는것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그가 북과 남의 어디에 있건, 해외에 있건 관계없이 북남대화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을 높이 받들고 긴장상태를 완화하여 북남대화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며 대화를 통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면을 마련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더욱 강화되고있는 미제의 남조선시장략탈책동

박 동 근

최근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시장략탈책동이 시장개방이란 명목밑에 더욱 강화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저들의 상품과 기술, 자본 등이 남조선의 여러 시장에 깊이 침투하여 활개칠수 있도록 남조선괴뢰들에게 압력을 가하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은 상전의 시장략탈책동에 굴종하여 미국독점자본이 남조선에 들어와 주인행세를 할수 있게 추가적인 《조치》들과 《특혜》를 련이어 취하고 있다.

미제의 시장략탈책동에 의하여 남조선시장은 미국독점자본의 매력있는 활무대로 되고있으며 남조선경제는 미제의 식민지예속경제로 더욱 철저히 전락되고있다.

시장략탈책동은 세계경제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이 쓰고있는 상투적수법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예속시키고 자기의 시장으로 만들려고 꿈꾸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7권, 332폐지)

미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와 지역에 대한 시장개방을 침략과 략탈의 주되는 수단으로 삼고 저들의 대외경제팽창을 추구하고있다.

미제는 이른바 《다각적자유무역》이란 명목밑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조작하여 새로운 형태의 《문호개방》정책을 표방하면서 다른 나라와 지역에 대한 시장개방책동을 악랄하고 교활하게 감행하여왔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시장개방책동은 그 전형적인 실례로 된다.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한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경제를 예속시켜 그것을 저들의 군사적부속물로 만들기 위한 주요한 일환으로서 시장략탈책동을 체계적으로 감행하여왔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1946년 1월 《군정법령》 제39호 《대외무역규칙》을 공포하여 남조선대외무역에 관한 제반 권한을 미《군정》에 집중시키고 그의 《허가》밑에서만 수출업무에 종사할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같은해 10월에 공포한 《관세령》에서는 모든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률을 상품가격의 10%를 초과할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이리하여 무역지배권은 일제로부터 미제침략자들에게로 옮겨지게 되고 미《군정》이 승인하지 않는 상품수입은 《법》적으로 금지하는 동시에 미《군정》이 《허가》한 상품수입, 다시말하여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상품에 대하여서는 10%이상의 관세률을 적용할수 없게 함으로써 남조선시장의 개방조치를 취하였다.

남조선괴뢰정권을 조작한후 미제는 1948년 12월에 남조선과 《경제원조협정》을, 1952년에는 《국제련합통일사령부간의 경제원조에 관한 협정》(일명 《마이어협정》)을, 1956년에는 《우호통상및 항해조약》을 조작하였다. 미제는 이러한 《협정》과 《조약》들을 통하여 남조선 경제와 무역에 대한 통제권을 강탈하고 《합법화》하였으며 그것을 공간으로 하여 남조선에 대한 예속과 략탈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그후 미제는 이른바 《근대화》의 명목밑에 남조선에 대한 시장개방책동을 상품거래령역으로부터 자본, 기술 령역에

로 확대시켜나갔다.

미제국주의자들은 1961년 2월에 남조선괴뢰들과 《경제 및 기술원조 협정》을 조작하고 여기에서 이미 맺은 《협정》과 《조약》들에 들어있던 경제적예속과 시장략탈을 위한 조항들을 집대성하고 새로운 예속적인 조항들을 보충하였다. 한편 미제는 남조선괴뢰들로 하여금 미국의 경제적침투와 시장략탈책동을 《법》적으로 담보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특히 미제는 1978년부터 시작된 저들의 《무역자유화》정책을 통하여 남조선에 대한 시장개방을 급격히 추진시켰다. 그리하여 남조선의 상품시장은 더 넓게 개방되였고 기술 및 자본시장도 미국에 유리하게 추가적으로 넓어졌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경제적예속과 시장략탈책동은 호전적이며 략탈적인 레간정권이 나온후 더욱 악랄하고 횡포하게 감행되고있다.

레간행정부는 남조선괴뢰들에게 그 무슨 《동반자》,《수평관계》요 하면서 남조선시장의 전면적이고도 완전한 개방을 로골적으로 강요하고있다.

오늘 미제가 남조선에 강박하고있는 시장략탈책동은 날강도적이고 파렴치한것이 특징으로 되고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미제가 남조선의 모든 시장의 완전하고도 즉시적인 개방을 강요하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미제는 우선 남조선의 상품시장을 폭넓게 열어놓을것을 요구하고있다. 놈들은 담배, 포도주, 소고기, 감귤, 오렌지 등 사치성이 강하면서도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50개 품목의 1차상품 및 그 가공식료품들과 지어는 자기 나라에서도 수입규제를 실시하고있는 일부 섬유 및 잡화 상품에 대해서까지 강압적으로 남조선시장에 들이밀기 위한 책동을 강화하고있다. 그리고 미제는 저들의 300여개 품목의 상품이 남조선시장에 자유롭게 들어갈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올려메고있으며 그 관세부터 낮추라고 강박하고있다.

이와 함께 미제는 봉사령역의 개방도 강요하고있다. 놈들은 은행업, 보험업, 운송업 그리고 통신, 정보산업 령역을 포괄하는 봉사무역부문의 문을 열며 영화시장도 완전히 개방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리발, 미용, 양복, 광고, 병원, 건설, 관광 등 여러 부문의 시장개방책동을 감행하고있다.

미제는 이른바 《지적소유권》도 《보호》하라고 강박하고있다. 놈들은 남조선에서 《물적특허》, 《상표권》, 《저작권》 등을 《보호》하라고 하면서 그것을 남조선시장략탈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또하나의 수단으로 써먹으려 하고있다.

이처럼 미제는 저들의 모든 상품과 경제거래대상들이 남조선시장에 마음대로 들어가 략탈을 감행할수 있도록 남조선괴뢰들에게 파렴치한 요구를 강요하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시장략탈책동의 파렴치성은 또한 놈들이 남조선시장을 개방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오늘 미제는 남조선의 시장을 략탈하기 위하여 로골적인 위협과 여러가지 강도적인 방법을 적용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식민지인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지배를 강화하고 시장을 략탈하기 위하여 립법, 행정, 사법 기관들을 다 발동하고있으며 각이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있다.

미국국회에서는 남조선에 보복을 가할수 있는 여러가지 법안들을 조작하고있다. 1985년 10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남조선의 대미수출을 년간 30～35%씩 규제할수 있는 《젠킨스법안》과 《서먼트법안》을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통과시킨것은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이외에도 놈들은 이와 류사한 수많은 규제법안초안들을 국회심의에 제출하고있다.

레간행정부는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압력과 시장을 개방하기 위하여 저들의 장, 차관들을 내세워 로골적인 위협을 하게 하고있으며 각종 행정적조치들을 취하고있다.

1983년 11월 남조선에 기여든 레간은

남조선이 미국의 상품, 기술, 자본, 금융시장을 더욱 폭넓게 개방할것을 강요하였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두차례에 걸쳐 악명높은 《미통상법 301조》를 발동하여 남조선의 보험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의 《지적소유권》을 보호할것을 강박하였다. 레간이 남조선에 적용한 《미통상법 301조》로 말하면 무역거래에서 이른바 《미국의 리익을 보호》하고 다른 나라와 지역들에 보복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제정한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법조항이다. 미제가 이러한 법을 남조선에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적용한것은 놈들이 남조선시장을 개방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것을 잘 말하여준다.

미제는 이밖에도 남조선의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여러가지 책동을 벌리고 있다. 1984년에 남조선에 기여들었던 미재무장관이라는자는 남조선이 《금융시장을 개방하지 않는다면 미국에 진출하고있는 남조선은행들에 압력을 가하겠다》고 위협하였으며 미상무성 국제경제담당 차관보란자도 남조선이 시장문을 충분히 열지 않을 경우 대미수출상품에 대한 《부가관세》나 《할당제》 등을 적용하여 제재를 가하겠다고 줴치였다. 레간행정부는 남조선상품에 대한 수량할당제, 상쇄관세, 《미통상법 201조》에 의한 외환긴급수입규제, 일반특혜관세제도의 배제, 기준가격제 등 각종 규제조치들을 취하여 남조선으로 하여금 미국의 시장개방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수 없도록 하고있다.

사법기관들 역시 남조선상품의 대미수출을 막고 남조선괴뢰들을 골탕먹이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있다.

이와 같이 미제는 남조선시장을 개방하기 위하여 위협과 공갈, 파렴치한 보복조치를 취하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시장개방책동은 상전의 압력에 아부굴종하는 남조선괴뢰들의 무분별한 책동에 의하여 가속도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상전의 지시를 고스란히 받아물고 집행하는것은 식민지주구의 근본생리이다. 지금 남조선괴뢰들은 남조선시장이 개방되여 미국의 상품이 홍수처럼 밀려들면 간신히 지탱하고있는 남조선경제가 망한다는것을 알면서도 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미제의 시장개방요구에 발벗고나서고있다.

전두환괴뢰도당은 《우리는 국내시장을 개방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으로 수출을 증대시킬수 없다》고 얼빠진 소리를 줴치면서 미국의 시장개방요구를 그대로 들어줄데 대하여 졸개들에게 내리먹이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은 미국이 개방을 요구해온 300여개 품목중에서 271개 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그 요구를 들어주었으며 나머지품목에 대하여서도 그 시장을 가급적으로 빨리 개방하기 위하여 온갖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남조선괴뢰들은 지난해 7월현재 새로 102개 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였으며 특히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조차 받아들지 않는 금융시장마저 거의나 개방하였다. 그리고 문제로 되고있는 보험시장을 미국의 요구대로 확대하고 《지적소유권》보호를 위한 대책도 취하려 하고있다.

한편 남조선괴뢰들은 상전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될수록 많은 미국상품을 사들이기 위해 돌아치고있다. 놈들은 미국에 《구매사절단》을 파견한다, 미국으로부터 대규모경제사절단을 끌어들인다 하면서 아양을 떨고있다.

이처럼 오늘 남조선에서 시장개방책동은 상전과 주구가 한짝이 되여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최근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시장략탈책동이 더욱 강화되고있는것은 저들의 경제가 전례없는 위기를 겪고있으며 특히는 대외수지형편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데 그 주요한 요인이 있다.

침체와 답보, 불경기를 겪고있는 미국의 경제는 레간이 집권한후 그의 무모한 전쟁정책과 군비경쟁책동으로 말미암아 더욱 심각한 파국적위기에 직면

하여 허우적거리고있으며 미련방예산적자는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국제경쟁력의 계속되는 감퇴로 하여 미국의 무역적자는 년간 1,500억딸라선에 이르고있다. 그리하여 미국은 바야흐로 채권국으로부터 채무국으로 급전환되고있다. 이와 같은 실정에서 미제는 저들의 경제를 호전시키고 무역적자규모를 줄여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미제는 한편으로는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면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높이 쌓아 자국시장을 닫아매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상 나라와 지역들의 시장을 열어 저들의 상품을 대량적으로 팔아먹으려 하고있다.

남조선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미제의 책동도 바로 그 일환이다. 남조선은 미제의 시장개방에 유리한 지역이다. 남조선은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이며 전두환역도는 상전의 지시를 충실히 집행하는 둘도 없는 친미주구이다. 그리고 남조선경제는 식민지예속경제인것으로 하여 국제경쟁력이 다른 나라와 지역보다 약하다. 이것은 미제가 남조선시장을 다른 나라와 지역의 시장보다 쉽게 개방하고 마음대로 략탈할수 있는 유리한 지역으로 되고있으며 일본이나 대만, 동남아세아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리득을 볼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미제가 남조선시장을 개방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여 날뛰고있는 리유의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늘 남조선경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무분별한 시장략탈책동으로 말미암아 보다 심각한 위기와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고있다.

미제의 새로운 시장개방책동은 무엇보다도 남조선경제에 대한 미국독점자본의 지배와 예속을 더욱 심화시키고있다.

미제의 압력에 따라 남조선시장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개방되면 놈들이 지금까지 남조선에 허용하였던 일부 《보호》시장들마저 미국독점자본의 지배밑에 들어가게 된다. 미국의 시장개방압력에 의하여 남조선은 새롭게 100여개 품목의 일반상품뿐아니라 광범한 봉사부문들을 개방해야 하며 그리고 《지적소유권》을 《보호》해야 한다. 미제가 로골적으로 강요하고있는 남조선의 시장개방대상은 사실상 남조선경제가운데서도 경쟁력이 가장 약한 부문으로서 미제의 《보호》밑에 있던 부문들이다. 남조선의 담배시장이 그의 뚜렷한 실례로 된다. 남조선의 담배시장이 개방되면 매해 140억딸라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담배를 세계각국에 수출하고있는 미국의 거대담배독점이 물밀듯이 들어와 남조선담배시장은 하루아침에 미국담배독점의 판매시장으로 전락될것이라는것은 불을 보듯이 명백한것이다.

남조선의 보험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수백년의 보험력사와 방대한 자본력, 풍부한 경영경험을 가지고있는 미국의 보험독점들이 남조선에 들어오게 되면 남조선의 보험시장을 쉽게 통채로 집어삼킬것이다.

미국의 강압적인 《지적소유권보호》책동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의 출판, 문화, 과학 분야는 더욱더 놈들의 통제속에 들어갈것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물적특허보호》압력으로 인하여 남조선괴뢰들은 상전의 승인과 그에 대한 비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간장, 된장을 만드는 새로운 제조법 하나 마음대로 받아들일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이러한 현상은 남조선이 미제의 지배와 예속 밑에 있는 식민지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미제의 새로운 시장개방압력은 또한 남조선경제, 특히 민족경제의 파국을 한층 더 심화시키고있다.

남조선상품에 대한 수입규제와 미국독점자본의 남조선침투를 추구하고있는 미제의 시장개방압력은 남조선시장에 대한 놈들의 략탈을 촉진시키고 상품 생산과 수출에 명줄을 걸고있는 남조선경제에 돌이킬수 없는 타격을 가하고있다.

미제의 시장개방압력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임가공품을 생산하고있는 남조선의 섬유, 신발 산업을 비롯한 수출산

업은 판로가 막혀 전례없는 피해를 받고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체들까지 무리로 파산되고 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수많은 완전실업자와 반실업자들을 추가적으로 산생시키고있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해외건설부문에서 3만여명, 섬유, 의류등 경공업부문에서 10여만명, 조선업부문에서 1만 3천여명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로 되였다.

미제의 시장략탈책동은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악화시키고있다. 남조선농산물시장에 미국의 잉여농산물이 대량투입됨으로써 농민들의 현금수입을 떨구고 적자경영에 허덕이던 농가수지를 한층 악화시켜 남조선농민들은 파산의 운명을 면할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남조선출판물까지도 담배시장의 개방 하나만으로도 12만명에 달하는 담배경작자들의 운명이 당장 경각에 이르게 될것이라고 한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민족자본가들과 도시중산층들도 미국의 시장개방압력에 의하여 심대한 타격을 받고있다.

놈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조선에서 수입자유화률은 총체적으로 80.4%인데 거기에서 매판자본이 입가공하고있는 상품의 수입자유화률은 37.5%이지만 민족자본가들이 생산하는 상품의 수입자유화률은 거의 100%이다. 관세률에 있어서도 민족자본가들이 생산하는 수출상품에 한해서는 41.5%를 적용하지만 매판자본이 임가공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37.5%에 지나지 않고있다. 이것은 민족자본가들이 미제의 시장개방책동에 의하여 매판재벌들보다 커다란 타격을 받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자본과 기술이 매판자본가들보다 약한 민족자본가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과중한 압력은 그들의 경영과 경제처지를 더욱 악화시키고있다. 결국 미제의 시장개방압력은 남조선경제에 대한 미국독점자본의 지배를 확대강화할뿐아니라 민족경제의 파산을 촉진시키고있다.

미국의 《지적소유권보호》로 인하여 남조선의 중소출판업자들과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자료들을 리용하던 지식인, 청년학생들은 경영상 타격과 추가적인 경제적부담을 강요당하고있으며 문화예술활동과 과학기술연구사업에서 커다란 제한을 받고있다.

모든 사실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시장략탈책동이 남조선경제의 예속과 몰락을 가져오고 남조선의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있으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경제적처지를 악화시키는 엄중한 후과를 미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시장개방책동은 남조선인민들의 리익을 침해하고 탐욕스러운 미국의 독점자본가들이 남조선에서 무제한한 착취와 략탈을 강요하는 용납못할 범죄행위이다. 그렇기때문에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강도적인 시장개방책동과 그에 굴종하여 매국배족행위를 감행하고있는 전두환괴뢰도당을 반대하여 과감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미국의 수입개방요구를 반대한다》, 《미국은 시장개방 철회하라》, 《종속경제를 타도하자》, 《우리는 미국무역제국주의를 반대한다》, 《외채〈정권〉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높이 웨치며 힘찬 투쟁을 벌리고 있다. 언론인, 학자, 민주인사들 속에서도 미제의 시장개방압력을 반대항의하는 애국애족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남조선청년학생들과 각계층 인민들속에서 벌어지고있는 미제의 시장개방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은 외세의 침략과 예속을 단호히 반대하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이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남조선시장을 개방하여 남조선을 미제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려고 책동하고있지만 그것은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광범한 인민들의 반항에 부딪쳐 파탄되고야말것이다.

핵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인류의 한결같은 지향

리 기 순

오늘 국제정세는 날로 로골화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으로 말미암아 극도로 긴장되여가고있다. 특히 미제는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목적밑에 핵전쟁준비를 미친듯이 다그치고있다.

미제의 책동으로 하여 지구상에는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의 검은구름이 더욱 무겁게 드리우고있다.

미제의 무모한 열핵전쟁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평화를 보장하는것은 국제정치분야앞에 나서고있는 초미의 문제로, 인류공동의 과업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핵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현시대가 제기하는 엄숙한 과제이며 인류의 한결같은 지향입니다.》 (《신년사》, 1986년, 단행본, 12페지)

력사의 반동들이 감행하고있는 침략과 전쟁은 예나 지금이나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근본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전쟁이란 특수한 폭력수단에 의한 어떤 계급의 정책의 연장이다. 전쟁은 그 목적과 계급적성격에 따라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의 전쟁으로 나뉘여지며 부정의의 전쟁은 극소수 착취계급이 인민대중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반동적인 사회제도에 그 근원을 두고있다. 반동통치계급들은 인민들을 반대하는 수많은 부정의의 전쟁을 감행하여왔다. 인류력사에서 최후의 반동제도인 제국주의는 세상에 태여난 첫날부터 오늘까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교란자로, 전쟁의 화근으로 되고있다. 특히 현대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는 인류를 위협하는 범죄적인 핵전쟁도발책동의 원흉으로 되고있다. 미제의 침략적인 전쟁책동으로 하여 지구상에는 핵전쟁의 위험이 날로 짙어가고있으며 평화와 안전은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다.

오늘 핵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우리 시대의 엄숙한 과제로, 인류의 한결같은 지향으로 되고있다.

전쟁이 없고 공고한 평화가 보장되는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려는것은 인류의 세기적인 숙원이다.

공고한 평화가 유지되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억압이 없는 사회와 세계에서만 인류의 숙원이 실현될수 있다.

그러나 계급적 착취와 억압이 있고 권력야망과 탐욕적야욕에 피눈이 된 반동계급이 존재하는곳에서는 례외없이 부정의의 전쟁이 늘 벌어져 평화가 유린당하고 인간의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무참히 짓밟힌다.

력사의 교훈이 그것을 잘 말하여주고있다.

수천년의 인류력사는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전쟁과 무장충돌이 1만 5,000여회나 있었고 그 전쟁으로 하여 수십억의 사람들이 희생되고 수많은 재부가 파괴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반동통치배들이 일으킨 이러한 전쟁들은 그 규모와 전쟁수단들이 서로 달랐지만 모두가 인류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을 가져다주었다.

더우기 력사상 가장 략탈적이고 침략적인 최후의 반동계급인 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한 두차례의 세계대전은 력사에 기록된 그 어느 시기의 전쟁보다도 규모가 크고 가혹하였다. 이 두차례의 세계대전기간에만 하여도 90여개의 나라들이 전쟁에 말려들어가 무려 수억의 인구가 생명을 잃었거나 불구가 되였으며 생활터전을 파괴당하였다.

그러나 미제는 이 두차례의 세계대전에서의 후과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그

이후에만도 200여회이상의 국부전쟁과 무력충돌을 일으켰거나 그에 관여하였다. 지어 놈들은 지금 인류를 반대하는 핵전쟁까지 도발하려고 미쳐날뛰고 있다.

미제가 준비하고있는 핵전쟁은 이전의 전쟁들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전쟁이다. 핵전쟁은 그 포괄범위와 파괴력에 있어서 이전의 전쟁들과는 대비조차 되지 않으며 지구상에서 인류의 생존과 문명을 완전히 파괴할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성격을 띠고있는 전쟁인것이다. 그것은 제2차세계대전말기에 미제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투하한 단 두개의 원자폭탄에 의해서만도 무려 20여만의 사람들이 살상당한 참상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력사의 반동들이 저지른 수많은 전쟁의 참화를 겪을대로 겪어온 인류에게 있어서 평화는 세기적숙원으로 되여왔으며 오늘날에 와서는 그것이 더욱더 긴절한 지향으로 되고있다.

핵전쟁의 위험이 가셔지고 공고한 평화가 유지되여야 자유롭고 번영하는 새 사회, 새세계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다.

나라의 안정과 평화적인 국제적환경은 자주, 독립의 새 사회를 건설하고 나아가서 자주적인 세계를 건설해나가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세계적판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려면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지배와 예속, 간섭책동을 저지파탄시켜야 하며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을 침해할수 있는 근원들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매개 나라들은 자기의 모든 자원과 물질문화적재부들을 전적으로 새 사회 건설과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돌릴수 있다. 또한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은 더욱 공고화되고 그들사이에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참다운 협조관계가 맺어지게 될것이며 새 사회, 새세계 건설을 보다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된다.

세계적범위에서 평화가 보장되고 전쟁의 위협이 없어지게 될 때만이 인류앞에는 자유롭고 번영하는 새 사회, 새세계를 건설해나갈수 있는 넓은 길이 열려질수 있는것이다.

핵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이 인류의 한결같은 지향으로 되는것은 현시기 미제가 모험적인 핵전쟁도발책동을 계단식으로 확대하면서 지구상에서 인류의 생존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침략과 전쟁은 제국주의의 생리이며 그것을 떠나서 제국주의는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수 없다. 력사적경험은 제국주의가 정치경제적위기가 심화될수록 그 침략성이 더욱 강화되며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침략과 전쟁에서 찾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멸망에로 줄달음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선행파쑈분자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으면서 파멸로부터의 출로를 열핵전쟁을 도발하는데서 찾아보려고 미쳐날뛰고있다.

미제는 제2차세계대전후부터 오늘까지 변함없이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온갖 발악적책동을 다하여왔다. 특히 호전광 레간은 이른바 《동시다발보복전략》이라는 극히 호전적인 전략을 내놓고 그것을 실현해보려고 피눈이 되고있다. 지어는 《선제핵전쟁전략》, 《장기핵전쟁전략》, 《한정핵전쟁전략》과 같은 모험적인 핵전쟁전략에 기초하여 구라파와 중근동, 극동 지역을 《3대전역지대》로 설정하고 이 지역들로부터 사회주의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을 반대하는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을 일으키려고 꾀하고있다.

미제는 저들의 이러한 핵전쟁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핵무기증강책동에 그 어느때보다도 열을 올리고있다.

미제는 이미 세계도처에 3만여개의 핵무기를 생산하여 저장, 배치하여놓고도 성차지 않아 이른바 《전략핵무기개발계획》에 따라 각종 신형전략핵무기들을 개발, 생산하여 가까운 년간에 무려

4만 7,000여개로 늘이려 하고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미제가 모험적인 《별세계전쟁》계획을 정식 국가정책으로 선포하고 핵전쟁을 우주에까지 확대하려 하고있으며 핵전쟁을 지휘하기 위한 《우주통합사령부》까지 조작해놓고있는것이다.

한편 미제는 아세아와 구라파를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핵전쟁기지들을 계속 신설확장하고있으며 이 지역들에 더 많은 핵무기들을 실전배비하고있다.

미제의 이러한 책동은 세계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날로 증대시키고있으며 국제긴장상태를 극도로 첨예화시키는 기본요인으로 되고있다.

오늘 핵전쟁의 위험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더욱 짙어가고있는곳은 조선반도이다.

세계에서 핵무기가 가장 조밀하게 배치되여있는곳은 남조선이다. 여기에는 《20세기의 악마의 무기》로 불리우는 중성자탄과 극소형핵폭탄인 《핵배낭》을 비롯한 1,000여개의 각종 핵무기들이 배비되여있다. 이것은 남조선이 핵무기배비밀도에 있어서 《나토》보다 4배나 더 높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남조선에 《비—52》전략폭격기, 순항미싸일, 《퍼싱—2》미싸일들을 더 끌어들이려 하고있으며 남조선을 저들의 모험적인 《별세계전쟁》의 기지로까지 리용해보려고 획책하고있다.

남조선전역을 핵전쟁전초기지로 전변시킨 미제는 만약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핵무기의 사용도 주저할것이 없다》고 줴치면서 공격적인 성격을 띤 《핵시험전쟁》연습을 년례행사처럼 벌리고있다.

올해에도 미제는 년초부터 20여만의 대병력을 동원하여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공격을 가상한 《팀 스피리트 86》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있다. 그리하여 조선반도에서는 임의의 시각에 핵전쟁이 터질수 있는 매우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만일 조선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 불길은 조선경내를 벗어나 세계적인 열핵전쟁으로 번져나갈것이며 결국 인류는 돌이킬수 없는 핵참화를 입게 될것이라는것은 명백하다.

미제의 이러한 무분별한 핵전쟁도발책동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인류의 생존자체를 위협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세계인민들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있다.

열핵전쟁의 위험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려는 세계인민들의 지향과 요구가 날로 높아가고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제네바에서 열린 쏘미수뇌자회담에서는 《핵전쟁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며 여기에서는 승리자가 있을수 없다》는것을 인정하고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데 대한 합의를 이룩하였다.

쏘미수뇌자회담의 합의정신에 기초하여 쏘련은 이미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안을 내놓았으며 올해 1월에는 2000년까지 전세계에서 핵무기를 완전히 페기할데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이것은 핵전쟁의 위험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려는 인류의 념원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평화애호적인 제안이다.

그러나 미국지배층은 이른바 《전략방위구상》이라고 하는 저들의 《별세계전쟁》계획에 대하여 《흥정도, 양보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쏘미수뇌자회담후에도 핵폭발시험과 신형핵미싸일발사시험, 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이와 함께 저들의 무모한 《별세계전쟁》계획 수행에 동맹국들과 추종국가들도 합세하도록 압력을 가하고있다.

미제의 이러한 책동은 핵군비경쟁을 세계적인 범위로 확대하고 국제정세를 핵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가고있는 범죄적인 행위인것이다.

그러므로 미제의 핵전쟁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열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인류의

생존과 문명을 구원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제반 사실은 핵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이 우리 시대앞에 나서고있는 엄숙한 과제이며 인류의 한결같은 지향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오늘 진보적인류는 미제의 무모한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 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다.

아세아와 구라파, 중근동과 중미주 등 이르는곳마다에서 인민들은 《인류를 핵참화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하자!》, 《우주에 무기를 전개하지 말라!》, 《힘을 합쳐 핵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자!》고 웨치면서 대중적인 집회와 시위투쟁을 강력히 벌리고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이러한 투쟁은 미제의 핵전쟁도발책동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있으며 놈들을 더욱더 막다른 궁지에 몰아넣고있다.

핵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인류의 성스러운 위업이다. 핵전쟁의 위험은 커가고있지만 불가피한것은 아니다.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력량은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의 핵전쟁책동을 반대하여 대중적인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린다면 핵전쟁의 위험을 능히 막을수 있다.

핵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제국주의자들의 핵군비경쟁을 저지시켜야 한다.

핵군비의 확장은 열핵전쟁의 위험을 증대시키는 기본요인이다.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력량은 굳게 단결하여 미제의 핵군비확장과 핵무기증강책동의 본질을 날날이 폭로하며 놈들이 핵군비경쟁을 중지하지 않을수 없도록 강한 압력을 가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미제의 핵전쟁도발책동과 우주를 군사화하려는 무모한 《별세계전쟁》계획을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핵전쟁의 위험을 가시자면 핵무기를 완전히 철폐하여야 한다.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인류는 항시적인 핵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수 없다. 그러므로 핵무기의 생산을 동결시키고 지금 있는 핵무기를 대폭 축감하며 점차 완전히 없애야 한다.

제40차 유엔총회에서는 올해를 국제평화의 해로 선언하였다. 올해를 명실공히 평화의 해로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세계 각국 정부들과 정당들, 사회단체들 그리고 국제기구들이 핵전쟁을 방지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핵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세계도처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고 그것을 넓혀나가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비핵지대, 평화지대는 말그대로 핵무기가 없고 전쟁위험이 없는 지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계 이르는곳마다에 비핵지대, 평화지대가 창설되고 그것이 더욱더 확대되여나가게 된다면 제국주의자들은 핵전쟁도발책동을 마음대로 감행할수 없게 될것이며 나아가서 핵전쟁의 위험은 없어지게 될것이다.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오늘 세계적범위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우리 당은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고 그것을 넓혀나가기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으며 조선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세아지역을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고있다.

조선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세아지역이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되면 이 지역은 핵무기와 외국군대, 침략적군사기지들이 없는 지역으로 될것이다. 이렇게 되면 핵전쟁의 위험이 가장 짙은 조선반도에도 평화가 깃들게 되고 그것은 세계평화를 수호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핵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다른 나라에 있는 침략적 군사기지들과 무력을 철수시

키며 모든 군사뽈력을 해체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의 해외군사기지들과 무력은 그것이 있는 나라들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그 주변 나라들과 지역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며 군사적충돌을 일으킬수 있는 화근으로 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군사뽈력 역시 사회주의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을 침략하고 지배하기 위하여 조작된 정치군사적기구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요인이다.

세계의 평화애호력량은 다른 나라에 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군사기지들과 군대를 철수시키며 군사뽈력을 해체시키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

력사적으로 다른 나라와 민족을 희생시켜 어부지리를 얻는것은 미제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미제는 이른바 동맹국들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이 나라들에 수많은 신형핵무기들을 배비하여놓음으로써 핵무기의 대치상태를 더욱 격증시켰으며 결국 동맹국들이 핵보복타격을 면할수 없게 하고있다. 이것은 바로 미제가 유사시에 동맹국들을 《핵인질》로 하여 저들만이 살아남으려는 교활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그러므로 미제의 동맹국들은 미제의 핵무기들을 자기의 령토에 끌어들이지 말아야 하며 이 나라 인민들은 이미 배치된 핵무기들을 철거시키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벌려나가야 한다.

《핵우위》에 기초하여 세계제패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미제의 책동은 허황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력사적사실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미제는 핵무기를 먼저 개발하고 핵독점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 진보적나라들을 위협공갈하려 하였지만 그것은 파탄을 면치 못하였다. 그들은 또한 사회주의나라들을 질식시키기 위하여 그 주변 지역에 수많은 군사기지들과 군사뽈력을 조작하고 여기에 침략군대와 핵공격수단들을 계속 배치하였지만 그것도 역시 맥을 추지 못하였다.

미제가 새로운 전략핵무기들과 우주무기의 개발을 계속 집요하게 추진시킨다 하여도 그로부터 얻을것이란 저들의 정치경제적위기와 국제적고립만을 더욱 심화시키는것외에 아무것도 없다.

미제는 불을 즐기는자는 불에 타죽기 마련이라는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사회주의나라들, 뽈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력량과 굳게 단결하여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의 위험을 막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다.

침략과 전쟁이 없는 세계, 자유롭고 번영하는 새 사회, 새세계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인류의 한결같은 념원과 지향은 반드시 실현되고야말것이다.

위기에 처한 현대부르죠아철학

김 창 렬

오늘 현대부르죠아철학은 세상에 출현한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현대부르죠아철학은 그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본질이 여지없이 드러나 사람들로부터 배격을 당하고있으며 극심한 사상적혼란에 빠져있다.

현대부르죠아철학의 위기는 곧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세계관의 위기이다. 현대부르죠아철학에는 제국주의자들의 세계관 다시말하여 그들의 반동적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 생활태도, 세계에 대한 비과학적인 관점과 립장 등이 집약화되여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에 맞서보려는 반혁명적지향이 반영되여있다.

현대부르죠아철학의 위기는 바로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반동적인 세계관과 지향이 지금 자본주의세계에서조차 더는 통하지 않게 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현대부르죠아철학은 이렇듯 심각한 위기로 하여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에 대한 영향력을 급속히 상실하고있으며 로동계급의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에 도전해나설 사상리론적 체모와 《능력》을 완전히 잃고있다.

하기에 제국주의어용철학자들까지도 최근에 이르러 《사상의 종말》, 《철학의 죽음》에 대하여 자주 론의하고있을뿐아니라 지어 19세기이래의 저들의 철학사상들이 지금 《진리성과 설득력을 잃》고 끝장을 보게 되였다고 개탄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현대부르죠아철학의 위기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현대제국주의가 겪고있는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가 사상령역에 특히 부르죠아철학분야에 반영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제국주의세계는 제2차세계대전이래 가장 심각한 경제파동을 겪고있으며 전면적인 위기에 부닥쳐 더욱더 허덕이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9권, 118페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현대제국주의는 지금 전례없이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에 부닥쳐 허우적거리고있다.

반제자주를 지향하는 국내외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이 강화되고 세계혁명력량이 날로 확대강화됨에 따라 현대제국주의자들은 세계정치무대에서뿐아니라 국내에서도 심각한 정치적위기를 겪고있다. 거듭되는 경제공황과 경제파동으로 하여 제국주의경제는 극심한 위기에 빠져있다.

현대제국주의자들이 겪고있는 이처럼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는 그들의 사상문화분야에서의 혼란과 위기를 발생시키게 하는 사회경제적바탕으로 되고있다.

현대부르죠아철학의 위기는 자본주의세계가 겪고있는 전반적위기의 필연적산물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사상정신적, 도덕적 타락과 부패의 후과이고 그 응당한 귀결인것이다.

현대부르죠아철학의 위기는 무엇보다도 그 기본철학조류들이 쇠퇴하고 잡다하게 분화되여 사상적혼란상태에 처해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원래 사회적진보와 인민들의 지향에 역행하는 반동철학의 수명은 극히 짧은것이다. 더우기 멸망에 직면한 력사의 반동들이 조작해낸 어용철학의 수명은 매우 짧으며 그것은 반동통치계급의 파멸과 함께 파산되는 법이다.

현대부르죠아어용철학이 밟아온 력사는 파산으로 일관된 로정이였으며 현대부르죠아철학의 위기는 그 로정의 연장이고 필연적귀결인것이다. 철학의 세계관적의의를 거부하고 사말적인 《실증자료》만을 절대화한 꽁트와 스펜서의 실증

주의는 현대부르조아철학의 첫 류파로 세상에 나타난지 얼마 안되는 19세기말에 쇠퇴해버렸다. 칸트의 이원론을 개악하여 주관관념론적인 철학적견해를 설교한 신칸트주의와 주관적《경험》으로써 세계를 설명한 마하주의도 제1차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에 자취를 감추고말았다. 그리고 쇼펜하우에르, 니체 등에 의하여 조작되였던 《생의 철학》도 역시 파시즘의 쇠퇴와 함께 《인기》를 잃고 류행의 무대에서 뒤로 물러나고말았던것이다.

자본주의세계에서 공인되고 《권위》있는 어용철학이 없어서 모대기던 제국주의자들은 마침내 실용주의, 실존주의, 신실증주의(론리적실증주의)와 같은 새로운 탈을 쓴 어용철학조류들을 조작해내였다. 그리하여 이 철학조류들은 1930년대를 전후한 시기부터 1960년대까지 자본주의세계에서 가장 널리 류포된 현대부르조아철학을 대표하는 기본사조로 되여있었다.

그러나 이 철학조류들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류행사조의 무대에서 물러나고말았다.

《유익한것이 진리》라는 황당한 궤변으로 미제의 날강도적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철학적궤변으로 미화분식하던 실용주의철학은 미제가 내리막길에 들어선 1950년대에 그 영향력을 급속히 상실하였다. 오늘에 와서는 그것이 다만 사회주의와 로동계급의 과학적세계관을 헐뜯는 반공리론의 하나로만 되고있다. 미제의 대표적인 어용철학인 실용주의가 겪고있는 이러한 파산로정은 바로 미제의 국제적지위의 약화와 세계제패야망의 좌절, 세계인민들로부터의 고립과 배격 등 내리막길을 줄달음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가련한 처지와 관련되여있다.

《과학주의》라는 허울좋은 간판을 들고서도 과학적추상과 일반화를 반대하고 극단한 경험주의를 고취하던 신실증주의는 과학과 인간의 사회적실천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자기의 반동적정체가 드러나 더는 제국주의어용철학의 역할을 담당수행할수 없게 되였다. 인간문제를 전문적으로 외곡하는 전형적인 부르조아인간철학인 실존주의도 자주성을 지향하는 우리 시대의 요구와 배치되는 비애와 염세, 불안과 죽음, 극단한 개인주의를 설교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자기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고있다.

현대부르조아철학의 기본조류들은 이처럼 급속히 령락되고있고 파산의 운명에 처해있다. 그리하여 오늘 자본주의세계에는 이렇다할 대표적인 철학이 없는 《사상적진공상태》가 조성되고있다. 이것은 파멸에 직면한 현대제국주의자들이 저들의 처지를 비호하고 대변하는 사상리론적인 기본《기둥》으로 삼을만한 어용철학마저 가지고있지 못하는 가련한 처지에 놓여있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현대제국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나 자본주의세계에 조성된 《사상적진공상태》를 메꾸어보려고 반동적인 어용철학자들을 내세워 조잡한 절충주의와 추잡한 표절로 일관된 잡다한 사이비철학조류들을 조작해내게 하고있다.

그러나 그 철학사조들은 내용상 새로운것이란 전혀 없으며 그것들은 전적으로 복고주의와 절충주의의 산물에 불과한것이다.

부르조아철학계에서 대두되고있는 복고주의경향은 프로이드주의를 새롭게 각색한 신프로이드주의와 중세기의 스콜라철학을 되살리고있는 신토마스주의, 인격주의 등 새로운 탈을 쓴 각종 복고주의적철학들이 조작되여 류포되고있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부르조아철학계에서는 절충주의경향도 극심하게 나타나고있다. 그것은 《철학적인간학》, 《해석학적철학》,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철학》, 《비판적합리주의》와 같은 색다른 절충주의철학류파들이 새로 대두하고있는 사실이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철학적인간학》이란 지난날의 《생의 철학》과 실존주의, 《현상학》을 절충하여 순수 인생문제만 론의하면서 주관주

의적, 상대주의적 사고방식을 설교하고 있는 주관관념론에 불과한것이다. 《해석학적철학》도 기독교신교의 《성서해석학》과 딜타이의 《력사주의》, 하이데게르의 《해석학적현상학》을 절충한데 기초하여 인식과정에서의 사람들의 주관적요소와 계기를 일면적으로 절대화하고있는 새형의 주관관념론철학조류이다. 지어 《비판철학》은 신칸트주의와 프로이드주의를 절충하고있을뿐아니라 맑스주의의 개별적 명제와 범주까지 표절하여 도용하고있다.

현대부르죠아철학계에서 발로되고있는 이러한 복고주의적, 절충주의적 경향은 부르죠아어용철학자들이 얼마나 위기에 빠져 모대기고있고 갈팡질팡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현대부르죠아철학의 위기현상은 어용철학자들이 잡다한 철학들을 망탕 조작해내고있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신실증주의자들만 하여도 현실적인 모든것이 마치도 실험과 측정과 같은 인위적인 《조작》의 산물인듯이 설교하는 조작주의와 사물현상에 대한 형식적인 《구조분석》을 절대화하는 구조주의 그리고 진리의 객관적기준을 부정하는 《철학적무정부주의》와 같은 허황한 철학들을 조작해내고있다.

반동적인 현대부르죠아어용철학자들은 부르죠아철학의 이러한 잡다성과 《다양성》을 마치도 《진리를 탐구》하는 저들의 노력의 《결실》인듯이 자화자찬하고있을뿐아니라 지어 부르죠아사상의 《풍부성》과 그 표현의 《자유》의 발현인듯이 떠벌이고있는것이다.

그러나 현대부르죠아철학조류의 잡다성은 제국주의자들의 세계관의 혼란상태와 빈곤성, 위기를 반영하고있는것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그것은 또한 공허해진 부르죠아사상계를 어떻게 하나 메꾸어보려고 자의적인 개념과 궤변으로 일관된 사이비철학을 조작해내고있는 어용철학자들의 최후발악의 산물인것이다.

모든 사실은 현대부르죠아철학이 얼마나 과학적량심과 창조적능력을 잃고 부패타락하였으며 사상적혼란상태에 빠져 갈팡질팡하면서 극심한 위기에 처해있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말해주고있다.

현대부르죠아철학의 위기는 또한 과학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동적역할만을 수행하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과학성과 진보성은 사람들에게 세계관을 주는 과학인 철학의 생명이며 그 생활력의 근본원천이다. 과학적이고 진보적인 철학은 사회와 문화 발전을 추동하면서 자기의 생활력을 나타내지만 비과학적이고 반동적인 철학은 력사의 흐름을 저애하다가 조만간에 파산되고만다.

현대부르죠아철학은 철두철미 비과학성과 반동성으로 일관되여있으며 반동통치계급에 복무하는 어용철학의 전형으로 되고있다.

인간증오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대한 반감과 적대시는 현대부르죠아철학의 주요내용을 이루고있으며 그것은 곧 현대부르죠아철학이 겪고있는 위기의 표현이기도 하다.

반동적인 《철학적인간학》자들이 인간을 《병든 동물》, 《사나운 뱀의 무리》로 모독하였던 니체의 인간증오사상을 이어받아가지고 인간을 《병든 야수》니 동물보다 덜 발전된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줴치고있는것은 그 전형적인 실례로 된다.

현대부르죠아어용철학자들이 설교하고있는 이러한 인간증오사상은 바로 파멸에 직면하여 리성을 잃은 제국주의자들의 비정상적인 정신심리상태를 반영한것이며 정신적불구자로 전락된 부르죠아어용철학자들의 몰골을 드러내놓고있는것이다.

현대부르죠아철학의 반동성은 인간증오사상을 줴치고있는데서뿐아니라 비렬한 반공론과 파렴치한 제국주의변호론을 설교하고있는데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반공론은 저들이 감행하고있는 온갖 범죄행위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제국주

의자들의 정치사상적수단으로 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수단의 하나인 현대부르죠아철학조류들은 례외없이 모두 자기의 진리성과 생활력을 과시하고있는 사회주의와 로동계급의 혁명적철학에 대하여 비방중상해나서고있다. 철학의 외피를 쓰고 사실을 외곡하며 터무니없는 《근거》를 꾸며내여 철학적궤변으로 《론증》하려고 꾀하는것이 부르죠아어용철학자들의 상투적인 반공수법인것이다. 철학사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로동계급의 혁명적인 철학이 마치도 인간과 인간의 내면세계를 도외시하고있다고 외곡하고있으며 인도주의를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사회주의사회가 인간의 개성과 자유를 《억압》하는것처럼 중상하는것이 그들의 공통적인 반공궤변이다.

현대부르죠아어용철학자들이 떠벌이고있는 반공적궤변들에는 학구적인 진실성과 량심이란 전혀 없으며 아무런 리론적 원칙과 체계도 없다. 거기에는 다만 사회주의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악의에 찬 적대감과 사회주의를 말살해보려는 허황한 야망이 있을뿐이다.

현대부르죠아철학자들이 줴치고있는 반공론은 제국주의의 변호론의 변종에 불과한것이다.

현대부르죠아철학은 제국주의자들에 전적으로 복무하는 시녀의 지위와 역할을 담당수행하고있으며 철학과 과학의 탈을 쓴 각종 궤변으로써 제국주의를 미화분식하고있다. 그러한 제국주의의 변호론가운데서 가장 반동적이고 범죄적인것은 억압과 략탈, 침략과 전쟁을 로골적으로 합리화하는 철학적궤변이다. 니체의 주의설철학을 비롯하여 《생의 철학》, 신헤겔주의와 같은 현대부르죠아철학들이 인간에 의한 인간의 억압과 략탈, 침략과 전쟁을 인간본성의 필연적산물로 또는 사회에 고유한 현상으로 보면서 그것을 정당화하고있는것은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이러한 철학적궤변은 현대부르죠아철학이야말로 철두철미 제국주의 특히 미제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합리화하는데 복무하고있는 어용철학에 불과하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현대부르죠아철학은 반동적일뿐아니라 비과학적인 가짜철학이다.

멸망에 직면하여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최후발악하는 력사의 반동들은 리성을 잃을뿐아니라 진리도 두려워한다. 이러한 반동계급의 처지와 리익을 반영한 어용철학들은 례외없이 모두 비합리주의적궤변을 설교한다. 썩고 병든 제국주의를 합리화하는 현대부르죠아철학은 인간의 리성과 과학, 진리를 적대시하는 비합리주의적론조로 일관되여있다.

리성적사고와 과학, 진리는 온갖 범죄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사고방식, 생존방식과 량립될수 없다. 따라서 현대제국주의자들은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지배하는 불합리한 자본주의제도와 저들의 비인간적인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자연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부인하고 리성적인 사고와 행동을 멸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현대부르죠아철학은 제국주의반동들의 이러한 요구에 전적으로 순응하면서 날이 갈수록 비합리주의적경향을 강화하고있다.

반동적인 부르죠아어용철학자들은 법칙과 과학이라는 개념자체를 쓰기 꺼려하고있을뿐아니라 세계를 신비적인 《의지》의 창조물로 보거나 주관적의식의 산물로 묘사하기에 급급하고있다. 그들은 또한 비합리주의적인 의지와 감정, 맹목적인 본능과 행동 같은것을 절대화하고있으며 비정상적인것, 기형적인것, 지어 신비로운 《령》적인것으로써 자연과 사회, 인간을 설명해보려고 미쳐 날뛰고있다.

현대부르죠아철학자들가운데는 중세기적몽매주의를 로골적으로 설교하는 종교철학자까지도 있다.

중세기의 스콜라철학인 토마스주의를

되살리고있는 신토마스주의자들은 인간의 리성과 과학을 종교적신앙에 복종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철학의 임무는 종교교리를 《론증》하는데 있다고 서슴없이 줴치고있다. 지어 그들은 최신과학의 성과를 악용하여 신의 존재와 그에 의한 세계창조설을 《론증》해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있다. 《유신론적실존주의》자들은 인간에 대한 진정한 파악은 곧 《신에 대한 파악》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현실과의 관계를 끊고 하느님과만 접촉하는것이 바로 《실존》으로서의 인간의 참된 모습이라고 떠벌이고있다.

모든 사실은 현대부르죠아철학이 얼마나 부패타락하고있으며 그의 비합리주의적경향이 얼마나 극심한가 하는것을 뚜렷이 말해주고있다.

현대부르죠아철학은 사상리론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으며 전면적인 파산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사상리론적, 세계관적 지반인 현대부르죠아철학이 겪고있는 위기를 수습해보려고 미쳐날뛰고있다. 특히 미제는 현대부르죠아철학조류들을 부지하기 위한 어용철학자들의 《연구》사업을 백방으로 지원해주고있다. 그들은 또한 철학적위기로 하여 궁지에 빠진 어용철학자들이 조작해내는 잡다한 철학적궤변들과 반동적인 사상독소를 내외에 널리 퍼뜨려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다. 그리하여 미국안에서는 물론 미제가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는곳마다에 현대부르죠아철학이 널리 류포되[illegible]에서도 그것이 [illegible]한을 [illegible]고[illegible].

현대부르죠아철학은 비록 위기에 처해있으나 그의 철학적궤변은 인민대중의 자주의식과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썩어빠진 부르죠아생활양식을 부식시키는 사상적독소로 되고있다.

자본주의세계의 전반적위기가 격화됨에 따라 현대부르죠아철학의 위기는 날을 따라 심화되고있으며 그에 의거한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사상공세는 더욱 악랄해지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에 직면한자들의 발악적책동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반동계급과 함께 그의 어용철학도 파멸을 면치 못한다는것은 력사가 실증해주고있는 진리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파산에 직면한 부르죠아반동철학의 운명을 돌려세울수는 없는것이다.

우리는 주체사상이 밝혀준 혁명적세계관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며 현대부르죠아철학이 퍼뜨리고있는 반동적사상독소의 침습을 반대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가야 할것이다.

근 로 자 1986년 제3호(루계 527호)

편 집 위 원 회

낸곳• 근 로 자 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1986년 3월 1일 발 행• 1986년 3월 3일

ㄱ—6502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7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4호

평 양 근로자사 1986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4 호(528)

차 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더욱 빛내여나가자—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령도사는 로동계급의 수령의 빛나는 령도의 력사

리 을 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로 시대의 앞길을 밝히시고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로동계급의 수령의 빛나는 령도력사를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사는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혁명과 건설을 언제나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온 주체의 령도력사이며 모든 단계의 혁명투쟁과 모든 분야의 사업을 조직령도하는 과정에 이룩된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경험과 업적을 담고있는 백과전서적인 령도력사이며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불멸의 령도사이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뜻깊게 맞이하는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령도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다.

(1)

위대한 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인민대중을 투쟁에로 조직동원하는 수령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게 된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위업의 개척자이며 위대한 령도자이다.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정에 이룩된 모든 혁명업적은 그 어느것이나 다 수령의 위대성, 령도의 현명성과 잇닿아있다.

혁명의 지도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로정에서 혁명적령도리론을 창시하고 대중령도방법을 확립하며 그것을 구현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령도하여나가는 과정에 이룩된 업적과 경험에 대한 력사적총화가 바로 수령의 령도사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사는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탁월한 령도방법과 세련된 령도예술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에로 이끌어온 주체의 령도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이겨내면서 자랑찬 혁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왔으며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곧바름 승리의 한길로 능숙하게 이끌어왔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396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을 령도하는 전행정에서 언제나 주체적립장을 견지하고 혁명과 건설을 우리 식대로 밀고나가시여 주체의 령도력사를 창조하시였다.

혁명운동은 각이한 시대적조건과 다양한 구체적현실에서 진행되는 창조적사업이다. 그런것만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관철하는데서 과학성과 창조성, 원칙성과 일관성을 보장할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승리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혁명실천이 요구하고 인민대중이 지

향하는것이라면 그 어떤 기성관례나 명제에도 구애됨이 없이 모든 로선과 정책을 주체적인 신념과 독자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제시하고 관철해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령도의 중요한 특징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활동은 철두철미 주체적립장에서 출발하고있으며 독창성과 창조성으로 일관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첫시기부터 주체확립문제를 언제나 혁명승리의 근본문제로 내세우고 어떤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였으며 모든것을 우리 혁명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위업을 개척하시던 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밝히시였으며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여 조선혁명의 전로정을 승리와 영광의 력사로 빛내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력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항일무장투쟁로선과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과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방침,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과 자위적군사로선,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 방침과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비롯한 모든 로선과 방침들은 다 주체적립장에서 독창적으로 제시되고 일관하게 관철되여온것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들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결부되고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고있음으로 하여 그것은 언제나 인민들의 드팀없는 신념으로, 사활적인 투쟁과업으로 접수되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백전백승의 무기로, 위대한 전투적기치로 되고있다.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혁명을 줄기차게 령도해오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진두에 서계심으로 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을 사소한 편향과 곡절도 없이 오직 승리의 한길로만 전진시켜올수 있었다.

력사의 새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지도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구현하여 주체적인 로선과 전략전술을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그 전면적실현을 위한 투쟁을 승리적으로 령도해나가고있는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령도사의 특징이 있으며 백전백승의 위력의 원천이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혁명적령도방법을 구현하여 주체의 령도력사를 창조하시였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결정적요인이다. 혁명투쟁의 승리와 건설사업의 성과는 결국 그 직접적담당자인 인민대중을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는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 그들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이끌어주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인민대중의 사상을 발동하고 창조력을 동원하여 대중적투쟁과 집단적혁신으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혁명적령도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견지하시고 항일혁명 20년을 하루와 같이 대원들과 혁명군중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항일대전의 승리에로 이끄시였으며 해방후 창조와 건설의 40년 나날에도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속에 있어야 신심과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난다고 하시면서 군중이 살며 일하는 현지에서, 혁명과 건설이 진행되는 벅찬 현실속에서 대중을 가르쳐주시고

그들을 승리와 위훈에로 고무추동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앞길에 난관이 가로놓이고 무거운 혁명임무가 나설 때일수록 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인민들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에게 나라의 형편과 혁명의 요구, 당의 결심을 자세히 알려주시고 새로운 승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인민은 재더미우에서 진행한 전후복구건설과 경제와 국방을 병진시키기 위한 투쟁 그리고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도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으며 오늘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고있다.

순간도 인민을 떠난 사색과 실천을 모르시고 언제나 인민대중속에서 그들을 혁명의 한길로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와 수령은 인민을 굳게 믿고 인민은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수령의 령도를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받들어나가는 충직한 인민의 헌신적인 투쟁이 하나로 결합되여 있음으로 하여 조선혁명은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따라 승승장구 해올수 있었던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고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끄시여 주체의 령도사를 창조하시였다.

자력갱생은 공산주의자들의 고유한 혁명정신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근본원칙이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나라의 내부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고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전기간 일관하게 견지하신 혁명적원칙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정규군의 지원과 국가적후방도 없었지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조국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전후복구건설시기는 준엄한 시련의 시기였다.

3년간의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되였으며 자금과 자재도 모자랐고 인민생활도 어려웠다. 미제와 그 주구들이 새 전쟁 도발책동을 미친듯이 벌리였고 원쑤들의 《반공》공세는 극도에 달하였다. 당안에 기여든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외부세력을 등에 업고 당에 정면으로 도전하여나섰다. 참으로 조성된 난국은 엄중하였으며 뚫고나가야 할 시련은 준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에 그러하였던것처럼 이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도 복잡한 난국을 헤쳐나갈 가장 정확한 방향과 방도를 세우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원쑤들의 반혁명적책동을 분쇄하는 전당적, 전인민적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는 한편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를 경제건설투쟁에 힘차게 불러일으켜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운동의 발단을 열어놓으시였으며 인민대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자체의 힘으로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고 우리 나라를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켰다. 실로 우리 혁명이 전진하여온 전로정은 오히려 없는것보다 못한 조건에서 시작하여 자체의 힘으로 모든것을 새로 창조하면

서 거창한 변혁과 위대한 비약을 이룩해온 보람찬 행로였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력사의 새시대를 개척하시고 간고하고 시련에 찬 투쟁의 길을 헤쳐오시면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은 우리 혁명의 전진과 더불어 길이 빛나고 있다.

(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사는 우리 시대 모든 단계의 혁명투쟁과 모든 분야의 사업을 령도하는 과정에 이룩된 풍부한 경험과 업적을 담고있는 백과전서적인 령도사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반세기에 걸치는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과정에 주체사상에 기초한 독창적인 공산주의적령도리론을 창시하시고 혁명적인 령도예술을 완성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혁명적인 령도예술에는 대중지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집대성되여있습니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여러 발전단계를 거치게 된다. 로동계급의 수령의 령도사는 혁명의 발전단계를 어느 정도 포괄하며 매 단계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얼마나 폭넓고 깊이있게 해결해나가는가 하는데 따라 그 위대성이 규정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사는 그 령도의 폭과 규모, 내용에 있어서 가장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령도 경험과 업적으로 일관된 로동계급의 수령의 빛나는 령도력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사에는 혁명의 모든 발전단계들을 과학적으로 규정하고 매 단계들에서 나서는 전략전술적과업들을 전면적으로 해결한 령도업적이 담겨져있다.

지난날 락후한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에서의 새 사회 건설은 남보다 뒤떨어진 처지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혁명의 모든 단계, 모든 형태의 투쟁을 다 거쳐온 조선혁명은 탁월한 령도예술을 지닌 위대한 수령의 령도가 없이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단계의 혁명과 모든 형태의 투쟁을 빛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그 로정은 반제민족해방혁명과 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 등 여러 단계의 혁명과 지하혁명투쟁과 무장투쟁, 계급투쟁과 경제건설투쟁 등 온갖 형태의 투쟁으로 이어진 간고하고 복잡한 과정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에서 조성된 정세와 계급적력량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옳은 전략전술적원칙들과 투쟁방도를 제시하고 탁월한 령도예술과 령도방법으로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련된 령도로 일제와 미제를 반대하는 두차례의 혁명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시였으며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새시대,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앙양의 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민주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시고 4~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혁명을 독창적으로 완수하여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시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천인미답의 길을 개척하시였다.

공산주의는 인류의 념원이며 리상이다. 리상사회에 대한 우리 인민의 이 념원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공산주의에로 가는 전반적로정과 리정표를 정확히 밝혀주심으로써 현실로 전환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 공산주의에로

가자면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며 혁명을 계속하여 사람들을 공산주의화하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의한 분배를 할수 있을만큼 생산력을 발전시키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까지 없애고 완전한 사회적평등을 이룩하여야 한다는것이 밝혀지게 되였다. 특히 공산주의는 인민정권에 3대혁명을 더한것이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정식화가 주어짐으로써 공산주의에로의 진로가 가장 정확히 명시되였다. 어떤 단계를 거쳐 어떻게 공산주의에로 나가야 하는가 하는 과학적리론이 해명되고 그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점차적으로 실현됨으로써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리상으로가 아니라 산 현실로 바라보게 되였으며 뚜렷한 목표와 위력한 방도를 가지고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확신성있게 벌려나가게 되였다.

식민지반봉건사회로부터 출발한 조선혁명을 이렇듯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혁명단계들을 정확히 규정하고 성과적으로 넘으면서 오늘의 승리에로 이끌어온 여기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사의 위대성이 있다.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사는 혁명의 모든 전략적단계뿐아니라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를 이끌어나가는 과정에 이룩된 불멸의 업적이 담겨져있는 령도사이다.

조선혁명은 그 첫시기부터 거쳐야 할 혁명단계들이 복잡하고 심각하였던것처럼 매 전략적단계들에서 수행해야 할 력사적과제도 형언할수 없이 거창하고 다방면적이였다. 그러므로 력사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처럼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 그것도 여러 단계에서 나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들을 다감이 수행하여온 위대한 수령을 알지 못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자주독립과 조국의 륭성번영, 인민의 행복을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사업들을 한몸에 지니시고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의 지도사상과 당과 국가의 모든 로선과 정책들이 다 경애하는 수령님에 의하여 제시되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도 수령님에 의하여 조직되고 령도되여왔다.

백전백승의 위력을 지닌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권, 불패의 혁명무력이 창건되고 강화발전되여온것도 인간개조사업으로부터 경제건설과 문화건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 대외사업에서 이룩되고있는 빛나는 성과들도 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 고귀한 결실이다.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사업으로부터 인민생활과 어린이보육교양에 이르기까지 정치와 경제, 문화와 군사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세심한 령도가 미치지 않은데란 없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전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의 손길아래 자주, 자립, 자위로 빛나는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가 일떠서고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지름길이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혁명발전을 위하여서도 불면불휴의 활동을 벌려오시였다. 자주, 친선, 평화를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삼고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반제자주위업에 관한 사상과 그 실현을 위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활동은 민족해방, 인류해방을 위한 성전에 떨쳐나선 세계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적힘을 주고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사는 탁월한 전략전술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우리 시대 혁명의 모든 단계와 모든 분야에서 이룩된 불멸의 업적을 전면적으로 담고있는 백과전서적 령도사로 빛나고있다. 로동계급의 수령의 가장 빛나는 령도사를 창조하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조선혁명의 개척기로부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높은 단계에 이른 오늘까지 변함없이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최대의 영예이며 끝없는 행복으로 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사는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불멸의 령도력사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가 마련되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지도체제가 튼튼히 섰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18페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여러 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력사적위업이며 대를 이어 계속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수령에 의하여 개척된 혁명위업은 력사적계승성을 가지고 전진하며 승리하고 완성된다.

때문에 수령의 령도는 혁명위업의 개척과 승리적전진만이 아니라 종국적완성에 이르는 전기간에 걸쳐 필수적요구로 나선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령도는 대를 이어 계속되여야 하며 혁명의 세대교체와 함께 줄기차게 이어져나가야 한다.

혁명위업의 계승은 곧 령도의 계승이다. 혁명위업을 개척하고 전진시키는 투쟁에서와 마찬가지로 혁명위업을 계승하고 완성하는 투쟁에서도 혁명의 령도자는 결정적역할을 한다. 근로인민대중은 탁월한 령도자의 현명한 령도를 받아야 대를 이어 혁명투쟁을 계속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이로부터 수령의 령도사가 영원한 계승성을 가진 불멸의것으로 되려면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혁명의 령도자에 의하여 굳건히 이어져나가야 한다.

혁명위업을 개척하고 전진시키는 투쟁에서의 수령의 령도적역할은 혁명위업을 계승하고 완성하는 투쟁에서 혁명의 령도자에 의하여 그대로 이어진다.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여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수령의 역할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수령의 혁명사상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가는 역할로 이어지며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이룩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온 수령의 역할은 혁명과 건설을 계속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수령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역할로 이어진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계승하고 완성해나가는데서 우리 당은 결정적역할을 하고있다. 우리 당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위대한 조직자, 세련된 령도자로서의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 조선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향도하고있다.

우리 당은 세련된 령도와 정력적인 활동으로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고 대를 이어 령도의 중심을 보장하는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며 수령의 위업을 옳게 계승하고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이러한 요구는 혁명의 령도자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통하여 확고한 조직사상적기초우에서 실현되게 된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확고부동한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당의 령도를 정치사상적으로, 조직적으로 철저히 보장할수 있는 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었다.

우리 당은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모든 당조직들이 혁명의 골간력량을 꾸리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의 간부대렬이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의 정수분자들로 튼튼히 꾸려지고 그들의 역할이 더욱 높아지게 되였으며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튼튼한 기초가 마련되게 되였다. 이와 함께 우리 당안에는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이 섰으며 당사업과 당활동,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문제들을 당중앙의 유일적결론과 지시에 따라 처리하는 혁명적 규률과 질서가 확립되였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해나가는 오랜 기간의 실천행정에서 높은 령도적권위를 지니게 되였으며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게 되였다. 우리 당중앙은 높은 권위와 확고한 조직사상적기초를 가지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고있다.

오늘 우리 당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는것을 최대의 사명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 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여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기본전략목표와 근본방도를 밝히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나가고있다.

탁월한 예지와 비상한 정력, 비범한 지략과 혁명적전개력을 지니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로 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실현해나가는 력사적진군은 가장 곧바른 길로 확신성있게 전진하고있다.

우리 당은 과학적통찰력으로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제때에 포착하여 언제나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정확한 투쟁구호와 정책을 제시하고 비상한 혁명적전개력과 세련된 령도력을 가지고 당사업과 당활동,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능숙하게 조직전개해나가고있다.

우리 당 사업에서의 근본적인 전환, 전당과 온 사회에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의 철저한 확립, 항일의 혁명전통의 전면적인 발전풍부화, 주체적문학예술의 발전,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새로운 속도와 혁신의 창조를 비롯하여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 세기적변혁과 위대한 기적들은 모두가 다 당중앙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것이다. 우리 당이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빛내여나가는것으로 하여 주체위업의 영원한 계승성, 그 종국적승리가 확고히 담보되여있다.

이와 같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령도사는 우리 당중앙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령도의 대가 확고히 이어지고 대를 이어 령도의 중심을 보장하는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로동계급의 수령의 영광스러운 령도력사를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가장 긍지높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였으며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사는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불멸의 령도사로 되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령도사는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의 빛나는 령도력사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사는 그 내용의 풍부성과 심오성, 거기에 담긴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의 독창성과 위대성으로 하여 모든 일군들과 혁명가들이 대중지도에서 확고한 지침으로 삼아야 할 혁명의 교과서로 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령도사를 깊이 체득하며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적극 따라배워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기치

김 철 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불패의 위력과 거대한 견인력으로 우리 시대의 력사적운동, 인류의 해방위업을 힘있게 이끌어주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사상의 진보성과 위대성은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어떻게 대변하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의 길을 얼마나 정확히 밝혀주는가에 의하여 규정된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지향을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그 실현을 위한 길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자주사상이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고 민족의 번영과 인류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휘황히 밝혀주고있는것으로 하여 참다운 인간해방, 인류해방의 사상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위대한 기치로 되고있다.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감으로써 우리 인민은 짧은 기간에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을 털어버리고 륭성번영하는 자주적인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었으며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 존엄있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될수 있었다.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의 공통된 념원을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시대의 력사적운동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1)

주체사상은 인간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혁명학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8권, 324페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을 숭고한 리념으로 삼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사람은 자주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벗어나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게 살것을 바란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다. 자주성이 생명이라고 할 때 그것은 곧 사회정치적생명을 의미한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비록 목숨은 붙어있어도 사실상 죽은 몸이나 다름없으며 사회적존재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사람은 자주성을 지녀야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사람답게 살며 발전할수 있다. 그러므로 자주성을 옹호하며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것은 사회적인간의 절대적요구이다. 자주적으로 살려는데로

부터 사람은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창조적활동을 벌리는것이다. 인간의 모든 활동과 생활의 근본목적은 결국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있다.

자주성이 인간의 생명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며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데 인간의 근본요구, 인류의 투쟁목적이 있다는것을 밝힌 여기에 주체사상의 빛나는 력사적공적이 있다.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할데 대한 숭고한 리념과 목표는 옳바른 리론에 의하여 안받침될 때에만 현실로 전환될수 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위주의 철학적원리를 해명함으로써 인간의 자주성이 실현되며 인간의 운명이 개척되여나가는 과정의 합법칙성을 밝혀주고있다.

사람은 세계의 한 부분이며 세계속에서 살며 활동한다. 세계를 떠나서 사람은 살수도 발전할수도 없다. 그런것만큼 인간의 자주성, 인간의 운명은 세계와의 관계속에서 실현되고 개척되게 된다. 사람의 운명이 어떤 처지에 놓여있으며 인간의 자주성이 어느 정도 실현되는가 하는것은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의하여 규정된다. 사람이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세계를 개조하고 지배해나가는 과정, 다시말하여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주인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 과정이 곧 인간의 자주성이 실현되여나가는 과정이다.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장성하고 발전할수록 세계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주인의 지위와 역할은 더욱더 높아지게 되며 그에 따라 인간의 자주성은 더 잘 실현되게 된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자주성은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결합된 그들의 집단이 진행하는 사회력사적운동을 통하여 실현된다. 사회력사적운동은 그 주체인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창조적능력에 의하여 일어나고 추진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창조적능력이 끊임없이 높아지는데 따라 사회가 발전하게 되며 력사의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게 된다. 바로 이것이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되며 그들의 운명이 개척되여나가는 합법칙적과정이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원칙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이 밝힌 자주적립장은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이다. 혁명투쟁은 어디까지나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며 따라서 자주적립장을 지키는것은 혁명투쟁자체의 본성적요구이다. 자주적립장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으로 구현된다.

자주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 따라 처리하며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매개 나라 인민은 자주적립장을 지켜야 자기의 리익을 고수하고 자기의 의사와 요구를 관철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갈수 있다.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또한 창조적립장을 견지할데 대하여 밝혀주고있다. 창조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실정에 맞게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진행되는것만큼 인민대중의 창조적역할을 높일수 있게 하는 창조적립장보다 더 근본적인 방법이 있을수 없다.

이처럼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할데 대한 숭고한 사상과 리론, 방법을 전면적으로 밝혀주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며 따라서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에서 반드시 의거하여야 할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2)

주체사상은 사람들이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 세계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하는 인간해방의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정치와 경제, 사상과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근로자들을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 사회적불평등에서 해방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318페지)

주체사상은 사람의 사회적속성인 자주성에 대한 심오한 해명에 기초하여 인간해방의 총적목표와 방향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사람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게 살것을 요구하는것만큼 인간을 해방하는 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인간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숭고한 사업이다.

인간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한다는것은 사람들이 자연의 주인, 사회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게 한다는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그들이 자연과 사회와 낡은 사상, 문화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에만 인간해방의 과업이 종국적으로 수행되였다고 말할수 있다.

사회적 예속과 압박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유린하는 주되는 사회적질곡이다. 인민대중이 사회적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인 정치생활을 누릴수 없다. 사회정치적으로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은 사람이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데서나 사상문화적발전을 이룩하는데서 기본담보로 된다. 인민대중이 사회정치적으로 예속되여있는 조건에서는 생산력을 발전시켜도 그 혜택을 누릴수 없고 반동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도 벗어날수 없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을 사회적예속에서 벗어나게 하는것은 인간해방을 실현하는데서 선결조건으로 된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을 사회적예속에서 해방하는것으로써 인간해방의 과업이 완수되는것은 아니다. 설사 인민대중이 사회적예속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자연의 구속과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세계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해방의 과업을 완성하려면 낡은 사회의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변혁한 다음에도 그들을 자연의 구속과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해방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리지 않으면 안된다.

주체사상은 인간해방의 총적 목표와 방향뿐아니라 그 실현을 위한 근본방도를 명확히 밝혀주고있다.

인민대중이 자연의 구속과 사회적예속,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되기 위하여서는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는 3대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자연개조, 사회개조, 인간개조 사업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3대개조사업은 다같이 통일적으로 밀고나가야 하지만 그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것은 인간개조사업이다.

자연개조사업과 사회개조사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물질적조건과 사회적조건을 마련하는 사업이지만 인간개조사업은 자주성을 지니고있는 인간자체를 키우는 사업이다. 자주성을 지닌 인간이 있고서야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물질적 및 사회적 조건이 필요하며 또 그러한 물질적조건과 사회적조건을 마련하는 사업의 주체는 인간자신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물질적재부나 사회관계의 발전수준도 결국 인간의 발전수준에 의하여 제약된다.

그러므로 인간개조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자연개조사업과 사회개조사업

을 다같이 밀고나가야만 인민대중을 온갖 구속과 예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심화된다.

착취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을 민족적 및 계급적 예속에서 해방하기 위한 사업이 전면에 나선다.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의 과업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실현된다. 인민대중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통해서만 낡은 착취제도를 청산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울수 있으며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틀어쥔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다.

착취사회에서도 자연개조사업과 인간개조사업은 끊임없이 진행되지만 그것들은 주로 낡은 사회의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변혁하는 사회개조사업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진다.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사회제도의 혁명적개조문제가 해결된 사회주의하에서는 인민대중을 낡은 사상과 기술, 문화의 구속에서 해방하기 위한 과업이 중요하게 나서게 되며 그것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통하여 실현된다. 3대혁명은 사회주의하에서 인간개조, 자연개조, 사회개조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는 낡은 사회의 유물이 남아있으며 이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사회에는 계급적차이와 로동조건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차이가 남아있게 되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게 된다.

3대혁명은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공산주의적사상의 승리를 이룩하고 새로운 선진적인 기술과 문화를 창조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인간개조사업과 자연개조사업, 사회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인민대중을 낡은 사회의 유물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고 자연과 사회,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만들수 있다.

이처럼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이 온갖 구속과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길을 과학적으로 밝혀준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을 위한 위력한 무기로, 인간해방의 위대한 기치로 된다.

(3)

주체사상은 민족의 번영과 인류의 자주적발전의 진로를 밝혀주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오늘 인류는 민족에 의한 민족의 지배의 력사가 끝나가고 자주와 평등의 새 력사가 펼쳐지는 위대한 전환기에 살고있다. 지구상의 많은 나라 인민들이 자주적으로 살것을 요구하고있으며 자주의 길로 나아가고있다.

그러나 자주의 이 거세찬 력사의 흐름은 제국주의, 신식민주의자들의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옛지위를 되찾기 위하여 작은 나라들과 새로 독립한 나라들을 다시 예속시키기 위한 비렬한 책동을 벌리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완전히 청산하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문제는 해결을 기다리는 절박한 시대적과제로 제기되고있다.

주체사상은 인간의 자주성을 실현할데 대한 숭고한 리념으로부터 온 세계의 자주화에 관한 강령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자주권이 완전히 실현된 새 세계 건설의 지름길을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화된 세계는 온갖 지배주의와 식민주의가 완전히 청산된 세계이며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자주권이 완전히 실

현된 세계입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외세의 온갖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나갈 때 온 세계의 자주화가 실현될것입니다.》(《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단행본, 34페지)

온 세계를 자주화한다는것은 온갖 지배와 예속을 없애고 나라와 민족의 완전한 평등과 자주권을 보장하며 자주성에 기초하여 그들사이에 참다운 친선과 협조 관계를 실현한다는것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인것처럼 나라와 민족에 있어서도 자주성이 생명이다. 사람의 자주성이 존중시되고 옹호되여야 하는것과 같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존중시되고 옹호되여야 한다.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자주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자주화된 새세계를 건설하는것은 민족의 번영과 인류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인류력사발전과정은 사람들의 사회적관계가 발전하는데 따라 생활단위가 더욱더 큰 규모로 확대되는 과정이며 사회적협력의 범위가 더욱더 넓어져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현 력사적단계에서는 인민들이 나라를 기본단위로 하여 생활하고있으며 그들의 운명도 주로 나라를 기본단위로 하여 개척되고있다. 아직 나라들사이에 인민들의 사상문화수준과 력사적인 전통, 물질기술적조건에서 차이가 있는 한 국경과 민족의 구별이 있기 마련이며 인민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살아나가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매개 나라가 자주성을 견지하고 국제관계를 자주화해나가야 나라와 민족들이 가지고있는 우수한 특성들을 높이 발양시켜 새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으며 지배와 예속이 없는 새로운 국제관계, 국제질서를 확립하고 나라의 정치적독립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튼튼한 담보를 마련할수 있다.

매개 나라 인민의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하며 자주성에 기초하여 친선과 단결을 이룩하는것은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인류의 자주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어느 한 개인이 집단을 대표할수 없는것처럼 어느 한 나라나 민족이 인류를 대표할수 없는것이다. 오늘 인류의 발전, 인류가 창조한 거대한 물질문화적재부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의 여러 나라 인민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행정에서 획득한것이다.

그러므로 인류가 창조한 물질문화적재부를 고수하고 발전시키려면 매개 나라 인민들이 자기의 고유한 특성과 우수성을 더욱 개발하고 높이 발양시켜야 하며 그들사이의 단결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참다운 친선과 단결은 오직 자주성이 보장되고 그것이 호상 존중되는 기초우에서만 실현될수 있다.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온 세계를 자주화하는것은 특히 새 세계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인류의 자주적발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침략과 전쟁은 인간의 자주성,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이며 인류의 운명에 대한 가장 엄중한 위협이다.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떠나서는 민족의 번영과 인류의 자주적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평화적환경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위해서뿐아니라 인류의 끝없는 발전을 위해서도 결정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된다.

새 세계전쟁을 막고 나라와 민족, 인류의 자주적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열쇠는 바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는데 있다. 세계가 자주화되면 매개 나라 인민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그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에 추종하지 않게 될것이며 이렇게 되면 새 세계전쟁이 일어나

지도 못할것이고 설사 제국주의자들이 전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높뭍은 매을 추지 못하고 멸망하고야말것이다.

이처럼 주체사상은 매개 나라 인민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나라와 민족의 번영과 자주적발전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이며 인류의 끝없는 발전을 담보하는 불멸의 투쟁의 기치, 승리의 기치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사람의 자주성문제, 인민대중의 운명개척문제에 새로운 과학적해명을 준 세계관이며 자주적인 새 사회 건설과 자주화된 새 세계 건설의 길을 환히 밝혀준 혁명학설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길이 뚜렷이 명시되고 인민대중이 온갖 구속과 예속에서 벗어나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기 위한 지름길이 밝혀졌으며 지구우에서 모든 형태의 지배와 예속을 없애고 나라와 민족들사이에 참다운 친선과 협력관계, 자주적인 새로운 국제관계를 확립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에 과학적해답을 주고 있는것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로, 인류의 진보적사상발전과정의 력사적총화로 된다.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 구현되여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자주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왔으며 세계를 경탄시키는 위대한 전변을 이룩하였다.

우리 인민이 일제식민지의 암흑통치를 짓부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한것도, 간고하고 복잡한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빛나게 완수하고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은것도, 무지와 몽매에서 벗어나 주체의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자라나고 사회주의민족문화를 찬란히 꽃피워나아가고있는것도, 지난날 락후와 빈궁만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고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향유하고있는것도 오직 주체사상이 가져다준 고귀한 결실이다.

오늘 지구우에 새로운 시대적조류, 자주성의 조류가 거세차게 굽이치고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관계발전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된것도, 지배와 예속을 강요하는 제국주의세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쁠럭불가담운동을 비롯한 자주세력이 비상히 강화되여 세계가 자주화된 세계로 빨리 변모되여가고있는것도 주체사상의 거대한 영향력과 밀접히 련결되여있다.

주체사상은 혁명실천을 통하여 정당성과 위대성이 남김없이 확증되였으며 그 불패의 생활력으로 하여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자주적인 새생활, 자주화된 새세계를 건설하고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진로를 밝혀주는 휘황한 홰불로 된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신것은 인류사상발전과 자주위업수행에서 쌓아올리신 영원불멸할 세계사적업적으로 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사상을 구현해나가는 여기에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위력의 원천이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수행에서 언제나 승리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하는 우리 인민은 자주위업수행에서 언제나 백전백승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3대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략적로선

김 시 학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혁명과 건설에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과 그 완성을 위한 투쟁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빛나는 업적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략적로선인 3대혁명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새롭게 제시하신것이다. 3대혁명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질적특성과 그 완성의 합법칙성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제시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공산주의건설리론이다. 여기에는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한 다음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과 수행방식이 독창적으로 밝혀져있으며 자주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가 집대성되여있다.

오늘 주체의 혁명위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3대혁명로선을 관철하는 과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심화발전하고있다. 현실은 우리 혁명의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3대혁명로선을 더욱 튼튼히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여기에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한 참된 길이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우리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3대혁명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 주체위업의 완성을 힘있게 앞당겨 나가야 할것이다.

* *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서 로동계급의 당이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고 공산주의를 건설해나가는데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전략적로선이다.》(《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단행본, 11페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전략적로선을 정확히 제시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그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의 하나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사람과 사회, 자연을 개조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며 따라서 그것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전략적로선에 의거하여야만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이 새로운 양상을 띠고 넓은 폭과 심도를 가지고 높은 단계에서 진행되면 될수록 그 앞길을 밝혀주는 전략적로선을 과학적으로 명확히 제시하는것이 더욱 절박한 문제로 제기된다. 공산주의운동의 내용과 포괄범위가 비할바없이 확대심화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먼 장래

의 일이 아니라 당면한 실천적과업으로 제기된 우리 시대의 력사적조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전략적로선의 제시를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시대와 혁명실천이 제기한 이러한 력사적과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3대혁명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빛나게 해결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3대혁명에 관한 전략적로선이 제시됨으로써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혁명을 계속할데 관한 사상이 새롭게 밝혀지게 되였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 때까지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할 혁명과업이다.

모든 혁명투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는 조건에서는 혁명의 종국적완성이란 있을수 없다.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력사적전환으로 되지만 결코 혁명의 완성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에도 낡은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여러가지 유물이 있게 되며 그것으로 하여 사회에는 계급적차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차이가 있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은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였다고 하더라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실현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은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하에서 계속되는 혁명의 내용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근본원인인 사상, 기술, 문화의 락후성을 없애는것이다.

혁명의 특성과 내용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근본원인이 무엇인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 자주성을 구속하는 주되는 원인이 민족적 및 계급적 억압과 예속에 있으면 그로부터 해방되려는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은 필연적으로 민족해방, 계급해방 혁명으로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고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이 실현된 조건에서 그들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주되는 원인이 사상, 기술, 문화의 락후성에 있는만큼 혁명은 이 세가지 분야에서 진행되게 되며 그것은 혁명의 기본내용으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으로 되는것이다.

만일 낡은 착취제도를 때려부시고 근로인민대중을 민족적 및 계급적 예속에서 해방하는것을 혁명의 완성으로 보고 혁명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킬수 없으며 사람들을 낡은 사상과 기술, 문화의 구속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할데 대한 로동계급의 숭고한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이후에도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혁명의 기본내용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 때까지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3대혁명이 사회주의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이며 공산주의건설을 위한 계속혁명의 과업이라는것을 천명하심으로써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인민대중이 낡은 사회의 유물과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벗어나 자기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길이 뚜렷이 밝혀지게 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리론을 혁명실천의 참다운 지도리론으로 완성시키는데서 이룩한 커다란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혁명방식

이다.

혁명방식을 옳게 밝히는것은 소여혁명단계에서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이 혁명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혁명수행방식은 매 혁명단계에서의 혁명의 내용에 의하여 규정된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서면 혁명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며 따라서 혁명수행방식도 그에 맞게 달라져야 하는것은 합법칙적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유물을 없애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인민대중자신이 하는 사업인만큼 착취계급을 때려부시고 착취제도를 청산하는 시기의 혁명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착취계급을 때려부시고 착취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투쟁은 혁명적폭력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되여야 승리할수 있지만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사상, 기술, 문화 분야의 락후성을 없애기 위한 혁명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을 교양하고 개조하는 방법으로, 새것을 창조하고 낡은것을 없애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낡은것을 개조하고 새로운것을 창조하는 3대혁명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자주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부합되는 가장 정확한 혁명방식이다. 사회주의사회에 남아있는 사상, 기술, 문화의 락후성은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유물로서 사회주의사회자체에 근원을 두고있는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것을 없애기 위한 3대혁명은 사회제도를 교체하기 위한 투쟁인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기 위한 투쟁이며 그 어느 계급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인것이 아니라 동지적 협조와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이다. 그러므로 3대혁명의 방식으로 혁명투쟁을 벌려나가야 인민대중의 통일과 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여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이것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사회주의사회의 성격과 혁명의 내용에 맞는 혁명방식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이처럼 3대혁명이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이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이고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 때까지 계속해야 할 혁명과업이며 사회주의사회의 특성에 맞는 혁명방식으로 된다는것을 밝힌 여기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발전풍부화시킨 불멸의 업적이 있는것이다.

위대한 사상과 리론은 위대한 현실을 창조하며 그 정당성은 혁명실천을 통하여 검증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3대혁명로선은 우리 혁명실천에 빛나게 구현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로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첫날부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방침을 내세우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318페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끊임없이 전진함으로써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전변을 가져왔다.

3대혁명로선을 구현하는 길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고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한

것이다.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사람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가장 힘있는 존재이다. 사람을 교양개조하지 않고 물질적토대만 쌓아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인간개조사업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사상혁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는 원칙을 견지하도록 하시였다. 이것은 사람들의 활동에서 사상의식이 노는 규제적역할과 혁명투쟁에서 사상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한 가장 정당하고 혁명적인 방침이였다. 인간을 개조하는데서 기본은 사상을 개조하는것이며 사람의 역할을 높이는 기본방도는 사상을 발동하는것이다. 사상혁명을 앞세워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켜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교양의 내용과 방법을 옳게 규정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으며 혁명적조직생활과 실천투쟁을 통하여 당과 혁명에 대한 충성심을 키워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상혁명이 힘있게 추진된 결과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해나가고있으며 오직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전진하고있다. 우리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가 비상히 높아졌으며 당과 대중과의 통일단결이 더욱 강화되였다. 혁명과 건설의 간고하고 보람찬 로정을 당과 함께 걸어온 우리 인민들은 자기들의 산 체험을 통하여 굳어진 드팀없는 신념으로써 당과 수령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고있으며 우리 당에 자신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다. 참으로 오늘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따르며 당과 인민이 일심단결하여 곧바른 승리의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전진한 례는 일찌기 없었다.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개조하여 우리 혁명의 정치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한것은 주체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3대혁명로선을 혁명실천에 구현하여 이룩하신 빛나는 성과와 불멸의 업적은 또한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져놓은것이다.

공산주의사회는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일뿐아니라 사람들의 물질적수요가 원만히 보장되는 사회이다. 3대혁명을 벌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목적도 구경은 이러한 사회를 일떠세워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자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기술혁명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심과업으로 내세우고 적극 투쟁하도록 하시였으며 특히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이끄시였다. 그리하여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로동조건을 개선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게 되였으며 기술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생산이 빨리 장성하게 되였다. 짧은 기간에 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이 실현되고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튼튼히 다져지게 된것은 기술혁명이 가져다준 빛나는 결실이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문화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여 125만에 달하는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의 대부대가 자라나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믿음직하게 떠밀어나가고있으며 주체적문예사상이 빛나게 구현되여 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맞이하게 된것은 3대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불멸의 업적의 하나이다.

우리 당은 3대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 행정에서 빛나는 성과와 업적을 이룩하였을뿐아니라 고귀한 경험을 창조하였다.

새 사회 건설을 위한 력사적투쟁에서 우리 인민은 무엇보다도 지난날 뒤떨어져있었고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에서도 3대혁명을 수행하면 능히 자체의 힘으로 민족적번영과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할수 있다는 고귀한 경험을 체득하게 되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 사회 건설의 길을 개척해온 우리 인민의 력사적투쟁경험은 또한 3대혁명을 수행하여야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사회주의전취물을 튼튼히 고수하고 혁명투쟁을 승리적으로 계속 전진시켜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순탄하게 진행될수 없다. 로동계급이 주권을 잡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웠다고 하더라도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변혁을 이룩하여 강력한 힘을 키우지 않는다면 제국주의의 압력과 침략책동을 짓부실수 없으며 인민들이 피흘려 쟁취한 사회주의전취물을 튼튼히 지켜낼수 없다.

우리 혁명의 력사적경험은 3대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주체적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안팎의 계급적원쑤들의 그 어떤 책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맞서 싸울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굳건히 고수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하는 길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와 업적, 고귀한 경험은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는데서 귀중한 재부로 된다.

오늘 우리앞에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1차전원회의결정을 높이 받들고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1980년대 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여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특히 우리 당은 기술혁명수행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심화발전하는 혁명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 특히 기술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한다.

3대혁명소조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당의 전략적로선인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은 심화발전하는 혁명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소조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적극 벌리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3대혁명수행에 힘있게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3대혁명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숭고한 혁명위업이며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이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하여야 끝까지 완성할수 있는 성스러운 력사적위업이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구현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우리 당에 의하여 조직되고 령도되고있다. 우리 당이 진두에서 이끎으로써 조선혁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한길을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으며 찬란한 공산주의미래가 더욱 앞당겨지고있다.

우리는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3대혁명로선을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우리 당 혁명무력건설의 빛나는 전통

리 봉 원

우리 당의 믿음직한 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은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계승자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높이 드신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창건된 우리 인민군대는 자랑찬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왔다. 인민군대가 걸어온 반세기가 넘는 력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의 군사사상과 군건설로선, 탁월한 령군술이 빛나게 구현되여 승리해온 영광스러운 로정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옹호보위하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영웅적위훈을 세운 자랑찬 년대기이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혁명무력건설의 빛나는 전통을 창시하시고 장구한 기간의 혁명투쟁을 통하여 우리 혁명무력을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로, 불패의 혁명대오로 강화발전시켜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길이 빛나고있다.

* *

로동계급이 자기의 참다운 혁명무력을 가지는것은 혁명승리를 위한 근본요구이다. 로동계급은 반혁명적폭력에 대처할수 있는 자체의 혁명무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착취계급의 반항을 짓부실수 없으며 모든 피착취, 피압박 인민들을 자본의 철쇄로부터 해방할수 없다.

더우기 식민지피압박인민들이 반제민족해방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적극적인 무장투쟁을 벌려야 하며 그것을 군사적으로 담보할수 있는 진정한 혁명무력을 건설하여야 한다.

지난날 우리 인민은 자기의 참다운 혁명군대를 가지지 못하였던탓으로 하여 민족적자주권을 빼앗기고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 경험과 교훈은 참다운 혁명무력이 없이는 민족적독립을 이룩할수 없으며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193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심으로써 혁명무력건설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은 주체적인 군건설사상의 위대한 승리였으며 주체위업을 전진시키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사변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창건됨으로써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주체위업을 굳건히 보위하고 떠메고나갈 믿음직한 혁명무력이 탄생하게 되였으며 오랜 기간 우여곡절을 겪어오던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은 무장투쟁을 주류로 하여 줄기차게 전진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는 행정에서 주체의 군사사상과 군건설로선, 탁월한 령군술과 령군방법을 구현하시여 우리 혁명무력이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할 무력건설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15성상에 걸쳐 간고한 투쟁을 전개한 영광스러운 항일유격대의 혁명전통을 계승한 군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에 조국을 해방한 다음 항일유격대를 골간으로 하여 진정한 인민의 군대를 조직할데 대한 목표를 내세웠으며 해방후 인민군대를 조직할 때에 인민군대는 항일유격대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한다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2권, 172페지)

혁명군대는 자기의 혁명전통을 굳건히 계승발전시켜나갈 때만이 로동계급의 참다운 혁명무력으로 될수 있다.

혁명군대가 혁명무력건설전통을 계승하는것은 혁명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자기의 계급적성격을 철저히 고수해나가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혁명무력건설전통에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개척되던 시기에 수령이 창시한 무력건설에 관한 사상과 리론이 담겨져있다. 수령이 창시한 무력건설사상에는 로동계급의 계급적요구와 리해관계가 가장 정확히 반영되여있으며 자기계급을 옹호보위하기 위한 군건설 원칙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 혁명전통에 구현되여있는 수령의 군사사상을 끝까지 철저히 관철해나갈 때 군대를 영원히 혁명의 군대, 계급의 군대로 강화발전시킬수 있으며 혁명의 대가 바뀌여도 혁명무력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나갈수 있다.

혁명군대가 혁명전통을 철저히 계승해나가는것은 또한 무력으로 당과 혁명을 보위하는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로동계급이 자기의 혁명군대를 조직하고 강화발전시키는것은 바로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튼튼히 보위하기 위해서이다. 로동계급의 혁명군대는 혁명위업을 군사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또 그것을 위하여 존재하게 된다.

혁명무력건설의 전통에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개척되던 어려운 시기에 이루어진 군건설의 업적과 경험이 담겨져있다. 혁명전통에 구현되여있는 이러한 재부들을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혁명무력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생동한 원형과 본보기를 제시해줌으로써 당과 혁명을 무장으로 보위하는 군대의 사명을 빛나게 수행하도록 떠밀어주게 된다.

이처럼 로동계급의 혁명군대는 혁명승리의 길이 개척되던 시기에 탁월한 수령이 이룩한 무력건설의 전통을 튼튼히 계승발전시켜나갈 때 당과 혁명의 군대로서의 자기의 성격을 고수하고 사명을 다해나갈수 있는것이다.

우리 당의 혁명무력건설전통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제시하신 주체의 군사사상과 무력건설원칙이 구현되여있으며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 이루어진 무력건설의 귀중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 탁월한 령군술과 령군방법들이 담겨져있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무력건설전통에서 중요한것은 주체의 혁명무력건설원칙이다.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던 당시 우리 나라는 일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된 조건에서 아무런 무장적토대도, 군사적경험을 가진 간부도 없었고 국가적후방이나 장기적무장투쟁을 위한 물질적담보도 없었다. 이런 조건에서 혁명무력을 건설하고 무장투쟁을 벌린다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무력건설의 주인은 우리 인민이며 항일유격대자신이라는 확고한 주체적 관점과 립장을 견지하시고 혁명무력의 골간을 꾸리는 사업으로부터 무장장비를 갖추는데 이르기까지 혁명무력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과 유격대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시였다. 또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기성관례와 다른 나라의 경험에 구애됨이 없이 혁

명무력의 조직형태와 편제, 활동 규정과 규범, 훈련지도원칙과 부대지휘관리를 비롯한 군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다 우리 혁명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우리 식대로 풀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행정에서 불면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자위의 혁명적원칙과 자위력건설, 군사전략과 령군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를 세울데 대한 원칙은 혁명무력건설에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군대에 대한 당적령도를 보장하고 군대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실현한데 대한 원칙을 제시하시였다.

군대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것은 혁명무력건설의 근본원칙이며 혁명군대의 위력을 강화하는 기본담보이다. 계급투쟁의 무기인 혁명군대는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보위하며 로동계급의 최고뇌수인 수령을 옹호보위할 사명을 지니고있는것만큼 반드시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수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혁명군대는 오직 하나의 사상, 수령의 사상으로 전대오가 일색화되고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여야 간고한 혁명투쟁의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할수 있다.

조선인민혁명군안에는 온 대오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되고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이 확립되여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심장으로 체득하고 수령님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였으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명령, 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안에 확고히 수립된 주체의 사상체계는 강대한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과의 싸움에서 백전백승의 힘의 원천으로 되였으며 그 고귀한 전통은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데서 귀중한 재부로 되고 있다.

군사사업에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여기에 군사기술사업을 옳게 결합시킨것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무력건설전통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군사사업에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군인들의 정치적각성과 사상의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여기에 군사기술사업을 옳게 결합시켜나가는것, 바로 이것이 혁명무력건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된 원칙이며 전통적인 사업방법입니다.》

제국주의침략군대를 타승할수 있는 혁명군대의 무궁무진한 힘은 그 정치사상적우월성에 있다. 전쟁의 운명은 결코 그 어떤 현대적무기나 군사장비에 의하여 좌우되는것이 아니라 군대의 사상상태에 있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옹호보위하는 성스러운 길에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우려는 군인들의 비상한 각오와 결심은 무비의 영웅성을 낳게 하며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게 한다. 그러므로 혁명군대의 강대성과 위력은 전체 군인들이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 무한한 충실성을 어떻게 간직하고있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데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모든 군사사업에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군인들의 정치적각성과 사상의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조선인민혁명군으로 하여금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안에서 정치사상사업을 앞세우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하였으며 부대안의 정치기관과 정치조직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시였다. 유격대안의 정치기관과 정치조직

들은 대원들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항일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였다.

군대의 위력은 정치사상적우월성에 현대적군사기술이 결합될 때 불패의것으로 된다. 군대는 무장을 잡고 적과 싸우는것을 사명으로 하는 무장조직인것만큼 군사기술적준비를 떠나서는 군건설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의 군사장비를 개선하는것과 함께 대원들의 전투훈련을 강화하여 군사기술수준을 높이도록 하시였다. 또한 부대안에 강철같은 군사규률을 확립하는것을 혁명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기본문제의 하나로 제시하고 대원들의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을 보장하시였으며 엄격한 군사지휘체계를 확립하시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은 력량으로 우세한 적과 맞서 싸우는 유격전의 특성에 맞게 유격대의 력량을 최대한으로 보존하면서도 많은 적을 소멸하는것을 유격전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새로운 유격 전술과 전법들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조선인민혁명군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령활한 전략전술과 유격전법을 능숙히 활용하시여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우세한 강도 일제침략자들을 정치사상적, 전략전술적 우세로 타승하시였다.

혁명군대안에서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상하일치, 군민일치의 숭고한 기풍을 확립한것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무력건설전통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상하일치, 군민일치는 혁명군대만이 가질수 있는 본질적특성이며 우월성이다. 항일유격대안에서 대원호상간, 상하간에는 목적과 계급적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원칙적인 단결이 이루어지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한사람의 혁명동지도 천금의 재부보다 더 귀중하다고 하시면서 혁명전우를 위하여 생명도 바치는 정신으로 대원들을 교양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의 모범이 있었기에 유격대원들은 언제나 친형제와 같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였으며 시련과 난관에 부닥칠 때마다 먼저 전우들을 생각하며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는 동지애의 미풍을 대오안에 활짝 꽃피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혁명군대가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을 때만이 불패의 위력을 발휘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군민일치의 혁명적기풍을 확고히 수립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인민들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고 인민의 생명재산을 목숨으로 보호하는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 혁명적동지애와 그에 기초한 상하일치 그리고 군민일치의 혁명적기풍이 확립됨으로써 조선인민혁명군안에는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불패의 통일단결이 이루어졌으며 주권도 국가적후방도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항일유격대는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속에서 15성상을 일제와 싸워 승리할수 있었다.

상비무력과 함께 비상비적반군사조직을 건설하고 전민을 무장시킨것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무력건설전통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상비무력을 강화하면서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는것은 군사적력량을 비상히 강화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방도이다. 더우기 전인민적항전으로 강도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광복을 이룩해야 할 항일무장투쟁은 광범한 인민대중을 무

장시키는것을 매우 절박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구에 전인민적방위체계를 세워 유격대와 인민이 한덩어리가 되여 싸운다면 그 어떤 적들도 물리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유격근거지를 요새화하고 전민을 무장시킬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미 초기혁명활동시기에 혁명화해놓으신 농촌들에 의거하여 적들의 통치구역에서 완전히 벗어난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구를 창설하시였으며 거기에 혁명정권과 혁명조직을 내오고 민주주의적시책도 실시하시였다. 그리고 무기수리소, 재봉소, 병원, 인쇄소 등 유격대의 후방기지도 꾸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근거지안에 생산에서 리탈되지 않는 반일자위대, 청년의용군, 소년선봉대 등의 반군사조직을 내오시여 근거지인민들을 무장시키시였으며 적의 공격에는 불리하고 아군의 방어에는 유리한 지대들에 견고한 방어축성물을 설치하고 근거지의 경외로부터 중심지대에 이르는 긴 구간에 적정감시 및 경계체계를 세우시였다. 이리하여 전민이 무장하고 유격구가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됨으로써 강력한 전인민적방위체계가 형성되였다.

상비무력을 강화하면서 유격구역을 요새화하고 유격구의 전민을 무장시킨 경험은 우리 당의 전인민적방위체계의 력사적뿌리로 되였으며 혁명무력건설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였다.

이처럼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불길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그에 기초한 혁명무력건설의 원칙과 전략전술, 풍부한 경험과 업적이 이룩됨으로써 우리 당의 혁명무력건설의 빛나는 전통이 마련되였다.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무력건설의 전통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빛나게 계승발전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의 시련속에서 단련육성된 혁명투사들을 골간으로 하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아들딸로 혁명군대를 창건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265페지)

해방후 우리 인민앞에는 당을 창건하고 정권을 세우는 사업과 함께 그것을 보위할 강력한 정규적혁명무력을 건설하여야 할 과업이 나섰다.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강력한 현대적정규무력을 가져야 승리한 혁명을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보위할수 있고 새 사회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반제민족해방혁명단계에서 창건된 혁명무력을 로동계급이 정권을 잡은 다음 새롭게 나서는 혁명 과업과 임무를 군사적으로 담보할수 있는 현대적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은 혁명무력건설의 합법칙적요구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과 무력건설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해방후 조선인민혁명군을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항일의 혁명무력건설의 빛나는 전통이 있었기에 우리 인민군대는 해방직후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무력으로 튼튼히 보위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을 계승한 우리 인민군대는 미제를 쳐부시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조국을 영예롭게 지켜냄으로써 주체조선, 영웅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치였다.

주체의 혁명위업의 개척과 승리적전진을 위한 투쟁로정에서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난 우리 인민군대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는 력사적진군길에서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더욱 강화발전되고 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군사사상과 무력건설전통을 빛나게 구현하여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고있다.

우리 당은 일찌기 항일혁명대오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계승하여 전군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내놓고 인민군대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을 령도하고있다. 우리 당이 밝혀준 전군주체사상화는 모든 군인들을 항일혁명선렬들처럼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고 군건설과 군사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인민군대를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로서의 풍모를 완전무결하게 갖출수 있게 하는 군건설의 총적임무이다. 이 혁명적인 군건설로선에 의하여 인민군대는 항일혁명전통의 계승자로서의 풍모가 더욱 뚜렷해지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주체형의 혁명적무장력으로서의 본성을 변함없이 고수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은 세련된 령도력과 능숙한 조직적수완, 혁명적전개력과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으로 인민군대의 위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끊임없이 강화해나가고있다.

우리 당은 인민군대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위적군사로선과 일당백의 혁명적구호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명확한 방도를 뚜렷이 밝히고 군대안에서 전투정치훈련과 군사규률의 확립을 비롯한 군사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혁신을 가져오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인민군대는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났으며 원쑤들의 그 어떤 침략책동도 단호히 짓부시고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군사적으로 굳건히 옹호보위할수 있게 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할데 대한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계신다. 우리 당이 제시한 이 혁명적구호는 항일유격대원들이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백두밀림에서 높이 들었던 투쟁구호의 빛나는 계승이며 오늘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심장마다에서 울려나오는 충성의 구호이다.

지금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전군초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다진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맹세를 변함없이 간직하고 당과 수령을 한목숨바쳐 견결히 옹호보위할 충성의 결의로 가슴불태우고 있다.

모든 인민군장병들이 원쑤들의 그 어떤 침략책동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는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장성강화되고 당과 수령의 명령이라면 불과 물 속에라도 뛰여들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숭고한 혁명정신이 전대오안에 차넘쳐 있는 바로 이것이 오늘 조선인민군의 혁명적풍모이다.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하고 주체가 철저히 선 충성의 대오, 조선인민군이 있기에 우리 당의 혁명위업의 승리는 언제나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되여있는 것이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것은 새 세계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담보

권 민 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온 세계를 자주화할데 대한 탁월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신다.

온 세계를 자주화할데 대한 사상은 매개 나라와 민족들의 독립과 자주권을 공고히 하며 전쟁이 없고 공고한 평화가 유지되는 번영하는 새 세계를 건설해나갈수 있는 방향과 방도를 밝히준 독창적인 전략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온 세계를 자주화할데 대한 사상은 그 과학성과 정당성으로 하여 오늘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인민들의 커다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추동하는 고무적기치로 되고있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것은 우리 시대의 요구이며 지향이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한다는것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략탈하는 온갖 반동세력을 지구상에서 청산하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완전한 민족적자주권을 실현한 세계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현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이다.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력사를 힘있게 떠밀어가고있으며 자주성의 거세찬 조류가 세계의 모든 대륙을 휩쓸고있다. 제국주의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난 수많은 나라 인민들이 자주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으며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이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고있다.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새 사회 건설에 들어선 나라들뿐아니라 일부 서구라파 자본주의나라들도 자주성을 지향하여나가고있다. 이 나라들은 미제의 핵전쟁책동의 희생물로 되는것을 바라지 않고있다. 이러한 지향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이다.

온 세계의 자주화에 관한 사상은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와 인류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외세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밝혀주고있다.

오늘 세계혁명은 모든 대륙에서 각이한 혁명임무와 사회력사적조건을 가진 민족국가단위로 벌어지고있는 혁명투쟁을 통하여 추진되고있다. 인류력사에서 우리 시대처럼 세계혁명이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그렇듯 폭넓고 깊이있게 그리고 다양하게 벌어진 때는 일찌기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우리 시대 세계혁명실천이 제기하는 제반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온 세계의 자주화에 관한 사상에 기초하여 세계혁명의 투쟁대상과 혁명력량편성원칙, 투쟁 방향과 방도 등 전략전술적문제들을 집대성하고 과학적으로 해명하시였다. 그리하여 국제무대에서 보다 광범한 반제자주력량을 튼튼히 묶어세워 반혁명력량에 비한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하며 제국주의반동세력을 최대한으로 고립약화시키고 반제자주위업과 세계혁명을 성과적으로 촉진시켜나갈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리게 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주성을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온 세계의 자주화에 관한 사상을 제시하신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과 인류해방위업수행에서 쌓아올리신 또하나의 커다란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것은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을 방지하고 지구상에 공고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여야 새 세계전쟁을 방지하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유지할수 있으며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완전한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3권, 4페지)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살아나가려는것은 인류의 세기적인 념원이다.

침략과 전쟁이 없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가 유지되여야 인민들은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들사이에 평등과 호혜에 기초한 협조관계를 발전시켜 자유롭고 번영하는 새세계를 건설해나갈수 있다. 그러나 인류의 이러한 념원은 제국주의자들의 무모한 전쟁책동에 의하여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제국주의는 예나 지금이나 침략과 전쟁의 항시적인 근원이며 자주세력에 대치하고있는 가장 주되는 반동세력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힘의 대결》로,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으로 인민들의 자주적지향을 짓밟고 자주의 거센 흐름을 막아보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현시기 새 세계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위험은 바로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동맹자, 추종자들의 책동에 의하여 조성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무모한 새 전쟁 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서는 놈들의 파멸을 다그치게 하는 한편 더는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략탈하는데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국주의자들의 손발을 얽어매놓아야 한다. 이것은 새 세계전쟁을 막고 세계평화를 항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며 현실적인 방도로 된다.

이러한 요구는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때 이루어지게 되며 온 세계가 완전히 자주화될 때 종국적으로 성취될수 있는것이다.

온 세계가 자주화되면 제국주의자들은 함부로 새 세계전쟁을 도발할수 없게 된다.

착취와 략탈은 제국주의의 생리이다. 제국주의는 자기 나라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와 함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지배와 략탈에 기초하여 생존하고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식민주의적 지배와 략탈, 침략과 전쟁은 제국주의의 생존방식으로 되고있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을 통하여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자주성을 확고히 지키는것은 제국주의의 명줄을 끊어버리는것으로 된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것은 이처럼 제국주의가 생존할수 있는 제반조건을 없애고 그들로 하여금 더는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지배와 예속을 추구할수 없게 만듦으로써 새 세계전쟁을 방지하며 나아가서 전쟁의 근원자체를 없애버릴수 있게 하는 현실적인 방도로 되는것이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자들이 새 세계전쟁을 일으킬수 있는 실제적가능성을 빼앗아버림으로써 새 세계전쟁을 막을수 있게 한다.

침략과 전쟁은 제국주의의 필수적인 산물이며 항시적인 동반자이다.

그러나 제국주의전쟁의 력사를 놓고 볼 때 어떠한 제국주의자들도 혼자서 세계를 상대로 하여 전쟁을 일으킨 실례는 없다. 전쟁의 규모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제국주의자들은 이러저러한 형식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결탁과 야합을 이룩한 기초우에서 전

쟁을 도발하였다.

력사적사실은 제국주의자들이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기에 앞서 저들의 정치적 동맹자들을 규합하는데 많은 힘을 돌렸으며 군사동맹의 체결, 해외군사기지의 획득, 군비의 증강, 전략물자의 비축 등 제반 조치들을 취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온 세계가 자주화되면 미제국주의자들은 지구상의 그 어디에 가서도 그러한 동맹자들을 얻을수 없을것이며 그 누구의 정치적지원이나 군사적협조, 경제적 뒤받침도 받지 못하게 될것이다.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물론 군사경제적으로 누구와도 동맹할수 없게 되고 온 세계가 놈들에게 등을 돌려대게 된다면 미제국주의자들이 새 세계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될것이라는것은 명백하다.

온 세계의 자주화가 실현되면 그것은 나라들 호상간에 흔히 존재하는 충돌과 분쟁의 요소가 제거되게 됨으로써 새 세계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간접적근원도 없어지게 된다.

세계전쟁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넓은 지역과 방대한 군사력이 참가하는 대규모의 전쟁이다. 이러한 전쟁들은 흔히 여러 나라들간의 리해관계의 대립과 모순에 의하여 발생되게 된다.

그러나 작은 나라들간의 군사적충돌이나 분쟁도 지역적인 또는 세계적인 전쟁으로 확대될수 있는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정치, 군사, 경제적 리해관계로부터 출발하여 다른 나라들의 분쟁에 부당한 구실을 붙여 거기에 개입하고있으며 그것을 지역적인 또는 세계적인 전쟁으로 확대하려고 획책하고있는것이다.

온 세계가 자주화되고 모든 나라들이 자주적인 로선과 평화애호적인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작은 나라들사이에 존재하는 이러저러한 의견상이나 분쟁요소들도 점차 없어지게 될것이며 제국주의자들이 개입할수 있는 구실도 없어지게 될것이다.

실로 온 세계를 자주화하는것은 온갖 지배와 예속을 완전히 청산하며 국부적인 분쟁이나 세계적인 전쟁까지도 다 방지할수 있게 하는 중요하고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현시기 국제정치분야에서 나서는 초미의 문제는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을 방지하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이다.

오늘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인류앞에는 새로운 세계전쟁이냐 아니면 평화냐 하는 심각한 문제가 나서고있다.

미제는 력사상 전례없는 규모로 군사비를 늘이면서 세계도처에서 핵전쟁준비를 다그치고있으며 지어 핵전쟁을 우주공간에까지 확대하려 하고있다.

날로 로골화되는 미제의 전쟁책동으로 하여 국제정세는 극도로 긴장해지고있으며 지구우에는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의 위험이 더욱 증대되고있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미제의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 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은 현시기 인류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되고있다.

미제는 오늘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으며 그 힘은 날로 더욱 약해지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저들의 힘만으로는 사회주의력량, 반제자주력량과 맞설수 없게 된 미제는 전쟁정책을 수행하는데서 추종국가들과 앞잡이들을 적극 내세워 리용하려 하고있다.

추종자들과 앞잡이들을 내세워 대리침략, 대리전쟁의 방법으로 세계제패야망을 손쉽게 이루어보려는것은 미제의 중요한 전략의 하나이다.

이로부터 미제는 저들의 세계제패를 위한 전쟁전략에 동맹국들과 추종국가들, 괴뢰들을 더 많이, 더 깊이 끌어들이려고 책동하면서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침략적인 군사쁠럭들을 더욱 보강하며 새로 조작해내려고 미쳐날뛰고있다.

특히 미제는 조선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세아에서 미일남조선3각군사동맹을 조작하고 나아가서 아세아태평양지역에 나토와 같은 새로운 침략적군사쁠럭을 구며내려고 획책하고있다. 이와 함께 동맹국들과 추종국가들 그리고 강점지역들에서 저들의 군사기지들을 더욱 확대해나가고있다. 지금 미제의 해외군사기지들은 세계 30여개의 나라에 널려져있으며 그 수는 무려 1,500여개에 달하고있다. 미제는 바로 이러한 조밀한 군사기지망에 의거하여 인류를 반대하는 새 세계전쟁준비를 발광적으로 다그치고있다.

현시기 미제의 전쟁정책으로 하여 지구상에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의 위험이 날로 커가고있는 조건에서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온 세계의 자주화에 관한 사상은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외세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것을 요구하고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곧 온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투쟁의 일환이다.

매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세계혁명의 운명과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은 온 세계가 자주화될 때 확고히 담보된다. 온 세계의 자주화는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성이 실현되는 과정, 다시말하여 자주화된 나라와 민족들의 대렬이 확대되는 과정을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위업을 다그쳐나가야 한다.

현시기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성을 지키는데서 중요한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정책을 배격하고 반대하는데서 자주성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는것이다.

자주성과 침략전쟁은 량립할수 없다. 침략전쟁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가장 란폭하게 짓밟는 폭력행위이며 그것은 자주독립국가의 존재자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자주성을 옹호고수하기 위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세계를 핵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으려는 미제의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반제적립장을 확고히 고수하여야 하며 온갖 가능성을 다 리용하여 실제적인 영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야 한다.

미제의 동맹국들과 추종국가들이 미제의 전쟁정책에 더는 추종하지 않게 하고 자주화의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은 미제로 하여금 발붙일곳을 잃게 하고 맥을 추지 못하게 함으로써 놈들의 무분별한 침략전쟁과 대리전쟁 전략을 파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미제의 손아래 동맹국들인 일본과 나토성원국들이 자주화의 길로 나가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일본과 나토성원국들은 미국의 전쟁전략수행에서 기둥의 역할을 놀고있다. 따라서 일본과 나토성원국들이 자주화의 길로 나간다면 미제가 혼자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될것이며 아세아와 구라파에서 공고한 평화가 보장되게 될것이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쁠럭불가담나라들이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이 운동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반제투쟁속에서 탄생한 운동이며 이 운동에서 기본은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며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이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통일단결을 강화하는것은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발전도상나라들을 분렬, 리간시키고 서로 싸우게 하여 새로운 간섭과 전쟁의 구실을 조작해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는 사정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이 운동의 숭고한 리념을 확고히 지키며 호상 리해와 존중의 원칙에서 서로 협조하고 단결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이 그 어떤 술책으로써도 쁠럭불가담운동의 반제자주적성격을 말살하지 못하게 하고 이 운동을 분렬시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반제자주력량으로서의 쁠럭불가담운동은 더욱 강화발전되여나갈것이며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반제자주력량의 단결과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실현하는것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며 자주화된 새세계를 건설하는데서 결정적담보로 된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은 국제무대에서 반제자주력량과 제국주의세력간의 대결이다.

사회주의력량과 쁠럭불가담운동, 세계의 모든 진보적력량과 평화애호력량이 굳게 단결하여 집단적인 공세를 들이대야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 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킬수 있다.

이와 함께 반전반핵평화옹호운동들에 대한 지지와 련대성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오늘 세계도처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반전반핵평화옹호운동은 미제의 새 세계전쟁을 파탄시키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있다. 그러므로 반전반핵평화옹호운동들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여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전쟁정책을 저지파탄시키고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투쟁이 더욱 힘있게 벌어지도록 하여야 하는것이다.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 력량과 인민들이 반전반핵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게 될 때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은 더욱더 앞당겨지게 될것이며 지구상에는 공고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할데 대한 사상은 자주적인 새 세계건설의 진로를 밝혀준 위대한 사상이다.

온 세계의 자주화에 관한 사상은 그 정당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세계인민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있으며 세계적범위에서 반제자주력량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데 매우 적극적인 작용을 놀고있다. 많은 나라와 민족들, 세계의 진보적인류는 바로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이 투쟁속에 인류가 리상으로 그려온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의 세계가 있다는것을 뚜렷이 내다보고있을뿐아니라 바로 그 길만이 새 세계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는것을 깊이 깨닫고있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시대의 모든 진보적력량, 자주세력을 광범히 망라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가장 폭넓은 진보적운동으로 되고있으며 자주성의 시대를 힘있게 떠밀어나가는 강유력한 추진력으로 되고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을 방지하고 세계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위업에 적극 이바지해나갈것이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더욱 높이자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높이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제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낡은 사회의 상층부를 뒤집어엎고 새 사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는것과 함께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은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자연과 사회, 인간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개조해나가는 류례없이 거창한 투쟁과정이다. 따라서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 지도수준을 높이는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간부는 혁명의 지휘성원이며 그 핵심력량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간부들을 통하여 대중속에 침투되고 집행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얼마나 정확하게 관철되는가 하는것은 간부들의 준비정도, 그들의 지도수준이 어떠한가 하는데 전적으로 달려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간부들의 수준이 높지 못하면 그것이 실천에서 응당한 성과를 나타낼수 없다.

일군들의 지도수준은 정치적 식견과 안목, 자연과 사회에 대한 넓고 깊은 지식 그리고 사업을 조직하고 지휘하는 능력에 의하여 규정된다.

높은 정치실무수준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함께 일군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징표이다. 충실성이 일군들이 지녀야 할 풍모의 기본핵으로, 그들의 생명으로 된다면 정치실무수준은 충실성을 꽃피워나갈수 있게 하는 자양분이라고 말할수 있다.

일군들의 수준에서 중요한것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이다. 지식은 일군들의 수준을 평가하는 기본적인 표징을 이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간부들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지식을 꾸준히 배우며 자기 맡은 사업에 정통하도록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25권, 398페지)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자면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함께 자연과 사회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을 가져야 한다. 과학적인 지식을 가져야 사람은 창조적능력을 지닐수 있으며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다. 지식은 사람들의 인식활동의 성과와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기 위한 그들의 실천활동을 담보한다. 과학적인 지식의 힘에 의하여 사람들은 사물현상의 본질과 그 운동법칙을 깊이 파악하며 창조적인 활동을 벌리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지식은 사람들의 창조적인 인식활동과 실천활동을 담보하는 힘이라고 볼수 있다.

깊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는것은 대중을 교양하고 사업을 조직지도하여야 할 사명을 지닌 일군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일군들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넓고 깊은 지식을 가져야 높은 정치적안목에서 그리고 사물발전의 합법칙성에 맞게 모든 문제를 분석판단하고 정확하게 풀어나갈수 있다.

일군들의 수준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며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능란한 수완이며 전개력이다. 이것은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자질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되며 대중을 조직하고 지휘하는것을 통하여 결실을 맺게 된다. 과학적인 설계와 작전, 능숙한 지휘를 떠나서 모든 사업의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지식은 있으면서도 대중을 움직이는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혁명적전개력이 없다면 정치실무수준이 높은 일군이라고 말할수 없다.

모든 사업을 능란하게 해나가는 일군들의 세련된 지도능력은 넓고 깊은 지식과 결부되여있다. 일군들은 깊은 지식을 소유하고있을 때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을 정확하게 작전하고 과학적인 예견성과 타산에 기초하여 자신있게 전개해나갈수 있다. 주관적욕망만으로는 실정에 맞는 과학적인 설계와 작전을 세울수 없으며 설사 세웠다고 하여도 그러한 작전은 성과를 담보하는것으로 될수 없다.

이처럼 높은 정치실무수준과 능력은 일군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징표로 되며 모든 사업의 승리를 위한 근본요구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로부터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 언제나 지도일군들이 노는 역할에 큰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지도일군들의 수준을 높이는 사업을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의 하나로 제시하시고 그 해결을 위하여 모든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우리의 민족간부대렬은 믿음직하게 자라나고 그들의 자질도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자라난 우리의 충직한 일군들은 자기의 힘과 재능과 지혜를 다 바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웠으며 그들에 의하여 현대적인 대규모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 과학, 교육, 문화 기관들도 훌륭히 관리운영되고있다.

우리의 간부대렬은 특히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보람찬 투쟁을 통하여 충성의 핵심대오로 더욱 튼튼히 꾸려졌으며 그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이 전례없이 높아졌다. 높은 자질을 지닌 우리 일군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뜨거운 충성의 열정을 안고 당에서 맡겨준 어떤 어려운 과업도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다. 이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진군길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가장 빛나는 성과의 하나이며 주체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오늘 당사업, 경제문화사업, 군사사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이룩되고있는 혁신적성과들은 우리 당의 령도의 위대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당의 의도를 받들고 그 구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우리 일군들의 높은 자질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일군들의 지도수준에 대한 요구에는 한계가 없다. 사회가 발전하고 혁명이 전진하는데 따라 일군들의 지도능력을 높이는 문제가 더욱더 날카롭게 제기된다.

오늘 우리 혁명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으며 우리앞에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1차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기술혁명수행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해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조성된 정세와 빨리 발전하는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열렬한 혁명전사로 철저히 준비시키며 우리의 혁명대오를 철벽의 대오로 한층 더 튼튼히 다져야 한다.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굳게 다지는데 바로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그 완성을 위한 근본담보가 있다.

우리는 특히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조국의 경제적위력을 더한층 강화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지금까지 간고한 투쟁을 벌림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비상히 빨리 전진시켜왔으며 세기에 빛날 위대한 변혁을 이룩하였다. 이 위대한 전변의 력사에 대하여 우리 인민은 남다른 커다란 긍지를 간직하고있으며 후대들도 대를 이어가면서 그것을 자랑으로 삼을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만족할수 없으며 더우기 전진의 발걸음을 늦출수 없다.

조국의 분렬과 항시적인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오는 무거운 부담을 걸머지고 있는 조건에서도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당이 펼쳐준 휘황한 설계도를 빛나게 실현하여야 하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일군들로 하여금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지도수준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실속있고 깊이있게 조직전개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제의 규모가 비상히 방대해지고 부문사이의 생산적련계가 전례없이 복잡해졌으며 기술장비수준이 매우 높아진 조건에서 지도일군들의 수준이 낮으면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원만히 할수 없으며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없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는 하나의 창조적활동이며 그것은 일군들의 높은 지도능력을 전제로 한다.

자기 부문의 경제사업을 현대적생산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고 기업관리를 깐지고 실속있게 하며 생산을 현대화하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과 같은 모든 사업은 오직 지도일군들이 높은 기술실무적자질을 소유할 때만이 원만히 보장될수 있다. 오늘 새로 조직된 련합기업소들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그 생활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며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독립채산제를 당의 요구에 맞게 바로 실시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능숙하게 풀어나가는가 하는것은 결국 이 사업을 담당하고있는 일군들의 지도수준에 크게 달려있다.

경제사업뿐아니라 다른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의 성과도 일군들의 수준에 의하여 담보된다. 높은 자질을 소유한 일군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로숙하고 깊이있게 하며 군중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적원칙에서 웅심깊게 처리한다. 수준이 있는 일군은 정치적으로 세련되고 남다른 인간적향취를 풍긴다. 그러한 일군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겸손하고 소탈하며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기도 하고 흔들어놓기도 하며 때로는 불타오르게도 하고 또 어루만져도 주는 선전자, 인간교양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다. 그러나 수준이 어린 일군은 사람들을 만나 틀부터 차리기를 좋아하며 담화도 생나무꺾듯이 막막한 훈시나 하는 식으로 한다. 만일 일군들이 사람들을 소탈하게 대하고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고충과 가지고 있는 의견을 들어보면서 전문적인 문제에까지 파고들어가 의견을 나눈다면 그러한 일군은 사람들속에서 더 존경을 받으며 한결 돋보이게 될것이다. 그리고 일군들이 아는것이 없고 미리가 비면 군중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하는데서도 협애하고 조잡하여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에 금이 가게 하는 엄중한 후과를 빚어낼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다 일군들의 수준을 높이는것이 오늘 사업의 높은 성과를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되는가 하는것을 말해준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1만톤프레스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짧은 기간에 훌륭히 만들어내고 락원기계련합기업소에서 대형산소분리기를 가장 선진적인 방법으로 생산한것과 같은 기적적인 위훈을 창조할수 있은 중요한 비결도 결국

이꾼 일군들이 높은 자질을 가지고있으며 또 사람과의 사업을 당의 의도대로 로숙하고 깊이있게 하여 대중의 창조적지혜를 옳게 조직동원한데 있다.

우리 혁명이 비상히 높은 단계에 올라선 지금 어디서나 절박하게 요구되는것은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더욱 높이는것이다. 일군들은 오직 자기의 수준을 더욱 높여나갈 때만이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있게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으며 당과 수령에게 참답게 충성다할수 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활동에서 표현된다. 실천활동을 떠난 충실성이란 있을수 없다. 실제적인 사업성과로 당을 받드는 사람이 진정으로 당에 충직한 사람이다. 실천활동으로 당을 받들고 충성다하자면 실력이 있어야 한다. 실력이 없으면 당의 위업에 충성다할수 없으며 조국과 인민, 혁명을 위하여 참답게 이바지할수 없다. 이것은 충실성과 실력이 뗄수 없이 련결되여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일군들의 자질, 지도수준에 대한 당의 요구는 비상히 높다. 우리 당은 모든 일군들이 막히는데가 없는 유능한 일군, 하나가 열, 백을 대신할수 있는 실력가가 될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런 높은 자질, 지도수준을 가져야 당과 수령의 의도를 훌륭히 실현해나가는 혁명전사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일수 있으며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더 많은 기여를 할수 있다.

일군들은 자신의 지도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되는가 하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당이 요구하는 진짜배기실력가가 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더욱 높이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그들의 정치리론수준을 높이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언제나 주체의 사상리론을 체득하기 위한 학습을 꾸준히 하여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85페지)

일군들은 당정책의 선전자, 옹호자, 관철자이다.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당의 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높은 정치리론수준을 소유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사상리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발전풍부화시킨것으로서 거기에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주어져있다.

우리 당의 사상리론을 깊이 새길때 높은 정치리론수준을 지니고 모든 문제를 정책적선에서 옳게 판단할수 있으며 당의 의도에 맞게 제기되는 혁명과업을 훌륭히 해결해나갈수 있다.

우리 일군들은 특히 자기 부문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정통하고있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에는 매 시기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틀어쥐고 관철하여야 할 정책적과업들이 전면적으로 명백히 밝혀져있다.

모든 일군들은 우리 당의 사상과 리론, 로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함으로써 당이 의도하는 문제를 높은 수준에서 훌륭히 관철해나가는 당정책관철의 기수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이와 함께 과학기술지식, 경제관리지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오늘 세계적으로 과학과 기술은 비상히 빨리 발전하고있으며 과학기술의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이 하나의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다.

일군들은 현대과학기술과 그 발전추세를 잘 알아야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깊이있게 할수 있으며 인민경제

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실속있게 풀어나갈수 있고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을 이룩할수 있다.

현대과학기술과 경제관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경제지도일군으로서의 응당한 권위와 발언권을 가질수 없고 경영활동과 경제운영을 시대적추세에 맞게 잘할수 없다. 실천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기술혁명에서 높은 성과를 이룩하고 어려운 과학기술적문제들, 경영문제들을 훌륭히 해결하여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단위들의 일군들은 례외없이 다 과학기술지식과 경제관리지식을 소유한 준비된 사람들이다.

일군들은 또한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령도예술을 소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시고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신 주체의 사업방법과 령도예술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의 비범한 령도풍모와 령도예술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님과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과 령도예술, 숭고한 령도풍모는 공산주의혁명가들이 그대로 체득하고 실천투쟁에서 구현하여야 할 교귀한 구감으로 되며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창조해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원천으로 된다.

우리 일군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과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과 령도예술, 숭고한 령도풍모를 적극 따라배우고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모든 사업을 대담하게 설계하고 작전하며 어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대중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훌륭히 완수해나가는 능력있는 일군으로 자신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일군들의 지도수준은 결코 저절로 높아지지 않는다. 일군들은 혁명가의 높은 정열과 지칠줄 모르는 탐구력을 가지고 꾸준히 학습함으로써만 자신의 수준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으며 당이 요구하는 참다운 실력가가 될수 있다. 학습을 게을리하면 자연히 머리가 비게 되고 나중에는 락오자가 되여 자기의 혁명초소를 지켜낼수 없게 된다.

모든 일군들은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높은 책임감과 자각을 가지고 자기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학습하고 또 학습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정열가, 독학가가 되여 더 높은 수준을 가진 참다운 실력가로 튼튼히 준비될 때 혁명하는 당, 전진하는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영예는 더욱 빛날것이며 사회주의건설에서는 혁신적성과들이 끊임없이 창조될것이다.

우리 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을 따라 멀리 전진하였으며 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찬란한 전망이 펼쳐져있다.

조선혁명의 향도적기치인 우리 당은 조국과 혁명, 민족의 운명을 빛나게 개척하면서 우리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고있다.

우리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혁명적기치밑에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휘황한 포부를 안고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위업을 빛나게 완수하여야 한다.

모두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굳게 뭉쳐 자기의 창조적지혜와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는 길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자.

사회주의사회 발전과 완성의 몇가지 문제

리 원 경

인간은 미래를 동경하는 공통된 지향을 가지고있다. 밝은 미래에 대한 갈망은 특히 억압받고 착취받는 근로인민대중속에서 강렬하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리상도 근로대중의 이러한 념원을 반영한것이다.

인류의 최고리상을 구현하고있는 학설이 바로 공산주의리론이다. 이 학설은 언제나 과학적이였으며 근로대중의 자주성의 실현정도와 사회력사적조건의 변화에 상응하게 끊임없이 발전하여왔다.

봉건주의와 교체하여 대두한 자본주의의 내재적모순이 첨예화됨에 따라 공상적사회주의는 과학적사회주의에로 전환되였으며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단계에 들어서고 사회주의가 실재하게 되면서 사회주의의 동시적승리에 관한 사상 대신에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에 관한 사상이 지배하게 되였다.

사회주의가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체계로 발전하고 제국주의가 지구상의 다른 부분에서 최후발악을 하고있는 새로운 력사적조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과 그 전망에 대한 구체화된 양상을 가질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전진하는 력사와 더불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관한 표상이 끊임없이 발전하는것은 완전히 합법칙적인것이다.

지금 정권을 잡고 새 사회 건설을 령도하고있는 공산당, 로동당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자기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고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어느 한 대륙,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세계적판도에서 현실로 되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경험들이 수많이 창조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다양한 길이 열리게 되였다. 우리 시대 공산주의혁명리론은 이 풍부한 력사적경험의 리론적총화인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을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과 관련된 원칙적문제들을 사회력사발전의 객관적합법칙성과 우리 나라의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여 과학적으로 해명하심으로써 사회주의사회의 발전과 그 완성에 관한 새로운 리론을 확립하시였다. 이 리론은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정을 통하여 진리성이 남김없이 확증되고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는데 따라 그 생활력이 더욱더 높이 발휘되고있는 불멸의 혁명학설이다.

＊ ＊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장구한 투쟁로정을 거쳐 실현되는 력사적위업이다.

한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때로부터 근 70년의 세월이 흘렀으며 사회주의가 세계적인 체계로 발전한지도 40년이 된다. 이 짧지 않은 기간에 축적된 가장 귀중한 경험은 프로레타리아혁명이 주요자본주의나라들에서 거의 동시에 련속적으로 승리하고 사회주의가 비교적 짧은 시기를 거쳐 완전히 실현되리라고 하였던것은 예측에 불과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상

대적으로 장기성을 띠는 복잡한 력사적 로정을 밟게 된다는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의 장기성을 똑똑히 보고 그에 맞게 옳바른 전략전술적대책을 세우는것은 사회주의사회 발전과 완성을 위한 투쟁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이다. 이 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에 회의적으로 대하거나 그것이 거치게 되는 력사발전단계들을 무시하고 뛰여넘으려는것과 같은 편향을 범하지 않을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장기성은 혁명의 국내적요인과 국제적요인에 의하여 제약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식민지농업국가의 매우 뒤떨어진 생산력을 물려받은 조건에서 사회주의혁명을 하였으며 세계에 자본주의가 아직도 상당한 힘으로 남아있는 환경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1권, 267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길은 혁명의 국내적요인과 국제적요인의 호상작용속에서만 개척될수 있다. 이 두가지 요인중 어느 하나라도 사상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문제를 추상적으로 취급하는 태도이며 주관주의적착오를 범하는 결과를 낳을수 있다.

혁명의 국내적요인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수많은 요인들가운데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행정의 장기성을 규제하는 주되는 국내적요인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비교적 오래동안 낡은 사회의 유물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남아있게 된다는 사실이다.

사회주의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력사적전환으로 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혁명의 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낡은 사회의 유물은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 남아있게 된다.

사회주의 이전사회들에서는 착취사회로서의 그 공통성과 관련하여 여러 사회의 잔존물들이 뒤엉켜 병존한다. 사회주의혁명은 이러한 낡은 사회의 잔존물들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한다. 그것은 사회주의제도의 확립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실현될수 있고 또 생산력이 뒤떨어진 나라들에서도 가능하다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적대계급을 청산하고 착취와 빈궁의 근원을 종국적으로 없애는 력사적과업은 실현되지만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 육체로동과 정신로동, 중로동과 경로동,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로 표현되는 로동의 차이, 사회성원들사이의 물질문화생활수준에서의 차이는 계속 존재한다. 낡은 사회의 유물과 관련하여 남아있게 되는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는것이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의 당들앞에 나서는 주되는 투쟁과업으로 된다.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가 소멸된 완전한 사회주의사회가 실현되였다고 하여 낡은 사회의 유물과의 투쟁이 끝나는것은 아니다. 낡은 사회의 유물이 집요하게 작용하기때문에 그와의 투쟁은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한 다음에도 계속된다.

낡은 사회의 유물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사회발전의 력사적단계에 따라 각이하게 전개되면서 비교적 오래동안 지속된다.

주체의 공산주의혁명리론은 현시대가 혁명의 국내적요인과 함께 국제적요인도 중시할것을 요구하는 시대라는것을 밝혀주고있다.

혁명의 국제적요인도 국내적요인만큼 복잡하고 다양하게 작용한다. 개별적나라들의 혁명투쟁은 민족적인것인 동시에 세계혁명의 한 부분을 이룬다. 세계혁명은 개별적나라들에서 혁명이 승리하고 그러한 나라들의 대렬이 점차 늘어나는 과정을 통하여 종국적으로 완수되게 된다. 세계혁명발전의 이러한 합법칙성으로부터 혁명의 국제적요인은 사회주의건설에 매우 복잡하게 작용한다.

매개 나라 혁명투쟁이 서로 지지하고 보충하는 관계에 있으며 세계혁명이라는 하나의 흐름에 합류하고있다는 사정과 관련하여 혁명의 국제적요인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매개 나라 혁명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며 혁명투쟁을 떠밀어주도록 작용한다.

그러나 세계혁명의 승리가 점차적으로 실현된다는 사정과 관련하여서는 혁명의 국제적요인이 매개 나라 사회주의건설과정에 일정한 복잡성을 조성한다.

세계혁명이 종국적으로 승리할 때까지 사회주의체계와 자본주의체계사이의 대립이 지속되게 되며 그것은 날로 더욱 첨예한 양상을 띠게 된다. 세계적범위에서 벌어지는 두 체계사이의 첨예한 투쟁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나라들이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혁명적이행의 전력사적시기에 제국주의의 침략과 자본주의복구의 위험을 면할수 없게 한다. 전복된 착취계급이 빼앗긴 자기들의 옛지위를 되찾으려고 언제나 시도할뿐아니라 외래제국주의자들이 또한 무력침공과 정치사상적와해를 위한 음모책동을 끊임없이 계속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반대하여 벌리는 제국주의자들의 강화되는 침략책동은 사회주의나라들에서의 발전속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주의나라들은 국제반동들의 준동에 대처하여 국가의 진압의 기능과 방위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것은 력사발전행정에 수많은 난관을 조성시킨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은 특히 경제적으로 뒤떨어졌던 상태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나라들의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듯 한 나라에서 단독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 때만 아니라 사회주의가 세계적체계로 전변된 오늘에 와서도 혁명의 국제적요인은 사회주의건설이 비교적 장기성을 띤 력사적과정으로 되게 하는 조건으로서 작용한다.

혁명의 국내적 및 국제적 요인들은 모두다 사회주의건설에 작용하는 객관적조건들이다. 사회력사적과정으로서의 사회주의건설은 객관적조건의 영향도 받지만 사회의 주인으로 된 인민대중의 주동적활동에 의하여 비상히 빠른 속도로 추진될수 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밝혀주는바와 같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에 의하여 력사적행정이 힘있게 다그쳐지는것은 사회주의사회발전의 일반적합법칙성이다. 따라서 비교적 장기성을 띤 사회주의건설과정이 매개 나라 인민대중의 준비정도, 로동계급의 당과 수령의 령도에 의하여 얼마든지 앞당겨질수 있는것이다.

인류의 력사적전취물인 사회주의제도는 근로인민대중에게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함께 그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담보하는 온갖 가능성을 마련해준다.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인민대중은 사회경제적처지의 공통성,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정치사상적으로 굳게 결합되며 동지적으로 긴밀히 협조한다.

사회주의제도의 이러한 본질적우월성은 인민대중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과 수령의 령도에 의하여서만 높이 발양될수 있다. 당과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으며 그것을 높이 받들어나가는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 력사의 창조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과학성이 뚜렷이 확증된 진리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당의 세련된 지도를 받음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주인으로, 새 사회 건설의 보람찬 창조자로 될수 있었으며 력사의 전진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슬기롭고 존엄있는 인민으로서의 영예를 떨치게 되였다. 조선혁명의 발전과정은 당과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으며 당과 수령을 높이 받들어나가는 인민만이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을 발휘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장구한 로정을 앞당겨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이 순차적로정을 밟아 수행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라 하여도 그것이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진하는 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하여 비상히 빠른 속도로 다그쳐진다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력사적필연성으로 된다.

* *

사회주의사회는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 이행하는 력사적단계에 놓여있는 과도적사회이다.

사회주의사회는 사회경제구성태의 견지에서 볼 때 어디까지나 공산주의구성태의 낮은 단계에 속한다.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로서의 사회주의사회자체도 력사의 흐름과 함께 순차적으로 발전하는것이다.

주체의 공산주의혁명리론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계선을 정확히 긋고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의 징표를 전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주의사회의 발전로정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하기 이전 사회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의 정치적자주성이 실현되였으나 사회의 계급적, 사상정신적, 물질적 측면, 사회의 모든 구성요소들에 낡은 사회의 유물이 일정한 정도로 남아있게 된다. 여기에서는 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과 함께 과도적성격이 뚜렷이 나타난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면 자주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짓밟고 억누르는 온갖 착취계급과 착취제도가 청산되며 인민대중이 자기 손에 주권과 생산수단을 틀어쥐고 자주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 그러나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완전한 평등이 실현되지는 못한다.

사회주의근로자들의 사상정신생활분야에서는 새로운 공산주의사상, 공산주의적정신도덕이 지배하지만 동시에 낡은 사상 잔재, 낡은 사회의 정신적유물들이 일정한 정도로 작용한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면 근로자들의 물질생활분야에서도 커다란 전변이 일어나지만 로동의 차이라든가 사회성원들사이의 물질문화생활수준에서의 차이들은 의연히 남아있으며 특히 지난날 뒤떨어진 생산력을 물려받은 나라들에서는 사회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발전된 나라들의 수준에 따라가지 못할수 있다.

바로 이러한 사정으로 하여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그것은 사회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그 본질적우월성도 과도적성격과의 관계속에서만 높이 발양될수 있다.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와 그 이전의 사회주의사회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표현하는것은 계급적차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이 말한데 근거해서 문제를 보아도 그렇고 우리의 실지투쟁경험에 비추어보아도 그렇고 로동계급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자본가계급을 때려부시고 사회주의혁명을 했다고 해서 완전한 사회주의사회가 건설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어느때든지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을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라고 말한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사회주의사회는 어느때에 가서 실현될것입니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는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없어지고 중산층, 특히 농민대중이 우리를 적극 지지하게 되여야 비로소 이루어질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267페지)

사회주의사회의 계급적본성은 로동계급적성격에 있다. 과도기단계에 놓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로동계급적성격이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며 로동계급과 농민사이의 계급적차이가 의연히 남아있다.

계급관계의 측면에서 온 사회가 로동계급의 모양으로 일색화되기전에는 과도기문제가 해결되였다고 말할수 없다. 그것은 계급적차이가 청산되지 못하고

무계급사회가 실현되지 않으면 자본주의복구의 사회계급적기초가 종국적으로 소멸되지 않으며 특히는 지난날의 소소유자들이 사회주의제도를 진심으로 지지하는데까지 이르지 못하기때문이다. 무계급사회가 실현되여야 자본주의복구의 가능성이 청산되고 과도기가 끝나며 로동계급의 당의 옳바른 령도밑에 공산주의건설위업을 전면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다.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발생한 사회주의사회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과업을 완성하고 무계급사회를 건설함으로써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무계급사회의 실현이 과도기의 종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지만 공산주의의 실현을 말하는것은 아니다. 많은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건설실천은 계급의 폐절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의 완전한 실현이 시기적으로 반드시 일치하는것이 아니며 무계급사회가 공산주의사회보다 선행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회성원들사이의 평등이 실현되는 정도는 사회생활분야에 따라 서로 같을수 없다. 사상정신생활과 물질생활 분야에서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은 사회계급관계에서의 평등을 보장하는 사업보다 더 어렵고 보다 많은 시일을 요한다.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는 쉽사리 없어지지 않으며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하는 사상문화적침투책동과 결합하여 오래동안 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물질생활에서 사회성원들의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자면 끊임없이 늘어나는 물질적수요에 사회적생산력과 로동생산능률의 장성속도를 따라세워야 하는데 이 과업도 결코 쉽게 실현될수 있는것이 아니다. 사상정신생활과 물질생활 분야에서 평등을 완전히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높은 단계에서 해결하여야 할 과업이다.

무계급사회가 실현되면 계급관계의 견지에서 볼 때 온 사회의 로동계급화의 과업이 완수되며 소유관계에서도 전인민적소유의 유일적지배가 확립되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가 청산되게 된다.

그러나 사람의 사상생활과 물질적재부의 생산 및 리용 령역에서는 낡은 사회의 유물이 완전히 청산되지 못할수 있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 남아있는 락후성을 종국적으로 극복하는것이 절박한 문제로 제기된다.

사회관계가 사회적존재의 변화에 따라 발전하는것은 사회발전의 일반적합법칙성이다. 그러나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로동계급적관계의 유일적지배가 실현되고 그것이 사회성원들의 사상적일색화와 그에 기초한 물질적재부생산에서의 높은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요인으로 작용할수 있는것이다. 이러한 유리한 조건을 어떻게 잘 리용하여 공산주의건설의 진군속도를 다그치는가 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조직적의사를 체현하고있는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의 현명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 *

인류는 찬란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중시한다. 인류의 미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승승장구하고있으며 그 앞날은 끝없이 광활하다.

근로대중의 강렬한 지향을 안고 전진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더욱더 빛내이는것은 공산주의운동의 매개 민족부대들앞에 부과된 지상의 과업이다. 이 과업은 미래에로의 전인미답의 길을 곧바로 걸어나가는 혁명의 전위부대, 가장 옳바른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방도를 세우고 신심과 투지에 넘쳐 그것을 실현해나가는 백절불굴의 선진투사들에 의해서만 빛나게 수행될수 있다.

반세기이상의 년륜을 아로새긴 사회주의건설력사는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로정이였을뿐아니라 난관과 시련의 고비를 넘고넘어온 간고분투의 력사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의 장기성과 복잡성, 다양성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앞길이 결코 탄탄한 대로가 아니라는것을 말해준다.

세대에 세대를 이어 계속되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앞길을 곧바로 개척해나가기 위하여서는 옳은 공산주의건설방도를 세워야 한다.

주체의 공산주의혁명리론은 공산주의건설의 기본전략목표와 그 실현방도를 뚜렷이 밝힘으로써 사회주의사회 발전과 완성 문제를 가장 정확히 해결할수 있는 리론적무기를 마련해놓았다.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청산할 과업이 해결된 조건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력사적으로 내려오는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고 그 구속에서 사람들을 종국적으로 벗어나게 하기 위한 투쟁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 투쟁은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과 물질생활의 두 분야에서 벌어지게 된다. 사람들은 사상정신적으로 자유로우며 물질생활령역에서도 넉넉하여야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으며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다.

여기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인간개조와 사회개조, 자연개조의 호상관계문제를 옳게 푸는것이다. 이것을 옳게 해결하지 못할 때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에서 침체와 난관을 피할수 없고 간고한 투쟁으로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튼튼히 지킬수 없게 된다. 오직 인간개조를 기본으로 하여 사회개조와 자연개조를 힘있게 추진시키며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사업도 다같이 밀고나가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점령하려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적극 다그쳐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하에서의 혁명의 계속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발전이다. 낡은 착취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투쟁으로 시작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인 사상, 기술, 문화의 락후성을 없애기 위한 투쟁으로 이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완성되게 된다.》(《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단행본, 13페지)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사상, 기술, 문화의 락후성을 극복하고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것이다.

낡은 사회의 유물, 사상, 기술, 문화의 락후성을 없애기 위한 투쟁은 사회제도의 혁명적개조를 위한 투쟁과 다른 특징을 띠고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과 낡은 사회제도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은 해결하여야 할 과업이 서로 다르며 혁명의 내용과 방식이 또한 각이하다.

낡은 사회제도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은 인민대중이 계급적 및 민족적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사회정치적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이며 그것은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과업이다. 이 과업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투쟁을 통하여 낡은 사회제도를 없애고 사람들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사회제도,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움으로써 해결된다.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단계에서는 낡은 사회제도를 없애는 문제가 기본혁명과업으로 제기되지만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로동계급의 당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혁명과업으로 된다. 사회제도의 혁명적개조문제가 이미 해결된 조건에서는 인민대중을 자연의 구속과 낡은 사상문화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자연을 지배하는 힘있는 존재로, 혁명적

인 사상과 문화의 참다운 소유자로 만드는 력사적과제가 전면에 제기되며 사회개조의 과업도 3대혁명을 통하여 실현되게 된다.

3대혁명은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 남아있는 낡은 사회의 유물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인것만큼 사회개조의 과업을 이미 수립된 사회관계를 끊임없이 개선해나갈수 있는 사회적조건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과도기단계에서 3대혁명은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의 근원인 농민의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을 극복하고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의 차이를 낳는 신제적기초를 없애게 함으로써 무계급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놓는다.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은 또한 근로자들사이의 로동조건의 차이, 물질생활수준의 차이를 없앨수 있는 토대도 마련해놓는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3대혁명수행과정에 이룩된 물질적조건에 튼튼히 의거하여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그 과도적성격을 점차 극복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상응한 사회관계를 확립할수 있다.

실로 3대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근본방도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 때까지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대한 혁명적기치이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대한 령도를 옳게 보장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과 건설의 무기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적력량이다. 모든 혁명투쟁이 그러한바와 같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도 오직 당의 령도밑에서만 승리의 길을 걷게 된다.

지난날의 모든 혁명투쟁들과 다른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3대혁명의 경우 그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것은 매우 심중한 문제로 나선다.

낡은 사회의 유물을 극복하고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을 강화하는 과정은 결코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질수 없다. 이 과정에는 고도로 의식화된 전체 사회성원들이 참가하며 사회의 모든 물질기수단들이 관여하게 된다. 인간개조, 자연개조, 사회개조의 폭넓은 령역에서 벌어지는 낡은것과 새것사이의 투쟁을 통일적으로 조직지휘할 사명은 사회의 심장이며 혁명의 추진력인 당에 부과되여있다. 로동계급의 당만이 강한 조직력을 가지고 고도의 의식적, 조직적 운동으로서의 3대혁명에 대한 령도를 옳바로 실현할수 있다.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당의 령도적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 더 큰 의의를 부여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대한 당적령도를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합법칙적현상으로 된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이다. 우리 당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위대한 설계도가 펼쳐지며 우리 인민의 영웅적위훈의 력사가 창조된다.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서 조선혁명의 양양한 전도와 조국의 휘황찬란한 앞날을 확신성있게 내다보고있으며 일편단심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를 앞당겨나갈 확고한 결의로 가득차있다.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이 영원히 승리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한 참된 길이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자

최 학 래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1차전원회의는 최근시기 우리 당이 찾아낸 숨은 공로자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숨은 노력과 위훈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심화발전시킬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지금 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는 우리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전사회적범위에서 더욱 힘있게 벌어지고있으며 날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이것은 숨은 영웅들의 사상정신세계가 한없이 숭고하고 그들의 모범이 비상한 감화력을 가지고있는것과 관련된다.

당조직들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계속 심화발전시켜나감으로써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된 공산주의적혁명가로 키우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 *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되고있는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위력한 대중적운동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혁명과 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이른 현시기 우리 당이 중요하게 내세운 방침입니다.》

오늘 우리의 혁명과 건설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높은 단계에서 끊임없이 심화발전되고있다.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인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쳐나가려면 인간개조사업에 더욱 커다란 힘을 넣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어야 하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바로 우리 시대 공산주의적인간의 전형들을 내세우고 그들의 긍정적모범으로 사람들을 감화시킴으로써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간개조사업을 다그치고 대중을 발동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힘있게 추동한다.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숨은 영웅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있는 견결한 혁명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열렬한 애국자, 인민의 참된 충복인것으로 하여 우리 시대 공산주의적인간의 빛나는 전형으로 되고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의 높이와 내용을 보여주는 본보기로서 비상한 감화력을 가진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이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데서 비상한 견인력과 감화력을 가지는것은 무엇보다

도 그것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빛나는 본보기로 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숨은 영웅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핵을 이룬다. 숨은 영웅들의 이러한 충실성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우리 당이 의도하는 문제를 푸는것을 생활과 투쟁의 기본목적으로 삼고 온갖 난관과 애로를 자체의 힘으로 이겨내면서 그것을 끝까지 해결해나가는데서 높이 발현되고있다.

숨은 영웅들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과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을 심장으로 받들고 한생을 바쳐서라도 그것을 기어이 실현해야 한다는 티없이 맑고 뜨거운 마음으로 살며 일해왔다.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에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이 가리키는 한길로만 억세게 전진하는것은 그들의 확고부동한 혁명적의지였으며 철석같은 신념이였다. 바로 이러한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를 지니였기에 숨은 영웅들은 당정책을 관철함에 있어서 순간의 주저나 동요도 몰랐으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높은 혁명성을 발휘하여 당의 의도를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우리 당이 의도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숨은 영웅들이 발휘한 이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는 사람들에게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준비하려면 어떤 정신과 기풍으로 살며 일해야 하는가를 생동하게 보여주는 거울로 된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숨은 영웅들의 모범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는데서 비상한 견인력과 감화력을 발휘하게 되는것이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이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데서 비상한 견인력과 감화력을 가지는것은 또한 그것이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의 빛나는 본보기로 되고있다는것과 관련된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 이것은 숨은 영웅들의 중요한 사상정신적특질을 이룬다.

숨은 영웅들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그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10년, 20년, 30년 세월을 고스란히 바쳐왔다. 그들은 언제나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사색하고 탐구하였으며 여기에 자기의 힘과 지혜와 재능을 다 바치였다.

숨은 영웅들은 조국과 인민앞에 빛나는 위훈을 세우고도 그것을 응당한 일로 여기였으며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서 묵묵히 일해나가고있다. 그 어떤 명예와 보수도 바라지 않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나가는 이들이야말로 참다운 애국자, 열렬한 공산주의자의 빛나는 전형이며 이것으로 하여 그들의 사상정신적풍모는 사람들속에서 그처럼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는것이다.

이 모든것은 숨은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세계가 모든 사람들에게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보다 값있고 보람있게 살려는 강한 충동을 주며 그들처럼 싸워나간다면 놀라운 기적과 위훈을 세울수 있다는 굳은 확신을 안겨준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우리 당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이 가지는 이러한 견인력과 감화력을 깊이 통찰하고 그것을 따라배우는 대중적운동을 벌릴것을 발기하였으며 이 운동을 통하여 인간개조와 나라의 경제기술발전에서 새로운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도록 전당과 전체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고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대중적운동의 방법으로 긍정감화교양을 진행하여 인간개조사업을 다그치며 온 사회에 공산주의적기풍을 확고히 세워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이룩해나가자는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다.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이며 사상개조에서의 성과는 중요하게 사람들의 정신도덕적풍모와 사회의 기

풍이 변모되는데서 나타난다. 사람들의 사상이 개조되면 될수록 그들의 정신도덕적풍모가 더욱 건전해지고 전사회적범위에서 공산주의적으로 살며 투쟁하는 기풍이 확고히 지배하게 된다.

인간개조, 사상개조 문제는 매우 중요하지만 결코 그 어떤 강요나 행정적방법으로는 해결할수 없다. 인간개조의 가장 효과적인 방도는 긍정감화교양이다. 긍정감화교양은 구체적이고 생동한 모범을 통하여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공감시키고 부정을 이겨내기 위한 방도까지 제시해줌으로써 낡은 사상을 극복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을 대중자신이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한다. 이러한 교양사업의 위력은 사람들에게 끝없는 감동과 강렬한 충동을 주는 공산주의적인간의 전형을 내세울 때 최대한으로 높이 발휘된다.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긍정감화교양은 그 포괄범위와 진행방법에 따라 여러가지 형식으로 벌려나갈수 있는것이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우리 시대 공산주의적인간의 전형들을 내세우고 대중적운동의 방법으로 긍정감화교양을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해나감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시대의 고동치는 숨결을 심장으로 느끼고 자신을 대비적으로 돌이켜보면서 낡은 사상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게 한다. 개별적단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치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전사회적범위에서 긍정감화교양을 벌리는 방법, 대중적운동의 방법으로 낡은 사상을 철저히 개조하고 공산주의적기풍을 확고히 세워나간다는 여기에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하여 이 운동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로 하여금 그 어떤 명예나 보수도 바라지 않고 순간을 살아도 값있게 살며 한생을 보내도 보람있게 마치기 위하여 억세게 투쟁하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며 온 사회에 공산주의적기풍이 더욱 확고히 지배하게 한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발전되고있는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떠미는 위력한 대중적운동으로 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혁명실천에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숨은 영웅들을 찾아주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발기하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긍정감화교양의 방법으로 대중적운동을 벌려 인간개조사업을 다그침으로써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 생활기풍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지금 우리의 수많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숨은 영웅들처럼 그 어떤 명예나 보수도 바라지 않고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을 위하여 누가 보건말건 맡겨진 혁명초소에서 성실하게 일해나가고있다. 이러한 기풍이 온 사회에 차고넘치는 가운데 숨은 공로자들이 수많이 배출되였다. 이들가운데는 나라의 연료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절약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로동자발명가도 있고 30여년간 온갖 곤난을 이겨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나라의 송전선건설에 크게 이바지한 영웅전사도 있으며 농촌에 자진진출하여 10여년간 많은 자급비료를 생산하여 지력을 높이고 새땅을 적극 찾아내여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게 하였을뿐아니라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한 협동농장원도 있다. 또한 청춘을 과학연구에 바쳐 20여년간의 정력적인 탐구로 새로운 선광법과 미광처리방법을 완성하고 효능높은 선광시약을 만들어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사회주의건설에 크게 기여한 녀성과학자도 있으며 인민생활을 책임진 주인다운 립장에서 자체의 힘으로 원료기지를 조성하고 집짐승을 많이 길러 로동자들에게 여러가지 부식물을 풍족히

생산공급하여 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인민의 참된 봉사일군도 있다. 바로 이들과 같은 숨은 공로자들이 있기에 우리 공화국이 든든하며 우리 당이 많은 기적적인 성과들을 거둘수 있은것이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소개되고 높이 평가된 이들밖에도 숨은 공로자들의 대오에는 오늘 수많은 로동자, 농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당일군들, 새세대의 청년들이 굳건히 서있다. 북방의 광산과 림산마을로부터 분계연선에 있는 방직공장과 인민병원에 이르기까지, 동해안의 대야금기지와 건설사업소로부터 서해안의 기계공장과 협동농장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계속 배출되고있는 숨은 공로자, 숨은 노력가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세계와 빛나는 위훈은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 새로운 혁신과 비약에로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이 자랑찬 현실은 오늘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가 얼마나 숭고한 높이에 이르고있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으며 우리 당이 이끄는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야말로 거대한 생활력을 가진 대중적사상개조운동이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의 커다란 생활력은 또한 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대중적인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이 일어나고있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찾아주시고 우리 당이 높이 내세운 숨은 영웅들은 과학혁명, 기술혁명의 시대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였다. 과학기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들은 과학탐구의 길에서 주저와 동요를 몰랐으며 불면불휴의 투쟁을 벌려 인민경제적으로 큰 의의를 가지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숨은 영웅들이 보여준 이러한 모범은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광범한 생산자대중을 과학기술의 새로운 요새를 점령하며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높이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로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가치있는 새로운 과학기술적발명들과 기술혁신안들이 수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로선을 관철하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과학원 함흥분원 무기화학연구소에서 새로운 방법에 의한 카바이드생산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여 비날론생산의 넓은 전망을 열어놓고 경공업과학원의 과학자들이 비날론섬유로 고급양복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옷감을 짜는 문제를 과학기술적으로 풀어 우리의 주체섬유로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훌륭히 해결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것은 그러한 대표적인 실례들가운데 하나이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적극 벌려나가는 과정에 락원의 로동계급과 기술자들은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를 가지고 가장 선진적인 방법으로 대형산소분리기를 만들어냄으로써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획기적전환을 가져올 넓은 전망을 열어놓았으며 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는 1만톤프레스를 비롯한 대형공작기계들을 만들어 우리 기계공업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금속공업과 기본건설을 비롯한 인민경제 다른 부문들에서도 대담한 과학기술적 발명들이 제기되고 가치있는 기술개조안들이 계속 창안도입되고있다.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대중적기술혁신운동으로서의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의 불패의 생활력에 대한 힘있는 확증으로 된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벌려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도 혁명적으로 개선되고있다.

오늘 맹산군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우리의 수많은 당 및 국가경제기관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당이 맡겨준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있으며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고 있다.

이처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사상개조와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데서 그 정당성이 뚜렷이 나타났으며 날이 갈수록 더욱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우리는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에서 이룩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이 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당조직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실속있게 벌리는것입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의 불패의 생활력이 확증된 오늘 이 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의 당조직들과 일군들 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실속있게 벌려나가기 위하여 적극 투쟁함으로써 우리 당의 의도를 빛나게 실현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장기간에 걸치는 헌신적인 노력과 탐구로 경제건설과 과학기술발전,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새로운 숨은 공로자들을 찾아내여 적극 내세워주고 그들을 계속 고무추동하는 사업을 잘하는것이다.

지금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는 해방후 새 조국 건설시기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부터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 충직한 혁명전사들도 많으며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공업화를 위한 보람찬 투쟁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맡겨진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키면서 나라의 부강발전에 적극 이바지한 숨은 공로자들도 적지 않다.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나 거창한 변혁과 창조의 시기에나 변함없이 혁명에 몸바쳐 헌신분투하여온 이들이야말로 그 어떤 공명도 바람이 없이 깨끗한 량심으로 당과 수령을 받들어온 충실한 사람들이며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숨은 공로자들이다. 이러한 숨은 공로자들을 찾아내여 적극 내세워주며 그들을 계속 고무추동하는 사업을 잘하여야 대중적운동인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의 위력을 더욱 힘있게 과시할수 있으며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숨은 영웅들과 같은 사상정신세계를 지니도록 교양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할수 있다.

각급 당조직들은 창조와 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속에서 소문없이 큰일을 한 사람들, 누가 보건말건 한생을 고스란히 바쳐나가며 성실하게 일해온 참다운 애국자들을 계속 찾아내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며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이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크고 요란한것만 찾으려 하지 않고 비록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혁명에 리익을 주고 나라에 보탬을 주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쓴것이라면 귀중히 여기고 적극 조장발전시키는 사업을 잘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기 초소에서 신심을 가지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도록 고무추동하는것이다. 당조직들은 특히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후비육성사업에서 공로가 있는 숨은 노력가들을 많이 찾아내고 그들을 내세워주는 사업을 잘해나감으로써 과학혁명, 기술혁명을 더욱 다그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

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심화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새로운 숨은 공로자들을 더 많이 키워내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모든 대중운동이 다 그러하듯이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도 당조직들이 조직정치사업을 잘하여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계속 심화발전시킬수 있다.

각급 당조직들은 우리 당의 의도에 맞게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숨은 공로자로 키워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사업을 심화시켜 그들로 하여금 이 운동의 본질과 정당성을 깊이 인식하고 숨은 영웅들처럼 살며 투쟁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노력하도록 적극 불러일으켜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숨은 영웅들의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본받아 언제나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데 몸과 마음을 다 바치도록 하여야 한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에서 특별히 중요한것은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이 운동을 실속있게 벌려나가도록 하는것이다. 숨은 영웅들은 말로써가 아니라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실천행동을 통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당조직들은 숨은 영웅들처럼 맡은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야 하며 자기 초소를 책임적으로 지켜나가는데서 발양되는 새로운 긍정적인 싹들을 적극 지지해주고 키워주는 사업을 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과정에 얻은 성과들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좋은 경험들을 제때에 일반화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계속 힘있게 이끌고나가야 한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이 운동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80년대속도》창조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자체의 고유한 특성이 있지만 다같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해나가는 공산주의적대중운동이며 당면하게는 사회주의건설에서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자는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결의목표를 세우고 실현하거나 그 집행정형을 총화하는데서 언제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서로 밀접한 련관속에서 벌려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숨은 영웅들처럼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1980년대의 보람찬 진군을 다그쳐나가도록 함으로써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80년대속도》창조투쟁에서 남김없이 발양되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심화발전시키는것은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우리 당이 이룩한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가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나가기 위한 책임적인 투쟁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수천수만의 새로운 숨은 공로자들이 나오게 하여야 하며 대중의 열의를 높여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를 더욱 앞당기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요한 요구

전 일 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령도하는 전기간 언제나 가장 정확한 대외경제정책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대외경제정책이 훌륭히 관철된 결과 오늘 우리 나라의 대외경제관계는 날이 갈수록 더욱 확대발전되고있으며 대외경제사업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지난날 오래동안 세계지도우에서 빛을 잃고 대외경제관계에서 자주적인 당사자로 되지 못하고있던 우리 나라가 오늘은 자주, 친선, 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의 원칙에서 대외경제관계를 널리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대외경제정책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확증으로 된다.

대외경제사업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는 것은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매개 나라가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기초우에서 서로 협조하여야 하며 또 그렇게 하여야만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나라들사이의 경제협조를 끊임없이 확대발전시킬수 있다고 인정한다.》(《김일성저작집》 제19권, 310페지)

대외경제사업은 나라들사이의 경제기술적 교류와 협조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하여 나라들사이에 상품교류와 기술교류, 원조와 차관, 합작과 합영 등 여러가지 형태의 경제적련계가 실현된다.

대외경제사업은 대외정책실현의 한 고리로서 모든 민족국가들이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사업의 하나로 되고있다. 대외경제사업의 성격과 목적, 수행 원칙과 방도는 그것을 담당수행하는 국가의 계급적성격과 대내경제정책에 의하여 규정된다. 반동통치배들 특히 현대제국주의자들은 대외경제사업을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예속, 착취와 략탈의 수단으로 삼고있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주의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리고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대외경제사업을 벌리고있는것이다.

대외경제적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는 것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더욱 다그칠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고리의 하나이다.

혁명과 건설은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것만큼 매개 나라가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은 응당하며 필수적요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매개 나라가 자기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은 다른 나라들과의 대외경제교류가 필요하지 않다는것을 의미하지 않

는다.

매개 나라의 민족경제는 다른 나라 경제와 밀접한 련계속에서 발전하게 된다. 나라마다 자연경제적조건이 서로 다르고 생산력발전수준과 과학기술발전수준도 다르다. 이로부터 매개 나라에서 생산되는 원료와 제품의 품종과 량도 서로 다르지 않을수 없게 되는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여러가지 생산수단물과 소비품, 과학기술과 생산경험 등에 대한 나라들사이의 교류를 진행하지 않을수 없게 하고있다.

물론 나라들사이의 경제구조와 분업구조상 차이, 생산력과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에서의 차이는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며 그것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러나 그것이 나라들사이의 국제적인 경제 협조와 교류를 결코 배제할수 없는것이다. 나라의 경제건설에 필요한 앞선 기술과 생산경험을 받아들이고 원료와 기계설비, 소비품을 비롯한 각종 생산물들을 유무상통하는 대외경제교류는 반드시 필요하고 계속 강화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사업인것이다.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는것은 현시기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현실적요구이기도 하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사회주의경제건설로선을 높이 받들고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웅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실현하고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이러한 투쟁행정에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는 더 많은 원료와 자재, 새 기술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그가운데는 우리 나라에 아직 없거나 개발하지 못한것도 적지 않다. 그것을 모두 우리 자체로 생산하고 개발하는것이 경제적으로 반드시 유리한것은 아니며 그렇게 할수도 없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점령하고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하여서는 현대적인 새 기술을 널리 받아들이는것이 필요하다. 경제 합작과 합영을 통하여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야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것이다.

대외경제사업을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이처럼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방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적인 대외경제정책이 훌륭히 관철된 결과 최근년간 우리 나라의 대외경제사업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무엇보다도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경제협조와 교류 관계가 높은 수준에서 발전하고있다.

세계사회주의시장에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며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원칙이다.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는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고 매개 사회주의나라들의 경제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언제나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경제 협조와 교류 관계를 강화발전시키는 방침을 일관하게 견지해왔다.

특히 1984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솔하신 당 및 국가대표단의 쏘련과 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력사적인 방문은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경제 협조와 교류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우리 당의 정확한 대외경제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와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 관계는 날로 활발해지고있다. 지난해만도 우리 나라와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사이에는 자원탐사 및 개발과 그 리용분야, 새로운 동력분야, 전자공업과 기계공업 분야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수많은 경제 협정과 계약들이 체결되였다. 그리고 일부 사회주의나라들과는 장기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무역액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한 대책들도 합의하였다.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에서 이룩한 이러한 성과들은 세계사회주의시장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할데 대한 우리 당 대외경제정책의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당 대외경제정책 관철에서 이룩한 성과는 또한 발전도상나라들과의 경제협조관계가 높은 단계로 강화발전하고 있는것이다.

남남협조의 정신에 기초하여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발전도상나라들의 새 사회 건설을 적극 도와주는것은 우리 당이 대외경제사업에서 견지하고있는 중요한 원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남협조방침에 따라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세계의 수많은 발전도상나라들과 다방면적인 경제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우리 나라는 지난 시기 30여개의 발전도상나라들에 공장과 관개시설, 공공건물 등 근 70개 대상을 건설해주었으며 50여개의 발전도상나라들에 5,000여명의 기술자, 전문가들을 보내여 성의껏 도와주었다. 최근에는 우리 나라와 이 나라들사이에 농업분야에서의 합작과 합영을 널리 조직하고 있다.

새 사회 건설에 나선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우리 나라의 이러한 원조는 숭고한 국제주의정신에 기초한 사심없는것으로서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대외경제사업을 더욱 확대강화하여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립각한 형제나라들과의 경제기술적협조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20권, 422페지)

현시기 대외경제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높은 생산적앙양을 일으키는것이다.

나라의 튼튼한 경제력은 대외경제교류를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물질적기초이다. 자립적민족경제에 기초하여야 다른 나라들과 경제교류를 진행하여 대외경제관계에서 자주성을 지키고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갈수 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업을 높이 받들고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과 대외경제교류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채취공업, 금속공업, 전력공업 부문에 힘을 집중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수출품생산을 급속히 늘여야 한다.

수출은 곧 생산이다. 수출을 늘이는것은 각종 경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며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교류과정에서 생기는 지불의무를 리행할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된다. 따라서 경제적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수출을 늘여야 나라의 대외지불능력을 높이고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교류를 주동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는것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는 수출품생산을 늘여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들사이의 경제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벌려나갈수 있는 경제적밑천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

현시기 대외경제사업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다른 나라와의 경제 합

작과 합영을 적극 실현하는것이다.

경제합작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적극 실현하는것은 대외경제적교류를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제합작은 나라들사이에 기계설비, 기술, 원료, 자재, 반제품, 토지와 로력 등을 서로 합하여 생산을 진행하는 국제적협업의 한 형태이다. 경제합작의 주요목적은 합작대상국의 앞선 기술을 받아들이며 유리한 생산요소들을 리용하여 효과적인 생산을 조직하는데 있다. 나라들사이의 경제합작은 해당 나라에서 상대적으로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유리한 생산조건들과 선진기술들을 공동으로 리용하는것을 전제로 하고있는만큼 경제적효과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경제합작은 우리 나라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인민경제의 현대화수준을 한계단 높일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된다.

우리 나라에는 기계공업의 튼튼한 토대와 무진장한 철광석자원이 있다. 이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다른 나라들과 합작한다면 질좋은 기계 제품과 설비들을 눅은 값으로 만들어낼수 있을것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 풍부하게 매장되여있지만 아직 개발하지 않고있는 각종 유색금속, 비금속광물, 희유금속 자원들에 대한 탐사와 개발, 채취 분야에서 경험과 기술이 있는 나라들과 합작한다면 우리 나라 경제발전에 유익할뿐아니라 다른 나라들에도 경제적리익을 줄것이다.

경제합작과 함께 다른 나라들과 합영을 적극 실현하는것도 대외경제교류를 확대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합영은 여러 나라들이 공동으로 투자한 기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투자몫에 따라 분배를 받는 국제적기업조직의 한 형식이다. 다른 나라와 합영을 적극 실현하는것은 앞선 생산 및 경영 기술을 받아들이며 부족한 생산요소들을 보충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주체적인 합영법을 채택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합영을 적극 장려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합영법이 발포된후 우리와 합영할것을 요구하는 나라들이 날로 늘어나고있다. 지난 1년동안에만 하여도 수십개 대상에 대한 합영회사조직이 추진되였으며 적지 않은 대상들은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실천적인 리행단계에 들어서고있다.

대외경제사업을 수행하는 부문과 단위들에서는 우리 나라 경제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합작과 합영을 다그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우선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경제합작을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공동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계급적형제나라들이다. 그리고 사회주의나라들의 경제는 위기와 파동을 모르고 계획적으로 빨리 발전해나가고있다. 따라서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경제합작은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위하여 싸우는 계급적형제들사이의 경제교류관계인것으로 하여 협조적인 성격을 띠고있다. 그리고 모든 거래조건이 호혜적이고 유리하다.

특히 사회주의나라들에서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현대 첨단과학기술적 성과들이 많이 이룩되고있는 조건에서 우리와 사회주의나라들사이에 경제합작을 널리 진행한다면 최신과학기술성과들을 널리 받아들여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현대화수준을 훨씬 높이고 경제발전을 더욱 다그칠수 있을것이다.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경제합작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경제적능력과 투자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경제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대상부터 먼저 합작을 실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나라들과 함께 발전도상나라들과의 경제 합작과 합영도 널리 진행하여야 한다.

발전도상나라들과는 특히 농업분야에

서 합작과 합영을 광범하게 조직하는것이 중요하다. 현재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형편 특히 식량사정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조건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의 농업생산을 경제기술적으로 도와주어 식량을 자급자족하도록 협조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더욱 강화하며 남남협조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발전도상나라들과 농업분야에서의 합작과 합영을 널리 진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농업 기술과 경험을 이 나라들에 광범히 보급해줄수 있으며 농업기술자들도 많이 양성해줄수 있다. 또한 우리 나라와 발전도상나라의 농업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서로 힘을 합쳐 해당 나라에 맞는 농법과 종자도 새로 만들어낼수 있다.

우리 나라가 농업기술과 농사경험, 기술수단을 대고 발전도상나라들이 토지와 로력을 대는 식으로 농업 합작과 합영을 적극 벌려나간다면 발전도상나라들은 농업의 기술적락후성을 퇴치하고 식량문제를 자체로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될것이다. 한편 우리 나라는 이 나라들로부터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적지 않게 해결할수 있다.

발전도상나라들과 경제 합작과 합영을 널리 벌리는데서 중요한것은 합작과 합영 대상을 옳게 선택하고 경제적효과성을 타산하여 경제계약을 체결하고 그것을 정확히 리행하는것이다.

대외경제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신용제일주의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신용은 대외경제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경제교류를 진행하기 위한 담보이다. 대외경제교류에서 신용을 철저히 지키지 않고서는 대외시장을 부단히 넓혀나갈수 없을뿐아니라 나라의 대외적권위와 위신을 높여나갈수 없는것이다.

대외경제교류에서 신용을 철저히 지키자면 여러가지 계약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하며 제품의 질을 높이고 납입기일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국제경제관계와 외국경제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며 그에 정통하는것은 대외경제사업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나라들사이의 경제교류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활발히 벌어지고있는 오늘 대외경제사업부문 일군들에게 국제경제관계와 다른 나라 경제에 대한 깊은 지식을 소유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국제경제관계와 다른 나라 경제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안받침되여야 대외경제사업을 계획적으로, 전망적으로 옳게 진행해나갈수 있다.

대외경제사업을 옳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세계시장구조와 국제거래관계의 움직임과 그 발전추세를 비롯한 국제경제관계의 실태뿐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제정책과 경제발전수준, 그 구조와 발전전망, 자연부원상태 등을 잘 알아야 한다.

국제경제관계와 외국경제에 대한 연구는 해당 전문일군들속에서 깊이 진행할뿐아니라 간부들과 실무일군들속에서도 일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대외경제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의도와 요구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과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더욱 활발히 벌림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수행하고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경공업혁명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

리 길 두

인민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는것은 우리 당이 지니고 있는 숭고한 사명이다. 우리 당은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제시하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언제나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왔다. 혁명하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보다 더 영예로운 임무는 없으며 인민생활을 높이는것보다 더 중요한 과업은 없다.

우리 혁명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우리 당은 경공업혁명을 일으켜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경공업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경공업혁명을 일으켜 질좋은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을 많이 생산하여야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고 문명하게 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의 옳바른 정책에 의하여 오늘 우리 인민은 누구나 다 먹고 입고 쓰고 살 근심걱정없이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자랑찬 승리로, 빛나는 성과의 하나로 된다. 사회주의건설이 높은 단계에 올라설수록 인민들은 보다 더 행복한 생활을 요구하게 된다. 인민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그들에게 보다 윤택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농업과 수산업을 발전시키는것과 함께 경공업혁명을 계속 일으켜 인민소비품생산을 끊임없이 늘여야 한다.

경공업혁명은 짧은 기간에 인민소비품의 가지수와 량을 결정적으로 늘이고 그 질을 더욱 높여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늘어나는 생활상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인민들의 소비구조가 복잡해지고 소비생활이 다양해지는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있게 되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같은 소비품인 경우에도 량적으로 많이 필요한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것도 있으며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기호도 같지 않다. 로동자, 농민과 사무원이 요구하는 소비품에서 차이가 있고 남자와 녀자, 어른과 어린이들의 수요와 기호도 서로 다르며 지방에 따라 그들이 먹고 입고 쓰고사는 풍습도 꼭같지 않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 나라의 모든 지역 주민들의 날로 높아지는 생활상 요구를 제때에 충족시켜 그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자면 소비품의 가지수와 량을 늘이고 그 질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소비품은 원래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그것은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더욱 늘어나게 된다. 소비품의 특성과 근로자들의 수요구조에 맞게 생활필수품의 가지수와 량을 늘이고 질을 높여야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줄수 있다. 경공업혁명을 일으켜 보기 좋고 쓸모있는 일용품과 맛있고

영양가높은 식료품을 비롯한 더 좋은 생활필수품들을 많이 생산할 때 근로자들의 일상생활에서 제기되는 물질적수요를 넉넉히 충족시키고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한계단 더 높은 수준에로 올려세울수 있다.

경공업혁명을 일으키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고 인민들에게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높여주는 중요한 정치적과업으로 된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지만 국가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해주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자면 인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여 그들이 정치적으로뿐아니라 물질문화적으로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경공업혁명은 질좋은 여러가지 소비품을 충분히 공급할수 있게 함으로써 인민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더 잘 보장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물질문화분야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한다.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은 그들에게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안겨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인민들은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통하여 자기 민족의 슬기와 재능, 무궁무진한 힘에 대하여 더 깊이 느끼게 되며 혁명하는 긍지, 투쟁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위하여 몸바쳐투쟁할 굳은 각오를 튼튼히 다지게 된다. 그러므로 인민들의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높여주려면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것이 중요하다. 경공업혁명은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짧은 기간에 보다 윤택하고 문명하게 만들고 새로운 높은 수준에로 계속 올려세울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이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간직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장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게 한다.

우리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다그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려는 높은 사상적 각오를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로력적열성을 적극 발휘하고있다.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로력적열성은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게 하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된다.

근로자들로 하여금 혁명적열의와 로력적열성을 끊임없이 발양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계속 다그쳐나가게 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경공업에 힘을 넣어 인민소비품생산을 더욱 늘이는것이다.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여야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정치도덕적자극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원칙을 철저히 구현해나갈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적극 추동할수 있다.

경공업혁명을 일으켜 근로자들에게 발전하는 현실에 맞는 질좋은 여러가지 천과 옷, 맛좋고 영양가높은 식료품, 현대적인 일용품을 비롯한 소비품을 많이 생산보장할수록 그들은 오늘의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준 영광스러운 당의 크나큰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일념을 안고 혁명적열의와 로력적열성을 다내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게 된다. 오늘 우리 당이 당면하게 내세우고있는 기간공업과 철도운수에 힘을 넣으며 알곡생산과 수산물생산을 더욱 늘이는 문제도 경제건설의 보다 높은 전망목표를 실현해나가는 문제도 결국은 경공업혁명과 밀접하게 련관되여

있다. 올해와 앞으로 몇해동안 경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려는 당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할 때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는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될수 있으며 나라의 경제적위력은 비상히 강화될수 있다.

이 모든것은 경공업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방침이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성과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방침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경공업혁명을 일으켜 근로자들에게 여러가지 생활필수품을 풍족하게 생산보장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경공업혁명을 일으키는데서 우리 당이 확고히 견지하고있는 기본원칙은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소비품생산을 늘여 인민들의 생활상 수요를 충족시키는것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자체의 자원과 기술, 자체의 힘으로 인민소비품을 생산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왔다. 우리 당은 경공업혁명을 일으켜나가는 최근 년간에만 하여도 이미 있던 경공업공장들을 현대적으로 더욱 개조하고 많은 경공업공장들을 새로 일떠세웠으며 전반적인 경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보다 강화하였다. 우리 당은 경공업공장들의 생산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도록 하는 한편 중요 경공업제품들의 생산을 전문화하도록 하였으며 인민경제 여러부문 공장, 기업소들과 가내작업반들에서 일용잡화를 군중적으로 생산하도록 하는 현명한 조치를 취하였다.

우리 당이 경공업혁명을 일으키기 위하여 큰 힘을 넣은 결과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는 밝은 전망이 펼쳐지게 되였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경공업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 인민소비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임으로써 인민들의 생활을 당이 의도하는 높은 수준에로 빨리 올려세워야 한다.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는 문제는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우리는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경공업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경공업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공업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이 사업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지는것이다.

경공업혁명에 대한 관점을 바로 가지는것은 그 성과적수행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제기된 혁명과업을 옳바른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대하여야 그것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수행하려는 각오를 튼튼히 가질수 있으며 그 관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수 있다. 경공업혁명을 수행하는데서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거기에 담겨진 당의 의도를 얼마나 깊이 인식하는가에 따라 그 성과여부가 크게 좌우되게 된다.

경공업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방침에는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넉넉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려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당의 숭고한 의도가 담겨져있다. 경공업혁명은 단순히 소비품생산을 늘이는 경제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실제적인 지위를 물질적으로 확고히 보장해주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과업이다. 그것은 인민들의 늘어나는 당면한 생활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투쟁일뿐아니라 나아가서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하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매우 절박한 혁명과업으로 된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공업혁명의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그 성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같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경공업혁명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공업혁명을 직접 담당한 주인된 자각을 깊이 간직하고 자기들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언제나 창조적으로 사색하며 모든 일을 대담하게 설계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야 한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체로 설비도 더 해결하고 원료, 자재도 마련하는 등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며 모자라는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면서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경공업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경제지도일군들이 조직지도사업을 잘 짜고드는것이다.

모든 사업에서의 성과의 비결은 조직지도사업을 잘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조직지도사업을 세밀하게 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혁명과업도 제대로 수행해나갈수 없다. 더우기 사람들이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소비품을 량적으로 많이 만들면서도 그 질을 최상의 수준으로 높여야 하는 경공업혁명은 조직지도사업을 잘 짜고들지 않고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조건타발을 앞세우면서 일을 무책임하게 하거나 요령주의적으로 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자신을 철저히 경계하며 높은 당성과 로동계급성,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적극 발휘하여 경공업혁명을 위한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섬멸전의 방법으로 해제껴야 한다.

경공업혁명을 일으켜나가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으며 이 과정에는 여러가지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될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나설수록 중심고리를 틀어쥐고 대중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아래실정을 구체적으로 장악한데 기초하여 빈틈없는 조직사업과 능숙한 지휘로 걸린 문제를 하나하나 모가 나게 풀어나가야 한다. 특히 경제사업을 맡은 지도일군들은 인민생활을 책임진 주인다운 립장에 서서 소비품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 자재를 우선적으로 넉넉히 대주며 모든 경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리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인민소비품은 매우 다종다양하며 매개 경공업 공장, 기업소들의 실정은 서로 같지 않다. 도경제지도기관들과 경공업부문의 일군들은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환경과 조건에 맞게 조직지도사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지도일군으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으며 경공업혁명에서 나서는 복잡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경공업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원료기지를 잘 꾸리고 원료생산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 나라에 마련되여있는 경공업의 생산잠재력은 대단히 크다. 우리 인민이 지난 기간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마련해놓은 위력한 경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리고 만가동시키는 문제는 원료기지를 어떻게 꾸리고 원료와 자재를 얼마나 잘 대주는가에 달려있다. 원료, 자재를 충분히 대주기만 하면 경공업공장들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계속 정상화할수 있으며 질좋고 다양한 소비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해낼수 있다.

경공업의 원료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원료를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화학공업이 맡고있는 임무는 매우 무겁다. 화학공업을 발전시켜야 경공업에 필요한 솜과 합성고무, 합성수지 같은 원료, 자재를 많이 생산보장할수 있으며 경공업공장들을 만가동시킬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경공업혁명은 곧 화학혁명이라고 말할수 있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경공업혁명의 성과여부가 자신들의 투쟁여하에 크게 달려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새로운 화학섬유생산기지를 더 꾸리고 지금 있는 화학섬유공장들의 생산능력을 더욱 확장하며 모든 화학설비들에 만부하를 걸어 화학섬유와 염화비닐, 합성고무 등 화학제품과 여러가지 보조원료, 화학약재, 칠감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대규모의 경공업원료기지와 함께 중소규모의 경공업원료기지를 이르는곳마다에 잘 꾸리는것이 중요하다. 중소규모의 경공업원료기지를 이르는곳마다에 계속 꾸려놓아야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경공업제품을 더 많이 생산할수 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과 지방들에서는 철제일용품소재기지와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중소화학공장을 비롯한 중소규모의 경공업원료기지들을 대대적으로 꾸리며 자체의 실정에 맞게 생활필수품직장들을 더 많이 조직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소금밭면적을 늘이고 그 생산방법을 개선하여 소금생산을 훨씬 더 장성시켜야 한다. 채취공업과 금속공업, 기계공업 부문에서는 석탄과 철강재, 기계를 비롯한 경공업부문에 필요한것들을 어김없이 보장해주며 철도운수부문에서는 그것을 제때에 날라다주어야 한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경공업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기술혁명은 오늘 우리 나라에서 경제발전의 기본고리이며 경공업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고리의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1차전원회의결정을 높이 받들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경공업발전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야 한다.

경공업부문에서 기술혁명을 적극 벌려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나라 자원에 의거하여 인민소비품의 가지수와 량을 늘이고 그 질을 더욱 높이는것이다. 경공업부문의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비날론섬유로 고급양복천을 비롯한 여러가지 옷감을 짜는 기술적문제를 풂으로써 우리의 주체섬유로 우리 인민의 입는 문제를 훌륭히 해결할수 있게 하고 비날론공업을 더욱 확신성있게 전개해나갈수 있게 한 경공업과학원의 과학자들처럼 인민소비품의 가지수와 량을 늘이고 그 질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고 광범한 대중이 기술혁신운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동자발명가들의 지혜로 해결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이 나라의 경제발전에 적지 않게 이바지하고있는 현실은 기술혁신운동을 대중적으로 널리 벌릴 때 경공업발전에서도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수 있다는것을 확증해주고 있다. 경공업부문의 근로자들은 생산의 주인다운 립장에 서서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투쟁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야 한다.

오늘 우리가 수행해야 할 경공업혁명과업은 매우 어렵고 방대하다. 그러나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대중이 있으며 현대적인 경공업의 튼튼한 토대가 있는 한 우리는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공업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려는 당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할것이다.

농사제일주의는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중요한 원칙

김 병 훈

오늘 우리 인민은 1980년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의 하나인 1,5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1,5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은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쌀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며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한 튼튼한 농업생산토대를 마련하는 영예롭고도 보람찬 투쟁이다.

농업생산을 장성시키는것은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강화하는것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보는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하는 로동계급의 당이 농업생산을 위한 투쟁을 옳게 이끌어나가야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생활조건을 더 잘 마련해줄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농업생산이 가지는 중요성으로부터 일찌기 농사제일주의원칙을 제시하고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농사제일주의방침을 내세우고 시종일관 거기에 깊은 관심을 돌려왔습니다.》

우리 당이 제시한 농사제일주의원칙은 쌀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먼저 점령해야 할 고지로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하는데 힘을 집중하는것을 본질적내용으로 하고있다. 그것은 전당, 전국, 전민이 농사에 제1차적인 관심을 돌리며 농업생산에 큰 힘을 넣어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먼저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농사제일주의원칙을 견지하는것은 인민들의 생활을 끊임없이 높일데 대한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으로부터 필수적으로 제기된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이다. 우리 당이 간고한 투쟁의 길을 헤쳐오면서 여러 단계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목적도 결국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며 그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자는데 있다.

근로자들의 물질생활에서 가장 절실한것은 먹는 문제이며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기본은 쌀을 많이 생산하는것이다. 쌀은 사람들의 육체적생명을 보존하고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과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적수단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에 있어서 농업생산에 힘을 넣어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농업생산을 늘이는것은 근로자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데서뿐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

농업은 인민경제의 2대부문의 하나이다. 농업생산을 다그쳐 알곡을 비롯한 농산물생산을 증대시키는것은 끊임없이 늘어나는 경공업의 원료에 대한 수요와 장성하는 공업인구의 식량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근본조건으로 된다.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늘여나갈 때 우리는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고 그들의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킬수 있으며 공업과 농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보장하고 전반적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된다. 농사에 힘을 넣어 알곡생산을 늘여야 또한 쌀공급에서부터 공산주의적원칙을 실현할데 대한 우리 당의 구호를 빛나게 관철하여 인민들에게 쌀을 수요에 따라 분배할수 있으며 공산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더우기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식량을 무기로 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자주권을 유린하고있는 조건에서 농업생산에 힘을 넣어 알곡생산을 늘이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지금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겪고있는 농업위기, 식량위기를 리용하여 침략과 략탈 행위를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10억의 인구가 생존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영양카로리도 섭취하지 못하고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고통을 겪고있으며 해마다 3,000만~4,000만명이 굶어죽고있다. 이러한 기근현상으로 하여 적지 않은 발전도상나라들은 해마다 막대한 량의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발전도상나라들의 알곡수입량은 1970년에 3,350만톤이였는데 1980년에는 그것이 7,870만톤으로 증대되였으며 1990년에 가서는 1억 2,000만~1억 4,500만톤으로까지 늘어날것이 예견되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이 겪고있는 식량난을 기화로 제국주의자들은 《식량원조》라는 미명밑에 이 나라들에 정치적압력을 강화하고 신식민주의의 올가미를 들씌우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특히 《식량무기》를 휘두르며 저들의 지배하에 있는 식민지들에 대한 략탈을 강화하며 영원히 예속의 올가미에 매여놓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이 겪고있는 파국적인 농업위기를 리용하여 식량을 미끼로 저들의 식민지적지배와 경제적략탈을 강화하고있다. 남조선출판물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조선의 알곡생산량은 1977년에 1,047만석이였던것이 1982년에 와서는 그것이 929만석으로 줄어들었다. 결과 남조선에서 알곡의 자급률은 1978년—1983년사이에 72.6%에서 42.2%로 대폭 떨어졌다. 식량자급률이 떨어짐에 따라 1978년에 360만톤이였던 남조선의 알곡수입량은 지난해에는 726만톤으로 급속히 늘어났다. 오늘 남조선은 생산량의 1.2배가 훨씬 넘는 알곡을 수입하지 않고서는 살아갈수 없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식량기근지대로 되였다. 남조선에서 날로 심각화되는 이러한 식량위기를 리용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저들의 잉여농산물판매시장으로 만들고 남조선에 대한 지배와 예속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모든 사실은 자체의 농업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식량문제를 풀수 없으며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과 예속을 면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농업발전에 힘을 넣어 농업생산을 늘이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튼튼한 물질적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비범한 과학적통찰력으로 혁명발전의 앞날을 환히 내다보시고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부터 농업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사제일주의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몸소 농업전선의 진두에서 전당, 전국, 전민이 농업생산에 힘을 넣도록 끝바로 이끄심으로써 우리 나라의 농업발전력사에서 새로운 획기적전환의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농사제일주의원칙이 빛나게 관철된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가 이미 오래전에 완성되였으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가 힘있게 추진되여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였다. 알곡생산이 끊임없이 늘어남으로써 식량문제가 빛나게 해결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식량이 부족하던 나라로부터 식량이 여유있는 나라로 확고히 전변되였다. 우리 나라 농업발전에서 이룩된 이러한 자랑찬 성과는 우리 당의 농사제일주의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주며 당의 농업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때 농업생산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오늘 우리 앞에는 당의 농사제일주의원칙을 계속 힘있게 틀어쥐고 알곡생산을 더욱 늘임으로써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농사를 잘 지어야 합니다.

농사를 잘 지어야 알곡을 비롯한 여러가지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농사제일주의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을 늘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농촌경리부문에 대한 투자를 결정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것이다.

농사제일주의원칙은 농사에 힘을 집중할것을 요구한다. 농사에 힘을 집중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은 농촌경리부문에 대한 투자를 얼마나 하는가 하는데서 뚜렷이 나타난다. 투자를 늘이지 않고서는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늘여나갈수 없다.

농촌경리부문에 대한 투자는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하루빨리 실현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우선 농촌에 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보내주는것이 중요하다. 비료는 곧 쌀이다. 개간력사가 오랜 우리 나라의 부침땅은 비료를 치지 않으면 생산성을 결코 높일수 없다. 비료공장들을 제때에 정비보강하고 설비들에 만부하를 걸어 우리 나라의 토양조건과 농작물의 생물학적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는것이 선차적인 과업으로 나선다.

이와 함께 농촌에 뜨락또르를 비롯한 능률높은 여러가지 농기계들도 많이 생산하여 보내주어야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여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고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으며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늘여나갈수 있다.

뜨락또르는 농업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로동수단이며 뜨락또르를 얼마나 가지고있는가 하는것은 농업의 기계화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뜨락또르가 밭갈이, 씨뿌리기, 김매기, 가을걷이, 짐나르기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농산작업을 맡아하고있다. 농촌에 뜨락또르만 대주면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훨씬 높일수 있다. 그러므로 뜨락또르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려 생산을 늘이며 부속품을 많이 만들어 뜨락또르의 가동률을 높이도록 하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뜨락또르와 함께 모뜨는 기계, 모내는 기계, 벼베는 기계와 낟알터는 기계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능률높은 중소농기계들과 련결농기계들을 많이 생산하

여 농촌에 보내줄 때 농업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칠수 있다. 농촌에 대한 투자를 늘여 농기계수리능력도 높이고 기름, 농약, 박막을 비롯한 영농 물자와 자재들을 넉넉히 마련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농사제일주의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을 늘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부침땅면적을 적극 늘이는것이다.

농업생산물의 량은 부침땅면적과 정보당 수확고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런것만큼 이 두가지 요인의 작용을 옳게 결합하는것은 농업생산을 늘이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토지를 기본생산수단으로 하고있으며 생산과정자체가 농작물의 자체증식과정으로 되여있는 농업에서 부침땅의 넓이와 지력은 농업생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부침땅면적을 늘여야 농업생산을 계속 높일수 있는 물질적담보를 마련할수 있다. 더우기 농촌기술혁명이 힘있게 추진되고 주체농법이 철저히 관철되여 농업생산이 고도로 집약화되였으며 정보당 알곡수확고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른 오늘 우리 나라에서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기본방도는 부침땅면적을 결정적으로 늘이는데 있다.

부침땅면적을 늘이는데서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할 사업은 간석지개간과 새땅찾기운동이다. 우리는 당의 정책적요구대로 간석지개간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어 힘있게 진척시켜야 하며 새로 개간한 간석지에서 인차 농사를 짓기 위한 대책을 실속있게 세워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에 부침땅으로 쓸수 있는 새땅예비가 적지 않은 조건에서 새땅찾기운동을 전군중적으로 힘있게 벌려야 한다. 여기에서는 개간대상지들을 정확히 조사장악하고 그것을 개간하기 위한 목표를 똑똑히 세우며 로력과 기계수단들을 집중하여 더 많은 새땅을 찾아내는것이 중요하다.

토지리용률을 높이는것은 부침땅면적이 제한되여있는 우리 나라에서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이다. 토지리용률을 더 높인다면 지금 있는 부침땅을 가지고도 농업생산을 훨씬 늘일수 있다. 토지리용률을 높이는데서는 알곡생산면적 특히 강냉이를 비롯한 다수확작물의 면적을 최대한으로 늘이는것이 중요하다. 농업부문의 일군들은 작물들의 배치를 바로하고 정당 수확고를 높이며 부침땅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강냉이를 비롯한 다수확작물의 생산을 훨씬 늘여야 한다.

농사제일주의원칙을 관철하여 농업생산을 늘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주체농법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이다.

주체농법은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와 농작물의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 과학농법이며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는 집약농법이다.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지으면 그 어떤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으며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늘여나갈수 있다.

지난해 함경남도 신흥군 서곡협동농장의 강냉이농사경험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서곡협동농장은 강냉이밭의 대부분이 경사지로 되여있는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잘 지어 정보당 평균 9.9톤이상의 강냉이를 생산하여 강냉이생산계획을 117%로 넘쳐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는 주체농법을 더욱 철저히 관철한다면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알곡생산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 주요농작물인 강냉이와 벼 품종들을 지대별, 필지별 특성과 그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잘 배치하고 강냉이심기와 벼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는것이 중요하다.

과학적시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그에 맞게 비료를 치는것은 주체농법의

중요한 요구이다. 지대별 토양조건과 농작물의 생물학적특성에 따라 시비량을 정확히 규정하고 비료를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쳐야 그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농업생산을 늘일수 있다. 논밭에 질좋은 거름과 광물질비료를 많이 내여 지력을 높이는 사업도 적극 벌려야 한다.

주체농법을 관철하는데서 육종체계를 바로세우고 종자개량사업을 잘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부침땅면적이 제한되여있고 농업생산의 집약화수준이 높은 단계에 이른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육종사업을 잘하여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품종을 많이 만들어내야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다. 농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특히 강냉이종자연구사업에 힘을 넣어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으며 어떠한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는 좋은 강냉이품종을 빨리 만들어내야 한다.

농사제일주의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을 늘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농업에 대한 관리를 과학화, 합리화하는것이다.

농업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로력과 자재, 자금의 랑비를 없애고 전반적인 생산공정을 순조롭게 진행할수 있으며 적은 지출로 최상의 경제적성과를 이룩할데 대한 사회주의농업경영의 목적을 실현하여 농업생산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

농업부문의 일군들은 모든 농업경영활동이 객관적법칙의 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지도관리를 짜고들어야 한다. 여기에서 현시기 특별히 중요한것은 주체적인 농업지도체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며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기업적지도를 실속있게 하고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된 작업반우대제와 분조관리제를 바로 적용하는것이다. 이와 함께 농사에서 제기되는 경제계산을 현대화하며 선진적인 기술수단과 수법을 널리 받아들여 경영활동전반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토지와 생산시설에 대한 관리로부터 생산조직과 재정관리에 이르는 전반적농업관리사업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하고 생산을 빠른 속도로 다그쳐나가야 한다.

농사제일주의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서 농업을 물질기술적으로, 로력적으로 힘있게 지원하는것이다.

기계공업과 화학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뜨락또르, 자동차, 모내는 기계, 벼베는 기계를 비롯한 현대적인 농기계와 농기구를 더 많이 질적으로 생산보장하며 여러가지 비료, 농약, 박막, 강재류등 영농자재를 책임적으로 생산보장할때 농업생산에서 더 큰 혁신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모든 기관, 기업소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모내기와 김매기, 가을걷이 철에 농촌을 로력적으로 힘있게 지원하여야 시기를 다투는 농사일을 제철에 질적으로 끝낼수 있다.

농사제일주의원칙을 관철하여 농업생산을 장성시키는데서 올해 농사를 잘 짓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농촌경리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모든 영농사업을 책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특히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청산리사람들의 기백》으로 떨쳐나서 만풍년을 이룩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제기되는 농사일을 혁명적으로 해제낌으로써 올해 농업생산에서 또다시 새로운 혁신을 가져와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농사제일주의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을 계속 높은 속도로 장성시키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에 예견된 알곡고지를 빛나게 점령해나가야 할것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교육리론

류 재 영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사상리론적업적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독창적인 사회주의교육리론을 내놓고 그것을 전일적인 체계로 완성하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철학적원리를 교육분야에 구현하여 사람중심의 새로운 교육 사상, 리론, 방법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사회주의교육리론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인재육성의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주체의 교육학설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의거하여 독창적인 교육학설이 창시됨으로써 사람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주체적인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가 확립되게 되였으며 교육사업을 옳게 이끌어나갈수 있는 위력한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사회주의교육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해명할수 있는 지도적지침을 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키우는 사업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10페지)

교육사업은 인간을 육성하는 사업이며 교육사업의 대상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람에 대한 가장 정확한 리해에 기초해서만 교육리론을 확고한 과학적 기초우에서 전개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교육의 본질도 옳게 규정할수 있다.

교육학설에서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것은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규정하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인간의 본성을 옳게 규정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을 교육할 방향을 정확히 세울수 없다. 사람을 교육한다는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속성이 더 높이 발휘되도록 하는것이며 따라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리해하는것은 교육문제고찰의 출발점, 전제로 되는것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본질적속성과 우월성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라는데로부터 출발하여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키우고 발전시켜 그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만드는것이 사회주의교육의 본질이라는것을 밝혀준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과학적 리해에 기초한 사회주의교육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해명으로 되며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독창적인 교육관이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것으로 하여 동물과 구별되며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세계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 역할을 수행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하에서 교육의 참된 목적은 사람들의 이러한 본질적특성과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살리고 높이 발양시켜 그들을 더욱더 힘있는 존재로 키우며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데 있다.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높일수 있는 사람들의 자질은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이다.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은 타고난것이 아니며 저절로 형성발전되는것이 아니다.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은 사람들이 태여난 이후 교육에 의하여 획득되는 사회적속성이다. 특히 그것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원만히 배양될수 있다. 사람은 실천활동과정에서도 많은것을 배운다. 그러나 실천활동과정에 배우는것만으로는 인류가 쌓아놓은 사상과 문화를 충분히

습득할수 없다. 사람들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인류가 마련한 사상과 문화를 배우고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된다.

물론 그 어떤 사회에서나 다 사람들의 본질적속성에 맞게 그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교육의 참된 요구가 실현될수 있는것이 결코 아니다. 교육은 사람들을 키우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사업이며 따라서 그것을 누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가에 따라 그 성질이 달라진다. 착취사회에서 착취계급들은 교육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마비시키며 그것을 저들의 사환군, 노예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려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키우기 위한 교육의 본질적요구가 실현될수 없다.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하에서만 교육사업은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기 위한 본질적요구를 실현할수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키우는것이 사회주의교육의 본질이라는것이 뚜렷이 밝혀지게 됨으로써 교육에 대한 주체적인 관점, 사람중심의 관점이 확립되게 되였으며 옳은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사회주의교육을 가장 정확히 실시해나갈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교육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교육의 내용은 정치사상교양, 과학기술교육, 체육교육이다. 사회주의교육의 이러한 내용들은 사람들을 지덕체를 갖춘 전면적으로 발전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으로 키울수 있도록 구성되여있으며 교육의 질과 효과성이 최대한으로 보장되도록 혁명성과 과학성, 현실성으로 일관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주의식을 가지게 하는것이 교육사업에서 제1차적인 요구로 제기된다는것을 밝히시고 정치사상교양을 사회주의교육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규정하시였다.

사람은 사상의식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다. 사상의식은 사람의 가치와 풍격을 결정하며 모든 활동을 조절한다. 사람들의 행동목적을 규정하며 그 방향으로 사람들을 행동하게 하는것은 사상의식이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주적인 요구를 행동목적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이끌어준다. 비록 높은 수준의 창조적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지 못하면 그 능력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혁명과 건설을 위하여 바칠수 없으며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존재로 될수 없다. 인간개조가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로 되는 리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교육에서는 정치사상교양에 선차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잘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인민대중의 운명은 혁명을 통하여 개척되며 혁명에서 수령은 특수한 지위를 차지하고 특출한 역할을 한다. 수령은 인민대중을 통일적인 주체로 결합시키는 단결의 중심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인민대중을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혁명투쟁에로 일떠세우고 통일적으로 이끌어주는 령도적역할을 한다. 혁명적수령관을 가진 사람이라야 자주적인 혁명사상, 혁명적세계관을 지닐수 있고 자주성을 위한 혁명위업에 충실할수 있다. 정치사상교양에서는 수령관교육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세계관, 혁명관교육을 힘있게 전개하는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혁명적락관주의와 사회주의적애국주의, 집단주의적혁명정신과 혁명적동지애, 혁명적의리와 도덕을 지녀야 자주적인 공산주의적인간의 사상정신적풍모를 갖추게 된다. 그러므로 정

치사상교양에서는 이러한 사상정신적풍모를 키워주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되는것은 사람들의 창조적능력을 키우기 위한 과학기술교육이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교육리론은 사람들을 자주적인 혁명사상과 함께 자연과 사회에 대한 넓고 깊은 지식의 소유자로 키워야 한다고 가르친다. 넓고 깊은 지식을 소유하는것은 인간의 전면적발전의 중요한 조건이며 과학적 세계관수립의 기초이다. 넓고 깊은 지식, 과학기술지식을 기본으로 하는 창조성은 자주성과 함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본질적속성이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사람의 창조적능력의 작용방향을 규제하지만 창조적능력을 대신할수 없다. 사람의 자주적요구는 창조적활동을 통해서만 실현될수 있으며 창조적활동은 창조적능력이 허용하는 한계내에서만 진행될수 있다. 사람이 목적의식적으로 창조적활동을 벌릴수 있게 되려면 객관적대상에 대한 지식과 자신의 힘과 객관적힘을 합리적으로 결합하여 리용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지식은 과학이 준다. 과학이란 사물현상들의 본질적속성과 운동법칙에 관한 지식의 체계이다. 과학지식을 지침으로 삼아야 창조를 위한 행동계획을 옳바로 세울수 있으며 창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행동할수 있다. 과학지식에 의하여 안받침되지 않은 실천은 맹목성과 실패를 면치 못한다.

기술수단은 사람의 창조적활동의 필수적수단이다. 자연개조에서의 성과여부는 기술수단들의 발전정도에 달려있다. 기술수단이 발전하여야 자연개조사업이 발전할수 있으며 물질적재부의 생산과 사회적축적이 늘어날수 있다. 사람들은 기술지식과 기술수단들을 창조하며 다룰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자연을 개조하는 창조적사업에 적극 참가할수 있다.

사람의 육체적힘에는 한계가 있지만 사람의 정신적힘, 과학기술지식의 발전에는 한계가 없다. 과학기술지식은 끊임없이 발전할수 있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수 있는 사람의 창조적힘의 발전에서 기본은 사람들의 과학기술지식의 발전이다. 사람의 창조적능력을 높일수 있는 기본예비는 사람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는데 있다. 그러므로 사람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과학기술교육에 큰 힘을 넣는것이다.

체육교육은 사회주의교육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된다.

사람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은 건장한 체력에 의하여 물질적으로 담보된다. 비록 사상기술문화수준이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사업에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잘할수 없다. 사람들로 하여금 건장한 체력을 가지고 무병장수할수 있게 하는것은 사람들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활동할수 있는 힘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이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보건사업을 발전시키는것과 함께 학교들에서 체육교육을 잘하여야 한다. 체육교육은 청소년학생들을 사상의지적으로 단련시키고 로동과 국방에 믿음직하게 준비시키며 그들의 문화수준을 높이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체육교육을 잘하여야 학생들을 지덕체를 갖추고 혁명과 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하는 힘있는 사회적인간으로 키울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체력을 튼튼히 하고 몸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는데 중심을 두고 체육교육을 힘있게 벌려야 하며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고 광범한 학생들을 망라하는 집단적인 체육활동을 많이 조직하여야 한다.

주체의 사회주의교육리론은 사람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사회적인간으로 키울수 있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교육방법을 밝혀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시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사회주의교육리론은 사람들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 혁명과 건설에서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사람중심의 위대한 공산주의교육강령이며 근로자들과 후대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의 성과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사회주의교육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이미 실천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되였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전기간 주체의 사회주의교육리론을 빛나게 구현하도록 현명하게 이끎으로써 우리 나라 교육에서 커다란 성과와 빛나는 결실이 이룩되도록 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하는데 따라 사람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힘있는 사회적인간으로 키워낼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방법이 부단히 개선되고 완성되였으며 교육의 질적수준이 체계적으로 높아졌다.

교육사업이 발전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사상기술문화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으며 현대적과학기술지식을 가진 125만의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의 대부대가 자라나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믿음직하게 떠밀어나갈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주체의 사회주의교육리론의 고귀한 결실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중요한 성과이다.

오늘 우리 교육부문앞에는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주체의 사회주의교육리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여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여야 할 영예롭고도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교육사업을 전반적으로 개선강화하는 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떠메고 나갈 담당자는 자라나는 새세대들이다.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장래운명은 혁명의 명맥을 이어나갈 새세대들을 어떻게 교육교양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가자면 교육사업을 개선하여 새세대들을 혁명의 계승자, 주인공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워내야 한다.

현시기 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질을 높이는것이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통하여 자라나는 모든 새세대들이 중등일반교육을 받게 되며 이 단계를 거쳐 자기의 소질과 희망에 따라 사회에도 진출하고 대학에도 가게 된다. 그러므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질을 높이는것은 고등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이며 사회의 전반적사상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본담보로 된다.

우리는 중등일반교육에서 정치사상과목교육을 개선강화함으로써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 수령관으로,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대를 이어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며 주체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야 한다. 이와 함께 기초과학교육과 외국어교육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어 학생들에게 기초과학분야의 일반지식을 충분히 주어 그들의 인식능력과 응용능력을 빨리 키워야 하며 모든 학생들이 한가지이상의 외국어를 소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초기술교육도 강화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기초기술지식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현시기 교육사업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고등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질적으로 높여 기술자, 전문가 양성사업에서 전환을 이룩하는것이다.

우리는 기술자, 전문가 양성사업을 개

선강화하기 위하여 기초기술교육을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전문기술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오늘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들이 끊임없이 개척되고 전자계산기와 산업로보트를 비롯한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이 생산에 널리 리용되고있다. 대학들에서는 자기 전공분야에서 이룩되고있는 최신성과들을 널리 받아들여 전문교육의 수준을 빨리 높여야 한다. 기술대학들에서는 원료, 연료, 동력의 개발리용기술에 대한 교육, 전자, 자동화 공업부문에 대한 교육을 비롯하여 전공분야에서 이룩되고있는 과학기술발전의 새로운 성과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현대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은 기초과학의 성과에 토대하고있으며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자립성은 기초과학분야에서부터 시작된다. 기초과학부문들을 발전시켜야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일수 있고 인민경제 여러 분야에서 나서고있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칠수 있다. 대학들에서 수학과 물리학, 화학, 생물학을 비롯한 기초과학부문에 대한 교육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이 부문 전문가양성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현대과학기술수준의 추세에 맞게 기술자, 전문가 양성사업을 개선하여야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높은 속도로 다그쳐나갈수 있다.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는 나라의 과학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과학기술인재양성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우리는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에 따라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수요를 더욱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그 양성규모를 늘이는 한편 필요한 대학과 과학지표들을 새로 더 내오며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과학기술지식수준이 높은 인재를 더 많이 키워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있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재교육사업에 필요한 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하며 과학연구기관과 대학들에서 20대, 30대의 젊은 박사, 준박사들을 많이 키워내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원들의 자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본고리는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는데 있다. 교육부문에서는 교원의 자질을 높이는데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한다. 교원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고 그들이 학습을 정력적으로 꾸준히 하여 과학리론수준과 교육실무적자질을 전반적으로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주체의 사회주의교육리론을 빛나게 구현하여 교육사업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룡성번영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영예롭고도 보람찬 사업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사회주의교육리론을 근본지침으로 삼고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영화와 음악

김 득 청

오늘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는 주체예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영화예술이다. 우리 영화들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며 그들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주고있다.

우리 영화들이 그처럼 인민들의 열렬한 사랑과 환영을 받으며 대중교양의 위력한 수단으로 되고있는것은 영화들에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깊이있고 내용이 풍부한 이야기거리와 함께 좋은 음악과 노래가 있기때문이다.

우리의 영화들에는 례외없이 모두 음악과 노래가 많이 들어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영화에 음악과 노래를 많이 넣어야 하겠습니다.

음악과 노래가 없는 영화는 영화가 아닙니다. 노래가 없는 영화는 적적한 감을 주며 대화극과 다름이 없습니다. 영화가 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훌륭한 영화로 되려면 반드시 좋은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8권, 468~469페지)

음악과 노래는 종합예술인 영화에서 위력한 형상수단의 하나로 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오랜 영화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많은 영화창조자들이 영화에 음악과 노래를 쓰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훌륭한 영화음악들을 창작하였다. 그러나 지난 시기의 영화들에는 음악과 노래가 없어도 무방하였으며 실지 노래없는 영화들도 수많이 창조되였다.

영화에 반드시 음악과 노래를 넣는것은 우리 당이 영화창조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생활과 음악, 우리 인민의 민족적특성, 영화음악의 형상적기능과 역할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고있는 독창적인 원칙이다.

영화에 좋은 음악과 노래를 넣어야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생활자체의 요구와 관련되여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본래 음악은 자연을 변혁하고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사람들의 로동과정에서 나와 생활속에서 발전하여온, 인민에게 가장 친근한 예술이다. 모든 예술이 다 생활속에서 나왔지만 특히 음악은 무용과 함께 직접 로동생활을 비롯한 인간의 자주적인 생활창조를 위한 투쟁과정에서 나오고 또 그 과정에서 불리워온것으로 하여 그 어느 예술보다도 생활과의 련계가 깊다.

사람들은 힘든 일을 할 때나 로동의 기쁨을 맛볼 때면 흔히 자기의 감정을 노래에 담아 표현한다. 이것은 음악이 본래부터 생활과 가장 가까운 예술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창조적로동과 생활이 있는곳에는 언제나 음악과 노래가 있기마련이다. 더우기 근로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로동이 그대로 창조의 기쁨이 되고 생활이 곧 아름다운 노래로 되고있다. 따라서 생활을 그자체의 형식으로 보여주는 영화에는 마땅히 음악과 노래가 있어야 한다. 영화에 음악과 노래가 없으면 생활이 메마르고 딱딱하여 볼 재미도 없게 될것이며 따라서 그런 영화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할것이다.

영화에 음악과 노래를 넣어야 하는것은 영화를 우리 인민의 민족적정서와 비위에 맞게 만들기 위한 절실한 요구이기도 하다.

예로부터 남달리 춤과 함께 노래를 즐겨한 우리 인민은 여러가지 로동생활을 반영한 로동가요들과 자연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노래한 가요들, 를무가요

를 비롯한 다양한 노래들을 지어부르면서 로동과 생활에서 자기들의 지향과 념원을 표현하였다. 노래를 즐겨하는것은 력사적으로 이루어진 우리 인민의 민족적특성의 뚜렷한 표시이며 고상한 예술적지향의 반영이다. 그러므로 영화를 우리 인민의 민족적정서와 비위에 맞게 만들려면 마땅히 영화에 인민대중이 즐겨할수 있는 좋은 음악과 노래를 많이 써야 한다.

영화에 음악과 노래를 넣어야 하는것은 또한 영화의 사상예술성을 높이는데서 음악과 노래가 노는 커다란 형상적기능과 역할로 하여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영화의 높은 사상예술성은 작품이 제기하고있는 문제를 얼마나 풍부한 생활을 통하여 감동적으로 깊이있게 밝혀내는가에 의하여 담보된다.

음악은 풍만한 정서를 통하여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면세계와 현실을 보고느끼는 체험을 섬세하고도 깊이있게 펼쳐보여줄수 있는 우월한 표현력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음악은 영화에서 화면으로는 표현할수 없는 사람들의 사상감정도 정서적으로 깊이있게 표현할수 있으며 그들의 성격발전과정도 더욱 뚜렷이 그려낼수 있다. 다시말하여 음악은 선률이라는 고유한 표현수단을 통하여 영화화면으로는 나타낼수 없거나 주어지지도 않은 뒤생활에 이르기까지 생활을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줄수 있다. 더우기 면밀한 감정조직에 기초한 극적장면들에서 울리는 음악은 강한 극성을 조성하면서 사람들을 작품세계에 깊이 이끌어준다.

음악이 없는 영화는 적적한 감을 줄뿐아니라 대화극과 다름없이 되여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훌륭한 영화로 될수 없다.

예술영화 《이름없는 영웅들》 제5부에서 순희와 유림의 상봉장면에서 울리는 정서깊은 주제가 《기쁨의 노래 안고 함께 가리라》는 영화의 사상예술성을 높이는데서 음악과 노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이때에 관현악과 함께 울리는 노래는 적후환경으로 하여 서로 사랑하는 사이면서도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는 주인공들의 안타까운 심정, 뜻밖의 충격으로 하여 방금 터지려는듯한 오열을 애써 누르는 순희의 속마음을 펼쳐보이면서 조국과 인민을 위한 투쟁의 한길을 변함없이 억세게 걸어나갈 그들의 결의를 잘 표현해주고있다. 그리고 음악은 이 장면의 극적감정을 더욱 심화시키면서 사람들을 극세계에 깊이 끌어간다. 만약 여기에 이러한 음악이 배합되지 않았더라면 그 장면이 그토록 커다란 여운을 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틀어잡지는 못하였을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화면을 통하여서도 영화의 사상적내용을 리해할수 있지만 거기에 음악이 들어가면 생활감정이 더욱 풍부해지고 예술적감흥도 커져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정서를 가지고 작품의 심오한 사상적내용을 받아안게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이처럼 음악과 노래는 영화창조에서 없어서는 안될 위력한 형상수단으로 되고있다.

실로 영화에 반드시 음악과 노래를 넣을데 대한 우리 당의 창조원칙은 영화의 가치와 예술적품위를 보장하며 생활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민족적정서를 구현한 가장 옳바른 영화창조원칙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구현하여 영화의 주제사상적내용에 맞게 장면과 음악을 결합시키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명을 줌으로써 우리 식의 영화음악창작리론을 확립하였다.

우리 당의 영화음악창작리론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영화에 주제가를 잘 지어넣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영화의 내용에 맞게 음악을 쓰자면

먼저 주제가를 잘 써야 한다. 주제가는 영화음악에서 중추를 이룬다.》(《영화예술론》, 329페지)

영화에서 주제가는 작품의 주제사상적 내용을 집약화하고있는 노래이다. 그것은 주인공의 정신세계, 생활감정과 지향 등을 폭넓게 일반화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주제가는 영화에서 다른 음악들에 비할바없이 작품의 주제사상을 일관하게 심화시켜주는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예술영화《월미도》의 주제가《나는 알았네》는 영화에서 주제가가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봄이면 사과꽃이 하얗게 피여나고
가을엔 황금이삭 물결치는곳
아 내 고향 푸른 들 한줌의 흙이
목숨보다 귀중한줄 나는 나는 알았네

…

살아도 그 품속에 죽어도 그 품속에
언제나 사무치게 불러보는곳
아 어머니라 부르는 나의 조국이
장군님의 그 품인줄 나는 나는 알았네

예술영화 《월미도》에서는 조국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조국은 곧 수령님이시라는 철학적인 해답을 주고있다. 조국은 위대한 수령님이시라는것, 이것은 작품의 주인공들인 월미도영웅전사들이 간직하고있는 철석같은 신념으로 되고있다.

주제가 《나는 알았네》는 언제나 싸움의 나날에 전호가에서 고향을 그려보며 절절히 느끼는 영웅전사들의 심정에 대한 표현을 통하여 해방후 비로소 처음으로 받아안은 참된 삶과 행복이 있는 귀중한 조국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라는 작품의 핵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주제가에서 따뜻한 고향의 품을 사무치게 그리며 뜨겁게 느끼듯 절절히 울리는 전반부의 정서깊은 선률과 한없이 귀중한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폭넓게 터뜨리는 앙양된 후반부의 선률은 사람들에게 조국에 대한 주인공들의 뜨거운 사상감정을 더욱 정서깊이 받아안게 한다.

우리 영화에서 주제가는 극적으로 중요한 장면들에서 반복되여 울림으로써 영화의 주제사상을 더욱 깊이 파고들어 밝혀주고있다.

주제가 《나는 알았네》는 첫번째 전투를 앞둔 전호가에서 영옥이에 의해 불리워진 다음 포격에 쓰러진 취사원아바이가 목숨을 거두면서 고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울린다. 주제가는 또한 두번째 전투를 앞두고 병사들이 고향을 그려보는 장면에서 다시 영옥이에 의해 불리워진 다음 나어린 영옥이가 최후를 마치는 장면에서 또 울린다. 이처럼 주제가가 극적으로 요긴한 장면들에서 반복되여 쓰임으로써 영화는 사람들에게 월미도영웅전사들이 목숨바쳐 지키는 조국, 어버이수령님의 품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것을 가슴 뜨겁도록 느끼게 하며 한생을 영웅전사들처럼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싸워나갈 불타는 결의를 가다듬게 한다.

이 모든것은 주제가를 중추로 하여 음악과 노래를 장면에 맞게 한번 또는 여러번 반복하여 쓰는것이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을 더욱 정서깊이 표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도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의 주체적인 영화음악창작리론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주제가를 비롯한 노래들을 방창형식으로 많이 쓰는것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방창으로 인물의 사상감정과 심리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그려내여 영화의 사상예술적내용을 더욱 풍부화시키는것이 우리 식이다.

영화음악형상에서 방창을 많이 리용하는것은 영화가 행동의 예술이라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영화는 행동의 예술이므로 화면에서는 배우의 행동연기가 중심에 놓이게

된다. 음악을 쓸때 영화의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배우에게 노래를 많이 부르게 하면 그의 연기를 누를수 있다.

우리 영화에서는 예술영화 《월미도》에서 주제가를 영옥이가 부르는것과 같이 생활정형으로 보아 꼭 필요한 대목들에서는 화면에 등장한 배우가 직접 노래부르게 함으로써 특별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노래들을 여러번 반복하여 울려주는 조건에서 배우가 무리하게 모든 노래를 부르게 한다면 그의 역형상에 부담을 주게 되고 행동의 예술로서의 영화의 특성도 살릴수 없게 되므로 방창을 많이 리용한다.

방창은 배우에게 노래부르는 부담을 주지 않기때문에 연기의 진실성을 보장해주면서 주인공들의 사상감정과 심리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가는 길 험난하다 해도
시련의 고비 넘으리
불바람 휘몰아쳐와도
생사를 같이하리라
천금 주고 살수 없는
동지의 한없는 사랑
다진 맹세 변치 말자
한별을 우러러보네

혁명영화 《조선의 별》의 제2부 새마을 오두막장면에서 남성독창으로 화면밖에서 울리는 방창 《동지애의 노래》는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을 맹세다지는 주인공의 사상감정과 심리의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깊이있게 펼쳐보이는가.

만약 이 장면에서 주인공이 직접 노래를 부른다면 그것은 생활의 진실성도 연기의 진실성도 보장할수 없는것은 물론 위대한 수령님의 한량없는 은정에 눈시울을 적시며 수령님을 우러르는 주인공의 뜨거운 심정을 그토록 감명깊게 표현하지는 못했을것이다.

이밖에도 우리 영화에서 방창은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표현하기도 하고 정황을 설명해주기도 하면서 영화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해준다.

우리 영화에서 방창은 극적장면들에서 불리워지면서 극성을 강하게 조성해주기도 하고 영화의 감정선을 고조시켜줌으로써 사람들이 심오한 정서와 감동을 안고 작품세계에 깊이 끌려들어가게 한다.

영화는 짧은 시간내에 화면의 교체를 통해 주인공의 현재생활은 물론 과거생활과 미래의 생활까지 함축하여 보여주기도 하고 생활의 다양한 정황들을 자유자재로 바꾸어 보여주기도 하면서 생활을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한다.

방창은 관현악과 함께 화면으로 교체되는 다양한 생활장면들을 정서적으로 이어주면서 생활을 함축비약시켜 보여주는 시공간적예술로서의 영화의 특성을 높은 예술적형상으로 품위있게 살려주기도 한다.

이처럼 방창을 많이 리용하여 주인공들의 사상감정과 심리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그려내여 영화의 사상예술적내용을 더욱 풍부화시키는것은 주체적인 영화음악의 고유한 형상방법이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영화음악창작리론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영화음악을 인민적인 명곡으로 만드는것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들을수록 좋고 인상깊은것이 명곡이다.

오직 인민들 그 누구에게나 들을수록 좋고 인상깊게 안겨오는 노래만이 유명한 곡으로 될수 있다.

우리 영화에는 인민의 지향과 정서를 반영한 명곡을 지어넣음으로써 영화의 인민적성격을 더욱 뚜렷이 하고있다.

명곡에는 의의있는 사상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깊은 정서를 통해 표현되여있기때문에 영화에서 주인공들의 생활감정을 높은 사상예술적인 경지에서 표현해준다. 또한 명곡에는 생활에서 보고 느낀 작곡가의 강렬한 감정이 반영되여있기때문에 누구나 부를 때마다 그에 공감되여 부를수록 더 부르고싶게 된다. 수십년전에 창작된 명곡들이 오늘도 인민들속에 전해지면서 계속 널리

불리워지는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풍만한 서정과 사색깊은 정서를 안고 울리는 명곡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를 부를 때면 과학탐구의 길에서 청춘도 사랑도 다 바쳐가는 예술영화 《열네번째 겨울》의 주인공인 한 녀성과학자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생활을 감명깊게 생각하듯이 영화에 나오는 명곡들은 화면과 함께 주인공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되살려 생각하게 함으로써 사람마다 깊은 인상을 받아안게 한다. 오늘 우리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우는 영화의 명곡들이 아무리 들어도 또 듣고싶은것은 바로 그 노래가 영화의 생활을 되새기게 하면서 노래의 서정속에 깊이 이끌려들어가게 하는것과 관련된다. 이러한 명곡은 세월이 흐를수록 빛을 낸다.

우리 인민들이 즐겨하는 노래의 하나인 《오직 한마음》은 십여년전에 창작된 예술영화 《한마음으로》의 주제가이다. 이 노래가 오랜 세월이 흘러간 오늘에도 그토록 커다란 생명력을 가지고 인민들의 사랑받는 노래로, 영화의 대변자로 되고있는것은 명곡이기때문이다. 이것은 영화의 노래가 인민적인 명곡으로 될 때 강한 보급력을 가지고 인민들속에 불리워질수 있으며 명곡과 함께 영화도 더 유명해질수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우리 영화에서는 혁명영화 《조선의 별》 제3부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림채옥과 시월바우와 함께 말발구를 타고 가시는 장면에서 울리는 기악음악 《기쁨싣고 달리는 말발구》에서와 같이 영화의 장면들에 울리는 기악음악들도 간결한 형식의 인민적인 명곡으로 되여있기때문에 인민들의 커다란 사랑을 받는 음악으로 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수많은 영화음악들이 명곡으로 창작되여 인민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고있다.

《동지애의 노래》, 《혁명의 주인은 우리 인민》, 《전사의 념원》, 《장군님따라 싸우는 길에》, 《이 세상 끝까지 우리 가리라》, 《승리의 그날은 오리라》, 《기쁨의 노래 안고 함께 가리라》, 《조국과 더불어 영생하리라》를 비롯한 수많은 명곡들은 우리 영화음악의 전성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주체적영화음악창작리론을 구현하여 창작된 우리의 영화음악들은 사람들에게 생활의 진리를 깨우쳐주고 그들을 투쟁과 위훈에로 고무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되고있다.

우리 인민들은 영화노래들을 즐겨부르면서 주인공들처럼 살며 일하려는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이것은 우리의 영화음악이 인민들의 투쟁과 생활에서 얼마나 큰 의의를 가지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말해준다.

오늘 영화음악들은 기악곡으로 편곡되여 울리기도 하고 새로운 형식으로 창조되여 음악예술의 화원을 다양하게 장식하기도 하면서 주체음악예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리론을 지도적지침으로 하고있는 우리의 영화음악은 앞으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될것이며 주체적인 음악예술의 전반적발전에 더욱 크게 이바지할것이다.

의료봉사사업을 잘하는것은 보건일군들의 숭고한 의무

리 종 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전국보건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 《보건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를 보내주신 때로부터 한돐이 된다.

서한은 인민보건사업의 혁명적본질과 중요성을 밝히고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보건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해명을 준 력사적문헌이며 모든 보건부문 일군들이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현실은 문헌에 제시된 사상과 리론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보건건설에 참다운 지침을 주는 혁명리론이며 보건일군들로 하여금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의 정신을 가지고 인민보건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수 있게 하는 고무적기치로 된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력사적문헌 《보건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에서 제시된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보건일군들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의료봉사사업을 잘할데 대한 사상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의료봉사사업은 인민들에게 무상치료제에 의한 당과 국가의 의료상혜택을 충분히 보장해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의료봉사사업을 잘하여야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 보호증진시킬수 있으며 전반적무상치료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습니다.》(《보건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단행본, 12페지)

의료봉사사업을 잘하여 보건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려는것은 오늘 우리 당이 의도하고있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의료봉사사업을 떠나서 인민보건사업, 사회주의보건건설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의료봉사사업은 보건일군들이 의료시설과 설비 및 수단을 리용하여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함으로써 그들에게 무상치료제에 의한 당과 국가의 의료상 혜택을 충분히 보장해주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 이것은 의료봉사사업이 보건사업의 중요한 부문의 하나이며 그것을 잘하는것이 보건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나가기 위한 중대한 문제라는것을 말해준다. 의료봉사사업을 잘하여 인민보건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야 당의 의도에 맞게 보건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수 있다.

의료봉사사업을 잘하는것은 사람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도록 해주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사람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은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함께 튼튼한 체력, 질병이 없는 건강이 보장되여야 확고히 담보된다. 질병은 사람의 자주성을 구속하고 창조적능력을 발휘할수 없게 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고있다. 사람은 혁명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있는 존재라고 하더라도 튼튼한 체력을 가지지 못하면 자연과 사

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없으며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없다. 사람들이 질병이 없이 건강한 몸으로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며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려면 의료봉사사업을 잘하여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더 잘 보호증진시켜야 한다.

모든 보건일군들이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의료봉사사업을 잘하는것은 전반적무상치료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켜 인민들에게 무병장수의 행복을 안겨주려는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영예롭고 보람찬 혁명사업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보건사상이 빛나게 구현되여 우리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있다.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는 치료에 대한 인민들의 권리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여주는 가장 우월한 인민적인 보건제도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별과 년령, 거주와 직업, 로동의 량과 질에 관계없이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혜택이 차례지고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주는 약은 물론 환자치료를 위한 모든 봉사는 무료이며 지어 료양을 위한 왕복려비까지도 국가 또는 협동단체가 부담하고있다.

그러나 근로인민대중의 초보적인 의료상 권리마저 유린말살되고 의학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리용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인민들을 위한 무상치료제에 대해서는 상상할수 없으며 그 어떤 병을 치료받자고 해도 엄청난 돈을 물어야 하기때문에 근로하는 인민은 초보적인 의료혜택도 받지 못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무상치료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을 증진시켜주고 행복을 주며 한사람도 건강에 그늘진곳이 없고 누구나 병으로 하여 불행을 겪는 일이 없도록 골고루 보살펴주는 은혜로운 보건제도이다. 우리 인민은 실생활을 통하여 우리 나라 무상치료제야말로 국가가 자기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전적으로 돌보는 가장 우월하고 인민적인 보건제도라는것을 굳게 확신하고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혁명의 전취물인 전반적무상치료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은 당의 보건정책 관철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 당의 공산주의적시책인 전반적무상치료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은 중요하게는 우리의 모든 보건일군들이 근로인민대중에게 의료봉사사업을 어떻게 잘하는가에 의하여 나타나게 된다.

보건일군은 인간생명의 기사이며 의료봉사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다. 보건일군들이 의료봉사사업을 잘하여야 무상치료제에 의한 의료봉사혜택이 인민들에게 더 잘 미치게 할수 있으며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철저히 보호증진시킬수 있다.

생명과 건강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는 사회가 발전하고 물질문화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더욱 커진다.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은 부단히 향상되고있으며 질병이 없이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살며 보람차게 일하려는 그들의 지향과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요구에 맞게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더 잘 보호증진시키자면 보건일군들이 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의료봉사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여야 한다.

이렇듯 의료봉사사업을 잘하는것은 인민들에게 전반적무상치료제에 의한 당과 국가의 의료상 혜택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영예롭고 보람찬 사업으로 되며 보건일군들의 숭고한 의무로 되는것

이다.

우리 당은 의료봉사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 큰 의의를 부여하고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왔으며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최근년간 의료봉사사업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이룩되였다.

의료봉사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는 전문적인 의료시설과 최신의료설비들이 계획적으로 더욱 늘어나고 치료예방사업의 전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였다.

특히 농촌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 국가적관심이 돌려진 결과 리진료소의 병원화가 실현되고 군병원이 종합병원으로 더 잘 꾸려짐으로써 농촌주민들에 대한 전문과적의료봉사가 실현되고 그 질적수준이 현저히 높아졌다. 그리고 농촌리에까지 산원시설과 아동병동이 꾸려지고 탁아소들에서 선진적인 어린이관리책임제가 실시되여 어린이와 녀성들에 대한 의료봉사사업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와 배려에 의하여 의학대학병원들과 평양산원, 평양시와 함경남도에 현대적인 구강병예방원 등 전문병원들이 일떠서고 도시와 농촌들에 전문과적시설을 갖춘 병원들이 훌륭히 꾸려졌다. 또한 군, 공장, 기업소 병원들이 새롭게 많이 건설됨으로써 의사담당구역제를 더 잘 실시하고 주민들에 대한 전문과적의료봉사를 개선강화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다져지게 되였다.

당에 끝없이 충직한 보건일군들과 의학과학자들은 주체적립장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진단과 치료 방법을 높은 수준에 올려세웠으며 동의학을 과학화하고 동의치료방법을 림상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활발히 벌려 인민들의 병치료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다. 또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려 실천적가치가 높은 치료 수단과 방법들이 창안도입되고 효능이 높은 약과 쓸모있는 의료기구들이 많이 생산되고있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정성운동이 힘있게 전개됨에 따라 보건일군들속에서는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환자에 대한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치료예방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는 고상한 기풍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정성운동이 기술혁신운동과 밀접히 결합되여 더욱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기존의학상식으로써는 고치지 못하던 중한 질병도 성과적으로 고치고있다. 19가지 진단을 받고 60일동안이나 의식을 잃고 죽음의 나락에서 헤매던 환자를 소생시킨 사실과 급병으로 40도를 오르내리는 고열로 전신의 감각기능까지 완전히 마비되여 생명이 경각에 다달았던 환자를 살려낸 사실 등은 우리 당의 보건전사들속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공산주의적소행인것이다.

이와 같이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의료봉사사업의 전반적수준을 한계단 더 높일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고 의료일군들속에서 정성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것은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휘하며 의료봉사사업을 현저히 개선강화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의료봉사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야 할 중요한 과업이 제기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보건부문에서는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더 잘 보호증진시킬데 대한 당의 정책적요구와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무병장수하여 끝없는 행복을 누리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에 맞게 의료봉사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하겠습니다.》(우와

잘은 문헌, 12페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의료봉사사업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무엇보다먼저 진단과 치료 방법을 개선하는것이다.

진단과 치료는 의료봉사의 기본 공정이며 내용이다. 따라서 진단과 치료 방법을 개선하는것은 의료봉사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진단과 치료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신과학기술의 성과에 기초한 선진적인 진단치료 수단과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는것이 중요하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과학과 기술의 성과를 진단치료분야에 적극 도입하여야 의료봉사의 수준을 높여 질병을 제때에 진단하고 철저히 치료하여 건강을 빨리 회복시킬수 있다. 치료예방사업의 발전과 의료봉사의 수준은 최신과학기술의 성과에 기초한 선진적인 진단치료 수단과 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치료예방기관들에서는 현대과학기술성과에 기초한 새로운 림상실험검사법과 기능진단법, 장기이식과 미세수술법, 방사성동위원소와 레이자를 리용하는것과 같은 여러가지 선진적인 진단과 치료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의약품과 현대적의료설비들을 치료예방사업에 대담하게 받아들여 진단과 치료 방법을 빨리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워야 한다.

동의학적방법과 신의학적방법을 옳게 배합하는것은 치료예방사업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중요한 방침이다. 우리는 동의학적 진단과 치료 방법을 시급히 과학화하고 신의학적진단과 동의학적치료를 잘 배합하며 민간료법을 체계화하고 치료사업에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진단과 치료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의료봉사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의료봉사의 전문화수준을 높이는것이다.

치료예방기관과 의료일군들의 전문분야를 세분화하고 치료예방사업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여야 사람들의 체질과 병증세에 맞게 의료봉사를 잘할수 있으며 치료예방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

우리는 의학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전문분야의 기술수준을 더욱 높이며 새로운 전문분야를 개척하여 치료예방사업을 계통별 전문화로부터 장기별, 질병별 세부전문화로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전문과의사들의 협의체계를 바로세우고 협의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의료봉사조직을 바로하는것은 의료봉사사업을 잘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의료봉사조직을 바로하여야 의학기술력량과 의료시설, 의약품을 비롯한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으며 지역별, 계층별, 직업별, 질병별 특성에 맞게 의료봉사를 잘해나갈수 있다.

우리는 일부 불합리하게 배치된 의료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의료기구를 집중적으로 보장해주어 그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도록 하며 외래환자치료에 중심을 두고 병원관리운영사업을 조직하는데 심중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그리고 농촌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조직을 잘하여 치료예방사업에서 도시와 농촌사이의 차이를 없애도록 하며 어린이와 녀성들에 대한 의료봉사조직을 잘하여 그들의 건강을 잘 보호하여야 한다.

의료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의료봉사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의료일군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인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있는 인간생명의 기사이다. 의료일군들은 근로인민을 질병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혁명과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게 하는 영예로운 사명을 지니고있다. 따라서

의료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의료봉사사업을 잘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

의료일군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깊이 간직하고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영예로운 혁명초소에서 충성의 열정과 주인다운 태도를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의료일군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기본은 환자들에게 정성을 다하는것이다. 정성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있는 보건일군들이 지녀야 할 정신도덕적풍모이다. 우리 보건일군들은 모든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그들이 혁명과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성스러운 임무를 맡고있다. 보건일군들은 직업상 특성으로 보나 맡겨진 혁명임무의 중요성으로 보나 환자를 친혈육처럼 대하는 고상한 인간성을 지녀야 하며 정성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정성운동을 힘있게 벌리자면 이 운동을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숨은 영웅들은 우리 시대의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 주체형의 혁명가의 전형이다. 우리는 정성운동을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적극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모든 보건일군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우리 당의 주체적인 보건사상을 이 땅우에 활짝 꽃피워나가는 혁명의 한길에서 일생동안 충직하게 싸워나가는 참다운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의료일군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자면 또한 과학기술적자질과 림상기술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의료봉사사업은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여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과학기술사업이다. 따라서 의료봉사수준은 의료일군들이 과학기술적자질과 림상기술수준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의료일군들이 과학기술적자질과 림상기술수준이 높지 못하면 자기의 임무를 다할수 없으며 당의 신임과 기대에 보답할수도 없다.

의료일군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 정열가, 독학가가 되여야 하며 전공분야의 과학리론과 기술에 정통하고 세계의학과학발전추세에 밝은 유능한 일군으로 튼튼히 준비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의료일군들은 기술강습, 림상토론회를 비롯한 여러가지 기술학습에 참가하여 림상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의료봉사사업은 보건일군들의 힘만으로는 원만히 할수 없다. 그것은 전인민적,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여기고 의약품과 의료기구 등을 넉넉히 생산보장해주어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 모든 국가경제기관 일군들은 의약품과 의료기구를 비롯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더욱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오늘 보건부문앞에 나선 과업은 매우 무겁고 영예로우며 우리 보건일군들에 대한 당의 기대는 매우 크다.

모든 보건부문 일군들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력사적문헌 《보건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에서 제시된 사상과 리론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요구에 맞게 인민보건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할것이다.

미일독점자본에 예속된 남조선경제의 파국적위기

김 창 우

남조선경제는 미일독점자본에 철저히 얽매여있는 예속경제이다.

미일독점자본은 남조선의 공업과 농업, 운수와 체신, 상업과 대외무역, 재정과 금융 등 중요경제명맥을 철저히 거머쥐고있으며 생산과 분배, 류통과 소비 등 재생산의 모든 고리들을 제마음대로 통제하고있다. 남조선은 미일독점자본의 자본투하지, 상품판매지, 값싼 로동력의 공급기지로 굴러떨어졌으며 남조선경제는 미국과 일본 경제의 부속물로 전환되였다. 그리하여 남조선경제는 침체와 답보, 혹심한 파국적위기를 면하지 못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것은 예속의 길이며 망국의 길입니다. 그것은 파괴된 남조선경제를 더욱더 헤여나올수 없는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며 남조선을 제국주의의 예속에로 더욱더 깊이 밀어넣을뿐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16권, 479페지)

미일독점자본의 침투로 말미암아 남조선경제의 해외의존도는 급격히 높아지고 대외채무는 수습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있으며 경제적파국은 심화되고있다.

남조선경제의 모든 분야를 휩쓸고있는 파국적위기는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실시하여온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남조선의 력대위정자들의 매국배족적책동의 필연적결과이다. 특히 남조선경제의 파국은 이른바 경제의 《완전개방화》의 미명밑에 남조선경제를 더욱더 미일독점자본의 제물로 내여맡기고있는 전두환괴뢰도당의 반인민적, 반민족적 책동의 직접적산물이다.

남조선에서의 경제위기는 한편으로는 장기적인 불경기가 지속되여 생산이 위축되고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몰락하고있으며 다른 편으로는 수출시장이 막히고 심한 적자무역으로 외환위기가 전례없이 심화되고있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무엇보다도 생산이 침체되고 기업파산이 더욱 우심해지고있다.

경제위기는 주요하게 생산의 침체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그 심화정도에 따라 경제위기의 깊이가 좌우된다.

최근년간 지속되고있는 불경기로 남조선에서 생산은 전례없는 침체상태에 빠져있다.

생산의 침체는 공업, 농업 등 주요생산부문에서 보다 심각한 양상을 띠고있다.

남조선경제의 《주도적부문》이라고 하는 공업부문은 생산의 극심한 침체를 겪고있다. 대내시장수요와 수출수요의 부진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의 중화학공업은 만성적인 중태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다.

기간적인 중공업부문들에서의 설비가동률은 평균 39.1~70% 정도밖에 안된다. 막대한 외자를 투입하고있으나 1980~1985년 기간의 년평균 공업성장률은 그전 같은 기간보다 절반이하로 떨어졌다.

지난해 남조선농업은 주곡의 하나인 보리생산이 그 전해보다 65%나 감소된것을 비롯하여 최근에 와서 알곡생산은 계속 떨어지고있다.

경기침체로 많은 기업체들이 파산몰락하고있다. 중소기업은 말할것도 없고 차관기업, 대매판기업체들에서도 파산선풍이 일어나고있다.

남조선괴뢰들자신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수십, 수백억원의 빚을 지

고 은행관리권안에 들어간 기업체수는 1,000여개에 이르고있다.

지난해 2월 남조선의 10대 재벌의 하나인 《국제그룹》이 장기 및 단기 채무를 갚지 못해서 하루아침에 파산되여 내외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것은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이밖에도 남조선의 주요재벌들의 대부분은 걸머진 빚이 자기 자본에 비해 평균 4～5배, 일부 경우에는 10배까지 달하여 파산의 기로에 서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특혜》를 받고있는 대기업체들까지 자금난, 경영난으로 파산의 운명에 처해있는데 기업규모와 자금보유 등에서 대기업체들에 비해 보잘것없는 중소기업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한것이다.

기업체들의 경영위기와 함께 괴뢰도당의 관할밑에 있는 은행들이 전례없는 경영위기를 겪고있다.

은행들의 경영위기는 우선 자금의 주되는 대출대상인 매판기업들의 파산과 관련되여있다. 지금 조흥은행을 비롯한 5개 시중은행들과 외환은행, 지방은행에 쌓여있는 불실채권 다시말하여 돈을 꾸어주고도 회수하지 못하고있는 채권은 무려 6조원에 달하고있다. 그런데 이 은행들의 자기 자본은 모두 합쳐 1조원밖에 안되는데 6조원의 자금을 대부해주고도 다시 회수하지 못하고있는 것은 남조선은행들이 자기의 기능을 수행할수 없게 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은행들이 불실화되고있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전두환역도의 일가족속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감행되고있는 부정협잡행위이다. 남조선에서 최대규모의 《장령자어음사기사건》을 비롯하여 《명성그룹사건》, 《조흥은행사건》, 《광명그룹사건》 등 련발되고있는 대규모부정사건들은 거의 부정대출과 관련된것으로서 이것은 은행들에서의 극심한 자금고갈을 초래하고 그 기능을 마비상태에 빠뜨리였으며 기업운영에 커다란 혼란을 조성하였다.

남조선경제의 파국적위기는 또한 대외무역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남조선대외무역이 직면하고있는 난관은 우선 수출이 심히 침체되고있는것이다. 수출의 침체는 수출증가률이 체계적으로 떨어지고 수출량이 절대적으로 감소되고있는 사실에서 그대로 드러나고있다. 지난 5년간 수출증가률은 그전 같은 시기에 비해 3분의 1～5분의 1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되는것은 수출의 감퇴가 지난 시기와는 달리 거의 모든 품목들을 휩쓸고있는것이다.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부분적인 품목들에서만 수출이 감소되였었다. 그러나 최근시기에 이르러 괴뢰들의 수출에서는 경공업제품을 비롯하여 모든 제품수출이 줄어들고있다. 특히 남조선 수출에서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섬유, 선박, 신발, 금속, 합성수지 등의 제품들에서 수출이 감소되고있다.

한편 남조선괴뢰도당이 주요외화원천이라고 떠들어온 해외건설수출도 전례없는 침체와 경영위기에 빠져있다. 지난해 해외건설수출실적은 1982년의 3분의 1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남조선대외무역이 직면하고있는 난관은 다음으로 만성적인 수입초과와 무역적자의 급격한 증가이다.

미일독점자본은 시설과 원자재, 연료만이 아니라 일용소비품까지도 대량적으로 남조선시장에 투입하고있다. 특히 최근년간 미제의 강압밑에 무작정 감행되고있는 괴뢰도당의 《수입자유화》책동으로 말미암아 미국과 일본 상품은 홍수와 같이 밀려들고있으며 남조선시장은 말그대로 외국상품의 진렬장으로 되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무역에서 늘어나고있는것은 수출이 아니라 수입이다.

1981년부터 1985년기간 무역적자액은 무려 106억 6,800만딸라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최근 5년간 남조선에서 수출에 비한 수입초과는 그전 같은 기간보다 3배이상이나 더 큰 규모로 늘어났다.

무역적자의 증대는 결코 우연한 현상이거나 단순히 그 어떤 무역《시책》상의

변경에 의해 해결될수 있는 일시적인 사태도 아니다. 그것은 예속적인 남조선경제구조자체가 빚어낸 결과이다.

남조선대외무역이 직면하고있는 난관은 또한 《외화가득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것이다.

공식자료에 의하더라도 《외화가득률》은 1981년에 67.1%였는데 지난해에는 그것이 61%로 떨어졌다. 실질수출소득의 이와 같은 감소는 수출무역의 침체 및 무역적자의 엄청난 증대와 뒤엉키면서 남조선대외무역과 거기에 명줄을 걸고있는 남조선경제를 날이 갈수록 더욱 어려운 국면에 몰아넣고있다.

남조선에서 경제위기의 파국상은 외자에 얽매인 남조선경제가 오늘 심각한 외환위기에 직면하고있는 사실에서도 명백히 찾아볼수 있다.

지난 기간 외자도입일면에 매달려온 괴뢰들은 지금 증대되는 대외채무와 그 상환과 관련하여 엄중한 외환위기에 봉착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의 대외채무는 실로 방대한 규모를 헤아리고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에 의하여 남조선인민들에게 들씌워지고있는 대외부채액은 해외에 진출한 건설업체, 종합상사, 무역상사, 은행지점 등이 《자체신용》으로 차입하고있는 현지금융을 포함하여 무려 527억딸라이상(1985년말 현재)에 달한다. 이것을 남조선의 《원》화로 환산하면 42조 5,000억원이 된다. 지난해 남조선괴뢰들이 인민들로부터 짜낸 세금액이 11조 8,200억원이였는데 이에 비하면 외채액은 근 4배나 되는 막대한 금액이다. 남조선주민 1인당 1,215딸라의 외채를 짊어지고있는것으로 되며 이것은 자본주의세계에서 단연 제1위를 차지한다.

전례없는 규모로 급속히 팽창하고있는 대외채무는 남조선괴뢰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정상적으로 발전하고있는 나라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외자도입에서는 외자와 내자와의 비중을 적지 않게 고려하고있다. 그런데 아무러한 밑천도 없이 덮어놓고 차관을 끌어들여 외국의 빚을 걸머지고있는 남조선괴뢰들에게 있어서 당면한 원리금상환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수 없다.

남조선괴뢰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79년에 15억 1,300만딸라였던 원리금상환액이 매해 증가되여 지난해에는 71억딸라에 달하였다. 원리금가운데서 리자액은 지난해에 41억딸라였다. 이리하여 최근 5년기간에만도 채권국들이 대부자본을 통하여 남조선에서 짜낸 리윤총액은 무려 186억 2,700만딸라에 달하였다.

남조선괴뢰도당이 매해 지불하여야 할 막대한 원리금문제는 수출의 침체와 기타 외화수입의 감소로 크게 곤경을 겪고있다. 대외채무의 위험성은 일반적으로 대외부채원리금의 경상외화수입에 대한 비률로써 가늠되는데 남조선의 경우 그것은 국제적으로 《국가파산위험기준》으로 평가되고있는 20%선을 넘어 24.4%를 기록하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이 이른바 《외화수입의 명줄》이라고 하던 수출과 해외건설경기가 악화되고 경제가 날로 침체되는 속에서 늘어나는 원리금을 제대로 갚을수 없다는것은 명백한것이다.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본다는 식으로 남조선괴뢰들은 새로 끌어들이는 외화자금을 원리금상환에 물려맞추는 놀음을 벌리고있다. 놈들은 원리금상환액의 70~80%, 때로는 그 전부를 새로 도입하는 차관으로 충당하고있다. 지난해의 경우만 보더라도 도입된 62억딸라의 전액을 원리금상환에 돌이미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와 같이 지금 남조선에서 경제위기는 전례없는 폭과 심도를 가지고 심화되고있다.

남조선에서 확대심화되고있는 위기는 경제의 예속성에 근원을 두고있다.

지금 남조선경제를 뒤흔드는 위기는 물질생산의 어느 한두 부문들사이에불

균형이 조성되여 발생된것도 아니며 경기순환국면들의 단순한 교체과정에 발생된 순환성위기도 아니다.

그것은 남조선괴뢰도당의 외세의존정책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재편성된 남조선경제의 예속성, 식민지적《수출주도형경제》자체가 빚어낸 필연적결과이다.

남조선경제의 파국적위기는 무엇보다도 《수출주도형경제》에 의하여 극도로 기형화되고있는 편파적인 경제구조에 그 요인이 있다.

경제적자립과 안정된 확대재생산은 언제나 자기에게 고유한 균형과 그에 따르는 일정한 부문구조를 요구한다. 이러한 객관적법칙과 요구가 무시될 때 재생산과정에서는 걷잡을수 없는 혼란과 불안정이 생겨나며 경제전반의 침체와 파국이 일어난다.

《수출주도형경제》로 전락되고있는 남조선경제는 오직 수출에 모든것이 복종되고 수출을 중심으로 모든 경제부문들이 편성되여있기때문에 경제적자립이나 확대재생산의 객관적요구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기형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있으며 혹심한 불균형을 면할수 없게 되여있다.

채취공업의 파탄과 그로 인한 채굴공업과 가공공업사이의 불균형은 남조선경제의 불안정성을 끊임없이 심화시키고있다.

남조선경제는 자체의 원료자원을 개발수출하는 구식민지무역형태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신식민지경제구조, 순수한 중계 및 가공무역형태의 《수출주도형경제》로 전변됨으로써 채굴공업의 완전한 파탄을 가져오고있다.

채굴공업의 파탄은 철광석과 무연탄 채굴동태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남조선에서 원래 보잘것없는 철광석 생산량은 1976년부터 지난해에 이르는 10년간 년산 63만톤으로부터 55만톤으로 줄어들었으며 전반적인 에네르기소비구성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38.1%로부터 19.3%로 떨어졌다.

채굴공업의 파탄은 가공공업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있으며 해외로부터의 원료수입을 전례없는 규모로 늘이게 하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이 일본에서 사들인 포항제철소는 철광석의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쓰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은 1985년에 수출산업을 위한 원자재수입에 거액의 외화를 소비하였으며 그밖에 무연탄, 유연탄 및 원유 수입에 수십억딸라를 쓸어넣었다.

해외로부터의 원료, 연료 수입은 항시적인 가격불안의 중요한 원인으로 되고있다. 수입원자재가격은 그것을 쓰는 공업부문들과 그와 련관된 부문들의 제품가격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고있으며 남조선의 가격체계전반을 뒤흔들어놓고있다.

수입원자재가 남조선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류통령역보다 직접적인 생산령역에서 더 크고 심각하다. 년간에 소비되는 총원자재의 57.6%, 주요원자재의 90～100%를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있는 남조선에서 원료난은 자금난과 함께 전반적인 기업체들의 조업상태를 좌우하는 결정적조건으로 되고있다. 이리하여 방대한 원료자재의 해외의존은 오늘 남조선에서 중소기업으로부터 시작하여 대기업체들에 이르는 전반적 기업들이 극히 불안정한 조업상태에 처하게 하며 걷잡을수 없는 파산과 혼란에 빠져들어가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수출주도형경제》로 전변된 남조선경제구조에서 심각한 문제로 되는것은 또한 농업생산의 파탄과 그로 인한 농업과 공업간의 혹심한 불균형이다.

오늘 남조선농업은 미제의 《잉여농산물》강매책동과 남조선괴뢰들의 《저미가정책》에 의하여 파탄되고있다.

영농의 제조건에 아무런 본질적변화가 없으나 경지면적은 일제시기보다 오히려 줄어듦으로써 알곡생산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있다. 지난해 알곡수입량은 무려 726만톤에 이르렀다. 남조선괴뢰들은 매해 20억딸라에 달하는 농산

물과 축산물을 사들이지 않고서는 살아갈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남조선농업의 락후성과 파탄은 공업에 영향을 주고있다. 남조선에서 면화재배가 파탄되여 수출품의 큰 몫을 담당하는 섬유공업이 부득불 원료의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놓여있는것은 그 단적인 실례로 된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농업의 파탄은 경제의 예속과 불안정을 초래하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되고있다는것을 잘 말하여준다.

남조선경제의 파국적위기를 산생시킨 요인은 또한 식민지적 《수출주도형경제》에 의하여 산생되고있는 첨예한 대외시장난에 있다.

《수출주도형경제》에 있어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것보다 더 중요한것은 없다. 그러나 남조선경제는 안정된 해외시장을 못가지고있으며 더우기 매판자본의 생산규모의 변동에 상응하게 시장을 확보하고 확대하는 문제는 더욱더 어렵고 심각해지고있다.

그것은 우선 괴뢰들이 대상하고있는 해외시장의 구조적약점으로 인하여 시장확대가 완전히 한계에 부딪치고있는데 있다.

식민지무역을 강요당하는 남조선대외무역의 첫째가는 수출시장은 미국과 일본이다. 오늘 미국과 일본이 남조선의 수출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이상을 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수출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자면 주로 미국, 일본의 국내시장을 뚫고 들어가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남조선수출산업이 상전의 국내시장에 제멋대로 침투할수 없다. 그것은 남조선수출무역이 원료구입과 생산으로부터 수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환절들과 세부적인 업무활동이 미일독점자본에 철저히 예속되여있기때문이다. 따라서 괴뢰도당의 해외시장확대는 남조선수출산업의 생산능력이나 내적요구와는 관계없이 미일독점자본의 엄격한 통제와 제한 속에서 그 규모가 미리 한정되고있다. 최근시기 미국, 일본이 실시하고있는 강압적인 《수입할당제》로 남조선의 섬유, 철강류 수출은 말그대로 암초에 부딪쳐있다.

남조선의 대외시장난은 다음으로 수출경쟁력이 취약한 사정과 관련된다.

아무리 낮은 임금수준에 의거하여 원가를 저하시킨다 하더라도 그 가격이 끊임없이 상승하는 다량의 수입원자재와 비싼 연료동력비때문에 남조선수출상품은 곤경을 면치 못하고있다. 특히 어려운 문제는 수출품의 원가를 낮추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저임금마저 한계점에 도달한것이다. 원가의 7~8%도 안되는 임금을 더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리기도 어렵게 되였으며 설사 내린다 하여도 그것이 생산비저하에서 가져오는 효과란 보잘것없는것이다.

남조선의 대외시장난은 다음으로 남조선수출산업구성상 약점과도 관련된다.

미일독점자본에 의하여 남조선에 이식된 수출산업은 사실상 최근년간 국제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실현난에 부딪쳐있다. 남조선수출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섬유산업과 선박공업은 이미전부터 침체상태에 빠져 해외판로가 막혀있다.

이와 같이 오늘 남조선경제는 그자체의 극복할수 없는 구조적모순과 실현조건에서의 난관 등으로 하여 헤여나기 어려운 파국적위기에 처해있다.

미일독점자본에 예속된 남조선경제의 파국적위기는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에 엄중한 후과를 미치고있다.

남조선로동자들의 처지는 최악의 상태에 있다. 그것은 취업조건에서 집중적으로 찾아볼수 있다. 남조선에서 기업체들의 휴업, 폐업으로 말미암아 일자리에서 쫓겨난 완전실업자와 반실업자수는 700만명이상을 헤아리고있다. 직업을 가지고있는 로동자들의 경우에도 하루에 16~18시간의 긴 로동시간과 함께 가혹한 로동조건하에서 마소와 같이 일하고있다. 1985년에 10명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들에서 무려 15만건의

로동재해가 발생되였는데 그로 인한 사상자수는 미국의 10배, 일본의 7배에 이르고있다.

남조선로동자들은 로동생활처지에서뿐아니라 물질생활처지에서도 극히 비참한 형편에 놓여있다. 로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생계비의 3분의 1~4분의 1밖에 안된다. 주택난은 남조선근로자들의 생활처지의 악화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남조선전체적으로 집없는 세대의 비률은 30%, 도시의 주택부족률은 무려 45%에 이르고있다.

로동자들뿐아니라 농민들의 생활도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다. 남조선농민들의 생활처지의 악화는 주요하게 식민지《수출주도형경제》의 필수적동반물인 《저미가정책》에 의하여 빚어지고있다. 남조선농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저미가정책》에 의하여 우심한 략탈을 당하고있으며 쌀값은 생산비의 60~70%도 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농민들의 생활처지는 극도로 악화되고있으며 리농하는 농민들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부채농가는 전체농가의 92.1%에 달하며 매해 리농민수는 40만~45만명에 달하고있다.

미일독점자본에 예속된 남조선경제의 파국적위기는 중소기업체에도 우심한 후과를 미치고있다. 남조선의 중소기업은 자본규모와 기술수준, 생산조직과 경영형태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일층 락후해지고 령세화되고있으며 결과 항시적인 경영난과 파산의 운명을 면치 못하고있다. 최근년간 남조선에서 휴업, 폐업, 조업단축 등의 경영위기를 겪고있는 중소기업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모든 사실은 남조선괴뢰들이 떠드는 《경제성장》이니, 《민생문제해결》이니 하는것은 기만에 찬 허구이며 그것은 미일독점자본의 착취와 략탈에 남조선경제를 송두리채 내맡긴 제놈들의 매국배족적죄행을 가리우려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남조선이 미제의 식민지로 남아있고 남조선괴뢰도당의 군사파쑈통치가 그대로 유지되고있는 한 남조선경제의 그 어떤 《성장》도 《민생고의 해결》도 있을수 없다.

남조선경제를 예속과 파국에서 건져내고 민생을 도탄에서 구출하는 유일한 길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전두환매국역적을 타도하는데 있다.

쏘련공산당 제27차대회보고

(1986년 2월 25일)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엠. 에쓰. 고르바쵸브

미하일 고르바쵸브동지는 쏘련공산당 제27차대회에서 제26차대회로부터 제27차대회에 이르는 기간에 진행된 쏘련공산당의 사업과 쏘베트사회발전을 위한 당의 앞으로의 활동에 관한 중앙위원회 정치보고를 하였다. 보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쏘련공산당 제27차대회는 나라의 생활과 현세계전반의 생활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있는 시기에 소집되였다.

우리의 과업은 우리가 살고있는 시대를 폭넓게, 레닌적으로 분석하고 목적의 위대성과 능력의 현실성, 당의 계획들을 매개 사람들의 희망 및 념원과 유기적으로 결합시킬 현실주의적이며 전면적으로 타산된 행동강령을 작성하는 것이다. 제27차대회의 결정들은 앞으로 수년간, 수십년간의 우리의 전진운동, 질적으로 새로운 상태의 쏘베트사회주의사회에로의 전진운동의 성격도 속도도 규정할것이다.

우리는 자기의 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잘 알고있기때문에 미래를 확신을 가지고 내다보고있다.

1. 오늘의 세계: 기본 추세와 모순

오늘의 세계는 복잡하고 다양하고 약동적이며 서로 대립하는 추세로 일관되여있으며 모순으로 가득차있다. 이것은 매우 복잡한 량자택일, 불안과 희망의 세계이다.

위대한 10월이 시초를 열어놓은 해방혁명들이 20세기의 면모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시대의 진보는 정당하게 사회주의와 동일시되고있다. 세계사회주의는 강력한 국제적구조이며 그것은 고도로 발전된 경제와 튼튼한 과학기지, 믿음직한 군사정치적잠재력에 의거하고 있다.

사회주의,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열려진 현실적인 가능성이며 미래를 지향하는 본보기이다.

사회주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초즉 집단주의적기초우에서 사회적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가능성을 과시하였으며 나라들을 보다 높은 발전의 경지에로 이끌었으며 근로하는 사람들에게 보람차고 확신성있는 생활을 가져다주었다.

사회적진보과정은 반식민주의혁명들과 민족해방운동, 많은 나라들의 재생, 수십개의 신생국가들의 출현과 밀접히 련결되여있다. 지난날 제국주의정책의 무권리한 대상이였던 이 나라들은 자주적으로 력사를 창조하는 길에 들어섰다.

사회적진보는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발전에서 그리고 반전, 반핵운동을 포함한 현시대의 새로운 대중적인 민주주의운동이 전개되는데서 나타나고있다. 또한 그것은 제국주의의 본거지인 미국을 포함한 자본주의세계에서의 정치세력의 와해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개명》한 20세기는 가장 류혈적인 전쟁, 군국주의와 파시즘의 광란, 인종멸살, 수백만사람들의 불행과 같은 제국주의의 산물로서 력사에 기록되였다.

인류의 진보는 과학기술혁명과 직접적으로 련결되여있다.

각이한 사회정치제도하에서 과학기술혁명은 각이한 계선을 가지며 후과를 가져오고있다. 80년대의 자본주의, 전자공학과 정보공학, 콤퓨터와 로보트의 세기의 자본주의는 청년들과 교육받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새로운 수백만사람들을 거리로 쫓아내고있다.

군국주의는 20세기의 가장 보기 흉하고 위험한 괴물로 되여가고있으며 그의 책동에 의하여 대량살륙무기가 가장 선진적인 과학기술사상을 좀먹고있다.

사회주의는 현대 과학과 기술을 사람에게 복무할수 있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것을 가지고있다.

우리가 21세기 문어구에서 살고있는 세계는 바로 이렇다.

오늘의 세계는 희망으로 가득찬 세계이다. 그러나 오늘의 세계는 위험과 모순으로 가득찬 세계, 력사의 가장 불안한 시대가 아닌가라고 말할수 있게 하는 그러한 세계이기도 하다.

인류운명의 견지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첫 부류의 모순은 두 제도, 두 구성태의 국가들사이의 관계와 관련되여있다. 이 모순들은 다년간의 력사를 가지고있다.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의 탄생을 《시정》해야 할 력사의 《과오》로 맞이하였다. 그러나 그 무엇도 새 제도의 수립과 삶에 대한 그의 력사적권리의 확립을 가로막지 못하였다.

자본주의세계의 지배계급들이 현실을 리해하기 힘들어하고 두 세계를 갈라놓고있는 모든 모순들을 힘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주기적으로 되풀이되고있는것은 물론 우연하지 않다. 힘으로 력사의 흐름을 멈춰세우고 과거를 되살리려고 책동하는 제국주의와는 달리 사회주의는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기의 미래를 국제문제들의 군사적인 해결책과 련결시켜본적이 결코 없다. 오늘도 우리는 특히 혁명을 외부로부터, 더우기 군사적수단으로 사촉하는것이 무익하며 또 허용할수 없는것이라는것을 굳게 확신하고있다.

모든것으로 미루어보아 앞으로는 바로 평화를 유지할수 있는 정책의 실제적인 내용을 둘러싸고 기본투쟁이 벌어지게 될것이다. 이 투쟁은 여러 갈래의 복잡한 투쟁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조성된 정세하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자본주의나라들사이, 쏘련과 미국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는가를 예견한다는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여기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되는것은 세계무대에서의 력량관계, 평화력량의 장성과 적극성, 핵전쟁위험에 효과적으로 맞설수 있는 평화력량의 능력이다.

두번째 부류의 모순은 자본주의세계자체의 모순이다. 지난 기간은 자본주의의 전반적위기가 심화되였다는 많은 증거를 주었다. 거대하게 장성한 생산력과 사적소유의 성격을 띤 사회관계사이의 모순은 과학기술혁명의 영향으로 그리고 그것을 배경으로 하여 더욱 날카로와지고있다. 정치기구들과 정신분야의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있다. 자본주의가 처해있는 사회적 및 기타 난국이 오늘과 같이 많았던 때는 자본주의 발전의 전기간에 일찌기 없었다.

우선 로자간의 모순이 격화되고있다.

현 세기의 최근 수십년간의 특징은 국제제국주의의 모순이 새로 폭발하고 그 모순의 새로운 형태와 경향성이 나타난것이다.

계급적류사성도 힘을 단합하는데서의 관심성도 군사, 경제 혹은 정치적 통합도 과학기술혁명도 이러한 제반 모순을 제거하지 못하였다. 자본주의적재생산의 조건이 현저히 복잡해지고 위기과정이 다양해진것, 국제적인 경쟁이 첨예화된것은 제국주의적경쟁에 특별한 첨예성과 완강성을 부여하였다. 세계시장에서의 통상경제적싸움은 《국내》국가독점자본주의의 위력에 더욱더 의거하고 부르조아국가의 더욱더 침략적이고 사리적인 역할에 의거하여 벌어지고있다.

다국적독점자본이 빨리 장성하였다. 80년대초에 다국적회사들이 자본주의세계에서 공업생산의 3분의 1이상, 대외무역의 절반이상, 새 기술과 기술공정특허의 약 80%를 차지하였다.

다국적회사들과 민족국가형태의 사회정치조직사이에는 새로운 모순점들이 생겨났으며 급속히 첨예화되고있다.

다국적회사들은 발전도상나라들뿐아니라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자주권도 유린하고있다.

현대제국주의의 세개의 기본중심인 미국, 서구라파, 일본의 호상관계는 로골적인 또는 은페된 모순으로 가득차있다. 서구라파와 일본은 미국상사들을 일정하게 밀어내는데 성공하였다. 그들은 최신기술과 같은 미국패권의 전통적인 령역에서도 미국에 도전하고있다. 워싱톤은 집안싸움에 맥을 빼지 말라고 동맹국들에 부단히 호소하고 있다.

현시기 제국주의자들사이의 모순의 특징은 수십년사이에 그 모순들이 다른 형태로 나타날수 있는것이며 자본주의의 새로운 《힘의 중심》들이 나타날수 있다는것이다. 이것이 모순들을 더욱 증대시키고 서로 더 엉키게 하고 격화시킬것이라는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제국주의와 발전도상나라들 및 인민들사이에 복잡하고 가변적인 새로운 모순들이 생겨났다.

제국주의체계가 발전도상나라들을 략탈하고 그 나라들을 가장 무자비하게 착취함으로써 계속 살아가고있다고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것이다. 착취의 형태와 방법은 바뀌여지지만 그 본질은 종전과 변함이 없다.

모든 제국주의국가들이 발전도상나라들을 착취하고있지만 미제가 가장 파렴치하게 착취하고있다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부등가교환, 불공평한 무역, 리자률에 의한 술책과 전횡, 다국적회사들의 뽐프는 똑같은 방향에서 작용하고있다.

채무문제에 대해 말해보기로 하자. 해마다 발전도상나라들로부터 반출되는 거액의 리윤과 함께 루적된 채무가 의미하는것은 하나뿐인데 그것은 이 나라들의 발전전망이 더욱 어려워질것이며 그러지않아도 난문제인 사회, 경제 및 기타 문제들이 불가피하게 더욱 첨예화되리라는것이다.

또 한 부류의 모순, 인류문명존재의 기초자체와 관계되는 세계적규모의 모순에 대한 분석은 신중한 결론에로 이끌어간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연환경과 대기 및 대양의 오염문제이며 자원의 고갈문제이다.

전인류적, 전세계적 문제를 한개 나라 혹은 몇개 나라의 힘으로는 해결할수 없다. 여기에서는 전세계적인 규모의 협조와 많은 나라들의 긴밀하고 건설적인 협동작전이 필요하다.

생활자체가 문화보존문제, 부르죠아적타락과 파괴로부터 문화를 보호하는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이것은 전인류적인 중대한 과업의 하나이다. 걷잡을수 없는 장사치근성과 폭력우상화의 압력밑에서 문화의 쇠퇴, 인종주의의 설교, 저렬한 본능, 범죄세계와 사회 《최하층》의 풍습에 대한 선전은 인류의 배격을 받아야 하며 또 받게 될것이다.

보는바와 같이 규모가 크고 복잡한 문제들이 많다. 제국주의는 력사의 안장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에 다 매달리고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때문에 세계는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

미국지배층은 이 복잡한 력사적시기에 분명히 현실주의적인 방향을 명백히 잃어버리고있다. 침략적인 국제적행동, 정치와 사고의 증대되는 군국화, 다른 사람들의 리익에 대한 무시는 불가피하게 미제국주의의 도덕적 및 정치적 고립을 가져오고있으며 그와 모든 나머지 인류사이의 심연이 더욱더 넓어지게 만들고있다. 두 체계의 경쟁과 대결이 세계공동체국가들의 호상의존성이 늘어나고있는 추세와 결합되여있는 여기에

우리 시대발전의 현실적인 변증법이 있다.

2. 나라의 사회경제발전을 다그치는것은 전략적 방침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는 4월전원회의에서 나라의 사회경제발전을 다그칠데 대한 전략을 제기함으로써 력사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다그친다는것은 무슨 말인가? 무엇보다도 경제장성속도를 높인다는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다. 그 본질은 새로운 질적장성을 이룩하는것 즉 과학기술적진보, 경제구조개혁, 관리와 로동조직 및 자극의 효과적인 형식에 기초하여 생산을 백방으로 집약화하는데 있다.

쏘련공산당의 세번째 강령을 채택한 후 4반세기동안에 쏘련은 거대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인민경제의 생산적고정폰드는 7배로 장성하였다. 수천개의 기업소가 일떠섰으며 새로운 부문들이 창설되였다. 국민소득은 거의 4배로 장성하였으며 공업생산은 5배, 농업생산은 1.7배로 장성하였다.

현 세기말까지 생산잠재력을 배로 늘이고 그것을 질적으로 개조하면서 동시에 국민소득을 거의 배로 장성시켜야 한다.

이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기본수단은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있은 1985년 6월협의회에서 강조된바와 같이 과학기술의 진보이며 사회생산력의 근본적인 개조이다. 우리는 과학기술의 최신성과에 기초하여, 과학기술진보의 첨단방향에서 돌파구를 열며 경제 기구와 관리체계를 개편하는데 기초하여 인민경제를 대대적으로 개건하는것이 출로라고 인정한다.

인민경제를 개건하자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선 부문구조와 투자정책을 변경시켜야 한다. 변경시키는 본질적내용은 주의의 중심을 량적지표로부터 질과 효과성에로 옮기며 중간결과로부터 최종결과에로, 생산폰드를 늘이는 방법으로부터 그것을 갱신하는 방법에로, 연료 및 원료 자원을 많이 소비하는데로부터 그것을 더 잘 리용하며 첨단기술부문들과 생산적 및 사회적 하부구조를 급속히 발전시키는데로 주의의 중심을 옮기는것이다.

전략적방향에 따라 방대한 종합강령이 작성되여 실현되기 시작하였다.

대회대표들은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쏘련내각이 얼마전에 기계제작공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는것을 알고있다. 본질에 있어서 이것은 가장 중요한 공업부문을 현대화하기 위한 전국가적인 강령이다.

생산의 폭넓은 전자화와 종합적인 자동화는 기술적개건속도에 큰 영향을 줄것이다. 현대적인 콤퓨터기술을 대대적으로 도입하며 요소기지를 발전시킬데 대한 구체적인 과제가 확정되였다.

연료—에네르기종합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데 대한 구상은 에네르기강령을 관통하고있다. 야금과 화학 공업, 그 생산설비를 재장비하는 일을 많이 해야 할것이다. 당은 생산하부구조, 무엇보다도 운수와 체신의 기술적재장비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기본건설을 근본적으로 개선함이 없이는 기술적개건사업을 수행할수 없다.

이 모든것은 규모로 보나 의의로 보나 방대한 과업이다. 이 과업들의 해결이 결국 계획수행의 운명과 우리의 장성속도를 규정할것이다.

최근시기 과학연구기관들의 사업에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대책들이 취해졌다. 그것은 과학자들의 로동에 대한 자극문제, 과학과 생산의 새로운 협조형태문제들이다.

총적으로 과학이 인민경제의 수요에 낯을 돌리는 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 또한 생산이 과학에 낯을 돌리고 과학기술성과에 대한 생산의 감수성을 최대한으로 높이는것은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우리가 단기간내에 해결하여야 할 과업은 나라의 식량문제를 완전히 푸는것이다.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5월전원회의(1982년) 결정과 쏘련의 식량계획에 기초하여 작성된 당의 현 농업정책은 이것을 목적하고있다.

농업부문에서 제12차5개년계획기간에 식량공급을 현저히 개선하기 위해 결정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농업생산장성속도를 배이상으로 높여야 하며 고기, 우유, 남새, 과일의 인구 1인당 소비의 현저한 증가를 보장하여야 한다.

최근년간의 경험이 보여주다싶이 성과의 열쇠는 집약적인 영농기술을 널리 받아들이는데 있다.

경제에서의 새로운 과업의 해결은 경제기구를 심오히 개편함이 없이 그리고 사회주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발현시킬수 있게 하는 완전무결하고 효과적인 신축성있는 관리체계를 창설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경제기구개편의 기본방향을 규정하였다.

성과여부는 중앙경제기관들, 무엇보다먼저 쏘련국가계획위원회의 활동을 어떻게 개편하는가에 많이 달려있다. 국가계획위원회는 실제적으로 당면한 경제문제들로부터 벗어난 나라의 진정한 과학경제참모부로 되여야 한다.

관리와 계획을 완성하며 조직구조를 완성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은 결국 경제체계의 기본고리인 련합기업소, 기업소들의 사업의 효과성을 위한 조건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성과 국들이 기업소들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는 현상을 끝장낼 때가 되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경제기구의 모든 개편은 의식을 개조하며 판에 박힌 기존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버리며 새 과업을 명백히 인식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경제일군들과 중앙관리기관 일군들의 활동과 관련되여있다.

경제와 경제기구를 개혁하는 사업에서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것은 과학에 의거하는것이다. 생활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일부 리론적인 개념과 견해를 새롭게 보아야 한다.

이것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호상관계, 사회주의적소유, 그 실현의 경제적 형태들, 상품화폐관계, 중앙집권화와 경제기관들의 자립성의 결합과 같은 그런 커다란 문제들에 관계된다.

제12차5개년계획의 특성은 바로 새로운 과학기술적토대우에서 인민경제를 재무장시키는 사업을 전진속도를 동시에 높이는 조건에서 진행한다는데 있다.

이로부터 우리의 모든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있다. 생산과 생활의 모든 부문, 모든곳에서 절약해야 하며 살림살이를 되는대로 하며 랑비하는 현상을 묵과해서는 안된다.

제품의 질문제를 특별히 강조하고저 한다. 이것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커다란 예비라는것은 말만 해가지고는 안된다.

사회시책문제들과 인간에 대한 배려는 언제나 우리 당의 기본관심사로 되여왔다. 바로 여기에서 사회주의제도의 인도주의적본성과 자본주의와의 그 질적차이가 가장 폭넓게 직관적으로 나타난다.

나라의 사회경제발전전망계획에는 인민들의 복리를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에 올려세워야 한다는것이 지적되여있다. 앞으로 15년동안에 생활조건개선에 돌려지는 자금은 배로 늘어날것이다. 인구 1인당 실질소득은 1.6~1.8배 높아질것이다.

일을 잘한 일군과 일을 불성실하게 한 일군에게 꼭 같은 보수를 지불하는것은 우리의 원칙을 란폭하게 위반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로동에 따라》라는 사회주의의 기본원칙에 대한 허용할수 없는 외곡이다. 그 원칙

에는 새 사회 제도의 사회적공정성의 본질이 확고히 표현되여있다.

될수록 빨리 현대적인 봉사령역을 창설하여야 한다. 이것은 중앙기관들의 과업이지만 작은 범위에서가 아니라 큰 범위에서는 가맹공화국의 내각과 모든 지방정권기관들의 과업이다.

주택문제의 사회적의의와 심각성에 비추어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심중하지 않을수 없다. 2000년까지 매 가정에 개별적인 살림집을 보장하는것은 그자체가 큰 과업이지만 능히 할수 있는 과업이다.

사회령역에서의 질적변화는 로동의 내용에서 심각한 변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여기에서 인민경제의 기술적개건 즉 기계화, 자동화, 전자계산기화, 로보트화가 기본역할을 놀아야 한다.

전국적으로 술풍과 알콜중독 현상을 반대하는 투쟁이 벌어지고있다. 사회와 인간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는 단호한 조치들을 취하였으며 세기를 두고 형성되고 부식되여온 습관과의 투쟁을 벌리고있다.

가정을 공고히 하기 위한 공민들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법규범을 완성할데 대한 제안을 목적지향성있게 검토하여야 한다.

쏘베트다민족국가에 있어서 민족관계의 발전은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가 사회령역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한다면 우리 생활이 오늘날의 많은 문제들과 래일의 문제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해결될것이다.

3. 사회의 가일층의 민주화, 인민의 사회주의적 자치의 심화

워. 이. 레닌은 민주주의와 근로자들의 창조적인 활동을 새 제도의 발전의 주되는 힘으로 보았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특히 현 조건에서 관리사업은 협소한 범위의 직업적일군들의 특전으로 될수 없다.

리론에서뿐아니라 자기의 다년간의 실천활동을 통해 우리는 사회주의제도가 인민들자신이 자기들의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처리하며 수백만사람들이 정치생활에 참가할 때에만 성과적으로 발전한다는것을 알고있다. 바로 이것이 레닌이 리해한 근로자들의 자치이며 그것이 쏘베트정권의 본질을 이루고 있다.

당은 사회주의적자치제발전의 주력으로, 주되는 담보로 되고있다. 당은 당내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며 당체계의 모든 고리에서 일하고있는 공산당원들의 열의를 높이고있다.

근로자들의 혁명적창조성에 의하여 태여난 인민대의원쏘베트들은 세월의 검증을 받았으며 자기의 생활력과 인민들의 완전한 권리를 실현하고 대중을 단합시키고 동원하는데서의 거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발전의 론리자체가 쏘베트대표기관들의 이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리용할 절박한 필요성에 대하여 말해주고있다.

인민자치제의 발전은 관리에서, 쏘베트집행위원회와 그 기구들, 기타 모든 국가기관들의 활동에서 민주주의적원칙을 가일층 심화시킬것을 요구하고 있다.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인민의 사회주의적자치체제에서 직맹, 공청, 창작동맹들과 자원협회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가일층의 조치들을 취하는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고있다.

2년전에 채택된 로동집단에 관한 법은 의심할바없이 그들의 창발성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우리의 헌법은 나라의 생활에서 나서는 커다란 문제들과 지방쏘베트결정초안들에 대한 전인민적인 토의와 투표를 진행할것을 예견하고있다. 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에 관한 법준비를 다그쳐야 한다. 우리는 직접적민주주의발전의 믿음직한 방법들 즉 주민회의, 선거자들의 요망서, 근로자들의 편지, 출판물,

라지오, 텔레비존, 사회여론과 대중의 요구와 감정에 대한 신속하고 예민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모든 수단들을 더 잘 리용하여야 한다.

확고한 준법성은 우리의 민주주의의 떼여낼수 없는 부분으로 되고있다.

법유지기관들과 다른 기관들의 책임성을 부단히 높여야 하며 쏘베트들, 인민경제와 국가중재 기관들에서 법률사업을 강화해야 하며 주민들에 대한 법적교양을 완성해야 한다.

쏘련과 기타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정탐기관들의 파괴활동이 강화되는 조건에서 국가안전기관들에 부과된 책임은 현저히 커지고있다.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복잡한 국제정세와 제국주의 반동계층의 침략성이 악랄해지고있는것을 고려하여 나라의 방위력과 쏘련무장력의 전투력, 군사규률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주의를 돌리고있다. 우리는 오늘 쏘련의 방위력이 쏘련사람들의 평화적로동과 평화로운 생활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는 수준에 있다는것을 책임적으로 말할수 있다.

4. 당의 대외정치전략의 기본 목표와 방향

쏘련공산당은 조성된 정세를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현세기말까지 대량살륙무기를 완전히 철폐할데 대한 완전무결한 강령을 내놓았는데 이것은 그 규모와 의의로 보아 력사적인 강령이다. 이 강령이 실현되면 인류앞에 근본적으로 다른 발전의 시대, 오직 창조를 위해서만 몰두할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게 될것이다. 때문에 앞으로도 세계무대에서 당의 기본적인 활동방향은 핵위협과 군비경쟁을 반대하고 전반적인 평화를 유지공고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이다.

미국에서 집권한 우익그루빠와 그 주요 나토동반자들은 완화정책으로부터 군사적인 힘의 정책에로 방향전환하였다. 워싱톤행정부는 군비경쟁을 억제하고 정세를 전전화할데 대한 우리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께 1월 15일부 우리 성명에 대한 레간대통령의 답변을 받았다.

한마디로 말하여 상세하게 파고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방금 받은 편지에서 핵위협을 제거하는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제로 착수하려는 미국지도부의 진지한 용의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쏘련공산당은 구라파방향을 자기의 국제활동의 기본방향의 하나로 간주하고있다. 구라파의 력사적기회와 그 미래는 대륙나라들과의 평화적협조에 있다.

아세아 및 태평양 방향의 의의가 커가고있다. 이 광대한 지역에는 뒤엉킨 모순의 매듭이 적지 않다. 그런가 하면 개별적지역들의 정치정세는 불안정하다. 여기서 뒤로 미루지 말고 자기의 해결책과 방도를 찾아야 한다. 조정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다음에 절박한 문제들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힘을 합쳐나가야 한다. 이에 기초하여 아세아의 여러 지역들에서 군사적대치상태의 심각성을 제거하고 거기에서 정세를 안정시켜야 한다.

우리는 중근동과 중미주, 남부아프리카와 지구상의 모든 발화점들에서 충돌적정세를 해소하는 방도를 집단적으로 찾는것을 적극화할것을 주장하고 있다.

쏘련공산당은 모든 공산당들, 세계사회주의체제의 모든 국가들과 성실하고 솔직한 관계를 맺으며 그들과 동지적인 의견교환을 진행할것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세계가 단합하는것을 무엇보다먼저 보려 한다. 때문에 모든 사회주의국가들이 교제하는 길에서의 매개 진일보와 그들사이의 관계에서의 매개 긍정적인 전진은 쏘련공산당원들을 기쁘게 하고있다. 쏘련과 큰 이웃나라인 사회주의중국과의 호상관계가 일정하게 개선되였다고 만족스럽게 지적할수 있다.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력량에 대한 쏘련공산당의 련대성과 사회주의를 지

향하는 나라들, 혁명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정당들, 블럭불가담운동과 호상 긴밀히 협조할데 대한 우리의 로선은 변함이 없다. 쏘련사회계는 앞으로도 종교단체들을 포함하여 전쟁을 반대하는 비공산주의사조들, 각종 단체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용의를 가지고있다.

반전투쟁에서는 반드시 성과가 이룩되여야 한다.

이 성과는 전인류의 력사적승리로, 지구상에 있는 매개 사람들의 승리로 될것이다. 이 투쟁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쏘련공산당은 자기의 대외정치적전략의 본질을 보여주고있다.

5. 당

당면한 문제의 규모와 새로운 측면은 쏘련공산당의 정치적, 사상적 및 조직적 활동의 성격에 대한 매우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있다. 쏘련공산당은 오늘 1,900만여명의 공산당원들을 단합하고 있으며 공산당원들은 목적과 의지, 규률로 통일단결되여있다.

당의 위력은 당이 시대와 생활의 맥박을 감촉하고 언제나 대중속에 들어가 행동하고있는데 있다.

나라앞에 새로운 과업이 제기될 때마다 당은 그 해결방도를 찾으며 지도방법을 개편하고 개선함으로써 나라의 운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대한 력사적책임을 담당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리정표는 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였다. 우리는 인민들에게 우리의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애로와 태만에 대하여, 우리의 당면과업과 전망과업에 대하여 명백하게 이야기하였다. 오늘 대회에서 4월전원회의로선이 공산당원들과 수백만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는것을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다.

당사업을 개편하는 본질은 공화국적인 당조직으로부터 기층조직에 이르기까지의 매개 당조직이 4월전원회의로선을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며 탐구와 자기 활동의 형태와 방법을 갱신하는 환경속에서 살게 하자는데 있다.

바로 여기에서 당조직들의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할 과업이 전면에 제기되고있다. 우리 공산당원들은 그 누구를 쳐다보고만 있을수 없는것이다.

만약 당조직이 원칙적관계에 기초하여 생기발랄하게 움직이고 만약 공산당원들이 일반적인 말공부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을 한다면 성과는 보장될것이다.

일반적인 공산당원의 전위적역할이란 없다. 그것은 실천사업에서 표현되는것이다.

사람들은 공산당원들인 우리들을 사업과 행동 등 모든 면에서 모범으로 보고있다. 근로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그야말로 진짜공산당원이다.》라고 말할수 있게 일하여야 한다. 당청사에서 생활이 맑고 깨끗하면 할수록 우리는 현재의 변혁적인 시대에 특징적인 그 간단하지 않은 과업들을 더 빨리 해결할수 있을것이다.

집체적지도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백방으로 강화하는것만이 주관주의적행동을 막을수 있으며 심사숙고하고 확고한 결정을 채택할수 있는 전제조건을 마련할수 있다. 이것을 잘 알고있는 지도일군은 장기적이고 유익한 사업을 타산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지금 비판과 자기비판을 발전시키며 허례허식과의 투쟁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이전보다 첨예하게 느껴지고있다.

당내에는 통제밖에 있으며 비판의 문을 닫는 조직이란 없으며 있어서는 안되며 당적책임에 울타리를 치는 지도일군들이 없으며 있어서는 안된다.

공산당은 정치도덕적선봉대이다. 지난 5년동안 당대오는 거의 160만명 장성하였다. 로동계급과 모든 사회계층속에서 당의 뿌리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우리의 과업은 당대렬의 순결성에 늘 관심을 돌리고 우연분자들과 그리고 출

세나 혹은 다른 사리적인 목적으로 입당하려는자들이 당에 들어오는것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공산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개선하고 당규률준수와 규약상 요구의 무조건적인 리행을 요구하는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일부 공산당원들이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하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동을 함으로써 적지 않은 손실을 당하고있다.

당은 앞으로도 공산당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자들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당대렬에서 제거해버릴것이다.

또 한가지 문제가 있다. 당은 관료주의를 반대하여 결정적이고도 무자비한 투쟁을 선포하여야 한다.

오늘 관료주의는 나라의 사회경제발전을 다그치며 이와 관련하여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할데 대한 우리의 주요한 과업을 해결하는데서 커다란 장애로 되고있다. 이것은 무관심할수 없는 문제이며 결정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에 정열적이고 현시대의 기질을 갖춘 많은 일군들이 새로 책임적인 직책에 등용되였다. 당은 앞으로도 경험있는 간부들과 젊은 간부들을 지도부에 결합하는 로선을 실시할것이다.

대중과 긴밀한 련계를 맺고있으며 사상적으로 준비되고 창발적으로 사색하며 활동적인 지도일군들이 오늘날 매개 당단체를 지도하여야 할 사람들이다.

당의 위업에 충실하고 당의 정치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의 선두에서 나아가고있는 간부들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중한 우리의 재부이다.

당열성자들과 모든 공산당원들은 볼쉐위크주의의 위대한 전통으로 무장하여야 하며 이 전통으로 교양되여야 한다.

사상이 아무리 견인력있는것이라 할지라도 대중의 사회정치적경험과 결합되지 못하면 그자체로는 완전무결하고 적극적인 세계관이 형성되지 않는다. 사회주의사상은 새 사회 건설의 선진적인 사상, 실천과의 호상 련관속에서만 힘과 효과를 나타낸다.

당사상사업의 기본방향은 새로 편집된 쏘련공산당의 강령에 규정되여있다. 그 기본방향은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에서와 1984년 12월에 진행된 전련맹과학실무회의에서 토의되였다.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놓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대중의 로력적 및 사회적 열의와 그들의 정력 및 창발력을 발동시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말것이다. 사회를 새 과업수행에로 돌려세우며 이 과업해결에 인민들과 매개 로동집단의 창조적잠재력을 동원하는것, 이것이 나라의 사회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선차적조건이다.

사상사업의 본질적특수성은 그것이 사회주의사상과 부르죠아사상의 날카로운 대립속에서 진행된다는데 있다. 부르죠아사상은 독점재벌의 자본과 리윤, 모험주의와 사회적복수주의에 복무하는 사상이며 절망적인 사회의 사상이다. 그 사상이 추구하는것은 명백하다. 그것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본주의를 미화분식하며 그 본성적인 인간증오와 부정의를 은폐하려는것이며 자기의 생활과 문화의 표준을 강요하며 모든 수법을 다하여 사회주의를 중상하며 민주주의, 자유, 평등 및 사회적진보와 같은 귀중한 사상을 외곡하려는것이다.

제국주의가 강요한 《심리전쟁》은 인민들의 자주권과 력사와 문화를 짓밟고있는 침략과 정보제국주의의 특별한 형태로밖에 달리는 평가할수 없다. 이것은 정치적, 심리적 전쟁준비이며 따라서 이것은 견해의 현실적인 대립이나 서방에서 떠들고있는 위선적인 사상의 자유로운 교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것이다.

우리는 세련된 계급적원쑤와 맞서고있다.

부르죠아선전가들의 민첩성과 비원칙성에 우리 사상일군들의 높은 직업적성격과 사회주의사회의 도덕, 그의 문화, 보도의 공개성, 우리 선전의 대담하고 창조적인 성격으로 맞서야 한다. 사상적암해책동을 폭로하는데서나 사회주의현실적성과들과 사회주의적생활양식에 대한 정확한 보도에서도 공격전이 필요하다.

6. 새로 편집된 당 강령과 규약개정토의결과에 대하여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보고에서는 당의 강령적목표와 당의 현 경제 및 정치 전략, 당내부생활, 사업작풍과 사업방법의 완성문제가 검토되였는데 이 모든것은 새로 편집된 쏘련공산당 강령과 규약 개정초안의 본질을 이루고있다.

웅대한 공산주의건설과업을 직접적인 실천행동으로 옮기는것은 시기상조였다. 일련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간에도 일정한 과오를 범하였다. 사회주의를 완성하며 그의 발전을 촉진시키며 국제정치를 실시하는데 새로운 문제들이 일정에 제기되였고 첨예성을 띠였다.

당중앙위원회는 제기된 초안들이 당의 경험, 인민들의 경험으로 더욱 풍부화됨으로써 시대의 정신과 현 력사적시기의 요구에 부합된다고 인정한다.

× ×

제27차대회의 심의에 제출된 우리의 금후발전을 위한 강령적과업들은 이상과 같다.

우리가 작성한 계획들은 무엇에 의하여 현실성이 담보되고있는가? 사회경제발전을 다그칠데 대한 방침이 정당하며 관철될것이라는 담보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계획들이 맑스-레닌주의과학의 공고한 토대우에 서있으며 웨. 이. 레닌의 사상의 무궁무진한 풍부성에 의거하고있다는것이다.

쏘련인민은 당이 나라의 장래와 지구상의 공고한 평화 그리고 제시된 방침의 정당성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있다고 확신할수 있다. 중요한것은 그 방침을 실제로 관철하자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며 당과 인민의 통일, 모든 근로자들의 일치한 행동이 필요하다는것이다.

이것, 오직 이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힘차게, 의지의 통일로 더 높이 올라서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한 위대한 레닌의 유훈을 실행할수 있게 할것이다. 력사는 우리에게 다른 운명을 주지 않았다. 동지들, 그러나 이 얼마나 아름다운 운명인가!

근 로 자 1986년 제4호(루계 528호)

편 집 위 원 회

편찬•근 로 자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1986년 4월 1일 발 행•1986년 4월 3일

ㄱ—6503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70전

(정기간행물번호
제13206호)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5호

평 양 근로자사 1986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第 5 호(529)

차 례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의 높은 신임에 빛나는 사업성과로 보답하자

오늘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1차전원회의결정을 높이 받들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고있다.

이 거창한 투쟁에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맡고있는 임무는 대단히 무거우며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기술혁명수행의 직접적담당자들이며 과학과 기술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는 혁명투사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라의 백년대계와 관련되는 경제토대를 튼튼히 닦는 사업이나 당면한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경제사업이나 그 어느것을 막론하고 다 과학기술을 소유한 과학자, 기술자들이 힘있게 밀고나가야만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2권, 382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며 기술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키는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난 근로자들을 자연과 사회와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까지 종국적으로 해방시켜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완전히 마련해주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이 거창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질적부의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 모든 근로자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여주는 문제와 그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시켜 헐하고 흥겹게 일하도록 하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유족한 물질문화생활과 헐하고 흥겨운 로동생활을 떠나서는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물질생활과 로동생활에서의 근로자들의 자주적요구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기술혁명을 다그쳐 자연을 빨리 개조하고 정복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실현된다. 과학과 기술은 자연을 개조하고 정복하여 물질적부의 생산을 높이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위력한 수단이다. 사람의 육체적힘에는 한계가 있지만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자연을 정복해나가는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없다.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키면 위력한 물질기술적수단들에 의거하여 사람들의 물질생활과 로동생활을 구속하는 자연의 영향을 성과적으로 극복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데 대한 력사적위업의 수행을 그만큼 앞당길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기술혁명의 수행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는 근본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기술혁명을 다그치는 문제는 그 주인인 과학자, 기술자들의 열의와 적극성에 의하여 해결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과 기술로써 혁명과 건설에 이바지하여야 할 영예로운 사명을 지니고있다. 과학자, 기

술자들이 해야 할 일은 과학과 기술을 배운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누가 대신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과학기술은 원래 해당한 전문지식을 소유한 인재들을 요구하며 또한 그러한 인재들이 적극적인 투쟁을 벌일 때 빠른 속도로 발전한다. 따라서 기술자들에 의하여 과학의 새로운 분야가 개척되고 기술적진보가 이룩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이 해결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중요한 부문을 맡고있는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우리 당의 신임은 대단히 높으며 기대는 매우 크다. 우리 당은 과학자, 기술자들을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의 전초선에 내세웠으며 그들에게 무거운 임무를 맡겨주었다.

당의 신임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것은 어떤 정도로 무거운 임무를 맡겨주는가 하는데서 나타난다. 믿음과 기대가 큰 사람일수록 그만큼 무거운 임무를 맡게 되는것은 너무나 응당한것이다. 그러므로 [illegible] 무거운 임무를 맡을 때 [illegible] 높은 신임을 받은것으로 접수하며 맡은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 당의 높은 신임에 보답하기 위하여 모든 심혈을 다 바쳐 투쟁한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고 과학과 기술의 역할이 비상히 커지고있는 현시기 생산과 건설을 다그침에 있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보다 더 중요한 과업은 없으며 이 과업을 수행하는 것보다 더 무겁고 책임적인 임무는 없다. 따라서 기술의 시대인 오늘에 와서 생산잠재력의 가장 큰 예비는 바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목표들을 어떻게 달성하는가 하는것도 결국은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에 의하여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된다.

과학연구사업은 기술적진보와 나라의 경제발전을 크게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과학연구사업에서 전환을 일으켜야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 기술혁명을 다그치는 여기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높이며 나라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기본고리가 있는것이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문제가 이처럼 중요하게 나서고있는 때에 우리 당은 과학자, 기술자들을 굳게 믿고 최단기간에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 올려세우며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초하여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였으며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의 기술혁명방침 수행에서 앞장에 설데 대한 무거운 임무를 맡겨주었다. 기술혁명수행에서 앞장에 선다는것은 곧 준엄한 전쟁시기에 총을 진 병사들이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간것처럼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기술혁명의 돌파구, 사회주의건설의 진격로를 열어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당의 기술혁명방침에는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높은 충성심과 무궁무진한 지혜에 대한 굳은 확신이 깃들어있으며 그들모두가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크나큰 기대가 담겨져있다.

이 모든것은 현시기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제일 무거운 임무를 맡기고있는것도 과학자, 기술자들이며 가장 높은 신임을 안겨주고있는것도 다름아닌 과학자, 기술자들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당의 신임과 사랑은 해방후 새 조국 건설의 첫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없이 크고 뜨거운것이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투쟁사에는 로동자, 농민들과 함께 인테리들을 혁명의 동력으로, 당의 구성성분으로 규정하고 거창한 변혁과 창조로 들끓는 투쟁대오에 떳떳이 세워주었으며 그들에게 온갖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온 빛나는 년대기가 아로새겨져있다.

해방직후 내외의 반동들은 공산주의자들이 낡은 사회에 복무한 인테리들을 청산할것이라느니, 일시적으로 리용할

것이라느니 하면서 갖은 모략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으며 불과 몇명 되지도 않던 과학자, 기술자들은 혼란된 정세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동요하고있었다.

이러한 때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랜 인테리들을 대담하게 포섭하고 근로인민에게 복무하는 인테리로 개조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운명의 갈림길에서 모대기던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방침은 인테리들을 혁명의 일시적인 동반자로 보는것이 아니라 그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공산주의사회에까지 데리고 가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은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고 새 조국 건설의 중요한 초소들을 대담하게 맡기였을뿐아니라 나라의 사정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다 해결하여주었으며 그들의 생활에 대해서까지 따뜻이 보살펴주었다. 참으로 이 세상에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처럼 당의 크나큰 신임과 사랑을 받아온 과학자, 기술자들은 없다.

약동하는 건설의 시기에나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나 변함없이 굳게 믿어주면서 한없는 사랑과 배려를 베푸는 우리 당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한 보람찬 혁명의 길을 곳곳이 걸어올수 있었으며 자기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빛나게 수행할수 있었다.

우리 당의 품속에서 해방직후 얼마 되지 않던 과학자, 기술자의 대오는 오늘 125만의 대부대로 자라났다. 바로 이 위대한 승리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기술혁명의 새로운 높은 고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수 있게 되였다.

현시기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우리 당의 신임과 배려가 얼마나 큰가 하는것은 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통하여서도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과학자, 기술자들 속에서 그 어떤 공명과 보수도 바람이 없이 나라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장기간의 헌신적인 노력과 탐구로 경제건설과 과학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한 숨은 영웅들을 몸소 찾아주시였으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전사회적범위에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벌릴것을 직접 발기하시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또한 최근에 찾아주신 숨은 공로자들의 대오에도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떳떳이 내세워주시고 한없는 은정을 베푸시였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시대에 와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지위가 최상의 높이에 이르고있으며 그 누구보다도 우리 당의 신임과 배려를 많이 받는것이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준다.

당의 높은 신임과 크나큰 사랑을 받고있는 우리의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의 기대에 반드시 빛나는 사업성과로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당의 은덕에 보답할줄 아는것은 혁명전사들의 숭고한 의무이며 응당한 도리이다. 당의 신임과 사랑에 대한 실천적인 보답을 떠나서는 혁명가들의 량심과 의리, 도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당의 은덕에 보답할줄 아는 사람만이 혁명적 의리와 량심을 지닌 당의 참된 전사라고 말할수 있는것이다.

우리 당이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기술혁명을 다그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한 오늘 과학자, 기술자들은 마땅히 당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야 하며 여기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한다. 당에 대한 과학자, 기술자들의 충실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투쟁에서 나타난다. 말은 하지 않아도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기술혁명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사람이 바로 당의 높은 신임에 보답하는 참된 과학자, 기술자이다.

현시기 과학자, 기술자들 앞에 나서고있는 과업은 당이 제시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로선에 튼튼히 의거하여 원료, 연료, 동력의 개발리용기술을 혁신하며 기계공업과 전자공업, 자동화공업을 빨리 발전시켜 기술장비의 현대화를 실현하며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는것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특히 우리의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과학기술적문제들과 지금 있는 공장들과 생산설비를 가지고 생산을 늘이고 원료, 자재를 절약하며 근로자들의 힘든 로동을 덜어주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중심을 두고 기술혁신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자, 기술자들은 새로운 과학분야들을 개척하며 과학기술수준이 높은 인재들, 20대, 30대의 젊은 박사, 준박사들을 많이 키워내는데도 응당한 힘을 넣어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기앞에 맡겨진 방대한 과업들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로동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단행본, 17페지)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절실하게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력량을 집중하며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과학연구사업을 진행하는것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맡은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본방도로 된다.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자는데 있다. 우리의 과학기술은 철저히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 필요한것으로 되여야 하며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에게 복무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데 있다.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워야 우리 혁명이 요구하는 방향에 따라 과학기술을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당면하게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도 제때에 해결할수 있다.

주체를 철저히 세울 때 과학연구사업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은 실천을 통하여 확증된 진리이다. 최근시기 과학원 함흥분원 무기화학연구소의 과학자들과 경공업과학원의 과학자들이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들은 이 진리를 산 현실로 보여주고있다.

주체적립장에서 섬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은 비날론생산을 늘이는데 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한 과학원 함흥분원 무기화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진지한 탐구와 연구를 진행하여 새로운 방법에 의한 카바이드생산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비날론생산의 넓은 전망을 열어놓을수 있었다. 또한 경공업과학원의 과학자들은 당의 의도대로 비날론섬유로 고급양복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옷감을 짜는 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우리의 주체섬유로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훌륭히 해결할수 있게 하고 비날론공업을 더욱 확신성있게 전개해나가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이들처럼 언제나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연구사업의 목표와 계획을 정확히 세워야하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주되는 힘을 넣어야한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연부원을 더 많이 찾아내고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여 경제건설을 다그치며 인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의 높은 신임에 빛나는 사업성과로 보답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또한 숨은 공로자들처럼 과학연구사업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데 있다.

과학연구사업은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나가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며 인간의 지적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정력적으로 탐구하고 긇임없이 사색하여야만 성과를 거둘수 있는 고도로 창조적인 사업이다. 이 과정에는 일시적인 실패와 뜻하지 않은 우여곡절로 하여 오랜 기간 고충을 겪을수도 있으며 탐구의 길에 자기를 아낌없이 바쳐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부닥칠수도 있다. 시련과 고충이 없이 하루이틀사이에 손쉽게 성과를 이룩할수 있는 과학연구사업은 없다. 아직 그 누구도 탐구하지 못한 과학기술의 새로운 요새를 점령하려는 불타는 열정과 강의한 의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지닌 과학자, 기술자들만이 제기된 과학연구사업의 목표를 어김없이 달성할수 있으며 경제건설과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의의있는 성과를 거둘수 있는것이다.

우리 당이 숨은 공로자로 높이 내세운 부윤광산의 녀성과학자는 바로 이런 정신과 기풍으로 20여년간 현장에서 과학연구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성공의 령마루에 높이 올라섰다. 대학을 갓 졸업한 녀성의 몸으로 새로 개발되는 광산에 자원적으로 진출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이렇다할 완성된 방법이 알려지지 않은 광석의 선광법을 탐구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광석의 실수률을 결정적으로 높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기어이 관철하여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고 당의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할 굳은 결심을 지닌 그는 부닥치는 모든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면서 고심어린 탐구의 길을 꿋꿋이 걸어왔다. 그리하여 그는 새로운 선광법과 미광처리방법을 완성하고 효률높은 선광시약을 만든것을 비롯하여 수십건의 가치있는 발명을 함으로써 유색금속공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수 있었으며 당과 인민의 값높은 표창을 받게 되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숨은 공로자들이 발휘한 숭고한 모범을 본받아 당과 수령의 요구라면 절대적인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노력으로 무조건 집행하고야마는 끝없는 충실성을 지녀야 하며 그 어떤 기술의 요새앞에서도 동요를 모르고 서슴없이 달라붙어 생소한 길을 용감히 헤쳐나가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기성의 틀에만 매달리거나 오물쪼물 일하는 사람은 자그마한 기술적문제도 제대로 풀수 없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천리마에 《80년대속도》를 가한 기세로 힘차게 전진하는 현실에 보조를 맞추어 과학연구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야 하며 혁신적인 안목으로 모든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보고 제힘으로 기발하게 풀어나가야 한다.

과학연구사업에서 금물은 성과에 자만도취하는것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언제나 사소한 침체와 답보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불타는 강도 건느고 진펄길도 걷는 혁명적기백으로 보다 높은 목표를 긇임없이 제기하고 억세게 전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으며 당의 혁명전사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갈수 있는것이다.

오늘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기술혁명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생산현장에 깊이 들어가 생산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는것이다.

인민경제적으로 중요한 새로운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기하는것은 생산현장이며 그것을 빨리 풀어나가기 위한 현실적인 방도를 찾을수 있는곳도 생산현장이다. 생산현장의 이러한 실태와 새로운 과학기술적창안의 가치를 제일 잘 아는것은 다름아닌 생산자대중이다. 그러므로 과학자, 기술자들이 생산현장에 깊이 들어가 생산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야 기발한 착상과 적극적인 발기, 대담한 실천으로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으며 과학연구성과와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제때에 받아들일수 있다.

지난해 평양시안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생산현장에 들어가서 로동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함으로써 360여건의 발명을 하였으며 5,160여건의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받아들여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들끓는 생산현장에 깊이 들어가는것을 정상화하여야 하며 대중의 창발적의견을 허심하게 받아들이고 그들과 힘을 합쳐 생산에서 걸린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생산자들이 제기하는 기술혁신의 새싹들을 적극 지지해주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 한결같이 참가하여 모두가 한가지이상의 발명, 창의고안, 합리화안을 내놓고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특히 우리 당이 발기한 과학자, 기술자돌격대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집체적힘으로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빨리 풀고 기술혁명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의 높은 신임에 빛나는 사업성과로 보답하기 위하여 절실하게 나서는 문제는 자신의 과학기술적자질을 빨리 높이는것이다.

오늘 과학과 기술은 비상한 속도로 발전하고있으며 현실은 새로운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끊임없이 제기하고있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적자질이 높은 과학자, 기술자라야 현대과학기술의 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으며 경제건설과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게 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고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여 자신의 과학리론적자질을 빨리 높여야 하며 새로운 높은 자질향상목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타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현실속에서 산 지식을 배우며 시야를 넓히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에도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두가 다 전공분야의 과학기술에 정통하여야 하며 현대과학기술발전의 추세를 잘 알고 과학연구사업을 패기있게 벌려나가도록 자신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의 높은 신임에 빛나는 사업성과로 보답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돌보는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 있다.

당조직들은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심화시켜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이 맡겨진 임무수행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힘있게 밀어주어야 하며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현실적의의가 큰 연구과제수행에 힘을 집중하도록 조직지도사업을 잘해야 한다.

오늘 기술혁명수행에서 우리 인민의 열의와 적극성은 대단히 높으며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의 전망은 끝없이 양양하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기술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 창조적 지혜와 재능을 다 바침으로써 당과 수령의 높은 신임에 충성으로 보답하며 나라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민족적단결의 전통을 빛나게 구현하여나가자

—조국광복회창건 50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의 불길속에서 조국광복회가 창건되고 민족단결의 새 력사가 펼쳐진 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나갔다. 조선혁명의 이 영광스러운 행정에서 민족적단결의 전통이 이룩되고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꿋꿋이 지켜온것은 우리 인민의 커다란 긍지로 된다.

우리 조국과 민족의 참다운 번영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된 단결의 력사와 결부되여있다. 지난날 강도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의하여 수난속에서 허덕이던 우리 민족과 세계지도에서 빛마저 잃었던 우리 조국이 자기의 지위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오고 휘황한 전도와 높은 영예와 존엄을 가지게 된것은 단결의 위력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 민족적단결을 실현하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빛나게 개척하여오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업적은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력사에서 길이 빛나고있다.

* *

민족의 통일과 단결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켜나가는 확고한 담보이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자주권을 실현하며 존엄을 수호하는것이다. 나라는 있어도 자주권이 없고 민족은 있어도 존엄이 없다면 진정한 자주독립국가, 참다운 민족이라고 말할수 없다.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위력한 무기는 바로 민족의 단결된 힘이다.

그렇기때문에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혁명대오의 단결을 위한 투쟁으로부터 시작하였고 민족의 주체적힘에 의거하여 전진하여왔다.

분렬되면 망국과 예속을 면할수 없고 민족의 밝은 전도를 가져올수 없다는것은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사가 가르쳐준 심각한 교훈이다.

우리 인민은 오래전부터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의병투쟁도 하였고 독립군운동도 벌렸으며 애국문화계몽운동과 시위투쟁도 전개하였다. 일제의 조선강점후 우리 인민은 나라를 다시 찾고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에 일떠섰으나 옳바른 령도자가 없고 분산성을 극복하지 못하였던탓으로 하여 그때마다 무참히 짓밟히고 쓰라린 실패와 피의 교훈만을 남기였다.

온 나라가 피바다, 불바다 속에 잠기고 민족의 혈맥이 끊기우느냐 아니면 이어지느냐 하는 엄혹한 시기에 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의 총동원으로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구원하실 확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주체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을 제시하시였으며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여 민족적단결의 력사를 펼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제시하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은 민족의 단결로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전략적로선이였으며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이 민족해방혁명에 떨쳐나설수 있게 하는 참다운 혁명로선이였다. 민족재생의 출로를 가장 정확히 밝혀준 이 로선은 광범한 인민대중의 심장을 틀어잡았으며 전민족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결속시켜나가는 단결의 기치로 되였다.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을 구현하여 민족적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1936년 5월 5일 우리 나라에서의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인 조국광복

회가 창건됨으로써 빛나는 결실을 가져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동강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광복회는 전민족을 조국광복전선에 하나로 결속하고 조직동원할수 있는 대중적인 혁명조직입니다.》(《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전반적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끌어올리자》, 단행본, 3페지)

조국광복회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을 결속할수 있는 정연한 조직체계를 가진 포괄적이고 전일적인 통일전선조직체인 동시에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수 있는 강력한 지하혁명조직이였다. 조국광복회의 창건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통일전선사상과 전국적, 전민족적 규모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원대한 구상의 빛나는 실현이였으며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발전에서 또하나의 획기적사변이였다.

조국광복회는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를 보장하고 반일의 기치밑에 광범한 애국력량을 결속시켜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조국광복회의 이러한 혁명적활동에 의하여 전민족적인 단결을 실현해나가는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경험이 창조되였다.

영웅적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혁명의 령도자, 위대한 수령을 단결의 중심에 모시고 그 두리에 굳게 결속되여온것은 민족적단결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가장 빛나는 전통이다.

수령은 혁명의 뇌수이고 최고령도자이다. 수령에 의하여 민족의 운명이 개척되고 자유와 해방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승리적으로 전진한다.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전진하는 과정에서 혁명적단결을 위한 조직사상적기초가 마련되고 혁명대오가 하나의 강력한 통일체로 꾸려지며 그것이 공고발전되여나간다. 그러므로 수령은 민족적단결의 중심으로 된다. 혁명하는 민족에게 있어서 위대한 단결의 중심, 탁월한 수령을 모시는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통찰력으로 망국의 비운속에서 헤매이던 우리 인민에게 혁명의 진로를 밝혀주시고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준엄한 혁명의 난국을 헤쳐나가는 걸출한 령도자이시였으며 고매한 덕망을 지니신 자애로운 인민의 수령이시였다. 위대한 령도자로서의 자질과 풍모를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수령으로 모신것은 우리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력사에서 거대한 사변이였다.

조국광복회는 민족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회장으로 모시고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해나갔다. 민족의 령도자, 위대한 수령을 단결의 중심에 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해나갈수 있게 됨으로써 전민족적인 일치단결이 확고히 실현될수 있었다.

전반적통일전선운동에 대한 통일적인 령도기능을 수행하는 조국광복회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조선혁명로선이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침투되고 더욱 철저히 관철되였으며 이 과정에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나가는 충성심이 인민의 심장속에 확고한 신념으로 튼튼히 자리잡아나갔다.

《ㅌ.ㄷ》의 결성으로 단결의 시원이 열리고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의 선포로 개척되기 시작한 민족단결의 위업이 조국광복회의 창건과 그 활동에 의하여 빛나는 실현을 보게 된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며 조국광복전선에 합세하여나섰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모신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절대적인 신뢰는 경애하는 수령님을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끝까지

따르며 반들어나가려는 온 민족의 일치한 념원에 대한 뚜렷한 반영이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을 중심으로 가장 공고한 단결을 실현한 여기에 영웅적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민족적단결의 전통의 위대성의 하나가 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정확한 정치강령을 내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민족의 단결을 실현한 불멸의 업적은 민족적단결의 빛나는 전통이다.

하나의 지향과 념원에 기초하여 목적의식적인 단합을 실현하는것은 민족을 이루고있는 인민들의 리해관계와 사회계급적처지로부터 흘러나오는 합법칙적요구이다.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대중을 포괄하는 민족의 단결은 목적의 공통성에 의하여 담보된다. 민족의 공통된 목적을 반영한 정치강령을 내세우고 모든것을 여기에 복종시켜나가는 민족은 하나로 굳게 뭉칠수 있다.

당시 일제의 식민지예속국가로 전락된 우리 나라에 있어서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을 이룩하는것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제외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일치한 념원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일제식민지통치를 전복하고 진정한 인민정부를 수립하는 문제로부터 제반 사회경제적변혁에 이르기까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해결하여야 할 기본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이 강령은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에 휘황한 전망을 펼쳐준 혁명적홰불이였다.

계급과 계층, 직업과 성별, 당파와 년령, 종교 등의 차이를 불문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접수될수 있는 공명정대한 혁명대강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반일조국광복전선에 힘있게 떨쳐나서게 되였다. 모든 차별을 론하지 않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식량이 있는 사람은 식량을 내고 기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기능과 지혜를 바치며 2천 3백만 대중이 한데 뭉쳐 민족수난의 력사를 과감히 헤쳐왔다.

민족의 공통된 지향과 목적을 반영한 올바른 정치강령을 내세우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들을 다같이 혁명의 편에 포섭하여 민족적단결을 실현한 고귀한 경험은 우리 인민의 통일단결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력사적뿌리로 되였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전국적, 전민족적범위에서의 조직적인 단결을 실현한것은 민족적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창조된 고귀한 전통이다.

인민대중의 단결의 위력은 조직된 력량의 힘이다.

단결의 힘은 개별적사람들의 힘의 산수적합이 아니며 또한 단순한 행동의 통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결의 힘이 그처럼 무궁무진한것은 그것이 목적의식적인 통일로 되는것과 함께 조직적단결로 하나의 통일체를 이룬다는데 있다. 민족적단결의 실현과 그 공고발전도 바로 여기에 크게 달려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각계각층 인민들을 조직결속할수 있는 근본조건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전국적성격을 띤 조국광복회를 창건하는 현명한 조치를 취하시였던것이다.

조국광복회는 독자적인 조직지도체계를 가진 전일적인 조직체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모든 활동을 벌려나가는 정치조직이였다. 조국광복회는 당적령도밑에 로농동맹을 강화하고 그에 토대하여 단결할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조직에 결속시킬수 있는 조직건설원칙을 내세우고 활동하였다.

정연한 조직건설원칙에 기초하여 국내는 물론 멀리 해외에까지 조선동포들속에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이 급속히 확대되고 여기에 각계층 군중이 망라됨으로써 전국적, 전민족적 범위에서의 단결이 이룩되여나갔다. 모든 애국력량이 조직된 힘으로 꾸려지고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그들의 행동통일이 이루어져 민족적단결의 위업은 빛나게 실현되여나가게 되였다.

전민족적범위에서의 단결이 실현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단합된 힘으로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줄기차게 발전시켜나갈수 있었으며 조국해방의 력사적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참으로 항일혁명투쟁은 민족적단결의 빛나는 력사를 창조하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지켜낸 영광스러운 투쟁으로 찬란히 빛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민족적단결의 전통은 해방후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우리 인민은 백두령봉에서 이룩된 민족적단결의 고귀한 업적과 경험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림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당을 제때에 창건하고 혁명정권과 정규적혁명무력을 건설할수 있었으며 공화국북반부를 강력한 민주기지로 꾸릴수 있었다.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의 위대한 승리, 자주, 자립, 자위로 빛나는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의 건설, 이것은 우리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의 위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이다.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우리 인민의 통일단결은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깨여지지 않는 백전백승의 통일단결로 굳건히 다져졌다.

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분렬된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해야 할 민족지상의 과업이 나서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30권, 550페지)

우리 민족은 오랜 력사를 통하여 한 조상의 피줄을 이어받으며 하나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한강토우에서 살아온 단일민족이다. 하나의 강토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것은 우리 인민의 더없는 자랑이고 긍지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며 함께 살아온 우리 인민은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에 의하여 둘로 갈라져 40여년간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재난과 불행을 당해왔다. 더는 갈라질수 없고 또 갈라져서는 안되며 온 겨레가 부강하고 번영하는 통일된 강토에서 다같이 행복을 누리려는것은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념원이다. 국토의 량단과 민족분렬의 엄혹한 현실을 똑바로 보는 사람이라면 그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전민족적단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통일의 길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민족의 단결에 통일이 있고 통일된 조선의 번영이 있다.

전체 조선민족은 단결하여 36년간에 걸친 일제의 식민지파쑈통치를 때려부신 빛나는 전통을 이어 전국적인 민족대단결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인 사업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전민족이 애국애족의 사상에 기초하여 뭉치는것이다.

민족을 이루고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사상감정은 제 나라 제땅에서 자주적으로 살려는 념원이며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의 정신이다. 애국애족의 정신은 민족적단결의 사상적기초로 작용하게 된다.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 일제의 악랄한 민족리간책동과 야수적폭압 속에서도 각계각층의 인민대중이 하나로 뭉칠수 있었던것은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의 감정으로 련결된데 있었다.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고 생사존망의 갈림길에 가로놓인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려는 한결같은 념원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단

결할수 있었고 투쟁에 합류될수 있었다.

나라를 사랑하며 인민의 번영을 바라는것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지닌 공통된 사상감정이다.

오늘 통일이냐 분렬이냐 하는 이 엄숙한 시각에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민주인사들, 야당들과 민주단체들, 해외에 있는 각계 인사들이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강력히 요구하여 투쟁의 길에 나서고있는것은 우리 민족의 애국지성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전체 조선인민이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하나로 굳게 뭉칠수 있는 사상정신적힘으로 된다.

력사는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고 외세를 상전으로 섬기는자들이 판을 치면 례외없이 민족분렬을 가져오고 나라가 망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립장에 튼튼히 서서 단결의 힘으로 매국과 배족 행위를 종식시키고 민족분단의 쓰라린 고통을 가시여나가는데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사상과 리념, 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의 자주권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접촉하고 대화를 하면서 북남관계를 개선하는것은 민족적단결의 전통을 구현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사상과 리념, 제도와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것은 우리 민족이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선차적요구이다.

오랜 기간의 민족적분렬로 말미암아 오늘 북과 남사이에는 사상과 리념, 제도와 정견에서 차이가 생겼다. 그러나 이것은 외세에 의한 국토의 량단과 민족의 분렬로 하여 산생된것으로서 우리 민족이 단결하지 못할 조건으로는 될수 없다. 하나의 강토에서 한 피줄을 이으며 수천년을 화목하게 살아온 우리 민족은 자기의 이 고유한 민족적특성과 조국통일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민족적지향을 내세우고 거기에 모든것을 복종시킨다면 얼마든지 단결해나갈수 있다. 각이한 계급, 계층의 리익을 대변하여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거나 공산주의를 멀리하던 완고한 사람들도 조국광복의 기치밑에 항일의 성전에 나섰던것처럼 민족내부에 생긴 차이점을 줄이고 공통점을 중시하면서 조국통일의 길을 모색한다면 민족대단결의 옳바른 길이 열릴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조선동포들은 온갖 차이를 초월하여 서로 접촉하고 대화를 하면서 통일된 새 조선을 건설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책들을 세워나가야 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북과 남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대결상태를 해소하며 민족의 단결과 합리적인 평화통일방안이 실현되도록 하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립장이다. 지난해에 북과 남사이에 여러 갈래의 대화와 접촉이 이루어지고 40년의 민족분단사에서 처음으로 작은 범위에서나마 적십자예술단과 고향방문단이 평양과 서울로 서로 래왕이 실현된것은 우리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였다.

남조선측은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진실로 대하며 민족의 기대와 통일의 리념에 맞게 행동하여야 한다. 북과 남사이의 여러 갈래의 대화와 접촉이 진전되지 못하고 응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 남조선당국자들처럼 북남대화를 민족분렬을 고정화하거나 인민들을 기만하고 사회여론을 오도하여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여서는 단결을 도모할수 없고 통일을 이룩할수 없다. 남조선측은 나라를 통일하려는 립장과 선의를 가지고 대화에 나서야 하며 나아가서 북과 남의 최고위급회담을 마련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강구하는데 성심성의를 다해야 한다.

우리 인민은 지금 북남대화를 통하여 북과 남의 차이점을 줄이고 공통점을 내세우면서 민족의 영구분렬을 막기 위한 유리한 환경을 마련할것을 기대하고있다.

북과 남의 애국력량이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를 민족통일의 리념으로 삼고 투쟁하는것은 전민족적단결을 실

현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괴뢰도당의 파쑈통치는 민족분렬의 근원이며 조국통일의 기본장애물이다. 침략자 미제를 몰아내고 사대매국노 전두환괴뢰도당의 군사파쑈독재체제를 허물어버리지 않고서는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실현할수 없으며 결국 민족의 단결과 조국통일의 유리한 국면을 열어나갈수 없다.

남조선을 강점하고 민족의 혈맥까지 끊어놓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우리 나라를 영원히 둘로 갈라놓기 위한 《두개 조선》 조작책동에 발악적으로 매여달리면서 항시적인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있다.

조선반도에 《남침위협》이 없다는것은 세계가 공인하고있다. 그러나 미제는 《팀 스피리트》전쟁연습을 《방위적인 년례훈련》으로 묘사하면서 1976년부터 해마다 계단식으로 확대하였으며 최근년간에는 웅근 하나의 전쟁을 치를수 있는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전쟁연습에 광분하고있다. 올해에도 미제침략자들은 대규모적인 《팀 스피리트 86》 합동군사훈련을 벌려놓고 공화국북반부를 공격하는 침략전쟁연습소동을 미친듯이 벌리면서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끌고나가며 우리 민족의 영구분렬의 위기를 조장시키는 범죄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미제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의 하수인인 전두환역적놈은 미일두상전을 등에 업고 《승공통일》을 매일과 같이 부르짖으며 매국과 배족, 《반공》을 일삼고있으며 남조선을 가장 포악한 인권유린지대로, 인간살륙지대로 전변시키는 천추에 용서 못할 죄행을 저지르고 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남조선의 현 파쑈독재정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인민들사이의 화목과 단결이 이루어질수 없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단결은 구걸해서는 얻을수 없으며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할수 있다.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는 투쟁속에서 온 민족이 단결하였던것처럼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굳게 단결하여 미군을 철거시키고 전두환괴뢰역도의 통치제도를 짓부시는 성스러운 항전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하며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실현하여나가야 한다.

단결은 민족의 힘이며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승리와 승승장구의 길을 걸어온 조선혁명의 전로정이 확증하여준 귀중한 진리이다.

전체 조선인민은 조국과 민족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굳게 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아가자.

주체사상은 사회력사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을 밝힌 위대한 사상

박 열 범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주체사상이 밝힌 사회력사발전의 합법칙적과정에 맞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벌려왔다.

주체사상이 밝힌 력사의 진로를 따라 전진해옴으로써 우리 인민은 갖은 천대와 멸시만을 받아오던 식민지노예의 운명에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였으며 오늘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우고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주체사상이 밝힌 사회력사발전의 합법칙적과정에 대한 인식을 깊이있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력사발전과정에 대한 옳바른 인식은 사회력사관을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회력사관을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력사의 전진과 그 운명을 결정하는것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밝히는것과 함께 사회력사가 어떠한 합법칙적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나가는가 하는것을 깊이있게 해명하여야 한다. 그래야 사회력사발전의 전모에 대한 전일적인 리해를 가질수 있으며 사회력사발전과정을 객관적합법칙성에 맞게 목적의식적으로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그러나 사회력사발전과정에 대한 문제는 지난 시기 착취계급과 그 사상적대변자들에 의하여 그릇되게 제기되고 리해되여왔다.

주관적관념론자들은 력사에 우연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 어떤 《개인》들의 활동여하에 따라 사회발전방향이 임의로 변경될수 있다고 보았다. 때문에 그들은 사회력사를 합법칙적과정으로 파악할수 없었으며 력사발전에 대한 과학적리해를 줄수 없었다. 이와는 달리 객관관념론자들은 인류력사를 사람들의 의지와는 독립된 그 어떤 《세계정신》이 자기를 실현해나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이것은 사회력사적과정을 물질경제적조건을 떠나 순수 정신적인 요인에 기초하여 그리고 그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하여 설명한 비과학적인 견해이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사회력사관은 력사발전과정에 대한 유물변증법적리해를 확립함으로써 이 문제를 력사상 처음으로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웠다. 유물사관은 관념론적력사관의 비과학성을 폭로하고 사회생활의 물질적기초를 밝힘으로써 사회력사발전과정을 생산방식의 발전과정으로, 사회경제구성태의 교체과정으로 보았다.

주체사상은 사회력사발전의 물질적기초가 해명된 조건에서 인민대중이 사회력사의 주체이라는것을 새롭게 밝힘으로써 사회력사발전과정이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 과정이라는 독창적인 리해를 확립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력사가 발전한다는것은 곧 력사의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진다는것을 의미합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15페지)

인민대중은 사회력사적운동의 주체인것만큼 사회발전과정은 마땅히 인민대

중의 지위와 역할에 의하여 고찰되여야 한다. 인민대중중심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력사가 발전한다는것은 곧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진다는것을 의미한다.

인민대중의 지위가 높아진다는것은 그들이 온갖 구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 력사의 참다운 주인으로 발전해나간다는것이며 인민대중의 역할이 높아진다는것은 그들이 자연과 사회의 개조자로서 더욱 힘있는 존재로 발전해나가며 력사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진다는것을 의미한다. 인류력사는 력사의 대상으로부터 력사의 주체로, 착취와 압박의 대상으로부터 사회의 주인으로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끊임없이 높아져왔다는것을 보여준다.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 것은 사회력사발전과정에 대한 주체적리해의 심오한 본질을 이룬다.

사회현상들의 변화발전과정은 사회를 구성하고있는 사람이 발전하는 과정과 사람에 의하여 창조되고 리용되는 물질적 및 정신적 재부가 늘어나는 과정, 사람들사이의 관계가 발전해나가는 과정으로 구분된다고 볼수 있다. 이 모든 발전과정은 결국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 과정을 표현하고있다.

사람의 발전은 본질상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발전해나가는 과정이며 그것은 곧 모든것의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 과정이다.

사회의 물질적재부가 늘어나는 과정은 사람, 인민대중이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 그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이 끊임없이 높아지는 과정이며 사회관계가 개선되고 발전되여나가는것도 결국은 인민대중이 사회적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나가는 과정이다.

사회의 모든 재부와 사회적관계는 인민대중이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나가는 과정에서 그 수준에 상응하게 이룩해놓은것인만큼 사회현상들의 변화발전은 결국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 과정을 표현하고있다.

사회력사발전과정이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 과정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력사발전의 근본필연성을 이루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주체사상은 력사발전의 근본필연성은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끊임없이 높아지는데 있다는것을 밝혀준다. 력사발전의 전과정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는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 필연성이 관통된다.

그것은 우선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것이 그들의 본질적특성의 집중적발현이며 가장 근본적인 생활적요구로 되기때문이다.

사람, 인민대중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고있는 사회적존재이다. 인민대중은 세계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게 살려는 성질인 자주성과 세계를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해나가는 성질인 창조성, 자기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성질인 의식성을 가지고 활동하기때문에 력사의 주체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차지하며 그것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게 된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려는 인민대중의 요구는 다양하며 복잡하다. 그러나 그 모든 요구가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것은 인민대중이 어떠한 지위를 차지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인민대중에게 있어서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것은 그들의 그 어떤 개별적요구에는 비할바없는 근본요구로 제기된다.

이처럼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것은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생활적요구이며 또 본질적특성의 발현이다. 때문에 인민대중의 모든 사회적운동은 그들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데 귀착되게 되며 력사발전의 전과정은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 필연성에 의하여 제약되게 된다.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 것은 또한 그자체가 사회발전의 주되는 요구로, 총적결과로 되는것으로 하

여 력사발전의 근본필연성으로 된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이 자연을 개조하고 지배해야 하며 력사의 전진을 저해하는 온갖 낡고 반동적인것을 쓸어버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개조와 사회개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높여주고 그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이것은 인민대중의 사회적지위가 개선되고 그 역할이 높아질 때에만 원만히 실현될수 있다.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것은 자연을 정복하고 온갖 낡고 반동적인것을 성과적으로 극복함으로써 사회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의 발전은 사회발전의 총적결과이기도 하다. 선진적인 사상과 문화, 로동도구를 비롯한 가치있는 사회적재부는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며 사회관계는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제하는 조건이다. 그러므로 사회발전과정에서 물질문화적재부가 늘어나고 사회관계가 개선되게 되면 그만큼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데 필요한 수단과 조건이 더 잘 마련되게 된다. 이로부터 사회발전과정에서는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은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것이 사회발전의 근본요구이며 총적결과로 된다는것을 보여주며 사회발전은 결국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 필연성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것은 또한 력사발전의 다른 모든 필연성과 법칙들을 규정하고 제약하는것으로 하여 력사발전의 근본필연성으로 된다.

사회발전의 필연성과 법칙들에는 주체의 운동으로서의 사회력사적운동에 고유한 합법칙성과 사회력사에 작용하는 물질운동의 일반적합법칙성들이 포함된다.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 필연성은 인민대중이 사회력사의 주체라는데로부터 직접 흘러나온것으로서 주체의 운동법칙들의 작용을 규제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과 창조적운동, 그들의 사상의식의 작용은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것이며 또 그것에 지향된다. 그러므로 주체의 운동의 법칙들은 결국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이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나가는 과정속에서 작용하게 된다.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 필연성은 사회력사에 작용하는 물질운동의 일반적합법칙성의 작용도 제약한다.

경제적필연성,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에 생산관계가 적응하고 토대의 변화가 상부구조의 발전을 규제하는 법칙 등은 사회생활과 사회발전에서의 물질경제적조건의 규제적역할을 보여주는 법칙으로서 사회력사에 작용하는 물질운동의 일반적합법칙성들이다. 사회력사에는 물질경제적조건들이 발전하는데 따라 사회의 전반적인 면모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합법칙성, 경제적필연성이 작용하게 된다. 사회력사에 경제적필연성이 작용하게 되는것은 사람들이 물질경제적리해관계에 기초하여 사회생활과 사회적활동을 하며 사회적생산과정에서 생산도구가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사회의 발전을 물질적으로 담보해주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사람들의 사회적활동이 경제적리해관계에 기초하고있으며 생산도구의 발전에 안받침되여있는것만큼 그들은 물질경제적조건을 개선하는데로 나가게 되며 물질경제적조건의 발전에 의하여 사회의 전반적발전이 담보되게 된다.

그러나 경제적리해관계가 실현되고 생산도구가 발전하는것은 어디까지나 사람,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 과정에 제약되여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고 자주성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는 경제적리해관계를 실현하려는 요구를

자체내에 포섭하며 종속시킨다. 생산도구도 사람,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것이며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질 때에만 성과적으로 발전할수 있다. 때문에 사회발전의 경제적필연성은 결국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 필연성에 제약되여 작용하게 된다. 비록 생산력의 발전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인민대중이 자기의 지위를 개선하려는것을 생활적요구로 제기하고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혁명력량이 마련되면 생산관계의 개조가 이루어질수 있다. 반면에 생산력의 발전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인민대중이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지 않는 한 생산관계의 변혁을 가져올수 없는것이다.

이처럼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 필연성은 력사발전의 다른 모든 필연성, 법칙들의 작용을 규제하고 제약하는 근본필연성으로 된다. 그러므로 사회력사적과정은 결국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 합법칙적과정으로 된다.

주체사상은 사회발전과정이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 과정이라는것을 밝힘으로써 사회발전의 근본방향과 사회적진보의 기준, 사회발전단계 등 력사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을 파악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심오한 전면적해명을 준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회력사발전과정의 합법칙성이 밝혀짐으로써 무엇보다도 사회발전이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인민대중의 요구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것이 밝혀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오늘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권, 314페지)

사회발전의 기본방향은 그 근본필연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사회력사발전과정이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 과정이라는것은 곧 인민대중이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요구를 내세우고 창조적투쟁으로 그것을 실현해나가는것이 력사적과정의 가장 본질적이며 필연적인 현상이라는것을 말한다.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것은 인민대중의 근본요구이며 이 요구는 투쟁을 통하여 실현되여나간다. 인민대중을 이루는 개별적성원들의 구체적요구는 그들의 근본요구실현에 종속된다. 반동적착취계급의 지향과 요구는 그것을 반대하는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실현될수 없다. 인류력사는 결국 그 어느 개인의 주관적념원이나 반동적착취계급의 의사가 실현되는 방향으로가 아니라 인민대중의 요구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그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증대되고 실현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주체사상은 사회력사발전과정이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 과정이라는것을 밝혀줌으로써 다음으로 사회발전의 높이가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의 높이에 의하여, 그들의 자주성이 증대되고 실현된 정도에 의하여 규정된다는것을 새롭게 해명해준다.

사회적진보는 인류력사가 자기의 발전방향에 따라 얼마나 전진하였는가 하는것을 표현하고있다.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고 그들의 자주성의 실현정도가 높은 사회일수록 진보적인 사회로 된다.

사회적진보의 기준, 척도를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 그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증대되고 실현되는 정도에서 찾는 주체적리해는 사회적진보의 본질과 그 모든 측면들을 통일적으로 표현하고있으며 사회적진보의 주되는 측면을 깊이있게 밝혀주고있다.

사회는 사람들의 집단이며 사회력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다. 그러므로 사람,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져야 사회의 진보가 이룩되게 된다. 주체사상은 단순히 그 어떤 객관적인 환경

조건의 개선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고 그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증대되고 실현되여나가는데 사회적진보의 참다운 본질이 있다는것을 밝혀준다.

사회적진보를 보여주는 징표들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것을 통일적으로 보여주는것은 사람,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의 높이이며 그들의 자주적요구의 실현정도이다.

생산력의 발전이나 사회제도의 성격은 사회적진보의 중요한 징표들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부 측면을 표현하고있을뿐이다. 사회적진보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은 바로 일정한 력사적시기 생산력의 발전수준과 사회제도의 성격, 사상과 문화의 발전수준을 통일적으로 표현하고있으며 자주성이 증대되고 실현된 정도는 정치,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가 어느 정도 실현되였는가 하는것을 종합적으로 깊이있게 표현하고있다.

매개 사회적현상은 사회라는 전일체속에서 복잡한 련관을 이루고있는것만큼 그 진보성을 규정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주되는 측면을 옳게 밝히는것이다.

계급의 진보성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와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그러나 일정한 력사적환경에서 어떤 계급이 진보적인가 아닌가 하는것은 어디까지나 해당 시기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것과 관련되여있다.

나라의 진보성도 사회제도의 성격이나 경제와 문화의 발전정도 등과 관련되여있지만 기본은 그 나라가 견지하고있는 자주성의 정도에 의존한다.

이 모든것은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 그들의 자주성의 증대와 실현정도가 사회적진보의 가장 옳바른 기준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회력사발전과정이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 과정으로 된다는것이 해명됨으로써 사회발전의 단계에 대한 심오한 독창적리해가 확립되였다.

사회발전과정에 대한 주체적리해는 인류사회가,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높아지고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제하는 방식이 변하는데 따라 소박한 평등이 보장되였던 원시공동체사회로부터 인민대중이 사회적으로 예속되여있었던 적대계급사회들인 노예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사회를 거쳐 인민대중에게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참답게 보장해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로 발전해나가는 합법칙적단계를 경과하게 된다는것을 해명해준다.

사회발전단계는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의 높이에서의 차이와 그 규제방식에서의 차이에 의하여 서로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매개 사회는 선행한 사회에 비하여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질뿐아니라 그것을 규제하는 방식에서도 진보적인 사회로 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은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제하는 속성이며 따라서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높아지면 그들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고 그것을 규제하는 방식이 발전한다. 그리하여 사회는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한다.

인류는 오래동안 원시사회에서 살았다. 원시인들은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이 매우 낮았던 조건에서 원시공동체생활을 하였다. 원시사회생활의 기본단위였던 씨족공동체는 자연의 심한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원시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제한 사회적조직이였다.

원시사회는 원시인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높아지는 과정에 그들의 지위와 역할에서 일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됨으로써 붕괴되였다.

원시사회말기 생활상 요구와 리해관계에 대한 자각이 커지고 추상적인 사유능력과 로동도구가 발전하였으며 사회를 통일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기능도

미약하게나마 높아지게 되였다. 결과 사람들이 공동체에 혈연적으로 종속되고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상태에서 점차 벗어나게 됨으로써 공동체로부터의 개인의 분화가 이루어지게 되였으며 사회적분업이 발전하고 물질정신적부가 축적되게 되였다. 이것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하게 하였으며 사회에는 결국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원시적인 평등이 보장되였던 원시공동체사회는 붕괴되고 인민대중을 사회적으로 예속시키는 착취사회가 출현하였다.

착취사회에서 인민대중은 오래동안 자기의 사회계급적처지와 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단결되여있지 못한데로부터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틀어쥘수 없었으며 따라서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력사를 자주적으로 개척할수 없었다.

적대계급사회는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높아지고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제하는 사회적예속의 방식이 변하는데 따라 노예사회로부터 봉건사회를 거쳐 자본주의사회에로 합법칙적으로 발전하였다.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의 발전에서 노예사회는 인민대중이 지배계급의 완전한 소유물로 되여있었던 사회였으며 봉건사회는 그들이 인신적으로, 신분적으로 예속된 처지에 있었던 력사적단계였다. 그리고 자본주의사회는 로동력이 상품으로 되여 인격적가치가 교환가치로 전화된 사회이다.

노예사회나 봉건사회는 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할수 없었던 조건에서 그들의 절실한 요구를 형식상으로 해결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자주성을 보다 교묘한 방법으로 유린할수 있는 새로운 착취제도에 의하여 교체될수 있었다.

착취사회의 전기간에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응당한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 되여오던 근로인민대중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비로소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되고 사회와 력사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차지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는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규제하는 방식에 있어서 종래의 모든 사회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사회관계의 지배자로 되며 그 기초우에서 참다운 사회적평등이 실현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것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어느 계급보다 높이 체현하고있는 혁명적계급인 로동계급의 투쟁과 령도의 결과이다.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온 사회가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될 때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은 비상히 높아지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회력사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해나가는 과정은 곧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공산주의사회는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사회이며 인민대중이 자연과 사회, 자기 운명의 완전한 주인으로 되는 사회이다.

오늘 우리 혁명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가장 높이 발전하는 사회발전의 최종목표로 뚜렷이 제시하고 힘있게 전진해나가고 있다.

사회발전은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발전하는것만큼 그것이 완전히 실현될 때 최종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완전히 실현해준다.

온 사회가 주체사상화되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참답게 체현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됨으로써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려는 그들의 요구가 완전히 실현된다.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완전한 주인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의식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가장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준비되여야 한다. 이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참답게 체현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할 때 실현되게 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조건을 전면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서 마련해줌으로써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 살려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완전히 실현해준다.

인민대중이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자신을 해방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조건을 완전히 마련하여야 한다. 이것은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 때 이루어지게 된다.

이처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완전히 실현해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력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근본조건인 지도와 대중의 결합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준다.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최상의 수준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지도와 대중의 결합이 실현되여야 한다. 지도와 대중의 결합은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근본요구일뿐아니라 력사의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의 높이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기본척도의 하나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인민대중의 최고뇌수인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철저히 실현해나가도록 함으로써 인민대중에 대한 지도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고 그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움으로써 인민대중을 고도로 의식화, 조직화된 력사의 주체로 되게 하며 그들의 모든 사회생활과 사회적활동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것으로, 목적의식적인것으로 확고히 전환시킨다.

이 모든것은 결국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이 사회발전의 최종목표를 뚜렷이 내세우고 실현해나가는 성스러운 투쟁이라는 것을 말하여준다.

주체사상은 이처럼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중심에 놓고 사회력사발전과정을 해명함으로써 력사발전과정의 본질과 근본필연성, 기본방향과 합법칙적단계들에 대한 리해를 새롭게 혁신하였으며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데 참답게 이바지하는 힘있는 리론실천적무기를 마련한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우리는 주체의 사회력사관으로 자신을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림으로써 사회발전과정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혁명전통교양은 유일사상교양의 중요내용

안 동 윤

혁명전통교양은 유일사상교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유일사상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이다. 유일사상교양은 당사상사업에서 기본을 이루며 그 중요한 목적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데 있다. 사상사업에서 유일사상교양에 기본을 두고 여기에 큰 힘을 넣어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수 있으며 당과 혁명 대오를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불패의 전투적부대로 튼튼히 꾸리고 당의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유일사상교양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혁명전통교양이다. 혁명전통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전통교양을 심도있게 하는것은 사람들을 혁명화하고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삼는 사람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주체의 혁명적세계관, 혁명적수령관이 튼튼히 선 사람이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선 사람이다.

혁명전통교양은 바로 사람들을 그러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여 조선혁명의 앞길을 개척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는 과정에 이룩된것으로서 여기에는 사람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데 필요한 사상정신적재부들이 전면적으로 담겨져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는 또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기본품성인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비롯하여 그들이 지녀야 할 모든 사상정신적풍모가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구현되여있다. 특히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류례없이 간고하고 시련에 찬 항일혁명투쟁과정에서 형성된것으로 하여 거기에 구현되여있는 공산주의혁명가의 사상정신적풍모는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울뿐아니라 혁명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할 생동한 구감으로 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속에서 혁명적수령관을 확고히 세우기 위한 더없이 귀중한 사상적량식으로 된다.

이것은 혁명전통교양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게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우리 당은 혁명전통교양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노는 중요한 역할로부터 출발하여 그것을 유일사상교양의 중요내용으로 규정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있다.

우리 혁명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 당은 그에 맞게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하여 모든 당조직들이 유일사상교양을 첫째가는 임무로 튼튼히 틀어쥐고 주체사상교양, 충실성교양과 함께 혁명전통교양을 실속있고 활발하게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당은 혁명전통교양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며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혁명전통교양이 그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데 훌륭히 이바지하게 하고있다. 우리 당은 또한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과 혁명사적관들을 만년대계의 기념비로 정중히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그것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훌륭한 학교로, 사상교양의 위력한 전당으로 되게 하였다. 또한 우리 당은 혁명전통교양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합시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구호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함으로써 전당과 온 사회에 백두의 혁명정신, 천리마의 혁명정신과 속도전의 혁명정신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사고방식,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하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고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당사상사업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하여야 할 우리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로부터 제기되는 절실한 문제이다.

장기성을 띠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령의 위업은 한 세대에 끝날수 없다. 그러므로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선다.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 문제는 바로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는가 못나가는가 하는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로 된다. 력사적교훈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혁명의 배신자들, 정치적야심가들은 수령의 위업을 말아먹기 위하여 수령이 이룩한 혁명전통을 거세말살하는데 공격의 예봉을 돌린다.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전통은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의 명맥을 이어주는 피줄기이다. 수령의 혁명위업은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그 대가 이어지게 되고 완성되게 된다.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하고 끝까지 구현하며 수령의 혁명업적을 굳건히 고수하고 끊임없이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이다. 그러므로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켜야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혁명위업을 이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혁명승리의 앞날을 확신성있게 내다보면

서 주체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력사적진군을 다그쳐나가고있다.

수령의 위업 계승문제가 빛나게 해결된 오늘 당조직들앞에는 당의 령도밑에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하기 위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과업이 필수적으로 제기되게 된다.

우리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하기 위하여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해야 하는것은 또한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해서이다.

오늘 우리 혁명대오안에서는 세대가 바뀌여지고있으며 새세대들이 혁명의 역군으로 등장하고있다.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간고했던 지난 시기 혁명투쟁을 잊지 않고 혁명선렬들이 발휘한 그 정신, 그 투지로 싸워나가도록 하자면 그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만일 새세대들속에서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잘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오늘의 행복이 얼마나 값비싼 투쟁의 대가로 마련되였는가를 똑똑히 알게 할수 없고 제국주의와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며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혁명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할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혁명위업의 대가 끊어질수 있다.

우리의 혁명위업은 《ㅌ. ㄷ》의 기발을 진두에 날리며 첫걸음을 뗀 때로부터 항일대전과 창조와 건설의 년대들을 넘어 참으로 믿고도 험한 투쟁로정을 줄기차게 걸어왔으며 혁명전통으로 무장한 새세대들에 의하여 힘차게 전진하여왔다.

수령을 받들어모시는 혁명전사의 자세와 립장은 어떠해야 하며 당의 령도따라 혁명위업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데서 혁명전통교양보다 위력한 수단은 없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야 새세대들이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을 이어나가는 높은 영예와 긍지를 안고 지난 세대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모든 혁명업적들을 옹호보위하고 빛내여나갈수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하겠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도록 할수 있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앞에 나서고있는 어렵고 무거운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는 지금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높이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이 어렵고 방대한 투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경제관리를 깐지고 알뜰하게 하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경제적공간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함으로써 높은 생산적앙양을 이룩하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여기에서 항일유격대원들의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은 오늘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적극 따라배우고 실천활동에 구현해야 할 귀중한 모범으로 된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국가적후방이나 외부의 지원도 없는 류례없이 간고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혁명투쟁을 벌렸지만 남을 쳐다보거나 남의 힘에 의존한것이 아니라 혁명의 주인된 높은 자각을 가지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싸워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였다. 혁명전통교양을 심화시켜나가야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항일유격대원들이 지니였던 그 불굴의 혁명정신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방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혁명전통교양을 심화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를 똑똑히 인식시

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혁명전통은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이며 만년초석이다. 우리 당과 혁명은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 그 깊고 억센 뿌리를 두고있음으로 하여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폭풍우를 헤치고 오직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만 걸어올수 있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를 똑똑히 인식시켜야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며 혁명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체위업에 끝까지 충성다하게 할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를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교양을 잘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혁명력사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혁명력사는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의 력사이며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의 빛나는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혁명력사에는 혁명전통이 담고있는 고귀한 혁명적재부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력사는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생동한 력사적사실을 통하여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주는 불멸의 화폭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혁명력사를 깊이 연구체득시켜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가 어떻게 마련되였고 주체의 혈통이 어떻게 대를 이어 계승되고있는가를 똑똑히 알게 할수 있다.

혁명전통교양을 심화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혁명선렬들의 끝없는 충실성의 산 모범을 따라배우도록 하는것이다.

혁명전통교양의 근본목적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전통은 혁명의 려명기에 수령님을 혁명의 령도자로, 민족의 태양으로,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받들어온 청년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항일혁명선렬들속에서 형성되였다. 그들의 모든 사고와 활동은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투쟁방침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정력적인 투쟁으로 일관되여있었다. 이러한 충실성의 산 모범을 가지고 교양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킬수 있다.

혁명전통교양을 폭넓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수령이 이룩한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전통은 혁명투쟁의 력사적행정에서 끊임없이 발전확대되여나가게 된다. 특히 그것은 수령의 위업을 이어나가는 령도자에 의하여 더욱 발전풍부화되게 된다.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룩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여러 단계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하여오시는 과정에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이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면서 새로운 투쟁경험과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 사회 창조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이룩하신 고귀한 혁명업적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당사업과 당활동, 혁명과 건설에서 쌓아올리고계시는 투쟁경험은 항일의 혁명전통의 발전풍부화이다.

혁명전통교양의 폭을 넓혀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

계 할수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영원히 높이 받들어나가도록 할수 있다.

혁명전통교양도 다른 사상사업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교양수단들을 옳게 리용하여 다양하게 벌려야 보다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사상인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의 전략과 전술, 고상한 혁명정신과 당, 정권, 대중단체, 혁명무력 건설에서 이룩한 업적과 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에 이르기까지 실로 비상히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내용들을 담고있는 위대한 혁명전통이다. 혁명전통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다양하게 벌려야 이 위대한 혁명전통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깊이 체득시킬수 있다.

혁명사적을 통하여 혁명전통교양사업을 다양하게 벌려야 한다. 혁명사적은 혁명전통을 체현하고있는 력사적인 증거물이며 우리 당의 혁명투쟁력사를 생동한 사실과 실물로 보여주는 감화력이 비할바없이 큰 교양수단이다. 당조직들은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혁명전통교양의 학교로 훌룽히 꾸려진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과 혁명사적관에 대한 답사 및 참관 사업을 계획적으로 조직하며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대상의 특성과 준비정도에 맞게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자료들과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들을 통한 교양사업은 혁명전통교양의 중요한 방법이다. 혁명전통교양자료들과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들은 혁명전통의 내용들과 그것이 얼마나 값있고 영광스러운것인가를 감명깊게 깨닫게 한다. 당조직들은 혁명전통교양자료들과 혁명영화 《조선의 별》을 비롯한 혁명전통주제의 문학예술작품들을 가지고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혁명전통교양을 짜고들어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은 그 목적이 단순히 지나간 력사적사실을 아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혁명전통을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자는데 있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하나의 회상기를 학습해도 거기에 담겨진 혁명사상과 투쟁기풍, 령도방법을 자신의 사업과 생활과 결부하여 깊이 연구체득하며 그것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실속있게 진행할데 대한 문제를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하고있으며 혁명전통교양의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우리 당의 의도를 심장으로 받들고 혁명전통교양을 실속있게 벌림으로써 당과 혁명 대오를 반석같이 다지며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진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준법의식을 높이는것은 사회공동생활규범을 철저히 지키기 위한 필수적요구

리 기 섭

근로자들속에서 준법의식을 높여 사회공동생활규범을 잘 지키도록 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를 움직이고 공고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근본요구의 하나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준법의식을 소유하고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게 사회공동생활규범의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할 때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사회공동생활규범은 계급 또는 사회적집단의 리익에 부합되게 사람들의 생활과 활동을 규제하고 조절통제하는 질서이며 준칙이다. 사람들의 생활과 활동을 규제하는 이러한 공동생활규범이 없이는 집단적인 사회생활자체가 유지될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누구나 일정한 사회공동생활규범의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하게 된다.

사람은 원래 사회관계를 맺고 일정한 사회적집단의 한성원으로 살며 활동하는 사회적존재이다. 사회적성격은 동물의 무리생활과 구별되는 인간생활의 고유한 표징이다. 사회관계와 사회공동생활을 떠나서는 사람들의 생활과 활동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계급사회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의 공동생활규범은 계급적리해관계에 기초하게 되였으며 그것은 언제나 계급적인 성격을 띠게 되였다.

착취계급사회에서 사회공동생활규범은 권력을 틀어쥔 착취계급의 리익을 반영하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억압하고 유린하는 수단으로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의 공동생활규범은 착취와 억압에서 해반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다.

사회주의사회의 공동생활규범은 사람들의 량심과 사회적여론에 의하여 지켜지는것도 있지만 중요하게는 높은 준법의식을 가진 근로자들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에 의하여 준수된다. 그러므로 준법의식을 떠나서 사회공동생활규범의 준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준법의식은 사상의식의 한 형태이다. 사회주의준법의식은 로동계급의 국가에 의하여 제정된 규범들을 존엄있게 대하고 옹호하며 그것을 자각적으로 지키려는 사상관점을 말한다. 그러므로 준법의식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것은 사회공동생활규범을 지키는데서 필수적인 요구로 나선다.

준법의식을 높이는것이 사회공동생활규범을 철저히 지키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사회공동생활규범을 지키는데서 준법의식이 노는 적극적인 작용과 관련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들의 모든 행동이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제되는것만큼 사회주의근로자들이 법무생활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무엇보다 그들의 준법의식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 단행본, 11～12페지)

준법의식과 사회공동생활규범은 유기적인 련관관계에 있으며 호상작용한다.

사람들의 모든 행동이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제되듯이 준법활동도 준법의식

에 의하여 규제되고 조절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회공동생활규범이 어떻게 지켜지는가 하는것은 규범준수활동을 규제하는 준법의식여하에 달려있다.

사회주의준법의식은 사회주의국가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범과 규정, 사회공동생활규범에 대한 혁명적인 립장과 관점, 견해를 반영하며 구체적으로는 법무생활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높은 자각과 제정된 규범을 스스로 지켜나가려는 의지로 표현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공동생활규범을 만드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만들며 그것을 준수집행하는것도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데 있다. 이로부터 사회공동생활규범을 지키는것은 어디까지나 근로인민대중의 자각성과 의지에 기초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주의사회라고 하여 저절로 준법기풍이 서고 사회공동생활규범이 스스로 지켜진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모든 준법활동은 준법의식에 의하여 규제되고 조절되기때문에 인민대중이 사회공동생활규범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준법활동을 규제하는 준법의식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오직 그렇게 할때에만 사람들이 법무생활에 대한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공동생활규범의 요구를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갈수 있으며 그것을 지키지 않는 그릇된 현상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할수 있다.

준법의식이 사회공동생활규범을 지키는데서 노는 이러한 적극적인 규제적작용은 그것이 근로자들의 사회공동생활에 대한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사회공동생활규범에는 온 사회에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울데 대한 당과 국가의 요구가 행동준칙의 형식으로 체현되여있다. 여기에는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애호하고 주인답게 관리하며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고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모든 생활분야에서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여 고상한 공산주의적도덕품성을 소유할데 대한 요구가 담겨져있다.

사회주의사회의 공동생활규범이 담고있는 이러한 내용들은 사회적요구일뿐아니라 근로자들자신의 생활상 요구와 리해관계에 근본적으로 일치하며 그것은 그대로 준법의식에 반영된다.

사회주의준법의식은 근로자들의 생활상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회공동생활규범의 요구를 자각적으로 철저히 지키게 하는 근본요인으로 된다.

이처럼 준법의식이 근로자들의 생활상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고있으며 그것이 준법활동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바로 여기에 준법의식을 높이는것이 사회공동생활규범을 철저히 지키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되는 주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준법의식을 높이는것이 사회공동생활규범을 철저히 지키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되는것은 또한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특성과 관련된다.

사회주의사회는 공산주의적, 집단주의적 원칙에 기초한 사회관계가 온 사회를 지배하고있는 사회이며 고도로 조직화되고 발전된 사회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인민대중모두가 사회주의근로자들이며 그들은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 집단적으로 일하며 생활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모든것은 근로인민대중의것으로 되여있으며 그것들은 인민대중의 집체적지혜와 공동의 힘에 의하여 유지되고 발전한다.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된 인민대중은 사회활동과 생산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긴밀히 협조하며 동지적단결을 강화해나가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또한 모든 사회성원들이 집단과 조직에 망라되여 생활하고있다.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이 정치사상적으로 굳게 결합되고 동지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면서 집단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여기에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특성이 있다.

사회주의사회의 이러한 특성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다같이 지키고 조직적으로 움직여나갈수 있게 하는 공동생활규범과 그에 상응한 높은 준법의식을 요구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높은 준법의식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고도로 조직화된 집단생활과 발전된 사회관계를 반영한 사회주의사회공동생활규범의 요구를 구현해나갈수 없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일하고 생활할뿐아니라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하여 경제가 고도로 계획화되고 조직화되여있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들과 모든 단위들이 하나의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전사회적인 규모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련결된 통일체를 이루고있으며 일원화, 세부화된 경제계획에 맞물려 움직인다. 이것은 경제생활령역에서도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을 요구한다. 경제관리에서 엄격한 규률과 질서를 세우지 않고서는 모든 부문과 단위들 호상간의 긴밀한 련계를 보장할수 없으며 인민경제의 빠른 발전을 보장할수도 없다. 더우기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련합기업소들이 새로 많이 조직되고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더 잘 관철하며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할 과업이 중요하게 제기되고있는 현실은 경제관리에서 제정된 규범들을 더욱 철저히 지킬것을 요구하고있다. 만일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제정된 규범과 규정들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태도를 가지지 않고 계획규률규범과 협동생산규률규범, 기업소들 호상간의 계약규률규범 등을 철저히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부문, 다른 단위들의 기업활동과 생산활동에 직접적영향을 미치게 되며 결국 그것은 련쇄반응을 일으켜 전반적경제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준법의식을 높여 경제생활분야의 규범들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것은 매우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준법의식을 높이는것이 사회공동생활규범을 철저히 지키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낡은 사회의 유물들이 아직 남아있는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과 관련된다.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다음에도 사회생활의 이모저모에는 오랜 력사적기간을 내려오면서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낡은 유물이 존재하며 그것들은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공동생활의 건전한 발전을 저애하고있다.

착취와 억압, 지배와 예속의 사회관계를 낳는 온갖 사회경제적조건들이 완전히 없어진 사회주의사회에서 사회공동생활규범을 침해하며 위법현상을 초래하는 근본요인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 잔재이다. 낡은 사상 잔재는 사람들을 낡은 준법의식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적준법의식으로 무장시키는것을 방해한다.

사회주의하에서는 사람들의 공동생활과 경제생활면에도 낡은 사회의 유물이 남아있다. 근로자들은 착취적인 로동관계에서 해방되였으나 고되고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있으며 생산력은 사람들의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는 높은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있다. 또한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 사람들간의 생활수준상 차이가 남아있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문화생활분야에서도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뒤떨어진 문화와 낡은 생활유습과 생활양식이 남아있다.

이 모든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사상, 기술, 문화분야에서 낡은것을 없애기 위한 혁명을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온 사회에 사회주의공동생활규범의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하는 혁명적인 생활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사회주의사회에 남아있는 낡은 사회

의 유물과 뒤떨어진 생활습성, 낡은 생활양식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회공동생활규범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야 하며 그러자면 근로자들속에서 준법의식을 부단히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 근로자들속에서 준법의식을 높여 사회주의공동생활규범을 준수하는 혁명적기풍을 확립하여야 낡은 사상과 생활습성이 되살아날수 있는 틈을 없앨수 있으며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할수 있고 제정된 사회질서를 어기는 위법현상들을 근절할수 있다. 또한 준법의식을 높여야만 물질문화생활분야에 남아있는 낡은 생활인습과 시대의 요구와 지향에 맞지 않는 뒤떨어진 생활풍습을 없애고 인민들의 요구와 감정, 미감에 맞는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적극 확립해나갈수 있다.

이와 같이 근로자들속에서 준법의식을 높여 사회공동생활규범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것은 아직 낡은 사회의 유물이 남아있는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 성격으로부터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근본요구이다.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우며 사회공동생활규범을 잘 지키도록 하는것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로부터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오늘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은 새로운 전환기에 처하여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우리 근로자들의 정신도덕적풍모와 경제, 문화 생활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일어나고있다.

우리앞에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겨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성스러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워 우리 사회를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단일한 정치적력량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당이 의도하고 바라는대로 움직여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근로자들의 준법의식수준을 높이고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근로자들의 준법의식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그들속에서 준법교양을 강화하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준법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의 준법의식을 높이는데 언제나 선차적인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12페지)

준법교양은 사람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상교양의 한 형식이며 그들이 사회공동생활규범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상교양에서 기본은 법규범과 규정들을 비롯한 모든 규범들의 혁명적본질과 내용, 기본사상들을 근로자들속에 똑똑히 인식시킴으로써 그들이 법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것이다.

우리 근로자들이 지켜야 할 사회공동생활규범들에는 주체사상의 원리와 요구들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으며 사회생활분야에서 정연한 질서와 제도를 세울데 대한 당의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 거기에는 또한 사회주의적생활양식확립과 관련한 기본문제들이 규정되여있으며 공산주의도덕규범의 요구도 적지 않게 반영되여있다. 준법교양을 통하여 모든 근로자들에게 제정된 사회공동생활규범의 내용과 요구, 그 준수의 필요성과 의의 등을 명확히 인식시킬 때 그들이 법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량심적으로 성실히 지켜나갈수 있다.

사회공동생활규범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기 위한 준법교양은 공산주의도덕교양과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의 사회공동생활규범에는 국가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범뿐아니라 도덕규범의 요구들도 반영되여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법규범과 도덕규범

은 통일적인 련관속에서 서로 밀접히 작용하며 제약한다.

공산주의도덕은 사회주의법규범을 정확히 지키는것을 사회성원들의 고상한 도덕적의무로 제기하며 사회적 여론과 비난의 방법으로 위법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공산주의도덕의 이러한 작용은 도덕교양이 강화되고 사람들이 옳바른 륜리관을 가지게 될 때 더욱더 커진다. 이것은 도덕규범이 사람들속에서 법규범을 지킬데 대한 사회적인 의무성과 책임성을 높여줌으로써 법규범의 준수를 힘있게 담보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다른 한편 사회주의법규범은 공산주의도덕의 공고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집단적인 사회공동생활분야에 존재하는 적지 않은 도덕규범들은 국가의 법규범에 의하여 규제됨으로써 도덕규범의 요구가 행위준칙의 형태로 보다 명확하게 밝혀지게 되며 그 준수가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된다. 이것은 법규범이 도덕규범의 요구를 실현하는데서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공동생활규범의 특성과 법규범과 도덕규범의 호상관계로부터 준법교양은 공산주의도덕교양과 밀접히 결합되여 진행하여야 보다 큰 효과를 나타낼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제정된 사회공동생활규범을 위반하는 현상들은 주로 낡은 사상 잔재에 바탕을 두고있다. 그런것만큼 공동생활규범을 존중하지 않고 침해하는 위법적인 행동을 극복하자면 준법교양과 함께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기 위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근로자들의 준법의식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또한 사회공동생활규범준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것이다.

사상의식령역에 남아있는 낡은 사회의 유물이 사회공동생활규범을 어기는 근원으로 되고있는 사정은 규범준수활동을 그들의 자각성에만 호소하거나 자연발생성에만 내맡길수 없다. 집단주의와 상반되는 개인주의, 자유주의 등 낡은 사상 잔재가 존재하여있고 공동생활규범을 지키는것이 근로자들의 완전한 생활상 요구로 되지 못하고있는 조건에서는 법적, 사회적 통제가 동반되여야 한다.

통제는 낡은 사상 잔재와 생활인습이 되살아날수 있는 틈과 위법적요소들이 생길수 있는 공간을 미리 막는 작용을 한다. 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준법교양과 사상투쟁의 효과를 튼튼히 안받침할뿐아니라 사람들에게 사회공동생활규범을 어길 때에는 법적, 사회도덕적인 제재를 받는다는 인식을 줌으로써 준법의식을 높여나갈수 있게 하는 담보로 된다. 사회공동생활규범준수에 대한 통제는 그자체가 낡은 사상 잔재와 생활습성을 극복하는데서 교양적작용을 할뿐아니라 낡은 준법의식의 발현을 억제시키며 사람들을 규범생활에 습관되도록 하는데서 힘있는 공간으로 된다.

준법의식을 높이며 사회공동생활규범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사업은 낡은 사회의 유물을 극복하고 새로운 준법의식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꾸준하고 장기적인 투쟁을 요구한다.

모든 사회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집단적인 공동생활규범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문제는 한두번의 교양사업으로 해결될수 없다. 그것은 낡은 사상 잔재와 생활습성이 구체적인 생활에 이르기까지 뿌리깊이 박혀있는 매우 집요하고 보수적인 특징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오직 꾸준하고 인내성있는 준법교양과 사상투쟁을 벌리면서 그에 법적, 사회적 통제를 부단히 강화해나갈 때 근로자들의 준법의식을 끊임없이 높이고 사회공동생활규범을 드팀없이 지켜나가는 혁명적기풍을 확립해나갈수 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울데 대한 당의 의도와 요구를 명심하고 사회공동생활규범을 지키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야 할것이다.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당성 단련의 기본방도

김 재 명

당성을 단련하는것은 당원들을 혁명의 정수분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다지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우리 혁명발전의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모든 당원들이 당성단련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당원들은 당성을 실속있게 단련해나감으로써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더 잘 준비하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빛내여나가야 한다.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해나가는것은 당원의 숭고한 의무이며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하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이다.

당성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며 당이 맡겨준 혁명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다.

조선로동당원의 당성은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위대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확고한 혁명적세계관으로 삼고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며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주체형의 혁명가의 숭고한 품성이다. 조선로동당원의 당성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는것은 당원의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빛내이며 당과 혁명에 끝까지 충실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당원의 한생은 투쟁으로 시작되고 투쟁으로 끝난다. 혁명의 길은 간고하며 혁명가는 준엄한 시련을 뚫고나가야 한다. 당원은 장구하고 험난한 혁명의 길에서 변할줄 모르는 충성심을 안고 한생을 당과 혁명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때 혁명가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다.

조선로동당원은 온몸에 주체형의 피가 차넘치는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인 우리 당원들의 사상정신적특질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데 있다. 그런데 당원의 이러한 사상정신적특질을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당성단련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당성은 결코 타고나는것도 아니며 저절로 가지게 되는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끊임없는 단련과정을 통하여서만 지니게 된다. 쇠붙이를 오래동안 밖에 내버려두면 녹이 쓸어 못쓰게 되듯이 당원이 당성단련을 게을리하면 사상적으로 변질되여 나중에는 정치적생명에 오점을 남기고 혁명대오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당원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당생활을 오래하였거나 오래하지 못하였거나, 직위가 높거나 낮거나, 공로가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일생을 두고 당성을 단련해나가야 영광스러운 당이 안겨준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유지하고 빛내여나갈수 있는것이다.

당원의 당성을 단련하는 기본방도는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당성을 단련하기 위한 기본방도의 하나입니다. 당원들은 당조직생활을 통하여서만 조직성과 규률성을 키울수 있으며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결함들을 제때에 고치고 자신을 혁명적으로 단련해나갈수 있습니다.》

당생활은 혁명적단련의 힘있는 무기이며 혁명가를 키워내는 학교이다. 당원은 조직을 떠나 혼자서는 혁명투쟁을 할수 없으며 조직생활에서 떨어져서는 결코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될수 없다. 당원은 조직생활을 통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낡은 사상 잔재를 철저히 뿌리빼고 공산주의자의 사상정신적풍모를 갖추며 더욱더 완성해나가게 된다. 이것은 혁명적조직생활이 당원들을 혁명적으로 키우는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교양의 학교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당원은 당조직에 의거하여 끊임없는 사상수양과 조직적단련을 쌓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당과 수령께 충직한 혁명가로서의 풍모와 자질을 원만히 갖추어나가게 된다. 사상교양과 사상투쟁, 조직적단련과 혁명적실천은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여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육성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들이다. 당생활은 바로 이 요구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통일적으로 작용하게 함으로써 당원들의 당성을 높여나가는 위력한 방도로 된다.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이 당성단련의 기본방도로 되는것은 우선 당생활이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키워준다는데 있다.

당성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떠난 당성이란 있을수 없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무기이며 수령의 령도를 보장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혁명의 참모부이다. 당이 내놓는 모든 로선과 정책은 다 수령의 혁명사상과 의도를 구현하기 위한것이며 거기에는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근본리익, 그들의 조직적의사가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따라서 당원들이 진실로 당에 충실하자면 무엇보다먼저 수령에게 충성다하여야 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떠나서는 당에 대한 충실성, 당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조선로동당원들에게 있어서 당성은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며 그 실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사람만이 당성이 높고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당원이라고 말할수 있다.

당원은 당생활을 통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높여나간다. 당조직은 사상교양을 통하여 당원들에게 수령의 혁명사상과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전면적으로 체득시키고 혁명원리를 깨닫게 한다. 당조직은 당원들속에 충실성교양을 원리교양과 덕성교양 그리고 충실성의 산 모범을 통한 교양을 옳게 결합시켜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모든 당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깊이 간직하게 한다. 이것은 당생활을 강화할 때 당원들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높여줌으로써 그들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해나가게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이 당성단련의 기본방도로 되는것은 또한 당생활이 당원들에게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을 확고히 지니게 한다는데 있다.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이며 당성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진 사람들의 대중적투쟁과 집단적혁신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건설될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전위투사들인 공산주의혁명가들은 응당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져야 한다. 공산주의혁명정신으로 일관된 높은 사상성과 함께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을 지닌 사람만이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될수 있다. 조직성과 규률성을 떠나서 당원의 당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진 당원만이 당과 혁명에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갈수 있으며 자기의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빛내여 나갈수 있다.

당원의 조직성과 규률성은 당생활을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화된다. 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인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일정한 규률과 질서, 생활규범이 있어야 하며 모든 성원들이 그것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사람들은 제정된 규률과 질서에 따라 움직이고 생활규범의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는 과정을 통하여 조직생활에 익숙되고 조직성과 규률성을 지니게 된다. 조직생활은 바로 모든 조직성원들이 하나의 규률과 질서에 따라 일치하게 움직이고 통일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

당조직은 당원들로 하여금 당안에 세워진 당생활규범과 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철저히 지킬것을 요구한다. 당원들은 당생활과정에 자기 조직을 사랑하고 조직의 리익을 제일생명으로 여기며 조직에 철저히 의거하고 조직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집행해나가는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을 키워나가게 되는것이다.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이 확립됨으로써 오늘 우리 당안에는 전당, 전군, 전민이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조직규률이 확립되였으며 혁명대오의 철통같은 통일단결이 이룩되였다.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이 당성단련의 기본방도로 되는것은 또한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벌리고 사상투쟁을 통하여 당원들의 사상을 끊임없이 교양개조한다는데 있다.

비판은 당원의 당성을 단련하는 위력한 수단이다. 당원은 비판을 통하여 자신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조직사상적으로 단련되게 된다.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누구나 다 낡은 사상 요소들을 가지고있다.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요소들은 생활의 이모저모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사람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낡은 사상의 표현에 대하여 제일 잘 아는것은 그들이 속하여 생활하는 조직과 집단이다.

당조직은 당원들속에서 나타나는 부족점들을 제때에 발견하고 그것이 더 커지기전에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벌리고 사상투쟁을 통하여 고쳐나가게 한다. 비판은 당원들이 자신의 사회정치생활과 혁명과업수행, 개체생활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검토총화하며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른 사람의 결함을 고쳐줄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 당원은 당회의에 참가하여 자기비판도 하고 호상비판도 하며 직접 비판을 받기도 하고 남이 비판하는것을 듣고 뉘우치기도 하는 과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당성을 수양하게 된다.

또한 당원은 당조직생활에 참가하여 자기 잘못을 고쳐나가는것은 물론 당과 혁명의 리익을 고수하고 온갖 불건전한 요소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원칙성과 비타협성을 키워나가게 된다.

이처럼 당원은 비판을 통하여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때 사업과 생활에서 발로되는 낡은 사상 잔재의 자그마한 표현까지 뿌리뽑고 정치사상적으로 건전하며 당적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자라나게 되는것이다.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이 당성단련의 기본방도로 되는것은 또한 실천활동을 통하여 당성을 더욱 높여준다는데 있다.

사람들은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사상의지적으로 단련되며 혁명가의 자질과 품격을 갖추게 된다. 혁명실천은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수양하고 의지적으로 단련하여 당성단련을 다그치게 한다.

수령의 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람들의 혁명실천은 조직을 통하여 진행되게 된다. 조직으로부터 혁명 임무와 과업을 받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과정이 곧 혁명활동이며 정치활동이다. 사람들은 조직으로부터 분공받은 임무를 수행함으로써만 조직의 한 성원으로서의 의무와 본분을 다하게 되며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게 된다.

우리 조선로동당원에게 있어서 혁명실천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다. 당원들은 당조직에서 주는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확고한 신념으로 더욱 철저히 체득하게 되며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혁명정신, 당성을 키워나가게 된다.

혁명실천은 당성을 단련하는 힘있는 수단인 동시에 당원들의 당성을 검증하는 척도이다. 실천과 행동을 떠나서는 사람들의 사상을 평가하고 검증할수 없다. 사람들의 사상정신상태는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는것만큼 혁명실천속에서만 사람들의 사상을 알수 있으며 그들의 당성의 높이를 검증할수 있다. 따라서 혁명실천은 당원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결함들을 제때에 옳게 찾아낼수 있게 하며 그들의 당성을 단련하기 위한 방도까지 세워나가게 한다. 이것은 당조직생활을 통하여 진행되는 혁명실천이야말로 당원의 당성을 단련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는것을 잘 보여준다.

이렇듯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사상교양과 조직적단련, 혁명실천을 통하여 당원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워주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우리 당은 당원들속에서 당생활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당사업과 당생활에서 그를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당원들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당의 전투력을 비상히 높여나가도록 하고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전당에 세워진 새로운 당생활체계를 실속있게 운영하여 당원들의 당생활수준을 더욱 높이며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37~38폐지)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당생활지도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 그 관철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줌으로써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뚜렷한 방향과 방도를 가지고 당생활을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옳게 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었다.

당생활체계를 바로세우는것은 당원들의 당생활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정연한 당생활체계를 세워야 당원들의 조직생활과 사상생활을 높은 수준에서 벌려나갈수 있으며 당조직들이 주되는 힘을 당생활지도에 집중시키고 당의 의도대로 당생활을 옳게 조직하고 지도해나갈수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식당생활기풍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구현하여 당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새로운 당생활체계를 전당에 튼튼히 세워놓으시였다.

우리 당은 당원들속에 조직관념을 높이고 당안에 세워진 당생활규범에 따라 학습회와 강연회, 금요로동, 당생활총화 등 당조직사상생활을 중단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계속해나가게 하는 혁명적인 당생활체계를 세움으로써 당을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는 전투적인 당으로 되게 하였으며 당원들의 당성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하였다.

특히 우리 당에 의하여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가 확립된것은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적인 당생활총화제도가 마련됨으로써 당조직들은 당원들속에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확립하고 그들의 당생활수준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하였으며 당원들의 조직사상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지도대책을 제때에 세워나갈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당원들은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난 결함과 부족점을 묵여두지 않고 제때에 고치며 높은 사상성과 조직성을 가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자신을 튼튼히 준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따라서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는 당원들속에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세우고 사상투쟁의 용광로속에서 당원들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게 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고있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하는것은 당생활지도에서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중요한 방침의 하나이다.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모든 당원들이 당성을 단련하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게 하여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 당은 당생활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시킬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내놓음으로써 당조직들이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지도를 제기된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모를 박고 진행할수 있게 하였으며 그 과정을 통하여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게 하였다. 당생활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순수 당생활일면만 강조하고 혁명과업수행을 소홀히 하거나 혁명과업수행의 중요성을 내세우면서 당조직사상생활을 게을리하는 편향을 다같이 극복하고 당생활을 맡겨진 혁명과업을 더 잘 수행하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 진행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방침이였다.

우리 당이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놓은 현명한 조치들과 그것을 관철하는데서 이룩된 풍부한 경험들은 당원들의 당성을 높이며 당생활지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위력한 리론실천적 무기로 되며 혁명적당건설에서 반드시 틀어쥐고나가야 할 귀중한 지침으로 된다.

오늘 우리앞에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다그쳐나가야 할 영예롭고도 보람찬 과업이 나서고있다.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혁명의 핵심력량이며 선봉투사인 당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며 그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당원들은 당의 크나큰 기대와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자기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한다.

당성은 결코 저절로 생겨나지 않으며 한두번의 단련으로 강해지는것도 아니다. 당성단련을 게을리하면 당에 충실하던 사람도 저도 모르게 변질될수 있다. 당원들은 당의 요구대로 당생활을 강화하여 사상수양과 조직적단련, 혁명실천을 통하여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한다.

당성단련은 당원들의 자각성에만 맡겨서는 강화될수 없으며 당조직의 지도와 통제가 안받침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옳바른 방법론을 세워가지고 당원들의 당성단련에 늘 깊은 관심을 돌리며 학습과 분공수행, 당생활총화를 비롯한 당생활의 모든 고리들이 당성을 높여나가는 중요한 계기로 되도록 구체적으로 짜고들어야 한다.

당조직들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혁명적당생활기풍을 세우고 당생활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언제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군중과의 사업은 당일군의 중요임무

계 학 모

오늘 우리 당은 대중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 각계각층 군중의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다. 전체 인민은 반석같은 조직사상적기초와 높은 령도적권위를 가진 위대한 당에 대한 열렬한 흠모감과 절대적인 신뢰심을 안고 당중앙에 자신과 후대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으며 당을 따라 끝까지 혁명할 각오와 혁명적열의에 가득차있다. 이것은 우리 당 군중로선의 빛나는 승리이며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당의 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군중과의 사업을 힘있게 벌린 결과에 이룩된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군중과의 사업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당과 혁명 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계속 심화시켜나가는것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임무로 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 것은 당조직들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입니다.》

군중과의 사업은 광범한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열렬한 혁명가로 만들며 그들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도록 하기 위한 당사업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군중과의 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당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 당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전위조직이며 광범한 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조직이다. 우리 당이 강유력한 혁명적당으로 되자면 광범한 군중을 자기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한다. 광범한 군중은 당이 존재하고 활동하는데서 의거하고있는 사회적 및 계급적 지반이다. 당은 인민대중을 지반으로 하여 존재하고 활동하며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한다. 당은 인민대중을 떠나서 존재할수 없고 군중을 묶어세우지 않고서는 위력해질수 없다. 우리 당이 광범한 군중을 자기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아야 튼튼한 대중적지반우에서 조직사상적으로 굳임없이 강화발전될수 있다.

당에 대한 군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 당과 대중의 혈연적련계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며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의 사상과 의도를 심어주고 그 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당 조직들과 일군들을 통하여 실현된다.

원래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것은 당사업의 기본요구로 되며 당일군들의 중요한 임무로 된다. 군중을 떠난 당이란 있을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중과의 사업을 떠난 당사업이란 있을수 없다. 당일군들은 당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며 사람과의 사업, 군중과의 사업은 당일군의 본분으로 된다.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여주며 광범한 군중이 당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도록 하는데서 당일군들의 임무와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다. 만일 당일군들이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지 못하면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금이 가게 하고 당을 믿고 따르려는 사람들의 마음에 동요를 일으킬수 있게 한다. 때문에 일상생활과 사업을 통하여 군중과 직접 잇닿아있는 당일군들이 당의 의

도와 요구에 맞게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광범한 군중을 참다운 혁명가로 키워야 당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절대적인것으로 되게 할수 있으며 당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다.

그러므로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당일군들의 중요한 임무로 되며 당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로, 우리 당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하는것은 현실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다.

당의 조직사상적기초가 확고히 축성되고 우리 혁명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있는 현실은 군중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오늘 우리 혁명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총적임무로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매우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자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고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야 한다. 모든 사회성원들을 다 열렬한 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사업은 당일군들이 군중과의 사업을 힘있게 벌릴 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군중과의 사업을 힘있게 벌리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도 잘될수 있고 광범한 대중의 혁명적열의에 의거하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나가는 사업도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군중과의 사업은 특히 혁명이 전진하고 사회가 발전하는데 따라 새로운 차원에서 심화되여야 한다.

우리 나라가 해방된지도 40여년이 되였으며 조국해방전쟁이 끝난지도 30여년이 지나갔다. 사회는 발전하고 혁명은 멀리 전진하였다. 혁명의 전진과정에서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관계와 계급관계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으며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복잡한 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동요없이 우리 당을 따라왔으며 당이 제시한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이러한 투쟁속에서 그들은 단련되고 검열되였으며 그들의 자녀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혁명적 교육과 교양을 받아 당에 충실한 새세대로 자라났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실지생활을 통하여 확신하게 되였으며 체험을 통하여 당의 위대성과 당정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체득하게 되였다. 광범한 대중이 당을 어머니품으로 여기고 당과 수령께 자신과 후대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으며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당과 수령만을 믿고 따르려는 철석같은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있다. 현실은 변하였으며 사람들도 달라졌다. 이러한 조건에서 당일군들이 군중과의 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오지 않으면 더 많은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울수 없으며 우리 혁명력량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갈수 없다. 변화된 현실의 요구에 맞게 군중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당과 혁명의 전도와 관련된 근본문제로 된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는데 따라 군중과의 사업을 새로운 차원에서 끊임없이 심화시키는것은 당일군들의 중요한 임무로 된다.

우리 혁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있는 오늘 당중앙은 군중과의 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일군들이 사람들을 친근한 벗으로, 혁명동지로 대하는것은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은 아래일군들과 군중을 참다운 혁명동지로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

하며 대중과 고락을 같이하고 대중을 위하여 모든것을 묵묵히 바칠줄 알아야 한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38페지)

군중을 친근한 벗으로, 혁명동지로 대하는것은 당일군들의 고유한 품성이며 대중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견지하여야 할 근본태도이다.

당일군들과 군중은 같은 리상과 목적을 가지고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함께 싸워나가고있다. 수령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당일군과 군중은 언제나 서로 믿고 사랑하며 난관과 시련도 함께 헤치고 기쁨과 슬픔도 같이 나누는 혁명동지, 혁명전우의 관계에 있다. 모든 사회성원들사이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는 우리 사회에서 당일군과 광범한 군중사이에는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며 단결하고 이끌어주는 진정한 동지적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로부터 우리 당의 모든 일군들은 군중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며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는 친근한 벗으로, 참다운 혁명동지로 되여야 한다.

당일군들이 군중의 친근한 벗이 되고 동지가 되는데서 중요한것은 복잡한 군중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바로 가지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복잡한 군중은 거의나 기본계급출신으로서 우리 혁명에 절대적인 리해관계를 가지고 당을 따라오는 사람들이다. 복잡한 군중은 혁명의 대상이 아니라 기본동력이며 전술적으로 포섭하는 일시적인 동반자가 아니라 공산주의사회까지 같이 가야 할 혁명동지이다. 당일군들이 복잡한 군중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그들을 혁명동지로, 친근한 벗으로 대하는 관점과 태도를 가질 때만이 군중을 믿고 그들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할수 있으며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수 있다.

모든 당일군들은 자신이 군중의 친근한 벗이고 혁명동지라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군중과의 사업을 진공적으로 해나감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야 한다.

군중과의 사업에서 중요한것은 사람들에 대한 료해평가를 혁명의 리익의 견지에서 책임적으로 잘하는것이다.

군중과의 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당과 혁명의 리익의 견지에서 고찰하고 판단하는것은 당일군들의 사고와 실천에서 지켜야 할 기본원칙이다. 당일군들이 군중에 대한 료해평가사업을 혁명의 리익의 견지에서 책임적으로 잘하여야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참답게 보호해줄수 있으며 우리의 혁명력량을 불패의것으로 튼튼히 다질수 있다.

사람들을 료해평가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성분이 아니라 본인의 현재의 계급적각오정도와 사상상태를 기본으로 보는것이다.

사람의 성분이란 사상상 구성성분을 말한다. 사람의 성분은 결코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다. 혁명이 전진하고 사회가 발전하는데 따라 계급관계는 달라지고 생활환경과 조건도 변화되며 이에 따라 사람들의 성분도 끊임없이 변하게 된다. 때문에 사람의 성분도 발전적으로 고찰되여야 한다. 성분이나 환경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될수는 없는것이다.

사람들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며 그 충실성을 재는 척도는 실천활동, 현행이다.

아무리 성분이 복잡하고 가정주위환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본인이 혁명과업수행에서 모범적이고 당과 수령께 충실하면 그런 사람은 혁명가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당일군들은 사람들을 지난날의 계급적처지나 가정주위환경, 경력만 보고 평가할것이 아니라 본인의 현재의 계급적각오정도와 사상상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절대적표징으로 하여 평가하는 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당일군들은 사람들을 료해

평가하기 위한 사업에서 시간과 정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진지하고 책임적인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그래야 사람을 정확히 보고 바로 평가할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지난 기간 군중과의 사업을 하는 과정에 절실히 체험하게 되였다.

우리 배천군은 주민구성이 비교적 복잡한곳이다. 우리 군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선지대였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악랄한 만행과 교활한 민족리간책동으로 말미암아 군내 주민들의 사회정치적구성은 더욱 복잡하게 되였다. 이러한 실정은 군당위원회로 하여금 기본군중과의 사업과 함께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에 많은 힘을 넣을것을 요구하였다.

지난해말 군당위원회는 군중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당의 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책임일군들이 군당일군들을 데리고 강호리에 나가 군중들과 침식도 같이하고 일도 함께 하면서 군중료해사업을 품을 들여 진행하였으며 제기되였던 많은 문제들을 정확히 해명하였다. 우리는 강호리에서의 군중료해사업경험을 군적으로 일반화하여 전반적리들에서 이 사업을 심화시켜나가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당의 핵심으로 키울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당일군들이 사람들의 운명에 대하여, 그들의 정치적생명에 대하여 당과 혁명앞에 책임지려는 확고한 결심을 가질 때만이 군중료해사업을 혁명의 리익의 견지에서 잘 해나갈수 있다는것을 깊이 체득하였다.

군중과의 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당일군들이 군중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는것이다.

당일군들이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고 보살펴주듯이 군중을 뜨겁고 진실하게 대하면서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자기일처럼 여기고 제때에 풀어주는것은 군중과의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요구로 제기된다. 당일군들은 자식들의 장래에 대하여 늘 걱정하고 그들의 요구를 해결해주기 위하여 항상 마음쓰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군중과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이 군중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성심성의껏 해결해주어야 광범한 군중이 당을 어머니품으로 여기고 모든것을 의탁하게 할수 있으며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갈 각오를 굳게 가지게 할수 있다.

당일군들은 사람들이 가슴속에 묻어두고있는 남모르는 사연과 말못할 문제들도 제때에 알아내여 책임적으로 풀어주어 모든 사람들이 당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래일에 대한 밝은 전망을 안고 활기에 넘쳐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은 특히 복잡한 군중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책임적으로 잘 풀어주어야 한다. 만일 당일군들이 복잡한 군중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되는대로 처리하면 그들이 당조직을 믿지 않게 되고 당의 믿음에 대하여 반신반의할수 있다. 당일군들은 남이 가슴아파하는 일을 알고도 강건너 불보듯하고 애로를 말해도 풀어주지 않는 그런 랭담한 일군이 되여서는 안된다. 당일군들은 복잡한 군중들과 자주 접촉하고 주동적으로 만나 담화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풀어줄것을 요구하는가를 료해하여야 하며 제기되는 문제를 진지하게 풀어주어야 한다.

사람들을 대담하게 믿고 포섭하는것은 군중과의 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모든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게 하자면 당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에 대하여 깊이 인식시키는것과 함께 당의 은덕과 믿음에 대하여 실지생활을 통하여 체험하고 느끼게 하여야 한다. 사람들이 제일 바라는것은 당의 믿음이며 사랑이다. 사람들에게 당의 정치적신임보다 더 큰 기쁨을 주고 열정을 불러일으키며 힘과 용기를 주는것은 없다.

우리 당일군들은 지난날의 계급적처지나 생활경위와는 관계없이 오늘 당과 혁명에 충실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진심으로 믿어주고 대담하게 포섭하여야 한다.

사람들을 믿는데서 중요한것은 그들에게 정치적신임을 안겨주는것이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책임적인 사업이 제기되면 외면하거나 멀리하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믿지 않는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당일군들은 빈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적인 믿음을 통하여 사람들을 교양하여야 한다. 오로지 당에 충성다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런 선입견이나 편견도 없이 진심으로 믿고 포섭하여야 하며 초소를 맡기고 과업을 안겨주는데서뿐아니라 공로를 평가해주고 영예와 표창을 안겨주는데서도 조그마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 당일군들이 당에 충실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대담하게 실천적믿음을 안겨주어야 그들이 당의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보답하기 위하여 더 열성적으로 일할수 있으며 그들을 통하여 더 많은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울수 있다.

지난 2월 군당위원회는 복잡한 군중가운데서 당을 따라 20년, 30년 동요없이 충실하게 일해온 많은 사람들에게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게 하는 실천적믿음을 안겨주었다.

당원증을 수여하는 날 군안에 있는 가족, 친척들은 물론 멀리 개성시에서까지 당의 정치적신임에 의하여 입당하는 그들의 경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달려왔다.

당원증을 수여받은 사람들은 물론 그들을 축하하기 위하여 달려온 사람들 모두가 감격에 울고 기쁨에 겨워 흐느끼였다. 그들이 흘리는 감격의 눈물, 그것은 진정 사람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며 빛내여주는 어머니당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눈물이였으며 가장 권위있고 존엄있는 위대한 당의 한성원으로 받아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크나큰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맹세의 눈물이였다. 실로 그것은 심장의 격동없이는 볼수 없는 감동적인 화폭이였으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우리 사회의 위력을 과시하는 빛나는 모습이였다.

이렇게 되자 당원의 영예를 지니고 높은 신임을 받게 된 사람들은 물론 그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 그들의 가족, 친척들모두가 뚜렷한 목표를 제기하고 신심과 희망에 넘쳐 성수가 나서 일하게 되였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당적믿음을 안겨줄데 대한 당중앙의 의도가 얼마나 정당하고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는가 하는데 대하여 가슴뜨겁게 느끼였으며 당의 방침대로 확고한 당적주견과 정책적대를 가지고 군중과의 사업을 해나갈 때 더 많은 사람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일군들이 로숙한 방법과 원만한 작풍을 가지고 군중과의 사업을 하는것은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어떻게 관철하며 군중과의 사업을 얼마나 심도있게 하는가 하는것은 당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에 크게 달려있다.

당일군들은 직업적인 혁명가이며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야 할 임무를 지니고있는 정치활동가이다.

당일군들이 자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서는 방법에서 로숙하고 작풍에서 원만하여야 하며 어머니다운 품성을 지녀야 한다. 당일군들이 로숙한 방법과 원만한 작풍을 지니고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군중을 대하여야 당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두터이하고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릴수 있다.

로숙한 방법과 원만한 작풍은 군중과의 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나가는데서 표현된다.

당일군들은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책임지고있는것만큼 사람문제를 특별히 신중하게 다루고 로숙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사람들의 운명에 대하여 책임지고있는 우리 당일군들이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에 관계되고 그들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를 절대로 편협하고 경솔하게 다루어서는 안된다.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것은 결코 그 어떤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이다. 사람들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열백번 알아보고 결론을 내리는것은 정치적생명을 다루는 당일군들의 철칙으로 되여야 한다. 아는 길도 물어가라는 말이 있듯이 당일군들은 제기되는 문제를 절대로 경솔하게 대하거나 즉흥적으로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즉흥은 실수의 전제이다. 제기된 문제를 알아보지도 않고 즉흥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면 군중과의 사업에서 실패를 면할수 없으며 또 그렇게 하여가지고서는 사업권위도 세울수 없다. 때문에 사람문제처리에서는 공정하고 또 공정하여야 하며 신중하고 또 신중하여야 한다.

모든 당일군들은 군중과의 사업에서 경솔한 태도를 결정적으로 없애고 무슨 일이 제기되면 언제나 침착하게 사고하고 과학적으로 판단하며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로숙한 방법과 원만한 작풍은 또한 군중을 너그럽게 대하는데서 표현되게 된다.

당일군들은 군중과의 사업에서 항상 너그러워야 하며 겸손하고 소탈하여야 한다. 너그럽고 겸손하며 소박한 품성을 가지는것은 군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며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당일군들이 사람들을 대하는데서 너그럽지 못하고 협애하고 옹졸하거나 까다롭고 건방지면 군중이 당조직에 속을 주지 않게 되고 당일군들을 멀리하게 된다. 당일군들이 너그럽고 겸손하며 도량이 크고 소탈하여야 군중과 친숙하게 어울리고 그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을수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당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게 할수 있다.

당일군들은 언제나 군중을 너그럽게 대하며 사람들이 당위원회의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게 처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은 어느때 누구든지 마음놓고 찾아와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털어놓을수 있도록 당위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하며 올면서 찾아왔던 사람들도 후련한 마음을 안고 웃으면서 당위원회의 문을 나서도록 사람들을 뜨겁고 친절하게 대하여야 한다.

참으로 모든 당일군들이 로숙한 방법과 원만한 작풍을 가지고 사람과의 사업을 수완있고 능란하게 벌려나가는 여기에 광범한 군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우는것은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가정주위환경과 사회정치생활경위, 나이와 수준이 서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군중과의 사업은 당일군들의 힘만으로는 성과적으로 해나갈수 없다. 때문에 당원들과 핵심군중을 통하여 군중과의 사업을 하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우는것이 중요한 요구로 나서게 된다. 당원들과 핵심군중을 통하여 군중과의 사업을 하는것은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 천이 만을 교양하고 움직이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을 군중과의 사업에 구현한것이다. 당 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여 그들이 핵심군중을 교양하고 그 핵심군중이 광범한 군중을 교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일군들은 기본군중과의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하며 군중과의 사업에서 좌우경적편향을 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군중과의 사업은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의 기본내용의 하나이며 당일군들이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임무이다.

우리는 군중과의 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당과 혁명대오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경제관리에서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기업소창발성의 옳은 결합

한 인 호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려면 경제관리를 현실발전의 요구에 따라세워야 합니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잘하는 여기에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의 정확한 지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적극 벌어지고있는 현시기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경제관리에서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기업소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켜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더욱 개선하는것이다.

경제관리에서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기업소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키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원칙의 하나이다.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기업소의 창발성을 결합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인민경제를 옳게 관리운영하는가 못하는가, 경제건설을 빠른 속도로 다그치는가 다그치지 못하는가 하는것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경제관리에서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기업소의 창발성을 결합시키는 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편향없이 빠른 속도로 다그쳐나갈수 있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조화롭게 발전시킬수 있다.

경제관리에서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기업소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킨다는것은 국가의 통일적이며 계획적인 지도밑에 공장, 기업소들이 경영활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생산자대중의 집체적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창조적으로, 능동적으로 해결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경제관리에서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기업소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키는것은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적요구이다.

사회주의경제는 대규모의 계획경제이며 균형경제이다. 전사회적범위에서 하나의 통일적인 유기체를 이루고있는 사회주의경제에서는 어느 한 부문이나 어느 한 단위라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균형이 헝클어져 련관된 다른 부문, 다른 단위의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나아가서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를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지장을 주게 된다.

경제건설에서 나타날수 있는 이러한 편향들을 미리막고 인민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가 공업, 농업, 운수를 비롯한 경제의 모든 부문과 생산, 분배, 교환, 소비 등 사회적재생산의 고리들을 철저히 장악하고 나라의 경제생활전반을 통일적인 계획에 따라 움직여나가야 한다. 국가가 나라의 모든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경제건설을 계획적으로 지도하지 않고서는 인민경제

부문들과 부문내부단위들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를 합리적으로 맞물릴수 없으며 사회주의경제발전의 계획성과 균형성을 원만히 보장할수 없다.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경제에서는 공장, 기업소들이 다같이 국가의 소유이지만 경영상 상대적독자성을 가지고있다. 국영기업소들이 독자성을 가진다는것은 매개 국영기업소들이 국가가 허용한 범위안에서 일정한 권한을 가지며 경영상 독자적인 단위로서 자기 책임하에 생산수단을 리용하고 관리하며 자체로 수입과 지출을 맞추면서 기업활동을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영상 상대적독자성으로 하여 매개 공장, 기업소들은 경영활동결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있다. 공장, 기업소들이 국가앞에 지닌 의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제과업수행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어데까지나 자체로 책임지고 창발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자기 단위의 경영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진행할수 있으며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이처럼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기업소의 창발성은 다같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기업소의 창발성은 경제관리에서 서로 다른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있다.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는 대규모사회주의계획경제의 본성과 관련하여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를 혁명과 건설의 근본리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것이며 공장, 기업소들의 창발성은 생산과 관리의 주인인 근로자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적극 발양시켜 자기 단위의 경영활동과 나아가서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말하여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를 강화하는 문제가 경제를 통일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공장, 기업소의 창발성을 발양시키는것은 주로 국가로부터 받은 경제과업수행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말할수 있다.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기업소의 창발성은 그 포괄범위와 역할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 서로 뗄수 없는 밀접한 련관관계를 가지고있다. 경제관리에서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기업소의 창발성은 다같이 로동계급의 당의 지도밑에 보장되고 발양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공통된 목적과 지향을 실현하기 위한 사람들의 창조적활동을 반영하고있다. 그러므로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건설을 책임지고있는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맡은 국가과제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한 공장, 기업소의 창발성사이에는 자그마한 모순도 없으며 본질에 있어서 하나로 통일되여있다. 바로 여기에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공장, 기업소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킬수 있는 객관적기초가 있으며 그것을 반드시 결합시켜야 할 주되는 리유가 있다.

만일 경제관리에서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만 절대화하면서 공장, 기업소들의 창발성을 소홀히 할 때에는 경제지도기관들의 주관주의와 관료주의를 면할수 없으며 아래단위와 생산자대중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일수 없다. 반대로 공장, 기업소들의 창발성을 지나치게 장려하면서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를 약화시키면 경제건설에서 자연발생성과 무질서가 발생할수 있으며 경제의 통일적이며 계획적인 발전에 혼란을 조성하는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

사회주의경제를 그 본성에 맞게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관리에서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기업소의 창발성을 서로 대치시키거나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를 강화하면서 공장, 기업소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원칙에서 량자를 옳게 결합시켜나가야 한다.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기업소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켜야 경제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보다 원활히 풀어나갈수 있으며 당의 경제건설 로선과 정책을 편향없이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경제관리에서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기업소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키는것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선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절실한 요구이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토대는 비할바없이 강화되였다. 특히 최근년간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며 제2차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전반적 인민경제의 생산잠재력이 훨씬 늘어나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이 보다 강화되였다.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오늘 우리앞에는 새로운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밀고나가면서 기간공업과 철도운수를 발전시키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이와 함께 올해와 앞으로 몇해사이에 경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농업생산과 수산물생산을 더 빨리 장성시켜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넉넉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앞에 나선 이 모든 경제건설과업은 매우 어렵고 방대하며 그것은 경제관리에서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기업소의 창발성을 더욱 밀접히 결합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오늘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기업소의 창발성을 더 잘 결합시켜야 생산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보다 원활히 풀어나갈수 있으며 우리앞에 나서는 어떤 어렵고 방대한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기업소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하여 계획화사업을 바로하고 자재공급사업을 잘하기만 하여도 지금 있는 원료와 연료, 자재로 생산을 훨씬 더 늘이고 막대한 사회적로동을 절약할수 있으며 계획규률과 계약규률을 강화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경제건설을 더욱 다그치는 문제도 결국은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공장, 기업소, 과학연구기관들의 창발성을 어떻게 잘 결합시켜나가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려는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열의를 실질적인 로력적 성과로 전변시키려고 하여도,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탐구동원하여 생산과 건설을 쉼없이 다그치자고 하여도 경제관리에서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기업소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켜야 한다.

이처럼 경제관리에서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기업소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하는것은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도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생산과 건설을 적극 다그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경제관리에서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공장, 기업소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중속에 들어가서 당정책이 옳게 집행되도록 조직하며 걸린 문제를 찾아내고 군중의 의견을 들으며 그것을 가지고 올라와서 분석한 다음에 당의 새로운 방침과 새로운 대책을 가지고 다시 군중속에 들어가는것, 이것이 군중로선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18권, 505~506페지)

군중로선을 관철하는것은 국가의 중

앙집권적지도와 기업소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켜 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군중로선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대중지도원칙이며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현실을 제일 잘 아는것은 생산자대중이며 공장, 기업소들을 관리운영하고 생산을 직접 진행하는 담당자도 다름아닌 그들자신이다. 군중에 의거하면 경제지도기관들이 공장, 기업소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를 그 본성에 맞게 지도관리하기 위한 옳바른 방도를 찾을수 있다. 군중에 의거하는것은 국가경제지도기관들뿐아니라 공장, 기업소들에서 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경영활동을 잘해나가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군중로선을 관철하여야 지도와 대중을 결합시켜 주관주의와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건설을 중앙집권적으로 장악지도할수 있으며 경영활동에서 자유주의와 본위주의적경향을 없애고 공장, 기업소와 생산자대중의 창발성을 옳게 발양시킬수 있다.

경제관리에서 우리 당의 군중로선을 구현하고있는 경제관리체계는 대안의 사업체계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우월한 경제관리체계이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기본정신은 간부들과 근로자들이 한덩어리가 되며 간부들이 책상에 앉아서 지시하고 명령하는것이 아니라 아래에 내려가서 생산자들과 사업하며 그들을 도와주는데 있다. 웃기관 일군이나 아래기관 일군이나 할것없이 모든 일군들이 당의 의도와 국가의 요구를 받들고 현실에 내려가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열성을 적극 발양시키는것이야말로 경제관리에서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기업소의 창발성의 옳은 결합으로 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의 요구대로 현실에 깊이 들어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하며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당의 의도와 국가의 요구에 맞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특히 아래에 내려가 장악통제하면서 도와주는것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경제관리에서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기업소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켜나가는데서 련합기업소들에 대한 지도를 잘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우리 나라에 널리 조직되여있는 련합기업소는 사회주의사회의 특성과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우리 식의 새로운 기업소조직형태이다. 련합기업소를 많이 내온것은 본질에 있어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 잘 관철하여 생산을 더욱 장성시키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

련합기업소는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밑에 계획단위, 생산단위, 집행단위로서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할수 있는 여러가지 조건을 갖추고있다. 련합기업소는 자재보장, 협동생산, 수송조직 등 생산정상화의 기본고리들을 틀어쥐고 국가계획을 자체로 수행해나갈수 있는 제반 조건들을 보장받고있으므로 련합기업소를 잘 운영하면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를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

련합기업소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기업소의 상대적독자성을 잘 실현하는것이다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상 상대적독자성은 경제관리에서 고립적으로가 아니라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를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국가의 통일적이며 계획적인 지도와의 밀접한 련관속에서만 실현되는 독자성이다. 공장, 기업소의 상대적독자성을 무시하고 그것을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대치시키거나 기업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 기업소의 권한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기업관리를 자유화, 분권화하는 엄중한 편향을 범할수 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의 요구대로 국

가의 중앙집권적지도를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기업소의 독자성을 보장할수 있도록 국가적지도를 강화하면서도 련합기업소들에서 창발성을 적극 발양하는데 유리하게 필요한 조건을 적절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련합기업소가 은을 내게 하자면 련합기업소들에서 계획작성사업과 자재보장사업을 당의 정책적 요구에 맞게 진행하여야 한다. 련합기업소는 국가계획기관의 지도밑에 일원화계획체계에 따라 계획을 자체로 세우며 그것을 아래의 기업소들에 분할하여주고 필요에 따라 조절하며 다른 공장, 기업소들과 계약적방법으로 경제거래를 하고있다. 이와 함께 국가는 개별적인 공장, 기업소가 아니라 직접 련합기업소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하며 련합기업소를 통하여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를 실현하고있다.

자재공급사업은 인민경제계획수행을 물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경제조직사업이며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따라 기업소적범위에서나 전인민경제적범위에서의 생산의 전반적 성과가 크게 좌우되게 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련합기업소들에서 원료와 자재, 설비 조건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계획을 동원적이면서도 현실성있게 세우며 계약에 따라 자재를 잘 맞물리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련합기업소들에서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것이 중요하다.

독립채산제는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통제 밑에 기업소가 상대적독자성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해나가면서 생산에 지출된 비용을 자체로 보상하고 국가에 리익을 주는 합리적인 관리운영방법이다.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면 국가의 리익과 생산자대중의 리익을 옳게 결합시키고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생산을 끊임없이 늘여나갈수 있다. 이것은 바로 독립채산제가 비단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고있을뿐아니라 경제관리에서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기업소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독립채산제 규정과 세칙을 잘 만들고 과학적인 계산제도를 세우며 계획실행평가를 바로하고 물질적자극공간을 옳게 리용하며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데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

경제관리에서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공장, 기업소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다른 하나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 규정과 규범들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더욱 완성하는것이다.

경제관리 규정과 규범은 사회주의경제를 그 본성적요구와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경제지도기관들의 지도와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에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이다. 이러한 준칙들은 주로 해당 시기의 환경과 조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요구를 반영하고있다. 그러므로 경제건설이 심화될수록 경제관리 규정과 규범은 새롭게 개선하고 완성하여야 한다. 비록 지난 시기의 규정과 규범이 해당 시기 경제관리에서는 적합한것이였지만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건설이 추진되면 현실에 잘 맞지 않을수 있다.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 규정과 규범들을 더욱 갱신하여야 경제관리를 보다 더 정규화, 규범화할수 있으며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기업소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켜나갈수 있다.

경제관리 규정과 규범을 개선완성하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적문제는 경제관리에서 중앙집권제와 민주주의를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튼튼히 견지하는것이다.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공장, 기업소들을 지내 얽어매놓을수 있으며 창발성을 억제할수 있다.

경제관리 규정과 규범은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 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공장, 기업소들에서 창발성을

높이 발휘할수 있도록,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며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할수 있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개선완성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관리에서 주관주의와 관료주의, 본위주의와 자유주의를 없애고 당의 령도밑에 군중로선과 과학성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경제관리 규정과 규범을 개선완성하는데서 공장, 기업소들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국가경제관리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세칙을 잘 만드는것이 특별히 중요하다.

국가경제관리규정은 국가와 기업소와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가장 원칙적인 문제들을 밝혀놓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한다. 그것은 인민경제 부문에 따라 그리고 공장, 기업소마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있는 조건에서 소소한 문제까지 다 규정해주는 경우에는 아래단위를 지내 얽어매놓을수 있다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부문별 특성과 자체실정에 맞는 세칙이 없이 경제관리를 되는대로 진행하면 근로자들의 생산열의를 떨어뜨리고 경제관리에서 여러가지 편향이 나타날수 있다.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규정을 더욱 개선완성하며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국가규정에 엄격히 의거하면서 충분한 군중토의를 거쳐 부문별 특성과 자체의 실정에 맞는 규정과 세칙들을 더 잘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를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기업소의 독자성과 창발성을 높이게 할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경제관리에서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기업소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당과 국가 앞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요한 부문과 단위들을 책임지고있는 경제지도일군들이 어떤 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일하는가 하는것은 당의 경제건설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근본요인으로 된다 더우기 오늘과 같이 경제건설의 모든 고리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제기되는 경제과업들이 방대할 때일수록 경제지도일군들앞에 나서는 임무는 매우 무겁다. 오늘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관리를 맡고있는 모든 일군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사업을 더 책임적으로 지도하고 경영활동을 잘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이 맡겨진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려면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당 정책은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는 지도적지침이다. 경제지도일군들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환히 꿰들고있어야 그 어떤 조건에서도 확고부동한 신념에 기초하여 자기 사업을 창발적으로 대담하게 전개해나갈수 있으며 당의 의도에 맞게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잘해나갈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사업을 깊이 연구하며 대담한 용단을 가지고 일하는것이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 과정이란 원래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새롭게 제기되고 예견치 않았던 정황들이 조성될수도 있다. 복잡한 난관들이 제기된다고 하여 주저하거나 동요하게 되면 어느 한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수 없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어려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정황이 변할수록 사업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자체의 결심으로 해결할것은 대담하게 달라붙어 섬멸전의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경제지도기관들과 공장, 기업소의 모든 일군들은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기업소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당의 정책적요구를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경제관리를 더욱 개선하고 생산과 건설을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전력공업은 인민경제의 선행관

리 지 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강령적교시에서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전력공업을 다른 부문에 확고히 앞세워 발전시킬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오늘 우리앞에는 전력공업을 인민경제 다른 부문에 앞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전력생산을 빨리 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전력공업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기간공업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력공업은 철도와 함께 인민경제의 선행관입니다. 전력공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인민경제를 빨리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전력공업이 인민경제의 선행관이라는것은 그것이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가운데서도 앞세워나가야 할 부문이라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전력에 대한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수요를 넉넉히 보장하면서도 전력의 생산과 공급에서 충분한 예비를 언제나 보유할수 있도록 전력생산기지를 계속 앞세워 꾸려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인민경제발전에서 전력공업이 노는 거대한 역할로부터 그것을 다른 부문에 확고히 앞세워 발전시키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전력은 현대적생산의 기본동력이며 전력공업은 전기를 생산하여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 공급하는 중요한 공업부문이다. 현대적생산공정의 대부분이 전기기술공정이며 그것을 움직이는것은 전력이다. 전력공업이 앞서야 끊임없이 확대되는 현대산업을 제대로 움직일수 있으며 인민경제의 빠른 발전을 보장할수 있다.

전력공업은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을 다그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한다.

전력공업을 발전시켜 공업생산의 동력학적과정과 기술공학적과정을 전기화하여야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 화학화를 다그치며 선진기술공정과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널리 도입하여 공업의 현대화를 촉진하며 그 기술적토대를 끊임없이 강화할수 있다.

전력공업은 현대적생산의 기술적기초를 이루고있다. 전력공업을 발전시킬수록 공업을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하고 그 생산능력을 빨리 높이며 중로동과 경로동,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를 성과적으로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빨리 해방할수 있다.

그러므로 전력공업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의 토대우에 올려세우는데 필요한 물질적조건을 마련하는 중요한 공업부문으로서 그것을 발전시키는것은 기술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전력공업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기술혁명을 다그치게 할뿐아니라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는데서도 커다란 작용을 한다.

전력은 공업의 기초로 되며 그것을 많이 생산보장하는것은 공업생산을 정상화하고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기본조건으로 된다. 전력이 많아야 석탄, 광업, 금속, 기계, 화학, 건재 공업부문들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사회적생산순환을 조화롭게 하며 확대재생산의 물질적기초를 끊임없이 강화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전반적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자면 전력생산기지를 튼

튼히 꾸리고 전력공업을 인민경제 다른 부문에 앞세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전력공업을 인민경제의 다른 부문에 앞세워 발전시키는 문제는 전력공업의 특성과 관련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전력공업은 수력, 화력, 조수력,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자연력과 원자력을 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들과 생산된 전기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송배전망으로 이루어져있다. 전력공업은 발전소와 소비지사이에 있는 수많은 전력설비들과 구조물, 송배전시설들을 하나로 직접 련결시키면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 전기를 보내주고있다. 그러므로 전력공업은 생산기술적측면에서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있다.

전력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진행되고 그 수요는 계절과 시간에 따라 변동이 심하며 그것을 생산하기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는것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

전력은 특수한 형태로 생산지로부터 소비지까지 수송되며 생산과 수송은 시간적으로 일치한다. 뿐만아니라 전력에 대한 인민경제의 수요는 계절에 따라 다르고 월초와 월말에 차이가 있으며 하루에도 시시각각으로 변동된다. 이것은 인민경제에 미치는 자연의 영향과 함께 사회적생산이 각이한 물질기술적조건과 특성에 따라 넓은 범위에서 다양하게 진행되는것과 관련된다.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발전능력장성과 동시에 송배전계통의 능력을 늘여야 하며 전력의 충분한 예비를 가질수 있도록 전력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앞세워 축성하여야 한다.

전력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는 사업은 고도로 자동화된 발전소와 송변전계통을 건설하는 사업인것만큼 여기에는 많은 시간과 자재, 자금, 로력이 들며 이미 꾸려놓은 전력생산기지를 관리운영하고 새로운 기지를 꾸리는데는 기술적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설비와 부속품, 자재들이 요구된다.

이로부터 전력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현대적과학기술의 성과에 기초하여 더욱 튼튼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 계속 힘을 집중해야 한다.

전력공업을 인민경제의 다른 부문에 확고히 앞세워나가는것은 사회주의사회에 작용하는 객관적경제법칙의 중요한 요구이기도 하다.

전력공업을 앞세운다는것은 발전능력을 전망적으로 늘이는것으로서 그것은 결국 예비용량을 계획적으로 조성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적생산순환의 선행공정들에서 필요한 예비를 조성하는것은 사회주의적생산조직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인 요구이다. 그것은 다음단계에서 생산을 정상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생산의 높은 장성속도를 보장하기 위한 물질생산적준비사업의 기본내용을 이룬다.

밀접히 련관된 인민경제부문들가운데서 기본동력을 보장하는 전력공업이 확고히 앞서나가야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옳은 균형이 유지되고 전력에 대한 모든 부문의 수요를 충족시켜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다.

만일 전력공업을 다른 부문에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경제발전법칙의 요구를 어기면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사이에 불균형이 생기고 원료, 연료, 동력의 부족으로 가공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없게 되며 경제를 주동적으로 발전시킬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많은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을 일떠세우고 거대한 공업생산능력과 잠재력을 마련해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생산과 건설이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이러한 객관적경제법칙의 요구를 옳게 타산한데 기초하여 전력공업을 다른 부문에 확고히 앞세워나가야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사회적생산발전에서 노는 전력공업의 역할과 그 생산기술적특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그것을 인민경제 다른 부문에 확고히 앞세워 발전시키는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적인 전력생산기지를 창설하며 전력 생산과 공급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대규모발전소와 중소규모발전소들로 이루어진 자립적인 전력생산기지가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으며 인민경제의 전력수요를 자체의 생산으로 원만히 보장하게 되였다.

전력공업을 인민경제의 다른 부문에 앞세운 결과 공업과 농촌경리, 철도운수를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되였으며 경제발전을 위한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할수 있게 되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오늘 인민경제의 전력수요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

날로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전력생산을 끊임없이 늘여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으며 대안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다. 그래야 또한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인민경제 여러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하고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줄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전력공업을 앞세워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켜나갈수 있는 물질적조건과 가능성이 충분히 마련되여있다.

우리 나라에는 풍부한 수력자원이 있고 새로 개발리용할수 있는 여러가지 동력자원이 있으며 전력생산을 위한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여있다. 전력공업을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할수 있는 기계공업기지도 꾸려져있다.

전후 재더미를 헤치고 현대적인 전력공업을 일떠세웠으며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전력생산기지를 꾸리고 그것을 운영해온 로동계급과 기술자들의 대부대가 있으며 그들의 풍부한 투쟁경험이 있다.

전력공업을 앞세워나가는 문제는 결국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주체적인 전력공업건설정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가지고 억세게 싸워나가는데 달려있다.

전력공업을 앞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그것을 보장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전력생산기지를 전망성있게 튼튼히 꾸리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력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의 주체적인 동력기지건설방침에 따라 수력발전소건설을 기본으로 하면서 화력발전소와 다른 여러가지 동력자원에 의거하는 발전소건설을 옳게 배합하여야 합니다.》(《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단행본, 21페지)

발전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하며 발전설비와 전기기자재 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는것은 전력공업을 인민경제 다른 부문에 확고히 앞세우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새로운 발전소를 많이 건설하며 전력설비와 전기기자재 생산을 늘여야 전력생산능력을 크게 조성할수 있으며 전력생산을 정상화하고 송배전능력을 발전능력장성에 따라세울수 있다.

여기에서 선차적인것은 강하천들을 종합적으로 개발리용하는 우리 식의 독창적인 수력발전소건설방식에 따라 수력발전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는것이다. 우리 식의 새로운 수력자원개발방식

으로 건설되는 태천발전소 건설을 빨리 끝내며 전망성있는 대상들을 조사하여 건설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계획적으로 밀고나가야 전력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다.

대규모수력발전소와 함께 중소규모수력발전소들을 전군중적운동으로 건설하여 전력에 대한 지방적수요를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지금 하고있는 순천화력발전소 건설을 빨리 끝내며 전망적인 석탄생산계획을 고려하여 석탄이 많이 생산되는 지구들과 초무연탄이 매장되여있는 지대에 크고작은 화력발전소들을 전망성있게 건설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여러가지 동력자원에 의거하는 발전소들을 많이 건설하는것은 전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의 하나이다.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하여 풍력, 조수력을 리용하여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잘하는것은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발전소건설에는 다른 공장, 기업소 건설에 비하여 로력과 자재, 자금이 많이 들며 기술준비와 건설에 적지 않은 시간이 든다. 발전소건설을 다른 공장, 기업소 건설에 앞세워 진행하며 여기에 자재와 설비, 로력, 자금을 우선적으로 대주어야 인민경제의 전력수요를 제때에 충족시키며 경제발전의 균형성을 옳게 보장할수 있다. 발전소건설과 함께 송배전망을 꾸리는데 힘을 넣어야 발전능력의 장성에 송배전능력을 따라세울수 있다.

전력공업을 앞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이미 마련된 전력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전력 생산과 공급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것이다.

지금 있는 발전설비들을 잘 정비하여 효과있게 리용하는것은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빨리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도이다.

발전설비들을 제때에 점검보수하여 사고없이 만부하로 돌리며 그 효률을 높인다면 지금 있는 발전설비를 가지고도 많은 전력을 더 생산할수 있다.

수력발전소들에서 발전기권선의 절연수준을 높이고 수차의 효률과 능력을 제고하며 저수지와 취수구 관리를 잘하여 물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도록 하는데 전력증산의 커다란 예비가 있다.

설비관리를 잘할뿐아니라 그것을 기술적으로 개조하는것이 중요하다.

수풍발전소의 경험은 설비를 개조하여 그 능력을 높인다면 지금 있는 발전설비를 가지고도 많은 전력을 더 생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수풍발전소에서 설비를 개조하여 그 능력을 훨씬 높인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여 수차의 효률을 높임으로써 지금 있는 설비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해야 한다.

송배전부문에서도 지금 있는 변압기들을 기술적으로 개조하는 사업과 송배전선전압단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그 능력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 밀고나가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발전소들과 송배전부문에서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을 널리 도입하여 그 운영을 새로운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운다면 전력 생산과 공급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전력을 믿음성있게 공급할수 있다. 우리는 전력생산의 완전자동화와 원격화를 실현하며 전력계통에 전자계산기와 원격조종장치들을 비롯한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을 적극 받아들여 송배전설비들의 관리운영을 현대화, 과학화하여야 한다.

전력공업을 앞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전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된 전력을 효과있게 리용하는것이다.

전기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극력 절약하는것은 전력에 대한 인민경제의 수요를 보장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특히 그것은 전력공급에서 전압과 주파수를 규정대로 보장하여 발전소들이 자기 능력대로 전력을 생산하며 자동화된 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전력생산을 최대한으로 늘이는것과 함께 교차생산조직을 짜고들어 전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전기절약투쟁을 강화하는것이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전기절약의 가장 큰 예비는 금속, 화학공업을 비롯하여 전력을 많이 쓰는 부문들에서 전력소비기준을 낮추는데 있다. 전기를 많이 쓰는 부문들에서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설비를 제때에 보수정비하고 원료를 철저히 정선하여 쓰며 선진기술공정을 널리 받아들여 제품단위당 전력소비기준을 최대한으로 낮춘다면 많은 전기를 절약할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전력을 쓰는 공정을 쓰지 않거나 적게 쓰는 공정으로 전환하며 전기를 써서 얻은 물, 공기, 가스를 랑비하는 현상을 없애는데 전기절약의 커다란 예비가 있다. 그리고 전기설비를 제때에 철저히 정비보수하여 전기의 도중손실을 극력 줄이며 과대용량설비를 쓰거나 전기를 망탕 쓰는 현상을 없애야 있는 전력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할수 있다. 여기에서 관심을 돌려야 할것은 전력을 극력 절약할수 있는 발명, 창의고안과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는것이다.

공장과 마을, 거리와 인민반들에서 군중적운동으로 전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는데 전력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도가 있다.

전력공업을 앞세우기 위한 확고한 담보는 경제지도일군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이는것이다.

전력공업부문 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고 기술지도와 생산지휘를 강화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보장사업을 잘한다면 전력생산에서 커다란 전환을 이룩할수 있다.

전력공업을 앞세우는데서 기본은 발전소건설을 다그치는것이다. 우리 일군들이 발전소건설대상과 지금 있는 발전소, 송배전부문의 실태를 옳게 료해장악하고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잘 타산하여 계획화사업을 짜고들며 발전소건설을 다그친다면 더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 특히 선후차를 옳게 가리고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며 섬멸전의 방법으로 밀고나간다면 발전소건설을 다그칠수 있다.

우리는 전력생산을 책임진 주인다운 자각을 깊이 간직하고 기술지도와 생산지휘를 강화하며 생산조직을 짜고듦으로써 전력생산을 다그쳐야 한다.

여기에서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할것은 생산과 소비사이의 균형을 잘 보장하는것이다. 생산과 소비사이의 량적균형과 함께 능력상 균형을 보장하며 발전능력의 예비뿐아니라 송전선과 변전소의 능력상 예비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시기별로 변동되는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며 발전설비와 송변전설비들을 정상적으로 보수하면서도 전력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다.

전력공업을 앞세우는 사업은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들의 힘있는 지원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전력공업을 인민경제의 다른 부문에 앞세워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며 기술적방조를 강화함으로써 전력공업발전에서 끊임없는 혁신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

전력공업을 앞세우기 위한 투쟁은 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며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우리는 전력공업을 앞세울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우리 당의 정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생산잠재력의 효과적리용과 과학기술발전

권 오 헌

지금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강령적교시와 전원회의결정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기술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초하여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의 생산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만 효과적으로 리용하여도 생산과 건설을 더 빠른 속도로 밀고나갈수 있으며 인민생활을 훨씬 더 높일수 있습니다.》

이미 마련된 생산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은 경제토대를 새롭게 축성하는것과 함께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방도로 된다. 경제건설이 진척되여 경제토대의 생산잠재력이 커질수록 그 리용수준을 높여야 큰 밑천을 들이지 않고도 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으며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높일수 있다.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의 생산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은 현존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더욱 높이는것으로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기술수단들을 개조하고 생산공정을 현대화하며 선진적인 생산방법을 널리 받아들일 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은 현존생산능력을 다 발휘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방도로 된다.

현존생산능력을 다 발휘하도록 한다는것은 지금 있는 공장, 기업소들이 자기 능력을 다 내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지금 있는 공장, 기업소들이 기계설비들에 만부하, 만가동을 보장하여 실지 생산에서 자기의 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하며 최상의 생산적성과를 내게 하는것을 말한다.

현존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는데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작용한다. 여기에서 생산의 물질적요소들의 보장상태와 기술상태, 생산공정의 완비정도와 같은것들은 생산능력의 리용수준을 높이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런것만큼 이러한 요인들의 작용상태를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는것은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나선다.

생산능력을 다 발휘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작용은 과학기술의 발전정도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생산의 필수적요소를 이루는 원료와 자재, 연료와 동력을 합리적으로, 절약적으로 리용하고 그 원천을 확대할수 있게 하며 생산면적의 리용률을 높일수 있게 한다. 또한 기계설비들의 성능과 생산성을 적극 높이고 그 수명과 가동시간을 늘일수 있게 한다. 이것은 생산의 물질적요소들의 보장상태를 개선하여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수 있게 함으로써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생산장성속도를 빨리 다그칠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의 발전은 생산기술공정들사이, 생산의 순차적공정에 따르는

기계설비들사이의 능력상 균형을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주도적인 생산공정에 맞게 보조적인 생산공정을 완전히 갖추며 기본생산시설들의 최대생산능력에 상응하게 부대설비들의 생산능력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게 한다.

이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생산의 물질기술적조건을 원만히 보장하고 생산공정을 더 잘 완비하여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수 있게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현존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수 있게 할뿐아니라 그것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하는 위력한 방도로 된다.

현존생산능력을 더욱 높이는것은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에 기초하여 그 생산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의 하나로 된다. 현존생산능력이 높아질수록 마련된 경제토대는 경제건설에서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것이다.

현존생산능력을 높이는 문제는 기계설비들의 기술개조를 실현하여 대당 생산능력과 성능을 높이며 기존생산토대를 개건확장하고 기계설비들을 증설하는 과정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해결된다. 그것은 또한 인민경제 부문구조와 부문내부구조를 완비하고 새로운 생산방법과 생산기술공정을 널리 받아들일때 더욱 원만히 풀리게 된다.

생산능력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이러한 요구들은 추가적투자를 통하여 해결되는것도 있지만 그것이 없이도 실현되는것이 있다. 추가적투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도 생산능력을 높이는것은 이미 마련된 생산토대를 보강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자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생산잠재력을 리용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기술수단들을 간편하고 쓰기 편리하면서도 성능이 높은것으로 개조하여 그 생산성을 끊임없이 높이며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거나 적게 하면서도 능률적인 기계설비들을 증설하여 부문구조와 부문내부구조를 완비하는데 필요한 생산부문, 생산공정들을 원만히 갖출수 있게 한다. 또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게 되면 제품의 규격화와 생산의 전문화 수준을 높이고 생산공정의 기술장비를 강화하여 흐름식생산, 묶음식생산을 비롯한 선진적인 생산방법을 널리 받아들일수 있으며 생산공정의 전기화, 자동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현존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경제기술적조건을 마련하는데서 노는 이러한 역할로 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미 마련된 생산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은 특히 생산자대중의 창조력을 더욱 높여 현존생산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방도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생산과 관리의 주인이다. 이미 마련된 생산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문제도 구경은 생산과 관리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것과 관련되여있다.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지 않고서는 마련된 생산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탐구동원할수 없으며 여기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없다. 생산자대중의 창조적능력은 생산잠재력을 리용하는데 작용하는 모든 경제기술적요인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하는 근본요인으로 된다.

생산자대중의 창조적능력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람들의 창조적능력을 더욱 높여주며 그들의 생산활동을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울수 있게 한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생산자대중은 자연을 개조하는데 필요한 풍부한 기술지식과 높은 기술기능을 소유하게 되며 기술수단들을 현대화하고 과학적인 생산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생산력을 끊임없이 늘여나간다. 특히 기계설비들에 정통하고 기술적개조를 실현하며 생산과 경영 활동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게 됨으로써 이미 마련된 생산잠재력을 리용하는 사업을 더욱 성과적으로 진행해나갈수 있게 된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미 마련된 생산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지난 기간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생산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령도하는 전과정에 언제나 과학기술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려왔으며 현대 과학과 기술을 널리 받아들여 이미 마련된 생산잠재력을 옳게 동원리용하는것을 일관한 원칙으로 틀어쥐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왔다.

최근 시기 과학원 함흥분원 무기화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새로운 방법에 의한 카바이드생산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여 비날론공업을 더욱 발전시킬수 있는 넓은 전망을 열어놓았으며 수풍발전소의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발전기효률을 높여 전력생산능력을 획기적으로 늘인것을 비롯한 많은 성과들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이미 마련된 생산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할 때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력사적인 시기에 진행된 우리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1차전원회의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킬데 대한 중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고 현대 과학과 기술을 널리 받아들여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의 생산잠재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전원회의는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는것과 함께 이미 마련된 생산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투쟁과업, 그 수행방도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적극 실현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할수 있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강령적교시와 전원회의결정을 철저히 관철하는 여기에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며 우리의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새로운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하겠습니다.》(《신년사》, 1986년, 단행본, 6페지)

새로운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이미 마련된 생산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원료와 연료, 동력 문제를 해결하며 기술수단들을 현대화하고 생산과 경영 활동을 과학화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푸는것이다.

원료와 연료, 동력 문제를 해결하며 기술수단들을 현대화하고 생산과 경영 활동을 과학화하는것은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략적로선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원료와 연료, 동력을 원만히 생산보장하며 기술수단들을 현대화하고 생산과 경영 활동을 과학화하여야 사회적생산의 순환과정을 다그치고 생산능력을 높이며 생산의 효과성을 보장할수 있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계설비들의 만부하, 만가동을 보장하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생산능력을 완전히 리용하게 하는 근본담보는 원료와 연료, 동력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제때에 보장하는데 있다.

원료와 연료, 동력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여 동력생산을 늘이고 그 구성을 현대생산의 요구에 맞게 개선하며 석탄채취률을 높이고 저열탄과 초무연탄을 개발리용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야 한다. 또한 광물자원을 비롯한 자연자원과 여러가지 형태의 가공원료와 합성원료를 개발리용하며 자연원료와 재배원료 기지를 조성하고 그 생산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것이 중요하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원료와 연료, 동력 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그것을 극력 절약하는것은 생산의 보장조건을 개선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화학공업, 금속공업, 기계공업을 비롯한 원료와 연료, 전력 소비량이 많은 생산부문들에서 물자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며 폐열을 리용하고 기름을 절약하며 전력의 도중손실을 줄이고 유휴자재와 낡은 자재를 회수리용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에 없거나 적은 원료, 연료를 다른것으로 대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를 찾아내는것은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에 기초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으로 된다.

기술수단을 현대화하는데서는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기계설비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그것을 끊임없이 개조하는것이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그래야 기술수단들의 고속도화와 대형화, 전기화와 기계화, 반자동화와 자동화, 원격조종화를 다그쳐 생산능력의 리용수준을 높이고 기술경제적지표들을 갱신할수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기층생산단위들의 규모가 커지고 그 기술장비수준이 높아졌으며 생산기술적련계가 날로 복잡해지고있다. 이러한 생산기술적조건의 변화는 경영활동전반을 과학적으로 타산할것을 요구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계량계측제도를 철저히 세워 원료와 자재, 연료와 동력의 생산과 소비 정형을 정확히 타산하고 그것을 생산의 기술공학적요구에 맞게 바로 분배,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소적범위로부터 전사회적범위에 걸쳐 계획단계, 생산단계, 재정총화단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경제계산을 일원화하며 경제수학적방법을 비롯한 합리적인 계산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전자계산기와 산업텔레비죤을 비롯한 현대적기술수단들을 적극 리용하여 경제계산의 신속정확성을 보장하며 과학적인 타산에 기초하여 생산과 경영 활동을 정확히 지휘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이미 마련된 생산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최신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사업을 잘 짜고드는것이다.

최신과학기술을 제때에 받아들이는것은 과학기술을 최단기간안에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서뿐아니라 마련된 생산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과학기술은 생산실천을 통하여 그 경제적효과성을 나타내게 되며 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된다. 아무리 가치있는 과학적 발명과 기술혁신안도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은을 낼수 없으며 경제발전에 도움을 줄수 없다.

최신과학기술성과를 제때에 받아들이기 위하여서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어김없이 집행하는 엄격한 규률을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생산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조건을 보장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재들을 원만히

대주며 중간시험공장을 제때에 지어주도록 하여야 한다. 최신과학기술을 생산에 받아들이는데서 과학기술연구성과를 확대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초빙강의, 강습, 상품 및 기술 전시회, 과학기술통보사업과 과학기술교류사업을 적극 진행하는것은 나라의 경제적잠재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최신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자면 과학자, 기술자들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생산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옳게 풀수 없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한마음을 안고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고 자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마련된 생산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지도일군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생산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으며 과학기술행정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할수 있다.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것은 생산잠재력을 리용하는데서 수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이 제기되고있는 오늘 그것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관건적고리로 된다.

우리 일군들은 과학기술발전을 저애하는 소극성, 보수주의, 신비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 잔재들을 극복하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생산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서 일군들이 특별히 힘을 넣어야 할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 일군들은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과학기술혁신과제를 대담하게 맡기며 그들속에서 발기되고 연구된 창의고안과 합리화안, 과학기술적발명들을 적극 지지해주고 생산에 도입되도록 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자, 기술자들의 과학기술적성과에 대한 정치적평가와 물질적평가를 바로하여 그들의 책임성과 열성을 적극 불러일으키는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고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려는것은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정책적요구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함으로써 이미 마련된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가져와야 할것이다.

사회주의건설의 심화발전과 인테리의 역할

김 재 성

로동계급의 당이 매개 혁명발전단계에서 인테리들의 지위와 역할을 옳게 규정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식민지반봉건사회에서 인테리들의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히심으로써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에서 옳바른 인테리정책을 실시할수 있는 지도적지침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일반적으로 착취사회에서 인테리들은 많은 경우에 착취계급을 위하여 복무하게 된다. 그러나 식민지반봉건사회에서 인테리들의 많은 부분은 소자산계급출신이며 그들은 식민지통치자들로부터 심한 민족적 압박과 차별대우를 받는 사회계급적처지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의 식민지통치로부터 민족적해방을 이룩하고 뒤떨어진 자기 나라를 빨리 발전시키려는 반제혁명성과 애국심을 가지며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에서 혁명의 동력으로서 커다란 역할을 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나라 인테리들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한데 기초하여 근로인테리들을 로동자, 농민과 함께 당의 구성성분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당에 받아들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그들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표식에 마치와 낫과 함께 새겨져있는 붓에는 인테리들을 크게 믿으시고 혁명의 동력으로 내세워주며 그들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시려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사상과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식민지반봉건사회에서의 인테리들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인 사상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창건첫날부터 인테리들을 대담하게 포섭하고 교양개조하는 한편 인테리들이 지식과 기술을 적극 발휘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면서 그들과 손잡고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하는 방침을 일관하게 견지할수 있었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서면 인테리들의 지위와 역할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변화를 심오히 통찰하시고 사회주의사회에서 인테리는 정신로동에 종사하는 로동계급이라는것을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날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인테리들이 하나의 사회계층으로서 자본가를 위하여서도 복무하고 또 다른 계급을 위하여서도 복무하기때문에 인테리를 소부르죠아계층으로, 동요하는 계층으로 보는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되여있었으나 사회주의사회의 인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테리는 정신로동에 종사하는 로동계급입니다.》

(《김일성저작집》 제29권, 478페지)

지난날 자본주의사회에서 인테리들은 많은 부분이 소부르죠아출신인데다가 자기의 생존을 보장할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라는 밑천을 가지고있으며 자본가들의 호화로운 생활에 현혹되기도 하고 로동계급의 비참한 생활에 동정하기도 한다는데로부터 그들을 동요하는 소부르죠아계층으로 보아왔다. 이러한 안

목으로 사회주의사회의 인테리를 대한다면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옳게 규정할수 없다.

사회주의사회에는 자산계급과 소자산계급이 이미 청산 또는 개조되여 계급으로서 존재하지 않는것만큼 인테리들이 로동계급과 사회주의위업 이외의 다른데 복무할 조건이란 있을수 없다. 사회주의사회의 인테리구성에서 새로 자라난 로동자, 농민 출신의 인테리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오랜 인테리들이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됨으로써 인테리들은 로동계급과 하나의 운명으로 더욱 굳게 련결되게 된다. 그들은 로동계급과 함께 국가와 사회의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있으며 로동계급과 손잡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이런 점에서 사회주의사회의 인테리는 동요하는 소부르죠아계층인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복무하는 정신로동자이라고 말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많은 인테리들이 후대들을 교육하고 과학과 문화,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복무한다. 사회주의하에서 인테리들이 키워내는 후대나 그들이 창조하는 정신문화는 착취사회에서처럼 주로는 소수 반동적지배계급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 정신적재부를 창조하는 인테리들의 정신로동은 물질적부를 창조하는 로동자들의 육체로동과 마찬가지로 사회와 인민을 위한 귀중한 로동으로 된다.

특히 과학지식과 현대적기술수단이 경제건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조건에서 과학기술지식으로 무장한 인테리들은 물질적생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학과 기술을 아는 기술자, 전문가들이 참가함이 없이는 최신기술로 장비된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을 제대로 돌릴수 없으며 해당한 물질적재부를 생산할수 없다. 현대적인 생산기술공정은 그전처럼 육체적기능으로 기계설비를 다루는 육체로동자만을 필요로 하는것이 아니라 지적기능으로 기계설비를 조종하고 움직이는 많은 정신로동자들도 필요로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테리들의 일부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담당수행한다. 정신로동으로 물질적재부생산에 종사하는 인테리들은 육체로동으로 물질적재부생산에 종사하는 로동자들과 함께 생산과 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몫을 담당하게 되는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로력자와 기술자, 전문가의 비률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7대 1수준을 넘어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인테리는 정신로동에 종사하는 로동계급이라고 규정하신 고전적인 정식화는 인테리들의 역할에서 일어난 이러한 변화를 집약적으로 특징지어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정신로동자로서의 인테리들의 역할은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됨에 따라 끊임없이 높아진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는 과정은 곧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심화되는 과정이다. 3대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전략적로선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기본방도이다. 3대혁명을 통하여 사람과 사회와 자연이 로동계급의 자주적인 요구에 맞게 개조되고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된다.

인테리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로동계급이 정권을 장악하기전에 혁명적인테리들이 대중에 대한 사상계몽운동에서 큰 역할을 수행한것처럼 사회주의건설시기에도 인테리들은 사상혁명수행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다. 후대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담당한 교육자들이나 위력한 사상교양수단들을 만들어내는 사회과학자, 작가예술인,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이 사상혁명을 심화시키는데서 노는 역할은 매우 큰것이다.

사회주의하에서 기술혁명이 심화됨에 따라 인테리들의 역할은 더욱더 높아진다. 기술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은 무엇보다도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

학화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끊임없이 심화발전되고있는 기술혁명은 자체의 자원에 의거하여 원료, 연료, 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기계설비를 현대화하며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놓는데서 절박하게 해답을 기다리는 수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기하고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과학자, 기술자들이 날로 더욱 큰 역할을 담당수행한다는것은 명백하다.

문화혁명이 힘있게 추진됨에 따라 로동자, 농민들의 문화기술수준이 높아질뿐아니라 인테리들의 대렬이 늘어나며 그들이 노는 역할은 날로 높아진다. 특히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이미 고등교육과정을 거쳤으며 교육, 과학, 문화를 비롯한 정신로동분야에서 활동하는 인테리들의 역할을 높여야 할 중요한 요구가 제기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할수록 인테리들의 역할이 더욱더 높아진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들의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과 전반적인 사회주의건설을 적극 추진시키는 중요한 방도를 찾고있다. 우리는 당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테리들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하며 인테리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당의 정책적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인테리들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인테리들을 혁명화할데 대한 우리 당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인테리문제를 하나의 사회적문제로 제기하였으며 인테리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고 이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여왔습니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될수록 인테리들의 역할이 강화된다는것은 결코 그들의 혁명적인의와 창조적역할이 저절로 높아진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테리대렬의 구성이 변하고 인테리의 사회정치적면모가 달라진다고 하여 그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혁명화하는데 주의를 적게 돌린다면 인테리들의 역할을 제대로 높일수 없으며 더구나 인테리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수 없다.

우리 당은 이미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다그쳐 모든 근로자들의 지식수준을 인테리들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새 인테리들을 대대적으로 키워내는 한편 인테리혁명화를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을 인테리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첫째가는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이를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왔다. 당의 옳바른 령도밑에 지난 기간 인테리혁명화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으며 많은 인테리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에 충실히 복무하는 주체형의 인테리로 자라났다. 오늘 우리 당은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인테리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더욱 심화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인테리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당조직들이 선차적으로 관심을 돌려야 할 문제는 당일군들로 하여금 인테리들의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옳은 관점과 립장을 가지도록 하는것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인테리들을 믿어주고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립장에서 대하는것은 인테리들을 혁명화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근본적의의를 가진다.

인테리들을 혁명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정책도 인테리들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더욱 충실히 복무하는 영예롭고 보람찬 생활을 누리게 하며 그들이 당과 운명을 끝까지 같이하면서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끊임없이 빛내이게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것이다. 인테리들

은 로동계급의 당의 정치적믿음과 보호밑에서만 사회적존재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모든 사회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다.

우리 나라의 모든 인테리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배려를 받고있으며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보람있게 살며 활동하고있다.

지난 기간 김일성종합대학 당위원회는 인테리들과의 사업에서 그들을 믿으며 정치적생명을 책임지고 돌볼데 대한 당의 요구를 관철하는데 언제나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그리하여 우리 대학의 모든 인테리들은 해방후 평화적건설시기와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후복구건설의 어렵고 복잡한 시기는 물론 오늘에도 오직 당과 수령만을 믿고 따르며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한길을 따라 보람있게 살며 일해나가고있다.

인테리혁명화를 심화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인테리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강화하는것이다.

인테리들이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참다운 가치를 가지고 혁명의 한길에서 보람있게 살며 투쟁할수 있게 하는것은 그들의 사상이다. 아무리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지식을 가지고있는 인테리라 하더라도 사상적으로 병들면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서는 아무러한 쓸모도 없는 정신적불구자에 지나지 않는다. 인테리들은 위대한 주체사상,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만 수령과 당을 위하여,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을 내여 일할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참다운 사랑과 존경을 받을수 있다.

당 조직들과 일군들은 인테리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굽임없이 심화시키며 그들이 기본혁명과업과 밀접히 결부시켜 조직생활을 잘하도록 함으로써 당과 함께 혁명을 끝까지 해나가며 자기의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인테리들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인테리들에게 실력본위로 일을 맡기며 그들에게 과제를 똑똑히 주고 그것을 끝까지 집행해나가도록 당적으로 옳게 지도하고 적극 도와주는것이다.

인테리들의 사상적준비정도와 전공, 자질을 구체적으로 료해한 기초우에서 그들을 해당 전공분야의 알맞는 자리에 배치할뿐아니라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그들에게 사업방향과 과제를 똑바로 주고 그것을 잘 집행해나가도록 그들을 당적으로 잘 이끌어주고 도와주어야 인테리들이 뚜렷한 목표와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자기 맡은 분야에서 모든 재능과 지혜를 다 바치게 할수 있다.

인테리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과업을 빠른 시일안에 훌륭히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서로 지혜와 힘을 합치는것이다. 인테리들속에서 발로되는 소총명과 본위주의를 경계하고 당이 요구하는 중심적인 과제해결에 력량을 집중하며 여기에서 그들사이의 분공과 협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 그들이 제기된 과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할수 있는것이다.

인테리들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그들의 사업조건을 잘 지어주는것이다.

인테리들은 능력에 맞는 역할을 맡을뿐아니라 해당한 물질기술적수단과 연구조건, 학습조건이 보장되여야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수 있다.

당과 수령의 크나큰 배려와 극진한 보살핌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모든 인테리들에게는 행복한 생활조건이 마련되여있을뿐아니라 과학연구를 위한 실제적인 조건들이 충분히 보장되고있다. 우리 김일성종합대학만 놓고보아도 창립초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교원학자들의 사업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돌려주신 배려는 그야말로 한량이 없다. 문제는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당과 수령의 이러한 배려가 매 인테리들에게 미치도록 사업을 얼마나 잘

지게 짜고드는가 하는데 있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잘 짜고들어 매개 인테리들에게 사업조건을 제때에 원만히 지어줄 때 그들은 본신사업에 전심전력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와 역할을 다할수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당위원회는 인테리들에게 돌려지는 당과 수령의 사랑과 배려가 그들에게 제때에 가닿도록 사업을 짜고드는 한편 대학안의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인테리들의 과학연구 및 생활 조건을 보장하는데 힘을 넣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 인테리들속에서는 지식과 기술로써 당과 수령께 충실히 복무하려는 정치적각오가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인테리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그들의 창조적능력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한 사업, 다시말하여 자질향상사업을 잘하도록 하는것이다.

지식과 기술로써 사회에 복무하는 인테리에게 있어서 자질향상사업은 그들의 성과적활동을 담보하는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인테리들이 아무리 당과 수령에게 충실하려고 해도 자질이 낮으면 과학기술적성과로써 당과 수령의 기대에 보답할수 없게 된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는 인테리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정연한 체계가 서있으며 그를 위한 실제적인 조건이 훌륭히 보장되고있다. 우리는 당에서 이미 마련해준 인테리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재교육사업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며 20대, 30대의 젊은 박사, 준박사를 더 많이 키워내야 하며 모든 인테리들이 자기의 정치리론실무수준, 과학기술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인테리에 대한 평가사업을 잘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인테리들이 하는 정신적창조활동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그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하도록 고무하는 위력한 방법이며 중요한 정치사업이다. 인테리들의 창조적활동을 정치적으로 옳게 평가해주며 그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물질적자극을 정확히 하여야 그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영예와 긍지를 가지고 과학과 기술로써 당과 수령에게 더욱 충실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게 된다.

우리 당이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인테리들을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워주고 그들을 숨은 영웅으로, 숨은 공로자로 높이 평가해주고있는것은 인테리들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획기적인 조치로 된다. 하기에 오늘 우리 나라의 모든 인테리들은 당과 수령의 전사로서 응당할 일을 한데 불과한 자신들을 높이 내세우고 평가해주고있는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에 천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할 불타는 결의에 가득차있는것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전면에 나서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인테리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릴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1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인테리들과의 사업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과학기술발전에서 그들의 창조적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우리의 모든 인테리들은 정치적열의와 창조적능력을 더욱 높이고 과학기술성과로써 인민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함으로써 당과 수령이 안겨준 높은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주체적문예사상은 창작의 기초

김 수 암

오늘 우리의 혁명적인 문학예술은 우리 인민의 수천년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대전성기를 맞이하여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다. 우리의 혁명영화, 혁명가극, 혁명연극, 혁명소설을 비롯한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그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투쟁에로 고무하는 생활의 교과서, 투쟁의 무기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문학예술분야에서 이룩된 이 자랑찬 성과는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며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에 대한 힘있는 시위로 된다.

주체적문예사상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창시하신 위대한 문예사상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문예사상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수행되고있는 새로운 현실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 우리 당이 거창한 문학예술혁명을 령도하는 과정에 심화발전시킨 주체적이며 공산주의적인 문예사상은 그 폭과 심도에 있어서 문학과 예술의 전반분야를 포괄하고있으며 그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문학예술사상리론의 집대성이며 창작과 창조 실천의 가장 과학적인 사상리론적, 방법론적 기초로 된다.

주체적문예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 창조와 발전에서 견지하여야할 근본원칙과 방도로부터 창작실천과 작품의 분석, 평가와 총화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심오한 과학적해명을 주고있다.

주체적문예사상은 무엇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본성과 기본요구들을 천명함으로써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는데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침을 밝혀주고있다. 바로 여기에 주체적문예사상이 창작의 기초로 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있다.

현시대는 위대한 주체시대이다. 주체시대는 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새시대이다.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건설은 착취계급의 비위와 정서에 맞게 만들어진 낡은 문학예술을 뒤집어엎고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새로운 문학예술을 창조하기 위한 매우 어렵고 중요한 사업이다.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혁명적문학예술을 성과적으로 창조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먼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본성과 기본요구가 과학적으로 밝혀져야 한다. 그것은 새형의 혁명적문학예술의 창조와 건설의 출발점이며 선결조건으로 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앞에 나선 이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는 오직 사람중심의 철학사상이며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에 의하여 비로소 빛나는 해결을 보게 되였다.

주체적문예사상이 밝힌바와 같이 문학은 인간학이다. 산 인간을 그리며 인간에게 복무한다는데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본성이 있다.

주체적문예사상은 문학의 인간학적본성을 밝힌데 기초하여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은 공산주의적인간학이라는 독창적인 사상을 천명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문학은 인민대중을 가장 힘있고 아름다우며 고상한 존재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산주의적인간학으로 되여야 한다.》(《영화예술론》, 14~15페지)

주체적문예사상은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문학예술작품에 인민대중을 내세우고 그들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결정적요인으로 보고 그리는 주체의 미학관을 준다. 이 미학관은 우리 시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로 하여금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간학, 공산주의적인간학으로 되게 하였다. 주체적문예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공산주의적인간학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반영한 로동계급의 당이 창조하고 발전시켜야 할 인간학이다.

공산주의적인간학은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는것을 기본요구의 하나로 하고있다. 그것은 사회적존재인 인간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으로 되며 정치적자주성을 지키고 빛내이는것이 사람들의 생활과 투쟁에서 근본문제로 되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모든 혁명투쟁은 한마디로 말하여 다 계급적인 또는 민족적인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며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자주성에 대한 문제는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현시대에 와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그러므로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지 않고서는 우리 시대의 참다운 인간문제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예술에 대하여서도 말할수 없다.

주체적문예사상은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는것을 공산주의적인간학의 기본요구로 천명함으로써 우리 시대 혁명적 문학예술이 다루어야 할 인간문제의 기본을 뚜렷이 밝혀주었다.

주체적문예사상이 밝힌 공산주의적인간학의 기본요구는 또한 새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을 창조하는것이다.

어떤 인간의 전형을 내세우는가 하는 것은 작품의 사상예술적가치와 교양적의의를 규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새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은 문학예술에서 오늘의 절실하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깊이있게 밝혀내는데서 주동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사람은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생동한 모범으로 된다. 새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을 통하여 정치적자주성을 지키고 더욱 빛내이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나서는 사람들의 문제를 깊이있게 밝혀낼 때 문학예술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며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힘있게 고무하는 수단으로 되는것이다. 새시대의 인간전형 창조가 문학예술을 주체의 인간학, 공산주의적인간학으로 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는것은 그 인간전형이 인민대중의 고상한 사상감정과 보람찬 생활을 집중적으로 체현하고있기때문이다.

주체적문예사상은 우리의 문학예술이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을 기본으로 그리면서 인민들속에서 나온 공산주의적인간을 새시대의 전형으로 내세워야 한다는것을 밝힘으로써 공산주의적인간학이 창조하여야 할 인간전형, 인간학의 근본문제에 해답을 주었다.

우리 시대의 인간전형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이다. 육체적 생명보다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준 당과 수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의 성격에서 핵을 이루고있다.

주체적문예사상은 이처럼 인간학의

근본문제에 과학적해명을 줌으로써 우리 시대가 발전시켜야 할 공산주의적인간학,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모습을 뚜렷이 밝히였다. 그리하여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문학예술의 참다운 면모를 똑똑히 알고 창작활동을 벌려나갈수 있는 강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실로 주체적문예사상에 의하여 공산주의적인간학에 관한 사상리론이 밝혀진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 창조와 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이 창작의 기초로 되는것은 또한 거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 창조와 발전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들이 밝혀져있다는데 있다.

문학예술의 창조와 발전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들을 옳게 밝히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적문학예술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이 근본원칙이 옳바로 밝혀져야 사회주의,공산주의 문학예술을 시대와 혁명, 근로인민대중을 위한것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주체적문예사상은 주체를 세우는것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 창조와 발전에서 튼튼히 견지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밝히였다.

문학예술에서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 인민의 민족적 정서와 감정, 비위에 맞는 우리 식의 문학예술을 창조하고 발전시킨다는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것은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문학예술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는것이다.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문학예술은 우리 인민이 좋아하고 우리 민족의 구미에 맞는 예술형식에 혁명적인 내용을 담은 문학예술이다. 그것은 내용의 혁명성과 전투성, 형식의 인민성과 민족적특성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사상문화생활에 이바지할뿐아니라 조선혁명에 더 잘 복무하는 주체가 확고히 선 혁명적문학예술로 된다.

우리 당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문학예술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 창조와 발전의 근본원칙으로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문학예술을 참말로 우리 인민과 혁명에 이바지하는 사상교양의 힘있는 수단으로 되게 하였다.

주체적문예사상은 주체성의 원칙과 함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튼튼히 견지하고 사상성과 예술성을 옳게 결합하며 문학예술을 대중화하는것을 비롯하여 혁명적문예전통의 계승발전, 수령의 형상창조,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창조 등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 창조와 건설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들에 과학적해명을 주었다.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이 창작의 기초로 되는것은 또한 거기에 문학예술 창작실천에서 나서는 문제들이 폭넓고 깊이있게 밝혀져있다는데 있다.

사회주의,공산주의 문학예술은 그 본성으로부터 출발하여 공산주의적인간학의 예술적실현방도를 주는 새로운 창작리론을 요구한다. 공산주의적인간학의 본성과 생리에 맞는 창작리론이 있어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주체적문예사상은 우리 시대의 문학예술을 공산주의적인간학으로 되게 하기 위한 창작실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밝혀준다. 주체의 창작리론은 작품의 종자문제를 비롯하여 성격창조, 생활묘사, 구성, 갈등, 양상, 언어, 창작적개성 문제 등 형상의 모든 요소들과 창작의 전과정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준다. 종자에 관한 리론을 비롯한 창작리론이 제시됨으로써 작품의 생리와 창작의 본성에 맞는 전일적인 체계를 갖춘 주체의 창작리론이 확립되게 되었다.

주체의 창작리론에서 중요한 자리를

좌지하는것은 작품의 종자에 관한 리론이다.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려면 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관통시키는 기본요인, 창작의 중심고리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작품창작의 기본요인에 대한 문제는 종자에 관한 리론에 의하여 비로소 해명되게 되였다.

주체적문예사상이 밝힌바와 같이 문학예술에서 종자란 작품의 핵으로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있고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이다.

종자는 작품의 생명을 담보하는 사상적핵으로서 그 가치를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이며 작가를 창작에로 추동하는 힘이며 창작에서 속도전을 벌릴수 있게 하는 전제로 된다.

종자에 관한 리론이 천명됨으로써 창작에서 종자를 핵으로 하여 사상성과 예술성의 옳은 결합을 실현하고 우리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작품을 창작할수 있는 방도가 마련되게 되였다.

주체적문예사상이 밝힌 창작리론에는 또한 문학을 비롯하여 영화, 가극, 연극, 미술, 음악, 무용, 교예 등 문학예술의 모든 형태들과 종류들의 작품을 창작하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이 다 밝혀져있다. 실로 주체적문예사상에 의하여 밝혀지고 체계화된 창작리론은 그 어떤 기성 리론이나 공식이 아니라 혁명적창작실천속에서 이루어지고 창작실천에 의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창작의 기초이며 창작의 전과정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할 지침으로 된다.

우리 당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문학예술에 대한 령도리론을 확립함으로써 그것을 주체적문예사상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되게 하였다.

문학예술에 대한 우리 당의 령도리론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을 사소한 편향도 없이 훌륭히 창조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 바로 여기에 주체적문예사상이 창작의 기초로 되는 또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창작은 당의 령도밑에서만 성과를 이룩할수 있으며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여있고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성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고 발전시킨다는것은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여있는 근로인민대중의 생활과 정서에 맞는 문학예술, 당과 혁명에 적극 이바지하는 문학예술을 창작하고 발전시킨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학예술은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창작될수 없다.

로동계급의 당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반영하여 문예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작가, 예술인들을 사상예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 그 관철에로 조직동원한다. 따라서 당의 령도를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결정적담보로 된다.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령도를 보장하여야 하는것은 또한 작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문학예술앞에 나서는 과업을 훌륭하게 수행하게 함으로써 문학예술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게 한다는데 있다.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근로자들의 문화적수요가 높아지고 문학예술사업이 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된다. 이로부터 작가, 예술인들앞에는 문학예술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따라세우기 위한 여러가지 새로운 과업들이 련이어 제기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당의 령도가 없이는 문학예술창작을 현실발전에 따라세울수 없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문학예술이 노는 역할의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문학예술창작이 당사상사업

의 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옳은 방침을 제시하며 정연한 지도 체계와 방법을 가지고 지도하여야 한다. 그래야 창작을 비롯한 문학예술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다.

당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창작실천에 구현하는것은 우리 시대 작가, 예술인들이 지녀야 할 본분이다. 작가, 예술인들이 당의 의도와 요구, 당사상사업방향을 똑바로 알고 그에 맞게 문학예술활동을 벌려나갈 때 그 어떤 창작과제도 당적원칙에서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으며 따라서 문학예술은 당의 수중에 쥐여진 사상적무기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이 온갖 이색적인 문예조류들과의 투쟁속에서 창작되고 발전되는 사정과 관련하여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창작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은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 문예 사상과 조류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을 동반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본성과 사명, 그것이 당사상사업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문학예술에 대한 당적령도의 본질과 필연성, 당의 령도 체계와 방법에 관한 리론을 전면적으로 밝히였다.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령도는 본질에 있어서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문학예술에 대한 정책적지도를 잘하는것이다. 당의 사상과 의도, 로선과 정책은 혁명적문학예술의 성격과 창작방향을 규정하며 창작의 성과를 담보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문학예술에 대한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고 문학예술사업을 정책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령도에서 기본을 이룬다. 우리 당은 작가, 예술인들과의 사업에서 언제나 그들을 믿고 내세우며 그들의 창작적 개성과 열정을 귀중히 여기고 작가, 예술인들이 왕성한 투지와 정열에 넘쳐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훌륭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해내도록 하는것을 당적령도의 기본으로 틀어쥐고 여기에 힘을 넣어 왔다.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령도를 옳바로 보장하려면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사업 체계와 방법을 똑바로 세우고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당의 령도를 옳게 실현할수 있다.

이처럼 주체적문예사상은 로동계급의 당이 창조하고 발전시켜야 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본질과 면모, 창작실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준것으로 하여 창작의 전 과정에서뿐아니라 작품을 분석평가하고 총화하는데서 튼튼히 의거하여야 할 가장 옳바른 사상미학적기초로, 지침으로 된다.

주체적문예사상을 구현하여 창작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들은 모두 작가, 예술인들의 끊임없는 탐구와 창작적사색의 고귀한 창조물이다.

창작적사색은 머리에 우연적으로 떠오르는 그 어떤 《령감》이 아니라 창작가의 꾸준하고 인내성있는 탐구과정이며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의 반영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 주체적문예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작가, 예술인들만이 창작적사색으로 심장을 불태울수 있으며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시대의 거창한 숨결이 맥박치는 의의있는 종자를 발견하고 창작적개성이 뚜렷한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수 있다. 실로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은 작가, 예술인들을 창작적앙양에로 불러일으키는 고무적기치이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이 땅우에 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가져온 문학예술혁명을 령도하는 과정에 우리 당이 독창적으로 제시한 주체적문예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그것을 창작의 기초로 삼아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 이바지하는 철학적깊이가 있는 문학예술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공장당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

리 종 보

박천견직공장에서는 최근년간 매해 생산계획을 넘쳐수행하고있으며 자체의 힘으로 새로운 제품생산공정을 꾸리고 여러가지 질좋은 제품들을 생산하고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의자천과 대형벽지천 등은 기념비적건물들에 널리 리용되고있으며 여러가지 비로도와 인조털천, 《마안산》모포 등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있다.

지난날 자그마한 공장에 지나지 않았던 우리 공장이 오늘은 비단천과 인조털천 생산의 믿음직한 기지로 전변되고 생산에서 해마다 높은 성과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중요하게 공장초급당위원회가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기술자들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온것과 관련되여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기술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과학자, 기술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이다.》(《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단행본, 16페지)

공장에서 일하는 현장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기술을 혁신하고 생산을 높이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현장기술자들은 기술과 기능, 실천적경험을 겸비하고있는 기술인재들이며 생산활동과 기술혁명수행을 위한 힘있는 력량이다. 그들은 공장의 생산과 기술발전을 직접 책임지고있으며 생산과 기술발전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다. 따라서 공장에서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생산을 빠른 속도로 장성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것은 기술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지난 시기 공장초급당위원회는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왔다. 우리는 이 과정에 당의 의도대로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해나갈 때 그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훌륭히 키울수 있으며 생산에서 제기되는 어떤 어려운 기술적문제들도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였으며 적지 않은 성과와 경험도 얻게 되였다.

기술자들과의 사업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당위원회가 기술자들에게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사업성과를 이룩할수 있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 때 그들이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을 가지고 기업소의 생산활동과 기술혁신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게 된다는것을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공장당위원회는 공장안의 모든 사업을 책임진 최고지도기관이다. 공장당위원회에서 매 시기 제시되는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이 토의결정되며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이 조직전개되게 된다. 따라서 공장의 주인인 당위원회가 어떤 일본새를 가지고 당정책관철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전개해나가는가 하는데 따라 기술자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노는가 하는것이 결정되게 된다.

우리 공장에서 《마안산》모포를 생산

할 때 있은 일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고급모포를 생산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는것을 알게 된 공장초급당위원회는 그것이 비록 우리에게 맡겨진 과업은 아니지만 당이 해결하려는 절박한 문제인것만큼 우리 공장이 반드시 맡아수행하여야 하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런데 일부 일군들은 초급당위원회의 결심을 선뜻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포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에서도 맡아하기 어려워하는 고급모포생산과제를 경험도 없는 우리 공장에서 어떻게 맡아해결한다고 그러는가, 우리 공장에 맡겨진 과제도 아닌데 고생을 사서 할 필요야 없지 않는가고 하면서 될수록 그것을 맡지 않으려고 하는것이였다.

물론 고급모포생산은 우리 공장이 반드시 해야 할 과제도 아니며 또 모포를 생산해본 경험도 없는 우리 공장이 그것을 맡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탓할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인민들에게 더 좋은 모포를 만들어주려는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심장에 새기고 그것을 드팀없이 구현해나가는것이 일군들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생각하였기때문에 비록 우리 공장에 부과된 과제도 아니고 또 경험도 없었지만 고급모포생산과제를 스스로 맡아수행하기로 결정하였던것이다.

공장초급당위원회는 이 결정이 가지는 중요성을 생산자들과 기술자들 속에서 널리 알려주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는 한편 이제까지 만들어보지 못한 새 제품을 생산하는데서 기술자들이 지혜와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이와 함께 초급당위원회는 기술자들의 사업정형을 수시로 료해하고 공장지도일군들로 하여금 해당한 실무적대책을 제때에 취하도록 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기술자들은 당의 숭고한 의도를 실현해나간다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여 새 직물조직을 창안하였고 그에 맞게 설비를 개조하였으며 제품의 완성가공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복잡한 기술적문제들을 훌륭히 풀어나갔다. 그리하여 우리는 짧은 기간에 자체의 힘으로 새로운 제품생산공정을 꾸리고 아닐론으로 질좋은 모포를 생산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 공장에서 생산한 모포를 친히 보아주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아주 잘 짰다고 높이 평가하여주시였다.

그리고 항일무장투쟁시기 한장밖에 없는 자신의 모포를 마안산의 아동단원들에게 덮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숭고한 사랑과 은정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그 이름을 《마안산》모포라고 불러주시였다.

우리의 경험은 공장당위원회가 당이 의도하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 일거리를 만들고 조직사업을 깐지게 전개해나간다면 기술자들에게 자기의 지혜와 창발성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줄수 있지만 네일내일을 가리면서 저절로 일거리가 생기기를 기다린다면 기술자들이 자기의 재능과 기술모 재대로 발휘할수 없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기술자들과의 사업에서 우리는 또한 당위원회가 충실성교양을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시키며 특히 매 기술자들의 구체적특성에 맞게 진행하여야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일수 있다는것을 체득하게 되였다.

생산과 기술혁신에서 무비의 헌신성과 영웅주의를 낳게 하는 힘의 원천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높으면 어떠한 어려운 일도 해낼수 있으며 기적도 창조할수 있다. 기술자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어떻게 다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그들의 충실성의 높이에 달려있는것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실천투쟁

에서 나타나야 한다.

공장초급당위원회는 기술자들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우리 당이 바라고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실천투쟁에서 높이 발휘되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사상사업,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우리 공장에서 처음으로 인조털천을 생산할 때 있은 일이다. 공장초급당위원회는 뜻깊은 2월의 명절까지 1만메터의 인조털천을 생산할데 대한 목표를 제기하였다. 사실 이것은 보통의 각오와 노력으로써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였다.

방금 시험생산한 인조털천을 다량적으로 생산하자면 설비를 새로 만들고 기술공정도 꾸려야 하였는데 어느때 같으면 이것만 보장하자고 해도 제날자가 다 걸려야 하였다. 이 방대한 과업을 앞에 놓고 일부 기술자들은 주저하고 동요하는것이였다. 이것은 문제를 실무적으로 대하면서 당에 기쁨을 드리려는 충성의 열도가 높지 못한 표현이였다. 문제해결의 열쇠는 바로 그들속에서 충성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있었다.

우리는 모든 선전선동수단을 동원하여 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1만메터의 인조털천생산을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벌려나갔으며 이 투쟁에서 기술자들이 당에 대한 충성심을 키우고 그것을 높이 발휘하도록 이끌어주었다. 당위원회의 힘있는 정치사업은 큰 실효를 나타냈다.

기술자들과 기능공들 속에서 제기된 과제를 제날자까지 반드시 수행하겠다는 각오가 높아지고 새로운 가치있는 기술적해결책들이 강구됨으로써 우리는 1만메터의 인조털천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 당에 충성의 보고를 올릴수 있었다.

사상사업의 대상인 사람은 그 수준과 준비정도가 다르고 그들이 처하고있는 환경과 수행하는 과업도 같지 않다. 그러므로 충실성교양도 매 사람의 특성과 준비정도에 맞게 구체적인 방법론을 세워가지고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공장초급당위원회는 행정책임일군들에게 기술자들과 오랜 기능공들을 개별교양할데 대한 분공을 주고 그들의 특성에 맞게 충실성교양을 짜고들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세워가지고 기술자들에 대한 교양을 심화시켜나갈 때 얼마나 커다란 효과를 거둘수 있는가 하는것은 한 열관리공에 대한 교양사업과정이 잘 말하여주고있다.

그 열관리공으로 말하면 자기를 어엿한 기술자로 키워준 당의 고마운 은덕에 보답하려는 뜨거운 충성심을 안고 자진하여 가장 어렵고 힘든 원동직장에 내려가 보이라설비를 개조하고있는 젊은 기술자이다. 우리는 그 기술자의 이런 정신상태에 맞게 그가 모든 애로를 이겨내고 당앞에 다진 맹세를 기어이 실현하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 개별교양사업을 심화시켜나갔다. 그가 기술혁신에서 실패하여 소심해질 때에는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었으며 성공하여 자만할 때에는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투쟁하도록 떠밀어주었다. 그리고 그가 입당문제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고있을 때에는 사업성과로 당을 받드는 사람은 어느때든지 꼭 당원의 영예를 지닐수 있다, 문제는 본인이 어떻게 노력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이렇게 일깨워주면서 더욱 분발하도록 고무하여주었다. 당조직의 구체적인 지도와 교양에 의하여 그는 지난 10년동안 49건의 기술혁신으로 보이라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당에 대한 혁명적의리를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실천투쟁속에서 지켜나갈줄 아는 당원으로 자라나게 되였다.

이것은 충실성교양을 기술자들의 구체적특성에 맞게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는것이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도라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자들과의 사업에서 우리는 또한 당일군들이 어머니다운 심정을 가지고 기술자들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따뜻이

이끌어줄 때 그들이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일해나가게 된다는것을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자면 무엇보다도 당일군들이 어머니다운 품성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말그대로 어머니당입니다. 우리 당이 어머니당이라는것은 당일군들이 대중의 어머니가 되여야 한다는것을 말합니다.》

당일군들은 대중의 교양자이며 혁명의 지휘성원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일군들을 통하여 대중속에 전달침투되며 그 관철을 위한 사업도 그들에 의하여 조직집행된다. 따라서 대중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어떻게 떨쳐나서는가 하는것은 결국 당일군들이 어떤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가지고 일해나가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의 오늘의 생활뿐아니라 래일의 전도까지도 완전히 책임지고 보살펴주는것은 어머니당인 우리 당의 일군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품성이다.

공장초급당위원회는 우리 당의 사업방법의 요구대로 모든 당일군들이 어머니다운 품성을 가지고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잘해나가도록 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려왔다. 어머니가 되기는 쉬워도 어머니구실을 제대로 하기는 힘든것처럼 당일군이 대중의 어머니로서의 구실을 바로하기는 매우 힘든것이다. 사람들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그들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질줄 아는 당일군이라야 대중의 참다운 어머니가 될수 있으며 그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수 있다. 말로는 사람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지에서는 다르게 행동하며 그들의 운명에 대하여 책임진다고 하면서도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길줄 모르고 그것을 풀어주기 위하여 애쓰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러한 당일군을 진심으로 존경하지 않을것이며 따르지도 않을것이다.

우리는 실천을 통하여 당일군들이 기술자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실지행동으로 믿음을 표시해주며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들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질 때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운명을 당에 의탁하게 되며 당의 요구라면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다해내게 된다는것을 똑똑히 알게 되였다.

우리 공장에서 《마안산》모포를 처음 생산할 때 일군들속에서는 모포직물설계를 누구에게 맡기겠는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론의가 많았다. 일부 행정일군들은 한 기술자의 성분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말을 하면서 이 과업을 그에게 맡기기를 주저하는것이였다.

성분은 사람을 평가하는데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될수 없다. 사람의 성분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며 끊임없이 변한다. 그렇기때문에 중요한것은 산 사람을 보는것이며 오늘 그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얼마나 충실하게 일하고있는가를 기본으로 하여 사람들을 평가하는것이다. 우리는 당을 위하여 말없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그 기술자에게 이 과업을 대담하게 맡기도록 하였으며 그를 만나 당조직은 동무를 믿고 이 중요한 과업을 맡겼으니 꼭 성사시키라고 고무하여주었다.

당조직의 믿음에서 힘과 용기를 얻은 그는 정력적인 탐구와 고심어린 노력으로 새로운 형의 량면털돋이모포직물을 훌륭히 설계하였다. 이것은 기술자들에게 일을 대담하게 맡겨 실천적인 믿음을 표시해주는것이 백마디의 말을 하는것보다 더 큰 감화력을 가진다는것을 실증하여준다.

인민대학습당 개관을 앞두고 우리 공장에 코주단을 생산할데 대한 긴급과제가 제기되였을 때 있은 일이다.

그때 우리 공장에서 보통주단은 생산

하고있었으나 코주단을 생산한 경험이 없었으며 또 그것을 생산할수 있는 설비도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숭고한 사랑이 깃들어있는 인민대학습당을 개관하는데 필요한 이 제품을 제 기일에 보장하기 위하여 유능한 기술자들로 기술혁신조를 뭇고 생산에 달라붙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고보니 제기되는 애로와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일부 기술자들은 코주단을 짜는 기계를 다른데서 가져오지 않고서는 할수 없다고 하면서 공장자체의 힘으로 그것을 생산하는것을 달가와하지 않았다. 거기에다가 처음 하는 일이여서 설비제작과 시험생산에서는 실패와 사고가 자주 일어났다.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원인을 이 사업을 책임진 기술자의 사회정치생활경위와 련결시키는것이였으며 그의 사업을 적극 떠밀어주는 일군들에 대해서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것이였다. 그리하여 공장초급당위원회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것은 코주단생산의 성과여부를 좌우하고 그 기술자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게 되였다.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의 보호자인 당일군이 자기가 비판을 받고 영향이 미칠가봐 두려워 사람들의 운명에 대하여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군을 어떻게 대중의 참다운 어머니라고 할수 있겠는가, 자신은 잘못되더라도 자식들만은 잘될것을 바라며 그들의 앞날의 생활까지 걱정하는것이 어머니의 심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우리는 정전후 근 30년동안이나 우리 공장에서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순결한 마음을 안고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여온 그를 믿지 못할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에 대해서는 공장초급당위원회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였다.

어머니가 친자식을 돌봐주는것처럼 당조직이 자기를 진심으로 믿어주고 끝까지 책임져주는데 감동된 그 기술자는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코주단생산에 다 바쳤으며 거듭되는 실패와 곡절을 이겨내고 끝내 성공하게 되였다. 그의 뜨거운 충성심이 깃들어있는 코주단을 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색갈도 좋고 짜기도 아주 잘 짰다는 높은 치하의 교시를 주시였다.

당일군들이 기술자와 오랜 기능공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따뜻이 돌봐주게 되자 그들사이에는 동지적으로, 인간적으로 친숙한 관계가 맺어지게 되였으며 누구나 다 왕성한 사업의욕과 청춘의 기백을 가지고 일해나가게 되였다.

지난 기간 공장초급당위원회가 기술자들과의 사업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둘수 있은것은 우리 당이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옳바른 방침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준데 있다.

공장초급당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공장을 현지지도하신 30돐을 맞이하는 올해에 모든 로동자들과 기술자, 사무원들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지교시와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1차전원회의결정 관철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와 당일군들의 지도작풍

리 승 권

당일군들이 혁명적사업방법과 함께 인민적사업작풍을 소유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예술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간부들이 인민적사업작풍을 가져야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할수 있으며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발양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습니다.》

일군들의 지도작풍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그들의 사업 태도와 기풍, 사업작풍에 관한 문제로서 그것은 주로 혁명사업과 인민대중을 대하는데서 나타나는 일군들의 정신도덕적풍모를 표현한다.

지도작풍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당이 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수 있고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할수 있으며 광범한 대중의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일찌기 혁명적지도작풍, 인민적사업작풍을 소유하는 문제를 혁명적사업방법과 함께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로 내세우고 그것을 옳게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왔다.

지난 기간 우리 동흥산구역당위원회는 모든 당일군들이 혁명적인 지도작풍을 소유하고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옳게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그 과정에 우리는 당일군들의 사업방법과 함께 사업작풍, 지도작풍을 더욱 개선해나갈수 있었으며 경제사업을 당적으로 옳게 지도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당일군들의 지도작풍을 개선하여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데서 우리가 얻은 중요한 경험은 무엇보다도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을 지니고 경제사업을 짜고드는 혁명적기풍을 세워나가도록 지도할 때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 것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관철하는것은 공산주의 혁명가들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가장 중요한 사업기풍, 사업태도로서 혁명적기풍의 첫째가는 요구이다.

당일군들이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을 지니고 경제사업을 옳게 지도하여야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경제사업을 보장하는 혁명적기풍은 우선 당위원회들에서 경제사업을 당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진행하며 그것을 끝까지 집행해나가는데서 표현된다.

한때 우리 구역당위원회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해당 단위의 실정과 조건에 맞게 구체적으로 할 대신에 일반적으로 하는 현상이 적지 않았다.

여기에서 교훈을 찾은 우리들은 머리를 쓰지 않고 거충다짐식으로 실속없이 일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사상투쟁

을 힘있게 벌렸으며 조직사업을 짜고드는 강한 규률을 세워나갔다. 우리는 우선 구역당위원회에서부터 그 어면 경제문제를 토의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과업과 자료를 놓고 진지하게 협의하여 해결대책을 세우는 한편 공장, 기업소들의 실태와 조건, 일군들의 수준과 능력에 맞게 해당한 분공을 주었으며 그 수행 방향과 방도를 명확히 제시해주었다. 그리고 맡겨진 경제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을수 있는 정황을 예견하여 여러가지 대책안까지 세우도록 지도하였다. 이와 함께 구역당위원회는 언제나 경제과업수행정형을 총화하고 재포치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는것을 제도화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단순히 수자나 사실을 놓고 일반적으로 총화한것이 아니라 일군들의 조직사업정형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업내용까지 총화분석하도록 하였다.

구역당위원회는 매개 생산단위들에서 경제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도록 하는 한편 구역적범위에서 력량을 합리적으로 동원하여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하였다. 우리는 행정경제일군들을 적극 발동하여 매개 공장, 기업소들의 실태를 료해하고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였으며 그것을 기업소들사이에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할수 있도록 련계를 맺게 하였다. 이것은 모든 단위들에서 경제과업수행을 다그치게 할뿐아니라 일군들속에서 기관본위주의를 극복하고 호상 협조하고 방조하는 공산주의적기풍을 세우는데서 매우 유익한 방법으로 되였다.

구역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경제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고 력량을 합리적으로 동원리용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을 우리는 지방공업원료기지를 꾸리는 과정에 절실히 체험하였다.

군마다 200정보의 원료기지를 꾸릴데 대한 당정책을 관철하자면 개간하여 리용할수 있는 적지가 있어야 하였다. 그러나 도시구역과 벌방지대에 자리잡고 있는 우리 구역에는 그러한 땅이 적었다.

구역안의 일부 일군들은 우리 구역과 같은 조건에서는 200정보의 원료기지를 조성하는것이 불가능한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달라붙지 않고있었다.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이 부족한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원료기지조성은 물론 다른 일도 제대로 할수 없었다.

우리는 일군들속에서 발로되고있는 그릇된 사상관점과 사업태도를 극복하기 위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구역의 책임일군들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게 하였다.

책임일군들자신이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원료기지로 쓸 새땅을 찾는데 앞장서나갔으며 적지가 확보됨에 따라 온 구역이 달라붙어 원료기지조성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우리는 구역당 집행위원회와 위원회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구체적인 집행대책을 세웠으며 당조직들을 발동하여 사상동원사업을 힘있게 벌렸다. 그리하여 우리는 한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250여정보의 원료기지를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결국 성과의 비결은 조직사업과 지휘에 있었다.

우리는 이런 투쟁기풍과 사업태도로 구역안의 10여키로메터구간의 3만 4천여평방메터의 도로를 15일동안에 포장하였으며 성천강에 파묻혀있던 많은 강재를 건져내여 공장, 기업소들에서 자재로도 쓰고 탑식기중기도 만들어 고층살림집건설에 리용하였다.

경험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며 그 집행을 위하여 끝장을 볼때까지 완강하게 투쟁하는것이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당일군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지도작풍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당일군들의 지도작풍을 개선하여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데서 우리가 얻은 중요한 경험은 또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모든 사업을 책임지는 립장에서 지도할 때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이다.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모든 일을 책임적으로 하는것은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사업태도이며 사업기풍이다.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모든 일을 책임적으로 해나가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과감히 뚫고나갈수 있으며 그 어떤 과업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모든 일을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책임적으로 하는 기풍을 가질 때 일을 스스로 찾아하게 되며 어떤 일도 끝장을 볼 때까지 해제끼게 된다.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모든 일을 책임적으로 하는 기풍이 부족할 때 일군들속에서 전반사업을 다 틀어쥐지 못하거나 이것을 하라고 하면 저것을 놓치는것과 같은 현상이 발로되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당일군들이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를 보장하는데서 구역앞에 제기된 모든 경제과업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나가지 못하는데서 찾아보게 되였다.

일군들속에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모든 일을 책임적으로 지도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힘을 넣은것은 당경제정책관철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과업을 다같이 틀어쥐고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수행하도록 당적지도를 보장하는것이였다.

여러가지 복잡한 과업이 제기될수록 그 어느 하나도 중도반단함이 없이 선후차를 옳게 가려가면서 섬멸전의 방법으로 모든 경제과업을 다같이 수행하도록 이끄는것이 우리 당일군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지도작풍이다.

구역당위원회앞에 언제나 당면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과업과 함께 전망적으로 수행해야 할 여러가지 과업이 제기되는 조건에서 이 모든 과업을 다같이 통일적인 련관속에서 수행하는것이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전망적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그것을 당면한 과업과 결부하여 밀고나가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이와 함께 전망적인 과업을 수행하는데서 행정경제일군들이 언제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여 맡겨진 과업을 실정에 맞게 능동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힘을 넣었다.

우리는 구역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전망과업수행을 위한 단계별 계획을 세우고 사업조직을 한 다음에는 경제지도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높이고 당의 정책적요구대로 일하도록 이끌어주는데 당적주의를 돌렸으며 당일군들이 구체적인 경제실무사업에 쓸데없이 간섭하거나 행정대행하는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통제를 강화하였다.

근로자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할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주택건설을 본격적으로 밀고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전망과업수행을 위한 단계별 계획을 바로세우고 당면과업과 결부하여 함께 추진시키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을 깊이 체득하였다.

도시의 중심부로부터 주변 농촌리에 이르기까지의 넓은 구역안에 현대적인 고층살림집과 소층주택, 농촌문화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구역자체의 힘으로 밀고나가는것은 힘든 일이 아닐수 없었다.

물론 국가의 방조와 도와 시의 지원이 있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구역자체의 힘으로 살림집건설을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갔다. 처음 주택건설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세멘트를 비롯한 건설용 자재나 그것을 생산할수 있는 지방산업공장들이 없었다. 우리는 주택건설에 달라붙기전에 건설자재를 생산할수 있는 지방산업공장들을 꾸리기 위한 계획을 세

우고 매해 몇개의 대상씩 완공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맨선참으로 세멘트공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구역안의 공장, 기업소들에 설비제작과 건설사업을 분공한 다음 강력히 내밀었으며 그것이 완공되는 차제로 선재압연기, 저주파유도로를 만들어 주택건설에 필요한 철근과 동선을 뽑았다. 그리고 가구공장을 건설하였으며 준첩선을 건조하여 성천강에서 모래와 자갈을 채취하였다.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생산할수 있는 조건을 자체의 힘으로 갖추었다. 이것은 건설사업을 정상화하며 빠른 속도로 밀고나갈수 있는 중요한 조건으로 되였다. 우리는 계획에 예견한대로 자재생산조건이 갖추어지는데 따라 주택건설을 본격적으로 내밀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최근 몇해동안에 립지조건과 특성에 맞게 고층살림집과 소층주택, 농촌문화주택을 1,500여세대를 건설하였다. 당면한 경제과업을 수행하면서 전망적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하나하나 모가 나게 수행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구역안에 많은 학교들을 새로 일떠세우고 현대적인 도서관, 체육관, 목욕탕을 건설하여 교육시설과 문화생활조건을 더욱 개선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구역안의 근로자들에게 물문제를 더욱 원만히 보장해줄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관철할 때에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자재를 충분히 갖춘 다음 본격적으로 내밀었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연 200여키로메터에 달하는 상수관을 새로 묻고 줄짱묶음식수도화를 실현하여 수도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주민들의 물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할수 있었다.

현실은 당일군들이 경제사업을 지도하는데서 충분한 준비와 조건을 갖춤이 없이 주관적욕망을 앞세우면서 일판을 벌려놓거나 이것저것 주무르는 식으로 일해가지고는 당의 경제정책을 모가 나게 집행해나갈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당일군들의 지도작풍을 개선하여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데서 우리가 얻은 중요한 경험은 또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군중을 적극 불러일으킬 때 당의 의도대로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은 어떤 어렵고 힘겨운 투쟁이라도 솔선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하면서 당원들과 군중을 힘있게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모든 사업에서 이신작칙하는것은 일군들이 지녀야 할 기본사업태도이며 사업기풍이다. 일군들이 모든 사업에서 이신작칙하여야 혁명의 지휘성원, 대중의 교양자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다. 대중교양에서 일군들의 실천적모범은 몇백마디의 말보다 더 큰 감화력을 가진다.

지난 기간 구역당위원회는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보장하는데서 일군들이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기술경제사업을 옳게 보장하도록 이끄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기 위한 정치사업과 근로자들의 생산조건을 보장하는 기술경제사업은 통일적인 련관속에서 진행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우리는 당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면서 기술경제사업을 당적으로 옳게 지도하는 사업기풍을 확고히 세워나갔다. 이를 위하여 우선 지도일군들의 정치리론수준과 기술실무수준을 높이는데 힘을 넣었다.

우리는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전당이 학습하자!》**라는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구역안의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과 교시, 당문헌을 깊이 연구학습하는 기풍을 세웠으며 공업경영학, 농업경영학을 비롯한 경제지식과 기술을 소유하

도록 하였다. 정치실무수준을 높이는데서는 어디까지나 자체학습에 기본을 두면서 지난 시기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일군들을 통신교육망에 망라시켜 배우게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구역당위원회를 비롯한 구역급 기관, 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이 정상적으로 학습하는 기풍을 세웠으며 대중의 모범이 되게 하였다. 구역당위원회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구역안의 많은 일군들이 통신교육망에 망라되여 대학, 전문학교 과정을 마치게 되였으며 그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이 높아지게 되였다.

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치사업이 더욱 힘있게 벌어지고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 경제사업을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지도하며 생산자대중을 실속있게 도와주게 되였다. 능력있는 일군들의 대렬이 늘어남에 따라 그들속에서 발로되던 그릇된 사업작풍이 극복되고 지도와 대중이 더 잘 결합되게 되였으며 실정에 맞게 지도를 강화할수 있었다.

우리는 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는 한편 그들이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 대중의 혁신적발기와 창의고안, 합리화안을 적극 지지해주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도록 하였다.

중소규모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할 때만 하여도 구역안의 지도일군들이 직접 대중속에 들어가 군중과 토의하고 대책안을 연구한 결과 평야지대에 흐르는 관개용수를 리용하여 중소형수력발전소를 건설할수 있는 방도를 찾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관개용수를 리용하는 중소규모의 수력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내밀어 2개 대상을 짧은 기간에 완공할수 있었다.

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그들을 적극 이끌어주는 과정에 우리는 동해안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던 갈재배시험에 성공하여 종이원료문제를 자체로 해결할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을수 있었다.

매해 외국에서 수천톤씩 사오던 금속원료를 국내산원료로 대용하는데 성공한 전력설비공장로동자들의 기술혁신, 재생섬유원료로 천을 생산할수 있게 한 직물공장로동자들의 기술혁신을 비롯한 여러가지 가치있는 창의고안, 합리화안들은 모두가 다 일군들이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는 한편 기술경제사업을 당적으로 옳게 지도한 결과에 이룩된 성과들이다.

실천적경험은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경제적사업을 옳게 따라세우는것이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를 실현하는데서 당일군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지도작풍이며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는 기본방도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물론 우리가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보장하는데서 거둔 성과는 초보적인것에 불과하다.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여야 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는 오늘 우리 당은 그 어느때보다도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지난 기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당일군들의 지도작풍을 개선하여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해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겠다.

남조선괴뢰도당은 천추에 용납 못할 매국배족의 무리

강 성 룡

오늘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 민들은 지금으로부터 6년전 광주에서 전두환괴뢰도당이 감행한 야수적인 동족살륙만행을 두고 분노의 치를 떨고 있다.

극악한 민족반역자 전두환살인악당은 미제의 특별지령을 받고 나라의 통일과 민주를 요구하여 일떠선 적수공권의 광주의 애국적인민들을 총과 칼로 쏘아죽이고 란도질하여 죽이다 못해 땅크와 장갑차, 화염방사기까지 동원하여 가장 악착하고 잔인하게 살륙하고 광주땅을 동족의 피로 물들이게 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귀축같은 살인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수천년의 인류력사는 악명을 떨친 민족의 백정, 파쑈폭압자들을 수많이 기록하고있지만 전두환악당과 같이 일신의 권력야망과 상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한꺼번에 수천명의 동족을 그처럼 잔인하고 야수적으로 살륙한 포악무도한 인간백정, 살인폭군을 아직 알지 못하고있다.

미제의 배후조종밑에 전두환괴뢰도당이 감행한 광주의 대학살만행은 애국적인민들에 대한 매국역적무리들의 전대미문의 극악한 교살행위였으며 동족에 대한 민족반역자들의 백정행위였다.

수천, 수만에 달하는 동족의 피와 죽음을 미제상전에게 제물로 바치고 괴뢰대통령감투를 뒤집어쓴 전두환역도가 지난 6년동안에 한짓이란 총칼로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나라와 민족의 분렬과 전쟁정책을 악랄하게 고취하며 남조선을 미일반동들에게 팔아먹는 매국배족행위만을 감행한것뿐이다.

* *

전두환군사깡패는 미제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길들여진 친미주구이며 나라와 민족을 외세에 팔아먹고 온갖 반민족적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는 극악한 민족반역자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자기들의 권세욕을 충족시키고 일신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외래침략자들에게 팔아먹는 매국배족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고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124페지)

식민지주구의 생리는 외세에 의하여 키워지고 그에 아부굴종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주구들은 상전과 떨어져서 단한시도 살아갈수 없다. 외세는 주구들을 잘 길러 그들을 내세워 그 나라에 대한 식민지적 지배와 략탈을 실현한다. 침략자와 앞잡이는 불가분리적으로 련결되여있다.

주구들의 존재가치는 상전의 비위를 얼마나 잘 맞추는가 하는데 있다. 상전의 지시를 얼마나 잘 집행하며 상전을 어떻게 잘 섬기는가 하는데 그들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로부터 주구들은 상전에게는 나라와 민족의 모든것을 내여맡기면서 아부아첨하지만 인민들에게는 파쑈폭군으로 군림하여 온갖 탄압학살을 감행한다. 이것이 바로 식민지주구의 기본속성이며 생존방식이다. 지난날 남조선에서 리승만과 박정희역도가 그러하였고 세계적으로는 아이띠와 필리핀 등 여러 나라들의 파쑈독재자들이 그러하였다. 전두환역도의

매국배족행위는 이 모든 주구들을 훨씬 릉가하는 현대식민지주구의 전형으로 되고있다.

원래 전두환역도는 미제의 손탁에서 식민지주구로 길들여질 때 벌써 《미국을 섬기는것은 우리모두가 해야 할 일》이며 《죽어서 백골이 되여도 미국의 은덕을 잊지 않겠다》고 하면서 미제를 《할애비》로, 동족을 원쑤로 보는 극악무도한 민족반역자로 된놈이다. 잔인성이 골수에 배인 전두환살인악당은 남부웰남전쟁터와 남조선의 광주에서 살인마적본성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인민들을 가장 악착하고 야수적으로 학살하였으며 바로 그런 살인귀적기질이 남보다 《특출》한것으로 하여 식민지의 대통령감투까지 뒤집어쓰게 되였다.

미제의 배후조종과 음모적방법으로 《대통령》감투를 쓴 전두환역도는 상전을 찾아가 허리를 굽신거리며 남조선이 《태평양에서 미국의 생명선》이라느니, 《미국과 일본을 방어하는 전초기지》라느니 하면서 더 많은 군사원조를 애걸하고 남조선에 대한 미군강점의 《중요성》을 력설하였다. 그리고 그는 《미국의 전초기지》를 지키기 위하여 《반공돌격대》의 역할을 담당하겠다는것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더우기 이 역적놈은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계획》을 백지화하고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골자로 하는 매국문서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송두리채 팔아먹는 범죄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뿐만아니라 전두환괴뢰도당은 경제의 이른바 《완전개방》의 미명밑에 남조선경제를 더욱더 미일독점자본의 제물로 내여맡기고있다. 전두환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인 경제《개방》책동에 의하여 미일독점자본은 아무런 제한없이 남조선에 쓸어들어와 남조선경제의 주요명맥은 물론 생산과 분배, 류통과 소비에 이르기까지 재생산의 모든 고리들을 완전히 틀어쥐고 략탈을 강화하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의 민족산업은 여지없이 파탄되고 남조선은 520억딸라가 넘는 외국의 빚더미에 짓눌려 허우적거리는 채무지대로 전락되였다.

사대매국노 전두환괴뢰도당의 외세의존정책과 매국책동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은 미제와 일본반동들의 식민지적지배와 예속 밑에 더욱더 깊이 빠져들어가고있다.

민족의 지향과 리익을 무시하고 미일침략자들에게 나라를 팔아먹고있는 전두환괴뢰도당이야말로 천추에 용납 못할 매국배족의 무리이다.

남조선괴뢰도당의 매국배족행위는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충실히 집행하기 위하여 남조선사회를 극도로 파쑈화하고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는데서 집중적으로 드러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와 전쟁정책은 필수적으로 식민지주구들의 파쑈통치를 동반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에 수립된 군사파쑈독재는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전쟁정책의 산물로서 그에 철저히 복무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0권, 451페지)

사회적진보와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모든 애국력량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것은 전두환역도의 매국배족행위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지난날의 일제와는 달리 남조선에서 신식민주의적통치를 실시하고있는 미제는 괴뢰들을 내세워 남조선에 대한 지배와 략탈을 실현하고있으며 주구들은 파쑈통치에 의거하여 상전의 식민지통치를 뒤받침하고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며 저들의 잔명을 부지하고있다.

전두환군사파쑈독재는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와 전쟁정책을 강요하는 미제의 강도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각종 파쑈악법들과 폭압기구들을 발동하여 사회를 극도로 파쑈화하고 자주와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애국적인민들과 민주력량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다.

전두환괴뢰도당은 우선 각종 파쑈악

법들을 개악조작하고 그것을 인민탄압을 위한 주요수단으로 리용하고있다.

전두환도당은 《집권》초기에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부지하고 군사파쑈독재를 지탱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른바 《국가보위립법회의》라는 비법적인 《사설립법기관》을 조작하고 그가 존재한 약 5개월동안에 박정희괴뢰도당이 6년동안에 조작한 악법총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여건의 각종 악법들을 개악하거나 새로 조작하였다. 그리고 《국회》가 조작된 이후에는 《민정당》의 거수기들을 발동하여 더 많은 파쑈악법들을 무더기로 개악조작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전두환괴뢰도당이 《만능》으로 휘둘러대는 악법총수는 무려 1만 5,500여건에 달하고있다.

전두환역도가 개악조작해낸 악법들은 그 어느것이나 할것없이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지배와 제놈들의 파쑈독재에 장애로 되는 사소한 요소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탄압할수 있는 내용으로 일관되여있으며 법제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극악한 살인악법들이다. 남조선괴뢰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언론기본법》, 《사회보호법》, 《경찰관직무집행법》등을 휘둘러 자주적권리와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나선 인민들을 아무때나 《용공》으로 몰아 사형을 비롯한 극형에 처할수 있게 한것은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이밖에도 놈들은 령장없는 체포와 적수공권의 시위자들에 대한 발포를 공공연히 《합법화》하고 지난 시기 《국가보안법》의 대상들에게만 적용하던 중세기적인 《집단보호감호》제도를 일반범들에게까지 실시하도록 하여놓았다.

남조선에서 방대한 폭압 기구와 력량은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부지하고 인민들을 탄압하기 위한 또하나의 주요수단으로 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는 괴뢰군과 괴뢰경찰대, 괴뢰군보안대와 《안전기획부》등 방대한 폭압기구가 있다. 그외에 각종 《청원경찰대》, 《방범대》등이 보조폭압력량으로 되고있다. 그리고 최근에 놈들은 《향토예비군》과 《민방위대》까지 인민탄압력량으로 만들려 하고있다. 이밖에도 남조선괴뢰들은 중무장한 괴뢰군들로 《전투경찰대》,《경찰특공대》들을 조직하여 남조선도처에 배치하여놓고있다. 이 모든 폭압 기구와 력량들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군사파쑈독재를 뒤받침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유린말살하는 주요수단으로 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오늘 남조선은 지난 시기 《긴급조치》와 《계엄령》이 선포되였을 때보다 더욱 무시무시한 공포분위기에 휩싸여있다.

지금 남조선의 대학가와 거리들, 야당청사와 교회당에서 적수공권의 청년학생들과 시민들, 평화적인 운동에 나선 야당정치인들과 민주인사들, 종교인들이 괴뢰군경놈들의 칼부림과 최류탄에 맞아 피흘리며 쓰러지고있으며 감옥과 교수대, 고문장들에서 수천, 수만명의 애국자들과 민주인사들이 살인마, 흡혈귀들에게 피를 빨리우며 쓰러지고있다. 남조선은 말그대로 대중적살륙만행이 공공연히 감행되고 인민들의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 생존권마저 무참히 짓밟히는 20세기말기의 가장 참혹한 인간생지옥으로 완전히 전변되였다. 이처럼 남조선괴뢰들은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전쟁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남조선사회를 극도로 파쑈화하고 온갖 반민족적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전두환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정체는 또한 미제의 《두개 조선》 정책에 적극 추종하여 나라와 민족의 분렬을 악랄하게 추구하고있는데서 드러나고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외래침략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조국통일은 우리 인민의 사활적인 요구이며 최대의 민족적임무이다. 분렬을 끝장내고 통일을 이룩하여야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완전한 자주권을 실현하고 나라의 륭성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나라의

통일에 대한 립장과 태도는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통일은 곧 애국이며 분렬은 곧 매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피뢰도당은 민족의 한결같은 숙원인 나라의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고 미제의 《두개 조선》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발악적책동을 다하고있다.

미제의 《두개 조선》 정책은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남조선을 저들의 식민지군사기지로, 아세아에서 식민지지탱점으로 계속 틀어쥐려는 파렴치한 침략책동이다. 미제의 《두개 조선》 정책에 추종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것이며 그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결코 변명할수 없는 매국배족행위로 된다.

전두환피뢰도당이 미제의《두개 조선》조작책동의 돌격대로 나서 분별없이 날뛰고있는 진목적은 나라의 절반땅을 외래침략자들에게 팔아넘긴 대가로 제놈의 권세욕을 충족시키며 일신의 부귀영화를 누려보려는데 있다.

전두환피뢰도당의 매국배족적인 추악한 분렬주의적책동은 무엇보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의 막뒤에서 민족의 영구분렬을 악랄하게 추구하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전두환피뢰도당은《대화있는 대결》,《대화있는 외교전쟁》을 떠들면서 북남대화의 기초로 되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외면하고 나라의 분렬을 고착시키기 위한 책동을 일삼고있다.

전두환피뢰도당은 대화의 막뒤에서 《외교전쟁》을 운운하면서 미제와 일본반동들을 남조선에 더욱 깊이 끌어들이고 《두개 조선》 조작의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배신적이며 음모적인 《대유엔외교》, 《대3세계외교》, 《대공산권외교》에 열을 올리고있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북남대화를 저들의 분렬주의적목적을 추구하는 위장물로 리용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지어 전두환피뢰도당은 파렴치하게도 세계의 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과 단결을 신성한 리념으로 하는 국제올림픽대회까지 나라의 분렬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정치적리용물로 삼으려 하고있다.

이와 함께 전두환피뢰도당은 대화의 막뒤에서 《리념전쟁》을 떠벌이고있다. 놈들이 표방하는 《리념전쟁》이란 남조선인민들속에 숭미사상과 《반공》의식을 불어넣어 북과 남사이의 반목과 대결을 고취하여 결국 민족분렬을 추구하기 위한 책동인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전두환피뢰도당은 조선에 대한 미제의 100여년에 걸친 침략과 략탈의 피맺힌 력사를 외곡하고 침략자를 《은인》으로 춰올리고있으며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여 놈들을 《찬미》하는 《기념비》를 세우고 갖가지 《행사》를 벌려 인민들속에 숭미사상을 불어넣고있다. 《반공》에 환장이 된 남조선괴뢰들은 남조선도처에 《반공전시관》, 《6.25전시관》, 《멸공전시관》 등을 만들어놓고 남조선인민들속에 반공사상을 악랄하게 고취하고있다. 이것은 놈들이 통일대화에는 관심이 없고 민족분렬을 위한 모략에만 매여달리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전두환피뢰도당의 매국배족적인 분렬주의적책동은 미제의 각본에 따라 마련된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이니, 《유엔동시가입》과 《유엔단독가입》이니, 《교차승인》이니 하는따위의 분렬타령을 하면서 그것을 실현시켜보려고 미쳐날뛰고있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전두환괴뢰도당이 그 무슨 새로운 《통일방안》이나 되는듯이 떠들어대고있는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이라는것은 동서독일이 서로 합의에 따라 독일이 두개 국가로 갈라진 방식을 우리 나라에 그대로 옮겨놓자는것이다. 이것은 조선의 통일문제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분렬방안이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동서독일이 한 방식대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 나라는 전패국도 아니며 분렬되여야 할 어떠한 리유와 근거도 없다.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으로서 통일을 한결같이 바

타고있으며 조선이 통일되는것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념원에도 부합되는것이다. 전두환괴뢰도당이 떠벌이는 《통일방안》이라는것은 민족의 통일지향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우리 나라를 미제와 일본반동들의 침략적인 요구대로 《두개 조선》으로 갈라놓으려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이밖에도 전두환괴뢰도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려먹던 케케묵은 《유엔동시가입안》과 《교차승인론》을 들고다니며 나라의 분렬을 국제적으로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책동을 강화하고있다.

모든 사실은 전두환괴뢰도당이야말로 미제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에 맞장구를 치면서 민족의 영구분렬을 위하여 혈안이 되여 날뛰는 악랄한 민족분렬주의자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전두환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정책는 또한 미제의 침략적인 전쟁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데서 드러나고있다.

전쟁의 참화속에 나라가 폐허로 되고 동족이 죽어도 오직 상전의 전쟁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면 된다는것이 바로 식민지주구의 사고방식이다.

전두환괴뢰도당은 남조선을 미제의 침략적인 군사기지로 내여맡기고 남조선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전쟁정책수행에 복종시키는 전쟁하수인이다.

전두환괴뢰도당은 우선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애걸하고 미제의 핵전쟁정책에 적극 추종하고있다.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군은 전두환괴뢰정권을 무력으로 뒤받침하고 공화국북반부를 위협하는 침략군이다.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위하여 책동하는것은 최대의 반역행위로 된다. 그러나 전두환괴뢰도당은 미제침략군을 《자유세계》를 《수호》하기 위한 《용사》로 묘사하면서 그들을 남조선에 영원히 붙들어두기 위하여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있다.

전두환역도는 미국의 군부와 정계의 우두머리들을 남조선에 련이어 끌어들여 《남침위협》을 떠벌이면서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애걸하고있으며 심복졸개들을 미국에 보내여 상전으로부터 더 많은 군사《원조》를 받기 위한 책동을 감행하고있다. 지어 전두환괴뢰도당은 제놈이 직접 대양건너 상전을 찾아가 남조선을 미제의 핵무기고로, 핵전쟁기지로 더욱 철저히 내맡기기로 하였으며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장기주둔을 애걸하였다. 그것도 성차지 않아 전두환역도는 미제국주의자들이 벌리고있는 우주핵전쟁계획인 모험적인 《별세계전쟁》계획에까지 가담하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다. 전두환괴뢰도당의 무분별한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남조선에는 의연히 4만여명의 미제침략군이 있으며 1,000여개의 각종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들이 조밀하게 배치되여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또한 미제의 전쟁수요를 보다 원만하게 충족시킬수 있도록 《전시동원체제》를 완비하기 위한 책동을 적극 벌리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은 《전시동원체제》를 《법제화》한 악법들인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수품관리법》 등을 더욱 파쑈적으로 개악하였다. 특히 놈들은 1984년 7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새롭게 조작하여 전시뿐만아니라 평시에도 남조선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전쟁준비책동에 깡그리 동원리용할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항시적인 《전시동원체제》를 《합법화》하여놓았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의 모든 주민들은 각종 군사훈련에 내몰리여 들볶이우고있으며 민간인들의 자동차, 경운기, 지어 달구지까지 군사임무수행에 강제로 동원되고있다. 그리고 전시도 아닌 때에 기업체들이 병기창으로 전환되고 주민들의 쌀과 개인생활필수품들까지 강제로 징발해가는 놀음이 벌어지고있다. 뿐만아니라 괴뢰들은 미제와 함께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각종 전쟁도발책동을 감행하여 나라의 정세를 긴장하게 만들고있다.

전두환괴뢰도당은 이와 함께 미제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에 적극 추종하여 일본반동들과의 군사정치적결탁을 강화하고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 재침의 길을 더욱 넓혀놓고있다.

특히 1984년 9월에 있은 전두환괴뢰도당의 일본행각은 극동지역에서 침략적군사동맹체제를 완성하려는 미제의 구상과 배후조종에 따라 이루어진것으로서 일본반동들과의 군사적결탁을 강화하려는데 첫째가는 목적을 둔것이였다. 그것은 《정치회담》에서 전두환괴뢰가 남조선의 《안전》이 일본의 안전으로 된다는것을 공공연히 줴치고 그것을 《공동성명》에 못박아놓았으며 괴뢰합동참모회의 의장이라는놈과 일본 《자위대통합막료회의 의장》사이에 진행된 《군사회담》에서 전쟁모의를 한것으로도 잘 알수 있다.

전두환괴뢰도당이 일본행각시 40억딸라의 차관과 보다 많은 일본의 군수기업체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기로 한것은 남조선경제의 군사화를 다그치고 일단 유사시에 《리권보호》의 간판밑에 일본군국주의가 재침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것으로 된다.

최근에 전두환괴뢰도당이 일본황태자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이기로 한것도 사실은 제놈의 권력유지와 전쟁준비에 필요한 몇푼의 돈을 받는 대가로 지난날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감행한 범죄적사실을 《무효화》하고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을 《합법화》하여놓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모든 사실은 전두환괴뢰도당이야말로 식민지주구의 더러운 잔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침략자들이 쥐여준 총칼로 동족을 살륙하고 나라와 민족을 미일반동들에게 팔아먹으며 조국강토를 미국을 위한 대리전쟁마당으로, 핵전쟁마당으로 내맡기고 겨레의 머리우에 핵참화가 들씌워지는것도 아랑곳하지 않는 천추에 용서 못할 매국배족의 무리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에서 전두환파쑈독재자를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고 오늘의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나라의 평화통일을 실현할수도 없다. 전두환괴뢰도당은 미제의 비호밑에 온갖 매국배족적책동을 일삼고 있지만 놈들이 멸망할 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일신의 안일과 부귀영화를 위하여 자기 민족을 등지고 외세에 빌붙어 살아가려는 사대매국노들은 불피코 인민들로부터 버림을 받기마련이다. 최근 아이띠와 필리핀에서 파쑈독재자들인 듀발리에와 마르코스의 운명은 인민의 머리우에 군림하여 전횡을 부리는 파쑈폭군이 종당에는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멸망하고야만다는 력사의 진리를 다시한번 확증해주고있다. 전두환괴뢰도당의 운명도 결코 달리는 될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두환괴뢰도당을 친미사대매국노로, 민족반역자로, 포악한 살인마로 락인찍고 반독재, 반전두환 투쟁을 세차게 벌려왔다. 특히 최근에 남조선에서 각계각층 인민들의 투쟁이 더욱 세차게 벌어지고 있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군사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정권을 세우자》, 《파쑈헌법철폐하라》, 《남조선을 제2의 필리핀으로 만들자》 등의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과감하게 벌리고있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굳게 뭉쳐 미제와 전두환괴뢰도당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 승리는 오직 정의와 진리를 위한 인민들의 편에 있다.

꾸바공산당 제3차대회보고

1986년 2월 4일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피델 까스뜨로 루쓰

피델 까스뜨로동지는 꾸바공산당 제3차대회에서 제2차대회로부터 제3차대회에 이르는 기간에 진행된 꾸바공산당의 사업과 꾸바의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당의 앞으로의 활동에 관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하였다. 보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총결기간에 이룩된 가장 특출한 성과들을 개괄하여 보고하려고 한다.

지난 당대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당대회도 이미 진행한 사업에 대한 고무적인 총화로 될것이며 원만히 진행되지 못한 사업을 비판하고 우리의 혁명적 힘과 투쟁정신, 사회주의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신하고 미래에 대한 락관적이며 주동적인 계획을 세울것이다.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제2차당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지난 5년동안에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 인민의 창조적로동과 혁명을 전진시키는데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사회총생산은 년평균 7.3%로 장성하였다. 이것은 이미 예견했던 5%보다 훨씬 늘어난것으로 된다. 공업생산은 해마다 8.8%로 장성하였다.

총결기간 사탕생산은 지난 5년동안에 비하여 12.2% 늘어나 년생산량은 거의 800만톤에 달한다.

원유채취공업과 원유생산량은 33% 늘어나 지난 5년동안에 비하여 2배의 원유를 생산하였다.

기계제작공업은 해마다 약 16% 장성하였다.

건설부문에서는 해마다 9.5%의 속도로 장성하여 총결기간 공장건설은 4.5% 늘어났다.

혁명이 사람들을 귀중히 여긴데로부터 보건사업은 전번 5개년계획기간에 비하여 현 5개년계획기간에 51% 장성하였다. 주민들을 병균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게 되였다.

149개의 교육기관건설이 끝났으며 그중 50개는 중등교육기관이다.

살림집건설에서 현저한 전진이 이룩되였다. 국가는 도시와 농촌에 12만 6천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였으며 협동농장들과 주민들이 자체로 건설한 집까지 합하면 그 수는 33만 5천세대에 달한다. 이것은 전 5개년계획기간에 건설한 집의 3배가 되는 수자이다.

수송부문에서는 해마다 6.5%의 속도로 장성하였다. 상선대는 1980～1985년기간에 21%이상으로 장성하였으며 그 총능력은 116만톤에 달하였다. 이것은 혁명이 승리한 당시보다 20배에 달하는 량이다.

총결기간 수산업에서 물고기잡이량은 4.9% 장성하였으며 물고기잡이량이 총 100만톤에 달하였다.

경공업생산은 해마다 8.8%라는 높은 비률로 장성하였다.

총결기간 대외무역은 류통액상으로 65%의 높은 비률로 늘어났다. 수출은 58% 늘어나고 수입은 71% 늘어났다.

총결기간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로동법령을 발포하였다. 이 법령은 230만 근로자들에 의하여 토의되고 수정된것이다.

사람들의 수명은 74.2살에 이르렀다. 1980년에 인구 638명당 1명이였던 의사수는 1985년에는 433명당 1명으로 되였

다. 최근년간 의료부문에서 진행한 사업들가운데서 가장 의의있고 큰 반영을 일으킨것은 의사가정담당제를 실시한것이다.

우리 혁명의 첫시기부터 교육에 큰 힘을 넣어왔다는것은 널리 알려져있다. 이 분야에서 우리는 지난 5년동안 거대한 일을 해놓았다.

총결기간 체육활동에 대한 군중들의 참가률이 43%나 장성하였다.

서울올림픽대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공동으로 주최되여야 한다. 쿠바는 올림픽리념에 충실하는것이 올림픽대회에서 모든 메달을 획득하는것보다, 아니 세계의 모든 금덩어리를 가지는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1986—1990년사이에 우리는 년평균 5% 정도의 경제장성속도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 목표는 국제적환경이 불리하지만 우리와 사회주의진영과의 경제관계의 특징으로 보아 능히 가능한 목표이다.

수출이 년평균 5%씩 장성하는데 비하여 수입은 1.5%밖에 늘어나지 않을것이다.

사탕생산은 도합 15% 늘어나게 될것이다.

사탕수수이외의 농업은 년평균 4.5%의 속도로 장성하게 된다.

원유채취는 2백만톤 수준에 올라서게 되며 원유정제는 지난 5개년계획기간에 비하여 30% 늘어나게 될것이다.

강철생산량도 1990년에는 1985년에 비하여 57% 장성하게 된다.

운수부문은 년평균 5%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계속 높아질것이다.

주민들의 소비폰드는 년평균 3.9%로 늘어나게 된다.

1990년에 가서 병원침대수는 1985년의 주민 1,000명당 5.4대로부터 6.2대로 늘어날것이며 의사수는 주민 284명당 1명, 구강의사수는 주민 1,509명당 1명으로 될것이다.

경제지도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하여 국가리사회 집행위원회직속 전국위원회를 내오기로 결정하였다.

우에서 개괄한 1986—1990년계획은 2000년까지의 발전전략에 부합된다.

이 전략의 기본목적은 경제적측면에서 나라의 공업화과정을 촉진시키는것이다.

혁명무장력과 조국보위

조국보위를 떠나서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진행한 사업에 대한 총화도 할수 없을것이며 5개년계획이나 전망계획에 대하여 생각할수도 없을것이다.

지난 5개년계획기간에 우리의 전민전쟁안은 우리의 군사사상에 기초하여 현저히 실현되고 풍부화되였다.

혁명무력인 정규군의 대부대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여 반격태세가 완비되고 정상적인 전투준비, 높은 기계화수준, 높은 화력, 높은 기동력과 함께 소부대에 이르기까지 전투행동을 자립적으로 벌릴수 있는 높은 능력이 마련되였다.

5개년계획기간에 10만명이상의 우리 동포들이 국제주의사명을 수행하였으며 이로 하여 잘 준비되고 풍부한 전투경험을 가진 수많은 인원들이 우리의 예비로 등록되게 되였다.

인민경제의 협조하에 여러가지 형태의 경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또한 방위지역과 군, 주들을 위한 재래식무기를 제작하는 공정이 생겼다.

애국주의군사교양협회는 우리 청년들의 애국주의 및 군사 교양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였다.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거의 150만의 남녀군중이 륙군민병대를 통하여 조국보위사업을 위한 전투부대들에 망라되여 훈련을 받고 장비를 갖추었다.

이것은 조국보위에 전체 인민이 군중적으로 동원되고있다는것을 잘 보여준다.

1984년에 온 나라에 방위지역들을 조직하였으며 이 모든곳에 방위에 필요한 조건을 다 갖추었다.

전시에 지휘를 보장하기 위한 나라의 유일통신계획이 작성되여 완성단계에 있다.

계산기기술을 리용하여 참모부의 지휘공정을 자동화하는 사업이 추진되였다. 자동화체계가 도입되여 전국의 련락체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였다.

전시에도 생산과 봉사를 계속하게 될 주요 지역들과 경제대상들에서 주민들과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만개소의 구조물들이 건설되였다.

주와 군들에서 전시에 대처한 갱도들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은 현재 방위지역들에서도 진행되고있다.

매우 짧은 기간에 우리가 해놓은 훌륭한 이 모든것은 우리 인민의 조직력과 동원상태를 잘 보여준다. 자그마한 우리 나라는 지구에서 가장 강대한 제국주의렬강앞에서도 겁을 집어먹지 않았으며 우리 조국을 침략해들어오면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길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놓았다.

《조국이냐 죽음이냐! 우리는 승리할것이다》라는 구호는 빈말이 아니였다.

지난 세기에 나라의 독립을 위한 투쟁을 시작하고 계속해온 세대들은 오늘 자기들의 가치, 자기들의 사상, 자기들의 모범을 지키고있는 우리 인민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할것이다.

현시대의 력사에서 최근년간은 비록 우리가 제국주의침공에 대처한 전면전쟁의 준엄한 시련을 겪지 않았다 하여도 우리 조국이 체험한 가장 영광스러운 년대들속에 기록될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준엄한 시련을 겪지 않았다는 사실자체도 우리가 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심사숙고하게 만들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으로 될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속도와 힘, 결심을 가지고 가까운 년간에도 우리의 방위력을 보다 공고하고 침범할수 없는것으로 다져나갈것이다.

우리는 지금에 와서 당 제1차대회에서 한 말을 보다 론리적으로 보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보다 힘있게 반복할수 있다.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당과 국가와 인민은 방위사업에 최대의 주의를 돌릴것이다.

혁명적방위는 절대로 소홀히 할수 없다.

이 원칙을 잊은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를 만회할수 없다는것을 력사는 너무나 웅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내무원들은 두 령역에서 혁명의 전진을 수호해야 한다. 즉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반혁명적책동을 물리치는것과 범죄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2중과업이 나서고있다.

안전기관들은 자기의 전투력을 높였으며 적들의 책동을 제때에 철저히 분쇄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경험을 발전시키고 기술실무능력을 높였으며 자기들을 언제나 따뜻이 대해주고 지원해주고 믿어준 인민들과의 혈연적련계를 두터이하였다.

25년의 기나긴 나날에 안전기관들은 항상 맡겨진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우리의 안전원들은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아무리 위험한 임무도 수행함으로써 적들과의 싸움에서 위훈을 세운 전설적전통을 창조하고있다. 이 전통은 오늘뿐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풍부화될것이다.

우리는 가장 강대한 제국주의렬강과 가까이에 린접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하고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반사회적인 행동들이 정치적인 색채를 띠는것은 아니라 해도 그것을 무시할수는 없는것이다. 다른 한편 혁명사업을 심화발전시키는것과 함께 우리 인민의 복리를 담보하는 투쟁은 바로 이러한 반사회적행동을 미리 막고 그에 대처한 사업을 진행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므로 내무성 일군들의 행동은 완전무결하고 견결하며 특별히 청백해야

한다. 왜냐 하면 그들은 가는곳마다 주민들앞에서 국가의 상징, 법과 도덕의 상징, 동포들과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존경의 상징으로 되기때문이다.

내무성 일군들은 또한 고상하고 헌신적인 역할에 대한 높은 자각성을 안고 자기자신에 대한 요구성을 항상 높여야 하며 온갖 안일해이와 부패, 허영, 인민에 대한 멸시의 표현들을 그리고 적들의 악랄한 시비중상에 유리한 조건을 줄수 있는 모든 표현을 반대하여 힘있게 투쟁해야 한다.

인민주권기관

최근년간 국가의 최고기관인 인민주권전국회의의 지위와 권위는 국내에서뿐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더욱 강화되였다.

최근에 꾸바가 라틴아메리카의회동맹에 가입한것은 우리 나라에 대한 련대성의 표시이며 우리의 혁명투쟁행정에서 실시되고있는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시책들에 대한 지지의 뚜렷한 표현이다.

총결기간 농목축협동조합법, 로동법령, 혁신 및 합리화법, 보건법과 주택법을 비롯하여 일련의 중요한 법들이 채택되였다.

전국회의는 사회주의적법안을 작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상설위원회들의 사업을 일신하였다.

지방인민주권기관들과 국가중앙행정기관들사이의 사업상 련계가 더욱더 강화되였다.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논것은 전국회의와 부장리사회집행위원회소속기관인 지방인민주권기관 담당사무국이였다.

지방주권기관들은 조직사업에서뿐아니라 경제관리운영사업에서도 훌륭한 성과와 전진을 이룩하였다.

대중단체들

지금까지 우리의 노력에 의하여 이룩된 성과들, 매일매시각 창조되는 위훈, 미래에 대한 설계, 이 모든것은 우리 당과 인민사이에 존재하는 통일단결이 없이는 결코 이룩될수 없을것이다. 이러한 통일단결하에서 대중단체들은 공장과 농촌, 건설장, 수송기관, 학교와 병원, 대학들에서 그리고 조국보위와 국제주의적임무에 대한 충실성으로 하여 조국의 방방곡곡에서 꺼질줄 모르는 불과 같이 당에 대한 자발적이고 자각적인 헌신성을 발휘하고있다. 대중단체가 없이는 그 무엇도 이룩될수 없는것이다.

자기 대렬에 전체 근로자들의 99.5%에 이르는 거의 300만명을 망라하는 직업동맹은 자기의 토대를 축성하고 조직의 구조를 완비하였으며 자기의 사업작풍과 방법을 개선하고 군중속에서 지위와 권위를 더욱 높이였다.

전국소농협회는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의 현단계에서 당이 자기에게 맡긴 력사적과업 즉 협동화운동을 적당한 속도로 믿음직하게 전진시키고있다.

여기에서 성과는 협동화운동이 시작된지 10년이 되나마나함에도 불구하고 농목축생산협동조합의 수가 1985년에 107만 2,055.5헥타르의 토지를 가진 1,378개로 늘어난 사실을 놓고도 긍지높이 지적할만하다.

농민조직은 9학년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전투를 벌릴것을 선포하고 학습크루쇼크 등을 조직하였으며 다양한 문화정치사업을 벌렸다.

꾸바녀성동맹은 자기의 대렬을 끊임없이 확대하여왔으며 오늘은 녀성의 80%에 달하는 310만명을 조직에 망라하고있다.

혁명수호위원회에는 현재 653만 7,000명이 망라되여있으며 이것은 14살이상 주민의 83.9%에 해당된다.

혁명수호위원회는 정치사상적령역에서 중요한 많은 과업을 수행하여왔다.

위원회는 애국주의군사교양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방어지역을 꾸리고 주민들을 철수시키는 조치를 취할데 대한 방침관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데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꾸바공산당

당은 오늘 52만 3,639명의 당원들과 후보당원들을 가지고있다. 당의 기층조직의 수는 3만 8,168개에 이르고있다.

총결기간 우리 당 대렬은 9만 2,779명의 새 당원들을 받아들였다.

당은 자기 당원들의 자격이 없는 행동을 허용하지 않는다는것을 대중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당원이나 후보당원이 범한 결함이 일반여론과 일정한 관련이 있을 경우 가해진 책벌들은 경우에 따라 그가 일하는곳과 사는곳에서 공포되였다.

비판과 자기비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 있었다. 아직도 당원들과 지어 책임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속에서도 비판과 자기비판을 순수 리론적인 분야로 그리고 구체적인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개인적활동으로, 다른 사람들의 결함과만 관련되고 자기자신과는 관계가 없는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원칙적립장에서 언제나 교양적, 진실적 정신에서 용감히 이러한 현상과 투쟁해야 한다.

제2차대회후 군급 위원회들의 기본과업이 기층조직이 잘 움직이도록 하는데 주의를 돌리는것이라는 원칙에서 출발하여 군급 위원회들의 체계를 개편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군급 위원회사업의 기본내용으로서 교육, 교양 및 기층조직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그의 사업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새 체계가 서게 되였다.

당이 직장에서 전민적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비당원근로자들을 참가시키는 공개회의를 조직한것은 당사업에 대한 평가를 풍부화한 긍정적인 경험으로 되였으며 당을 대중과 더욱더 련결시켰다.

국가간부들과의 사업체계에 관한 당면계획을 실행할데 관한 1984년국가리사회의 법령—82의 채택은 당이 국가, 행정 및 기업소가 요구하는 간부정책에 모든 주의를 돌릴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다.

이 대회후에도 당은 간부사업에 가장 선차적인 주의를 돌릴것이다.

당규률을 적용하고 입당절차를 지키며 재정과 재산들에 대한 관리 및 감독과 관련한 결정들을 놓고보면 기층조직과 당기관들이 평가를 엄격하고 깊이 있게 하며 규률이 점차 높아지고있다는것을 볼수 있다.

당검열위원회들은 결함과 무능력, 옳지 못한 행동들에 대한 신소와 청원에 대하여 응당한 주의를 돌리도록 하며 이러한 신소와 청원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방조를 주고 대책을 취하며 어떤 형태로든지 혁명가들의 행동을 특징짓는 비판정신을 조금이라도 저애하는 모든 현상들을 반대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하고있다.

당은 관료주의, 경솔성, 형식주의, 낡은틀 그리고 당생활, 당활동과 인연이 없는 경향들을 반대하여 성과적으로 투쟁하였다.

이 기간의 줄기찬 투쟁속에서 당은 우리 사회의 위대한 지도적, 조직적 력량으로, 존엄과 도덕과 혁명적자각성의 원칙의 최고대표자로 자라났다.

당 제3차대회를 맞으며 당은 나라의 물질, 정신적 변혁을 위한 모든 사업을 령도하였으며 동시에 자기자신도 개변되고 완성되여왔다. 이리하여 당은 조직성, 요구성, 곤난극복의 정신, 규률성, 혁명적원칙성, 희생성에서 그리고 인민들과의 긴밀한 관계에서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을 다해왔다.

당사상사업의 기본은 우리 인민의 정치적의식이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원칙에 충실하고 깨뜨릴수 없는 도덕적단결로 되여야 한다는것이다. 혁명가가 되기를 그만두려면 먼저 인간이기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결심이 꾸바의 한 세대로부터 다른 세대에게 계속 전달되는 유산으로 되여야 한다.

지난 기간 새세대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고 꾸바인민의 투쟁전통을 선전

하며 자본주의사회의 부패성과 위기, 우리 제도의 거대한 전망성과 가능성, 사회주의법의 원칙과 규정에 대한 교양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혁명교양에서 항시적으로 중요한 문제였다. 또한 인민들의 해방위업에 대한 련대성과 사회주의공동체인민들과의 친선은 대중보도기관들의 주되는 과제였다.

1984년초에 정치국의 결정으로 당원들에게 제1비서의 편지를 보냈다. 여기서는 매개 당원이 가정에서, 로동집단과 공동체내에서, 어린이들과 청년들의 교양에서 노는 공산주의자로서의 결정적 역할이 강조되였다.

경제교양과 로동규률, 생산자들의 의식성과 문화성, 앞으로의 진보와 복리가 우리의 재능, 우리의 희생, 우리의 땀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굳은 확신과 결합되게 하는것이 앞으로 계속 벌려야 할 사상교양의 주되는 목표로 될것이다.

국제정세

총결기간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과 증대되는 핵전쟁위험, 제3세계나라들에 무자비한 파국적결과를 가져다준 자본주의세계의 최악의 경제공황으로 특징지어지는 현 국제정세는 전후 가장 긴장하고 복잡하였다. 이처럼 국제정세가 격화된 책임은 미제국주의 특히 레간행정부에 있다.

레간과 그의 보좌관들은 군사비의 증대로써 침체에 빠진 미국경제를 부활시키고 동시에 경제적 및 과학기술자원에 대한 긴장성을 조성하여 사회주의의 발전을 가로막고 사회주의나라들을 질식시킬수 있으리라고 타산하였다.

평화에 대한 쏘련과 기타 사회주의나라들의 확고부동한 결심, 최근 미제의 힘의 립장과 공갈정책에 대한 구라파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단호한 반대, 제3세계의 모든 운동들과 혁명적나라들의 견결한 저항으로 인하여 미국의 대외정책은 커다란 장애에 부딪치고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워싱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있는 현 정부들은 대부분 제국주의의 멸망을 변호하지 않고있을뿐아니라 자본주의제도를 론의조차 하지 않고있다.

오늘 라틴아메리카와 까리브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빚을 많이 진 지역으로 되고있다.

미국은 아프리카와 중근동, 아세아에서 자기의 힘의 정책을 강요하여왔으나 그것은 실패를 면치 못하고있다.

아세아를 얼핏 보아도 우리는 미국외교정책의 상서롭지 못한 징후들을 엿볼수 있다.

조선반도에서 도발이 계속되고있다. 서울이 이번에 진행하는 올림픽경기대회장소로 선정된것도 미국의 영향과 압력, 책동의 결과라는것은 의심할 여지조차 없다. 미국은 조선의 다른 한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았다. 나라가 참혹하게 인공적으로 분렬되여있으며 오래전에 거기에서는 여러 나라의 수십만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류혈적인 전쟁이 있었다. 남조선은 미국의 군사기지이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무섭고 폭압적인 파쑈정권이 남조선에 존재하고있다는 사실을 무시하였던것이다. 꾸바는 올림픽경기대회를 북과 남에서 진행할데 대한 북과 남의 대화를 지지한다.

이것이 조성된 정세하에서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된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나라가 거기에 참가한다는것을 생각조차 할수 없다.

최근년간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지키고있는 쁠럭불가담운동은 세계정치에서 의연히 적극적이며 결정적인 력량으로 되고있다.

르완다외교부장회의는 쁠럭불가담나라들의 힘과 단결을 시위하였다.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호상존중과 매개 나라 당의 자주적인 견해에 기초한 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은 사회주의의 전진과 평화와 진보의 공동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우리가 언급한 이런 정치정세의 테두리안에서 우리 당은 세계의 다른 모든 혁명적이고 진보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력량들과 좋은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현 미행정부는 꾸바에 대한 극단적인 침략계획을 작성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 경제봉쇄는 더욱 강화되였고 우리의 정상적인 무역과 재정 사업을 방해하는데서 선행한 모든 미행정부들보다도 더 로골적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미행정부는 우리를 반대하는 새로운 군사적침략과 전복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서슴없이 선포하였으며 우리를 반대하는 실제적인 군사행동의 가능성에 대하여 력설하였다.

우리가 27년을 견지하여온 인내성, 완강성, 결단성 그리고 우리 원칙에 대한 검증된 충실성, 정의로운 조국을 건설하려고 달라붙은 결심, 미래의 기초를 쌓고있는 신심과 확신성, 우리의 혁명위업을 지켰으며 앞으로도 지킬수 있는 영웅주의, 이 모든것들은 그 누구도 우리를 무시할수 없으며 우리 인민을 멸시할수 없게 한다.

우리와 공동의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 세계 수십억 인류와 맺고있는 뉴대는 우리가 외로운 투사들이 아니라 생존과 평화, 자유와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하고야말 인류의 한 성원으로 되고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 ×

우리가 최근년간에 옳바른 결정을 채택하고 완강하게 일한것으로 하여 우리 조국은 더욱 강해지고 우리 경제는 보다 위력해졌으며 우리의 경험은 보다 풍부해지고 우리 당은 전투적으로 단련되였다. 우리 인민은 더욱 완성되고 단결된 인민으로, 더욱 문명하고 자기자신을 확고히 믿는 보다 혁명적인 인민으로 되였다.

우리는 더욱 분발할 결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공산주의자에게는 절대로 완전한 만족이란 있을수 없으며 인간의 그 어떤 사업도 완전히 만족하게는 될수 없다는것을 미리부터 명심하여야 한다. 어느날에 가서 우리 사업이 잘되였다고 생각되게 하자면 우리는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사업이 잘되였다면 우리는 그 사업을 더욱 완전무결하게 하기 위하여 투쟁할것을 우리자신들앞에 맹세하여야 한다.

조국이냐 죽음이냐 우리는 승리할것이다.

부르죠아륜리관의 반동성

최 철 웅

오늘 파멸에 직면하여 허덕이고있는 현대제국주의자들은 온갖 반동적 사상과 궤변들을 조작하여 내외에 널리 퍼뜨리고있다.

인류력사상 가장 반동적이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자본주의제도를 미화분식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의식과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있는 현대부르죠아륜리관은 바로 그러한 반동적사상독소의 하나이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현대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어용륜리학자들을 부추겨 부르죠아륜리관의 반동성과 비과학성을 강화하게 하고있을뿐아니라 그것을 자본주의의 변호론으로, 반공선전의 도구로 적극 리용하고있다.

이로부터 부르죠아륜리관의 반동성과 위선성을 단호히 폭로비판하고 그 침투를 막는것은 고상한 공산주의도덕의 승리와 사회주의생활양식을 세워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반동적인 부르죠아사상, 썩어빠진 부르죠아적 도덕과 생활양식을 단호히 배격하며 개인리기주의, 자유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 잔재와 락후한 인습을 반대하고 고상한 공산주의적 사상과 도덕의 승리를 위하여, 공산주의적 생활기풍을 세우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20권, 440페지)

도덕은 량심과 사회여론, 관습과 전통에 의하여 준수되는 사람들의 행동규범이다. 도덕은 사회와 함께 력사적으로 발생발전해온 사회적의식의 한 형태이며 사회생활단위에 따라 가정도덕, 공중도덕, 사회도덕 등으로 갈라져있다.

륜리관이란 바로 이러한 도덕들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와 관점, 립장의 총체를 말하는것이다. 계급사회의 륜리관은 일정한 계급의 처지와 지향, 요구를 반영하고있는만큼 계급적성격을 띤다. 착취계급의 륜리관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착취관계를 정당화하는 사상적도구이며 특히 부르죠아륜리관은 썩어빠진 부르죠아적 도덕과 생활양식을 합리화하고 부식시키고있는 가장 반동적이고 위선적인것이다. 현대부르죠아륜리관의 이러한 반동적 성격과 역할은 인류력사상 가장 악랄한 최후의 착취계급인 자본가계급의 계급적 본성과 지향, 요구와 관련되여있다.

현대부르죠아륜리관은 극단한 개인주의에 기초한 부화타락, 탐욕, 황금만능, 인간증오, 염세 등 말세기적인 패덕적 행위와 풍조를 가짜 륜리 사상과 리론으로 비호하고있는 궤변이다.

패륜패덕적내용으로 일관되여있는 현대부르죠아륜리관은 자본가계급의 사상정신적혼란상태를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잡다한것이 특징이다.

현대부르죠아철학의 잡다한 조류들은 현대부르죠아륜리관의 사상리론적, 방법론적 기초로 되고있다. 개인주의적, 쾌락주의적 부르죠아륜리관은 인간철학, 실존주의, 프로이드주의, 실용주의와 같은 부르죠아철학조류들을 사상리론적기초로 하고있다. 그리고 비합리주의적, 상대주의적 부르죠아륜리관은 신실증주의철학조류들을, 숙명론적, 신비주의적 륜리관은 신토마스주의와 같은 종교철학을 사상적출발점으로 삼고있다. 지어 일부 부르죠아륜리학자들은 반동통치배들의 비위에 맞는 봉건적륜리관까지도 되살려보려고 피하고있다.

현대부르죠아륜리관조류의 이러한 잡

다성은 그 사상리론적내용의 《풍부성》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극도로 혼란되고 타락된 자본가계급의 정신도덕상태를 말해주고있는것이다. 그것은 또한 썩올대로 썩은 자본주의제도를 합리화해보려고 부르죠아어용륜리학자들이 얼마나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는가 하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현대부르죠아륜리관은 사상리론적내용에서 극히 반동적이며 그 독소가 미치는 후과 역시 엄중하다.

현대부르죠아륜리관의 반동성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람의 존엄과 도덕적가치를 극도로 훼손시키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인간의 본질에 관한 문제는 철학의 연구대상일뿐아니라 륜리관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되고있으며 사람의 도덕적가치를 규정하는 출발점으로 되고있다. 사람의 본질과 본질적특성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데 따라 사람을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보는 과학적인 륜리관으로도 되고 그와 대치되는 반동적륜리관으로도 될수 있는것이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며 자연과 사회의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동적인 현대부르죠아륜리학자들은 사람을 동물과 같은 생물학적존재로 보면서 생물학적본능이 모든 도덕적 관점과 가치의 근원이고 생물학적본능만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적행위가 바로 사람들이 지향하고 구현하여야 할 《최고의 도덕적원칙》이라고 줴치고있다. 그들은 또한 사람이란 리기적존재인만큼 개인주의가 인간활동의 추동력이라고 외곡하면서 개성적본성과 육체적욕망을 최대한 충족시키는 행동이 바로 《인간적, 인도주의적 도덕》이라는 황당한 도덕론을 늘어놓고 있다.

공리주의는 이러한 부르죠아륜리관의 대표적인 조류의 하나이다. 공리주의자들은 도덕의 기초를 사람들간의 사회적관계에서 찾지 않고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자연적본성》에서 찾고있다. 그들은 도덕적《선》은 쾌락이고 《악》은 고통이며 개인적욕망을 충족시키는것이 《행복》이고 그렇지 못한것이 《불행》이라고 떠벌이고있다.

공리주의자들의 이러한 설교는 도덕을 무의식적인 《쾌락본능》에 귀착시키면서 극단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방종과 색정을 고취하고 자본가계급의 야수적인 착취와 략탈 행위를 정당화하는 반동적인 부르죠아륜리관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부르죠아륜리관의 조류에는 이밖에도 《생존본능》 또는 《성적본능》에 기초하여 도덕문제를 론의하면서 인간의 도덕적가치를 훼손시키는것들도 있다.

현대부르죠아륜리학자들은 사람의 본질을 외곡한데 기초하여 사람의 도덕적가치를 훼손할뿐아니라 륜리관의 기본범주인 행복에 대한 궤변에 의하여서도 사람의 존엄성을 헐뜯고있다.

행복이란 생활과 사업에 대한 사회적인 긍정적평가를 받았을 때 느끼게 되는 커다란 만족과 기쁨이다. 참된 행복은 사람이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데서뿐아니라 자기 조국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 무궁한 번영을 위한 헌신적인 투쟁속에서만 마련되고 쟁취될수 있는것이다. 그런데 현대부르죠아륜리학자들은 황금과 변태적인 생리적쾌락을 행복의 유일한 척도라고 줴치고있다. 그들은 그 어떤 사기와 협잡, 강탈과 만행을 감행해서라도 권세욕과 치부욕, 쾌락욕을 충족시키는자를 《행복한 사람》으로 극구 례찬하고있으며 지어 순간순간을 《쾌락》으로 지내는 사람만이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될수 있다고까지 떠벌이고있다.

반동적인 현대부르죠아륜리관의 이러한 설교들은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귀중한 사회적존재인 사람을 생물학적존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사람의 도덕적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말살하려는

가장 썩어빠진 륜리관에 불과한것이다. 그것은 또한 근로인민대중의 계급의식과 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맹목적인 본능의 노예로, 자본주의제도의 희생물로 만들기 위하여 썩을대로 썩은 부르죠아적 도덕과 생활양식을 미화분식하고있는 가장 악독한 반동적인 사상독소인것이다.

현대부르죠아륜리관은 이처럼 사람의 존엄과 도덕적가치를 훼손하고 부르죠아제도를 정당화하면서 철두철미 자본가계급에 충실히 복무하고있는 반동적인 부르죠아어용도덕론이다.

현대부르죠아륜리관의 반동성은 또한 도덕적상대주의를 설교하면서 실제상 도덕과 륜리학 자체를 부인하고있는데 있다.

도덕은 인간의 사회생활과정에 력사적으로 발생하였고 인간과 인간사회에만 고유한것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집단, 사회와의 사회적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는 사회적존재라는데서 다른 모든 물질적존재 특히 생물학적존재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본능에 기초하여 맹목적으로 활동하는 동물과는 달리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자기자신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자각하고 다른 사람과 집단, 사회에 대한 자기 행동을 조절통제하면서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활동을 벌리고있다. 도덕은 바로 이러한 사회생활과정에서 발생발전해온것으로 하여 사회적성격을 띠고있는것이다.

도덕은 또한 보편적성격도 띠고 있다.

도덕은 복잡한 사회관계와 개별적인 사람과 집단, 사회의 요구와 의무를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규제적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복잡한 사회관계를 조절하고 규제하는 사람들의 행동규범인 도덕은 개인적인 요구와 리익이 아니라 전사회적인 요구와 리익을 반영하고있는 사회적, 보편적 성격을 가지게 되는것이다. 도덕은 바로 이러한 보편적성격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모든 사회성원들의 요구와 행동을 조절하고 규제하는 규범과 준칙으로서의 역할을 놀수 있는것이다. 모든 사회성원들이 량심과 높은 자각성을 가지고 도덕적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나가야 사회질서를 유지할수 있고 사회를 발전시켜나갈수 있다는것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동적인 현대부르죠아륜리학자들은 도덕의 사회적성격과 보편적성격을 부인하면서 도덕의 사회적 의의와 역할을 왜소화하거나 반대해나서고있다. 실존주의륜리관과 실용주의륜리관, 신실증주의륜리관은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반동적인 실존주의륜리학자들은 도덕이란 기성관례와 전통, 관습과 객관적법칙 등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순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것이라고 설교하면서 도덕의 사회적성격을 로골적으로 거부하고있다. 그들은 《실존적인간》이 자기와 자기의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선택》이라는 용어를 저들의 륜리관의 출발적범주로 삼고있다. 지어 그들은 매개인이 자의적으로 《선택》한 행동을 할 때만이 도덕적인것이기때문에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도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궤치고있다.

실존주의륜리학자들의 이러한 궤변은 도덕의 사회적, 보편적 성격과 그 의의를 로골적으로 거부하고있는 패덕적설교이고 방종한 미국식생활양식을 합리화하고있는 가짜도덕론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실용주의륜리관도 도덕적 주관주의와 상대주의를 설교하면서 반동적인 미국식생활양식을 고취하고있다. 실용주의륜리관의 제창자들은 개인에게 《만족》을 주는 《유익성》이 곧 도덕적기준이며 일정한 《상황》에서 사람에게 《유익성》을 주는 행위만이 《도덕적인것》이라고 떠벌이고있다. 최근년간에 새로 대두한 플렛처의 《상황륜리설》도 새로운 탈을 쓰고 실용주의륜리관을 거의 그대로 되풀이하고있다.

실용주의륜리관은 개인의 리익과 만

족을 위하여서는 그 어떤 파렴치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감행하여도 《정당》하고 《도덕적인것》이라고 하는 날강도적인 황당무계한 사이비도덕론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미국의 《리익》을 위한다는 간판밑에 온갖 범죄행위를 감행하고있는 미제를 두둔하기 위하여 조작된 반동적인 어용륜리관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이른바 《과학적륜리관》의 탈을 쓰고있는 신실증주의륜리관도 역시 도덕의 의의와 역할을 부인하고있다. 신실증주의륜리관의 설교자들은 도덕이란 기분, 감정, 소원 등 인간의 정서상태를 규제하는 기능만 수행할뿐이고 그 어떤 사회적 지능과 역할도 놀지 못하는것이라고 하면서 륜리관의 사명은 다만 《실증적》인 감정과 정서를 분석하는데 있다는 괴이한 도덕론을 늘어놓고있다. 지어 그들은 도덕적 규범과 행위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거나 규정할수 없는 비합리주의적인것이라고 하면서 도덕의 의의를 극도로 홀시하고있다.

모든 사실은 현대부르죠아륜리관이야말로 주관주의적, 상대주의적 도덕론을 설교하면서 사실상 도덕과 과학으로서의 륜리학자체를 말살해보려고 꾀하고있고 패륜패덕을 정당화하고있는 궤변이라는것을 뚜렷이 말해주고있다.

현대부르죠아륜리관의 반동성은 파멸에 직면한 현대제국주의를 적극 비호하고 사회주의를 악랄하게 비방중상하는 반동적역할을 담당수행하고있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제도는 《사람은 사람에 대하여 승냥이》라는 비인간적관계를 유지하고 고취하는 근원이며 인륜도덕을 도외시하는 비도덕적인 사회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레멘쯔와 같은 부르죠아륜리학자는 가소롭게도 사적소유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회만이 《정의》로운 사회라고 떠벌이면서 근로대중에 대한 착취관계를 《인간적, 도덕적관계》라고 정당화하고있다. 그리고 어떤자는 부르죠아통치배들을 반대하는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을 《죄악》이라고 외곡평가하면서 《최고의 선행》은 《순종》과 《인내》, 《관대》와 《박애》라고 설교하고있다. 지어 와이트헤드를 비롯한 종교적륜리학자들은 종교적신앙만이 《인간의 타락》을 구원할수 있다는 현실도피적이고 몽매주의적륜리관을 늘어놓고있다.

현대부르죠아륜리학자들은 이처럼 부패한 자본주의제도를 합리화하고 그 제도를 부지하기 위하여 근로인민대중에게 《순종》과 계급적타협을 고취하고있을뿐아니라 제국주의침략전쟁까지도 비호해나서고있다. 어떤자들은 전쟁의 원인이 마치도 인간의 《싸움의 본능》에 있다고 줴치고있으며 다른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인구과잉으로부터 오는 《인류의 위기》를 구원하기 위한 《도덕적조치》라고 로골적으로 변호해나서고있다. 지어 미국의 반동적인 륜리학자들은 미제가 세계에 대한 《도덕적지도》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미제의 세계제패전략과 핵전쟁책동을 정당화하고있다.

현대부르죠아륜리학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새 세계전쟁 도발책동을 변호하는 한편 주체님제도 공산주의로부터 서방의 《도덕문화를 수호》하여야 한다는 황당한 소리를 떠벌이고있는것이다.

현대제국주의의 변호론인 부르죠아륜리관의 반동적성격은 륜리관의 기본범주의 하나인 량심에 대하여 외곡하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도덕적량심이란 자기 행동에 대한 사회와 집단,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책임의식이다. 그것은 자기 행동에 대한 도덕적평가의 기준으로서 자책과 후회, 만족감 등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량심은 사람들을 사회도덕적행동에로 이끄는 추동력으로 되는것이다.

그런데 현대부르죠아륜리학자들은 도덕적량심을 주관적인 《자아의 목소리》라느니 자기 행동에 대한 도덕적평가를 내리는 선천적능력이라느니 뭐니 하

면서 량심에 대하여 외곡하고있다. 그들은 량심이라는 도덕적범주에서 기본을 이루는 사회적책임감을 거세해버리고있는것이다.

현대부르죠아륜리관은 이처럼 반동통치배들을 비호하는 어용륜리관의 력사에서 가장 반동적이고 패륜패덕적인 사이비도덕론에 불과한것이다.

오늘 미제를 비롯한 현대제국주의자들은 파멸의 운명을 다소나마 연장해보려고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온갖 비도덕적인 범죄행위를 감행하고있다. 그들은 그러한 범죄행위를 미화분식해보려고 반동적인 부르죠아어용륜리관을 적극 내세우고있으며 그를 국내외에 널리 부식시키기 위하여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다. 반동적인 현대부르죠아륜리관은 자본주의세계에서 커다란 후과를 빚어내고있다. 지금 제국주의나라들에서는 부정부패와 사기협잡이 성행하고 살인, 강탈, 강간, 방종, 색정, 마약중독 등 말세기적인 퇴폐풍조가 판을 치고있다. 자본주의세계는 날이 갈수록 인륜도덕이 말살된 개 같은 세상으로 되여가고있다.

미국은 자본주의세계에서 개 같은 세상의 전형이다. 미국에서는 평균 24분마다 1건의 살인사건, 7분마다 1건의 강간사건, 10초마다 1건의 강도사건이 일어나고있다. 이것은 미국이야말로 력사상 류례가 없는 범죄의 소굴이며 패덕의 왕국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준다.

미국의 어떤 학자가 미국에서는 가정으로부터 정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생활 령역과 단위들이 《극도로 비도덕화》되고있다고 개탄한것이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현대부르죠아륜리관의 해독적후과는 제국주의나라들에서뿐아니라 제국주의의 식민지들에서도 극심하게 나타나고있다. 특히 미제가 비법적으로 강점하고있는 남조선에서는 반동적인 부르죠아륜리관이 널리 부식되고 양키식생활양식이 범람함으로써 조선민족의 고유한 미풍량속이 여지없이 유린말살되고있다. 남조선은 말그대로 인륜도덕과 배치되는 온갖 패륜패덕행위가 판을 치고있는 도덕의 불모지로 화하고있다. 그것은 남조선에서 인간의 초보적인 도덕과 량심마저 저버린 각종 부정부패사건이 매일매시각마다 벌어지고있는 사실에 의하여 뚜렷이 실증되고있다.

남조선에서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는 각종 부정부패행위는 썩어빠진 전두환군사파쑈통치의 필연적인 산물이며 부정부패행위는 바로 전두환괴뢰도당의 상투적수법으로 되고있다. 미제의 손때묻은 앞잡이이며 매국배족행위만을 일삼고있는 전두환역적자신이 부정부패의 원흉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사회생활전반에 부정과 퇴폐풍조가 만연되여 남조선사회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병들고 썩어가고있다.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이러한 비극적사태를 빚어내게 한 원흉은 바로 미제국주의자들이며 그 하수인은 전두환괴뢰도당이다.

우리는 존엄있는 사회적존재인 인간을 모독하고 썩어빠진 부르죠아적 도덕과 생활양식을 합리화하고있는 반동적인 부르죠아륜리관의 침투를 막고 공산주의도덕의 승리와 민족적이고도 사회주의적인 생활양식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근로자 1986년 제5호(루계 529호)

편집위원회

낸곳•근로자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1986년 5월 1일 발행•1986년 5월 3일

ㄱ—6504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7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6 호

평 양 근로자사 1986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6 호(530)

차 례

김 일 성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김일성고급당학교 교직원,
학생들 앞에서 한 강의
1986년 5월 31일)

우리는 지난해에 조선로동당창건 40돐을 뜻깊게 기념하였으며 오늘은 고급당학교창립 40돐을 맞이하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 40여년동안 자랑찬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왔으며 력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렸습니다. 우리 당은 창건된 다음 당대오를 끊임없이 확대강화하면서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왔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을 령도하여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켰습니다. 우리 당은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을 통하여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얻었으며 반석같이 통일단결되고 풍부한 경험과 세련된 령도력을 지닌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였습니다.

우리 당은 멀고도 간고한 혁명의 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일을 한 로숙한 당이며 패기와 정열이 넘쳐나는 혈기왕성한 당입니다. 우리 혁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으며 우리 당은 성스러운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수행하기 위한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를 다져놓았습니다. 우리 당은 원대한 포부와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투쟁하고있습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당의 령도밑에서만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습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이 전진하고 사회가 발전하는데 맞게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공고히 하고 당의 령도적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려면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당건설의 혁명적원칙들을 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당일군들이 우리 당 건설의 력사적경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김일성고급당학교는 당일군들을 키워내는 우리 당의 간부양성기지입니다.

고급당학교는 창립후 오늘에 이르는 지난 40년동안 우리 당과 운명을 같이하여왔으며 당간부양성사업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고급당학교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 언제나 앞장서 투쟁하였으며 유능한 당일군들을 수많이 키워내고 현직당일군들을 끊임없이 재교육함으로써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우리 혁명위업 수행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고급당학교앞에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준비된 당일군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고급당학교에서는 학생들과 당일군들에게 우리 당의 력사와 경험을 잘 알려주어 그들이 모두 당에 끝없이 충실하며 당사업을 능숙하게 할수 있는 자질을 갖추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는 고급당학교창립 40돐을 맞으며 고급당학교의 교수교양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우리 당 건설의 력사적경험에 대하여 몇가지 말하려고 합니다.

1. 당창건을 위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투쟁

우리 당은 깊은 력사적뿌리에서 자라난 당입니다. 우리 당이 창건된것은 1945년이지만 우리 나라에서 당창건을 위한 투쟁은 오래전부터 진행되였습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오랜 기간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혁명적당창건의 튼튼한 기초를 닦았으며 그에 토대하여 우리 당을 창건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로씨야사회주의10월혁명의 영향밑에 맑스-레닌주의가 보급되고 로동계급이 투쟁무대에 적극 나섬에 따라 공산주의운동이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은 심중한 약점과 제한성을 가지고있었습니다.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은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묶어세워 혁명투쟁에 불러일으킬 대신 인민대중과 동떨어져 혁명에 아무런 도움도 줄수 없는 말공부나 하고 《령도권》쟁탈을 위한 권력싸움만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대주의에 사로잡혀 자체로 당을 튼튼히 꾸릴 생각은 하지 않고 저마다 자기 파가 《정통파》이며 진짜 《맑스주의파》라고 하면서 국제당의 승인이나 받으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은 순탄한 발전의 길을 걷지 못하고 진통과 우여곡절을 겪게 되였으며 1925년에 창건된 조선공산당은 혁명의 전위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을뿐아니라 일제의 탄압속에서 자기의 존재마저 오래 유지할수 없었습니다.

조선혁명은 새형의 혁명적당을 요구하였으며 새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할 성스러운 위업은 새세대청년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서게 되였습니다.

우리 새세대청년공산주의자들은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처럼 하여서는 혁명을 할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았으며 그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혁명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는 혁명을 하려면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에 의거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자체의 힘으로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당을 건설하고 혁명을 령도해야 한다는것, 그렇게 하면 자연히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을수 있고 동정도 받을수 있다는것을 굳게 믿었으며 이러한 신념밑에 투쟁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새세대청년공산주의자들이 선택한 새로운 혁명로선이였으며 혁명적당건설방침이였습니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자주적으로 혁명의 진로를 개척하고 투쟁을 벌려나가는 과정에 새로운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가지게 되있습니다.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와 함께 우리 혁명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되였습니다.

우리가 1926년에 조직한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전위조직이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조직이였습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고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나아가서 세계에서 공산주의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자기의 강령으로 내세웠습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우리 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선언이였습니다. 《ㅌ.ㄷ》가 결성됨으로써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조와 결별하고 자주성의 원칙에 따라 전진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있으며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은 정확한 투쟁목표와 전략전술을 가지고 힘차게 전개되게 되였습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우리 나라에서 새형의 혁명적당 건설의 출발점으로 되였으며 바로 《ㅌ.ㄷ》에서부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ㅌ.ㄷ》를 계승하여 조직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혁명적당창건을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종파사대주의자들의 분렬책동을 극복하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선진적인 청년들을 조직에 묶어세우고 단련시켜 당창건의 골간으로 키웠으며 광범한 반일대중단체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여 당창건의 공고한 대중적지반을 꾸려나갔습니다.

우리는 1930년에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면서 기층당조직을 내오기 위한 투쟁을 벌렸으며 새세대청년공산주의자들로 첫 당조직을 결성하였습니다.

카륜에서 결성된 첫 당조직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시원으로 되였으며 그후 련이어 조직된 당조직들의 원형으로 되였습니다. 우리는 첫 당조직을 모체로 하여 당조직들을 급속히 확대해나갔습니다. 우리는 짧은 기간에 두만강연안을 비롯한 넓은 지역에 수많은 기층당조직을 내오고 그에 대한 조직지도체계를 세웠습니다. 당조직들이 무어지고 그 활동이 강화됨으로써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조직적으로 더욱 굳게 결속되였으며 당조직의 지도밑에 혁명투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려나가게 되였습니다.

당창건을 위한 투쟁은 항일무장투쟁이 전개되면서부터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되였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성스러운 해방전쟁인 동시에 숭고한 공산주의적리념의 승리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투쟁이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이였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은 당창건을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새 국면을 열어놓았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당창건의 조직적골간을 대대적으로 키워낼수 있게 되였으며 공산주의대렬의 통일단결을 확고히 실현하고 당창건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려나갈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항일무장대오와 유격구들에 각급 당조직들을 내오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하는 한편 우리 나라의 북부국경일대와 중국 동북지방의 조선인거주지역들에 당단체들을 광범히 조직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조직들이 급속히 확대되고 무장투쟁이 강화됨에 따라 각급 당조직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당적령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는 부대안의 각급 당조직들은 물론, 국내외의 여러 지방들에 조직되여 활동하는 당조직들까지도 통일적으로 지도하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가 통일적령도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각급 당조직들에 대한 지도체계가 정연하게 서고 무장투쟁과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당적령도가 확고히 실현되게 되였습니다. 모든 당조직들이 조직적으로 결속되고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움직이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국내외의 보다 넓은 지역으로 당조직을 확대해나갔습니다. 특히 국내의 산업중심지들과 전략적으로 중요한 농어촌들에 기층당조직을 많이 내오고 그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당조직들이 중요산업부문의 로동자들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게 되였으며 전국적범위에서 당창건준비사업이 더욱 활발히 벌어지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항일혁명투쟁의 전기간에 걸쳐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렸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이 가지고있던 본질적인 약점들이 극복되고 혁명적당을 창건할수 있는 토대가 튼튼히 축성되였습니다.

간고한 항일혁명투쟁과정에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가 마련되였습니다.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마련하는것은 혁명적당건설의 근본요구입니다. 로동계급의 당을 건설하는 사업은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조직사상적기초를 마련함이 없이는 혁명적당을 창건할수 없으며 설사 당을 창건한다 하더라도 그런 당은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수 없으며 반혁명의 공세앞에서 파멸의 운명을 면할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교훈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경험이 이것을 실증하여줍니다.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마련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조직들을 내오고 당조직지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공산주의핵심들을 키워 당의 조직적골간을 튼튼히 꾸리는것입니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기층당조직을 비롯한 각급 당조직들을 내오고 그에 대한 통일적인 조직지도체계를 세워놓았습니다. 우리는 당중앙을 선포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충분한 준비밑에 당의 기층조직을 먼저 내오고 그것을 확대강화하는 방법으로 당을 창건할데 대한 방침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였습니다. 물론 핵심적인 공산주의자들을 묶어세워 당중앙을 선포하고 점차 아래당조직들을 내오는 방법으로 당을 건설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그러한 길을 걸을수 없었습니다. 당시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 대부분이 남을 쳐다보면서 파벌싸움과 말공부만을 일삼아온 종파사대주의자들이였으므로 그들에 의거하여서는 혁명적당을 창건할수 없었습니다. 혁명적당을 창건하려면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기층당조직을 내오고 당조직생활과 혁명투쟁을 통하여 종파주의와 사대주의에 오염되지 않은 참신한 새세대공산주의자들을 키워내야 하였으며 공산주의대렬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층당조직을 먼저 내오고 점차 해당 단위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상급당조직을 내오도록 하였으며 모든 당조직들이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움직이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공산주의핵심을 많이 키워냈습니다.

공산주의핵심이란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그 어떤 난관과 역경에 처하더라도 동요하지 않으며 제기된 혁명과업을 자립적으로 훌륭히 수행할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산주의핵심이 있어야 당의 조직적골간을 꾸리고 공산주의대렬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실현할수 있으며 당창건의 대중적지반을 공고히 할수 있습니다.

공산주의핵심을 키우는 가장 빠르고 혁명적인 길은 사람들을 항일무장대오에 받아들여 간고한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단련시키는것이였습니다. 항일무장대오는 사람들을 견결한 혁명가, 공산주의핵심으로 키워내는 혁명적단련의 학교였습니다. 우리는 로동자, 농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을 항일무장대오에 받아들여 원쑤들과의 피어린 투쟁속에서 끊임없이 단련시킴으로써 그들을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을 소유한 백절불굴의 혁명투사로, 정치군사적으로 준비된 공산주의핵심으로 키웠습니다.

혁명적조직생활은 사람들을 교양하고 단련시키는 위력한 수단입니다. 우리는 계급적각성이 높고 투쟁속에서 검열된 로동자, 농민들과 진보적지식인들을 당조직에 받아들이고 조직생활을 통하여 그들을 꾸준히 교양하고 단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당조직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진 우수한 공산주의핵심으로, 당의 조직적골간으로 키워냈습니다.

공산주의핵심을 키워내는데서 반일대중단체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유격구들과 국내외의 넓은 지역에 여러가지 형태의 반일대중단체들을 조직하고 거기에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반일군중을 묶어세워 일제를 반대하는 실천투쟁속에서 혁명적으로 단련시켰으며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을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준비시켰습니다.

우리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키워낸 수많은 공산주의핵심들은 우리 당의 창건을 위한 튼튼한 골간부대로 되였습니다.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마련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공산주의대렬의 순결성과 사상의지적통일을 확고히 보장하는것입니다.

공산주의대렬의 순결성과 사상의지적통일이 보장되는 기초우에서만 혁명적당을 창건할수 있으며 당의 위력을 강화할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은 당의 창건과 강화발전을 위한 근본조건이며 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공산주의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고 사상의지적통일을 강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을 말아먹은 종파분자들의 죄행을 철저히 폭로하고 공산주의자들이 종파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였으며 강철같은 조직규률을 확립하여 혁명대오안에 종파주의의 사소한 요소도 침습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조직성원들을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과 전략전술로 튼튼히 무장시켜 공산주의대렬의 사상적일치성과 행동상 통일을 보장하였습니다.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마련하는데서 중요한것은 튼튼한 대중적지반을 꾸리는것입니다.

대중적지반을 꾸리는것은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위력한 당을 창건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튼튼한 대중적지반을 가진 당만이 필승불패의 당으로 될수 있습니다.

당창건의 대중적지반을 꾸리려면 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여야 합니다. 인민대중은 혁명의 주인이지만 의식화, 조직화되지 못하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없으며 당의 믿음직한 정치적지반으로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의 전기간 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수많은 정치공작원들을 각지에 파견하여 군중정치사업을 널리 벌리도록 하였습니다. 정치공작원들은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꾸준히 교양하고 혁명화하였으며 대중단체들을 조직하여 광범한 군중을 조직적으로 묶어세웠습니다. 우리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을 혁명

투쟁에 힘있게 조직동원하였으며 그들을 투쟁을 통하여 단련시켰습니다. 실천투쟁속에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이 계급적으로 각성되고 힘있는 정치적력량으로 자라났습니다.

당창건의 대중적지반을 꾸리기 위한 투쟁은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였습니다. 1936년 5월 5일 조국광복회가 창건되였는데 이것은 당의 대중적지반을 강화하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습니다.

조국광복회가 창건됨으로써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조국광복의 기치밑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게 되였습니다.

조국광복회 조직망은 급속히 확대되였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일대는 물론, 국내 깊이까지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이 광범히 조직되였습니다.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은 매개 지방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각이한 명칭으로 조직되였습니다. 조국광복회 조직망이 국내외의 넓은 지역으로 뻗어나감에 따라 그 주위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이 굳게 결속되였으며 지어는 종교인들까지 조국광복회 조직에 뭉치여 반일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섰습니다. 그리하여 각계각층 군중에 대한 당적령도를 실현하는데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당창건을 위한 대중적지반이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가 튼튼히 마련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면 임의의 시각에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가 갖추어지게 되였습니다.

간고한 항일혁명투쟁과정에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창시되였습니다.

항일혁명의 피어린 투쟁속에서 주체의 사상체계가 확립되고 불멸의 혁명업적과 투쟁경험이 이룩되였으며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 창조되였습니다. 항일의 혁명전통에는 끝없이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부와 혁명의 고귀한 업적과 경험이 풍부히 담겨져있습니다.

항일의 혁명전통은 해방후 우리 당을 창건하고 강화발전시키는데서 튼튼한 밑천으로 되였으며 우리 당과 혁명의 억센 력사적뿌리로 되였습니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와 빛나는 혁명전통에 토대하여 조국이 해방된 다음 당을 창건하기 위한 사업에 지체없이 달라붙었습니다.

해방후 우리 나라의 정세는 매우 복잡하였습니다. 특히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판이한 정세가 조성되였습니다. 북반부에서는 나라의 주인이 된 전체 인민들이 해방의 기쁨을 안고 새 조국 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지만 남반부의 형편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남반부에서는 미군정이 실시되고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이 가혹하게 탄압당하였으며 인민의 창의에 의하여 세워졌던 인민위원회들이 강제로 해산되였습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남북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을 다 망라하는 통일적인 당을 당장 창건하는것은 곤난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통일적인 당을 창건할수 있는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 가만히 앉아 기다릴수도 없었습니다. 나라의 북과 남에 조성된 판이한

정세는 북과 남에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혁명을 발전시키며 당창건사업을 추진시킬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유리한 정세가 조성된 북반부에서 지체없이 당을 창건하도록 하였습니다. 북반부에서 당을 빨리 창건하여야 각 지방에 조직되여 활동하는 공산당조직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공산주의대렬의 조직사상적통일을 실현할수 있었으며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건국사업을 잘하여 북반부를 조선혁명의 튼튼한 기지로 전변시킬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랜 기간의 항일혁명투쟁에서 단련되고 육성된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고 국내외의 여러 지방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을 망라하여 당을 창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항일혁명투쟁에 참가한 공산주의자들만으로 당을 창건하자는 의견도 일부 제기되였습니다. 항일혁명투쟁과정에 자라난 공산주의자들만으로도 당을 얼마든지 창건할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들만으로 당을 조직하면 다른 사람들도 저마다 당을 조직하려 하였을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 나라의 공산주의운동은 분렬되고말았을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을 다 망라하여 당을 창건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여러 지방에서 분산적으로 활동하던 일부 공산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단련되지 못하였을수 있지만 항일혁명투쟁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믿음직한 골간부대가 있는 조건에서 그들을 당에 받아들여 얼마든지 조직적으로 결속할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육성된 공산주의핵심들을 각 지방에 파견하여 지방당조직들을 정비확대하고 분산적으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을 묶어세우도록 하면서 당창건준비사업을 다그쳐나갔으며 마침내 1945년 10월 10일에 강력한 당중앙지도기관인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를 창설하고 우리 당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창건은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의 탄생이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오랜 기간에 걸치는 투쟁의 빛나는 결실이였습니다. 우리 당이 창건됨으로써 조선혁명은 자기의 강력한 전투적참모부를 가지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습니다.

2. 조선로동당은 주체의 혁명적당

조선로동당은 로동계급의 새형의 당, 주체형의 맑스-레닌주의당입니다. 조선로동당을 한마디로 특징지으면 주체의 혁명적당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당이며 주체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입니다.

당이란 사상과 리념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뭉친 사람들의 정치적조직체입니

다. 당은 일정한 계급과 사회적집단 또는 사회공동의 요구를 대표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합니다. 당의 성격과 사명은 그 사회계급적기초와 지도사상에 의하여 규정됩니다.

조선로동당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 근로인민대중의 대중적당입니다.

우리 당은 로동계급의 전위투사들을 핵심으로 하고 로동계급과 함께 농민과 근로인테리의 우수한 선진분자들을 자기 대오에 널리 망라하고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로동계급과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모든 활동을 진행합니다. 우리 당의 마크는 우리 당의 혁명적이며 대중적인 성격을 뚜렷이 상징하고있습니다.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은 주체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나온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이며 우리 혁명과 건설의 가장 옳바른 지도적지침입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혁명적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입니다.

주체사상은 우리 나라의 혁명실천에서 그 정당성이 뚜렷이 검증되였으며 장기간의 투쟁과정을 통하여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되였습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당건설과 모든 당활동을 진행합니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 건설과 활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사람을 기본으로 보고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데 모든것을 복종시키며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합니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조직사상적공고화의 기초입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당을 조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전당의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함으로써 당의 통일단결을 확고히 보장합니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우리 당의 지도적지침으로 됩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의 로선과 전략전술을 세우며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대중의 창조력을 조직동원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합니다.

우리 당은 언제나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하여왔습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창건되고 강화발전되였으며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령도하여왔습니다.

조선로동당의 기본사명은 주체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입니다.

주체위업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발전하는 인민대중의 위업이며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입니다.

우리는 당의 창건을 선포할 때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사회의 민주주의적개혁을 실시하고 우리 나라에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것을 당의 강령으로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목표로 내세웠던 투쟁강령이였습니다. 우리 당은 당의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였으며 그 결과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이미 우리 당의 첫 강령이 빛나게 실현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국적범위에서는 이 강령이 실현되지 못하였

습니다.

주체위업을 수행하는데서 오늘 우리 당앞에 나선 당면한 혁명임무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는것입니다.

우리 당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것을 당의 당면임무로 규정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공산주의건설위업을 완수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대한 혁명과업입니다.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하여 적대계급의 준동과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이 없어지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가 없어질 때,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고 근로자들이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될 때 공산주의건설위업을 실현하는데서는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것은 오늘 우리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입니다. 우리 당은 이미 공화국북반부에서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의 과업을 완수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함으로써 정치와 경제, 사상과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여놓았습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를 다그치며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전략적과업들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습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는것은 우리 당앞에 나선 가장 절박한 투쟁과업입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할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보장할수 있습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공화국북반부의 혁명력량을 더욱 강화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애국투쟁을 힘있게 지원하며 우리 혁명의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고있습니다.

주체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우리 당의 최종적인 혁명임무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것입니다.

공산주의사회는 낡은 사회의 유물이 종국적으로 청산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인류의 리상사회입니다.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사회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건설될수 있습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

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고 사회와 자연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여야만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에로 넘어갈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것을 당의 최고강령으로 내세우고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 혁명을 잘하는것과 함께 세계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합니다.

세계혁명은 전세계적범위에서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청산하고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실현하며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세계혁명은 모든 공산당, 로동당들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공동의 국제적위업이며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매개 나라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국제적의무입니다.

세계혁명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것입니다. 자주화된 세계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완전히 청산된 세계이며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자주권이 완전히 실현된 세계입니다. 온 세계를 자주화하면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게 됩니다.

세계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입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세계적범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이룩하고 인류해방의 과업을 완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입니다. 공산주의가 전세계적범위에서 승리하여야 자주성을 위한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이 종국적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세계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세계 여러 나라 로동계급과 인민들이 국제적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기치,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형제적 공산당, 로동당들을 비롯한 세계의 진보적정당들과 굳게 단결하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온갖 침략과 예속을 반대하고 인민들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갈것입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우리 당의 위업은 굽임없이 계속되는 투쟁을 통하여서만 실현될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끝까지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할것입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그 성격과 사명으로 보나 활동방식과 사회력사적지위로 보나 다른 정당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의 본성과 특성에 맞는 고유한 원리와 원칙에 기초하여 건설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에만 당이 자기의 령도적기능과 력사적사명을 다할수 있습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언제나 사람과의 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온 사회에 대한 정

치적령도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도록 당건설과 당활동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령도를 실현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의 근본원리입니다.

우리 당은 처음부터 당사업의 기본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풀어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사람과의 사업은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조직적으로 묶어세워 그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당활동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은 주체사상의 요구입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것을 요구합니다. 이로부터 당건설과 당활동에서는 언제나 사람을 중심에 놓아야 하며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사람과의 사업은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정치를 실현하는 기본방식입니다. 로동계급의 당의 정치는 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이며 그 근본요구는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에 맞게 사람들을 교양하고 묶어세워 그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도록 하는것입니다. 당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치적 교양자이며 조직자입니다. 당사업의 대상은 사람이며 당의 임무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고 묶어세워 그들이 높은 열의를 가지고 혁명투쟁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의 사업은 당사업의 기본내용으로, 당의 고유한 활동방식으로 되며 당사업과 당활동은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진행되여야 합니다.

당은 사회의 령도적정치조직입니다. 당의 령도밑에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정치활동이 진행되며 혁명과 건설이 전진합니다. 인민대중의 정치활동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령도하는 여기에 사회에서 로동계급의 당이 차지하는 독특한 지위와 역할이 있는것입니다. 당은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할 때에만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의 참다운 대표자로 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이끌어나가는 참다운 령도적정치조직으로 될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혁명적당건설의 원리를 구현하여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참답게 옹호할수 있었으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었습니다.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고 위력한 불패의 당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당건설에서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이 당건설에서 견지하고있는 기본원칙은 첫째로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이며, 둘째로 당이 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는것이며, 셋째로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것입니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는것은 인민대중을 위하여 투쟁하며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활동하는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적요구입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어야 백전백승하는 불패의 당으로 될수 있습니다. 인민대중속에 뿌리박지 못하고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당은 공중루각과 같으며 그러한 당은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수도 없습니다.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당만이 필승불패의 위력을 가질수 있으며 끊임없이 강화발전될수 있습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룸으로써만 지도와 대중을 옳게 결합시켜 인민대중을 력사의 위대한 창조자로 만들수 있습니다. 당과 인민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루는 여기에 당의 위력이 있으며 또한 인민대중의 위대성이 있는것입니다. 사회력사의 주체이며 혁명의 담당자인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에 의해서만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혁명의 힘있는 동력으로 될수 있습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대중과 한덩어리가 되여 대중을 혁명적으로 이끌어줌으로써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대중으로 하여금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적극 떨쳐나서게 합니다.

당이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당을 근로인민대중의 대중적당으로 건설하여야 하며 당활동에서 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여야 합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한다는것은 당건설의 전행정에 당의 혈통을 순결하게 이어나가며 당건설의 중요한 원칙들을 일관하게 견지해나간다는것을 말합니다.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것은 공산주의운동과 당발전의 합법칙적요구입니다. 공산주의운동과 당건설위업은 대를 이어 계속되는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여러 세대에 걸쳐 장기적으로 진행되며 공산주의운동이 발전하는 과정에 세대교체가 끊임없이 진행되는 조건에서 당건설위업도 대를 이어 계속되여야 합니다.

당건설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는데서 기본은 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계승하는것입니다.

당건설에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계승되지 못하면 혁명의 대가 바뀔때 당의 혁명적성격과 투쟁업적을 고수할수 없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보장할수 없으며 결국 당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끝까지 수행해나갈수 없게 됩니다.

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은 당과 사회가 발전해나가는 전과정에 변함없이 계승되고 보장되여야 합니다.

당건설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는데서 당의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혁명전통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과 당건설위업의 완성을 위한 귀중한 혁명적재보이며 당과 혁명의 대를 이어주는 명맥입니다. 혁명전통에는 당의 지도사상과 지도리론, 지도방법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으며 혁명투쟁의 전력사적기간에 이

룩되고 축적된 혁명의 고귀한 업적과 경험이 집대성되여있습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과 당건설위업은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완성될수 있습니다. 만일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하지 못하면 당과 혁명의 명맥을 이어나갈수 없으며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없습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을 당건설의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혁명의 시원이 열린 때로부터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과정에 이룩되고 발전풍부화된 혁명전통의 모든 내용을 전면적으로 계승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혁명적인 당건설 원리와 원칙들을 확고히 틀어쥐고 그것을 당건설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당건설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수 있었으며 우리 당을 오늘과 같은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었습니다. 우리 당 건설의 력사적경험은 바로 주체의 당건설 원리와 원칙들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여 우리 당을 로동계급의 새형의 당,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과정에 이룩한 고귀한 경험입니다.

3. 당대렬의 조직사상적공고화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는것은 당건설의 기본내용이며 당사업의 중심과업입니다.

당건설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당을 창건하고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끊임없이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끊임없이 강화하여야만 당이 령도적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으며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다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업에서는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는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는 사업을 언제나 당사업의 중심과업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벌려왔으며 그 과정에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얻었습니다.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입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입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움으로써만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실현할수 있으며 전당에 강한 조직규률과 정연한 조직체계를 확립할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왔습니다.

우리 당이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진행한 주되는 투쟁은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이였습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전당을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당의 유일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잡사상들을 철저히 극복하여야 합니다.

주체를 세우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인 동시에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잡사상들을 극복하고 전당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이였습니다.

우리 나라 력사발전의 특수성과 우리 나라가 처한 복잡한 환경으로 하여 한때 우리 당안에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경향이 적지 않았습니다.

사대주의는 큰 나라를 섬기는 노예적굴종사상이며 자기 민족을 멸시하는 민족허무주의사상입니다. 사대주의에 물젖으면 무턱대고 남을 숭배하고 남에게 추종하게 되며 덮어놓고 자기것은 깔보고 남의것을 떠받들게 됩니다. 사대주의자들은 례외없이 교조주의자들입니다.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며 당이 사대주의를 하면 혁명과 건설을 망치먹습니다. 바로 여기에 사대주의의 치명적해독성이 있습니다.

사대주의는 지난날 우리 민족의 발전과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에 헤아릴수 없는 해독을 끼쳤습니다. 우리 나라 력사를 돌이켜보면 지난날 나라가 망한것도 사대주의때문이였으며 초기공산주의운동이 실패한것도 사대주의때문이였습니다.

사대주의는 나라가 해방된 다음에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방해하였으며 우리 당 건설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였습니다. 사대주의, 교조주의에 물젖은자들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 의거하지 않고 남의것을 기계적으로 본따려 하였으며 자체의 힘을 믿지 않고 남에게 의존하려 하였습니다. 사대주의, 교조주의의 해독성은 전쟁시기 더욱 심하게 나타났으며 전후시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더는 참을수 없는것으로 되였습니다.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뿌리빼지 않고서는 전당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수 없었을뿐아니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원만히 실현할수 없었습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첫시기부터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왔으며 특히 전후시기에 주체를 세울데 대한 단호한 방침을 내세우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사대주의, 교조주의의 사소한 표현도 묵과하지 않고 제때에 사상투쟁을 벌려 극복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우리 나라의 실정을 깊이 연구하고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 의거하여 사업하도록 사상사업을 강화하였으며 일군들속에서 모든 문제를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풀어나가는 기풍을 세우기 위하여 투쟁하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험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그것을 기계적으로 본따지 않고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도록 하였습니다.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는 커다란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전당에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꽉 들

어찼으며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당안에서는 남을 쳐다보거나 남에게 굴종하는 현상을 찾아볼수 없습니다.

우리 당이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진행한 주되는 투쟁은 또한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분파적요소들을 반대하는 투쟁이였습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전당의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하는것과 함께 조직적단결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당대렬의 통일단결은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분파적요소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습니다.

종파주의는 당의 통일과 단결을 좀먹고 혁명운동을 파괴하는 반당적이며 반혁명적인 요소이며 그것은 부르죠아사상, 특히 개인영웅주의와 공명출세주의에 사상적근원을 두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종파주의자들은 공명을 떨치고 출세와 탐위적인 야욕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당안에서 종파적요소가 조금이라도 허용된다면 당대렬의 통일단결이 이루어질수 없으며 나중에는 당의 존재자체도 유지할수 없게 됩니다.

우리 당이 처음부터 반종파투쟁을 강하게 벌리지 않으면 안되였던것은 초기공산주의운동안에 나타났던 종파주의를 극복하지 못한채 나라의 해방을 맞이한 사정과 관련되였습니다. 1925년에 조직된 당이 종파분자들의 파벌싸움과 일제의 탄압에 의하여 해산된 다음 조국이 해방될 때까지 우리 나라에는 로동계급의 통일적인 당이 없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국내외에 분산되여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을 계통적으로 결집할수 없었으며 종파분자들과의 투쟁을 조직적으로 힘있게 벌릴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종파주의는 계속 남아있게 되였으며 종파분자들의 책동도 여러가지 형태로 지속되여왔습니다.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쳐온 종파주의를 극복해야 할 력사적과업이 해방후 우리 당앞에 나섰습니다.

우리 당은 될수록 많은 사람들과 단결하려는 목적에서 지난날 파벌싸움에 참가하였거나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종파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관대히 포섭하여 교양개조하는 방침을 견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종파분자들은 당의 꾸준한 교양과 거듭되는 충고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의 악습을 버리지 않고 종파행동을 계속하면서 당의 통일단결을 엄중하게 방해하였습니다. 종파분자들은 특히 우리 혁명앞에 시련과 난관이 닥쳐올 때마다 머리를 쳐들고 당에 도전하여나섰습니다. 종파분자들은 저들의 야욕을 실현하기 위하여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적들과 결탁하여 반혁명의 길로 나갔으며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시기에는 당과 정부를 뒤집어엎기 위한 음모까지 꾸미였습니다.

우리 당은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음흉한 책동을 제때에 간파하고 당조직들과 당원들을 발동하여 적발분쇄하였으며 그들을 조직적으로 청산하였습니다. 우리는 종파분자들을 조직적으로 청산하는것과 함께 종파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기 위한 전당적인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우리 당은 반종파투쟁에서 주동분자와 피동분자를 엄격히 가르고 그들의 죄과에 따라 사람당, 전당으로 처리하는 원칙을 견지하였습니다. 주동분자는 철저하게

치고 피동분자는 포섭하여 교양하였습니다.

종파주의를 반대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열렸던 당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와 전후시기에 있은 1956년 8월전원회의 그리고 1958년 3월 당대표자회는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회의들이였습니다. 우리는 당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를 계기로 반당반혁명간첩도당을 적발숙청하였으며 8월전원회의와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종파의 마지막잔당들을 청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주의를 극복하고 당대렬의 조직적단결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조선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을 확고히 실현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종파주의를 청산한 다음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새로운 단계에로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전당이 당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철통같이 뭉쳐있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단합되여있습니다. 그 어떤 힘도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이룩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허물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행한 반종파투쟁은 매우 복잡하고 간고한 투쟁이였습니다. 털어놓고 말하여 우리 당이 진행한 반종파투쟁은 대내의 적을 반대하는 투쟁이였으나 그것은 미제를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 못지않은 어려운 투쟁이였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반종파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은 주되는 요인은 우리 당의 핵심이 튼튼히 꾸려져있은데 있습니다. 오랜 기간의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에서 단련된 우수한 공산주의자들로 핵심이 튼튼히 꾸려져있었기때문에 우리 당은 종파분자들의 책동을 성과적으로 물리칠수 있었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적각성을 높이고 당안에서 비판과 자기비판, 특히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강화한것도 우리 당 대렬을 분렬시키려고 책동하던 종파분자들을 제때에 적발숙청할수 있게 한 주요한 요인으로 되였습니다.

우리 당은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오랜 기간의 투쟁을 통하여 전당이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되고 그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통일단결된 위력한 당으로,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밑에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혁명적당으로 되였습니다.

우리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여 여기에 자만하여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지난 기간 안팎의 정세가 복잡하고 우리 혁명이 시련을 겪을 때 당안에 숨어있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당을 공격하여나섰던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혁명의 길우에 있습니다. 우리 혁명이 전진하는 과정에는 예견하지 않았던 난관과 시련에 부닥칠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혁명이 시련을 겪을 때 우리 당안에서 변절자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누가 단언할수 있겠습니까. 더우기 우리 내부에 아직도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고 밖으로부터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가 계속되고있는 조건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이색적인 사상조류가 되살아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습니다.

원래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로동계급의 당이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계속하여야 할 항구적인 사업입니다.

당건설의 합법칙적요구로 보나 우리 당 건설의 실천적경험으로 보나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계속 심화발전시키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혁명이 심화발전되는데 맞게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대를 이어가며 계속하여야 합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기본적은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에 대한 충실성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도록 하는것입니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에 대한 충실성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여야 당의 유일사상과 어긋나는 이색적인 사상조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수 있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킬수 있으며 당앞에 어떤 풍파와 시련이 닥쳐와도 끝까지 당과 운명을 같이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 우리가 얻은 심각한 교훈이며 귀중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하고 어떤 복잡한 정세와 역경 속에서도 당을 진심으로 받들고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주체의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이룩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견결히 수호하며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 건설의 실천적경험은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는데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면서 당대렬을 조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간부들과 당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사업을 잘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는 당건설의 실천적경험에 비추어 당대렬을 조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간부들과 당원들을 사상적으로 교양하며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사업을 계속 잘해나가야 합니다.

당대렬을 조직적으로 공고히 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은 당원들이 뭉친 조직적부대입니다. 당대렬을 주체형의 혁명가들로 튼튼히 꾸리고 전당을 하나의 공고한 조직적통일체로 만들 때에만 당이 인민대중을 령도하는 참다운 정치조직으로 될수 있습니다.

당대렬을 조직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하여서는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려야 합니다.

간부는 당의 골간력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입니다. 당은 간부들을 핵심으로 하여 조직되며 간부들의 역할에 의하여 당의 모든 활동이 보장됩니다. 결국 간부가 모든것을 결정합니다.

간부사업에서 중요한것은 간부를 선발배치하는 사업을 잘하는것입니다.

간부의 첫째가는 표징은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입니다. 간부는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운명을 같이할 높은 사상적각오를 가져야 하

며 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합니다. 간부는 또한 풍부한 지식과 높은 기술실무적자질,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혁명적전개력이 있어야 하며 인민적사업작풍을 지녀야 합니다.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높은 실무능력, 고상한 인민적품성, 이것이 우리 당이 요구하는 간부의 표징입니다.

간부사업에서는 간부의 표징을 원만히 갖춘 사람들을 간부로 선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간부를 료해하고 선발배치하는데서 본인을 위주로 하여 사람을 평가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자면 사람을 리력문건이나 보고 평가할것이 아니라 실지사업을 통하여 료해하고 검열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사람에 대한 평가를 옳게 할수 있으며 충분히 파악되고 검열된 사람들을 간부로 등용할수 있습니다.

간부대렬의 질적구성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은 간부대렬을 정치적으로, 계급적으로 튼튼히 꾸리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간부대렬을 꾸리는데서 로동계급출신간부의 비중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당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며 따라서 로동계급은 계급적성분상으로 볼 때 우리 당 간부의 기본표징입니다. 간부대렬을 꾸리는데서 로동계급출신간부의 비중을 체계적으로 높여야 당이 자기의 계급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로동계급의 전위부대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간부의 기본원천을 로동계급속에 두어야 하며 로동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로동자들, 특히 기간공업부문의 핵심로동자들을 간부로 많이 등용하여야 합니다.

간부대렬을 꾸리는데서 로간부와 젊은 간부를 적절히 배합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로간부는 경험이 많고 문제처리에서 로숙하며 젊은 간부는 새것에 민감하고 혈기왕성하며 진취성이 강합니다. 간부대렬을 로간부와 젊은 간부를 적절히 배합하여 꾸려야 우리 당을 로숙하고 세련된 당으로, 패기와 정열에 넘쳐 투쟁하는 활력있는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습니다. 간부대렬을 로간부와 젊은 간부를 적절히 배합하여 꾸리는것은 당건설과 혁명발전의 계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랜 기간 당과 혁명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여온 로간부들이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하여 계속 일을 잘하도록 적극 도와주는 한편 주체교육을 받고 실천투쟁속에서 단련된 젊은 일군들을 대담하게 간부로 등용하여야 합니다.

간부사업에서 중요한것은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하며 그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입니다.

간부를 료해하고 선발배치하는것은 간부사업의 첫공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쇠붙이를 공기속에 그냥 내버려두면 녹이 쓸어 못쓰게 되는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간부로 등용한 다음 꾸준히 교양하고 단련시키지 않으면 사상적으로 변질될수 있으며 나중에는 혁명대오에서 도태될수 있습니다. 모든 간부들을 끊임없이 혁명화하여야 하며 간부의 혁명화는 대중의 혁명화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간부들을 혁명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 모든 간부들이 사상적으

로 로쇠되지 않고 변함없이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지칠줄 모르는 혁명적 투지와 열정을 가지고 충실히 일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간부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는것은 당의 령도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며 간부들이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하는 결정적조건입니다. 혁명과 건설이 심화될수록 간부들의 자질문제는 더욱더 중요하게 제기됩니다.

간부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그들속에서 학습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간부들은 혁명적인 학습기풍을 세우고 학습을 생활화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군사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지식을 소유하며 자기 사업에 정통하여야 합니다. 특히 책임간부일수록 학습을 더 많이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간부들의 학습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간부들이 학습을 잘하도록 통제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실생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확증된 한달강습체계를 잘 운영하여 모든 간부들이 해마다 한번씩 의무적으로 정규교육망에서 학습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간부들을 계획적으로 재교육하며 방식상학 같은것을 널리 조직하여 간부들의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간부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간부양성체계를 바로세우고 후비간부를 전망성있게 키우는것입니다.

후비간부양성사업을 잘하여야 날로 늘어나는 간부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으며 간부대렬의 질적구성을 끊임없이 개선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지사업을 통하여 후비간부를 료해장악하고 체계적으로 키우는 한편 간부양성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거기에서 정치실무적으로 준비된 간부를 많이 키워내야 합니다.

당대렬을 조직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하여서는 당대렬을 정예화하여야 합니다.

당대렬을 정예화한다는것은 당대렬을 혁명의 정수분자들의 집단으로 꾸린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다시말하여 모든 당원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운다는것을 말합니다. 주체형의 혁명가는 공산주의적인간이 지녀야 할 정치사상적풍모와 자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체현하고있는 참다운 공산주의자입니다. 당대렬을 정예화하는것은 우리 당 건설의 근본요구의 하나입니다.

당대렬의 정예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모든 당원들이 당규약상 요구에 따라 사업하고 생활하도록 하는것입니다.

당규약은 당원들의 생활규범이며 행동준칙입니다. 당원들이 당규약상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면 훌륭한 혁명가로 될수 있습니다. 당원들은 당규약상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함으로써 자신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당대렬의 정예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세포핵심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 모든 당원들을 정수분자로 키우는것입니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원래 계급의 선진분자들의 집단입니다. 그러나 당을 이루고있는 당원들의 정치사상적준비정도가 다같은것은 아닙니다. 당안에는 정치사상적준비정도가 높은 당원도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당원도 있습니다. 모든 당원

들을 한꺼번에 다 주체형의 혁명가로,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키운다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준비된 당원들로 세포의 핵심대렬을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 핵심대렬을 끊임없이 늘이는 방법으로 모든 당원들을 정수분자로 키워야 합니다.

당대렬의 정예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장성사업을 바로하는것입니다.

당장성사업을 바로하여야 당대렬을 주체형의 혁명가들로 끊임없이 확대할수 있으며 당의 전투력을 계속 강화할수 있습니다.

당장성사업은 당의 계급적성격과 혁명적원칙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에는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의 우수한 핵심분자들이 들어올수 있습니다. 당조직들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가운데서 당원후비를 료해장악하고 체계적으로 교양하며 당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개별적입당절차에 따라 제때에 당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적 투지와 기백이 넘쳐나는 새세대들을 당에 많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장성사업에서는 당대렬을 늘인다고 하면서 당문을 무원칙하게 열어놓거나 당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당문을 닫아매는것과 같은 좌우경적경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문을 무원칙하게 열어놓으면 당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할수 없으며 반대로 당문을 아주 닫아매면 당대렬의 량적장성을 보장할수 없을뿐아니라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당조직들은 이와 같은 경향들을 반대하고 당장성사업을 당적, 계급적 원칙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당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제때에 당에 들어올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장성사업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 당력량이 골고루 포치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으며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할수 있습니다.

당대렬을 조직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안에서 민주주의를 발양하며 혁명적규률을 세워야 합니다.

당은 같은 사상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자원적으로 뭉친 조직이며 당의 주인은 당원대중입니다. 당안에서는 독단과 전횡이 허용될수 없으며 민주주의가 철저히 보장되여야 합니다. 당안에서 민주주의가 보장되여야 당원들이 높은 열의와 창발성을 가지고 당사업과 당활동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습니다.

당안에서 민주주의를 높이 발양하기 위하여서는 당원들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존중하여야 하며 당원들이 당적권리를 옳게 행사하도록 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각급 당지도기관들을 민주주의적으로 선거하고 당원들의 집체적의사에 따라 모든 문제를 토의결정하며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각급 당지도기관들은 당원대중의 감독과 통제 밑에서 사업하여야 하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당원들앞에 정상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당은 혁명을 위하여 조직된 정치적부대이며 당의 전투력은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에 있습니다. 당안에 혁명적인 규률을 세워야 당대렬의 행동상 통일성을 보장

할수 있으며 전당의 단합된 힘으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습니다.

우리 당의 규률은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을 조직적으로 굳게 결속하고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혁명적규률로 되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당의 조직원칙과 규범대로 활동하며 전당이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워야 합니다.

당의 규률은 모든 당원들에게 다같이 적용되는 하나의 규률입니다. 당안에서는 높은 당원과 낮은 당원이 따로 있을수 없으며 이중규률이 허용될수 없습니다. 당규률에 복종하는것은 당원의 의무입니다. 당원들은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하나의 당규률에 복종하여야 합니다.

당의 규률은 당원대중의 높은 자각성에 기초하여서만 유지될수 있으며 생활력을 발휘할수 있습니다. 당원들은 당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당규률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당원들의 자각성은 강한 요구성과 결합될 때 더욱 높이 발휘될수 있습니다. 당조직들은 모든 당원들이 당규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합니다.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하여서는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당사업의 기본고리이며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한 담보입니다. 당생활을 강화하여야 간부들과 당원들을 당에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수 있으며 당대렬을 공고히 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습니다.

당생활이란 당원들의 정치생활, 조직사상생활입니다. 당원이 되여 당생활을 하는것은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영예롭고 값높은 삶으로 됩니다.

우리는 당원들속에서 당생활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이 자신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단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원은 당조직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수 없으며 정치적생명을 유지할수 없습니다. 당원은 당조직을 어머니품과 같이 여기고 존엄있게 대하여야 하며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며 당조직의 지도와 통제를 받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당원들속에서 조직관념을 높이고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세워 모든 당원들이 당생활규범에 따라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원들의 당생활은 끊임없는 교양과 비판을 통한 사상개조과정이며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사상적단련과정입니다.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 헌신적복무의 정신이며 이것은 당원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품성입니다. 당원들은 당생활을 통하여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조직들이 당생활을 옳게 조직하고 그에 대한 지도를 잘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당생활총화와 당학습을 비롯한 당조직사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조직

진행하고 모든 당원들이 거기에 빠짐없이 참가하도록 하며 당화의를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실속있게 조직운영하여야 합니다. 당조직사상생활을 조직진행하는데서 우리 당이 세운 새로운 당생활체계를 잘 운영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당조직들은 항일유격대의 당생활기풍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새로운 당생활체계를 실속있게 운영하여 당원들을 철저히 혁명화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당원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당적분공을 옳게 주고 그 수행을 적극 도와주며 분공수행정형을 제때에 총화하고 끊임없이 새 과업을 주어 모든 당원들이 늘 움직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비판을 강화하여 당원들이 언제나 강한 비판의 분위기속에서 당생활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비판을 강화하려면 비판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반대하고 원칙적비판의 정신으로 당원들을 교양하여야 합니다.

당생활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생활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시킨다는것은 당원들이 당조직사상생활을 혁명임무를 수행하는데 중심을 두고 진행하도록 한다는것을 말합니다. 혁명가로서의 당원들의 활동과정은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며 따라서 당원들에게 있어서 혁명과업수행을 떠난 순수한 당생활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당조직들은 언제나 당원들이 맡겨진 혁명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당생활을 조직지도하며 혁명과업수행정형을 놓고 당원들의 당생활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하여서는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당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간부들과 당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할수 있으며 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할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 기초우에서만 당대렬을 조직적으로 공고히 하는 사업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당사업에서는 언제나 사상사업에 선차적인 주의를 돌려야 하며 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합니다.

당사상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당과 혁명대오를 사상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불러일으키는 사업입니다.

우리 당 사상사업의 기본임무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광범한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치는것입니다.

우리는 당사상사업의 목적과 사명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우리 당이 사상사업에서 언제나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은 유일사상교양입니다.

유일사상교양에서 진수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에 끝없이 충실하도록 교양하는것입니다. 당에 대한 충실성은 공산주의혁명가의 가장 숭고한 풍모입니다. 우리는 충실성교양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은 주체사상입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고 주체의 혁명리론과 령도방법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우리 혁명의 올바른 전략전술이며 우리의 모든 활동의 지침입니다. 당정책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정책의 본질과 그 정당성을 똑똑히 알고 당정책을 자기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사람들을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가로 키우는데 필요한 사상정신적자양분을 전면적으로 담고있으며 주체형의 혁명가가 지녀야 할 숭고한 풍모를 생동한 모범으로 구현하고있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혁명교양, 공산주의교양은 우리 당 사상사업의 중요한 내용을 이룹니다.

혁명교양,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관이 확고히 서고 공산주의적풍모를 갖춘 혁명가로 키울수 있습니다. 우리는 혁명교양,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키워야 합니다.

혁명교양, 공산주의교양에서는 계급교양과 집단주의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 공산주의도덕교양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은 공산주의사상에서 핵을 이루며 공산주의자의 사상정신적풍모는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에 기초하여 형성되고 공고화됩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확고한 로동계급적관점을 가지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끝까지 충실하며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미워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합니다. 특히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하고 간고한 혁명투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세대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며 공산주의자들의 활동방식입니다. 사상적측면에서 본다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은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극복하고 집단주의를 확립하는 과정입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반대하고 집단과 사회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따라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애국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애국주의이며 그것은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정권, 사회주의제도가 있는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는 정신입니다. 자기 조국과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공산주의혁명가로 될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자야말로 참다운 애국자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령도밑에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서 살며 혁명하는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민족문화유산과 전통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주의조국과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원들

과 근로자들이 국가재산과 사회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공동경리를 잘 관리운영하고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도록 교양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애국주의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결부되여있습니다. 자기 나라 혁명에 충실한 사람만이 국제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충실할수 있으며 또한 진정한 국제주의자가 되여야 참다운 애국자로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 그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며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고 세계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합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도덕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공산주의적의리를 소중히 여기고 혁명적동지애를 높이 발휘하며 공중도덕과 사회질서를 잘 지키고 사회주의 생활양식과 생활준칙에 맞게 생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상교양사업을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사상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사람들의 머리속에 깊이 뿌리박힌 낡은 사상은 매우 보수적이고 집요합니다. 낡은 사상은 꾸준한 사상교양과 함께 강한 사상투쟁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극복할수 있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그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뽑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반동적사상독소가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하여야 합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사상문화적침투를 통하여 다른 나라의 민족문화를 말살하며 인민들의 건전한 사상의식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부화타락하게 만들려고 책동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반동적인 부르조아사상과 썩어빠진 자본주의생활양식이 우리 내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사상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려면 사상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바로세우고 그에 의거하여 사상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 사상사업의 기본형식은 선전과 선동입니다. 선전사업은 대중에게 당의 사상과 리론, 로선과 정책을 체득시키는 사업이며 선동사업은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사업입니다. 당사상사업에서는 선전사업과 선동사업을 옳게 결합하여 다같이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선전사업은 론리정연하고 진실하게, 알기 쉽고 설득력있게 하여야 하며 선동사업은 감동적으로 기백있게 그리고 구체적인 정황과 계기에 맞게 기동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론리성있고 진실하고 통속적인 선전과 호소성과 전투성, 기동성있는 선동만이 원만한 성과를 거둘수 있으며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습니다.

선전사업과 선동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선전선동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선전선동력량을 튼튼히 꾸려야 하며 선전과 선동의 여러가지 방법과 수단을 널리 활용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교양망과 강연선전망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선동체계를 바로세우고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선동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출판보도물과 문학예술은 대중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는 위력한 수단입니다. 출판보도물의 정치사상적수준을 높이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만들어 그것을 선전사업과 선동사업에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합니다.

학습강사와 강연강사, 선동원, 선전대를 비롯한 선전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선전일군은 남을 교양하는 사람인것만큼 누구보다도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선전선동사업을 릉숙적으로 실속있게 할수 있습니다. 선전일군들은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며 문화적소양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상사업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지도를 보장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상사업은 사람들의 사상을 다루는 사업인것만큼 당중앙위원회가 유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상사업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지도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사상사업의 순결성을 보장할수 없게 되고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잡사상의 침습을 막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당이 지난 기간 당사상사업에서 얻은 심각한 교훈입니다.

각급 당조직들은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지도밑에 모든 사상사업을 당의 의도와 요구에 맞게 조직진행하여야 합니다.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하여서는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당대렬을 조직적으로 공고히 하고 간부들과 당원들을 교양하는 당사업의 성과는 전적으로 당조직들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각급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습니다.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조직들을 합리적으로 내오고 그 지도기관들을 튼튼히 꾸려야 합니다.

당은 당조직들의 유기적결합체입니다. 당은 각급 당조직들이 튼튼히 꾸려지고 모든 당조직들이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전일적인 체계를 이룰 때에만 조직된 부대로서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습니다.

각급 당조직을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도록 행정지역단위와 생산 및 사업 단위들에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 합니다. 당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데서 특히 중요한것은 기층조직을 옳게 조직하는것입니다. 기층당조직을 옳게 조직하여야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고 전당을 강화할수 있을뿐아니라 당이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을수 있으며 군중이 있는 모든곳에 당의 혈맥이 통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층당조직을 해당 단위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직하는데 언제나 깊은 주의를 돌려

야 합니다.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되는데 따라 새로운 생산단위들이 많이 나오고 일부 행정지역들이 개편될수 있습니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조직개편사업을 기동적으로 잘하여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를 준비된 일군들로 꾸리는것은 해당 단위의 참모부로서의 당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중요한 담보입니다. 각급 당위원회를 지위본위로 꾸리는 경향을 없애고 당에 끝없이 충실하며 지도능력이 있고 군중의 신망이 높은 일군들로 꾸리는 원칙에서 해당 분야의 사업을 잘 아는 여러 부문의 간부들과 생산현장에서 로동하는 핵심당원들을 적절히 배합하여 꾸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급 당위원회들의 지도적역할을 높이고 당원대중의 지혜와 창발성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 당위원회를 구성하는데서 우리 당이 내놓은 준후보위원제를 옳게 실시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준후보위원제는 당위원회들에 생산로동에 직접 참가하고있는 핵심당원들을 망라시키는 제도입니다. 준후보위원제는 당위원회들이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아래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며 대중의 요구를 반영하여 당정책집행을 위한 옳은 대책을 세울수 있게 합니다. 당조직들은 당위원회를 꾸리는데서 생산현장에서 로동하는 핵심당원들을 망라시키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각급 당조직들이 자기의 위치와 임무에 맞게 사업을 원만히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의 모든 활동은 당조직들을 통하여 실현되며 당조직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서만 당의 로선과 정책이 옳게 관철될수 있습니다. 당조직들의 활동을 강화하는데서 특히 중요한것은 군당위원회의 역할을 높이는것입니다.

군당위원회는 직접 기층당조직들을 지도하며 당정책을 집행하는 당의 말단지도단위이며 집행단위입니다. 군당위원회는 기층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기층당조직들의 활동을 일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하며 군안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여야 합니다. 군당위원회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정책을 침투시키고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합니다.

기층당조직은 당원들이 소속되여 생활하는 당생활의 거점이며 당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전투단위입니다. 기층당조직들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할수 있고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여 당앞에 나선 모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습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 당의 말단기층조직은 당세포입니다. 당세포의 기본임무는 당원들의 당생활을 조직하고 지도하는것입니다. 당세포는 당원들의 당생활을 당규약상 요구대로 옳게 조직지도하는데 기본을 두고 사업하여야 합니다. 당세포는 당생활을 통하여 당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조직사상적으로 단련시키며 그들이 혁명과업수행에서 선봉적역할을 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당위원회의 지도기능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집체적지도는 당위원회활동의 기본방식이며 당원들의 지혜와 힘에 의거하는 혁명적지도방법입니다. 집체적지도는 당위원회의 활동에서 개인의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광범한 대중의 창발성과 재능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지도를 과학적으로 원만히 할수 있게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들은 당사업과 혁명과업수행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반드시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그에 따라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들은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열고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시켜 제기된 문제들을 당과 혁명의 요구와 대중의 리익에 맞게 토의결정하며 정치조직사업을 잘하여 당위원회의 결정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위원회가 집체적지도기능을 옳게 수행하려면 당위원회 위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당위원회 위원들은 당위원회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며 당의 결정과 위임분공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당위원회의 활동을 옳게 조직하고 위원들의 당적분공수행정형을 일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하며 당위원회결정을 집행하는데서 모범이 되여야 합니다.

당위원회의 지도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위원회부서들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당위원회부서들은 혁명적직능에 따라 사업을 정규화하고 담당한 분야의 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합니다. 당위원회의 모든 부서들이 자기 직능을 원만히 수행하는 기초우에서 부서들사이의 배합 및 협동 작전을 잘하여야 합니다. 당위원회부서들은 부서호상간에 사업을 일상적으로 협의하고 공동으로 작전하며 당위원회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 긴밀히 협동하여야 합니다.

당위원회부서들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조직부와 선전부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합니다. 조직부는 당원들의 당생활지도를 기본임무로 틀어쥐고 당생활지도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선전부는 선전선동사업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혁명에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교양개조하여야 하며 광범한 군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4.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 건설의 중요한 원칙이며 당과 혁명대오를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입니다. 당이 인민대중과의 통일단결을 실현하여 군중적지반을 튼튼히 하여야 불패의 위력을 지닐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과 인민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룰데 대한 당건설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함으로써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빛나게 실현하였습니다.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을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으로 건설하는것입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선진분자들을 널리 망라하는 대중적당으로 되여야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선봉대로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을수 있으며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룰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방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당자체 발전의 요구에 맞게 공산당을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내놓고 그것을 짧은 기간에 빛나게 실현하였습니다.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는 준비된 공산주의자들이 많지 못하였으며 로동계급은 아직 칭소하였고 인민들은 공산주의에 대하여 옳은 인식을 가지고있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공산당을 대중적당으로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당력량을 빨리 확대강화할수 없었으며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울수 없었습니다.

공산당을 대중적당으로 발전시키는것은 당시 근로자들을 망라한 다른 정당이 존재한 사정과 관련하여서도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해방후 북반부에는 로동계급의 당인 공산당과 함께 근로자들을 망라한 신민당이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근로대중을 분렬시킬수 있는 위험이 커가고있는 조건에서 혁명력량의 분렬을 막고 근로대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묶어세워 새 조국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근로대중의 리익을 통일적으로 대표하는 대중적당을 내오는것이 필요하였습니다.

공산당과 신민당을 합당하여 대중적당을 건설할 필요성은 누구에게나 명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파분자들은 공산당이 신민당과 합당하면 당이 소자산계급화된다느니, 당의 지도사상이 달라져야 한다느니 하면서 합당을 반대하여나섰습니다.

우리는 합당을 반대하는 종파분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당과 혁명 발전의 요구에 따라 1946년 8월 공산당과 신민당을 합당하여 로동당을 창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선진분자들로 조직된 대중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습니다.

우리는 공산당과 신민당의 합당사업을 두 당 중앙에서 먼저 토의하고 산하 각급 당조직들의 토의에 붙인 다음 세포로부터 올리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두 당의 조직적결합을 민주주의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한 매우 정당한 조치였습니다.

합당의 결과 우리 당은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게 되였으며 당의 두리에 혁명력량을 더욱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게 되였습니다. 로동당의 창립은 근로대중의 분렬을 막고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동맹을 튼튼히 하였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인민대중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중적당건설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시위로 되며 우리 당 건설력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

는 귀중한 성과로 됩니다.

대중적당건설로선은 해방직후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과 우리 당 발전의 절실한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내놓은 로선이지만 광범한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이 날로 높아가는 오늘의 시대적요구에도 맞으며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는데 따라 로동계급과 농민, 근로인테리의 사회경제적처지와 리해관계가 더욱 일치되고 그들사이의 단결과 협조가 날을 따라 강화되는 사회발전과정의 합법칙적요구에도 맞는 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의 외곽단체인 근로단체들을 조직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입니다.

근로단체는 근로자들의 대중적정치조직이며 당의 인전대입니다. 근로단체는 각계각층 군중을 교양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당은 근로단체를 통하여 대중과의 련계를 실현합니다. 그러므로 당과 인민대중과의 통일단결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근로단체들을 조직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근로단체들을 조직하는데서 계급별, 계층별로 통일적인 근로단체를 내오는것이 중요합니다. 계급별, 계층별로 통일적인 근로단체를 조직하고 거기에 해당한 계급과 계층을 다 망라시켜야 대중운동의 분렬을 막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해방후 우리 당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대중단체건설경험에 기초하여 계급별, 계층별로 근로단체를 조직하고 해당한 계급과 계층을 통일적으로 망라시킬데 대한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우리는 당의 방침에 따라 짧은 기간에 계급별, 계층별로 되는 근로단체들을 내오고 정당의 소속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로동자, 사무원들은 직업동맹에, 농민들은 농민동맹에, 녀성들은 녀성동맹에 묶어세웠습니다. 특히 우리 당은 민주청년동맹을 내오고 조국의 미래의 주인공들인 청년들을 통일적으로 묶어세우는데 큰 힘을 넣었습니다.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는 공산주의청년동맹, 학생동맹, 해방청년동맹, 기독교청년회, 백의청년동맹을 비롯하여 여러 청년단체들이 조직되여 활동하였습니다. 계급적원쑤들은 반동적인 청년단체를 조직하고 청년운동을 분렬시키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였으며 각 정당들도 제각기 자기 주위에 청년들을 끌어당기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그냥 내버려둔다면 청년운동이 분렬될수 있었습니다. 우리 당은 청년운동의 분렬을 막고 민주주의기발아래 각계각층 청년들을 묶어세우기 위하여 공산주의청년동맹을 주동적으로 해산하고 민주청년동맹을 조직하였습니다. 민주청년동맹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각계각층의 모든 청년들을 망라하는 대중적청년조직으로서 우리 당의 령도밑에 활동하는 청년들의 유일한 정치조직이였습니다. 민주청년동맹이 창건됨으로써 광범한 청년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게 되였으며 청년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근로단체를 조직한 다음에는 혁명발전에 상응하게 근로단체를 강화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결과 조성된 새 환경은 그에 맞게 근로단체조직들을 강화발전시킬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변천된 현실의 요구에 맞게 개인농때 농민들의 조직이였던 농민동맹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농업근로자동맹을 새로 조직하였으며 민주청년동맹을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직업동맹의 성격과 임무를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녀성동맹의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사업체계를 개편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근로단체들의 특성에 맞게 그에 대한 지도를 끊임없이 강화하였습니다.

근로단체는 당에 의하여 조직되고 움직이는 정치조직인것만큼 당적지도를 떠나서는 대중적정치조직으로서 활동할수도 없고 존재할수도 없습니다. 근로단체는 오직 당의 지도밑에서만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습니다.

근로단체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중요한것은 근로단체조직들을 당에 끝없이 충실한 조직으로 만드는것입니다. 당을 옹호보위하는것은 근로단체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근로단체들이 조직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하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로단체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근로단체조직들이 자기 임무를 옳게 수행하도록 하는것입니다. 근로단체들의 기본임무는 동맹원들을 교양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힘있게 조직동원하는것입니다. 우리는 근로단체조직들이 동맹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조직생활을 강화하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동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였습니다.

근로단체들이 자기 임무를 옳게 수행하도록 하려면 자립성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근로단체의 자립성을 높이는것은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기본요구입니다. 근로단체들이 자립성을 가져야 자기 조직의 사명과 특성에 맞게 동맹원들과의 사업을 자립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갈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언제나 근로단체들의 특성에 맞게 사업방향과 그 수행방도를 옳게 제시해주었으며 당조직들이 근로단체조직들에 사업을 대담하게 맡기고 적극 도와주며 사업조건을 잘 보장해주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당의 외곽단체들인 직맹, 사로청, 농근맹, 녀맹 조직들은 당의 믿음직한 인전대로 강화발전되였으며 당의 지도밑에 자기의 본신사업을 능동적으로 잘해나가고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근로단체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여 모든 근로단체들이 자기의 사명을 더 잘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로청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우리 당의 후비대이며 주체위업의 계승자인 청소년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튼튼히 키우며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과 인민대중과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통일전선사업을 잘하는것입니다.

계급사회에는 사회경제적처지와 정치적견해가 다른 여러 계급과 계층이 있게 되며 따라서 그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여러 정당들과 사회단체들이 조직되여 활동하게 됩니다. 로동계급의 당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 사회단체들과 통일전선을 실현하는것은 당의 사회적지반을 확대강화하며 반혁명세력을 고립약화시키고 강력한 혁명력량을 꾸리는데서 전략적의의를 가집니다.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서는 민주당, 청우당과 같은 민주주의적정당들과 각이한 계급과 계층의 리익을 제각기 대표하는 여러 사회단체들이 조직되여 활동하였습니다. 우리 당이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과 통일전선을 실현하는것은 당시 우리 혁명발전의 절실한 요구였습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애국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정당, 사회단체들과 련합하여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그에 토대하여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는것을 당의 기본정치로선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정권을 세우고 민주개혁을 실시하는데서 주동적으로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과 공동행동을 벌렸으며 그에 기초하여 1946년 7월에 상설적인 통일전선조직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북반부에서는 각 정당, 사회단체들의 련합의 형태로 통일전선이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모든 애국력량이 우리 당을 중심으로 굳게 단합되였습니다.

우리 당은 나라의 정세가 변화되는데 따라 그에 맞게 통일전선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망국적인 단독정부를 조작하고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려고 책동하는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남북조선의 모든 민주력량과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그에 기초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렬책동을 반대하는 거족적투쟁을 벌렸습니다. 한때 공산주의자들을 원쑤처럼 여기던 김구 같은 사람도 우리 당의 넓은 포용력과 정당한 통일전선정책에 탄복하여 우리와 손잡고 민족적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나섰습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렬책동을 반대하는 거족적인 투쟁속에서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이 창건되였습니다.

우리 당은 조국을 사랑하고 통일을 념원하는 남북조선의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과 애국적인민들을 하나의 민주주의력량으로 총집결하기 위하여 1949년 6월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였습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는 리승만의 직계정당을 제외한 남북조선의 70여개의 정당, 사회단체들이 망라되였습니다.

우리 당은 통일전선사업을 강화하는데서 일관하게 독자성을 유지하고 주도적 역할을 하는 원칙을 견지하였습니다. 로동계급의 당이 다른 정당, 사회단체들과 련합하여 통일전선을 실현한다고 하여 자기의 독자성을 잃고 원칙적립장을 버려서는 안됩니다. 우리 당은 그 어떤 조건에서도 자기의 정치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였으며 원칙적문제들에 대해서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은 당의 정치로선을 통일전선안의 모든 성원들에게 해설선전하는 사업을 강화하였으며 다른 정당, 사회단체들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각 정당, 사회단체들이 옳은 길로 나가도록 이끌어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통일전선안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이 진실로 우리 당을 믿고 따라오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또한 하층통일전선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에 기초하여 상층통일전선을 실현하는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통일전선을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었습니다.

우리 당이 통일전선사업에서 얻은 경험은 남북조선의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들, 모든 해외동포들이 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는데서 더없이 귀중한 밑천으로 됩니다. 우리는 지난날 남북조선의 모든 민주력량이 단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창건한 력사적경험을 살려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남북조선의 모든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과 인민들, 해외동포들과 강력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그에 기초하여 민족지상의 과업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입니다.

우리 당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선봉대이며 군중은 우리 당의 사회적지반입니다.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 당의 사회적지반을 강화할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에 따라 극소수의 반동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광범한 군중을 최대한으로 쟁취하기 위하여 군중과의 사업을 계급별, 계층별 특성에 맞게 강화하여왔습니다.

우리 당은 로동계급과의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습니다.

로동계급은 가장 선진적이고 혁명적인 계급이며 우리 혁명의 령도계급입니다. 로동계급은 높은 혁명성과 조직성, 규률성을 가지고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핵심적역할을 수행합니다. 로동계급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우리 당이 공고한 계급적토대우에서 강화발전될수 있으며 온 사회를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로동계급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그들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로동계급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공장, 기업소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로동계급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조직적단련을 강화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조직성, 규률성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하였으며 특히 새세대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을 높이는데 깊은 주의를 돌렸습니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이 우리 당을 떠받들고나가는 기둥이 되고 초석이 되게 하였으며 우리 당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봉적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로동계급은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앞장에서서 힘차게 나가고있으며 조선혁명의 령도계급으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농촌에 깊이 뿌리박고 농민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농민은 로동계급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이며 우리 혁명대오의 기본부대의 하나입니다. 농민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야 당의 농촌진

지를 공고히 하고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릴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농민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기 위하여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농민문제해결에 깊은 관심을 돌렸으며 정확한 농촌계급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는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농민들을 사회주의농업근로자로 개조한 다음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을 높여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는데 기본을 두고 농민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각급 당조직들이 농촌의 구체적특성과 농민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농민들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함으로써 농민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당의 농촌진지는 튼튼히 꾸려져있으며 농민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서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방침을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과학자, 기술자들을 비롯한 근로인테리들과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렸습니다.

근로인테리는 로동자, 농민과 함께 우리 당의 구성부분이며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력량입니다. 인테리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야 사회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으며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습니다. 혁명과 건설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되고 사회발전에서 과학과 기술의 역할이 커질수록 인테리들과의 사업은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인테리들과의 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낡은 사회에 복무한 오랜 인테리들의 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오랜 인테리들은 거의다 부유한 가정의 출신으로서 지난날 착취사회에 복무하기는 하였으나 그들은 식민지나라 인테리로서 민족적 멸시와 차별대우를 받아왔으므로 반제사상과 민주주의적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당은 오랜 인테리들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을 당과 로동계급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테리로 개조할데 대한 방침을 내세우고 꾸준히 교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미 오래전에 오랜 인테리들이 사회주의적으로 교양개조되였으며 인테리의 이중성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였습니다.

오랜 인테리들이 사회주의적으로 교양개조되고 새로운 근로인민출신의 인테리들이 많이 자라남에 따라 우리 당은 인테리들을 혁명화하는데 큰 힘을 넣었습니다. 우리는 인테리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조직생활을 강화하여 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단련시켰으며 인테리들이 늘 현실에 들어가 로동계급의 혁명적영향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테리들이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하며 당과 혁명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테리들은 사회주의적근로인테리로서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전진하고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자기의 힘과 재능을 다 바치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사회정치생활경위와 가정주위환경이 복잡한 군중을 우리 당의 열

렬한 지지자로, 혁명의 적극분자로 만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혁명 발전의 특수성으로 하여 우리 나라 주민들의 사회정치적구성은 매우 복잡하여졌습니다. 사회정치생활경위와 가정주위환경이 복잡한 군중의 대부분은 기본계급출신으로서 지난날 계급의식이 낮았던탓으로 하여 적들에게 일시적으로 리용당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혁명을 의식적으로 반대하는 적대세력이 아니며 우리 당이 쟁취하여야 할 사람들입니다. 복잡한 군중을 당과 혁명의 편에 쟁취하는것은 당의 대중적지반을 공고히 하며 혁명력량을 확대하고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사회정치생활경위와 가정주위환경이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에서 우리 당은 일관하게 본인의 현재 사상과 행동을 기본으로 하여 매 사람들을 평가하며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당과 혁명의 편에 쟁취하는 원칙을 견지하였습니다. 성분이란 사람들의 사상상 구성성분이며 그것은 사회적환경과 사람들의 사회경제적처지가 달라지는데 따라 변합니다. 성분이 복잡한 사람이라도 사회가 발전하고 혁명적교양을 받으면 좋은 사람으로 될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사람들을 가정주위환경과 경력만 보고 평가한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상상태를 기본으로 하여 평가하였으며 복잡한 군중을 대담하게 믿고 포섭하여 적극적으로 교양하였습니다. 당을 믿고 따르며 사업에서 열성을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회정치생활에서 차별하지 않았으며 혁명과업을 대담하게 맡기고 그들의 사업성과와 공로를 공정하게 평가하여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라는 높은 자부심과 자기 전도에 대한 락관을 가지고 활기있게 일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몸바쳐나서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적극적인 교양을 통하여 복잡한 군중을 당과 혁명의 편에 쟁취하였으며 온 사회를 명랑하고 화목한 대가정으로 전변시켰습니다. 우리 당의 경험은 사람들을 대담하게 믿고 달라붙어 교양한다면 의식적인 반동분자들을 내놓고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교양개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매우 높은 단계에 이른 오늘에도 의연히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우리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림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합니다.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확고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당활동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군중로선은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여 풀어나가는것입니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을 가장 중요한 혁명준칙으로 삼고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왔으며 주권을 잡은 다음에도 군중로선을 관철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습니다.

군중로선을 관철하려면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여야 합니다.

단이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한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존중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것은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며 혁명의 군중적지반을 튼튼히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

당과 대중과의 련계는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당의 인민적인 정책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당이 대중의 리익을 침해하거나 인민들의 의사에 배치되는 정책을 실시한다면 대중의 신뢰를 받을수 없으며 따라서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실현할수 없고 광범한 군중을 혁명의 편에 쟁취할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언제나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였으며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왔습니다. 우리 당은 무슨 결정을 하나 채택하여도 먼저 인민들의 요구를 고려하였으며 어떤 공장을 하나 세워도 먼저 인민들의 편의를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해방직후 나라의 경제사정이 몹시 어려웠지만 로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먼저 생각하고 성진제강소의 원철로를 폭파해버렸습니다. 우리 당이 실시한 모든 정책은 다 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한것이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민들은 우리 당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으며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워나가고있습니다. 당은 인민을 위하고 인민은 당을 믿고 따르는 여기에 우리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으며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가 있습니다.

군중로선을 관철하려면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인다는것은 대중의 창조적힘과 혁명적열의를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힘과 지혜를 옳게 발동하여야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언제나 인민대중의 창조적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의 방대한 과업을 수행하였으며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우리 당은 전체 인민을 동원하여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을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짧은 기간에 빛나게 실현하였습니다. 우리는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시련도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이겨냈고 전후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발악적공격도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인민의 창조적투쟁의 고귀한 결실입니다.

우리는 혁명적군중로선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지향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실시하며 그 어떤 경우에도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현상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대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묶어세우고 그들의 창조적지혜와 혁명적열의를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5.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참모부입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운명은 전적으로 당의 령도적역할에 달려있으며 당의 령도는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기본요인입니다.

당은 혁명과 건설을 옳게 령도하여야 합니다.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고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 혁명대오를 강화하는것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잘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정치적령도입니다.

당의 정치적령도의 본질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정책적으로 지도하며 정치사업을 하여 사람들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지도하는데 있습니다. 당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불러일으키며 당의 로선과 정책이 옳게 관철되도록 장악지도하여야 합니다. 당은 사람들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는 정치조직인것만큼 명령하고 지시하는 행정적방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옳게 령도하여왔으며 그 과정에 귀중한 성과와 경험을 이룩하였습니다.

당이 혁명과 건설을 옳게 령도하려면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여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능숙하게 조직지도하여야 합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혁명과 건설의 전략과 전술이며 투쟁의 지침입니다. 당이 로선과 정책을 옳게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정확한 방향과 방도에 따라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모든 로선과 정책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세웠습니다. 해방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당이 내놓은 모든 로선과 정책은 철저히 자신의 신념과 독자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세운것입니다.

우리 당은 로선과 정책을 세우는데서 주관주의를 특별히 경계하였습니다. 당이 로선과 정책을 세우는데서 주관주의를 범하게 되면 그 후과가 매우 큽니다. 인민대중의 지향과 현실적조건을 무시하고 주관주의적으로 세운 로선과 정책은 인민대중에게 접수될수 없으며 따라서 제대로 집행될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언제나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옳게 파악하고 구체적인 현실을 전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그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혁명과 건설의 정확한 지침으로, 힘있는 추동력으

로 되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세웠을뿐아니라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옳게 조직지도하였습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인민대중이 그것을 자신의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설 때에만 성과적으로 집행될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정책선전을 강화하여 그들이 당정책의 본질과 정당성, 그 수행방도를 똑똑히 알고 그것을 자신의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조직정치사업을 잘하여 대중의 단합된 힘과 창조적지혜를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동원하였습니다.

당이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주권문제를 옳게 해결하고 그에 기초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밀고나가는것입니다.

주권에 관한 문제는 혁명에서 기본문제입니다. 혁명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며 자주성은 국가주권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로동계급의 당이 주권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인민대중을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만들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권문제가 매우 중요하기때문에 해방직후 인차 주권문제를 해결하는데 달라붙었습니다. 주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진행되였습니다. 해방후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인한 우리 조국의 분렬과 혁명대오안에 기여든 좌우경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은 주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에 많은 난관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때 우경투항주의분자들은 우리 나라에 부르조아공화국을 세워야 한다고 떠벌였으며 좌경분자들은 당장 우리 나라에 쏘베트정권을 세우고 사회주의혁명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 나라 사회발전의 객관적요구를 무시한 그릇된 견해였습니다.

우리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 우리 혁명의 임무와 우리 나라의 사회계급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인민정권을 세울데 대한 주체적인 정권건설로선을 내놓았습니다. 이 로선은 유격구들에서 훌륭히 구현되였으며 그 정당성이 실증되였습니다.

해방후 우리 당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내놓은 인민정권건설로선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에 기초하여 안팎의 원쑤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인민정권을 세움으로써 주권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였습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조선혁명의 요구와 근로인민대중의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우리자신이 선택하고 우리자신이 세우고 우리자신이 운영하는 주체적인 정권입니다. 인민정권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고 옹호하는 참다운 민주주의적정권이며 광범한 대중속에 뿌리박고 그들과 혈연적으로 련결된 진정한 인민의 정권입니다.

인민정권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 손에 주권을 틀어

진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무기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였습니다. 그리하여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으로 출현한 인민정권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고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이르러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으로 강화발전되였습니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인민정권은 혁명과 건설의 무기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왔으며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원만히 보장해주고있습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이야말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는 단계에 맞는 정권일뿐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시기에도 맞는 가장 우월한 정권입니다.

우리 당은 인민정권을 무기로 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옳게 령도하여왔습니다.

해방후 우리앞에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여야 할 과업이 나섰습니다. 우리 당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것을 당면한 투쟁강령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였습니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선 과업은 토지문제를 해결하는것이였습니다. 토지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농촌에 뿌리박은 반동세력의 경제적지반을 없애고 농민들을 봉건적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할수 있었으며 농업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었습니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 농촌의 계급관계와 토지소유관계, 땅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고려하여 토지몰수대상을 바로 규정하고 지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는 토지개혁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고농과 빈농에 의거하고 중농과 동맹하며 부농을 고립시키는 계급정책을 실시하였으며 농민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고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와 방조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토지개혁의 력사적과업을 한달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철저히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토지개혁에 뒤이어 중요산업을 국유화하고 근로자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반 민주주의적개혁들을 실시함으로써 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였으며 혁명적민주기지를 튼튼히 다져놓았습니다.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 사회주의혁명에로 이행하는것은 혁명발전의 합법칙적과정입니다.

전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는 사회주의혁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1955년 4월테제에서 사회주의혁명을 본격적으로 다그칠데 대한 로선을 내놓았습니다.

개인농민경리를 협동화하는것은 사회주의혁명의 기본과업의 하나입니다. 우리

당은 전후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농촌경리의 기술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고 농업협동화운동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그때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공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현대적농기계가 없는 조건에서 농업협동화를 하는것은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우리 당의 농업협동화방침을 반대하여나섰습니다. 물론 그때 우리 나라의 생산력과 기술발전수준이 높지 못한것은 사실이였습니다. 그러나 농업협동화는 반드시 공업화를 한 기초우에서만 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생산력과 기술발전수준은 비교적 낮다 하더라도 생활이 낡은 생산관계의 개조를 절실히 요구하며 그것을 맡아수행할만한 혁명력량이 준비되여있을 때에는 농업협동화를 지체없이 실현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농업협동화운동을 지도하는데서 자원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협동화운동에서 강제적방법을 배격하고 농민들이 협동경리에 자원적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하여 농민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경험적단계를 설정하고 실천적모범을 통하여 농민들에게 협동경리의 우월성을 보여주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민들의 재산정도와 사상적준비정도가 서로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농업협동경리의 형태를 여러가지로 규정하고 농민들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어느 한 형태를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원성의 원칙에 따라 각이한 계층의 농민들을 협동경리에 받아들이는데서 우리 당은 빈농에 튼튼히 의거하면서 중농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부농을 제한하며 점차적으로 개조하는 계급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독창적인 방침과 적극적인 지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농업협동화운동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였으며 4～5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났습니다.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은 농촌경리의 협동화와 함께 사회주의혁명의 중요한 과업입니다. 우리 당은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실현하는데서 우리 나라 자본주의적상공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을 수탈하지 않고 개조하는 방침을 취하였으며 그들을 여러가지 형태의 협동경리에 망라하는 방법으로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성과적으로 실현하였습니다.

도시와 농촌에서 낡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빛나게 실현됨으로써 우리 나라 북반부에는 착취와 압박이 없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게 되였습니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기본혁명과업으로 나서게 됩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는 낡은 사회의 유물이 남아있으며 이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사회에는 계급적차이와 로동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차이가 남아있게 됩니다.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이 실현되여도 낡은 사회의 유물이 남아있고 사회생활에서 여러가지 차이가 남아있는 한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여야 완전히 실현될수 있으며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자면 사회주의사회에서도 혁명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3대혁명은 사회생활의 기본령역인 사람들의 사상생활, 로동생활, 문화생활 분야에 남아있는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새로운 공산주의 사상과 기술,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착취와 예속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낡은 사상과 기술, 문화의 구속에서까지 해방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사회주의사회에서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으로,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으로 규정하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우리 당은 3대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는 원칙을 견지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활동에서 사상의식이 노는 규제적역할과 혁명투쟁에서 사상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한 가장 정당한 방침입니다.

사상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인간개조사업이며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입니다.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강화하면서 그들이 조직생활을 통하여 끊임없이 단련하고 혁명적교양을 받도록 하고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상혁명을 혁명투쟁의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더욱 단련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기술혁명은 생산력을 발전시켜 인민들의 물질적복리를 증진시키며 로동의 본질적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술혁명은 단순히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무적과업이 아니라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해방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과업입니다. 우리 당은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자, 기술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로동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으며 기술혁신운동을 대중적으로 벌리고있습니다.

문화혁명은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문화적락후성을 없애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문화혁명의 중심과업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는것입니다. 우리 당은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로선을 내세우고 교육과 과학, 문학예술을 비롯한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가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3대혁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3대혁명소조운동을 발기하고 당핵심들과 청년인테리들로 3대혁명소조를 무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파견하였습니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정치사상적지도와 과학기술적지도를 결합하고 우가 아래를 도와주며 근로인민대중을 발동하여 사상, 기

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쳐나가는 위력한 혁명지도방법입니다. 우리는 3대혁명소조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적극 추진하고있습니다.

3대혁명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실생활을 통하여 남김없이 확증되였습니다.

우리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으로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야 합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입니다.

경제건설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입니다. 경제건설을 잘하여야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이룩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건설을 잘하여야 나라의 정치적독립과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국방력도 강화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권당의 당사업은 언제나 경제과업수행과 밀착되여야 하며 당의 모든 활동은 경제건설을 잘하기 위한데로 지향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집권한 첫날부터 나라의 경제를 빨리 발전시키며 그 위력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었습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경제건설분야에 구현하여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내놓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옳게 령도하여왔습니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은 자기 힘에 의거하여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자립적민족경제는 자체의 힘으로 움직이고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종합적인 경제이며 자기 나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것을 기본적으로 자체의 생산으로 보장하는 인민적인 경제입니다.

우리 당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데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여왔습니다.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현실적가능성을 옳게 타산한데 기초하여 내놓은 정당한 로선이며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로선입니다.

우리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였기때문에 그처럼 참혹했던 전쟁의 페허를 가시고 짧은 기간에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쌓을수 있었으며 뒤떨어진 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를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킬수 있었습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것은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인민경제의 기술장비를 끊임없이 현대화하며 모든 생산활동을 과학화하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을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민경제를 주체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제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

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사회주의적생산관계를 확립한 다음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경제관리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입니다. 사회주의사회의 특성에 맞게 경제관리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켜 사회주의적경제토대를 튼튼히 다질수 있으며 생산을 높은 속도로 장성시킬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사회의 특성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함으로써 경제관리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공장, 기업소들이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모든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대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수행하며 우가 아래를 책임적으로 도와주는 경제관리체계입니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본질은 경제관리에서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한데 있습니다. 경제관리에서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하고있는 여기에 대안의 사업체계의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 당은 공업관리체계와 함께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와 과학적인 계획화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모든 경제지도기관들이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며 사회주의경제법칙과 여러가지 경제적공간들을 옳게 리용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따라 각급 당위원회들이 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를 잘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당위원회들이 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를 한다는것은 당위원회의 집체적토의에 기초하여 당정책의 집행 방향과 방도를 규정하고 옳은 결정을 채택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발동하여 그것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정치적으로 보장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다시말하여 당위원회가 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를 한다는것은 당정책에 근거하여 경제사업에 대한 방향적지도와 방법적지도를 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당위원회들의 키잡이는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령도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게 하며 경제기관들의 자립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들은 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를 잘하여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혁명무력을 건설하고 그에 대한 당의 령도를 실현하는것입니다.

혁명은 반혁명과의 힘의 대결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제국주의자들과 국내 반동들을 비롯한 계급적원쑤들과의 치렬한 계급투쟁속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혁명이 반혁명을 타승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반동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려면 반드시 혁명무력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혁명무력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장력이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당의 무장력으로 되게 하는것입니다.

당에 대한 충실성은 혁명무력의 생명입니다. 혁명무력의 기본사명은 당을 옹호하며 당의 혁명위업을 보위하는것입니다. 혁명무력을 자기의 사명에 충실한 당의 무장력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당의 핵심들을 골간력량으로 하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아들딸들로 그 대오를 튼튼히 꾸려야 하며 군사부문에 대한 당의 령도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혁명무력을 건설하는데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은 자위를 실현하는것입니다.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한다는것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 나라와 민족을 보위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다 자체의 힘으로 풀어야 하지만 특히 국방사업을 자체의 힘으로 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국방사업에서도 형제나라들의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의탁하여 자기 나라를 보위할수는 없으며 자체의 힘이 약하면 외부의 원조도 은을 내지 못합니다. 국방사업에서는 철저히 자체의 힘을 기본으로 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자위의 혁명적원칙을 구현하여 혁명무력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정규무력은 혁명무력에서 기본을 이루며 정의의 혁명전쟁에서 주도적역할을 합니다. 정규무력을 건설하는것은 해방후 완전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였을뿐아니라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나서는 중요하고도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해방직후 당을 창건하고 인민정권을 세우는 사업과 함께 정규무력을 건설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습니다.

정규무력을 건설하는데서 우리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은 유능한 군사정치간부를 준비하는것이였습니다. 유능한 군사정치간부가 없이는 정규무력을 건설할수도 없고 그 위력을 강화할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군사정치간부를 양성하는 사업을 정규무력건설의 모든 사업에 앞세우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습니다. 우리는 정규무력건설에 필요한 간부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기 위하여 해방직후 만난을 무릅쓰고 평양학원과 중앙보안간부학교를 내왔으며 여기에서 로동자, 농민 출신의 군사정치간부를 많이 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전준비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얻은 혁명무력건설경험에 토대하여 당과 혁명의 믿음직한 보위자인 인민군대를 조직함으로써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시켰습니다.

나라를 보위하는 사업도 역시 인민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자신의 사업입니다. 전체 인민이 철통같이 뭉쳐 조국보위에 떨쳐나선다면 그 어떤 침략자도 능히 물리칠수 있습니다. 우리는 로농적위대를 비롯한 민간무력을 조직하고 그 전투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군사로선을 제시하고 그것을 관철하여 우리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군대로 강화하였으며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켰습니다.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려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옳게 배합하여야 합니다.

물론 새 사회 건설의 중요한 임무는 경제건설을 잘하는것입니다. 그렇다고 하

여 경제건설에만 치중하고 국방건설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자주독립국가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같이 틀어쥐고나가야 하며 정세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적절히 배합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언제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깊은 관심을 돌렸으며 적들의 침략책동이 로골화되여 전쟁의 위협이 닥쳐온 때에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방침을 내놓고 국방건설에 큰 힘을 넣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여 국방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 필요한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군사정치정세는 우리의 혁명무력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혁명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적들의 도발책동으로 하여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일어난다 하여도 그에 대처할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어야 합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대외활동을 하여야 하며 나라의 전반적인 대외사업을 통일적으로 령도하여야 합니다.

매개 나라 혁명은 세계혁명의 한 고리이며 매개 나라 로동계급의 당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한 부대입니다. 매개 나라 당과 인민의 혁명투쟁은 국제적인 지지성원속에서 발전하며 세계혁명의 승리는 세계 여러 나라 당과 인민의 공동투쟁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대외활동을 적극 벌리고 나라의 전반적인 대외사업을 통일적으로 옳게 령도하여야 자기 나라 혁명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할수 있으며 세계혁명앞에 지닌 임무를 다할수 있습니다.

우리 당이 대외활동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기본리념은 자주, 친선, 평화입니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을 구현하여 대외정책을 세우고 그에 따라 대외활동을 벌렸으며 국가기관들과 사회단체들의 대외사업을 옳게 령도하여왔습니다.

대외관계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대외정책을 우리 인민의 리익과 혁명의 요구에 맞게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국제관계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의 판단과 주견에 따라 처리하였으며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다른 당,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왔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력한 혁명력량이며 인류력사발전을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의 뉴대를 공고히 하는데 언제나 선차적인 주의를 돌렸습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위하여 투쟁하는 계급적형제입니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기치밑에 사회주의나라들과 굳게 단결하고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나라들사이에 의견상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단결을 위한 부채질만 하였지 단결에 해를 주는 부채질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나라들이 첫째로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둘째로 식민지민족해방운동과 각국의 로동운동을 지지하며, 셋째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계속 나가며, 넷째로 내정불간섭, 호상존중, 평등, 호혜의 원칙을 지킨다면 비록 의견상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뒤로 미루고 이 네가지 원칙에 기초하여 단결할것을 주장하여왔습니다.

우리의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와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좋게 발전하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공산당, 로동당들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접촉과 협상을 통하여 호상리해와 동지적협조의 정신에서 풀어나감으로써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과 제3세계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쁠럭불가담운동의 근본원칙과 반제자주의 숭고한 리념에 기초하여 쁠럭불가담나라들, 제3세계나라들과의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고있으며 경제기술적협조와 문화적교류를 널리 발전시켜나가고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며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나라들과도 선린관계를 맺고 경제문화교류를 발전시키고있습니다.

싸우는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하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무입니다. 우리는 피압박인민들의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도와주고있으며 민주주의적자유와 계급적해방을 위한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투쟁을 지지하며 반제자주를 위한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성원하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세계평화애호인민들과 함께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으며 특히 조선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세아지역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자주, 친선, 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모든 진보적나라들과의 단결과 친선협조관계를 적극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갈것입니다.

6. 당의 령도예술

령도예술을 확립하는것은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특히 대중령도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아무리 정확하여도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옳바른 령도예술을 가지지 못하면 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할수 없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없습니다.

당의 령도예술은 조직과 대중을 움직이고 이끌어나가는 당의 활동방식이며 령도적수완입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능란하고 세련된 령도예술을 가질 때에만 전투적인 전위조직으로 될수 있으며 광범한 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혁명의 첫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의 어렵고 복잡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하는 과정에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령도예술을 창조하고 그것을 당활동에 구현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령도예술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한 주체의 령도예술입니다.

우리 당의 령도예술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혁명적인 당사업체계와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방법, 사업작풍입니다.

당이 령도적기능을 옳게 수행하려면 당안에 혁명적인 사업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당사업체계는 당사업과 당활동을 조직전개하는 질서와 제도입니다. 당안에 혁명적인 사업질서와 제도를 철저히 세워야 당이 통일적인 규범과 규률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이는 전일적인 전투대오로 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습니다.

로동계급의 당의 성격과 사명에 비추어볼 때 당사업체계는 마땅히 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사업체계로 되여야 하며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는 사업체계로 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이러한 원칙적요구를 구현하여 혁명적인 당사업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사업체계에서 중요한것은 첫째로, 전당이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입니다.

당중앙위원회는 전체 당원들의 의사를 대표하며 혁명의 최고참모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당의 사상과 령도는 결국 당중앙위원회의 령도적기능에 의하여 실현됩니다. 우리의 경험은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령도밑에 움직이는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워야만 당대렬의 사상의지와 행

동의 통일을 보장할수 있고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이 한결같이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서는 당안에 당의 로선과 정책, 당중앙위원회의 결정과 지시를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제때에 정확히 침투하며 그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문제들을 당중앙위원회에 집중시키고 당중앙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집행하는 중앙집권적 규률과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들이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당중앙위원회에 제때에 보고하지 않고 자의대로 처리하면 당활동에서 무질서와 혼란을 가져오게 되며 전당이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움직여나갈수 없게 됩니다.

우리 당의 사업체계에서 중요한것은 둘째로, 각급 당위원회가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모든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것입니다.

우리 당의 각급 위원회들은 당중앙위원회의 령도밑에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활동합니다. 이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령도의 유일성과 통일성을 보장할수 있게 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 집행에서 당조직들과 대중의 창조력을 효과적으로 조직동원할수 있게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은 집권당으로 출현한 첫날부터 당적령도를 전면적으로 실현할데 대한 방침을 내세우고 그것을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되는데 맞게 철저히 관철하였습니다.

당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려면 각급 당위원회가 해당 단위의 국가, 경제 기관과 협동단체, 교육문화기관, 사회단체조직들을 다 장악하고 지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 시, 군과 각 부문, 단위들에 조직된 당위원회들은 해당지역과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해당 단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업을 주관하고 통일적으로 지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당원들은 해당 당위원회에 철저히 의거하여야 하며 모든 사업을 당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결정한데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사업체계에서 중요한것은 셋째로, 당중앙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당조직들이 아래당조직들을 체계적으로 장악지도하는것입니다.

지도를 아래에 접근시키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지도원칙이며 사업질서입니다. 상급당조직들이 아래당조직들을 장악지도하는 사업질서를 세워야 전당이 당중앙위원회의 의도에 맞게 사업해나갈수 있으며 모든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습니다.

상급당조직들이 아래당조직들의 사업을 장악하고 통제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장악과 통제가 없이는 당사업을 옳게 작전하고 전개할수 없으며 아래당조직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를 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급당조직들은 아래당조직들의 실태와 활동정형을 정상적으로, 체계적으로 료해장악하고 통제하여야 합니다.

아래당조직들에 대한 장악지도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이 아래에 내

려가는것을 제도화하여야 합니다. 상급당조직의 일군들은 일정한 기간을 주기로 하여 아래당조직에 내려가 당정책집행에 대하여 장악하고 지도하며 우에 올라와 총화하고 재무장, 재작전한 다음 다시 내려가야 합니다.

당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는 중요한 목적은 아래당조직들을 도와주자는데 있습니다. 그런것만큼 상급당조직의 일군들은 아래에 내려가 아래당조직들의 사업을 장악통제하는 사업을 잘하는것과 함께 주요하게는 아래당조직들이 자기 단위의 사업을 잘해나가도록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래당조직들에 대한 집중지도는 아래당조직들의 활동에 대한 적극적이며 혁명적인 지도방법입니다. 당중앙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당조직들은 아래당조직들에 대한 지도를 정상화하면서 일정한 부문과 단위의 당조직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검열사업을 계획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합니다. 지난 시기 당중앙위원회가 계획적으로 진행한 지방당조직들과 여러 부문에 대한 집중지도는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였습니다.

당이 령도적기능을 옳게 수행하려면 혁명적인 당사업방법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혁명적인 당사업방법을 확립하는것은 특히 집권당의 경우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집권당은 권력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잘못하면 당일군들속에서 대중에게 의거하는것이 아니라 권력에 의거하여 명령하고 지시하는 관료주의적방법으로 사업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난날 우리 당에서도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군중과의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는 일군들속에서 대중과 리탈되여 관료주의를 부리며 당세도를 쓰는것과 같은 현상이 적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혁명적인 당사업방법을 확립하는것을 당건설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내세웠으며 당일군들속에서 낡은 사업방법을 반대하고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되였습니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지하투쟁도 하고 무장투쟁도 하면서 대중속에 들어가 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을 창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단계에 와서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현하고 발전시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사업방법은 한마디로 말하여 주체의 사업방법입니다. 그것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입니다.

우리 당의 사업방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는것입니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로부터 흘러나오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입니다.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반양시켜 혁명투쟁

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습니다. 명령하고 지시하며 보고서와 통계를 받고 결정서를 내려보내는것과 같은 행정식사업방법으로는 사람들을 교양개조할수 없으며 그들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킬수 없습니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어떤 혁명과업을 수행하든지 언제나 당정책과 당의 의도를 대중에게 해설침투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고 발동하여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첫공정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수행하는 혁명과업의 목적과 내용, 그 수행방도를 똑똑히 알고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치사업은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 자각적으로 동원되게 하려면 그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깨닫고 그에 공감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치사업은 어디까지나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대중이 당정책과 당의 의도를 완전히 인식하고 사상적으로 각성할 때까지 꾸준하고 참을성있게 하여야 합니다.

정치사업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정치사업은 혁명실천과 동떨어져 진행되여서는 안되며 제기된 혁명과업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여야 합니다.

정치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정치사업은 광범한 군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것만큼 몇몇 일군들의 힘만으로는 잘할수 없습니다. 모든 당일군들과 간부들, 당원들이 다 대중의 교양자, 선전자가 되여야 하며 정치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교양하고 발동하는 방법으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교양하고 발동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사업방법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우가 아래를 도와주며 지도일군들이 늘 군중속에 들어가 군중에 의거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것입니다.

우가 아래를 도와주며 지도일군들이 늘 군중속에 들어가 군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것은 상하가 합심하고 협력하여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 공산주의적사업방법이며 지도와 대중을 결합시키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입니다.

군중에 철저히 의거하는것은 우리 당의 활동에서 근본원칙의 하나이며 모든 사업에서 성과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우리 당은 언제나 군중속에 들어가 군중에 의거하여 투쟁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었으며 난관과 시련에 부닥칠 때마다 인민대중을 믿고 군중속에 들어가 군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함으로써 조성된 난국을 타개할수 있었습니다.

당일군들이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을 구현하려면 주체적인 군중관점을 가지여야 하며 군중속에 들어가는것을 습성화하여야 합니다. 당일군들은 늘 군중속에 들어가 당의 로선과 정책을 해설해주어야 하며 실정을 료해하고 군중과 협의하여 혁명과업수행을 위한 옳은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당일군들은 또한 군중속에 들어가 군중과 같이 생활하면서 군중을 교양하고 군중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 당의 사업방법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당사업을 객관적현실과 구체적조건

에 맞게 과학적으로, 창조적으로 하는것입니다.

당의 활동은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며 모든 당사업은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구체적인 현실속에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당사업은 혁명운동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과학적으로 하여야 하며 구체적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옳게 결합하는것은 대중지도를 통일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구체적으로 할수 있게 하는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사업방법입니다.

당의 로선과 정책, 제기된 혁명과업의 목적과 의의를 대중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적이며 일반적인 대책을 세워주는 일반적지도를 잘하는것과 함께 여기에 해당 단위의 구체적조건과 대중의 준비정도에 맞게 사람들을 교양하며 당정책과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실천대책을 세워주는 개별적지도를 따라세워야 합니다.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하는데서 효과적인 방법은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것입니다. 우리 당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일정한 단위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도하여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널리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있습니다.

모든 사업에서 중심고리를 찾아내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는것은 적은 력량으로 최상의 성과를 거두며 전반적인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게 하는 과학적인 사업방법입니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현실속에 들어가 당의 정책과 방침을 자로 하여 사업전반을 료해하고 거기에서 중심고리를 옳게 찾아내야 하며 력량편성을 잘하고 중심고리에 힘을 집중하여 섬멸전을 벌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창조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당사업은 서로 다른 의식수준과 특성을 가지고 다양한 환경과 조건에서 활동하는 산 사람들과의 창조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당사업은 한가지 처방이나 고정된 틀에 맞추어 할수 없습니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모든 사업을 대상의 특성과 구체적인 조건에 맞는 정확한 방법론을 세워가지고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사업방법에서 중요한것은 당의 투쟁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운동을 적극 벌리는것입니다.

대중운동은 대중동원의 위력한 방법이며 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는 혁명적사업방법입니다. 대중운동은 대중의 혁명적기세를 높이고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며 집단적혁신에로 대중을 추동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합니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혁명의 요구와 대중의 혁명적지향, 준비정도에 맞게 여러가지 형태의 대중운동을 발기하고 적극 추진하여왔습니다.

우리는 해방후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벌려 일제사상잔재와 봉건사상잔재를 청

산하고 근로자들을 전국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새 조국 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 당은 또한 전후 사회주의건설시기에 천리마운동을 발기하고 힘있게 벌림으로써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뒤떨어진것을 쓸어버리고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쳐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전면에 나선 혁명발전의 새로운 현실적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적극 다그쳐 공산주의적인간개조사업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같이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고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대중운동을 조직하고 지도하는데서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와 대중의 정치사상적준비정도에 맞게 대중운동의 형태를 바로 규정하고 투쟁목표와 과업을 뚜렷이 제시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대중운동에 대한 조직과 지도에서 특히 투쟁구호를 옳게 제시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혁명적인 구호는 대중에게 투쟁목표와 행동방향을 가리켜주고 용기와 신심을 안겨주는 힘있는 기치로 됩니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혁명의 요구와 대중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하여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적중한 투쟁구호들을 제시함으로써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 시기에 우리 당이 내놓은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모든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자!》,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다》, 《쌀은 곧 공산주의이다》를 비롯한 수많은 구호들은 다 대중의 심금을 울렸으며 인민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는데서 매우 큰 작용을 하였습니다. 최근 시기에 우리 당이 내놓은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와 같은 구호들도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인민들의 혁명적지향을 옳게 반영한 좋은 구호들입니다.

당의 령도예술을 확립하는데서 사업작풍을 바로세우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업작풍은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로동계급의 당의 사업기풍이며 당일군들과 당원들의 정치도덕적풍모입니다. 당사업작풍을 바로세운다는것은 당안에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당풍을 세우며 모든 당일군들과 당원들이 혁명가적기풍과 인민적품성을 가지도록 한다는것을 말합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당사업작풍을 올바로 세워야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룰수 있으며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능숙하게 이끌어나갈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당일군들속에서 낡은 사업작풍을 없애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세우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왔습니다.

우리 당의 사업작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투쟁기풍입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하는 당이며 투쟁하는 당입니다. 로동계급의 당의 위업은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온갖 낡은것을 없애버리고 새것을 창조하며 새 사회를 건설하는 거창한 위업입니다. 로동계급의 당에 있어서는 침체와 답보가 허용될수 없으며 오직 끊임없이 혁신하고 전진하는 혁명적기풍이 전당을 지배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이 전진시키기 위하여 언제나 원대한 구상과 새로운 목표를 가져야 하며 낡은것을 버리고 새것을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진취적이며 창조적인 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서나 목표를 높이 세우고 대담하고 통이 크게 사업을 전개해나가며 자만과 답보, 소극과 보수를 철저히 배격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사업작풍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적기풍입니다.

혁명은 간고한 투쟁을 동반하며 혁명의 앞길에는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이게 됩니다. 당안에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간고하고 복잡한 전진도상에서 굴함없이 혁명의 기치를 고수할수 있으며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자체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성하며 자기 인민의 로동과 국내 자원에 최대한 의거하여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 각오밑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당안에 강의한 의지와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이 지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당일군들과 당원들이 혁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밑에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며 모르는것은 배워가지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끝까지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사업작풍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입니다.

당일군들과 당원들이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는것은 당을 생기발랄하고 전투적인 당으로 만들며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입니다.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로쇠와 침체, 안일과 해이를 반대하고 혁명적 기백과 열정에 넘쳐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또한 당일군들과 당원들은 혁명적락관주의와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높은 창발성과 열성을 발휘하여 모든 사업을 진공적으로 밀고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당일군들과 당원들은 높은 문화적소양을 가지고 락천적으로, 문화정서적으로 생활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사업작풍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원칙적이고 공명정대한 사업기풍입니다.

당안에 원칙적이고 공명정대한 사업기풍을 세워야 당이 혁명적립장을 고수하

고 령도적권위를 보장할수 있습니다.

당은 어떤 정황에서나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지키며 당의 원칙을 관철하는데서 일관성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안에 당적, 로동계급적 원칙과 어긋나는 온갖 부정적현상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언제나 당적, 혁명적 립장에 튼튼히 서서 사업하여야 하며 편협하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며 모든 문제를 심사숙고하여 공명정대하고 로숙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사업작풍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인민들이 당의 품을 참다운 어머니품으로 느끼게 하는 인민적인 기풍과 품성입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우에 군림하는 관료기관이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피는 어머니당입니다.

우리 당은 인민들에게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그것을 빛내여나가도록 이끌어주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늘 세심하게 보살펴주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들은 우리 당의 품을 진심으로 어머니품으로 여기며 당에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맡기고있는것입니다.

로동계급의 당이 어머니당으로 되자면 당안에서 관료화, 귀족화를 철저히 반대하고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원만히 보장해주며 인민대중과 혁명의 한길에서 끝까지 생사고락을 같이하여야 합니다.

당일군들은 언제나 어머니다운 심정을 가지고 인민들을 대하며 인민의 충복이 되고 성실한 심부름군이 되여야 합니다. 당일군들과 당원들은 인민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인민들을 너그럽고 아량있게 대하여야 하며 언제 어디서나 인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인민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들의 요구와 애로를 제때에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당의 사업작풍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당일군들과 당원들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끝없이 헌신하며 사업에서 이신작칙하는것입니다.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며 사업과 생활에서 이신작칙하는것은 당일군들과 당원들의 마땅한 의무이며 고상한 풍모입니다.

당일군들과 당원들은 높은 당성, 혁명성을 가지고 맡겨진 혁명임무를 끝없는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철저히 수행하는 고상한 품성을 가져야 합니다. 당일군들과 당원들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적인 투쟁에서 삶의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직위와 공명을 탐내지 말고 오로지 당의 혁명위업에 모든것을 묵묵히 바치는 숨은 영웅이 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당일군들속에서는 당에서 맡겨준 혁명임무를 수행하기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가지고 사소한 리유와 구실, 조건타발도 없이 같은 혁명과업을 무조건 진지히 집행하는 혁명적사업기풍이 서가고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당일군들과 당원들은 어떤 초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개인의 명예와 보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누가 보건말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꾸준히 일하고있습니다.

당일군들과 당원들은 혁명의 기수이며 대중의 교양자인것만큼 모든 면에서 이신작칙하여야 합니다.

당일군들과 당원들이 이신작칙하는것은 대중을 교양하고 이끌어나가는데서 몇백마디의 말보다 더 큰 감화력을 가집니다. 당일군들과 당원들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당일군들과 당원들은 어렵고 힘든 일에서 앞장서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사업과 생활, 로동과 학습의 모든 면에서 대중의 본보기가 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사업작풍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당일군들과 당원들이 겸손하고 소박한 품성을 지니며 청렴하고 결백하게 생활하는것입니다.

당일군들과 당원들이 겸손하고 소박하며 청렴하고 결백한 품성을 가져야 대중과 친숙하게 어울릴수 있고 사회적 존경과 사랑을 받을수 있으며 사람과의 사업을 잘할수 있습니다.

당일군들과 당원들은 어떤 직위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절대로 세도를 쓰지 말고 틀을 차리지 말며 언제 어디서나 인민들이 생활하는대로 검박하게 생활하며 겸손하고 례절있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일군들과 당원들은 사업과 생활에서 가식이 없고 정직하며 진실하고 솔직하여야 하며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말고 특혜와 특전을 바라지 말며 허례허식과 부화타락한 현상을 반대하고 사회주의생활양식대로 고상하게 생활하여야 합니다.

당의 령도예술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은 일군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고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하기 위한 심각한 사상투쟁입니다. 우리 당은 당건설과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서 당의 령도예술을 바로세우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림으로써 전당에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령도예술을 확립할수 있었습니다.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령도예술이 확립됨으로써 당의 면모가 더욱 새로와지고 모든 사업이 패기있고 생기발랄하게 진행되게 되였으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가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7.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자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당의 령도밑에 대를 이어 계속되는 력사적인 위업입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끝까지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하여서는 혁명이 전진하고 사회가 발전하는데 따라 로동계급의 전위조직인 당을 계속 강화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당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우리 당을 혁명과 건설을 끝까지 령도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믿음직하게 향도해나갈 주

체의 혁명적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야 합니다.

당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자로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서는 당의 위업을 대를 이어 옳게 계승해나가야 합니다.

당의 위업을 계승해나가는데서 기본은 정치적수령의 후계자문제를 바로 해결하는것입니다.

로동계급의 당 건설에서 후계자문제는 정치적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계승하는 문제입니다. 수령의 령도적 지위와 역할은 그 후계자에 의하여 변함없이 계승되여야 합니다. 대를 이어 계속되는 로동계급의 당의 위업을 누가 어떻게 계승하는가 하는것은 당의 운명,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하며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령도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는 품격과 자질을 갖춘 인민의 지도자를 후계자로 내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혁명의 전진도상에 어떤 어렵고 복잡한 정세가 조성되여도 동요와 우여곡절이 없이 당의 위업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습니다.

당의 위업을 옳게 계승해나가기 위하여서는 후계자를 바로 내세우는것과 함께 그의 령도를 실현할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쌓고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당의 기초를 쌓고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잘하여야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높이고 당대오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순결성을 고수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로동계급의 당은 당건설에서 이 사업을 중요한 문제로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혁명위업의 계승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였습니다.

우리 당의 사상과 령도를 계승할수 있도록 당수뇌부가 튼튼히 꾸려지고 당의 조직사상적기초가 반석같이 다져졌으며 당의 령도체계가 확고히 수립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 건설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이며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합니다. 특히 당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당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은 당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야 하며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당의 통일단결을 좀먹는 온갖 현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당중앙위원회의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당중앙위원회의 령도체계를 조금이라도 약화시킨다면 당이 전투력있는 조직적부대로 될수 없으며 당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성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중앙위원회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그것을 공고화하는 사업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당의 위업을 계승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당이 이룩한 혁명전통을 옳게 계승해나가는것입니다.

우리 당이 계승하여야 할 혁명전통은 주체의 혁명전통입니다. 주체의 혁명전통은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시되고 해방후 여러 단계의 혁명과업을 수행하

는 과정에 더욱 풍부화되였으며 오늘 우리 당의 정력적인 투쟁에 의하여 계속 발전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견결히 옹호하고 계승해나가야 합니다.

혁명전통을 계승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보장하는것입니다.

혁명전통을 계승하는데서 순결성을 보장한다는것은 오직 우리 당이 이룩한 주체의 혁명전통만을 인정하고 그것을 계승발전시켜나가며 이밖에는 그 어떤 다른 《전통》도 인정하지 않는것입니다. 한때 우리 당안에 기여들었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항일빨찌산의 전통만이 혁명전통으로 되는것이 아니라느니, 혁명전통의 폭을 상하좌우로 넓혀야 한다느니 하면서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 오가잡탕을 섞어넣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우리 당의 혁명전통과 인연이 없는것을 들고나와 혁명전통과 뒤섞어놓으려고 한것은 혁명전통을 거세하고 자기들의 종파적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책동이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흐리게 하거나 말살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순결하게 계승해나가야 합니다.

로동계급의 당의 위업은 공산주의가 건설된 다음에도 계속되며 따라서 공산주의사회의 요구에 맞게 당을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공산주의사회에서도 끊임없이 계속되게 됩니다.

공산주의사회가 건설되면 인간해방을 내용으로 하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완전히 실현되지만 그때에 가서도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는 끊임없이 높아집니다. 공산주의사회에서 끊임없이 높아지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맞게 사람들을 교육교양하고 사회관계를 개선하며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공산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을 교육교양하고 사회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더욱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며 자연을 개조하고 물질적부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도 보다 거창한 범위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사회가 건설된 다음에도 당과 같은 령도적정치조직이 있어야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옳게 이끌어나갈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사회에서도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공산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되여 사회적구성이 단일화되고 모든 사회성원들의 근본요구와 리해관계가 일치하게 되지만 공산주의사회에서도 사회공동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정치적령도가 없이는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할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사회에서 사회공동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회적운동이 진행되고 사회가 발전하려면 반드시 사회공동의 투쟁목표와 행동방향을 제시하고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하고 일치시키는 사회적기능, 정치적령도가 있어야 하는것만큼 그 담당자인 령도적정치조직이 있게 되는것은 필연적입니다.

공산주의사회는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입니다.

공산주의사회는 사람들사이의 단결과 협력관계가 매우 발전된 사회이며 온 사회가 조직적으로 굳게 결속되고 모든 사회적활동이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사회입니다. 단결과 협력은 사람들의 생존방식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존재로서 처음부터 단결하고 협력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여왔습니다. 사람들사이의 단결과 협력관계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욱 발전하며 공산주의사회에 가서 그것은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결과 협력관계의 발전, 사회의 조직적결속은 일정한 정치조직에 의하여 실현되여야 합니다. 가장 발전된 정치조직에 의해서만 사람들사이의 단결과 협력관계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룩할수 있으며 온 사회의 견고한 조직적결속과 조직적인 공동행동을 원만히 실현할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사회는 사람들이 완전한 사회정치적자주성을 가지고 가장 값높은 삶을 누리는 사회입니다.

값높은 삶이란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지닌 사람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입니다. 사람이 값높은 삶을 누리려면 사회정치조직의 성원으로서 정치생활을 하여야 하며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여야 합니다. 값높은 삶에 대한 사람들의 지향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높아집니다. 공산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은 가장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정치생활을 하며 사회공동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최대의 행복과 보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공산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의 이러한 지향과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사람들에게 가장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주고 사람들이 그것을 사회공동의 위업을 수행하는 길에서 빛내여나가도록 이끌어주는 발전된 정치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사회발전의 이러한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여야 합니다.

우리는 조선로동당을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는 정치조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자로 전망성있게 건설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자로 전망성있게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전당을 주체사상화하여야 합니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한다는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 당을 명실공히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만든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려면 모든 당원들을 열렬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어야 하며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침으로 하여 당건설과 당활동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하여야 당의 주체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끊임없이 높여 주체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자로 전망성있게 건설하기 위하여

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당건설 사상과 리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 당이 창조하고 발전풍부화시킨 당건설 사상과 리론은 당을 강화하고 주체의 당건설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침입니다.

우리는 우리 당의 주체적인 당건설 사상과 리론을 당건설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는것과 함께 그것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심화되고 사회가 발전하는데 맞게 계속 발전시키고 완성해나가야 합니다.

* *

우리 당은 지난 기간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참으로 풍부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우리 당이 얻은 당건설경험은 앞으로 우리 당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서 귀중한 밑천으로 됩니다.

당일군들은 우리 당 건설의 력사적경험을 깊이 연구학습하여 자신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며 당사업을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김일성고급당학교에 대한 우리 당의 기대는 매우 큽니다.

나는 고급당학교의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당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교수교양사업과 학습을 잘하여 당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과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리라고 믿습니다.

일군들은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책임적으로 일하여야 한다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는 전진하는 혁명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완성되여야 한다.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일을 책임적으로 하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높은 단계에서 실현되고있는 오늘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개선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일을 주인답게 책임적으로 하는 일군이라야 참다운 혁명가, 진정한 애국자라고 말할수 있다. 말은 적게 하면서도 맡겨진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충직하게 수행하는 사람, 영예도 보수도 바라지 않고 당이 위임한 혁명초소에서 묵묵히 한생을 바쳐가는 사람, 이들이 바로 로동당시대를 대표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다.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과 책임성은 주인다운 태도의 구체적발현이며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한 사람들의 고결한 성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의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일군들이 책임성을 높인다는것은 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역할을 다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일군들이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자기의 혁명임무를 실행하지 못하는것으로 됩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4권, 17~18페지)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책임적으로 일한다는것은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한다는것을 말한다.

일군들의 책임성은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주인답게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려는 각오와 태도로 표현된다. 그것은 당과 수령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어떻게 하나 기어이 수행하고야마는 높은 충실성을 지닌 일군들의 정신상태를 구현하고있으며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직책상 의무를 다하려는 각오를 반영한것이다. 주인다운 자각과 높은 책임성을 가져야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맡겨진 혁명임무를 제때에 실속있게 수행하며 빛나는 사업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높은 책임성은 일군들로 하여금 제기된 혁명과업을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수행해나가는 주인다운 사업태도를 지닐수 있게 한다.

지도일군들은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지닌 공산주의혁명가들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기본특질의 하나는 혁명과 건설에서 일관하게 자주적립장을 견지하는것이다. 자주적립장을 튼튼히 지켜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인답게 자신이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높은 책임성은 자주적립장의 구현으로서 자기 운명에 대한 주인다운 자각에 기초하고있다. 주인다운 자각이 높은 사람만이 혁명의 운명과 자기 운명을 일치시키고 그에 기초하여 혁명임무를 자신의 생활적요구로 받아들이며 그 수행에 적극 달라붙을수 있다.

주인다운 자각이 높고 책임감이 강한 일군들은 사업을 주동적으로 포치하고 지도해나간다. 혁명임무에 대한 책임성이 높은 일군들은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 일하는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일거리를 만들고 일을 찾아서 한다. 그들은 혁명임무수행에 필요한 사업 조건과 환

경을 자체로 마련하면서 일을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간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사업태도이다. 혁명투쟁에서나 건설사업에서 주체는 자기자신이며 그 누구도 자기를 대신해줄수 없다는 립장에 확고히 서서 맡겨진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는 일군이라야 당의 신임을 받는 참다운 지도일군으로 될수 있다.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맹산군당위원회와 피현군당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로부터 한결같이 존경을 받는 리유도 바로 혁명적이며 적극적인 사업태도에 있다. 그들은 군이 처해있은 불리한 조건을 타발하지도 감수하지도 않았으며 주동적으로 난관을 뚫고나갔다. 적극적인 투쟁없이 저절로 쉽게 이루어지는 사업성과란 있을수 없다. 맹산군당과 피현군당의 책임일군들은 자기 사업에 대해서는 자신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확고한 립장에서 모든 군사업을 주관하였으며 일을 설계하고 작전하는것으로부터 결실을 볼 때까지 적극적으로 투쟁하였다. 그리하여 옛날부터 사람 못살고장으로 알려졌던 맹산땅에 훌륭한 본보기군이 일떠서게 되였으며 이름없던 피현땅에 지방공업과 축산업 발전에서 앞선 단위가 생겨나게 되였다. 경험은 높은 책임성을 지니고 주동적으로 일을 전개해나가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사업하는곳에서는 당의 의도가 훌륭히 열매맺게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높은 책임성은 일군들로 하여금 제기된 혁명과업을 끝장을 볼 때까지 기어이 수행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울수 있게 한다.

지도일군들은 강의한 의지를 가진 견결한 공산주의혁명가들이다.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려는 의지는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고유한 사상정신적특질을 이룬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람만이 혁명투쟁에서 견결한 립장과 태도를 취할수 있으며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투쟁할수 있다.

높은 책임성은 자주적사상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강의한 의지는 견인불발의 정신력을 낳으며 자주적인간의 혁명가적기풍의 정신적바탕을 이룬다. 강의한 의지를 지닌 사람들의 고유한 품성은 신념의 확고성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에 있다. 의지가 강하고 책임성이 높은 사람들은 부닥친 난관과 애로를 맞받아뚫고나가며 사업을 인내성있게 전개한다.

책임성은 동요하거나 주저하는 불철저성과 량립될수 없다. 높은 책임성을 가진 일군들은 일을 절대로 중도반단하지 않으며 제기된 과업을 끝까지 꾸준하게 내민다. 그들은 지도일군으로서의 의무를 깊이 자각하고있는 투철한 혁명전위이기때문에 어렵다고 하여 도중에서 물러서거나 과업이 방대하다고 하여 중도에서 줴버리는것과 같은 무책임한 사업기풍을 배격한다.

새 사회 건설의 초시기 김책동지는 모든것이 생소하고 처음 해보는 일이였지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당과 혁명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감으로 하여 해방직후의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산업의 복구건설과 인민정권건설의 어려운 과제수행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었다. 김책동지는 일신상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돌보지 않고 모든 정력과 경험, 재능을 오직 혁명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는데 바침으로써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키고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헌신할수 있었던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혁명가적기풍에서 참다운 혁명전사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의 힘을 보게 되며 고결한 투쟁정신의 산 모범을 찾게 된다.

높은 책임성은 또한 일군들로 하여금 모든 일을 철저히 제힘으로 해나가는 혁명적인본새를 지닐수 있게 한다.

지도일군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투철한 혁명가들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기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임무를 수행해나간다.

책임성은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전제로 하고있으며 그것을 구현한것이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지닌 사람들은 혁명과 건설에서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제기되여도 맡겨진 과제를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끝까지 수행하는 고결한 혁명적립장을 견지한다. 자기 힘으로 혁명과 건설을 추진시켜나가는것은 일군들의 중요한 활동방식이며 일본새이다.

높은 책임성은 남에 대한 의존심을 철저히 버릴것을 요구한다. 의존심이 있는곳에서 책임성이 나올수 없으며 의존심을 가지고서는 아무 일도 결단성있게 처리할수 없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떠맡기거나 남의 덕으로 자기 사업을 해나가려는것은 지도일군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것이며 주인된 립장을 저버리는것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인답게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것이 바로 지도일군들이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높은 책임성을 지닌 일군들의 일본새에서 특징적인것은 자기 단위, 자기 부문 근로자들의 열의와 창발성 그리고 마련된 물질적조건에 의거하여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것은 더 찾아내면서 일을 패기있게 밀고나가는것이다. 일을 하자면 수많은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여야 하며 뜻하지 않았던 정황에 부닥치게 된다. 이러한 때 책임성이 강한 일군들은 신심과 용기를 잃지 않고 제 힘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조성된 난국을 타개해나간다. 이와 같은 일본새로 일하는 일군이라야 참다운 자주적인간이라고 말할수 있다.

룡성과 락원의 로동계급과 일군들이 1만톤프레스와 대형산소분리기를 창안제작하여온 과정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힘차게 나래치고 일군들의 책임성이 가장 높이 발양된 투쟁행정이였다. 모든것이 생소하였고 수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새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제작과정에서는 허다한 애로와 난관에 부닥치게 되였다. 그러나 공장지도일군들은 조건타발이나 하고 그 누가 해결해줄것을 앉아서 기다린것이 아니라 걸린 고리들을 자체로 풀어나가는 강의한 투지와 혁명적인 일본새를 끝까지 견지함으로써 조국의 위용을 널리 떨치는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생활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일해나가는데 지도일군들의 책임성의 높이가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렇듯 일군들의 책임성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과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려는 강의한 의지를 지닌 자주적인간의 고결한 사상정신적풍모이며 그것을 높이 발양시켜나가는 일군만이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할수 있는것이다.

조성된 정세는 오늘 혁명의 중요한 초소를 맡고있는 지도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일을 더욱더 주인답게 해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나라의 정세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계속되는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해서 의연히 긴장되여있고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1차전원회의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은 근로자들의 앙양된 혁명적열의와 적극적인 투쟁 속에서 굽임없이 심화되고있다. 날이 갈수록 지도일군들앞에 제기되는 혁명과업은 더욱더 무거워지고 수행해야 할 일들은 늘어나고있다.

점령하여야 할 투쟁목표가 방대하고 해결하여야 할 혁명과업이 복잡하게 제기되는 조건에서 혁명과 건설의 진군속도를 다그치자면 해당 단위, 해당 부문의 사업을 조직지도하여야 할 임무를 지니고있는 지도일군들이 주인다운 태도를 확고히 견지하고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간부가 모든것을 결정한다. 지도일군들이 자기가 철저히 책임진다는 립장에서 모든 사업을 조직하고 밀고나갈 때 비록 제기된 과업이 아무리 어렵고 방대하다 하여도 훌륭한 열매를 맺을수 있는것이다.

일군들은 당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기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숭고한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 어깨를 들이밀고 최대한의 마력을 냄으로써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은 스스로 혁명의 길에 나선 직업적혁명가들인것만큼 누가 보건 말건 높은 자각을 가지고 주인다운 립장에서 일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업과정에 결함이 나타났을 때에도 발뺌을 하려 할것이 아니라 자신이 책임지는 립장에 서야 합니다.》

우리 일군들은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자각적인 혁명투사들이며 그들을 통하여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이 집행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날 천대받고 억압받던 로동자, 농민들과 그 자녀들인 우리 일군들을 따사로운 한품에 안으시여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키워주시고 나라의 중요한 초소들을 맡겨주시였다. 지도일군들에게 돌려지는 당과 수령의 신임과 배려는 헤아릴수 없이 크며 우리 일군들이 지닌 임무는 참으로 책임적이다.

일군들이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자면 왕성한 사업의욕과 혁명적열정을 가지고 일해나가야 한다.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며 모든 문제를 혁신적안목으로 보고 전투적으로 풀어나가는 일군이라야 혁명하는 시대에 맞는 일본새를 갖춘 지도일군이라고 말할수 있다. 늘크데해서 하루하루를 어물어물 지내보내거나 자기 사업을 연구하지 않고 제기되는 일이나 처리하면서 안일하게 일하는것은 책임적인 사업태도와 아무런 인연도 없다.

우리 일군들은 비록 남보다 덜 자고 쉰다 하더라도 언제나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두몫, 세몫 하겠는가를 늘 생각하고 사업을 혁명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제기된 혁명과업이 방대하면 할수록 대담하게 생각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가는것이 오늘 우리 당이 바라는 일군들의 사업태도이다. 오물쪼물하면서 일을 소극적으로 벌려나가거나 앞뒤를 재면서 일에서 자리를 내지 않는것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일본새가 아니다. 모든 일군들은 사업을 대담하게 작전하고 포치하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하는 정력적인 노력가, 참다운 실천가가 되여야 한다.

창발적으로 일하는것은 일군들이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은 일군들의 창발성을 전제로 한다. 모든 사업을 구체적 실정과 조건에 맞게 창발적으로 전개해나가야 맡겨진 혁명임무를 주인답게 수행할수 있다.

일군들의 창발성은 언제나 자기 사업을 깊이 연구하고 묘술을 찾아내여 당정책관철을 위한 옳은 대책을 세워나가는데서 나타난다. 자기 사업을 연구하지 않으며 새것을 탐구하려고 노력하지 않는것은 주인다운 사업태도와 인연이 없는 일본새이다.

일군들이 맡고있는 혁명임무는 그 어느것이나 깊은 사색과 꾸준한 탐구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없다. 혁명과 건설은 복잡하고 수시로 변동되는 환경속에서 진행되며 사업의 대상도 서로 각이하다. 그러므로 천태만상을 이루는 사업내용에 대한 깊은 파악이 없이는 일이 제대로 진척될수 없으며 빛나는 사업성과도 기대할수 없는것이다. 오직 일군들이 끊임없이 사

색하고 실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조직사업을 세밀히 짜고들 때에만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밀고나갈수 있다.

일군들의 창발성은 구체적현실에 맞게 사업을 전개해나가는데서 나타난다. 사업의 내용과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특성만 생각하면서 일하거나 기존 경험과 공식에 매달려 참신하게 일하지 못하면 사업에서 전진이 이룩될수 없다. 대중을 발동하는 정치사업을 하든 경제조직사업을 하든 기성의 처방이나 낡은 격식과 틀에 맞추어 구태의연하게 사업하는것은 사고하지 않으며 능력없는 일군들의 뒤떨어진 사업태도이다.

그러므로 일군들은 잠자는 시간을 내놓고는 언제나 일에 대해 생각하고 걱정하는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찾아내며 그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혁신적으로 줄기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일군들이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형식주의, 요령주의적 일본새는 주인다운 사업태도와는 량립될수 없다. 형식주의는 사업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겉치레만 하며 일을 헐하게 되는대로 하려는 낡은 사업태도의 표현이며 요령주의는 사업을 실속있게 하지 않고 받아맞추기를 좋아하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릇된 사업태도의 표현이다.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허용해서는 당의 로선, 정책을 실속있게 관철할수 없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아무리 정확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과 방도가 옳게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을 조직지도할 책임을 지고있는 일군들이 주인답지 못하게 실속없이 일한다면 혁명과 건설에서 엄중한 후과가 생길수 있다.

책임적으로 일하는 사업기풍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낡은 사업태도, 형식주의적이며 요령주의적인 사업태도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야 한다. 낡은 사상, 낡은 일본새는 오랜 기간에 걸쳐 침습된것이고 매우 집요한것이기때문에 한두차례의 비판만으로써는 그 뿌리가 빠질수 없다. 오직 일군들속에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꾸준히 힘있게 벌려야만 혁명적인 일본새를 세울수 있다. 그러므로 일군들은 사상단련의 모든 계기들을 리용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수양하며 낡은 사상 잔재를 철저히 극복해나가야 한다.

오늘 일군들이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일을 책임적으로 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업하려는 혁명적립장이 튼튼히 서있는가 서있지 않는가 하는 세계관적문제이며 당과 수령이 맡겨준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 충실성에 관한 문제이다. 혁명임무수행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는 여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높은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는 참된 길이 있으며 우리 일군들의 삶의 보람과 크나큰 영예가 있는것이다.

모든 일군들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의 주인답게 일을 책임적으로 해나감으로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백두의 혁명정신, 천리마의 정신이 더욱 세차게 나래치게 하여야 할것이다.

당과 혁명대오를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혁명승리의 근본담보

김 리 겸

우리 당은 오늘 끊임없이 심화발전되고있는 혁명과 건설을 보다 더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당을 강화하고 혁명대오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였다.

당과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는것은 당조직들이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힘을 넣어야 할 사업이다. 당조직들은 당내부사업에 응당한 힘을 넣어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야 당앞에 나선 그 어떤 혁명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고 당앞에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이 나설수록 당조직들은 당과 혁명대오를 불패의 전투적부대로 튼튼히 꾸리는데 언제나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

당중앙이 제시한 당과 혁명대오를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과업은 모든 당조직들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당사업을 한층 더 심화시키기 위하여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 *

당과 혁명대오는 혁명의 위력한 력량이며 그것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는 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과 혁명대오를 강화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본담보입니다.》

당과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는 사업은 혁명의 정치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혁명의 승패는 먼저 그 정치적력량을 잘 꾸리는가 못꾸리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것을 떠메고나갈 힘, 주체적인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 튼튼한 주체적혁명력량을 마련하여야 당이 자기 신념과 결심에 따라 혁명의 전략과 전술을 옳바로 세우고 자체의 힘으로 그것을 실현해나갈수 있으며 따라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혁명투쟁의 성과를 담보하는 주체적혁명력량에서 중요한것은 정치적력량이다. 그것은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근로인민대중의 통일단결된 힘이다. 정치적력량은 경제적력량, 군사적력량과 함께 주체적혁명력량을 이루게 되며 그가운데서 기본으로 된다. 정치적력량은 혁명투쟁을 추동하고 능동적으로 이끌어나가는 힘이며 경제적력량과 군사적력량을 규제하는 결정적요인이다. 그러므로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기 위해서는 언제나 정치적력량을 강화하는데 보다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원래 혁명투쟁은 무엇보다먼저 정치투쟁이며 따라서 정치적력량을 어떻게 꾸리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 문제로 된다. 공산주의운동의 력사는 로동계급의 당이 주체적혁명력량, 특히 정치적력량을 튼튼히 꾸릴 때에는 혁명을 승리에로 전진시킬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혁명투쟁에서 우여곡절을 겪게 되고 실패를 면할수 없게 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기고있다.

이 모든것은 당과 혁명대오를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이 혁명승리의 근본담보

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전진은 당과 혁명대오의 위력에 의하여 보장된다.

혁명과 건설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전진한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데서 당의 지위와 역할은 중요하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다른 모든 조직들을 지도하며 근로인민대중을 수령의 혁명위업 수행에로 조직동원하는 향도적력량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직지도하는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당이 차지하는 이러한 지위와 역할로부터 혁명과 건설의 성과여부는 그 전투적위력에 의하여 좌우되게 된다.

당의 향도를 받는 혁명대오는 혁명과 건설의 담당자이며 그 추동력이다. 혁명투쟁은 조직적, 집단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수행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하나의 혁명대오를 이룬다. 혁명대오는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결정적력량으로 된다.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면 꾸릴수록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책임성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보다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이렇듯 당과 혁명대오를 강화하는것은 당의 지도적 및 향도적 역할을 높이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 당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하는 전과정에서 모든 승리의 열쇠를 당을 강화하는데서 찾고 먼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안팎의 원쑤들의 책동을 분쇄하고 혁명대오를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혁명과 건설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었다.

지난 기간 우리 혁명은 참으로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길을 걸어왔다. 이 로정에는 준엄한 혁명전쟁도 있었고 심각한 사회적변혁과 어려운 건설투쟁도 있었다. 우리 혁명이 그처럼 어렵고 간고하였지만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대렬과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그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왔기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백전백승할수 있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항일대전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된 조국땅우에 새 민주조선을 건설할 휘황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먼저 당을 창건하고 당의 두리에 광범한 애국력량을 튼튼히 묶어세워 강력한 혁명력량을 편성하시였으며 그에 의거하여 새 사회, 새생활 창조를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해방직후에 조성되였던 혼란된 정세와 난국을 빨리 타개하고 새 민주조선 건설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었다.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혁명의 엄혹한 시련이였다. 이 시련도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건설과 당사업에서 나타난 편향과 결함을 바로잡아 제때에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전체 인민을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세웠기때문에 성과적으로 이겨낼수 있었다.

전후복구건설의 성과적수행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에서의 빛나는 승리도 당대렬과 혁명대오를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정력적인 투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우리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하고 전후 짧은 기간에 인민경제복구사업을 끝냈으나 나라의 경제형편은 아직 어려웠다. 이러한 때에 당내에 남아있던 종파분자들이 당을 반대하여나섰다. 조성된 정세는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

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당을 강화하고 전체 인민을 그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전후 당이 내놓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종파주의를 반대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고수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고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을 폭로분쇄하기 위한 전당적인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혁명에 커다란 해독을 끼쳐온 종파를 청산하고 조선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였으며 그 과정을 통하여 당의 두리에 전체 인민을 더욱 굳게 묶어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된 이 위대한 힘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어렵고 복잡한 사회주의기초건설의 과업을 빛나게 완수하고 이 땅우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울수 있었으며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축성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고 사회주의건설이 힘차게 벌어지는 력사적조건에서 혁명과 건설을 보다 심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도록 이끄시여 우리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당의 대중적지반을 반석같이 다지시였다. 이것은 전당과 온 사회에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케 한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이 불패의 힘에 의하여 우리 혁명은 류례없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되였으며 짧은 력사적기간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멀리 전진하게 되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성스럽고 보람찬 투쟁이다. 이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람들을 다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회의 심장인 당과 혁명의 동력인 혁명대오를 끊임없이 강화하여야만 빛나게 실현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높이 받들어나가는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당과 혁명대오를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정수부대로 튼튼히 꾸리도록 현명하게 이끌었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선결조건으로서 전당의 주체사상화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당의 모든 활동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 복종시켜 진행하게 함으로써 당안에 주체사상만이 꽉 들어차게 하고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을 강화하였다.

또한 우리 당은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모든 활동에서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함으로써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끊임없이 강화하였으며 군중과의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웠다.

우리 당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당과 혁명대오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 수행의 요구에 맞게 튼튼히 꾸려지고 전당과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새로운 높이에서 더욱 굳건히 다져지게 되였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은 일심동체가 되여 당중앙이 의도하고 바라는것이라면 한결같이 떨쳐나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으며 그 투쟁속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위한 당의 위대한 구상이 빨리 현실로 전변되여가고있다. 우리 당의

령력적인 지도로 마련된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된 불패의 위력한 힘에 의하여 주체위업은 더욱 힘차게 전진할것이며 그 종국적승리는 확고히 담보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백두밀림에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은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자랑찬 길을 걸어왔으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진하고있다. 그러나 우리 혁명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해놓은것보다 앞으로 해야 한 일이 더 많다. 우리는 세계제국주의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맞서서 혁명을 하고있으며 놈들의 끊임없는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정세는 의연히 긴장하다. 투쟁의 길이 간고하고 정세가 긴장할수록 우리는 당과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고 당의 령도를 더 잘 받들어나가야 한다.

당과 혁명대오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대렬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29권, 374페지)

간부는 우리 당의 핵심력량이며 대중의 교양자이며, 혁명의 지휘성원이다. 간부대렬이 튼튼하여야 우리 당 대렬이 튼튼할수 있으며 간부들이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광범한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하나의 혁명대오에 굳게 묶어세우고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것을 비롯하여 우리 당의 모든 사업이 잘 되여나갈수 있다. 결국 당과 혁명대오의 공고성과 위력은 간부대렬을 어떻게 꾸리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당조직들은 간부들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출발점으로, 기본으로 틀어쥐고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는데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간부의 첫째가는 표징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당조직들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서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추호의 동요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는 충실한 사람들로 간부대렬을 꾸려야 한다.

간부대렬을 실력이 있는 사람들로 꾸리는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간부는 혁명의 지휘성원인것만큼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빨리 발전하는 오늘의 현실은 간부들이 높은 실력을 소유한것을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고있다.

간부대렬을 실력이 있는 사람들로 꾸리는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척도로 하여 간부를 선발배치한데 대한 원칙에도 전적으로 부합된다. 당과 수령에게 진정으로 충실하려면 높은 정치적자각에 능력이 안받침되여야 한다. 아무리 당과 수령에게 충실하려고 하여도 능력이 없으면 당의 의도대로 사업을 벌려나갈수 없다.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는 실력있는 일군이 참말로 당과 수령에게 충실할수 있다. 당조직들은 정치실무적자질이 높고 조직적수완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간부로 등용하여야 한다.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요구의 하나는 그 질적구성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이다. 젊은 사람들을 간부로 많이 등용하는것은 당의 령도밑에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조직들은 사업과 생활에서 단련되고 주체교육을 받은 젊은 사람들을 대담하게 등용하여 체계적으로 키워야 한다. 또한 당조직들은 당에 끝없이 충실하고 수준이 높은 로동계급출신들로 간부대렬을 꾸리는데 선차적힘을 돌림으로써 우리 당의 계급적성격을 고수하여야 한다.

간부대렬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간

부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간부들을 등용하는데 그치고 교양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낡은 사상의 영향을 받아 변질될수 있다. 당조직들은 간부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하여야 한다.

당은 당원들이 모인 정치적집단이다. 그런것만큼 당을 강력한 조직으로 만들려면 당대렬을 혁명의 정수분자들의 집단으로 꾸려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당조직들이 당원들에 대한 당조직생활지도와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하며 정치활동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는 참된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것이다.

당장성사업을 바로하는것은 당대렬을 혁명의 정수분자들의 집단으로 꾸리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당대렬을 새로 자라나는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의 우수한 선진분자들로 계속 보충하여야 당대렬의 질적구성을 끊임없이 개선하여나갈수 있으며 당의 전투력을 더욱 높일수 있다. 당조직들은 당장성사업에 깊은 주의를 돌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가운데서 당원후비를 료해장악하고 체계적으로 키워야 하며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울 각오와 결심이 되여있고 실천활동에서 선봉적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당에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주체사상이 꽉 들어찬 새세대들을 당에 많이 받아들이며 모든 당원들이 로쇠하지 않고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교양함으로써 우리 당을 영원히 혈기왕성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당과 혁명대오를 강화하는데서 언제나 첫자리에 놓아야 할 사업은 당의 통일단결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것이다.

통일단결은 당의 힘의 원천이며 당의 위력은 곧 통일단결에 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당의 통일단결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룩하였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위대성과 불패성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전체 당원들의 무한한 충실성에 기초한 통일단결이며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인 통일단결이라는데 있다. 이 위대한 통일단결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것은 당과 혁명대오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은 원래 혁명의 세대교체와 함께 줄기차게 이어져나가야 한다. 공산주의운동의 경험은 혁명의 세대가 바뀔 때 당의 통일단결을 고수하지 못하면 변절자, 우연분자들이 나타나 당을 롱락하고 혁명에 엄중한 후과를 빚어낸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혁명은 장기성과 간고성을 띠고있으며 혁명대오안에서는 세대가 바뀌여지고있다. 우리 혁명의 내외정세도 긴장하고 복잡하다. 현실은 이미 이룩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공고발전시키는 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제기하고있다.

당의 통일단결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혁명적동지애를 높이 발휘함으로써 동지적단합을 굳게 이룩하는것이다.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하여 굳게 단결하여야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통같이 뭉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더 위력한것으로 만들수 있다.

혁명조직의 통일과 단결은 혁명조직성원들사이의 동지적사랑으로 안받침될 때 비할바없이 강화되게 된다. 혁명을 하자면 뜻을 같이하는 동지가 있어야 하며 혁명가들은 바로 혁명적동지애로 굳은 단합을 이룩하여야 준엄한 혁명의 길을 서로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끗끗이 걸어나갈수 있다. 당조직들은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자기 단위, 자기 초소에서 혁명적동지애를 높이 발휘하며 그에 기초하여 굳게 단합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당의 위대한 통일단결을 보다 높

은 수준에서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것은 당과 혁명대오를 강화하는데서 언제나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당의 대중적지반을 강화하고 혁명대오를 반석같이 다질수 있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광범한 군중을 자기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것을 당과 혁명대오를 강화하기 위한 근본문제로 내세우고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군중과의 사업에 큰 힘을 넣어왔으며 지난 기간 이 사업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특히 최근에 우리 당이 취한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데 대한 조치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군중과의 사업에서는 일대 전환이 일어났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을 무한히 신뢰하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있으며 우리 당은 인민대중과 혈연적으로 련결되고 혼연일체를 이루고있다. 당조직들은 이미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군중과의 사업을 계속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당이 제시한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당이 제시한 군중로선은 군중과의 사업에서 당 조직들과 일군들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침이며 거기에는 현시기 군중과의 사업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뿐아니라 그 수행방도까지 명백히 밝혀져있다. 당조직들은 당의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군중과의 사업을 철두철미 당의 의도대로 해나가야 한다.

정연한 군중사업체계를 세우는것은 군중과의 사업을 심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핵심군중을 통하여 군중과의 사업을 하는 정연한 체계를 세우고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의 요구대로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여 그들이 핵심군중을 교양하고 그 핵심들이 광범한 군중을 교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단체를 통하여 군중과의 사업을 하는 체계를 바로세우고 근로단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모든 근로단체들이 자기의 성격과 특성에 맞게 군중과의 사업을 자립적으로, 창발적으로 능숙하게 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자면 당일군들이 혁명적군중관점을 가지고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봐주어야 한다. 우리 당은 말그대로 어머니당이며 우리 당일군은 마땅히 대중의 참다운 어머니가 되여야 한다. 부모는 육체적생명의 보호자이지만 당일군은 정치적생명의 보호자이다. 당일군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성실히 일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은 언제나 근로자들을 참된 혁명동지로 여기고 아량있게 대하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요구하는 문제들을 제때에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당일군들은 인민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그들에게 돌려지는 당과 수령의 배려가 제때에 미치게 하여야 한다. 특히 당 조직들과 일군들은 군중속에 맺혀있는 문제를 잘 풀어주어야 한다. 군중속에 맺혀있는 문제를 풀어주는것은 그들에게 당의 신임을 실천으로 표시해주는것으로서 우리 당을 진심으로 믿고 따라오게 하는데서 몇백마디의 말을 하는것보다 더 큰 작용을 한다. 당일군들은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군중속에 맺혀있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줌으로써 그들이 자기의 모든것을 당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도록 이끌어야 한다.

당과 혁명대오를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우리의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의 숭고한 의도를 높이 받들고 당대렬과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전당과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반석같이 다짐으로써 영광스러운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야 한다. 당과 인민이 일심단결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령도리론

한 기 환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운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세울뿐아니라 옳은 령도리론을 가져야 한다. 아무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여도 당이 과학적인 령도리론을 가지고 대중을 옳게 이끌지 못한다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실생활에 구현해나갈수 없으며 혁명투쟁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다.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리론은 대중에 대한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으로서 그것은 대중령도에 대한 지도일군들의 옳바른 관점과 립장을 규정하며 과학적인 사업 체계와 방법, 일군들의 사업작풍의 내용을 밝혀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적령도의 본질과 근본방향, 원칙과 방법 등을 전면적으로 해명하시였으며 특히 집권당의 령도리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대한 령도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새롭게 천명하고 완성하시였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령도리론의 혁명적본질과 내용을 깊이 학습하고 그것을 혁명실천에 빛나게 구현해나감으로써 사업 방법과 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대중을 이끌어 사회주의건설에서 보다 새로운 전환을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령도리론은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에 기초한 주체적인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이다.

다른 모든 리론과 마찬가지로 령도리론도 어떠한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는가에 따라 그 내용이 규정된다. 주체의 령도리론은 주체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전개한 령도리론이며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령도리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적령도의 본질과 근본방향, 령도 원칙과 체계, 사업 방법과 작풍에 관한 리론을 체계화하고 완성하시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도먼저 혁명적령도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밝혀준다.

혁명적령도란 본질에 있어서 당과 수령이 인민대중을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하는것을 말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서 지도문제는 다름아닌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문제입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18페지)

령도란 혁명의 동력인 인민대중을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하는것을 말하며 혁명에서 지도문제는 본질상 당과 수령의 령도문제이다. 당과 인민대중은 다같이 혁명의 주인이며 그 직접적담당자로서 혁명에서 하나의 주체를 이루고있다. 그러나 당과 인민대중은 주체적혁명력량가운데서 다같은 지위를 차지하거나 다같은 역할을 하는것이 아니다. 당은 주체적혁명력량가운데서 특수한 위치에 놓여있다.

수령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절대적지위를 차지하며 결정적역할을 한다. 근로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조직동원하며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사업은 로동계급의 수령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수령은 인민대중에게 혁명사상을 주고 전략전술을 주는 사상리론의 최고뇌수이며 인민대중을 하나의 강력한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우는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최고령도자이다.

인민대중에 대한 수령의 통일적령도는 로동계급의 당을 통하여 실현된다. 수령은 혁명의 최고령도자이며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령도를 실현하는 혁명의 참모부이다.

당과 수령의 령도를 떠나서는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주체로 될수 없고 력사의 의식적인 창조자로 될수 없다.

인민대중은 오직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서만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 당과 수령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서 령도적지위를 차지하며 령도적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대중령도는 본질에 있어서 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인것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주체의 철학적원리와 사회력사적원리에 기초하여 혁명적령도의 근본방향은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이끌어주는데 있다는것을 밝혀준다.

주체사상이 가르친바와 같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그 추동력도 인민대중에게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인민대중이 저절로 혁명의 참된 주인으로 된다거나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으로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그들을 끊임없이 령도해나가야만 인민대중은 혁명의 참된 주인으로, 그것을 추동하는 강력한 힘으로 될수 있다.

그러므로 혁명적령도의 근본방향은 혁명투쟁에서 주인의 지위를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인민대중을 이끌어나가는 바로 여기에 있으며 그러자면 그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을 철저히 지키며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해야 한다.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그들을 령도해나간다는것은 자주적립장을 철저히 지키고 창조적역할을 높이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인민대중이 자주적립장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것은 그들로 하여금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확고히 고수하도록 대중을 이끄는것이며 대중의 창조적역할을 높이도록 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창조적힘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령도해나가며 그들로 하여금 모든 문제를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는것을 말한다.

대중령도의 원칙을 정확히 규정하는 것은 대중에 대한 령도에서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령도원칙을 옳바로 규정하여야 대중령도의 본질에 맞게 령도체계를 세울수 있으며 대중령도의 근본요구를 정확히 구현해나갈수 있다.

대중령도원칙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당과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험은 당의 유일적인 지도밑에서만 국가, 경제, 문화 기관들과 근로단체들이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행동상통일을 보장할수 있으며 전체 인민대중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목적지향성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5권, 351페지)

당과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원칙이며 이 원칙에 따라 당과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것은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에 의하

여 개척되며 수령의 령도밑에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완성되여나간다.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나가며 수령의 명령, 지시에 따라 전당, 전국,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워야 근로인민대중을 하나의 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굳게 묶어세울수 있으며 사상의지 및 행동의 완전한 통일을 이룩할수 있다.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떠나서는 결코 대중을 하나의 목적 실현에로 조직동원할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갈수 없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무기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적무기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정연한 당사업체계를 확립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정치적, 정책적 지도를 강화해나갈데 대한 리론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심으로써 혁명적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참다운 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근본방도가 과학적으로 밝혀짐으로써 혁명적령도체계에서 당이 차지하는 위치가 정확히 규정되게 되였으며 당사업과 당활동을 철두철미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여 진행하고 당을 영원히 그 당을 창건한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당과 수령의 령도적지위를 확고히 보장할뿐아니라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군중로선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

혁명적군중로선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적령도의 근본원칙이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는 곧 대중에 대한 령도이며 혁명적령도의 목적은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데 있다. 혁명적군중로선은 바로 혁명투쟁에서 근로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근본원칙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대중령도에서 혁명적군중로선을 근본원칙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군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문제를 처리해나갈수 있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수령의 두리에 묶어세울수 있으며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수 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당과 수령의 유일적령도의 원칙과 군중로선의 원칙이 독창적으로 밝혀짐으로써 대중령도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으며 대중령도에서 산만성과 분산성을 극복하고 지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며 지도와 대중의 올바른 결합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참다운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사업 방법과 작풍에 관한 문제는 주체의 령도리론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당과 수령이 제시한 로선과 방침이 얼마나 성과적으로 관철되는가 하는것은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에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창조하시고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의 사업 방법, 작풍 문제에 가장 옳은 과학리론적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세기가 넘는 오랜 혁명투쟁과정에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주체의 사업방법인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창조하시였다.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창시된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된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과 그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

실에 맞게 발전시킨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에 집대성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데 있다.

사업방법의 기본에 관한 문제는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뚜렷이 밝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연과 사회의 주인은 사람이며 사람의 모든 행동을 규정하는것은 그의 사상의식에 있다는 심오한 철학적분석에 기초하여 사람들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그들의 정치적각성을 끊임없이 높이는 혁명적사업방법에 관한 리론을 창시하시였다.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혁명적사업방법에 관한 리론은 사람의 사상의식을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길을 완전히 새롭게 밝힌 가장 혁명적인 리론이다.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주체의 사업방법은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가장 위력한 혁명적사업방법으로 된다. 이 사업방법은 늘 군중속에 들어가 실정을 깊이 료해하여 문제해결의 옳바른 방도를 세우며 우가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며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워 군중이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게 하며 격식과 틀이 없이 모든 문제를 구체적 특성과 환경에 맞게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 혁명적이고 공산주의적인 사업방법이다. 이 사업방법은 지도일군들이 언제나 군중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하며 겸손하고 소박하고 너그러운 품성을 지니고 대중이 온갖 창의창발성을 다 내도록 이끌어주는 방법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에 관한 리론이 밝혀진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리론발전에서 또하나의 새로운 기여로 된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문제가 전면적으로 밝혀짐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의 참다운 령도예술이 마련되게 되였고 로동계급의 령도리론은 령도의 본질로부터 그 방향과 원칙, 사업 체계와 방법, 작풍 문제에 까지 포괄하는 하나의 전일적인 체계로 집대성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령도리론으로 완성되게 되였으며 관료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업방법을 극복하고 인민대중의 리익을 가장 견결히 옹호하며 그들의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동원하는 넓은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참으로 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령도리론은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주체의 령도리론이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가장 철저히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혁명적령도방법이며 공산주의자들의 본성에 맞는 령도방법이다.

조선혁명이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온 전로정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혁명리론을 창시하고 발전시키면서 빛나게 구현하여 위대한 결실을 가져다주신 영광스러운 행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대중령도리론의 세계관적 기초를 마련하시였으며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한 혁명적사업방법과 군중공작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의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항일유격대안에 튼튼히 세워나가시였으며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인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마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과정을 통하여 령도리론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고 풍부화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계급의 집권당이 대중을 령도하는 문제, 나라의 주인으로 된 인민대중의 새로운 처지에 맞게 그

들을 령도하는 문제, 새 조국 건설과 함께 혁명적단련이 부족하고 대중령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간부로 등용된 조건에서 혁명적사업 방법과 작풍을 금임없이 개선하는 문제,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비롯하여 로동계급이 정권을 잡은 나라에서 대중을 령도하는데서 범할수 있는 편향과 그것을 막기 위한 방도 문제 등에 관한 새로운 령도리론들을 제기하고 밝히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적령도리론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선 새 환경의 요구에 맞는 독창적인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적령도리론을 가장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시였다.

위대한 청산리방법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로 하는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이며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심화발전시킨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령도리론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이어나가는 우리 당에 의하여 발전풍부화되고 전당과 온 사회에 전면적으로 구현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시고 몸소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신 혁명적사업방법의 총체를 경애하는 수령님의 존함과 결부시켜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으로 정식화하고 그 위대성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령도방법, 사업 방법과 작풍을 금임없이 개선하는 문제,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당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벌리며 모든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확립할데 대한 문제, 당사업방법론을 옳게 세울데 대한 문제 등 주체의 령도리론을 심화발전시키며 빛나게 구현하는데서 절실히 제기되는 중요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새롭게 천명하시였다.

우리 당에 의하여 주체의 령도리론이 심화발전되고 빛나게 구현되는 과정에 당사업에서 낡은 재래식사업방법과 틀이 철저히 극복되고 당조직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게 되였으며 모든 분야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이 심화되였으며 당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비롯한 대중적운동을 통하여 이룩되고있는 변혁적성과들, 당사업과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되고있는 자랑찬 성과들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새롭게 밝혀진 우리 당의 령도리론의 위대한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해주고 있다.

모든 일군들은 혁명의 지휘성원들에게 있어서 주체의 령도리론, 혁명적사업방법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 자신들의 혁명적본분이라는 자각과 립장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령도예술을 따라배우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금임없이 개선함으로써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힘차게 전진하며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조국과 민족 앞에 쌓아올리신 혁명업적

최 금 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조국의 광복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빛나는 생애를 마치신 때로부터 60년이 지나갔다. 우리 인민은 이날에 즈음하여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치시면서 조국과 민족 앞에 쌓아올리신 선생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 있다.

김형직선생님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민족자주적으로 발전시키신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을 이룩하시고 조선혁명의 대를 굳굳이 이어놓으신 참다운 혁명가, 열렬한 애국자이시다.

1894년 7월 10일, 만경대의 애국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일찌기 혁명활동의 길에 나서시였다. 선생님께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1910년대는 일제의 조선강점과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의 사대매국행위로 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칠성판우에 올랐던 일대 수난의 시기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독점적식민지였던 조선은 세계에서 류례가 드문 야만적학정과 략탈로 말미암아 극도의 정치적무권리와 경제적파산과 문화적암흑상태에 처하여있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권, 261~262페지)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를 호시탐탐 노려오던 일제침략자들은 사대매국적인 리조봉건통치배들을 강요하여 마침내 조선을 완전식민지로 만들고 중세기적인 폭압정치를 실시하였다. 일제는 우리 나라를 헌병과 경찰망으로 뒤덮인 하나의 감옥으로, 인간의 생지옥으로 전변시켰다. 일본제국주의의 전대미문의 폭정밑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생사기로에 놓이고 온 나라는 망국의 비운에 잠겨버렸다.

유구한 력사를 두고 외래침략자들과 굴함없이 싸워 조국을 수호한 우리 인민은 결코 망국노의 운명을 그대로 감수하지 않았다. 일제의 조선강점을 전후한 시기에 애국적인민들은 도처에서 의병운동, 독립군운동, 애국문화계몽운동 등 여러가지 반일투쟁을 벌렸다. 그러나 이 모든 투쟁은 일제의 야수적탄압과 자체의 약점으로 하여 쓰라린 실패와 가슴아픈 희생만을 가져왔다.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이 처하고있던 이러한 실태는 반일독립운동의 약점을 시급히 극복하고 민족해방투쟁을 옳은 길로 이끌어나갈것을 절박한 과제로 제기하였다.

온 나라가 피바다, 불바다 속에 잠기고 온 겨레가 독립의 길을 찾아 헤매던 그때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험난하고 생소한 혁명의 새벽길을 헤치시며 조선민족해방운동의 지도자로 나서시였다.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에 처한 나라와 민족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며 직업적인 혁명가로 나서신

김형직선생님의 탁월한 지도밑에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은 새로운 발전의 길로 들어서는 력사적시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은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이끄신 탁월한 지도자이시다.

민족해방운동은 외래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예속국가 인민들이 민족적자주권과 존엄을 되찾기 위한 혁명위업이다. 이 민족적위업은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으며 오직 민족의 주체적힘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제국주의식민주의자들과 맞서 싸울 때 인민들은 식민지통치기반에서 벗어날수 있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켜나갈수 있다. 분렬되면 식민지통치배들을 때려엎을수 없고 도탄에 빠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출할수 없다는것은 지나온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사가 가르쳐준 심각한 교훈이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사대주의와 민족개량주의를 배격하고 나라의 독립을 조선사람자신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이룩해나가는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사람은 어딜 가나 조선사람의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한다.

조선독립은 누구도 가져다주지 않는다.

력사는 외세의존이 곧 망국의 길이라는것을 가르쳐주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지니신 민족자주정신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발전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구국의 기치였다. 나라를 망국에로 몰아넣은 사대주의의 쓰라린 후과를 망각하고 독립운동의 《지도자》로 자처하던 부르조아민족주의자들은 민족의 힘을 떠나 제국주의렬강의 《도움》을 받거나 일제놈들에게 《청원》하는 방법으로 독립을 얻어보려고 시도하였다. 남에게 의존하며 구걸하는 부르조아민족주의자들의 영향하에 있던 당시 민족해방운동은 실패와 우여곡절을 면할수 없었으며 의연히 질식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민족자주의 길, 이 길만이 제국주의식민지통치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해방하고 독립되고 자주적인 새 나라를 일떠세울수 있는 확고한 길이였다.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을 민족자주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것은 김형직선생님께서 투쟁과 생활에서 변함없이 견지하신 신조였으며 좌우명이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독립은 어디까지나 조선사람자신의 힘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민족자주의 립장을 내세우고 활동하심으로써 인민들의 반일의식과 민족단합의 기운은 날로 높아지게 되였고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해나가는 력사의 새 시기가 도래하게 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민족해방운동을 전진시켜나가는 옳은 길을 열어나가시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것은 조선국민회의 결성이였다.

조선국민회는 전민족이 일치단결하여 나라의 독립을 성취하며 참다운 문명국가를 건설하는것을 근본목적으로 내세운 대규모적인 반일지하혁명조직이였다. 민족자주의 정신이 힘있게 맥박치고있는 조선국민회는 자기의 이러한 혁명적성격으로 하여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을 묶어세우며 친일매국역적들과 지주, 반동관료배들을 고립시키고 타도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수행하였다. 치밀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합법적활동과 비합법적활동, 정치활동과 군사활동을 밀접히 결합하여나가는 조선국민회의 활동이 활발히 벌어짐으로써 군중을 각성시키고 조직적으로 결속하는 사업이 적극 추진되게 되였다. 전민족적범위에서의 일치단결을 이룩해나가는 조선국민회의 역할에 의하여 광범한 반일력량의 단합을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되였으며 외세의존을 배격하

고 민족의 주체적힘으로 독립운동을 벌려나가는 새 력사의 려명이 밝아왔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민족해방투쟁을 벌려나가기 위하여 반일세력의 통합과 행동통일을 실현해나가시였다.

당시 반일독립운동대렬이 오래동안 분산되여 활동하였던 조건에서 그들을 단합시켜 옳은 길로 이끌어나가는것은 민족단합의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였다.

3.1인민봉기를 전후하여 압록강연안일대와 만주의 여러곳에는 《대한독립단》을 비롯하여 여러개의 독립운동단체들이 조직되여 활동하고있었다. 이러한 단체들은 인민대중과 동떨어져 몇몇 민족주의자들과 그 영향밑에 있는 사람들을 망라하고있었으며 더우기 지도부상층의 계급적제한성과 본질적약점으로 하여 《세력권》을 확장하는데 골몰하고있었다.

그러나 당시 독립운동단체들이 반일민족해방운동에서 기본세력을 이루고있었던만큼 그들의 분파적행동을 보고만 있는다면 민족단합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수 있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그들의 분파적행동을 방지하고 나라의 독립이라는 하나의 지향과 목적 밑에 단합시키기 위한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선생님께서는 독립운동자들을 만나시여 그들의 반일적요소를 지지해주시면서 서로 반목질시하고 분립과쟁에 몰두하는 행동의 해독적후과에 대하여 인내성있게 해설해주시였다. 선생님의 높은 정치적식견과 아량있는 포옹력앞에서 탄복되여 한때 직위와 권세만을 추구하며 자기 파 중심만을 강조하고 다른 파 세력을 배척하는데 이골이 났던 《두령》들까지도 단합의 길로 나아갔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반일독립운동단체들을 하나로 묶어세워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민족단체련합촉진회를 창설하시여 독립운동대렬의 합심단결을 이룩해나가는 획기적인 계기를 열어놓으시였다. 이것은 단결의 유일한 기준을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태도여하에 두고 재산의 유무와 정견, 신앙의 차이를 불문하고 반일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단결시켜나가는 선생님의 애국활동에 의하여 이룩된 고귀한 결실이였다.

이렇듯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나라의 독립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이룩해나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은 여기에 조국과 민족 앞에 쌓아올리신 김형직선생님의 업적이 그토록 빛나고 있는것이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무산혁명의 길로 이끄시여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의 길을 개척하신것은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을 전환시키는것은 3.1운동이후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발전의 합법칙적요구였다.

3.1인민봉기는 조선인민의 애국적주지와 기백을 시위하고 일제침략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준 반면에 《외세의존》, 《평화주의》, 《청원》에 매여달렸던 부르죠아민족주의의 사상적제한성과 본질적약점을 전면적으로 드러내놓은 력사적인 계기였다. 부르죠아민족주의는 더는 민족해방운동을 이끌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민족해방운동발전의 요구를 민감하게 통찰하시고 민족주의리념으로부터 벗어나 공산주의리념에 의하여 지도되는 투쟁만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참된 길이라는것을 굳게 확신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무산혁명을 벌려나갈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조국광복을 위한 우리 민족의 일치한 념원에 순응하여 시대의 변천에 보조를 맞추어 민족자력으로 일본제국주의를 타승하고 무산민중의 권리

를 보장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총매진하여야 합니다.》

무산혁명에로의 길, 이것은 새로운 혁명적사조를 따라 움직이는 우리 나라 무산자대중의 혁명적지향이였다. 무산계급의 념원과 시대발전을 깊이 통찰하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일제를 타승하고 무산민중이 잘사는 새 사회를 건설할 원대한 구상과 포부를 안으시고 민중동원과 무장투쟁을 무산혁명을 위한 방략실현의 근본요구로 내세우시였다.

무산혁명에 관한 사상과 그 실현방도들은 광범한 반일군중을 선진사상으로 계몽각성시키고 그들을 일제의 식민지통치기반을 짓부시는 투쟁에로 조직동원함으로써 민족해방과 사회적해방을 위한 투쟁을 하나로 결합시키고 그 종국적승리를 담보하는 길을 새롭게 명시해주었다. 무산자대중의 힘으로 무산계급이 잘사는 새 사회를 건설할데 대한 김형직선생님의 높은 뜻은 망국의 비운속에 잠긴 2천만 겨레의 가슴에 삶의 리상과 투쟁의 신념, 밝은 희망을 안겨주는 재생의 홰불이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3.1인민봉기후 일어나고있는 계급적력량관계에서의 새로운 변화에 맞게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청년학생, 지식인, 애국적인 종교인, 수공업자, 중소상공인 등 반일대중을 결속하여 혁명의 동력을 꾸려나가는데 힘을 기울이시였다. 선생님께서는 당시 로동계급의 전위조직을 내오지 못하였던 조건에서 조선국민회로 하여금 로동자집결지역과 농촌에서 선진사상침투사업을 활발히 벌리며 각계층 반일세력을 조직결속하여 방향전환을 위한 투쟁을 조직적으로 담보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무지와 몽매 속에서 인간이하의 천대와 버림을 받던 근로대중이 계급적으로 각성되여나가게 되였으며 무산대중이 혁명의 길에 들어설수 있게 되였다.

근로민중을 혁명투쟁에로 이끌기 위한 선생님의 활동은 민족개량주의와의 투쟁을 동반하는 어려운 과정이였다. 《민족개조론》이요, 《계급협조》요, 《물산장려》요 하는 궤변을 늘고 민족개량주의자들은 일제를 대변하여 대중의 자주의식과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면서 무산혁명에로의 길을 가로막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민족개량주의자들의 책동을 까밝히시고 선진사조의 대두야말로 민족화목에 리롭고 민족적단합의 사상적기초로 된다는것을 강조하시였다. 특히 선생님께서는 력사적인 포평회의에서 민족개량주의와의 투쟁을 위한 요령을 제시하시여 민족개량주의의 영향으로부터 인민들을 떼내여 선진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활발히 벌리도록 이끄시였다.

김형직선생님의 지도밑에 민족해방운동을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을 전환시키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것은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간것이다.

제국주의는 자체의 침략적, 략탈적 본성으로 하여 식민지에서 결코 스스로 물러가지 않으며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야수적인 폭력에 매달린다. 식민지나라 인민들이 제국주의의 예속에서 해방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무장으로 맞서나가야 한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무장한 원쑤는 무장으로 때려눕혀야 한다는 확고한 애국적신념을 지니시고 오직 무기를 잡고 민족자력으로 일제와 맞서싸우는것을 조선독립달성의 총요원으로 규정하시였다. 무장활동에 관한 이 방침은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의 현실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이였으며 지나온 민족해방운동사가 피의 교훈으로 남긴 주되는 력사적총화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앞으로 대규모적인 무장활동을 벌릴것을 계획하시면서 무장투쟁준비를 예견성있게 추진시키시였다. 선생님의 정력적인 활동과 지도에 의하여 조선국민회 성원들과 선진적인 청년들 속에서 군사간부들이 육성되고 새로운 무장대들이 조직되였다. 그

리고 독립군무장단들이 점차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맹렬히 활동하는 선진적인 무장대로 전환되여나갔다. 이러한 무장대들은 일제의 통치기관과 경찰기관들을 대담하게 기습하여 적들에게 심대한 군사정치적타격을 가하였으며 인민대중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그들을 투쟁에로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김형직선생님의 지도밑에 이처럼 무산혁명에로의 길이 밝혀짐으로써 우리나라 민족해방운동은 무산대중에 의거하여 무장투쟁의 방법으로 새 사회를 건설해나가는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의 새 시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은 혁명의 계승자, 후비대를 키워 조선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나가는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리신 열렬한 애국자, 혁명적인 교육자이시다.

혁명의 계승자들을 튼튼히 키우는것은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다. 어렵고 장기적인 투쟁을 동반하는 혁명은 한 세대에 끝날수 없으며 여러 세대를 이어 진행되게 된다.

악랄성과 교활성에 있어서 이를데없는 강도 일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되였던 조선에서의 민족해방위업은 가장 간고하고 복잡하며 어려운 투쟁으로 이어진 혁명이였다. 이 혁명은 민족주의리념으로 가득찬 선행한 독립운동자들로써는 전진시킬수 없었으며 민족해방운동의 참다운 계승자들을 마련할 때만이 그 종국적승리를 내다볼수 있었다. 이 심각하고도 중요한 혁명의 후비육성문제에 처음으로 낯을 돌리고 그 해결을 위한 원대한 구상을 펼친 참다운 애국자는 바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이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조선혁명의 새벽길을 헤쳐나가시는 어렵고 간고한 투쟁속에서도 멀리 조선의 앞날을 내다보시며 혁명의 계승자문제를 가장 빛나게 해결해오시였다. 이 과정은 조국광복위업을 대를 이어서라도 기어코 완수해야 한다는 선생님의 《지원》의 사상이 철저히 구현되여나가는 성스러운 로정이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를 독립시키지 못할바에야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내 몸이 찢기여 가루가 될지언정 일제놈들과 싸워 이겨야 하겠습니다.

내가 싸우다가 쓰러지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싸우다가 못하면 손자가 싸워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나라의 독립을 성취하여야 합니다.》

2천만 조선동포들의 독립념원을 한가슴에 안은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당대에 못하면 대를 이어서라도 금수강산 삼천리에 새봄을 안아올 그날을 위하여 혁명적인 교육활동에 전심전력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몸소 순화학교에서 반일력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사업을 폭넓게 벌려나가시였다. 선생님께서는 교실에 《지원》이라는 족자를 써서 걸어놓으시고 학생들에게 나라의 독립과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뜻을 원대하게 가지고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부닥치는 모든 난관과 애로를 극복타개하면서 대를 이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지원》의 사상을 구현하여 선생님께서는 청소년학생들에게 우리 나라의 력사와 지리, 찬란한 문화에 대하여 세심히 가르쳐주시면서 반일애국사상을 깊이 심어나가시였다.

교육사업을 혁명활동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내세우셨기에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환경이 변하고 투쟁과업이 복잡하게 제기되여도 혁명적교육활동을 중단없이 벌려나가시였다. 조선국민회를 창건하고 조직지도하시던 그 바쁘신 속에서도 명신학교에서 후대교육사업을 줄기차게 벌리시였으며 혁명활동의 중심지를 압록강연안으로 옮기시고 민족해방운동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창한 위업을 수행

하시던 때에도 가시는곳마다에 조선인 학교들을 세우고 혁명의 계승자들을 훌륭히 육성해오시였다. 선생님께서는 교재도 집필하시여 교육내용을 민족의 구미에 맞게 개편하시기도 하고 청소년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글짓기와 연예활동, 독서회와 운동회를 조직하시기도 하였다. 때로는 시국강연과 반일연설에 출연하시였고 몸소 나팔을 부시여 청소년들의 아침체조도 지도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자신께서 교편을 잡으시고 학교를 운영하였을뿐아니라 한편 동지들과 조선국민회원들을 여러곳에 파견하여 학교를 운영하고 야학을 세워 후대교육을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은률의 광선학교와 광진학교, 의주의 양실학교와 청수의 일신학교, 수안의 몽운학교를 비롯한 각지 학교들은 김형직선생님의 원대한 뜻을 실현해나가는 터전으로, 민족의 장래를 떠메고나갈 후대를 키우는 훌륭한 교육교양기지로 되였다.

김형직선생님의 지도밑에 이렇듯 혁명적교육활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은 열렬한 애국사상과 건전한 도덕풍모, 건장한 체력을 겸비한 독립성전의 투사로 자라나고있었던것이다.

《지원》의 높은 뜻을 구현하여 혁명적교육활동과정에서 이룩하신 김형직선생님의 고귀한 업적은 혁명의 계승자문제를 훌륭히 해결할수 있게 한 불멸의 위훈으로 빛나고있다.

이렇듯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이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전생애는 나라의 독립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열렬한 애국자의 빛나는 생애였으며 후대교육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싸우신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교육자의 고결한 생애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1926년 6월 5일, 32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나신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조국과 민족 앞에 쌓아올리신 선생님의 혁명업적은 오늘도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남아있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과 선생님께서 지니셨던 조국광복의 원대한 뜻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빛나게 이어지고 위대한 결실을 가져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광휘로운 빛발로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 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민족수난의 력사를 끝장내시고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로 빛나는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를 일떠세우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일찌기 없었던 민족적대번영의 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우리는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혁명선렬들이 피로써 세우고 지켜낸 사회주의조국에서 살며 일하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미제의 새 아세아군사전략과 남조선

신 상 흡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태평양지역을 새롭게 중시하면서 이 지역에서 침략과 전쟁 책동을 그 어느때보다 강화하고있다.

미제의 책동에 의하여 아세아태평양지역에서 미제침략군과 추종국, 괴뢰들의 무력이 증강되고 그들사이의 범죄적인 군사적결탁이 강화되고있다. 그리하여 아세아지역 특히는 조선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세아지역에서 새 전쟁의 위험이 증대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구라파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교란하고있을뿐아니라 주요 자원지대이며 군사전략적요충지대인 아세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려고 책동하면서 침략의 예봉을 조선반도에 돌리고있습니다.》

미제의 아세아중시정책에서 가장 주되는 내용을 이루고있는것은 군사전략이다.

미제의 아세아군사전략은 본질에 있어서 공화국북반부를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을 핵무기로 포위공격하여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침략적인 핵전쟁전략이다.

미제는 아세아군사전략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세아에서 《나토》형의 군사동맹을 조작하며 조선해협과 말라까해협을 비롯한 극동과 동남아세아지역의 해상수송통로들을 장악하려 하고있다.

오늘 미제가 아세아에서 새로운 군사전략을 들고나오게 된것은 무엇보다도 아세아의 군사적잠재력을 동원하여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해보려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심히 약화된 저들의 국제적지위를 회복하고 21세기 《번영》을 이룩해보려는것은 미제의 변함없는 전략적목표이다. 미제는 이 전략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힘의 정책》을 일관하게 추구하여왔다.

지금까지 미제는 서구라파《나토》지역을 힘의 중심으로 하여 세계의 다른 지역에 형성된 군사쁠럭들을 여기에 련결시킴으로써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포위를 형성할수 있다고 타산하였다.

그러나 미제는 저들의 힘이 사회주의나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화된 결과 본래부터 뒤떨어졌던 상용무기분야는 물론 전략핵무기분야에서도 뒤떨어졌거나 거의 같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면서 이러한 조건에서 서구라파 한곳에서의 정면대결만으로는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포위환을 구축할수 없다고 보게 되였다. 이로부터 미제는 힘의 한계와 능력상의 부족을 아세아태평양지역에 있는 손아래《동맹자》들에게서 보충받고 그들을 하나의 군사동맹체계에 얽어맴으로써 사회주의나라들을 동서량측에서 타격할것을 타산하고있다. 다시말하여 미제는 구라파의 《나토》와 함께 극동에서도 그와 대등하게 새로운 군사쁠럭을 형성하여 량측면에서 《협공》하며 여기에 세계 기타 지역에 있는 군사쁠럭들을 련결시켜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봉쇄환을 형성하려 하고있는것이다. 미제의 아세아군사전략은 이처럼 세계제패를 위한 침략적요구로부터 나온것이다.

미제가 새 아세아군사전략을 들고나오게 된것은 또한 아세아에서 무너져가는 저들의 지배권을 회복하고 이 지역 인민들의 반제자주화투쟁을 압살해보려는것과 관련된다.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예속과 억압

밑에서 오래동안 신음하여오던 아세아 지역인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민족적독립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아세아태평양지역에서 반제혁명력량이 강화되고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급격히 장성됨으로써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지배권은 심히 약화되였으며 그로 인하여 지난날 미제가 조작하였던 《쎈토》와 《세아토》 같은 군사동맹은 붕괴되고말았다. 특히 조선전쟁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고 내리막길에 들어선 미제는 그후에도 동남아세아와 서남아세아에서 쫓겨났다. 이러한 형편에서 미제가 아세아에서 지배권을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면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할수 없는것은 물론 미국자체에도 엄중한 후과를 미칠수 있었다. 그리하여 미제는 새 아세아군사전략을 내놓고 이 지역에서 저들의 군사적위력을 강화함으로써 반제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나라들과 인민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잃었던 지배권을 다시 확립하는데로 나가게 되였던것이다.

미제가 새 아세아군사전략을 들고나오게 된것은 또한 아세아지역에 무진장하게 매장되여있는 전략자원을 략탈하기 위한것과 관련되여있다.

침략과 략탈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무력을 발동하여 다른 나라에 대한 경제적략탈을 강화한다. 오늘 미제가 바로 이런 방법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략탈을 감행하고있다. 미국국가활동의 최대의 원칙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독점자본가들에게 자원을 확보해주는것이다. 미제가 아세아군사전략을 제창하고있는것도 사실은 이 지역에 대한 군사적지배를 실현하는것과 함께 여기에 무진장하게 매장되여있는 원료, 연료 자원을 독점자본가들에게 확보해주기 위한데 있는것이다.

아세아태평양지역에는 경제군사화에 필요한 원료, 연료를 비롯한 전략자원이 풍부하며 커다란 경제적잠재력도 있다. 《아세안》에 속해있는 나라들만 하더라도 이 나라들이 생산하는 천연고무, 목재, 주석을 비롯한 여러가지 원료들은 국제시장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아직 개발되지 못한 지하자원이 풍부하다. 이러한 원료, 연료 자원들은 미국독점체들과 다국적기업들로 하여금 군침을 흘리게 하고있으며 그것을 략탈하기 위한 군사적담보를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이로부터 미제는 아세아태평양지역을 더욱 중시하는 정책을 표방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군사적간섭을 강화하고있다. 놈들이 《미국은 긴요한 아세아국가이며 태평양국가이다. 아세아태평양국가들은 미국의 중요한 동료국들이며 이 나라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것만이 미국의 리익으로 된다.》고 하면서 《21세기는 태평양세기로 될것이며 세계의 힘의 중심은 대서양으로부터 태평양으로 옮겨지고있다.》고 지껄이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모든 사실은 미제가 세계전략을 수행하는데서 아세아태평양지역에 얼마나 큰 의의를 부여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말하여준다.

미제는 아세아태평양지역을 중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곳을 저들의 세계전략을 수행하는 군사작전지역으로, 직접적인 군사행동지대로 만들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 감행하고있다.

미제는 우선 아세아태평양지역에 저들의 침략무력을 더욱 증강하고있다.

지난 시기만 하여도 미제는 《스윙전략》(《이동전략》)의 간판밑에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 서태평양에 배치되여있는 미군무력을 그곳으로 이동시키려고 하고있었다. 그러나 오늘 놈들은 이 전략을 정식으로 수정하고 아세아태평양지역에 저들의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미제는 이 지역의 주요군사요충지들과 전략자원지대들에 침략적군사기지를 신설확장하고 최신식군사장비들을 배비하

고있다. 특히 미제는 남조선과 일본에 주둔하고있는 미제침략군무력을 강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고있다. 그리고 미제는 아세아에서의 전쟁은 구라파와는 달리 해상전이 기본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미 제7함대무력을 원자력항공모함, 순양함들로 보강하고 그 핵무기적재능력을 끊임없이 높이고있다.

미제는 지상의 침략기지들에도 중성자탄과 《퍼싱—2》미싸일, 순항미싸일들을 새로 배비하였거나 배비하려 하고있다.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에 의하여 인도양에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섬이 그들의 거대한 핵공군기지, 핵기지로 전변되고 인도양에 새로운 기동함대가 편성되여 전개되였으며 필리핀에 있는 미군기지들이 강화되고 무력간섭을 위한 《신속전개무력》이 창설되였다. 이리하여 오늘 아세아태평양지역은 북태평양으로부터 일본과 남조선, 괌도와 필리핀을 거쳐 인도양과 홍해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최신무기로 장비된 미제의 륙해공군무력과 그 기지들을 련결하는 립체적인 군사망이 형성되게 되였다.

미제는 아세아군사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또한 아세아에서 저들의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의 고용군무력을 강화하고 그것을 통합하여 아세아판《나토》를 조작하기 위한 책동을 강화하고있다.

미제는 일본을 우리 나라를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략에 끌어넣기 위하여 일본의 군사비를 늘이도록 강박하고있으며 그의 군사적역할의 증대를 꾀하고있다.

미제의 전략적요구에 편승하여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의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일본반동지배층은 군사비를 늘이고 《자위대》무력을 강화하면서 그 핵무장화를 다그치고있다. 뿐만아니라 일본반동지배층은 일본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고 일본주변의 4해협에 쏘련해군의 통과를 저지하는 방파제를 형성하며 1,000마일 해상로의 안전을 담보하는것을 《3대전략목표》로 설정하고있다. 그리고 미제의 요구에 따라 일본반동들은 《전수방어전략》을 《일본을 공격할수 있는 모든 대상들에게 선제타격을 가하여 제압한다》는 《전방위전략》으로 고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있다. 이것은 일본이 미제의 새 아세아군사전략의 요구에 따라 《자위대》무력이 《방어》형으로부터 《공격》형으로 방향전환을 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이밖에도 미제는 타이, 싱가포르, 오스트랄리아, 필리핀 등 여러 나라들의 군사력을 강화하는데도 커다란 힘을 돌리고있다.

아세아판《나토》를 창설하는것은 미제의 아세아군사전략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되고있다. 여기에서 기본으로 되고있는것은 미일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을 조작하는것이다. 미제는 아세아전략수행에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주요한 역할을 하고있으며 지리적으로도 중요위치에 있는 일본과 남조선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미제는 3각군사동맹을 조작함으로써 일본과 남조선에 군사적분담을 확대하며 그들을 반공돌격대로 내세우려 하고있다.

미제는 3각군사동맹조작과 함께 동남아세아나라들도 아세아판《나토》에 끌어넣으려 하고있다.

미제는 지난 시기 아세아지역에서 《나토》와 같은 집단적군사동맹을 조작하려던 계획이 실패하자 최근에는 저들을 축으로 하는 쌍무적군사동맹과 《군사원조》, 공동군사연습 등을 통하여 이 지역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지배와 영향력을 강화하고있다. 외국의 한 군사전문가가 미제의 《태평양공동체구상의 리면에는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전략이 깔려있으며 아세아나라들로 미국을 축으로 하는 쌍무적동맹관계에 기초한 군사적련합을 실현하려는것》이라고 론평한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지난 4월 미국방장관이란자가 남조선과 필리핀, 타이를 비롯하여 동남아세아나라들을 싸다니며 아세아《집단안보》를 뇌치면서 《군사원조》와 최신식군사

장비들을 넘겨주겠다고 한것도 사실은 미제가 아세아군사전략수행에 아세아나라들을 적극 끌어들이려는 책동의 일환이다.

이처럼 미제는 아세아태평양지역의 지배권을 장악하고 이 지역의 군사적요충지들과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사회주의나라들을 핵무기로 포위하고 모험적인 핵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미쳐날뛰고있다.

아세아군사전략을 수행하는데서 미제는 특히 남조선에 중요한 군사전략적의의를 부여하고있다.

그것은 우선 남조선이 미제의 아세아군사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매우 유리한 지역이기때문이다.

핵무기의 우세에 기초한 《한정핵전쟁》과 미싸일정밀도에 기초한 《핵선제타격전략》을 기본으로 하는 《핵수행전략》은 미제의 기본《군사전략》이다. 미제의 이러한 핵전략은 핵무기를 마음대로 배치하고 사용할수 있는 확정된 지역을 요구하고있다.

남조선은 아세아에서 유일한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이다. 그런것만큼 미제는 그 어떤 구속도 받음이 없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들을 남조선에 무제한으로 끌어들일수 있고 그 누구의 승인과 사전협의도 없이 핵무기를 사용할수 있는 지역으로 되고있다.

미제가 남조선에서 가지고있는 이러한 《특권》은 《핵수행전략》에서 기본내용을 이루는 《한정핵전쟁》과 《핵선제타격전략》수행의 가장 본질적인 군사적요구를 충족시키고있다.

그리고 남조선은 아세아대륙과 잇닿아있는 미국의 식민지군사침략기지이다. 남조선만큼 대륙과 깊이 련결되여있는 미국의 전방군사기지는 없다. 이것은 대륙침략을 위한 미제의 전략을 수행하는데서 남조선이 가장 주요한 위치에 놓여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미제가 아세아군사전략을 수행하는데서 남조선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있는 리유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기때문에 미제는 남조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이 지역을 핵보루로, 핵전초기지로 꾸리고 그것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는것이다.

미제가 아세아군사전략을 수행하는데서 남조선에 중요한 군사전략적의의를 부여하고있는것은 또한 남조선이 미제의 아세아군사전략에 필요한 방대한 침략무력과 군수물자들을 보장할수 있는 지역으로 되여있기때문이다.

오늘 남조선에는 현대적무기로 장비한 4만여명의 미군이 있으며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들이 집결되여있다. 거기에 100만명에 달하는 괴뢰군과 1,000여만명의 준군사인원들이 있으며 일정한 군사경제적잠재력도 있다. 그리고 남조선은 유사시에 일본본토와 태평양연안에 널려있는 미국의 군사전략기지로부터 빠르면서도 쉽게 지원을 받을수 있는 조건도 충분히 가지고있다.

이 모든것은 군사행동현지에서 방대한 무력과 군수물자를 전제로 하는 미제의 군사전략적요구를 충족시키고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주요조건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이 아세아군사전략을 수행하는데서 차지하는 주요성과 위치로부터 출발하여 미제는 남조선을 40여년동안이나 틀어쥐고 이곳을 저들의 침략적군사기지로, 직접적인 군사행동지대로 꾸리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 감행하였다.

미제는 우선 남조선의 현지군사침략기지들에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배치하고있다.

미제는 《20세기 악마의 무기》로 알려진 중성자탄을 남조선에 이미 배비하였으며 미군특수전부대 《푸른 베레모》용으로 개발된 극소형핵폭탄인 《핵배낭》을 군사분계선 가까운 미군기지들에 배비하였다. 그리고 군사분계선지역에는 핵지뢰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배치되였다. 오늘 남조선은 각종 핵무기가 1,000여개나 배비되여있는 위험한 핵기지로 전변되였다. 남조선은 핵무기배치밀도에서 세계에서 첫번째 자리를 차지

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에 핵무기와 함께 그것을 운반하기 위한 수단들을 배치하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에 핵포탄을 발사할수 있는 155미리곡사포를 비롯한 신형포들을 배치하였으며 핵폭탄적재기인 《에프—16》전투폭격기도 끌어들이였다.

미제는 남조선에 핵전쟁을 지휘,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공중전자감시소를 설치하였으며 핵미싸일공격을 위한 조기경보체계의 하나로 공중 40키로메터 구간안의 비행기들을 모두 탐지, 추적할수 있다고 하는 최신형 전자망원경과 종합전자계산기를 남조선에 배치하였다.

미제는 또한 남조선을 전술핵기지로부터 전략핵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책동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을 《미국전략의 제1선》으로 선포하고 남조선과 그 주변에 새로운 전략핵무기들을 증강배치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에 단거리핵미싸일뿐아니라 준중거리와 중거리핵미싸일 그리고 하나의 미싸일에 여러개의 핵탄두를 설치한 장거리핵미싸일들을 배치하고있으며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것이라는 구실밑에 해마다 여러차례씩 일정한 기간 미국본토와 태평양지역에 있는 군사기지들로부터 핵무기와 핵장비들을 끌어들이고있다.

미제가 해마다 여러차례씩 《비—52》전략폭격기, 《에프—111》전투폭격기, 《에이—6》, 《에이—7》 항공기들과 《엔터프라이즈》호, 《미드웨이》호, 《칼빈손》호 등 핵항공모함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고있는것은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미제는 또한 《유사시》 남조선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핵적재 함선들과 항공기들을 조선반도주변의 미군기지들에 대대적으로 증강배치하고있다.

특히 미제는 해상으로부터의 공격을 위한 무력을 증강하기에 혈안이 되여 날뛰고있다. 아세아태평양지역에 전개된 핵무력의 주력인 태평양함대에 해상발사형 순항미싸일을 비롯한 6,500개의 핵무기를 배치한 미제는 1984년부터 제7함대의 핵무력을 급속히 증강하고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미 제7함대에 배치된 2척의 항공모함을 5척으로 늘이려하고있다. 미 제7함대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것은 실제적으로 남조선에 핵무기를 배치한것이나 같은것이다.

한편 미제는 지상공격용 《토마호크》 순항미싸일을 아세아태평양지역에 있는 4척의 잠수함들에 배치하여놓았다. 그리고 놈들은 앞으로 가급적으로 빠른 시일안에 태평양함대에 속해있는 공격형 잠수함 23척, 순양함 2척, 전함 1척, 구축함 15척들에 《토마호크》순항미싸일을 배비하려 하고있으며 1980년대말까지는 그 수를 150척으로 늘이려 하고있다.

미제는 괌도의 아프라항을 기지로 하여 전개해놓은 제15잠수대의 탄도미싸일발사잠수함 10척을 1981년부터 보다 신형인 《트라이든트》잠수함으로 교체하고있으며 앤더슨기지에 배비한 《비—52》전략폭격기 14대와 오스트랄리아의 다윈기지에 배비한 《비—52》전략폭격기 3대를 1983년에 순항미싸일을 적재할수 있는 《비—52지》형으로 교체한데 이어 앞으로는 그 후계기인 《비—1》기로 교체하려 하고있다.

미제는 이처럼 남조선을 주축으로 하는 아세아태평양지역에 전략미싸일들을 대대적으로 배비함으로써 공화국북반부는 물론 중앙아세아지역까지 저들의 사정권안에 넣고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그것을 새세계전쟁으로 확대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이리하여 남조선은 미제의 새 아세아군사전략 수행을 위한 핵전초기지로 전변되였다.

미제는 또한 조선반도를 1980년대 《힘의 대결의 시험장》으로 공공연히 선포하고 조선에서 핵무기를 서슴없이 사용하기 위한 책동을 벌리고있다.

1950년에 조선을 아세아와 세계제패를 위한 《결전의 시험장》으로 정하고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가 돌이킬수 없는 참패를 당한

미제는 오늘 또다시 조선반도를 1980년대의 《힘의 대결의 시험장》으로 선포하고 《북조선에 대한 핵공격을 단행》해야 한다고 떠들면서 핵전쟁연습소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다.

미제는 해마다 《팀 스피리트》와 같은 대규모의 핵시험전쟁, 핵예비전쟁을 벌림으로써 《유사시》 남조선에 배치된 핵무기를 직접적으로 써먹으려 하고있다.

매해 남조선에서 진행되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미제의 아세아군사전략의 산물이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1976년부터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시작하고 해마다 그 규모를 확대하여온것은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더욱더 집중하여온 과정과 일치하고있다.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집중하여오던 미제는 레간집권이후에 그것이 더욱 중시되고 핵전쟁전략으로 강화됨에 따라 《팀 스피리트》군사연습자체를 핵전쟁연습으로, 핵예비전쟁으로 전환시키게 되였다.

핵무기가 수많이 배비된 남조선에서 《공세전략》에 따라 핵무기사용을 전제로 하여 벌리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남조선을 직접적군사행동지대로, 아세아대륙침략의 교두보로 하여 핵전쟁을 수행하려는데 그 주요한 목적이 있는것이다.

이처럼 남조선은 미제의 침략과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들이 꽉 들어찬 하나의 핵화약고로 전변되였으며 그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는 임의의 시각에 새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조선반도와 아세아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있는 미제의 범죄적인 전쟁정책을 그대로 두고서는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우리 나라의 평화통일에 대하여 기대할수 없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아세아와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가시고 전쟁위험을 제거하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시종일관 노력하고있으며 할수 있는 모든 대책을 다 취하고있다.

그러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외면하고 이 지역에서 정세를 긴장시켜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가고있다. 만약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시대의 절박한 요구와 인민들의 의사를 외면하고 아세아와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 도발책동을 계속 감행한다면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력사는 시대와 인류 앞에 도전한 자들이 갈길은 오직 멸망의 길밖에 없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전체 조선인민은 날로 강화되고있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고야말것이다.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제 1 7차대회보고

(1986년 3월 24일)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총비서
구스따브 후싸끄

구스따브 후싸끄동지는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제17차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보고를 하였다. 보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과 국제로동운동앞에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제17차대회를 개막하게 된다. 우리의 과업은 제16차대회이후시기와 발전된 사회주의사회건설의 전기간에 달성한 성과들을 총화하고 당면한 5개년계획기간과 현세기말까지의 전망계획기간의 사회발전 및 당사업의 중요방침을 확정하는데 있다.

1. 당과 인민의 사업총화

70년대로부터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정세는 급격히 악화되였다. 대다수 제국주의나라들은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하여 차별정책을 강화하였다. 세계경제에서는 심각한 변화들이 일어났으며 이것은 우리의 국내 경제발전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

제7차 5개년계획기간의 첫 두해동안에 경제발전속도는 떨어지게 되였다. 당중앙위원회는 정세를 분석한데 기초하여 난관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더 많은 예비를 결정적으로 탐구리용하며 과업을 철저히 수행하는데로 전당 그리고 직업동맹과 민족전선, 국가 및 행정 기관에서 일하는 당원들과 광범한 군중들을 동원하였다. 당중앙위원회와 정부는 국내 경제와 대외경제사이의 균형을 보장하여 국민소득의 장성을 다그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련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취한 조치의 정당성은 생활을 통하여 확증되였다. 벌써 1983년에 제16차대회에서 예견하였던 경제발전속도를 보장할수 있었으며 대회가 제기하였던 과제들을 전반적으로 수행할수 있었다.

제16차대회이후에 이룩한 성과들의 총화는 지난 5년동안에 우리들이 발전된 사회주의사회건설의 길을 따라 중요한 단계를 걸어왔다는것을 보여준다. 15년전 제14차대회에서 채택된 장기간의 총로선을 생활에 구현함으로써 사회주의체스꼬슬로벤스꼬는 사회경제 및 문화생활의 모든 분야들에서 현저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사회적부의 결정적지표로 되는 국민소득은 지난 15년동안에 81% 장성하였다. 공업총생산액은 97%, 건설액은 84% 증가하였다. 농업생산은 3분의 1이나 늘어났고 식료품생산에서 자급자족률이 더욱 높아졌다. 대외무역총액은 거의 2배나 증가하였다. 인민경제발전에서 지난 15년동안에 달성한 성과들은 개인소비를 44% 장성시킬수 있게 하였다. 사회공동소비는 109%나 증대되였다. 거의 180만세대분의 살림집이 건설되였다.

우리 대내정책의 관건적과업의 하나는 사회주의사회제도와 사회주의정치체제를 가일층 발전공고화하는것이다.

우리는 인민주권과 사회주의국가를 강화하여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심화발

전시키는 길로 나갔다. 로동계급의 령도적지위 그리고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인테리들의 단결이 강화되였다. 우리 사람들의 사회주의적 의식과 교양 정도가 높아졌으며 사회의 정치도덕적통일이 강화되였다. 우리 인민들과 민족들의 발전과 융합이 이루어졌다.

우리 인민은 우리 사회의 가일층의 발전이 공산당의 활동, 사회주의건설과정에 끊임없이 강화되는 당의 령도적역할에 의하여 보장된다는것을 옳게 인식하고있다. 모든 당 기관들과 조직들, 매개 당원들이 이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당의 정치조직사업과 사상사업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고 국가 및 경제 기관들과 우리 정치체제의 모든 고리들의 활동을 완성하며 전망계획기간에 수행하게 될 목표의 실현을 담보하는데 이바지하는 사업 태도와 방법 및 작풍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사회경제발전을 다그치기 위한 전략

국내와 국제적인 견지에서 우리앞에 제기되는 현 발전단계의 관건적문제는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발전을 다그치고 인민경제의 생산성과 효과성을 현저히 높이는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물질적 및 정신적 잠재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동원하는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향하는데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더욱 높이며 그 사회적담보를 강화하는것이다. 문제는 질적으로 더 높고 새로운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개성을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생활양식을 강화하기 위한 제반조건들을 마련하는데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근로자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준의 향상이 사회적부의 창조에 참가하는 그들의 적극성의 장성에 의하여 직접 조건지어진다는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앞으로의 사회발전의 가능성과 수요를 분석한데 기초하여 우리는 2000년까지의 사회경제발전의 전망에 관한 방대한 과업들을 제기하고있다. 생산의 자재 및 동력 용량이 현저히 낮아지는 조건에서도 앞으로 15년동안에 국민소득은 3분의 2이상 장성하게 된다. 사회적로동생산능률은 거의 3분의 2나 높아지게 될것이다.

생산의 모든 측면, 사회관계와 모든 관리체계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과 로동조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참다운 혁명이 과학과 기술에서 일어나고있다. 시간은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킬것을 요구하고있으며 그 성과들을 실현하고 큰 사회적효과와 생산의 기술수준과 질을 높일수 있는 기술공정에 대대적으로 빨리 받아들일것을 요구하고 있다.

과학기술발전에 기초한 인민경제의 집약화를 위한 장기전략에 관리체계와 계획화 그리고 모든 투자정책을 복종시켜야 한다. 집약화, 기술발전, 구조개혁의 실현, 관리와 계획화의 본질적개선을 위한 투쟁은 당과 국가 및 경제 기관들의 활동의 기본내용으로 되여야 한다.

전략적인 장기경제정책과 사회발전정책을 실현하는데서 우리는 제8차 5개년계획기간에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과업들은 《1986—1990년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과 2000년까지의 전망에 대한 기본방향》의 초안에 지적되여있다.

기본요구는 18～19%의 국민소득의 장성을 이룩하는것이다. 여기에서 그 증가의 92～95%는 사회적로동생산능률의 장성에 의하여 보장되여야 한다.

과학기술발전을 촉진시키는데서와 생산토대를 현대화하는데서 기계공업은 결정적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기계공업생산은 5개년계획기간에 약 4분의 1, 전기기계공업생산은 거의 3분의 2나 더 늘여야 한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연료, 동력문제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연료동력부문에서 우리 당 정책의 기본은 생산과 소비의 모

든 부문에서 연료와 에네르기를 절약하고 새로운 에네르기원천을 얻는데 돌려지고있다. 현저한 구조상 변화를 이룩하며 동시에 생태학적문제를 푸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는것은 핵동력을 발전시키는것이다. 제8차 5개년계획말에 가서 총전력생산의 거의 30%를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해야 하며 이번 세기말에 가서는 적어도 50%를 생산하여야 한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효과적인 원유가공, 전문화된 화학부문과 보다 동력소비가 적은 생산부문을 장성시키는 방향에서 구조적변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당과 사회주의국가의 정책은 합리적인 식생활의 높은 수준을 보장하고 식료품의 자급자족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농업생산의 집약화와 그 효과성을 높이는 문제는 과학기술수준, 집약화된 투자의 종합성과 질, 그 리용률 정도에 대하여 현저히 높은 요구를 제기한다.

요구성을 특별히 높이며 결정적으로 행동하고 결함과 타협하지 말아야 할 분야는 기본건설부문이다.

제8차 5개년계획기간에 우리는 9천억크로나를 기본투자에 돌리게 될것이다. 기본투자를 리용하는데서 사회주의경제의 우월성을 현저히 나타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진행하고있는 새로운 건설로부터 현대화하며 개건하는 모든 기본건설에서 원칙적인 방향전환을 이룩하며 모든 투자과정의 효과성을 높이는데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것을 요구한다.

인민경제를 앞으로 더 급속히 발전시키자면 계획화체계와 경제관리체계를 계속 완성하며 모든 경제기구들을 점차 개편하여야 한다.

체스꼬슬로벤스꼬는 제한된 원료원천을 가진 나라이며 발전된 국제분업과 대외무역관계를 가지고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사정은 경제기구를 완성하는데서 특별한 주의를 대외무역사업의 관리와 조직을 개선하는데 돌릴것을 요구한다.

3. 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사회적공정성의 실현

우리는 생활수준을 높이며 사회관계를 완성하고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실제적인 인도주의를 심화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에 1차적인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제8차 5개년계획기간 생활수준향상에서는 개인소비를 빨리 늘이고 그 구조의 질적변화를 보장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되고있다. 주민들의 화폐수입은 14%나 높아질것이 예견된다.

우리의 사회정책에서 계속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사회적보장체계이며 그 발전은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그것은 사회주의의 중요한 성과로 된다. 제8차 5개년계획기간에 이 부문에 4천700억크로나를 투자할것이 예견된다.

세계적으로 제기되고있는 절박한 문제는 생활환경보호이다. 공기와 물의 오염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는것이 필요하다. 연료동력기지에서의 구조적변화들은 그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기본투자를 심의할 때 더 엄격한 기준을 내세우는것이 필요하다.

4. 정치체제의 완성,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심화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의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강화하고 로동계급과 그의 동맹자인 협동농민과 인테리 및 기타 근로자들의 동맹을 강화하는데 관심을 돌리는것이다. 이 동맹은 우리 인민과 민족의 통일과 가일층의 융합의 사회적기초를 이룬다. 우리 나라 인민들과 민족들사이의 공통적인 리해관계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우리 사회가 통일을 끊임없이 강화하도록 하는데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완

성하며 국가 및 사회 사업과 관련한 문제토의에 근로자들을 적극 참가시키는것은 우리 정책의 시종일관한 원칙으로 되고있다. 인민정권이 그 핵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정치체제의 질과 유연성이 높아지는데 따라 우리의 사회제도는 강화될것이며 사회발전의 새로운 가능성들이 마련될것이다.

사람들의 창조적 활동과 발기 및 의식성은 사회주의사회의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된다. 그것을 발전시키고 리용하는것은 자기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근로자들의 지위를 더한층 강화하는 근본방도로 된다. 심오한 인도주의와 근로자들을 위한 민주주의로부터 흘러나오는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

앞으로 전진하는데서 우리는 우리의 사회주의국가를 강화발전시키는데 원칙적의의를 부여하고있다. 우리가 살고있는 시대와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과업들은 경제와 문화를 건설하고 사회주의적질서를 강화하며 사회주의전취물들을 지키기 위한 중요수단으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앞으로도 우리는 련방제에 기초하여 단일한 체스꼬슬로벤스꼬국가의 두 인민들과 모든 민족들의 형제적단합과 공존을 가일층 공고히 하며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의 모든 민족들사이의 단결을 가일층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갈것이다. 우리는 두 민족공화국의 자원과 가능성들을 다같이 리용하는 기초우에서 단일한 체스꼬슬로벤스꼬경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빈구호와 그리고 인권을 위한 투쟁이라는 명목밑에 우리의 법을 위반하며 우리의 정치체제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려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우리는 항시적인 주의를 우리 사회주의조국의 안전과 방위력을 공고히 하는데 계속 돌려야 한다.

5. 사상사업과 생활의 밀접한 결합

정치교양과 사상사업은 전망기간의 과업과 밀접히 결합되여야 한다.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발전된 개성, 맑스-레닌주의적세계관의 기초와 사회주의적도덕원칙들을 소유하였으며 그에 상응하게 행동하는 새형의 인간, 사회주의조국의 자각된 공민을 키워내는데 적극 이바지한다.

사람들의 이러한 고상한 품성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사회관계,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공고발전시키는 사회적, 경제적 변혁과정에 적극적으로, 자각적으로 참가함으로써만 이루어질수 있다.

인민들의 창조적힘을 동원하는것이 전진운동을 위한 규정적요인으로 되고있는 오늘 당은 사상사업에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있다. 사상사업의 방향은 세계관, 도덕 및 로동 교양을 근로자들에게 우리 경제정책의 전략적방침을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과 결합시키는것이다. 집약화의 길로 우리 경제를 급속히 이행시켜야 할 필요성, 이것은 지난날의 사회주의공업화와 농업협동화와 같은 그러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심중한 오늘의 혁명과업이다. 이 과업은 사람들의 사상과 심리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위대한 투쟁과 밀접히 관련되여있다. 이것은 관습을 반대하는 투쟁이며 많은 경우에 무능력과 지난날의 사업방법을 바꾸어 오늘날의 요구에 상응한 새로운 방법에로 이행할 능력이 없거나 그것을 바라지 않는것과의 투쟁이다.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일정하게 선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실은 사회경제강령으로부터 제기되는 과업들을 심오히 해설하는데 사회정치사업을 집중할것을 요구하며 성실성, 량심, 의무에 대한 자각적태도, 집단에 대한 책임성과 같은데 선차적인

주의를 돌려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국내 정책에 대한 해설을 국제정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사이의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국제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것이 선차적인 문제로 된다.

체스꼬슬로벤스꼬는 반공세력의 첨예한 공격대상으로 되고있는 나라들에 속한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거짓말은 사회주의를 부정하고 우리 인민이 이룩한 성과를 과소평가하여 우리 민족의 력사를 위조하기 위한것이다.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우월성을 립증하여 보여주며 우리 혁명사상의 인도주의적인 특성을 해설하여 사회주의에 대한 진실을 보급하는것이 필요하다.

과학적세계관, 사회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의 체계적인 인식과 리용에 기초하여 건설되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사회과학을 발전시켜야 한다. 경험은 정치적 실천에서 사회발전의 객관적합법칙성을 더 많이 고려할수록 사회주의건설이 더 잘 진척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회과학전선은 커다란 용감성과 체계성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생활을 분석하여야 하며 사회경제발전을 다그치고 정치체제를 개선하며 경제기구를 완성하고 앞으로의 사회발전을 예측하는데 이바지하는 리론과 제안들을 마련하는데 힘을 돌려야 한다.

6. 전쟁위험을 가시며 장기적인 평화와 진보를 위한 투쟁

체스꼬슬로벤스꼬대외정책의 기본목표는 발전된 사회주의사회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조건을 마련하는것이다.

세계에서 체스꼬슬로벤스꼬의 권위와 영향력의 원천으로 되는것은 우리 사회의 성과적이며 전면적인 발전, 우리 국가의 공고한 지위이다. 경제적 및 정신적 잠재력의 발전은 평화를 위한 투쟁, 다시말하여 핵전쟁발발위험의 제거, 국제적인 안전 및 군비축소의 실현 등 현시대의 기본문제 해결에서 우리 나라가 응당한 기여를 할수 있게 하고 있다.

현 세계정치에서 전쟁과 평화 문제에 대한 두개의 상반되는 경향과 립장의 대립이 발생하고있다. 제국주의의 침략적인 군사화정책으로 말미암아 국제정세는 긴장되였으며 인류자체의 존재를 위협하고있다. 제국주의진영 특히 미국은 사회주의를 약화시키며 군사전략상 우세를 차지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보복을 감행할 목적으로 우주군사화를 포함하여 발광적인 군비경쟁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의 대외정책의 선차적인 과업은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 특히 쏘련과의 친선을 공고히 하고 호상협조를 체계적으로 심화발전시키는것이다.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개별적나라들에서뿐아니라 전반적범위에서 빨리 그리고 전면적으로 리용할 필요가 제1차적으로 제기되고있다. 이것은 정치, 경제, 과학기술, 사상 등 모든 분야에서 호상협조의 새로운 보다 효과적인 형식을 찾아낼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과 협조관계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한다.

우리는 식민지압박으로부터 해방되였으며 자주적발전의 길에 들어선 나라들과의 평등관계와 다방면적인 호상협조를 가일층 심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오늘 이 나라들은 우리 행성에 있는 국가들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며 거기에서는 세계인구의 50%이상이 살고있다.

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은 앞으로도 자기의 진정한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의 편에 굳건히 서있을것이다. 우리는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인종주의 그리고 인종적차별의 모든 형태를 결정적으로 배격한다.

우리는 자본주의나라들과의 관계가 앞으로도 평등, 유리한 호상협조 그리고 내정불간섭의 기초우에서 발전할것을 바라고있다.

우리는 자본주의나라와 사회주의나라 사이의 아주 복잡한 문제도 회담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구라파의 안전은 중부구라파에 화학무기가 없는 지대를 창설할데 대한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공동발기의 실현에 의하여 반드시 담보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없다. 우리의 이 발기는 많은 정치세력과 정부들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7. 당의 선봉적역할, 당내부생활의 개선

우리가 지난날에 달성한 성과들을 평가하고 발전된 사회주의사회건설의 기본방향을 토의결정하는 과업을 앞에 두고있으며 2000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장기전망을 토의하는 오늘 우리는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이 우리 인민과 민족들을 위하여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것을 재삼 인식하게 된다.

우리는 자기의 모든 활동의 목적을 언제나 근로자들에게 복무하며 그들의 행복에 대한 배려, 진보와 평화를 위한 투쟁에 두었으며 오늘도 두고있는 혁명적선봉대원이라는데 대해서 우리 당은 당당히 자랑하고있다.

우리는 당이 다만 과거에 얻은 정치적밑천만으로써는 살아갈수 없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당정책에 대한 근로대중의 신뢰는 현시대의 문제해결과 강령적목적 수행에 기초하여 끊임없이 갱신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언제나 당과 인민의 공고한 통일의 기초로 되여온 현실적이며 성실한 그리고 공개적인 정책을 계속 철저히 실시할것이다.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은 오늘 높은 권위와 인민의 신뢰를 누리는 위력한 정치적력량이다. 167만 5천명의 당원들은 우리 사회의 모든 생활령역에 작용하는 거대한 대부대를 이루고있다.

새로운 력량이 당대렬에 계속 보충되는것은 당정책의 견인력을 증명해준다. 당의 로동자골간이 현저하게 공고화되였다. 로동자와 협동농민들이 오늘 당원구성의 50%이상을 차지하고있다. 당은 젊어졌으며 그 3분의 1은 35살미만의 당원들이다. 이리하여 우리 당에서는 사회주의사회건설을 계승해나갈 젊은 근위대가 자라나고있다.

당중앙위원회는 당의 건전한 장성과 당의 당원구성과 사회적 및 년령상 구성의 가일층의 질적개선, 그 정치적, 조직적, 사상적 통일의 공고화, 당의 도덕적권위의 장성에 대해 관심하는것을 1차적인 과업으로 간주하고있다.

우리가 모든 부문에서 당원들의 사업에 대한 요구성을 높이고있는 오늘 특히 중요한것은 사태평가에서의 진실성, 부족점과 결함을 보는 능력, 광범한 통보와 정상적인 보고제도 등을 비롯한 활동에서의 솔직성이다.

당 기관과 조직들에서는 문제해결에 광범한 당원들을 참가시키며 견해와 경험의 건설적인 교환, 사업결과에 대한 비판적분석 등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것이 필요하다. 전당에 레닌적령도의 집체성원칙과 개인적책임원칙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사업의 질을 개선하며 선거된 당기관과 그 전원회의 그리고 총회의 역할을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중앙위원회로부터 기층조직에 이르기까지 아주 큰 관심을 돌려야 할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문제는 당의 결정을 집행하는것이다. 이 측면에서 아직도 우리 사업에는 많은 부족점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량심적으로 그리고 헌신적으로 일하고있는것은 아니며 모든 당, 국가 및 경제 기관들이 자기 사업을 시대의 요구수준에서 발전시키고있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건설의 전행정에서 우리 당은 간부정책에 큰 관심을 돌려왔다. 우리 당은 사회생활의 모든 부문에서 능력있고 사회주의에 충실하며 검열된 일

군들을 육성하였다. 새로운 과업 즉 우리 사회의 급속한 사회경제발전과 전면적앙양에 대한 전략적방침의 결정적인 실현과 관련하여 간부들의 선발, 준비 및 배치와 이 사업에 대한 검열의 요구는 높아져야 한다. 어제날의 척도가 오늘은 벌써 불충분한것으로 되였다.

우리는 간부들의 건전한 교착과 동시에 생활과 사업이 요구하는곳에서 간부들의 합리적인 갱신을 지지한다.

오늘의 과업들은 넓은 범위에서 그리고 대담하게 능력있고 재능있는 간부들을 등용하며 경험있는 일군들의 성숙성을 사람들의 열성과 정력과 결합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지도일군들의 실무적 및 정치사상적 준비를 체계적으로 높이는 문제에 언제나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과학지식의 급속한 발전과 과학기술발전의 보급은 간부들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보충하고 간부들의 정치실무적 자질을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간부들이 맑스-레닌주의리론과 당사업방법을 소유하도록 관심을 돌려야 한다.

당의 령도적역할은 당내부생활이 보다 풍부해지고 레닌적인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이 더욱 철저히 준수될수록 보다 활동적인것으로 된다. 바로 여기에 당의 생동한 힘의 원천이 있으며 그속에서 광범한 민주주의와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책임성, 높은 규률과 하나로 결합되게 된다.

우리 공산당원들은 훌륭한 보다 공정한 세계를 위한 투쟁의 참가자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대회에서 토의하는 복잡한 계획들을 실현할 기본전제로 되는 정치, 조직, 사상적 통일과 행동통일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여기에 사회에서의 당의 선봉적역할이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먼저 실제사업에서, 말과 행동의 통일에서, 당원들이 다른 근로자들과 접촉하는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작업장과 가정에서, 새로운 과업을 창조적으로 해결하고 사회발전 모순을 극복하는 능력에서, 사회적진보와 앞으로의 전진을 위한 투쟁에서 구현된다.

우리 당의 정책은 성스러운것으로서 근로자들의 리익을 반영하고있으며 그들의 지지에 의거하고있다.

사회주의건설과 그 가일층의 심화발전은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을 증명하는것으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는 깊이 그리고 튼튼히 뿌리를 내리였다. 사회주의개척자들과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창건자들, 자본과 파쑈들의 탄압을 반대하여 근로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민족해방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기초를 마련한 여러 공산당원세대들의 념원은 실현되였다. 우리 당은 그들의 혁명적유훈에 영원히 충실할것이다.

새 과업이 제기되였을 때마다 우리 당은 그것을 실현하는데 자기의 모든 힘과 광범한 계층의 인민들의 힘을 동원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선봉대로서의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과시하였다.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달리는 되지 않을것이라고 확신한다.

근 로 자 1986년 제6호(루계 530호)

편 집 위 원 회

낸곳• 근 로 자 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1986년 6월 1일 발 행• 1986년 6월 8일

ㄱ—6505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70전

(정기간행물번호
제13206호)